

京畿道博物館 遺蹟調查報告 第2冊

抱川 城洞里 마을 遺蹟

附 抱川 城洞里山城 精密地表調查 報告
抱川 永平川 流域 文化遺蹟 地表調查 報告

1999

京畿道博物館

京畿道博物館 遺蹟調查報告 第2冊

抱川 城洞里 마을 遺蹟

李 仁 淑
宋 滿 榮

1999

京畿道博物館

發 刊 辭

우리 京畿道博物館에서는 京畿道 일대의 漢城百濟時代의 文化遺蹟에 대한 學術調查를 屢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로 坡州 舟月里 마을遺蹟에 대한 발굴조사 보고서를 京畿道博物館 遺蹟調查報告 第1冊으로 發刊하여 학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抱川 城洞里 마을遺蹟은 京畿道博物館이 1998년 5월에 영평천 유역에 대한 정밀지표조사 과정에서 새로이 발견한 유적으로 그 해 7월부터 8월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토사 채취로 노출된 마을遺蹟에 대하여 긴급조사 성격으로 발굴조사에 착수하였는데, 다행히도 9基의 住居址와 45基의 小形遺構, 1基의 溝狀遺構 등 모두 55基의 遺構를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漢城百濟時代의 遺構는 原三國時代에서 漢城百濟時代에 걸친 마을遺蹟으로 향후 百濟土器의 형성과정 및 고고학자료에 의한 漢城百濟時代의 개념 설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漢城百濟時代의 마을유적을 파괴하고 만들어진 新羅의 마을遺蹟은 한강유역 이북에서 처음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강유역을 포함한 중부지방에서 新羅의 古墳 내지 山城이 조사된 적은 있었지만, 마을遺蹟이 조사된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주거지 내에서 高句麗土器가 출토되는 점으로 미루어 城洞里 마을遺蹟은 高句麗, 百濟, 新羅의 文化가 한 곳에 집결된 三國時代 文化의 寶庫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京畿道博物館에서는 향후 城洞里 마을遺蹟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 활동과 더불어 유적보존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보고서가 三國時代 文化 研究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며, 城洞里 마을遺蹟의 발굴조사 및 보고서 발간에 열성적으로 참여한 조사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 12월

경기도박물관장 張 慶 浩

일 려 두 기

1. 유구 도면의 방위 표시는 자북이다.
 2. 도면은 유구배치도 1/200, 유적 총위도 1/150, 유구 1/60, 유물 1/3 축소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축소비가 다른 도면을 한 페이지에 편집할 경우에는 각 축소비를 도면 설명란에 명시하였다.
 3. 도면에 Tone 처리는 유적 토층 단면도상의 유구 내부와 유구 내의 소토부에 한하여 처리하였다.
 4. 유구 내부에 재퇴적된 적석부는 사진 자료로는 제시하였으나, 도면에는 제거한 상태로 묘사하였다. 또한 유구 바닥과 벽면에 노출된 자연석들도 도면에서 제외하였다.
 5. 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한 점도 빠짐없이 보고서에 실었으나, 동일 개체로 판단되거나, 또는 너무 작아 정보의 가치가 없는 토기편은 제외하였다.
-



원색사진 1. 2호 주거지 전경



원색사진 2. 6호 주거지 전경

여 백

目 次

| | |
|-----------------------|----|
| I. 머리말 | 19 |
| II. 遺蹟의 位置 및 環境 | 21 |
| 1. 位置 및 自然環境 | 21 |
| 2. 考古學的 環境 | 21 |
| III. 遺蹟의 調査 經過 | 27 |
| 1. 調査 前 狀況 | 27 |
| 2. 遺蹟의 層位 | 27 |
| 3. 調査 方法 | 29 |
| IV. 遺構와 出土遺物 | 33 |
| 1. 住居址 | 33 |
| 1) 1號 住居址 | 33 |
| 2) 2號 住居址 | 37 |
| 3) 3號 住居址 | 42 |
| 4) 4號 住居址 | 44 |
| 5) 5號 住居址 | 51 |
| 6) 6號 住居址 | 60 |
| 7) 7號 住居址 | 62 |
| 8) 8號 住居址 | 68 |
| 9) 9號 住居址 | 72 |
| 2. 小形遺構 | 77 |
| 1) 1號 小形遺構 | 77 |
| 2) 2號 小形遺構 | 80 |
| 3) 3號 小形遺構 | 82 |
| 4) 4號 小形遺構 | 83 |
| 5) 5號 小形遺構 | 83 |
| 6) 6號 小形遺構 | 84 |
| 7) 7號 小形遺構 | 85 |
| 8) 8號 小形遺構 | 85 |
| 9) 9號 小形遺構 | 87 |

| | |
|--------------------|-----|
| 10) 10號 小形遺構 | 88 |
| 11) 11號 小形遺構 | 88 |
| 12) 12號 小形遺構 | 91 |
| 13) 13號 小形遺構 | 99 |
| 14) 14號 小形遺構 | 101 |
| 15) 15號 小形遺構 | 102 |
| 16) 16號 小形遺構 | 102 |
| 17) 17號 小形遺構 | 103 |
| 18) 18號 小形遺構 | 109 |
| 19) 19號 小形遺構 | 111 |
| 20) 20號 小形遺構 | 111 |
| 21) 21號 小形遺構 | 115 |
| 22) 22號 小形遺構 | 116 |
| 23) 23號 小形遺構 | 117 |
| 24) 24號 小形遺構 | 117 |
| 25) 25號 小形遺構 | 119 |
| 26) 26號 小形遺構 | 119 |
| 27) 27號 小形遺構 | 123 |
| 28) 28號 小形遺構 | 124 |
| 29) 29號 小形遺構 | 125 |
| 30) 30號 小形遺構 | 126 |
| 31) 31號 小形遺構 | 128 |
| 32) 32號 小形遺構 | 130 |
| 33) 33號 小形遺構 | 131 |
| 34) 34號 小形遺構 | 133 |
| 35) 35號 小形遺構 | 133 |
| 36) 36號 小形遺構 | 136 |
| 37) 37號 小形遺構 | 138 |
| 38) 38號 小形遺構 | 138 |
| 39) 39號 小形遺構 | 138 |
| 40) 40號 小形遺構 | 140 |
| 41) 41號 小形遺構 | 141 |
| 42) 42號 小形遺構 | 143 |
| 43) 43號 小形遺構 | 143 |
| 44) 44號 小形遺構 | 145 |

| | |
|-----------------------|-----|
| 45) 45號 小形遺構 | 146 |
| 46) 溝狀遺構 | 146 |
| 3. 文化層 出土遺物 | 148 |
| 4. 地表採集 遺物 | 148 |
| V. 考 察 | 153 |
| 1. 段階의 設定 | 153 |
| 2. 漢城百濟時代의 마을遺蹟 | 156 |
| 1) 遺構 | 156 |
| 2) 遺物과 編年的 位置 | 159 |
| 3. 新羅時代의 마을遺蹟 | 162 |
| 1) 遺構 | 162 |
| 2) 遺物과 編年的 位置 | 163 |
| VI. 맺음말 | 166 |

圖 面 目 次

| | | |
|--------|--|----|
| 도면 1. | 포천 성동리유적 위치 및 주변의 문화유적 | 22 |
| 도면 2. | 포천 성동리유적 조사지역 및 주변 지형도 | 24 |
| 도면 3. | 포천 성동리유적 층위도 | 28 |
| 도면 4. | 포천 성동리유적 유구배치도 | 31 |
| 도면 5. | 1호 주거지와 출토유물 | 34 |
| 도면 6. |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36 |
| 도면 7. |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38 |
| 도면 8. | 2호 주거지 | 39 |
| 도면 9. | 2호 주거지 출토유물 | 41 |
| 도면 10. | 3호 주거지 및 19호 소형유구와 3호 주거지, 19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 43 |
| 도면 11. | 4호 주거지 및 20호 소형유구 | 45 |
| 도면 12. | 4호 주거지 출토유물 | 46 |
| 도면 13. | 4호 주거지 출토유물 | 49 |
| 도면 14. | 4호 주거지 출토유물 | 50 |
| 도면 15. | 4호 주거지 출토유물 | 51 |
| 도면 16. | 5호 주거지와 출토유물 | 53 |
| 도면 17. | 5호 주거지 출토유물 | 55 |
| 도면 18. | 5호 주거지 출토유물 | 57 |
| 도면 19. | 5호 주거지 출토유물 | 59 |
| 도면 20. | 6호 주거지 출토유물 | 61 |
| 도면 21. | 6호 및 7호 주거지와 7호 주거지 출토유물 | 63 |
| 도면 22. | 7호 주거지 출토유물 | 65 |
| 도면 23. | 7호 주거지 출토유물 | 67 |
| 도면 24. | 7호 주거지 출토유물 | 68 |
| 도면 25. | 8호 주거지와 출토유물 | 69 |
| 도면 26. | 8호 주거지 출토유물 | 71 |
| 도면 27. | 9호 주거지 및 34호, 36호 소형유구와 9호 주거지 출토유물 | 73 |
| 도면 28. | 9호 주거지 출토유물 | 75 |
| 도면 29. | 9호 주거지 출토유물 | 76 |
| 도면 30. | 1호 소형유구와 출토유물 | 78 |

| | |
|--|-----|
| 도면 31. 1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 79 |
| 도면 32. 2호 및 3호 소형유구와 2호 소형유구, 3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 81 |
| 도면 33. 4호 및 5호 소형유구 | 83 |
| 도면 34. 6호 소형유구와 출토유물 | 84 |
| 도면 35. 7호 및 8호 소형유구와 7호 소형유구, 8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 86 |
| 도면 36. 9호 소형유구와 출토유물 | 87 |
| 도면 37. 10호 및 11호 소형유구와 10호 소형유구, 11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 89 |
| 도면 38. 12호 소형유구와 출토유물 | 92 |
| 도면 39. 12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 94 |
| 도면 40. 12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 95 |
| 도면 41. 12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 98 |
| 도면 42. 13호 소형유구와 출토유물 | 100 |
| 도면 43. 14호 및 15호 소형유구 | 102 |
| 도면 44. 16호 소형유구와 출토유물 | 103 |
| 도면 45. 17호 소형유구와 출토유물 | 104 |
| 도면 46. 17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 107 |
| 도면 47. 17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 109 |
| 도면 48. 18호 소형유구와 출토유물 | 110 |
| 도면 49. 20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 112 |
| 도면 50. 20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 114 |
| 도면 51. 21호, 22호, 23호 소형유구 | 115 |
| 도면 52. 21호 소형유구, 22호 소형유구, 23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 118 |
| 도면 53. 24호 및 25호 소형유구와 24호 소형유구, 25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 119 |
| 도면 54. 26호 및 27호 소형유구와 26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 121 |
| 도면 55. 26호 소형유구, 27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 122 |
| 도면 56. 29호 소형유구와 출토유물 | 126 |
| 도면 57. 30호 소형유구와 출토유물 | 127 |
| 도면 58. 31호 소형유구와 출토유물 | 129 |
| 도면 59. 32호 및 33호 소형유구와 32호 소형유구, 33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 132 |
| 도면 60. 35호 소형유구와 출토유물 | 134 |
| 도면 61. 35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 135 |
| 도면 62. 36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 137 |
| 도면 63. 37호, 38호, 39호, 40호 소형유구와 39호 소형유구, 40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 139 |
| 도면 64. 41호 및 42호 소형유구와 41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 142 |
| 도면 65. 43호, 44호 소형유구 및 구상유구와 44호 소형유구, 구상유구 출토유물 | 144 |

| | | |
|--------|----------------------------|-----|
| 도면 66. | 45호 소형유구와 출토유물 | 147 |
| 도면 67. | Ⅱ문화층 및 Ⅲ문화층과 지표채집 유물 | 149 |
| 도면 68. | 지표채집 유물 | 151 |
| 도면 69. | 지표채집 유물 | 152 |
| 도면 70. | 포천 성동리유적 3차원 지형도 | 154 |
| 도면 71. | 단계별 유구분포도 | 157 |

寫 眞 目 次

| | | |
|--------|---|-----|
| 사진 1. | 포천 성동리유적 전경(①:원경, ②:근경) | 171 |
| 사진 2. | 조사전 전경(①)과 교란지역 조사 시굴갱(②) | 172 |
| 사진 3. | 골재 채취 지역(①)과 단애면에 노출된 유구 전경(②) | 173 |
| 사진 4. | 포천 성동리유적 층위 전경 | 174 |
| 사진 5. | 조사 과정(①:유구확인작업, ②:조사후 복토작업, ③:복토후) | 175 |
| 사진 6. | 조사후 전경(①:1호~3호 주거지 주변, ②:2호, 4호, 5호 주거지 주변) ... | 176 |
| 사진 7. | 조사후 전경(①:6호~8호 주거지 주변, ②:9호 주거지 주변) | 177 |
| 사진 8. | 1호 주거지 전경(①: 조사후, ②:내부 층위) | 178 |
| 사진 9. | 1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⑭) | 179 |
| 사진 10. | 1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⑩) | 180 |
| 사진 11. | 1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⑭) | 181 |
| 사진 12. | 1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⑩) | 182 |
| 사진 13. | 2호 주거지 전경(①:조사후, ②:온돌시설 노출 상태) | 183 |
| 사진 14. | 2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⑦) | 184 |
| 사진 15. | 2호 주거지 출토 유물(①~⑩) | 185 |
| 사진 16. | 3호 주거지 전경(①:조사후, ②:19호 소형유구 중복 상태, ③:부뚜막 시설) .. | 186 |
| 사진 17. | 3호 주거지 출토 유물(①~⑮) | 187 |
| 사진 18. | 4호 주거지 전경(①:조사후, ②·③:토기 출토 상태) | 188 |
| 사진 19. | 4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④) | 189 |
| 사진 20. | 4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⑭) | 190 |
| 사진 21. | 4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⑪) | 191 |
| 사진 22. | 4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⑭) | 192 |
| 사진 23. | 4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⑩) | 193 |
| 사진 24. | 4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⑧) | 194 |
| 사진 25. | 4호 주거지 출토 유물(①~⑤) | 195 |

| | |
|--|-----|
| 사진 26. 5호 주거지 전경(①:조사후, ②:층위 상태, ③:유물 출토 상태) | 196 |
| 사진 27. 5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④) | 197 |
| 사진 28. 5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③) | 198 |
| 사진 29. 5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⑦) | 199 |
| 사진 30. 5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⑪) | 200 |
| 사진 31. 5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⑦) | 201 |
| 사진 32. 5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⑨) | 202 |
| 사진 33. 5호 주거지 출토 유물(①~⑫) | 203 |
| 사진 34. 6호 주거지 전경(①:7호 주거지 중복 상태, ②:조사후) | 204 |
| 사진 35. 6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⑦) | 205 |
| 사진 36. 6호 주거지 출토 유물(①~⑧) | 206 |
| 사진 37. 7호 주거지 전경(①:조사후, ②:기둥구멍 노출 상태) | 207 |
| 사진 38. 7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⑩) | 208 |
| 사진 39. 7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⑤) | 209 |
| 사진 40. 7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⑩) | 210 |
| 사진 41. 7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③)와 8호 주거지 전경(④) | 211 |
| 사진 42. 8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⑧) | 212 |
| 사진 43. 8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⑫) | 213 |
| 사진 44. 8호 주거지 출토 유물(①~④) | 214 |
| 사진 45. 9호 주거지 전경(①:조사후, ②:부뚜막 노출 상태, ③·④:유물 노출 상태) | 215 |
| 사진 46. 9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④) | 216 |
| 사진 47. 9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⑬) | 217 |
| 사진 48. 9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⑥) | 218 |
| 사진 49. 9호 주거지 출토 유물(①~⑨) | 219 |
| 사진 50. 1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내부 층위) | 220 |
| 사진 51. 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⑥) | 221 |
| 사진 52. 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⑪) | 222 |
| 사진 53. 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⑫) | 223 |
| 사진 54. 2호, 3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중복 상태) | 224 |
| 사진 55. 2호 소형유구 층위 상태(①)와 3호 소형유구 전경(②) | 225 |
| 사진 56. 2호 소형유구(①~⑬)와 3호 소형유구(⑭~⑯) 출토 토기 | 226 |
| 사진 57. 4호(①), 5호(②) 소형유구 전경 | 227 |
| 사진 58. 6호 소형유구(①)와 출토 토기(②~⑥) | 228 |
| 사진 59. 7호 소형유구(①)와 출토 토기(②~④) | 229 |
| 사진 60. 8호 소형유구(①)와 출토 토기(②~⑤) | 230 |

| | |
|--|-----|
| 사진 61. 9호 소형유구(①)와 출토 토기(②~⑤) | 231 |
| 사진 62. 10호(②), 11호(③) 소형유구와 중복 상태(①) | 232 |
| 사진 63. 10호 소형유구(①, ②), 11호 소형유구(③~⑫) 출토 토기 | 233 |
| 사진 64. 11호 소형유구 출토 유물(①~⑪) | 234 |
| 사진 65. 12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철검 출토 상태) | 235 |
| 사진 66. 1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④) | 236 |
| 사진 67. 1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③) | 237 |
| 사진 68. 1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⑥) | 238 |
| 사진 69. 1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⑫) | 239 |
| 사진 70. 1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⑩) | 240 |
| 사진 71. 1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⑯) | 241 |
| 사진 72. 1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⑮) | 242 |
| 사진 73. 1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⑫) | 243 |
| 사진 74. 12호 소형유구 출토 유물(①~⑫) | 244 |
| 사진 75. 13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내부 층위) | 245 |
| 사진 76. 13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⑨) | 246 |
| 사진 77. 13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⑧) | 247 |
| 사진 78. 14호(①), 15호(②) 소형유구 전경 | 248 |
| 사진 79. 16호 소형유구 전경(①:내부 층위, ②:구슬 출토 상태)과 출토 유물(③~⑤) | 249 |
| 사진 80. 17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동물이빨 출토 상태) | 250 |
| 사진 81. 17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⑦) | 251 |
| 사진 82. 17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⑨) | 252 |
| 사진 83. 17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⑪) | 253 |
| 사진 84. 17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⑨) | 254 |
| 사진 85. 17호 소형유구 출토 유물(①~⑥) | 255 |
| 사진 86. 18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내부 층위) | 256 |
| 사진 87. 18호 소형유구 출토 유물(①~⑨) | 257 |
| 사진 88. 19호(①), 20호(③) 소형유구 전경과 19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②) | 258 |
| 사진 89. 20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⑮) | 259 |
| 사진 90. 20호 소형유구 출토 유물(①~⑱) | 260 |
| 사진 91. 21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내부 층위) | 261 |
| 사진 92. 2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⑬) | 262 |
| 사진 93. 21호 소형유구 출토 유물(①, ②)과 22호 소형유구(③) | 263 |
| 사진 94. 22호 소형유구 내 토기 출토 상태(①)와 토기(②) | 264 |
| 사진 95. 23호 소형유구(①)와 출토 유물(②~④) | 265 |

| | |
|---|-----|
| 사진 96. 24호 소형유구(①)와 출토 유물(②~④) | 266 |
| 사진 97. 25호 소형유구(①)와 출토 토기(②, ③) | 267 |
| 사진 98. 26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내부 층위) | 268 |
| 사진 99. 26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⑯) | 269 |
| 사진 100. 27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내부 층위) | 270 |
| 사진 101. 27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⑬) | 271 |
| 사진 102. 27호 소형유구 출토 유물(①~⑤) | 272 |
| 사진 103. 28호(①), 29호(②) 소형유구 전경 | 273 |
| 사진 104. 29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⑬) | 274 |
| 사진 105. 30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내부 층위) | 275 |
| 사진 106. 30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⑮) | 276 |
| 사진 107. 31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내부 층위) | 277 |
| 사진 108. 3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⑰) | 278 |
| 사진 109. 32호, 33호 소형유구 전경(①)과 32호 소형유구 내부 층위(②) | 279 |
| 사진 110. 32호 소형유구(①, ②), 33호 소형유구(③~⑱) 출토 토기 | 280 |
| 사진 111. 34호(①), 35호(②) 소형유구 전경 | 281 |
| 사진 112. 35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⑧) | 282 |
| 사진 113. 35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 ②) | 283 |
| 사진 114. 36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내부 층위) | 284 |
| 사진 115. 36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⑫) | 285 |
| 사진 116. 37호~40호 소형유구 중복 상태(①)와 37호 소형유구 전경(②) | 286 |
| 사진 117. 38호 소형유구 전경(①)과 39호, 40호 소형유구 중복 상태(②) | 287 |
| 사진 118. 39호, 40호 소형유구 전경(①)과 37호~40호 소형유구 조사후 전경(②) | 288 |
| 사진 119. 39호 소형유구(①~⑩), 40호 소형유구(⑪~⑰) 출토 유물 | 289 |
| 사진 120. 41호(①), 42호(②) 소형유구 전경 | 290 |
| 사진 121. 4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⑩) | 291 |
| 사진 122. 4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⑨) | 292 |
| 사진 123. 43호(①), 44호(②) 소형유구 전경 | 293 |
| 사진 124. 44호 소형유구(①~⑨), 구상유구(⑩~⑬) 출토 유물 | 294 |
| 사진 125. 45호 소형유구(①), 구상유구(②) 전경과 구상유구 내부 층위(③) | 295 |
| 사진 126. 45호 소형유구 출토 유물(①~⑥) | 296 |
| 사진 127. 문화층(①~⑨)과 지표채집(⑩~⑫) 토기 | 297 |
| 사진 128. 지표채집 토기(①~⑯) | 298 |
| 사진 129. 지표채집 토기(①~③) | 299 |
| 사진 130. 지표채집 유물(①~⑩) | 300 |

表 目 次

| | |
|---------------------------------|-----|
| 표 1. 포천 성동리 마을유적 주변의 문화유적 | 26 |
| 표 2. 1호 주거지 바다 출토 토기 동체부편 | 35 |
| 표 3. 1호 주거지 재퇴적층 출토 토기편 | 37 |
| 표 4. 2호 주거지 출토 토기 동체부편 | 40 |
| 표 5. 3호 주거지 출토 토기 동체부편 | 44 |
| 표 6. 4호 주거지 출토 토기 동체부편 | 48 |
| 표 7. 5호 주거지 바다 출토 토기 동체부편 | 56 |
| 표 8. 5호 주거지 출토 토기 동체부편 | 58 |
| 표 9. 7호 주거지 출토 토기 동체부편 | 66 |
| 표 10. 8호 주거지 출토 토기 동체부편 | 70 |
| 표 11. 9호 주거지 출토 토기 동체부편 | 74 |
| 표 12. 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80 |
| 표 13. 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82 |
| 표 14. 6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84 |
| 표 15. 7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85 |
| 표 16. 1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90 |
| 표 17. 1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구연부편 | 93 |
| 표 18. 1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96 |
| 표 19. 13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101 |
| 표 20. 17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108 |
| 표 21. 20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구연부편 | 113 |
| 표 22. 20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113 |
| 표 23. 2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116 |
| 표 24. 26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123 |
| 표 25. 27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124 |
| 표 26. 29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125 |
| 표 27. 30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128 |
| 표 28. 3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130 |
| 표 29. 33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133 |
| 표 30. 35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136 |
| 표 31. 36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137 |
| 표 32. 39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140 |

| | |
|-----------------------------------|-----|
| 표 33. 4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143 |
| 표 34. 44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145 |
| 표 35. 45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146 |
| 표 36. III 문화층 출토 토기 동체부편 | 148 |
| 표 37. 성동리유적 지표채집 토기 구연부편 | 150 |
| 표 38. 성동리유적 지표채집 토기 동체부편 | 150 |
| 표 39. 성동리유적 한성백제시대 주거지 명세표 | 156 |
| 표 40. 성동리유적 한성백제시대 소형유구 명세표 | 158 |
| 표 41. 성동리유적 신라시대 소형유구 명세표 | 163 |

여 백

I. 머리말

抱川 城洞里遺蹟은 지난 1998년 5월 京畿道博物館의 永平川 流域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 과정에서 새로이 발견된 유적이다. 지표조사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城洞里遺蹟은 규모가 대략 55,000여 평의 대규모 유적이며, 채집된 유물의 성격이나 유물이 채집된 지역의 지형을 고려해 볼 때, 한성백제에서 신라에 이르는 복합 마을유적일 것으로 생각되었다. 특히 유적 내의 하천 하류 쪽에서는 주로 百濟土器가 채집되고 있는 반면, 상류 쪽에서는 新羅土器가 발견되고 있어, 시기에 따른 마을의 이동이 추정되기도 하였다.

한편, 유적 내에는 토사 채취로 인하여 노출된 유구의 흔적들이 여러 곳에서 관찰되었다. 이 중에서도 성동5리 644-1, 644-2번지 일대의 500여 평은 유적이 조성된 구지표면 아래에 까지 삭도되어 다수의 住居址 및 용도불명의 小形遺構들이 지표상에 노출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京畿道博物館에서는 멸실 위기에 처해 있는 문화유적을 보호하고 경기북부지역의 삼국 시대 문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긴급 발굴조사를 계획하게 되었다.

문헌기록에 따르면,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경기 지역은 6세기 중반 이후 신라의 세력권 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문화유적이 적잖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조사된 대부분의 문화유적이 古墳 내지 山城이었기 때문에 실제 한강유역에 진출한 신라 세력의 문화양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抱川 城洞里遺蹟의 발굴자료는 향후 경기북부지역으로의 신라의 세력 확장과 관련된 많은 의문점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大邱 時至洞遺蹟과 함께 신라 마을의 구조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는 장마철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예상과는 달리 확인된 유구의 수가 많아 결국 조사 기간이 연장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경기북부 일대의 집중호우로 인한 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발굴조사는 1998년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진행되었으며, 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사 단 장 : 장경호(경기도박물관장)

지도 위원 : 한병삼(문화재위원)

김병모(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조사 위원 : 최병현(숭실대 박물관장)

박순발(충남대 고고학과 교수)

책임조사원 : 이인숙(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조 사 원 : 김성태(전 경기도박물관 고고미술부장, 현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 실장)

송만영(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영미(" ")

조사보조원: 김국환(컴퓨터그래픽 담당)

이승배(건국대 사학과 졸, 현 건국대박물관 조교)

이상봉(동국전문대학 문화재관리과 졸)

송현영(숭실대 사학과 3년)

윤재민(숭실대 사학과 2년)

김형진(" ")

이 밖에도 정석배(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가 일정 기간 발굴에 참여하였으며, 김성수(숭실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유은식(숭실대학교 박물관 조교)이 휴일을 이용하여 발굴조사에 도움을 주었다.

현장 조사가 완료될 시점인 8월 26일에 현장에서 지도위원회의를 갖고 유적의 성격 및 보존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특히 한강 이북에서 처음으로 신라의 마을유적이 조사된 점이 높이 평가되었으며, 향후 유적 보존 및 성격 파악을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회의에는 한병삼 문화재위원, 김병모 교수, 최병현 교수 외에 이남규(한신대학교 국사학과 교수)와 최종택(서울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이 참석하여 유적의 성격과 관련하여 학술적인 조언을 제시하여 주었다. 이에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린다.

현장 조사는 송만영의 책임 하에 실시하되, 유적 및 유구의 사진촬영은 이승배가 담당하였으며, 유구 실측은 김영미, 이승배, 송현영에 의해 이루어졌다. 본 보고서의 원고는 이인숙의 감수 하에 송만영이 집필하였으며, 유물 설명은 구문경(숭실대 사학과 대학원)이 보조하였다. 유물 도면의 제도 및 트레이싱 작업은 송호(추계예술대학 동양화과 졸업)가 전담하였고, 유물 사진의 촬영 및 현상·인화는 박구영(한림대학교 사학과 3년)과 이상봉이 모든 일을 도맡아 하였다. 그리고 도면 및 사진편집은 송만영이 담당하였다. 기타 城洞里遺蹟의 주변 지형에 대한 3차원 그래픽 작업은 김국환에 의해 이루어졌다.

II. 遺蹟의 位置 및 環境

1. 位置 및 自然環境

抱川 城洞里遺蹟은 행정구역상 京畿道 抱川郡 永中面 城洞5리에 위치하며, 경위도상으로는 북위 38° 1' 4", 동경 127° 15' 22" 에 해당된다(도면 1).

포천읍에서 43번 국도를 타고 북쪽으로 14km 가량 이동하면 좌측의 전곡 방향의 37번 국도와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동면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0.8km 직진하면 도로 우측에 유적으로 들어가는 비포장도로가 나온다. 이 비포장도로는 永平川을 가로지르는 白橋와 연결되는데, 조사 지점은 바로 白橋 건너 50m 지점에 위치한다(도면 2, 사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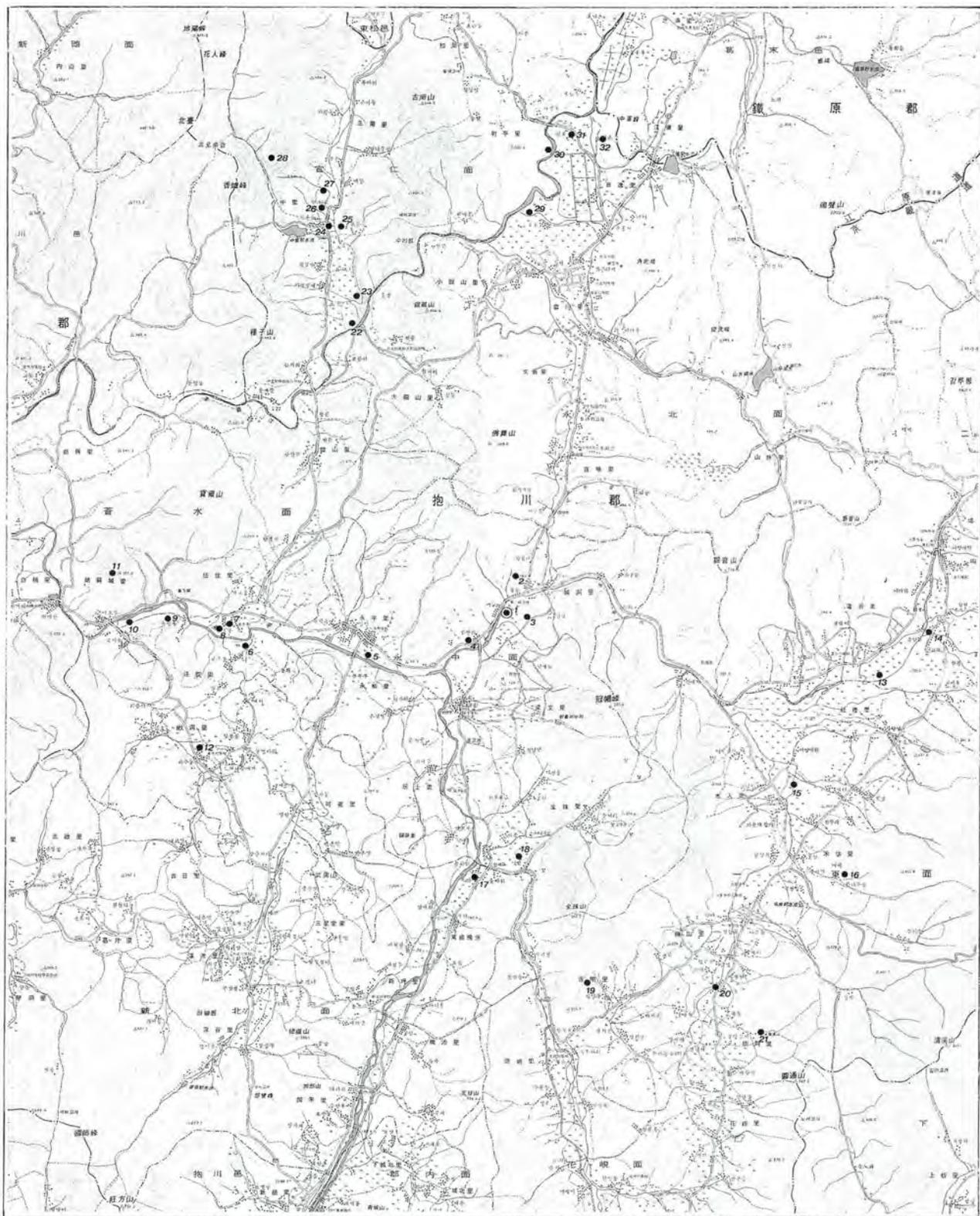
城洞里遺蹟이 속해 있는 영중면은 동쪽으로 이동면과 서쪽으로는 창수면, 남쪽으로는 신북면, 북쪽으로는 영북면과 접해 있다. 북에는 佛舞山, 觀音山의 줄기가 이어져 있으며, 동남쪽으로는 冠帽山, 金珠山의 연봉이 솟아 있고, 그 산줄기가 영중면 내에서 구릉성 산지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抱川川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면서 양문리 부근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永平川과 합류하여 창수면을 거쳐 한탄강으로 흘러간다. 특히 유적의 북서쪽으로 흐르고 있는 永平川은 포천의 동쪽에 위치한 광덕산(해발 1,046m)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이동면, 영중면, 창수면을 지나면서 주변에 비옥한 경작지를 형성하게 되는데, 유적이 위치한 지역에서의 永平川은 남서방향으로 크게 곡류하여 안쪽에 비옥한 충적대지를 형성하였다(포천군 1997).

본래 永平川 일대는 한탄강 상류지역에서의 용암의 역류 현상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하천이 봉쇄되어 호수가 되었던 지역이었으나, 호수 내부에 토양 퇴적이 진행되어 호수의 하상 고도가 용암담의 고도를 넘어서면서 정상적인 하계망이 복귀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이선복 1989).

포천군 일대의 기후는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아 최근 7년간의 연평균 기온이 11.8도이며, 강수량은 대체로 4월부터 9월까지가 雨期로서 전체 강수량의 85%를 차지하는 3대 多雨地에 속한다.

2. 考古學的 環境(도면 1, 표 1)

城洞里遺蹟이 위치하고 있는 永平川 유역 및 나아가서 전체 포천군의 문화유적은 최근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이 가운데 발굴조사라 해야야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존의 조사 현황 및 연구 성과만으로 城洞里遺蹟의 성격을 부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조사된 포천군 일대의 문화유적에 대해서 시대별로 간



도면 1. 포천 성동리유적 위치 및 주변의 문화유적

략하게 살펴봄으로써 본 유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¹⁾.

먼저 포천군 일대에서 조사된 舊石器時代 遺蹟은 관인면 중리 문배뜰유적·늘거리유적·아랫심재유적, 사정리 화적연유적, 영북면 자일리 팔호유적·신촌유적, 운천리 오호유적, 신북면 금주리유적, 영중면 성동리유적, 신장리유적, 양문리유적, 창수면 오가리유적 등 총 12개소가 알려져 있다. 이들 舊石器時代 遺蹟들은 대개 한탄강 유역과 永平川 유역, 그리고 永平川으로 유입되는 抱川川 유역의 두터운 하안단구층에서 발견되고 있다.

新石器時代 遺蹟으로는 영중면 영송리(金秉模 外 1995)와 관인면 중리유적(하문식 1993) 등 2개소만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비록 영송리유적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유구의 존재는 물론 문화층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지역의 신석기시대 문화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城洞里遺蹟에서도 조사 과정에서 櫛文土器片들이 소량 출토되긴 하였지만, 이와 관련된 유구 및 문화층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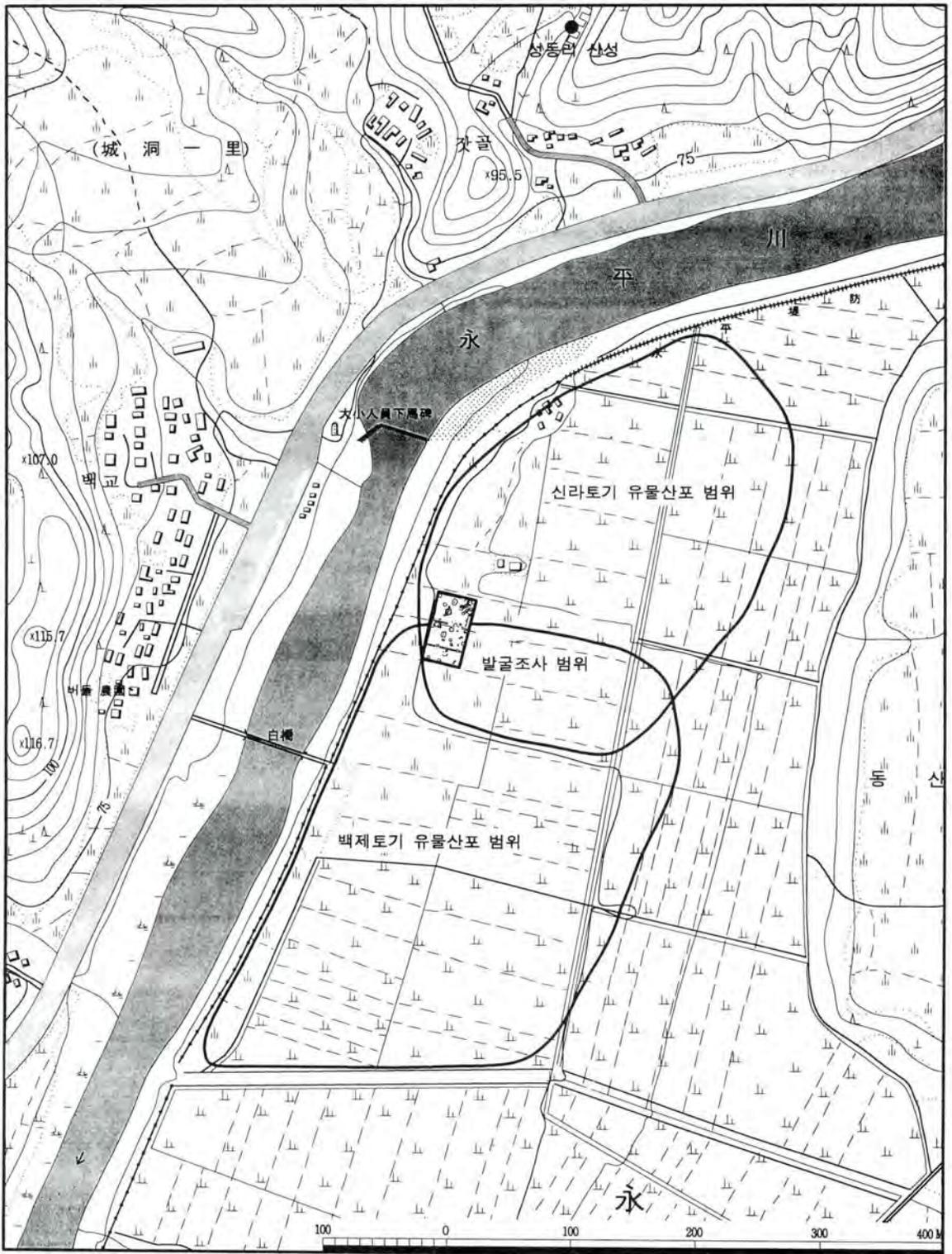
靑銅器時代 遺蹟으로는 가산면 금현리, 포천읍 자작리, 창수면 추동리, 일동면 수입리, 기산리, 신북면 만세교리 등 6개 지역에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관인면 중리 마산유적과 반월산성 내에서 청동기시대 유물이 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외에도 京畿道博物館에서 永平川 일대에 대한 정밀지표조사 과정에서 이동면 노곡리와 연곡리에서 孔列土器片과 더불어 半月形石刀 등의 청동기시대 유물을 채집하였으며, 창수면 주원리에서도 무문토기편을 채집하였다.

原三國時代 遺蹟은 영송리유적이 1994년도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정식으로 발굴조사되었으며, 기타 관인면 중리 용수재울유적과 포천읍 자작리유적 등지에서도 원삼국시대의 유물이 채집되었다. 영송리유적에서 조사된 5기의 원삼국시대 주거지는 출입구가 달린 전형적인 중부지방의 원삼국시대 주거지로 내부에는 부석식 노지, 부뚜막이 설치되어 있다. 출토유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편년적 위치는 파악할 수 없지만, 주거 형태로 보아 中島 및 屯內遺蹟보다 이른 시기로 판단된다²⁾. 또한 京畿道博物館에서도 창수면 오가리에서 원삼국시대 유물산포지를 확인하였으며, 이번 城洞里遺蹟에 대한 발굴조사에서도 원삼국시대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이들 원삼국시대 유적들은 대체로 永平川 내지 抱川川 등의 소지류의 충적대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마을유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기타 관방유적으로는 반월산성, 성동리산성, 고소성, 주원리산성, 보가산성, 냉정리산성, 대전리산성, 초성리산성, 송우리성지, 고모리산성 등 10개소가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 城洞

1) 포천군의 고고학 및 역사적 환경은 단국대학교 사학과에서 포천군 전역에 대해 실시한 지표조사 내용을 주로 참조하였다(단국대학교 사학과·포천군 1998).

2) 永松里 住居址의 평면형태는 출입구에 연한 벽선과 출입구 반대쪽 벽선이 모두 동글게 처리된 반면, 中島 및 屯內 住居址는 출입구 반대쪽 벽선이 둔각으로 각지게 처리되어 백제시대의 육각형 주거지에 보다 가까운 형태라 할 수 있다.



도면 2. 포천 성동리유적 조사지역 및 주변 지형도(1/5,000)

里山城은 城洞里遺蹟 북쪽 5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학술조사는 없었지만, 대체로 삼국시대에 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城洞里 마을遺蹟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포천의 山城들은 대체로 해발 300m 이하의 구릉성 산지에서 도 주변 평야지대가 가장 잘 조망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이들 山城들은 대부분이 주변에 강이나 하천을 끼고 만들어져 방어에 유리한 지형적인 특징을 최대한 이용하였다. 한편 포천 지역 내의 山城의 배치는 남북선상의 종적인 배치와 동서선상의 횡적인 배치로 되어 있어 방어선의 형성뿐만 아니라, 교통, 통신망의 유지를 고려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박경식의 1998).

(표 1) 포천 성동리 마을유적 주변의 문화유적

| 번호 | 유적명 | 시대 | 유적의 성격 | 출전 | 비고 |
|----|-------------|------------|--------|------------|---------|
| 1 | 성동리 마을유적 | 원삼국, 삼국시대 | 마을유적 | 본 보고서 | 발굴조사 |
| 2 | 성동리산성 | 삼국시대 | 관방유적 | 본 보고서 부록 | 정밀 지표조사 |
| 3 | 성동리 구석기유적 | 구석기시대 | 유물산포지 | 한창균 외 1998 | 지표조사 |
| 4 | 신장리 구석기유적 | 구석기시대 | 유물산포지 | 한창균 외 1998 | 지표조사 |
| 5 | 영송리 마을유적 | 신석기, 원삼국시대 | 마을유적 | 김병모 외 1995 | 발굴조사 |
| 6 | 주원리 할미성 | 삼국시대 | 관방유적 | 박경식 외 1998 | 지표조사 |
| 7 | 오가리 구석기유적 | 구석기시대 | 유물산포지 | 한창균 외 1998 | 지표조사 |
| 8 | 오가리 마을유적 | 원삼국시대 | 마을유적 | 본 보고서 부록 | 지표조사 |
| 9 | 주원리 가마터 | 조선시대 | 가마터 | 본 보고서 부록 | 지표조사 |
| 10 | 주원리 마을유적 | 청동기, 삼국시대 | 마을유적 | 본 보고서 부록 | 지표조사 |
| 11 | 고소성 | 삼국시대(?) | 관방유적 | 박경식 외 1998 | 지표조사 |
| 12 | 추동리 지석묘 | 청동기시대 | 무덤유적 | 한창균 외 1998 | 지표조사 |
| 13 | 노곡리 주거지 | 청동기시대 | 마을유적 | 본 보고서 부록 | 지표조사 |
| 14 | 연곡리 만가대유적 | 청동기시대 | 유물산포지 | 본 보고서 부록 | 지표조사 |
| 15 | 수입리 지석묘 | 청동기시대 | 무덤유적 | 포천군 1997 | 지표조사 |
| 16 | 화대리 사기막 가마터 | 조선시대 | 가마터 | 포천군 1997 | 지표조사 |
| 17 | 금주리 구석기유적 | 구석기시대 | 유물산포지 | 한창균 외 1998 | 지표조사 |
| 18 | 만세교리 지석묘 | 청동기시대 | 무덤유적 | 한창균 외 1998 | 지표조사 |
| 19 | 길명리 가마터 | 조선시대 | 가마터 | 포천군 1997 | 지표조사 |
| 20 | 기산리 지석묘 | 청동기시대 | 무덤유적 | 한창균 외 1998 | 지표조사 |
| 21 | 유동리 가마터 | 조선시대 | 가마터 | 포천군 1997 | 지표조사 |
| 22 | 아랫심재 구석기유적 | 구석기시대 | 유물산포지 | 이선복 1988 | 지표조사 |
| 23 | 용수재울유적 | 원삼국시대 | 유물산포지 | 한창균 외 1998 | 지표조사 |
| 24 | 중리유적 | 신석기시대 | 유물산포지 | 하문식 1993 | 지표조사 |
| 25 | 마산유적 | 청동기시대 | 유물산포지 | 하문식 1993 | 지표조사 |
| 26 | 문배뜰 구석기유적 | 구석기시대 | 유물산포지 | 한창균 외 1998 | 지표조사 |
| 27 | 늘거리 구석기유적 | 구석기시대 | 유물산포지 | 한창균 외 1998 | 지표조사 |
| 28 | 보가산성 | 삼국시대 | 관방유적 | 박경식 외 1998 | 지표조사 |
| 29 | 양북리 구석기유적 | 구석기시대 | 유물산포지 | 한창균 외 1998 | 지표조사 |
| 30 | 화적연 구석기유적 | 구석기시대 | 유물산포지 | 한창균 외 1998 | 지표조사 |
| 31 | 팔호 구석기유적 | 구석기시대 | 유물산포지 | 한창균 외 1998 | 지표조사 |
| 32 | 신촌 구석기유적 | 구석기시대 | 유물산포지 | 한창균 외 1998 | 지표조사 |

Ⅲ. 遺蹟의 調査 經過

1. 調査 前 狀況

永平川과 抱川川의 주변 층적대지상에는 건축 및 토목용에 적합한 양질의 모래와 자갈이 분포하고 있어 1980년대 이후 골재 채취로 인하여 河岸의 遺蹟址가 계속적으로 파괴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하류 쪽의 건축용 자재가 고갈되면서 골재 채취가 좀 더 상류 쪽으로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 城洞里遺蹟만 하더라도 이미 부분적으로 골재 채취가 이루어져 상당히 많은 유구가 훼손되었으며, 발굴이 진행되던 당시만 하더라도 깎여 나간 면적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에 걸쳐 골재 채취가 계획 중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성동5리 644-1, 644-2번지 일대의 500여평 역시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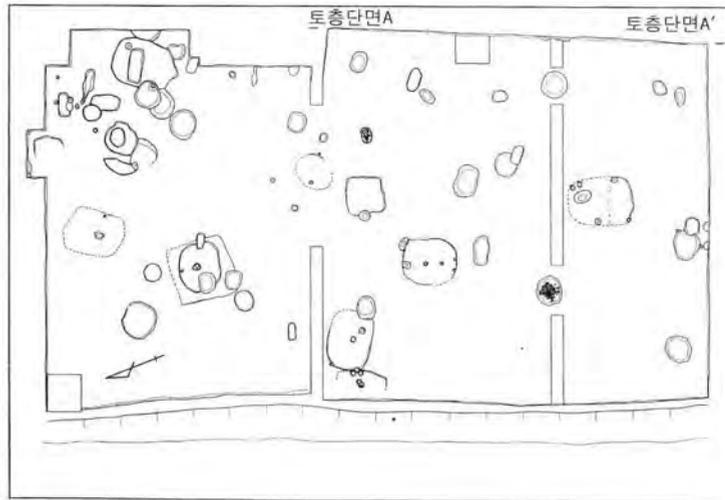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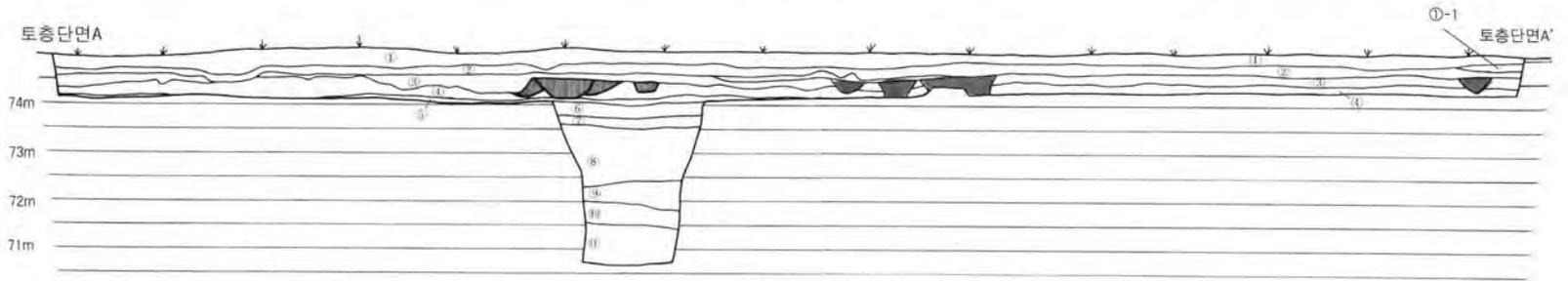
발굴지역은 본래 밭으로 경작되던 지역이었으나, 골재 채취를 위해 우선적으로 상부의 토사만 제토된 상태였다(사진 2-①). 제토 규모는 길이 50m, 너비 30m 가량으로 약 450평의 면적이며, 현 지표 하 65~95cm까지 제토가 이루어져 있었다. 발굴지역의 동쪽 및 남쪽 단애면 상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구가 조성된 구지표면 아래 20~45cm까지 많은 양의 토사가 제토된 상태였지만, 제토된 바닥면에서도 다량의 토기편과 함께 목탄편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유구의 유존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이 지역은 조사가 이루어지기 직전에도 부분적으로 밭작물이 경작되고 있었고, 조만간 장마철이 돌아오면, 현재 노출되어 있는 유구마저도 훼손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긴급발굴조사를 계획하게 되었다.

한편, 발굴지역으로부터 하천 쪽으로 한 단 낮게 떨어진 경작지에서도 소량의 삼국시대 토기편이 채집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시굴경 조사 결과, 자갈이 노출되는 생토층까지 교란층이 형성되고 있어 유구의 유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사진 2-②). 주민들의 전언에 따르면, 20여년 전 永平川 남쪽을 따라 대전차 방어를 위한 제방을 쌓을 때, 이 지역의 흙이 상당량 이용되었다고 한다.

기타 조사지역 남쪽 50m 지점의 5개 필지(625전·626전·627전·627-1전·628-1전) 약 4,000평 가량은 이미 골재 채취가 이루어진 상태로, 깎여진 단애면상에서는 10여기의 주거지 및 소형유구들이 노출되어 있었다(사진 3).

2. 遺蹟의 層位

발굴지역에 대한 층위 조사는 이미 삭토되어 노출된 단애면을 정리하여 전반적인 층위 양상과 문화층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다. 또한 舊石器時代 내지 新石器時代 文化



- ① ①-1 경작층
- ② 갈색 사질점토 부식토층 (문화층)
- ③ 암갈색 사질점토 부식토층 (문화층)
- ④ 황색 모래층 (이하 생토층)
- ⑤ 5~10cm 크기의 강돌이 소량 혼입된 황색 모래층
- ⑥ 황색 모래층
- ⑦ 점성이 약간 있는 황색 모래층
- ⑧ 10~20cm 크기의 강돌이 대량 혼입된 모래층
- ⑨ 5~10cm 크기의 진자갈이 대량 혼입된 모래층
- ⑩ 10~15cm 크기의 강돌이 소량 혼입된 굵은 모래층
- ⑪ 10~15cm 크기의 강돌이 소량 혼입된 가는 모래층

도면 3. 포천 성동리유적 층위도(1/150)

유구의 내부조사는 주거지인 경우, 주거지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십자형의 뚝을 남겨놓고 층위를 파악하면서 하강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소형유구는 먼저 1/2을 조사하여 층위를 파악한 다음, 나머지를 조사하였다. 유물은 가급적 층위에 따라 수습하려 하였으나, 대부분의 유구가 거의 바닥만 남은 상태이고, 또한 교란이 심하게 이루어진 것들이 많아 바닥 유물과 퇴적층 유물로 구분하여 수습하였다. 한편, 조사지역 밖으로 윤곽이 걸친 소형유구가 확인되었으나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유구의 상부에 비닐을 깔고 전면 복토하였다(사진 5-②, ③). 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住居址 9기, 小形遺構 45기, 기타 溝狀遺構 1개소, 기둥 구멍 등이 확인·조사되었는데(도면 4, 사진 6, 7)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層 확인을 염두에 두고 조사가 끝난 후에 2개 지점에 깊게 시굴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관련된 유물이나 층은 관찰되지 않고 自然層으로 일관되었다.

밭갈지역 동쪽 및 남쪽의 단애면 상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적의 층위는 크게 4개층으로 구성된다(도면 3, 사진 4-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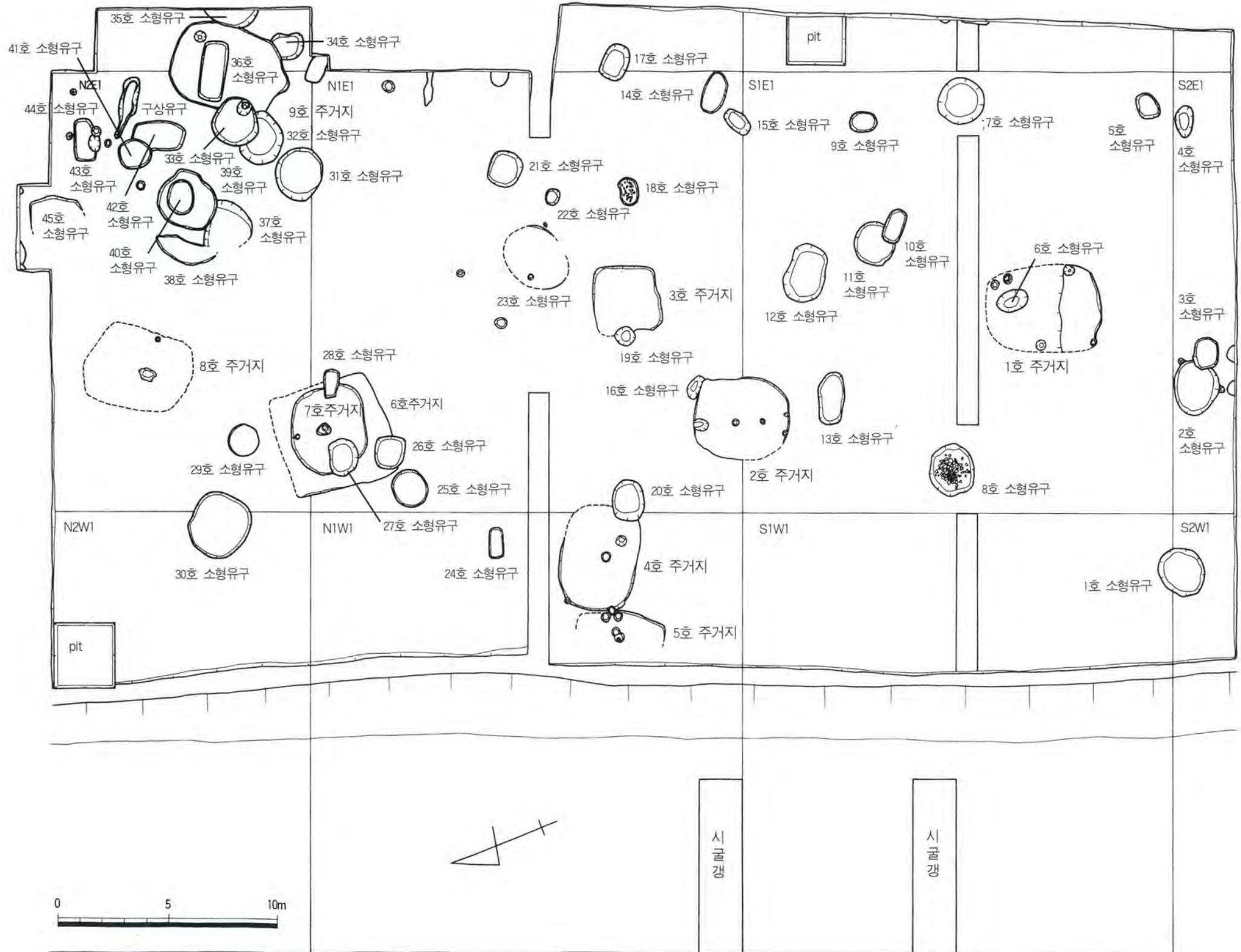
표토층인 I 층은 경작층으로 20cm 가량의 두께이다. II 층은 갈색사질점토부식층으로 두께가 20~22cm 가량이며, III 층은 암갈색 내지 흑갈색의 사질점토부식층으로 두께는 17~20cm 가량이다. 그 아래로는 생토층인 황색 모래층이 형성되어 있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굵은 강돌의 혼입이 두드러진다(사진 4-②).

이 중에 문화층으로 판단되는 층은 II 층과 III 층으로 각각의 층 내에서 토기편이 출토될 뿐만 아니라, II 층과 III 층의 구지표면에 유구가 형성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사지역 내에서 조사된 유구는 모두가 생토층 아래까지 제토된 상태에서 확인된 유구이며, 단애면 상에도 層의 시대를 알 수 있는 충분한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II, III 층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III 층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는 百濟土器片과 함께 新羅土器片이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新羅時代 文化層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유적의 반복적인 점유와 그 이후의 경작과 같은 교란 행위가 빈발하게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층위의 시기 파악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조사 지역 내에서 확인된 층위가 전체 城洞里遺蹟의 층위 상황을 대표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일부 유구 내에서는 섞여 들어간 것으로 생각되는 櫛文土器片, 中島式無文土器片 등이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城洞里遺蹟의 형성과정을 주도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넓은 범위에 걸친 층위 조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調查 方法

유적의 조사는 방격법을 적용하되, 전체 城洞里遺蹟의 규모를 고려하여 20m 방안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지역의 범위가 작기 때문에 20m 방안을 다시 4등분으로 소분할하여 10m 방안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방안의 방향은 조사과정에서 층위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하천의 방향과 일치되게 설치하였다.

유구의 확인작업은 10m 방안 내에 2×8m의 시굴갱을 동-서 방향으로 설치하였으며, 유적의 남북축선상의 층위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유적의 중심을 지나는 남북축선상의 방안에는 다시 남-북 방향의 시굴갱을 설치하였다. 수평하강을 통해 재퇴적층을 제거하고 유구확인작업을 진행해 나갔는데(사진 5-①), 확장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유적 내에 20m 간격으로 폭 1m의 동-서 쪽 두개만 남기고 전면 제토하였다.



도면 4. 포천 성동리 유구 배치도(1/200)

여 백

IV. 遺構와 出土遺物

1. 住居址

1) 1號 住居址

(1) 유구(도면 5, 사진 8-①)

조사 지역 남단에 위치하는 백제시대 주거지이다. 주거지의 북쪽 10m 지점에는 2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5~10m 범위 내에 10여기의 소형유구들이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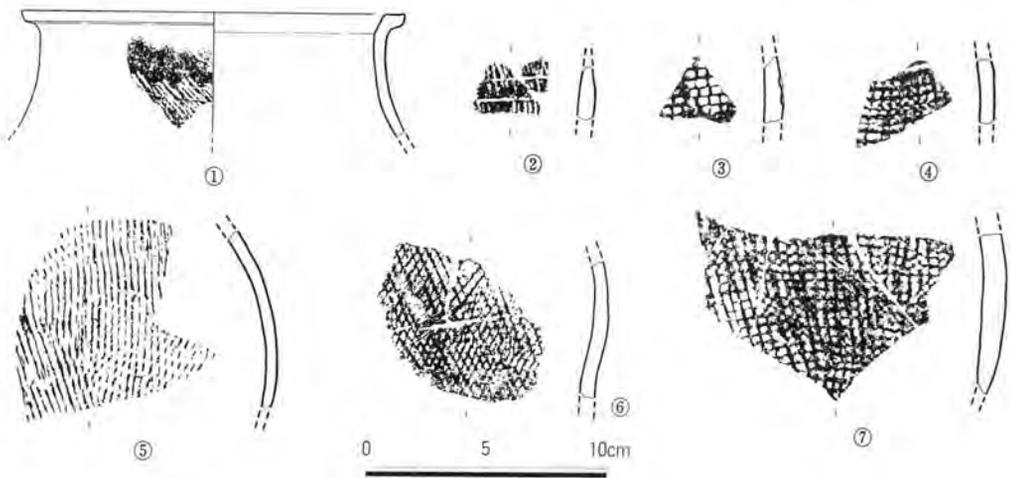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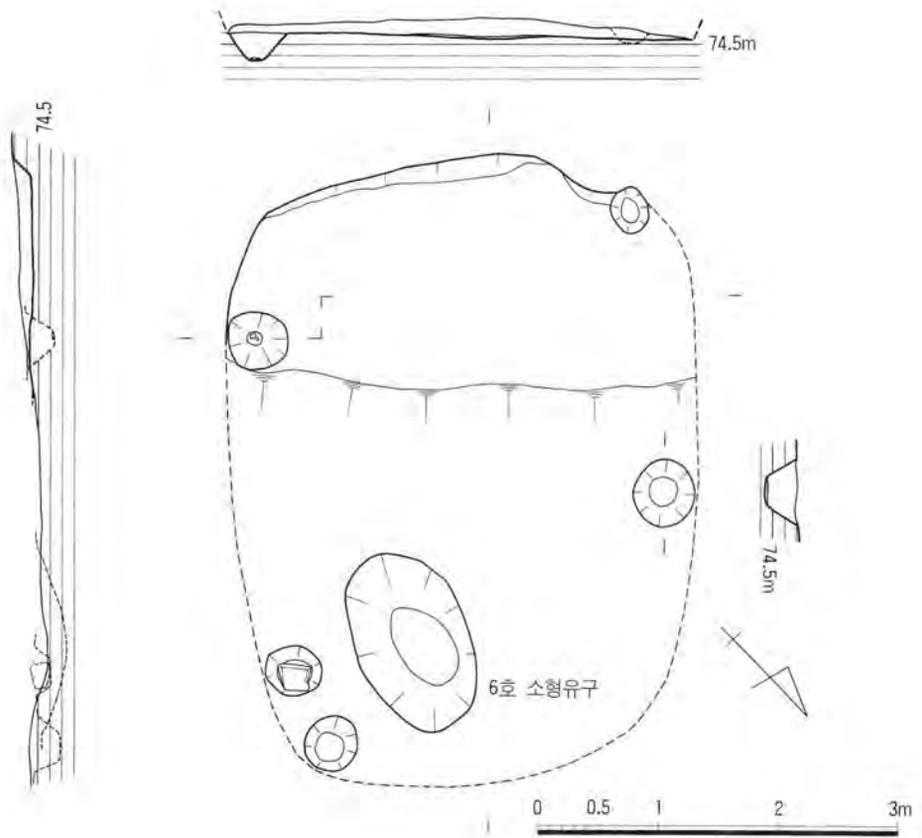
조사 당시, 지표상에 목탄편, 소토, 토기편 등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상당 부분에서 굴삭기에 의한 굴토 흔적이 관찰되었다. 조사 결과, 주거지의 남벽 일부만 잔존하고 있을 뿐, 주거지의 2/3 가량은 모두 중장비에 의해 파괴되어 정확한 평면형태 및 규모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삭토된 부분에서 1호 주거지의 것으로 보이는 기둥 구멍이 확인되기 때문에 도면상 복원은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추정되며, 규모는 길이 5.4m, 너비 3.9m 가량이다. 수혈의 깊이는 남벽이 16cm 정도이다.

주거지의 내부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소량의 목탄편과 함께 암갈색 내지 흑갈색의 사질 점토부식토로 채워져 있다(사진 8-②).

벽면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도록 처리되었으며, 주거지 바닥은 생토인 황색 모래를 그대로 다졌을 뿐이다. 주거지 내부에는 벽면을 따라 기둥 구멍이 5개 확인되었는데, 정형성은 관찰되지 않는다. 기둥 구멍의 직경은 50~60cm 내외이며, 깊이는 12~28cm 정도이다. 기타 출입구 및 노지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주거지 내 동북단에서 타원형의 구덩이가 확인되었다. 이 구덩이는 주거지의 내부시설로 볼 수 있겠지만, 이미 주거지 바닥이 파괴된 상태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주거지와 관련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다른 주거지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구덩이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소형유구로 취급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유물

도면 5-①(사진 9-①)은 주거지 바닥에서 출토된 황갈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도면상 복원한 것이다.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짧게 외반된 구연부의 상단은 편평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동체부에는 승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구연부에는 탄소가 흡착되어 있다. 복원 구경: 16cm, 잔존고: 5.2cm



도면 5. 1호 주거지(1/60)와 출토유물(1/3)

기타 주거지 바닥에서 기종 미상의 백제토기 동체부편이 출토되었는데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1호 주거지 바닥 출토 토기 동체부편

| 도면 | 사진 | 색 조 | 경도 | 태 토 | 특 징 |
|-----|-----|-----|----|--------|---------------|
| 5-② | 9-② | 황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얇은 횡선 |
| 5-③ | 9-③ | 황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격자문, 외면에 탄소흡착 |
| 5-④ | 9-④ | 적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격자문 |
| 5-⑤ | 9-⑤ | 회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교차승문 |
| 5-⑥ | 9-⑥ | 황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격자문 |
| 5-⑦ | 9-⑦ | 적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격자문 |

도면 6-①~⑦은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백제토기이다. 이 가운데 도면 6-①(사진 9-⑧)은 직구호의 구연부편으로 도면상 복원한 것이다. 회색의 연질토기이며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직립하다가 끝에서 축약을 이루며 짧게 외반한다. 구연단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내외면에 모두 물손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복원 구경: 9.2cm, 잔존고: 3.3cm

도면 6-②(사진 9-⑨)는 회색의 연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직선적으로 외반하는 구연부는 끝에서 한번 더 짧게 외반한다. 내외면에 모두 황으로 물손질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잔존고: 2.7cm

도면 6-④(사진 9-⑩)는 원저단경호의 구연-동체부편이다. 회청색의 경질이며, 태토는 사질성 점토이다. 구연부는 곡선적으로 외반하고 동체부에는 승문을 타날한 후에 얇은 횡선을 조밀하게 돌렸다.

기타 도면 6-③, ⑤~⑦은 저부편이다. 이 중에 도면 6-③(사진 9-⑪)은 회흑색 연질의 말각평저이며, 태토는 사질성 점토이다. 저부 상단에는 승문이 타날되어 있다. 잔존고: 3.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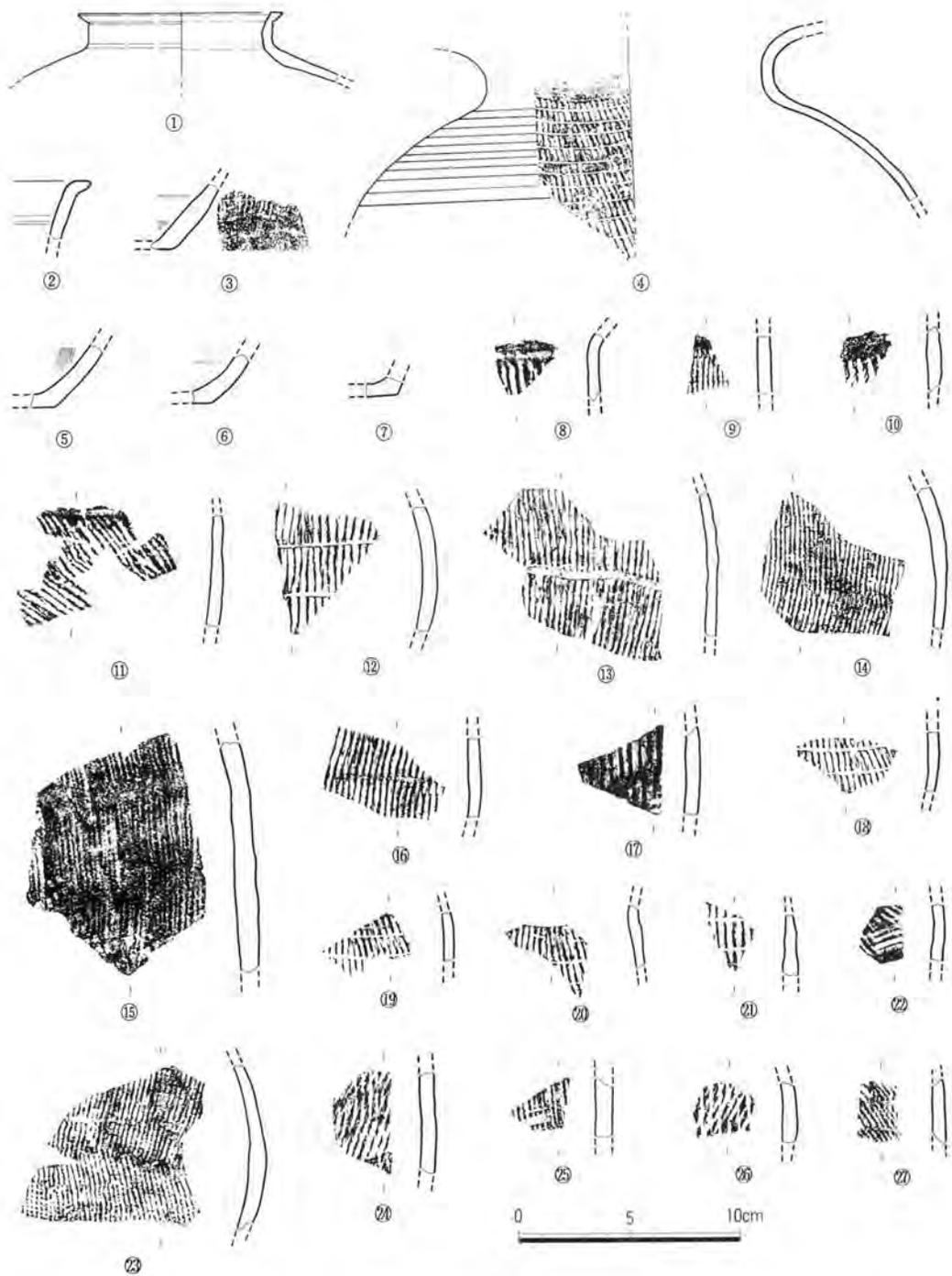
도면 6-⑤(사진 9-⑫)는 황갈색 연질의 말각평저이며, 태토는 사질성 점토이다. 내면에는 종으로 물손질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잔존고: 2.9cm

도면 6-⑥(사진 9-⑬)은 흑갈색 연질의 말각평저이며, 태토는 사질성 점토이다. 저부 상단에는 승문이 희미하게 타날되어 있다. 잔존고: 2.0cm

도면 6-⑦(사진 9-⑭)은 흑갈색 연질의 평저이다.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으며, 내면에는 탄소 흡착되어 있다.

이 외에 1호 주거지가 중장비에 의해 제토되면서 형성된 재퇴적층에서 토기편이 다수 수습되었다. 여기에서 출토된 토기편들은 대부분 百濟土器片이며, 新羅土器片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도면 7-⑤(사진 12-①)는 新羅土器 저부편으로 회흑색 연질의 말각평저이다. 태토는 사질성 점토이며, 저부 바닥면에는 얇은 교차승문이 타날되어 있다.



도면 6. 1호 주거지 출토유물(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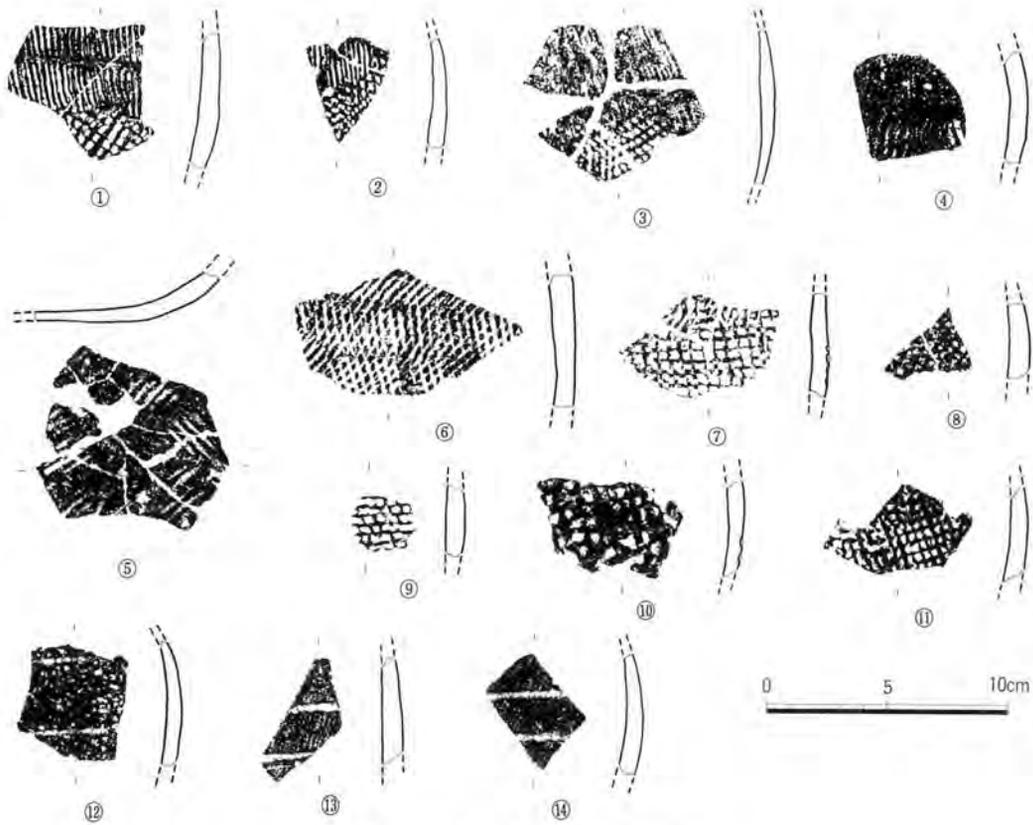
(표 3) 1호 주거지 재퇴적층 출토 토기편

| 도면 | 사진 | 색조 | 경도 | 태도 | 특징 |
|------|-------|-----|----|--------|--------------------------|
| 6-8 | 10-1 | 황갈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승문타날후 구연부에 물손질, 백제토기 |
| 6-9 | 10-2 | 회청색 | 경질 | 사질성 점토 | 승석문, 백제토기 |
| 6-10 | 10-3 | 회황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 백제토기 |
| 6-11 | 10-4 | 회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 도면 6-2와 동일개체, 백제토기 |
| 6-12 | 10-5 | 회색 | 경질 | 정선된 점토 | 승문+횡선, 백제토기 |
| 6-13 | 10-6 | 회청색 | 경질 | 정선된 점토 | 승문+폭이 넓은 횡선, 백제토기 |
| 6-14 | 10-7 | 회색 | 경질 | 사질성 점토 | 승문, 백제토기 |
| 6-15 | 10-8 | 황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격자문 타날후 물손질, 백제토기 |
| 6-16 | 10-9 | 회색 | 경질 | 정선된 점토 | 승문+횡선, 백제토기 |
| 6-17 | 10-10 | 황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얇은 교차승문, 신라토기 |
| 6-18 | 11-1 | 회색 | 경질 | 정선된 점토 | 승문+횡선, 백제토기 |
| 6-19 | 11-2 | 회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승문+횡선, 백제토기 |
| 6-20 | 11-3 | 회청색 | 경질 | 정선된 점토 | 승문+횡선, 백제토기 |
| 6-21 | 11-4 | 회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승문+횡선, 백제토기 |
| 6-22 | 11-5 | 흑갈색 | 경질 | 정선된 점토 | 교차승문, 백제토기 |
| 6-23 | 11-6 | 회색 | 경질 | 사질성 점토 | 승문+횡선, 내부에 탄소흡착, 백제토기 |
| 6-24 | 11-7 | 회흑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교차승문, 백제토기 |
| 6-25 | 11-8 | 황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 백제토기 |
| 6-26 | 11-9 | 황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교차승문, 백제토기 |
| 6-27 | 11-10 | 회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횡선, 백제토기 |
| 7-1 | 11-11 | 회흑색 | 경질 | 사질성 점토 | 승문+횡선(상부), 격자문(하부), 백제토기 |
| 7-2 | 11-12 | 회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상부), 격자문(하부), 백제토기 |
| 7-3 | 11-13 | 회흑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상부), 격자문(하부), 백제토기 |
| 7-4 | 11-14 | 회백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승문, 내외면에 탄소흡착, 백제토기 |
| 7-6 | 12-2 | 회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교차승문, 백제토기 |
| 7-7 | 12-3 | 황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교차승문(상부), 격자문(하부), 백제토기 |
| 7-8 | 12-4 | 회흑색 | 경질 | 정선된 점토 | 격자문, 백제토기 |
| 7-9 | 12-5 | 적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격자문, 백제토기 |
| 7-10 | 12-6 | 황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격자문, 외면에 탄소흡착, 백제토기 |
| 7-11 | 12-7 | 적갈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격자문, 백제토기 |
| 7-12 | 12-8 | 회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얇은 격자문+횡선, 신라토기 |
| 7-13 | 12-9 | 회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얇은 승문+횡선, 신라토기 |
| 7-14 | 12-10 | 회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얇은 승문+횡선, 신라토기 |

2) 2號 住居址

(1) 유구(도면 8, 사진 13-1)

유구 확인을 위한 트렌치 조사 과정에서 온돌시설 상부가 노출되면서 확인된 주거지이다. 장축이 북동-남서 방향인 타원형의 수혈주거지로 규모는 길이 4.5m, 너비 3.8m 가량이다. 주거지는 어깨면이 대부분 삭토되어 깊이가 5~8cm 가량이며, 주거지의 서벽은 완전히 삭평되어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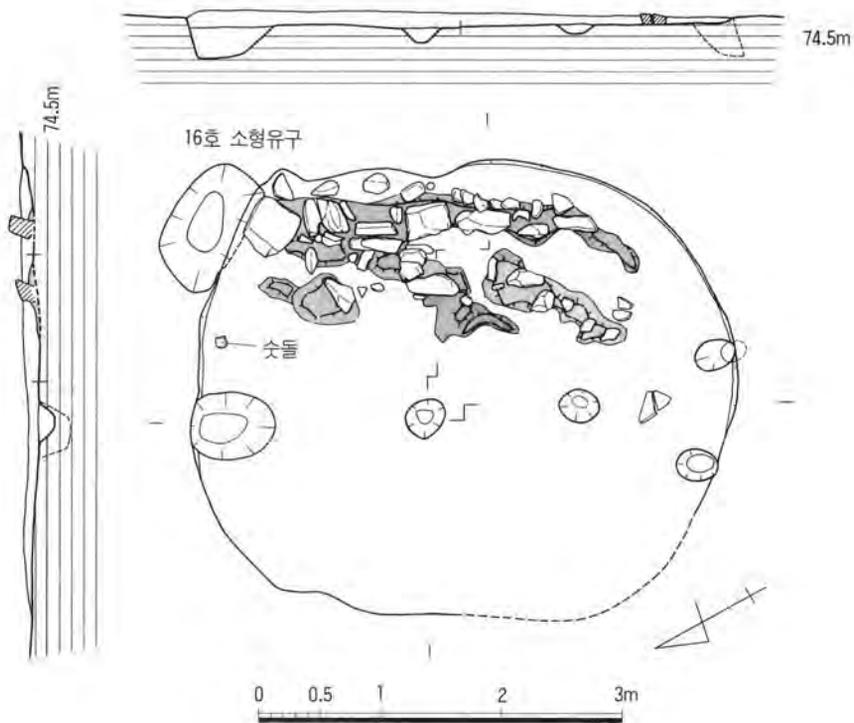


도면 7. 1호 주거지 출토유물(1/3)

주거지의 내부에는 암갈색 내지 흑갈색의 사질점토부식토로 채워져 있었으며, 온돌이 설치된 동쪽부분에는 온돌시설을 이루는 점토가 무너져 퇴적되어 있다.

주거지의 내부시설로는 온돌이 주목되는데 상당 부분이 파괴되어 잔존상태는 양호하지 않다.

남아 있는 상태로 볼 때, 온돌 구조는 주거지의 동벽을 따라 설치된 외곽의 온돌로써 연도 부분이 벽면을 따라 다소 곡선적으로 설치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사진 13-②). 아궁이 부분은 분명치 않지만 주거지의 동북 모서리 쪽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이 부분에 소토와 함께 목탄이 집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연도부는 벽면에서 14~30cm 가량 떨어져서 설치되었는데, 벽체는 30cm 내외의 판석 내지 할석을 세우고 양쪽으로 점토를 발라 고정시켰다. 煙道의 뚜껑은 파괴되어 알 수 없는데, 연도 내부에서 점토 덩어리와 함께 20cm 내외의 할석이 노출되고 있어, 뚜껑의 흔적이라 생각된다. 한편, 벽면과 온돌 연도부 사이의 빈 공간에는 15~20cm 크기의 할석 내지 강돌로 충전하였다. 연도의 크기는 길이 3.2m, 너비 60cm 가량이며, 잔존 높이는 20cm로 높지 않은 편이다. 기타 굴뚝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면 8. 2호 주거지(1/60)

기둥 구멍은 주거지 내부에서 5개소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장축선상에 세 개의 기둥 구멍이 배치되고 있으며, 남서벽에 2개의 기둥 구멍이 배치되어 있는데, 간격은 0.9~1m 정도로 일정한 편이다. 기둥 구멍의 크기는 북동벽에 위치한 것이 제일 크고 깊으며, 나머지는 직경 32~34cm로 규모가 일정한다.

바닥은 생토인 황색 모래를 다짐처리하여 사용하였는데 주거지의 중앙부만이 단단하다. 기타 주거지의 서쪽 모서리 부분에 16호 소형유구가 중복되어 있는데, 층위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온돌에 사용된 석재의 배치로 보았을 때, 16호 소형유구 일부를 파괴하고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2) 출토유물

주거지 내부에서는 소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주거지 북동벽에 위치한 기둥 구멍 내에서 고구려토기편이 출토되었으며, 이 외에 주거지 내부퇴적층 및 바닥면에서 신라 및 백제의 타날문토기편과 함께 철촉, 지석 등이 출토되었다.

도면 9-①, ②는 新羅土器인 罍의 구연부편이다. 이 가운데 9-①(사진 14-①)은 내부퇴적

층에서 출토된 회백색 연질토기로서 미세한 석립이 소량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도면 9-②(사진 14-②)는 주거지 바닥에서 출토된 회황색 연질토기이며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기타 기종 미상의 동체부편이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2호 주거지 출토 토기 동체부편

| 도면 | 사 진 | 색 조 | 경도 | 태 토 | 특 징 |
|-----|------|-----|----|--------|---------------------|
| 9-③ | 14-③ | 황갈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얇은 승문, 신라토기 |
| 9-④ | 14-④ | 암황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2조의 얇은 황선, 신라토기 |
| 9-⑤ | 14-⑤ | 회백색 | 경질 | 정선된 점토 | 얇은 교차승문, 신라토기 |
| 9-⑥ | 14-⑥ | 황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황선, 백제토기 |
| 9-⑧ | 15-① | 암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 백제토기 |
| 9-⑨ | 15-② | 황갈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얇은 격자문+황선, 신라토기 |
| 9-⑩ | 15-③ | 황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황선, 백제토기 |
| 9-⑪ | 15-④ | 암회색 | 경질 | 정선된 점토 | 얇은 승문, 내면 물손질, 신라토기 |
| 9-⑫ | 15-⑤ | 회백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얇은 황선, 신라토기 |

도면 9-⑦(사진 14-⑦)은 주거지 북동쪽에 위치한 기둥 구멍 내에서 출토된 고구려토기 동체부편이다. 내외 흑갈색 내외 황색의 연질토기이며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토기 외면에는 1조의 황선이 돌아가며, 마연기법으로 문양을 배풀었다. 문양은 길이 7cm 정도의 장타원문을 횡으로 연속하여 배치하고 부분적으로 횡마연하였다. 내면에는 횡으로 물손질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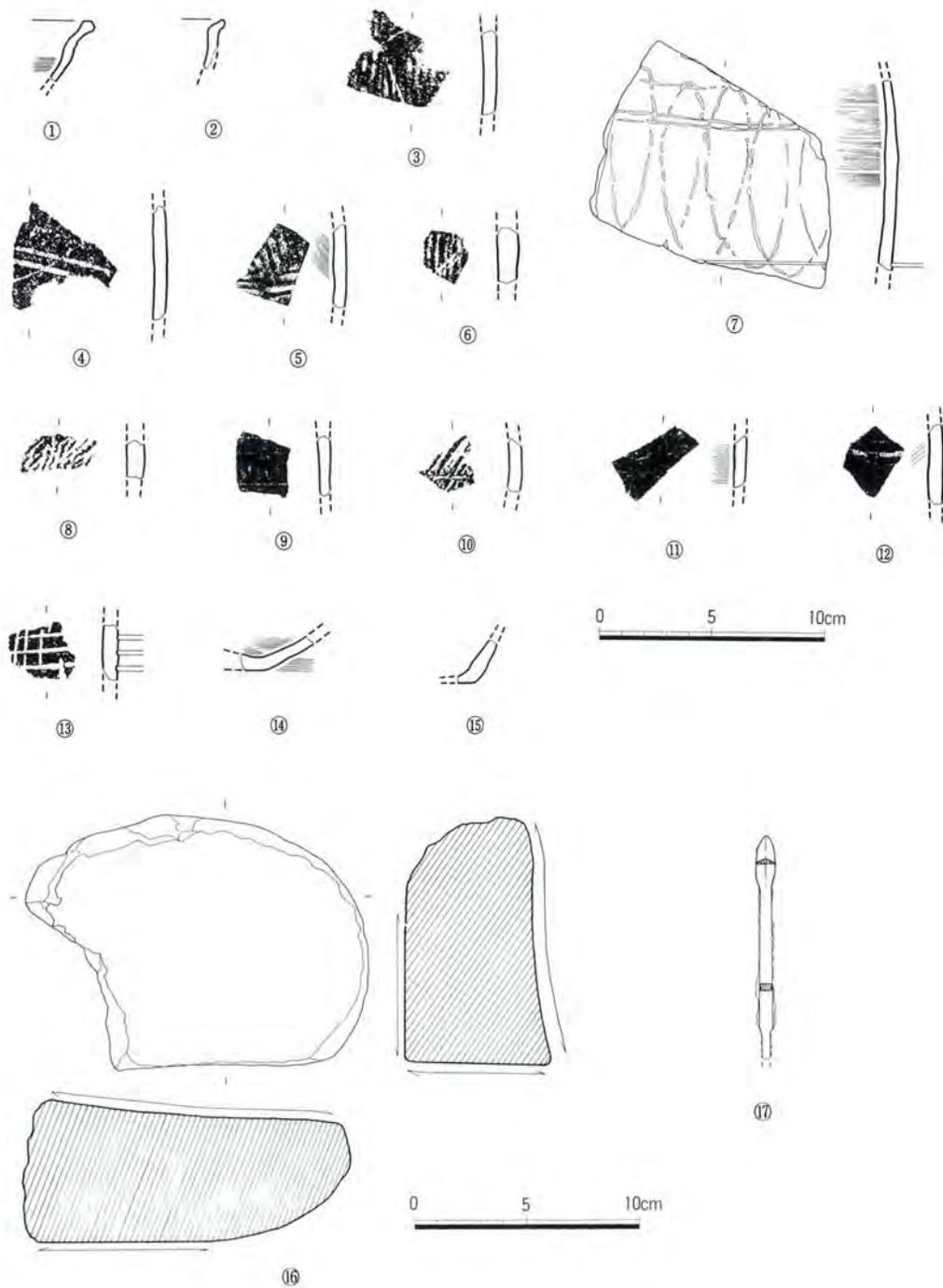
도면 9-⑬(사진 15-⑥)은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동체부편이다. 미세한 사립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적갈색(外), 흑색(內)의 색조를 띤다. 격자문이 배풀어져 있다.

도면 9-⑭, ⑮는 저부편으로 주거지 바닥에서 출토되었다. 이 중에 9-⑭(사진 15-⑦)는 회청색 경질의 저부편으로 속심은 자색을 띠고, 내외면에는 희미한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도면 9-⑮(사진 15-⑧)는 회갈색 경질의 저부편으로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도면 9-⑯(사진 15-⑨)은 주거지 북서쪽 바닥에서 출토된 솥돌이다. 河川石을 그대로 이용하였는데, 3면에만 사용한 흔적이 관찰된다. 가로: 15cm, 세로: 11.5cm, 두께: 6.5cm

도면 9-⑰(사진 15-⑩)은 주거지 중앙부의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유경식 철촉이다. 촉신은 유엽형이며, 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다. 잔존 길이: 10.2cm



도면 9. 2호 주거지 출토유물 (1/3)

3) 3號 住居址

(1) 유구(도면 10, 사진 16-①)

2호 주거지 동북쪽 3.2m 지점에서 확인, 조사된 신라 주거지이다. 최초 유구 윤곽 확인시 출입부가 있는凸字形 수혈주거지로 판단하였으나, 내부조사 결과 19호 소형유구와 중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길이 3.2m, 너비 3m 규모의 방형 주거지로 수혈의 잔존 깊이는 12cm 가량이다. 주거지 내부에는 암갈색의 사질점토부식토가 퇴적되어 있다.

주거지의 바닥면은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않았으나 동북벽 쪽으로 적갈색의 점토가 깔려 있으며, 여기에 부뚜막으로 추정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잔존상태가 극히 좋지 않은 부뚜막 시설은 동북벽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데 부뚜막의 벽체를 이루는 할석들이 동서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사진 16-③). 부뚜막 내부에는 소토부가 관찰되며 여기에서 적갈색 外反口緣甕 구연부편이 출토되고 있어 부뚜막의 煮沸用器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기타 기둥 구멍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주거지의 서남벽에 중복된 19호 소형유구는 거의 바닥면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선후관계는 밝혀내지 못했다(사진 16-②).

(2) 출토유물

도면 10-①(사진 17-①)은 부뚜막 내부에서 출토된 적갈색 연질 外反口緣甕의 구연부편이다. 구연부는 심하게 곡선을 이루면서 외반되었으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구연 내측은 축약되어 凹痕이 관찰된다. 미세한 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목부분에 희미한 격자문이 관찰된다. 잔존고: 3.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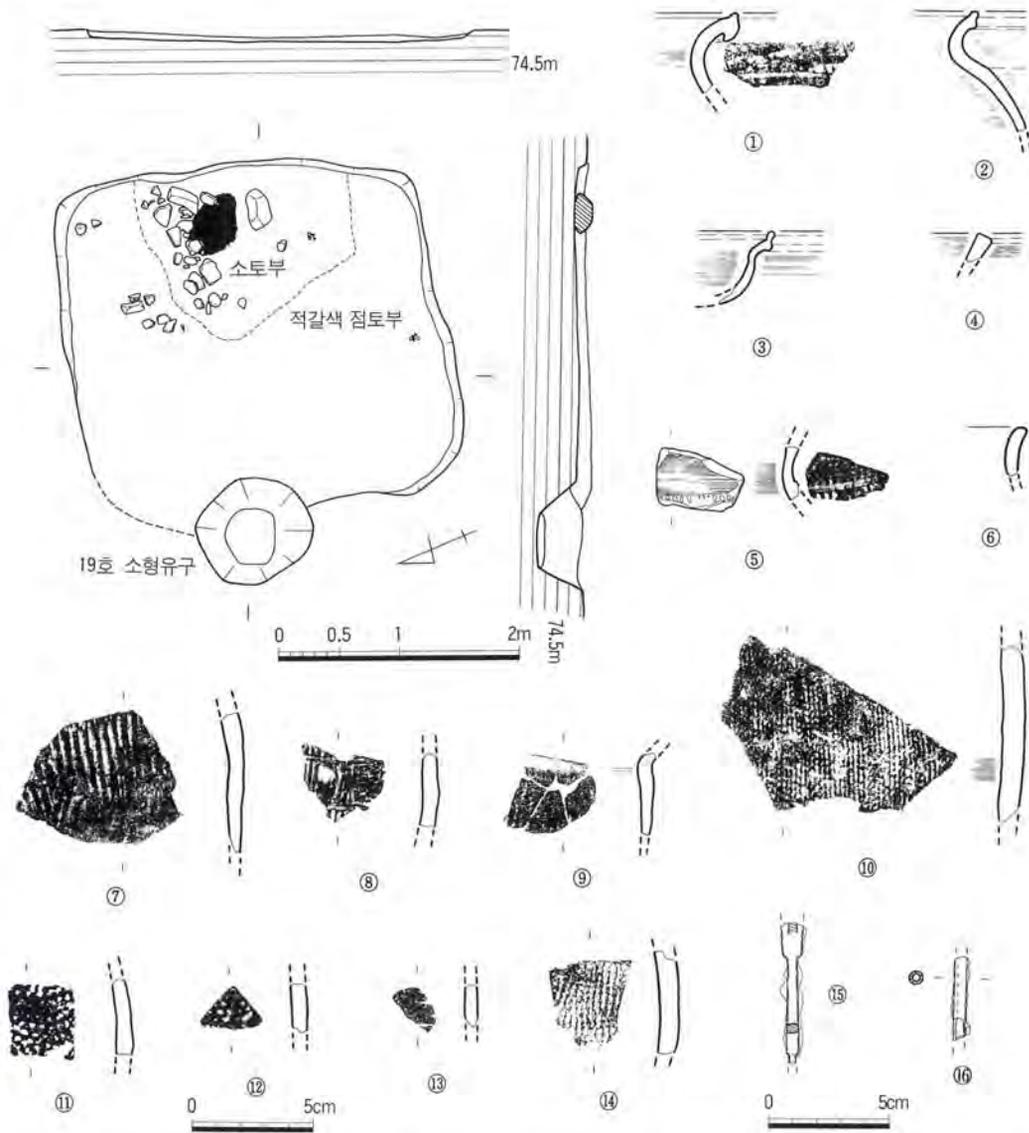
도면 10-②(사진 17-②)는 갈색 연질의 外反口緣甕 구연부편이다. 구연단은 요철이 있으며, 구연 내측에는 약하게 축약되어 희미한 凹痕이 관찰된다.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으며, 비교적 단단한 편이다.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있다. 잔존고: 5cm

도면 10-③(사진 17-③)은 회백색 연질의 甕 구연부편이다. 짧게 외반된 구연부의 끝단에 요철이 있으며, 내측에는 凹痕이 관찰된다.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으며, 내외면에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3.2cm

도면 10-④(사진 17-④)는 기종을 알 수 없는 흑회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내외면 모두 거친 물손질흔이 있다.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잔존고: 1.2cm

도면 10-⑤(사진 17-⑤)는 회백색 연질토기의 경부이다. 하단에 돌대가 마련되어 있고 여기에 짧게 각목을 하였다. 목부분에는 승문을 타날한 후 물손질하였으며, 내면에도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도면 10-⑥(사진 17-⑥)은 사질성 점토로 만든 명갈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잔존고: 2.1cm



도면 10. 3호 주거지 및 19호 소형유구(1/60)와 3호 주거지(①~⑬, ⑮, ⑯) 19호 소형유구(⑭) 출토유물(1/3)

기타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新羅土器의 동체부편의 내용은 (표 5)와 같다.

도면 10-⑬(사진 17-⑬)은 櫛文土器片으로 적갈색 연질이다. 고운 점토로 만들었다.

도면 10-⑮(사진 17-⑭)는 유경식 철촉으로 축신 및 경부 끝 부분이 결실되었다. 鑿頭形으로 추정되는 축신의 단면은 장방형을 이루며, 경부는 이단경으로 이루어졌다. 잔존 길이: 6.1cm

(표 5) 3호 주거지 출토 토기 동체부편

| 도면 | 사진 | 색조 | 경도 | 태 토 | 특 징 |
|------|------|-----|----|--------|-------------------|
| 10-⑦ | 17-⑦ | 황갈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얇은 승문 |
| 10-⑧ | 17-⑧ | 명황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얇은 승문+횡선 |
| 10-⑨ | 17-⑨ | 암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얇은 승문, 물손질 및 탄소흡착 |
| 10-⑩ | 17-⑩ | 황갈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얇은 승문, 내박자흔(내면) |
| 10-⑪ | 17-⑪ | 회백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얇은 격자문 |
| 10-⑫ | 17-⑫ | 암회색 | 경질 | 정선된 점토 | 얇은 격자문 |

도면 10-⑩(사진 17-⑩)은 용도미상의 철기편으로 철판을 등글게 말아 붙여 대롱 형태를 이룬다. 잔존 길이: 3.6cm, 직경: 0.6cm

4) 4號 住居址

(1) 유구(도면 11, 사진 18)

2, 3호 주거지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4호 주거지의 서쪽에는 5호 주거지가 바로 인접해 있다. 주거지의 잔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나, 동북벽 일부는 경작으로 인해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주거지는 길이 4.9m, 너비 3.6m 규모인 타원형의 백제 주거지이다. 주거지 내부는 암갈색 내지 흑갈색의 사질점토부식토로 채워져 있으며, 많은 토기편들이 서북쪽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되었다. 극소량의 목탄편이 섞여 있지만, 화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 바닥면은 생토인 황색 모래층을 다짐처리하였는데 주로 주거지 중앙부만이 단단한 편이다.

기둥 구멍은 내부에서 2개소 확인되었는데, 크기는 직경 50~60cm, 깊이 30cm 가량이다. 이 외에도 주거지 서북쪽에 2개의 기둥 구멍이 위치하고 있는데 주거지와는 관련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노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주거지 남동모서리는 20호 소형유구와 중복되어 있는데, 거의 바닥 부근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층위상으로 선후관계를 밝힐 수 없었다. 그러나 20호 소형유구 내에서 출토된 유물이 新羅土器가 대다수인 점을 고려해 볼 때, 20호 소형유구가 4호 주거지를 파괴하고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2) 출토유물

유물은 내부퇴적층과 주거지의 동북쪽 바닥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으나, 대부분이 百濟土器片이어서 한꺼번에 수습하였다.

도면 12-①(사진 19-①)은 적갈색의 연질 소성으로 만들어진 中島式無文土器이다. 태토는 굵은 석립이 많이 섞인 점토질 태토이다.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외반된 구연부의 끝은 결실되어 형태를 확인할 수 없으며, 저부는 평저이다. 내외면에 탄소가 흡착되어 있다. 복원 구경: 13cm, 잔존고: 1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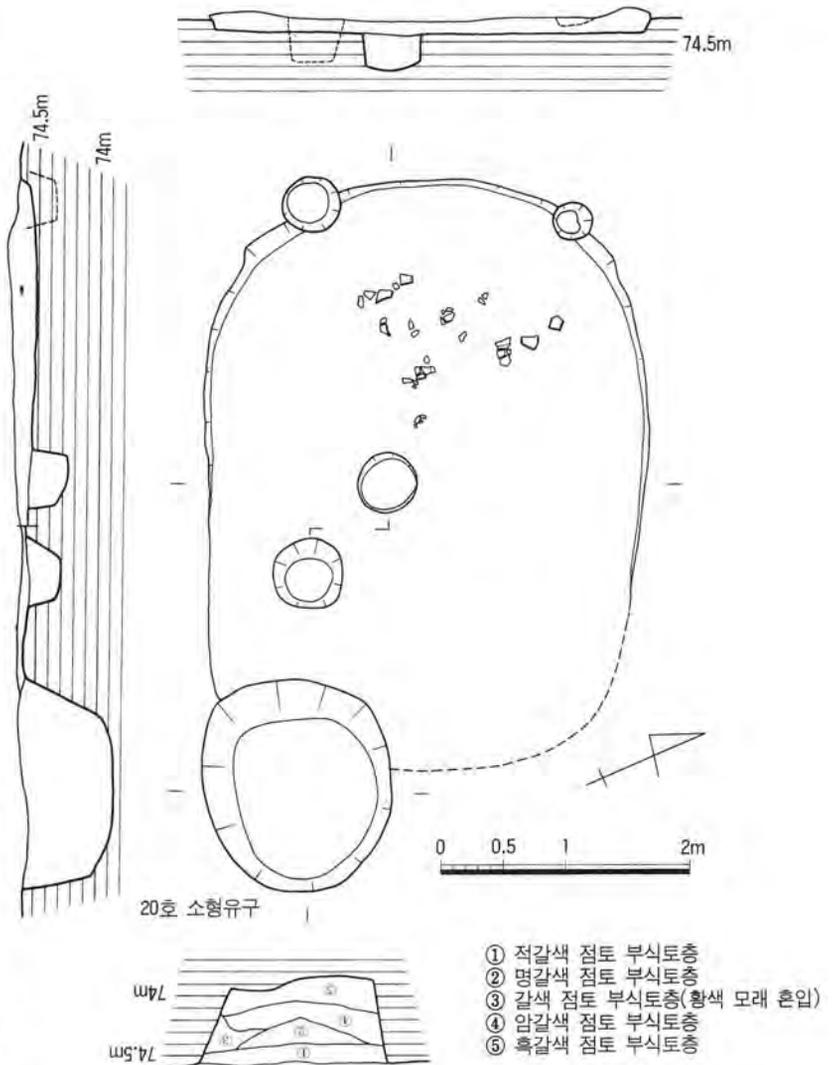
도면 12-②(사진 19-②)는 심발형토기로 도면상 복원한 것이다. 흑갈색 연질 소성으로 태토는 사질성 점토이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되며, 구연단은 직선적으로 처리되었다. 동체부에는 얇은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고, 내부에는 황으로 물순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내외면에 탄소가 흡착되어 있다. 구경: 13.6cm, 잔존고: 11cm

도면 12-③(사진 19-③)은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으로 도면상 복원한 것이다. 태토는 점토이다. 동체부 상부에는 황으로 물순질한 흔적이 확인되며 하부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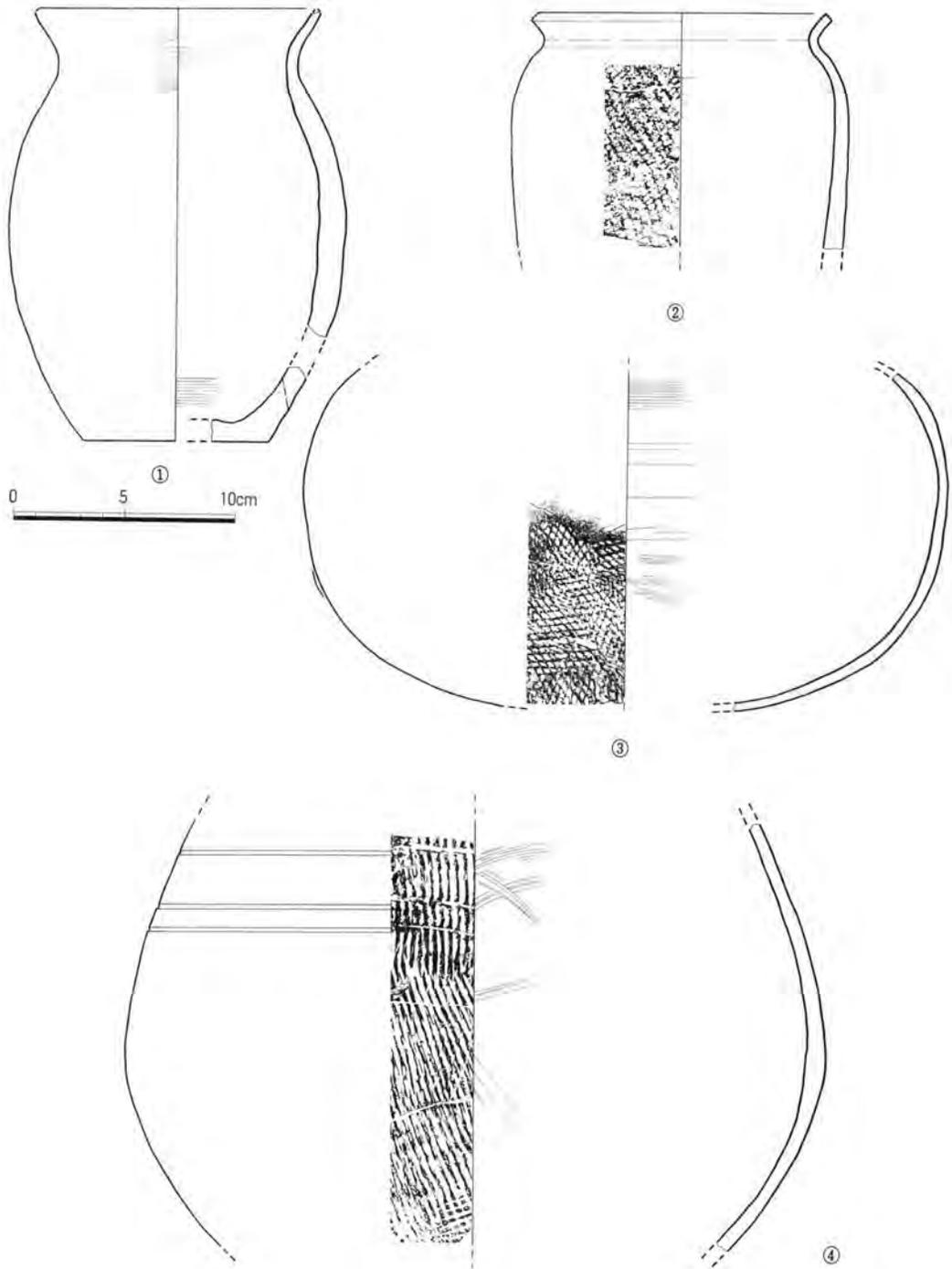
도면 12-④(사진 19-④)는 회색의 경질토기 동체부편으로 도면상 복원한 것이다. 태토는 사질성 점토이다. 동체부 상부에는 승문을 타날한 후, 황선을 돌렸고, 하부에는 승문을 교차하여 타날하였다. 외면에는 탄소가 흡착되어 있다.

도면 13-①(사진 20-⑬)은 흑갈색 연질 靛으로 도면상 복원한 것이다. 태토는 사질성 점토이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직선적으로 처리되었다. 저부는 말각평저이다. 복원 구경: 13.7cm, 높이: 5.8cm

기타 도면 13-②~⑧은 백제토기 구연부편이다. 이 가운데 도면 13-②(사진 20-①)는 황



도면 11. 4호 주거지 및 20호 소형유구(1/60)



도면 12. 4호 주거지 출토유물(1/3)

갈색 연질이며, 태토는 사질성 점토이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되며, 구연단은 직선적으로 처리되었다. 내외면에 물손질 흔적이 남아 있다. 잔존고: 4.2cm

도면 13-③(사진 20-③)은 황갈색의 연질이며 태토는 사질성 점토이다. 구연부는 완만하게 외반되며, 구연단은 곡선적으로 처리되었다. 외면에 물손질흔이 있으며 내외면에 탄소가 흡착되어 있다. 잔존고: 3.8cm

도면 13-④(사진 20-②)는 적갈색의 연질토기로 점토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구연부는 외반하며, 구연단은 곡선적으로 처리되었다. 내외면에 물손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고: 4.5cm

도면 13-⑤(사진 20-④)는 흑갈색의 경질이며, 태토는 사질성 점토이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되며, 구연단은 직선적으로 처리되었다. 내외면에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잔존고: 3.5cm

도면 13-⑥(사진 20-⑤)은 회흑색의 연질토기로서 태토는 사질성 점토이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되며, 구연단은 곡선적으로 처리되었다. 잔존고: 1.6cm

도면 13-⑦(사진 20-⑥)은 회색의 연질이며,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하며, 구연 내측에는 완만하게 처리되어 凹狀을 이룬다. 내외면에 물손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고: 1.5cm

도면 13-⑧(사진 20-⑦)은 황갈색의 연질토기로서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되며, 구연단은 곡선적으로 처리되었다. 구연 내측에는 凸狀을 이룬다. 잔존고: 2.2cm

기타 기종 미상의 동체부편(도면 13-⑨~⑫, ⑭~⑮, 도면 14-①~④)이 출토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6)과 같다.

도면 13-⑬(사진 20-⑭)은 2호 주거지 출토 高句麗土器와 색조, 표면처리, 태토 등에서 유사한 흑갈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 태토이며, 토기 외면에는 원점문으로 구성된 역Y자 문양이 횡으로 배열되어 있다. 외면에는 광택이 나도록 표면처리하였으며 내면에는 물손질한 흔적이 있다.

도면 14-⑳~㉑는 각종의 저부편으로 이 가운데 도면 14-㉑(사진 24-①)는 흑갈색 경질의 말각평저이다. 점토로 만들었으며 내면에 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잔존고: 5.5cm

도면 14-㉒(사진 24-②)은 회백색 연질의 평저이다. 태토는 사질성 점토이며 동체부에는 승문이 타날되어 있다. 잔존고: 3.1cm

도면 14-㉓(사진 24-③)은 회흑색 경질의 평저이다.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으며, 저부 상단에 압날의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고: 2.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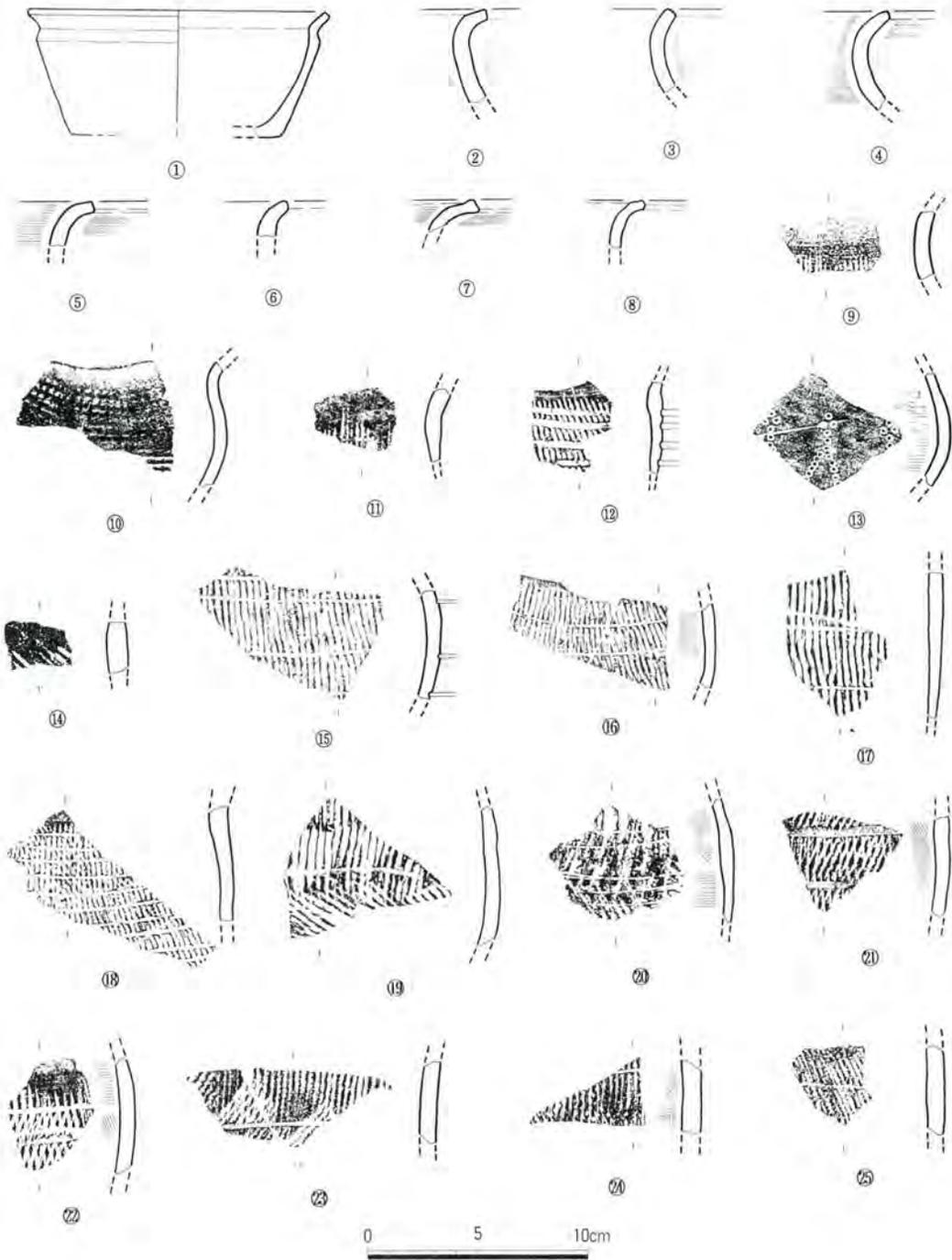
도면 14-㉔(사진 24-④)은 황갈색 경질토기로서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토기 내외면에 물손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도면 14-㉕(사진 24-⑤)는 황갈색 경질의 저부편으로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잔존고: 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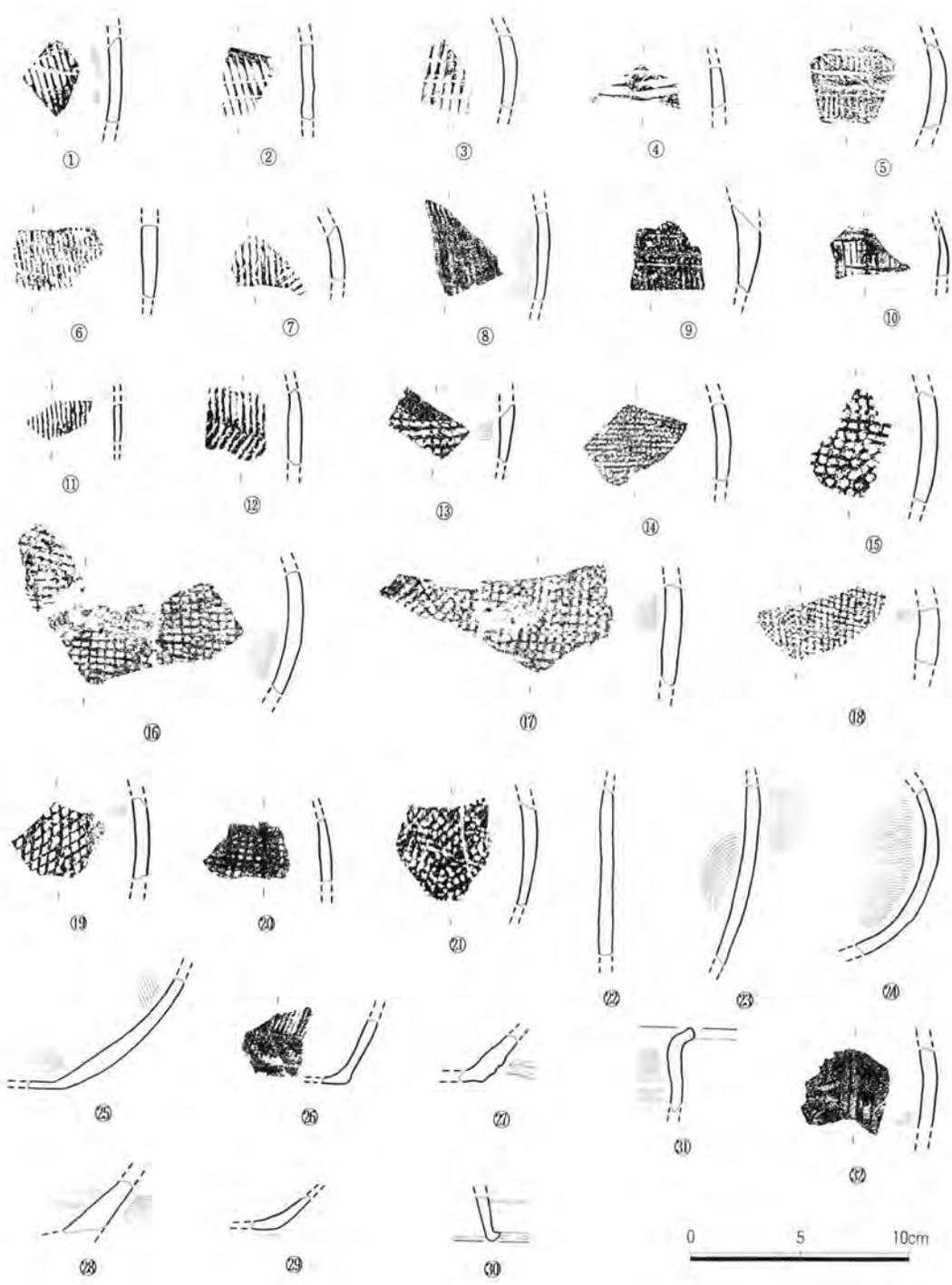
도면 14-㉖(사진 24-⑥)은 회백색 경질의 대각편이다. 태토는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대각

(표 6) 4호 주거지 출토 토기 동체부면

| 도 면 | 사 진 | 색 조 | 경도 | 태 토 | 특 징 |
|-------|-------|-----|----|--------|---------------------------|
| 13-9 | 20-8 | 황갈색 | 연질 | 점토 | 승문, 구연부/내면 물손질, 탄소흡착(내면) |
| 13-10 | 20-9 | 흑갈색 | 연질 | 점토 | 격자문, 타날 후에 물손질 |
| 13-11 | 20-10 | 흑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 |
| 13-12 | 20-11 | 흑갈색 | 연질 | 점토 | 승문+횡선(폭 0.3cm) |
| 13-14 | 20-12 | 회색 | 연질 | 점토 | 승문 |
| 13-15 | 21-1 | 회색 | 연질 | 점토 | 승문+횡선 |
| 13-16 | 21-2 | 흑갈색 | 경질 | 점토 | 승문+횡선, 내면에 물손질 |
| 13-17 | 21-3 | 회백색 | 연질 | 점토 | 승문+횡선 |
| 13-18 | 21-4 | 황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횡선 |
| 13-19 | 21-5 | 회백색 | 연질 | 점토 | 승문+횡선, 교차승문 |
| 13-20 | 21-6 | 흑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횡선, 내면에 물손질 |
| 13-21 | 21-7 | 흑갈색 | 경질 | 사질성 점토 | 교차승문+횡선(폭 0.4cm), 내면에 물손질 |
| 13-22 | 21-8 | 흑갈색 | 경질 | 사질성 점토 | 교차승문+횡선, 내면에 물손질 |
| 13-23 | 21-9 | 황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교차승문+횡선 |
| 13-24 | 21-10 | 회청색 | 경질 | 점토 | 교차승문+횡선 |
| 13-25 | 21-11 | 황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 |
| 14-1 | 22-1 | 회색 | 경질 | 사질성 점토 | 승문+횡선, 내면에 내박자흔 |
| 14-2 | 22-2 | 황갈색 | 연질 | 점토 | 승문+횡선 |
| 14-3 | 22-3 | 흑갈색 | 경질 | 점토 | 승문+횡선 |
| 14-4 | 22-4 | 흑갈색 | 경질 | 점토 | 승문 |
| 14-5 | 22-5 | 황갈색 | 연질 | 점토 | 승문+횡선 |
| 14-6 | 22-6 | 황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횡선 |
| 14-7 | 22-7 | 회백색 | 경질 | 점토 | 교차승문 |
| 14-8 | 22-8 | 흑갈색 | 경질 | 점토 | 승문 타날후 내외면에 물손질 |
| 14-9 | 22-9 | 암갈색 | 경질 | 점토 | 승문+횡선 |
| 14-10 | 22-10 | 회백색 | 경질 | 점토 | 승석문 |
| 14-11 | 22-11 | 회백색 | 경질 | 점토 | 승문 |
| 14-12 | 22-12 | 황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교차승문 |
| 14-13 | 22-13 | 적갈색 | 경질 | 점토 | 격자문, 내면에 물손질 |
| 14-14 | 22-14 | 황갈색 | 연질 | 점토 | 격자문 |
| 14-15 | 23-1 | 흑갈색 | 경질 | 사질성 점토 | 격자문 |
| 14-16 | 23-2 | 적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격자문 |
| 14-17 | 23-3 | 흑갈색 | 경질 | 사질성 점토 | 격자문, 내면에 물손질 |
| 14-18 | 23-4 | 회청색 | 경질 | 사질성 점토 | 격자문 |
| 14-19 | 23-5 | 적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격자문 |
| 14-20 | 23-6 | 회백색 | 연질 | 점토 | 격자문 |
| 14-21 | 23-7 | 회백색 | 연질 | 점토 | 격자문, 내면은 흑회색 |
| 14-22 | 23-8 | 회흑색 | 연질 | 점토 | |
| 14-23 | 23-9 | 회흑색 | 연질 | 점토 | 내외면에 물손질 |
| 14-24 | 23-10 | 회색 | 경질 | 점토 | 내면에 물손질 |



도면 13. 4호 주거지 출토유물(1/3)



도면 14. 4호 주거지 출토유물(1/3)

의 중간부분에는 황선이 있고, 끝 부분은 외반한다. 끝 단에 凹痕이 관찰된다. 잔존고: 2.1cm

도면 14-㉑(사진 24-④)은 新羅土器 구연부편이다. 흑갈색의 경질이며 태토는 사질성 점토이다. 구연부는 외반하며, 구연단은 등글게 처리되었다. 내외면에 물손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고: 4cm

도면 14-㉒(사진 24-⑤)는 新羅土器 동체부편으로 황갈색의 경질이다. 태토는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외면에 얇은 교차승문이 타날되어 있고, 내외면에 탄소가 흡착되었다.

도면 15-①(사진 25-①), ②(사진 25-②)는 주조철부편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극히 일부이다. 透化가 심하며, 단면은 梯形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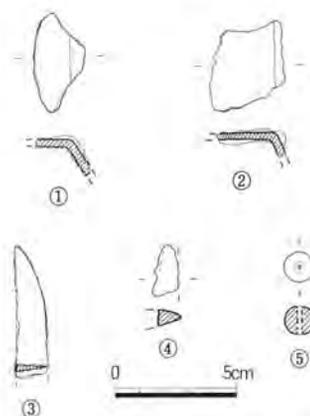
도면 15-① : 잔존 최대길이: 4.2cm, 잔존 최대폭: 2.2cm, 두께: 약 0.4cm

도면 15-② : 잔존 최대길이: 3.7cm, 잔존 최대폭: 2.9cm, 두께: 약 0.3cm

도면 15-③(사진 25-③)은 鐵刀子片으로 刀身 끝 부분만이 남아 있다. 잔존 최대길이: 5.7cm, 잔존 최대폭: 1.3cm, 최대두께: 0.3cm

도면 15-④(사진 25-④)는 용도미상의 철편이다. 잔존 최대길이: 2.2cm, 최대폭: 1.1cm, 최대두께: 0.7cm

도면 15-⑤(사진 25-⑤)는 토제 구슬이다. 색조는 황갈색이며 비교적 단단한 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최대 직경: 1.5cm, 구멍지름: 0.2cm



도면 15. 4호 주거지 출토유물(1/3)

5) 5號 住居址

(1) 유구(도면 16, 사진 26-①)

4호 주거지 서쪽에 바로 인접된 신라 주거지이다. 남동 모서리 일부만 남아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모두 파괴되었다. 잔존상태로 보았을 때, 동벽 중앙부가 밖으로 약간 돌출된 형태이나 전체적인 규모 및 평면형태는 알 수 없다. 잔존 깊이는 제일 깊은 남동모서리 쪽이 10cm 가량이다.

주거지 내부는 흑갈색 및 암갈색 사질점토부식토로 채워져 있다(사진 15-②). 주거지의 바닥면은 생토인 황색 모래를 다져서 약간 단단하게 처리하였다. 주거지 내부시설로는 기둥 구멍만이 확인되는데 동벽 중앙부에 2개, 이보다 서쪽에 2개의 기둥 구멍이 위치하고 있다. 기둥 구멍의 크기는 직경 36~50cm, 깊이 15~30cm 가량이다. 이외 주거지 동벽선 상에 배치

된 기둥 구멍은 주거지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주거지 북쪽으로 장타원형의 소토부가 관찰되고 있으며, 소토부의 남쪽면에 연하여 20cm 크기의 할석 3개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소토부 내에서 목탄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노지 내지 부뚜막과 관련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잔존상태가 극히 좋지 않기 때문에 분명치 않다.

(2)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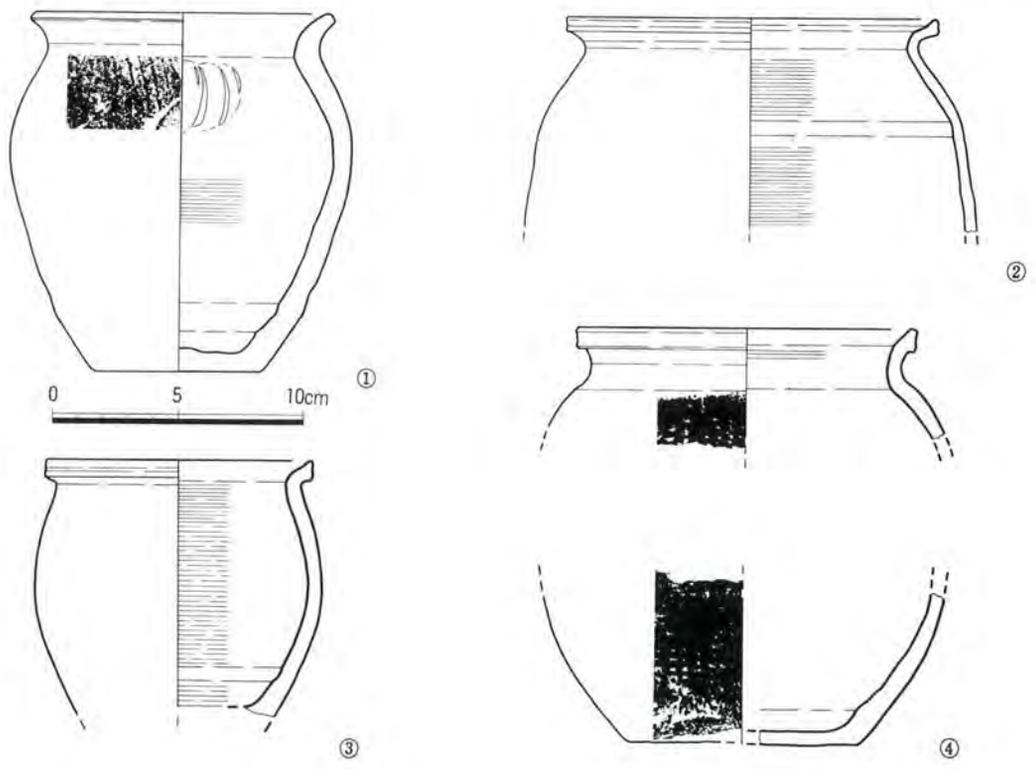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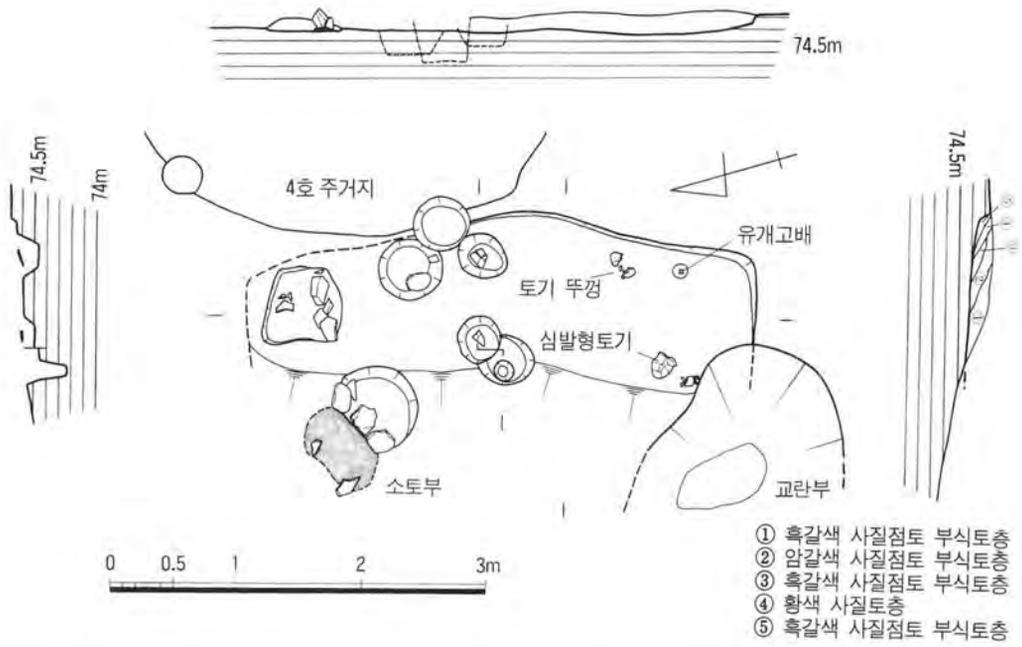
내부퇴적층에서 新羅土器片이 소량 출토되었으며, 대부분은 바닥에서 新羅土器가 완전한 상태로 출토되었다(사진 26-③).

도면 16-①(사진 27-①)은 주거지 서남쪽 바닥에서 출토된 갈색 연질의 外反口緣甕이다.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인 점토로 만들었으며 소성 상태는 좋지 않다. 구연부는 완만하게 축약을 이루며 외반하고 구연단은 직선적으로 처리되었다. 최대복경은 胴 中位에 있으며, 저부는 평저이다. 동체부 상부에는 얇은 승문이 희미하게 남아 있으며, 아래쪽의 표면바리는 심한 편이다. 내면의 목부분에는 내박자흔이 관찰되며, 동체부와 구연 내측에는 황으로 물손질한 흔적이 있다. 구경: 12.2cm, 저경: 6.5cm, 높이: 14.8cm

도면 16-②(사진 27-②)는 주거지 바닥에서 출토된 적갈색 연질의 外反口緣甕 구연-동체부편이다. 미세한 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으며, 소성 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내외 적갈색이나 외면에는 탄소가 전체적으로 흡착되어 흑갈색 내지 암갈색을 띤다. 자비용기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연부는 직선적으로 외반하며 구연단은 요철이 있다. 구연의 내측부에는 완만한 凹部를 이룬다. 동체부는 상단에서 한번 꺾여 내려간다. 토기의 내외면 모두 황으로 물손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복원 구경: 14.8cm, 잔존고: 8.8cm

도면 16-③(사진 27-③)은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황갈색 연질의 外反口緣甕으로 저부는 결실되었다.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으며, 소성 상태는 양호하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하며, 구연단에는 희미한 凹凸痕이 관찰된다. 최대복경은 中上位에 위치한다. 토기의 내면에는 전체적으로 황으로 물손질하였으며 외면에는 지워지기는 하였지만, 회전물손질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구경: 10.7cm, 잔존고: 10cm

도면 16-④(사진 27-④)는 주거지 서쪽 기둥 구멍 내에서 출토된 암갈색 연질의 外反口緣甕으로써 구연부와 저부가 따로 출토된 것을 도면상 복원하였다.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인 점토로 만들었으며 소성 상태는 양호하다. 곡선적으로 외반된 頸部는 동체부와 약간 축약을 이루면서 연결되고, 최대복경은 胴 中位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연단은 요철을 이루며 구연 내측부에는 회전물손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동체부 전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으나 황으로 물손질하여 대부분 지워졌다. 저부는 불을 받아 적갈색의 밝은 색조를 띠나, 구연부



도면16. 5호 주거지 (1/60)와 출토유물(1/3)

는 탄소가 흡착되어 암갈색 내지 흑갈색의 색조를 띤다. 자비용기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복원 구경: 13.5cm, 복원 저경: 9.2cm, 추정 높이: 16.9cm

도면 17-①(사진 28-①)은 주거지 남쪽 모서리 바닥에서 출토된 회청색 경질의 유개고배로서 대각 하단부는 결실되었다. 구연부는 직선적으로 내경하며 그 끝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뚜껑받이턱은 매우 작게 수평상 돌출되어 있다. 배신의 깊이는 전체적으로 얇은 편인데, 내면 바닥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깨진 대각부의 상태로 볼 때, 대각의 상부에 3개의 투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배의 내외면에는 거친 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구경: 10.1cm, 잔존고: 3.7cm

도면 17-②(사진 28-②)는 주거지 동북쪽 바닥에서 출토된 황갈색 연질의 토기 뚜껑이다.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으며 소성 상태는 양호하다. 깊이가 얇은 蓋身の 중앙에는 비교적 폭이 넓은 굽 모양의 꼭지가 부착되어 있다. 구연은 짧고 그 끝이 날카롭게 처리되었다. 구경: 12.3cm, 꼭지 직경: 5.2cm, 높이: 4.5cm

도면 17-③(사진 28-③)은 주거지 바닥에서 출토된 회색 경질호의 구연부편이다. 미세한 석립이 섞인 점토로 만들었으며 소성 상태는 양호하다. 넓게 외반된 구연부의 끝은 다소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목부분부터 동체부에 이르기까지 얇은 승문이 타날되어 있으나 횡으로 물손질하여 그 흔적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복원 구경: 19.3cm, 잔존고: 6.3cm

도면 17-④(사진 29-①)는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갈색 연질의 甕 구연부편이다.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으며 소성 상태는 양호하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토기 내외면에는 거친 물손질흔이 남아 있고 외면에 부분적으로 탄소가 흡착되어 있다. 구경: 13.7cm, 저경: 5.5cm, 높이: 4.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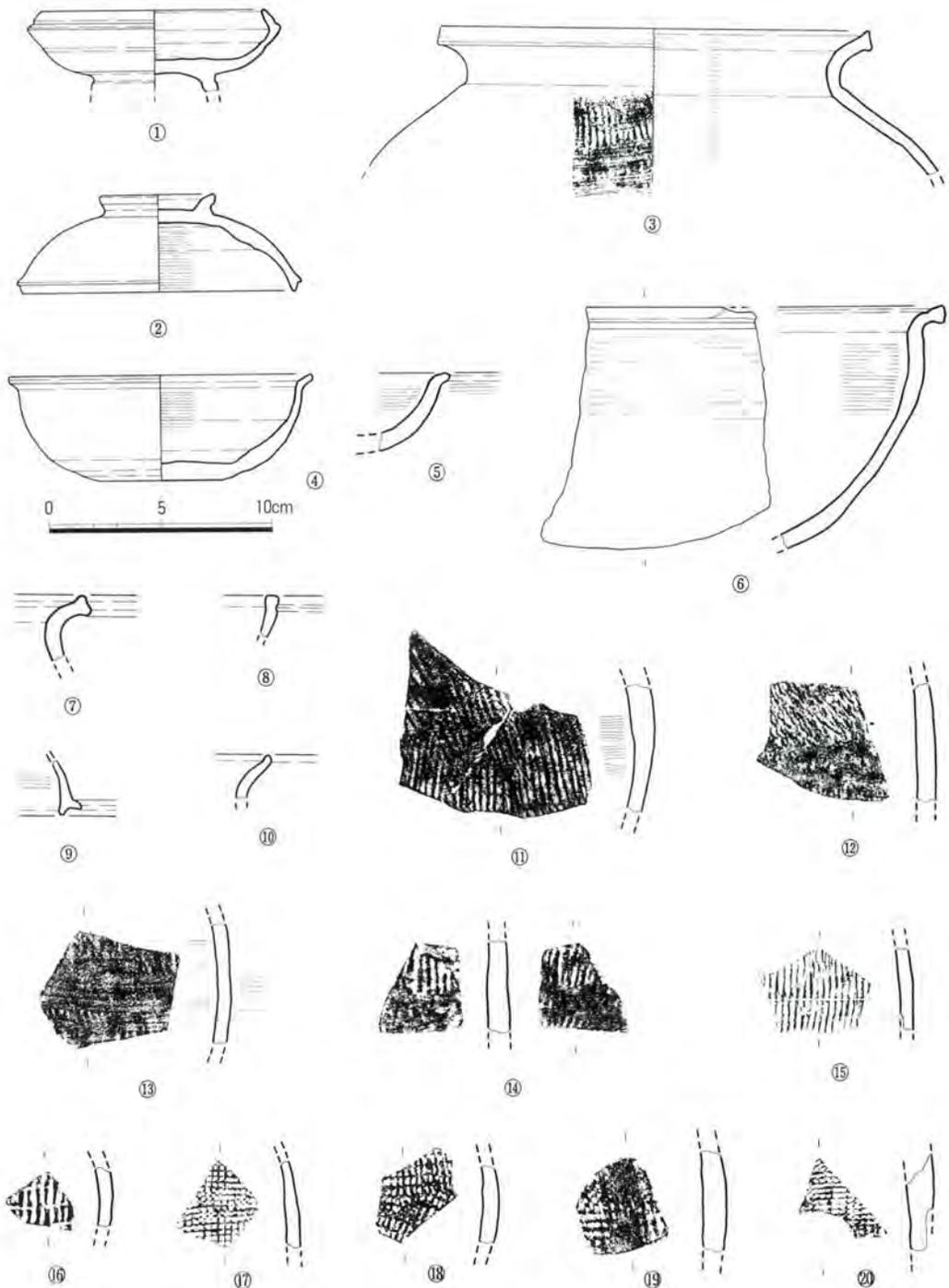
도면 17-⑤(사진 29-③)는 주거지 바닥에서 출토된 회백색 연질의 甕 구연부편이다. 석립이 약간 섞인 점토로 만들었으며 구연부는 짧게 외반된다. 잔존고: 3.6cm

도면 17-⑥(사진 29-②)은 동이로 추정되는 회색 경질토기로 주거지 바닥에서 출토되었다. 짧게 곡선적으로 외반된 구연부 끝은 요철흔이 있으며 내측은 완만하게 만곡되었다. 토기 외면에는 얇은 승문이 타날된 후 물손질한 흔적이 있으며 내면에는 거친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11.1cm

도면 17-⑦~⑩은 주거지 바닥에서 출토된 구연부편이다. 이 가운데 도면 17-⑦(사진 29-④)은 회색 경질로서 사립이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도면 17-⑧(사진 29-⑤)은 회색 연질 소성의 구연부편이며,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은 직립하며 구연 직하에 1조의 횡선이 돌아간다.

도면 17-⑨(사진 29-⑥)는 암회색 연질의 뚜껑 구연부편이다. 구연부는 짧고 그 끝이 둥글게 처리되었다.



도면 17. 5호 주거지 출토유물(1/3)

도면 17-⑩(사진 29-⑦)은 흑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내외 희미한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도면 17-⑪~⑳, 18-①은 주거지 바닥에서 출토된 동체부편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5호 주거지 바닥 출토 토기 동체부편

| 도면 | 사진 | 색조 | 경도 | 태 토 | 특 징 |
|------|------|-----|----|--------|-----------------------|
| 17-⑪ | 30-① | 회백색 | 경질 | 정선된 점토 | 얇은 승문, 내면에 물손질 |
| 17-⑫ | 30-② | 황갈색 | 연질 | 점토 | 얇은 승문, 내면에 탄소흡착 및 물손질 |
| 17-⑬ | 30-③ | 회백색 | 연질 | 점토 | 얇은 승문, 내외 물손질 |
| 17-⑭ | 30-④ | 회색 | 경질 | 점토 | 내외 얇은 승문 |
| 17-⑮ | 30-⑤ | 회청색 | 경질 | 점토 | 승문+횡선 |
| 17-⑯ | 30-⑥ | 흑갈색 | 연질 | 점토 | 승문+횡선, 내면에 물손질 |
| 17-⑰ | 30-⑦ | 회청색 | 경질 | 사질성 점토 | 격자문 |
| 17-⑱ | 30-⑧ | 회황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교차 격자문 |
| 17-⑲ | 30-⑨ | 회백색 | 연질 | 점토 | 격자문 |
| 17-⑳ | 30-⑩ | 회색 | 경질 | 점토 | 격자문 |
| 18-① | 30-⑪ | 회황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내외 물손질 |

도면 18-②~⑥은 주거지 바닥에서 출토된 저부편이다. 이 가운데 도면 18-②(사진 31-①)는 흑갈색 연질토기로서 사립이 소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내면에는 거친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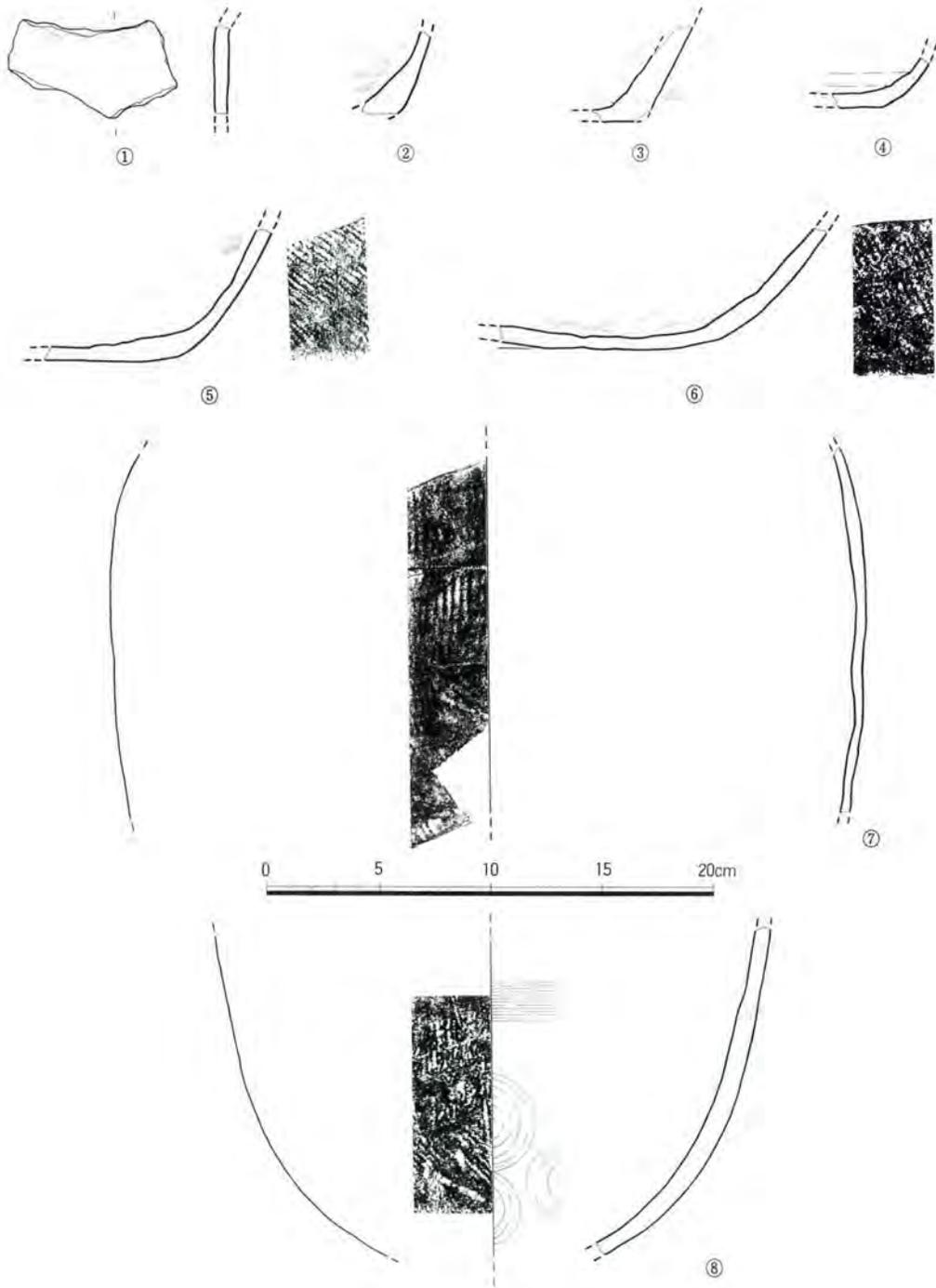
도면 18-③(사진 31-②)은 회색 경질토기의 저부편이다. 사립이 소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외면에는 승문이 희미하게 타날되어 있다. 잔존고: 4.3cm

도면 18-④(사진 31-③)는 회백색 연질의 쪼 저부편이다.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인 점토로 만들었으며 내면에는 거친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2.2cm

도면 18-⑤(사진 31-④)는 회백색 경질토기의 저부편으로 말각평저이다. 사립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저부 바닥과 동체부에는 승문이 타날되어 있으나, 횡으로 물손질하여 그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토기 내면에는 유기물질이 탄화된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고: 5.8cm

도면 18-⑥(사진 31-⑤)은 회색 경질의 말각평저이다.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으며, 저부 상부에는 얇은 승문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토기 내면에는 바닥과 기벽에 불규칙하게 물손질한 흔적이 확인된다. 잔존고: 5.4cm 중화

도면 18-⑦(사진 31-⑥), ⑧(사진 31-⑦)은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적갈색 연질토기로서 동일개체의 토기편이다. 기종은 장동용으로 추정된다. 미세한 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으며 소성 상태는 양호하다. 토기 외면에는 전체적으로 얇은 승문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도면 18. 5호 주거지 출토유물(1/3)

도면 19-①(사진 32-①)은 주거지 북쪽의 소토부에서 출토된 회백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사립이 거의 없는 점토로 만들었으며, 토기 외면에는 얇은 승문이 교차 타날되어 있다. 부분적으로 타날 후에 황으로 지운 흔적이 관찰된다.

도면 19-②~⑩은 내부퇴적층 출토품이다. 19-②(사진 32-②)는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외면에는 암갈색이나 내면에는 황갈색의 색조를 띤다. 미세한 사립이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급격하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약간 직선적으로 처리되었다. 내외 희미한 물손질흔이 관찰되며, 토기 외면에는 부분적으로 탄소가 흡착되어 있다. 잔존고: 6.5cm

도면 19-③(사진 32-③)은 암갈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비교적 단단한 편이다. 잔존고: 1cm

도면 19-④(사진 32-④)는 적갈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으로 구연부가 결실되었다.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소성 상태는 양호하다. 내면에는 황으로 물손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도면 19-⑤~⑭는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기종 미상의 동체부편으로 그 내용은 (표 8)과 같다.

(표 8) 5호 주거지 출토 토기 동체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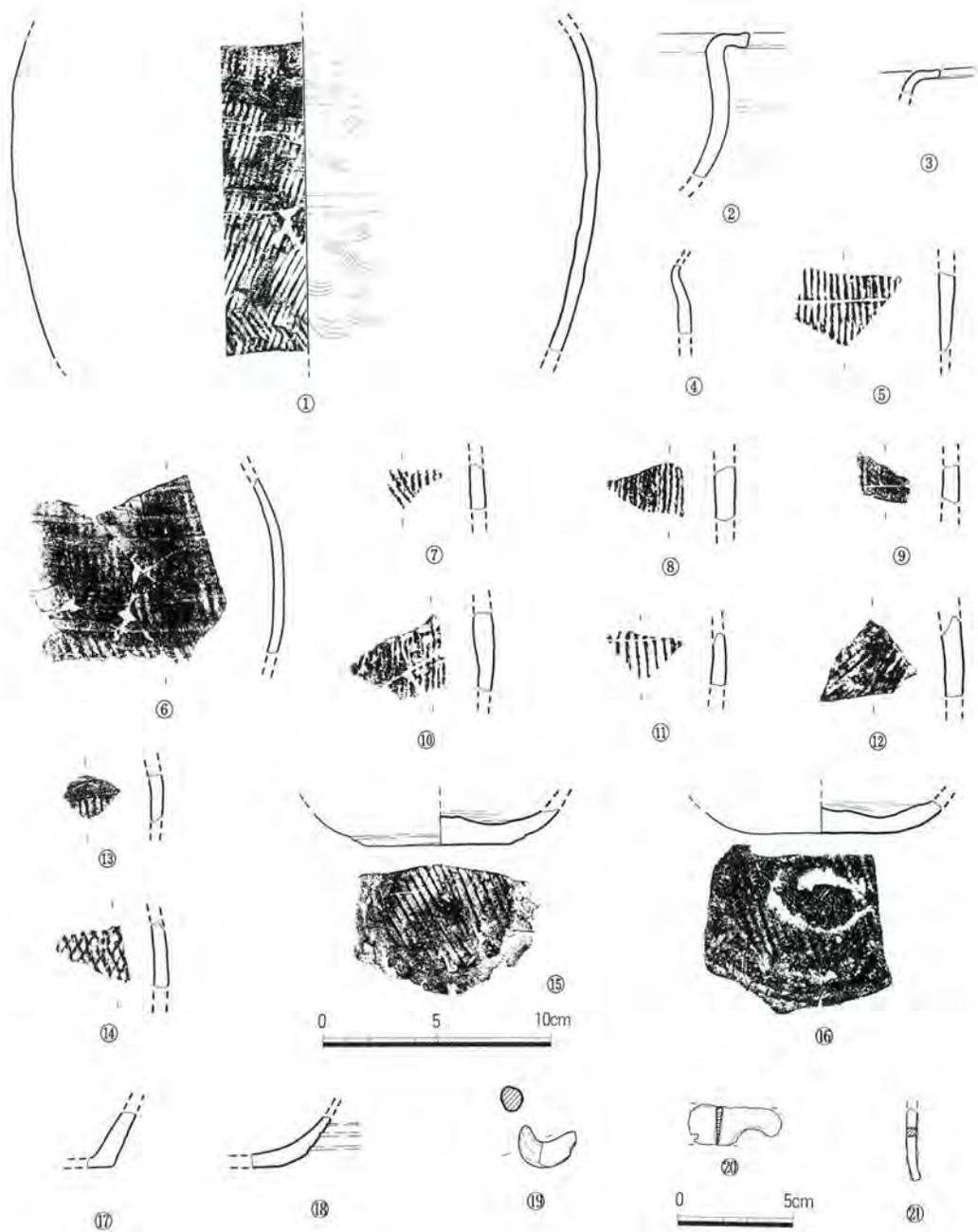
| 도면 | 사진 | 색조 | 경도 | 태 토 | 특 징 |
|------|------|-----|----|--------|----------------------|
| 19-⑤ | 32-⑤ | 회백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승문+횡선 |
| 19-⑥ | 32-⑥ | 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얇은 승문, 내외 물손질 |
| 19-⑦ | 32-⑦ | 흑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 |
| 19-⑧ | 32-⑧ | 연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 |
| 19-⑨ | 32-⑨ | 흑회색 | 연질 | 점토 | 얇은 승문+횡선 |
| 19-⑩ | 33-① | 흑회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얇은 승문 |
| 19-⑪ | 33-② | 회황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승문+횡선 |
| 19-⑫ | 33-③ | 회청색 | 경질 | 점토 | 얇은 승문, 속심 자색 |
| 19-⑬ | 33-④ | 회백색 | 경질 | 점토 | 얇은 승문, 도면 19-①과 동일개체 |
| 19-⑭ | 33-⑤ | 적갈색 | 연질 | 점토 | 격자문 |

도면 19-⑮(사진 33-⑥)는 흑갈색 연질 甁의 저부편이다.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내면에는 황갈색의 색조를 띤다. 바닥면에는 얇은 승문이 타날되어 있다. 잔존고: 1.7cm

도면 19-⑯(사진 33-⑦)은 도면 19-⑮와 함께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회색 연질의 甁 저부편이다. 미세한 사립이 섞인 점토로 만들었으며 바닥면에는 얇은 승문이 타날되어 있다. 잔존고: 2.4cm

도면 19-⑰(사진 33-⑧)은 적갈색 연질의 저부편으로 석립이 많이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잔존고: 2.4cm

도면 19-⑱(사진 33-⑨)은 甁의 저부편으로 추정되는데 회흑색의 경질이다. 미세한 사립



도면 19. 5호 주거지 출토유물(1/3)

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으며, 물레흔이 남아 있다. 잔존고: 2.4cm

도면 19-⑩(사진 33-⑩)는 소형의 파수편으로 단면은 원형이다.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으며, 색조는 황갈색을 띤다.

도면 19-⑪(사진 33-⑪)은 철검편으로 추정되는데, 남아 있는 부분이 극히 일부라 분명치 않다. 잔존 길이: 4.1cm, 너비: 1.7cm, 최대 두께: 0.3cm

도면 19-⑫(사진 33-⑫)은 철촉의 경부편으로 추정되며 단면 방향을 이룬다. 잔존 길이: 3.2cm, 두께: 0.4cm

6) 6號 住居址

(1) 유구(도면 21, 사진 34-②)

바닥만 남은 방형주거지로 7호 주거지, 26호·27호·28호 소형유구에 의해 파괴되었다(사진 34-①). 6호 주거지가 위치한 지역은 토사 채취 후에 소규모로 경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 부분 삭평되었다. 따라서 주거지의 서쪽 벽선의 일부가 남아 있을 뿐이며, 서쪽과 남쪽의 바닥면도 약간 남은 상태이다. 그리고 주거지의 북쪽 및 북동쪽은 바닥면 아래까지 삭평되었으나, 주거지 축조시의 굴토된 흔적이 관찰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면 형태 및 규모의 추정이 가능하다. 주거지의 규모는 길이, 너비 모두 5m 가량이며, 깊이는 3cm 정도이다. 주거지 축조시 굴토한 후, 다시 여기에 점성이 있는 암황색 사질부식토를 깔아 평탄작업을 하였다. 바닥면은 다짐 처리하여 비교적 단단한 편이다.

노지 및 기둥 구멍과 같은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바닥면에서 소량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특히 中島式無文土器가 출토된 주거지 서쪽 바닥에서는 작은 규모의 소토부가 관찰되고 있다.

(2) 출토유물

도면 20-①(사진 35-①)은 주거지 남동쪽 모서리 바닥에서 출토된 직구호의 구연부편이다. 색조는 내외 회색을 띠며 경질이다. 구연단은 다소 둥글게 처리되었으며, 경부는 구연부에서 축약을 이루며 넓게 벌어진다. 동체부에는 격자문을 타날하였으며, 구연부의 내외면에는 횡으로 물손질하였다. 잔존고: 6.6cm

도면 20-②, ③은 주거지 서쪽 소토부에서 中島式無文土器片과 함께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20-②(사진 35-②)는 암갈색(외), 갈색(내)의 색조를 띠는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으로 작은 사립이 많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외면에 승문이 타날되어 있다.

도면 20-③(사진 35-③)은 내외 적갈색의 연질토기 동체부편으로 미세한 사립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외면에 승문이 타날되어 있어 도면 20-②와 동일개체일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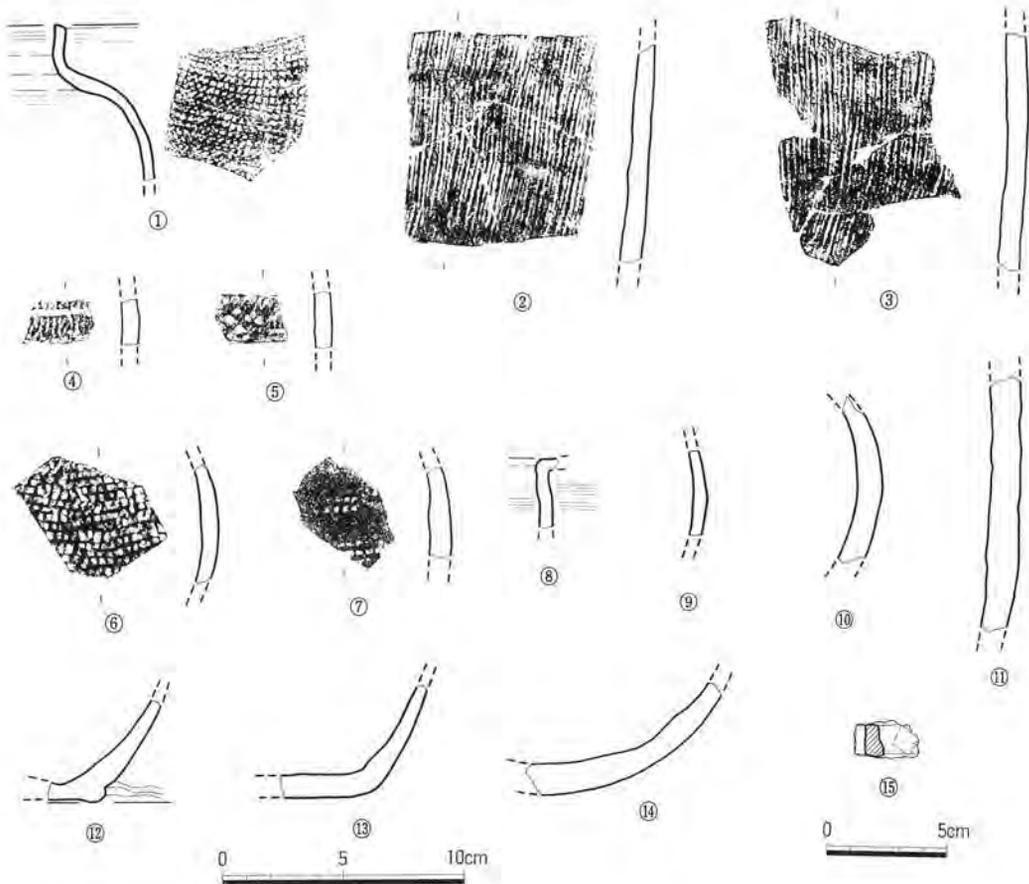
도면 20-④~⑦은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타날문토기 동체부편이다. 이 중에 도면 20-④(사진 35-④)는 적갈색 연질토기로 미세한 사립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외면에 승문+횡선이 관찰된다.

도면 20-⑤(사진 35-⑤)는 격자문+횡선이 있는 암갈색 연질토기이다. 미세한 사립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도면 20-⑥(사진 35-⑥)은 격자문이 타날된 흑회색의 연질토기이다.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으며 속심은 회색을 띤다.

도면 20-⑦(사진 35-⑦)은 격자문이 타날된 갈색의 연질토기이다.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외면에는 탄소가 흡착되어 있다.

도면 20-⑧(사진 36-④)은 구연단 끝이 결실된 회색 경질의 구연부편이다. 잔존상태로 보



도면 20. 6호 주거지 출토유물(1/3)

있을 때, 구연부는 축약을 이루며 급격하게 외반된다.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내외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도면 20-⑨(사진 36-③)는 회청색 경질의 동체부편이다. 속심은 자색을 띠며 내면에는 희미한 물손질흔이 있다.

도면 20-⑩(사진 36-②)은 회백색 경질토기편으로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도면 20-⑪(사진 36-①)은 소토부에서 출토된 中島式無文土器 동체부편이다. 굵은 석립이 다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색조는 암갈색(외), 황갈색(내)을 띤다.

도면 20-⑫(사진 36-⑥)는 적갈색 연질토기의 저부편으로 평저이다.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저부 외측에는 축약되어 있다.

도면 20-⑬(사진 36-⑤)은 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든 말각평저이다. 내외 갈색 내지 흑갈색을 띤다. 저부 상단에는 희미하게 격자타날한 흔적이 관찰된다.

도면 20-⑭(사진 36-⑦)는 바닥이 둥근 갈색 연질토기이다. 작은 사립이 다량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으며 내면에는 유기물질이 탄화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바닥면에는 희미하게 물손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도면 20-⑮(사진 36-⑧)는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용도미상의 철편이다. 길이: 2.6cm, 너비: 1.6cm, 두께: 0.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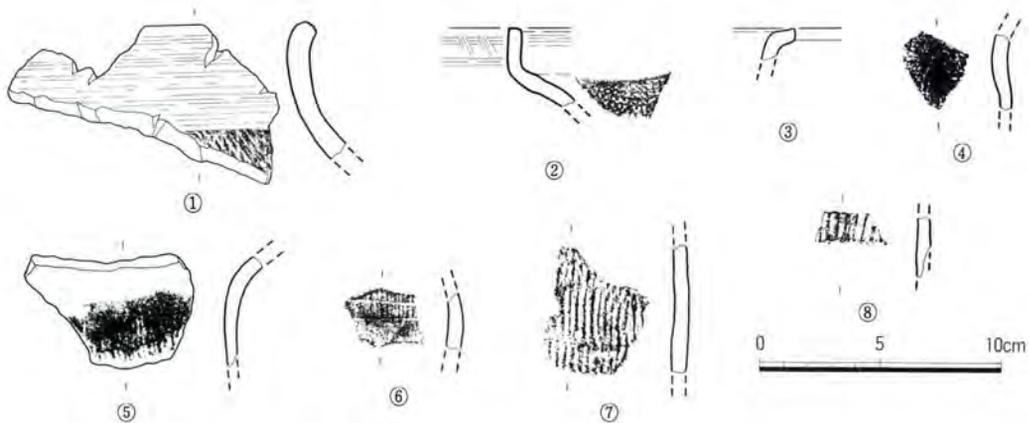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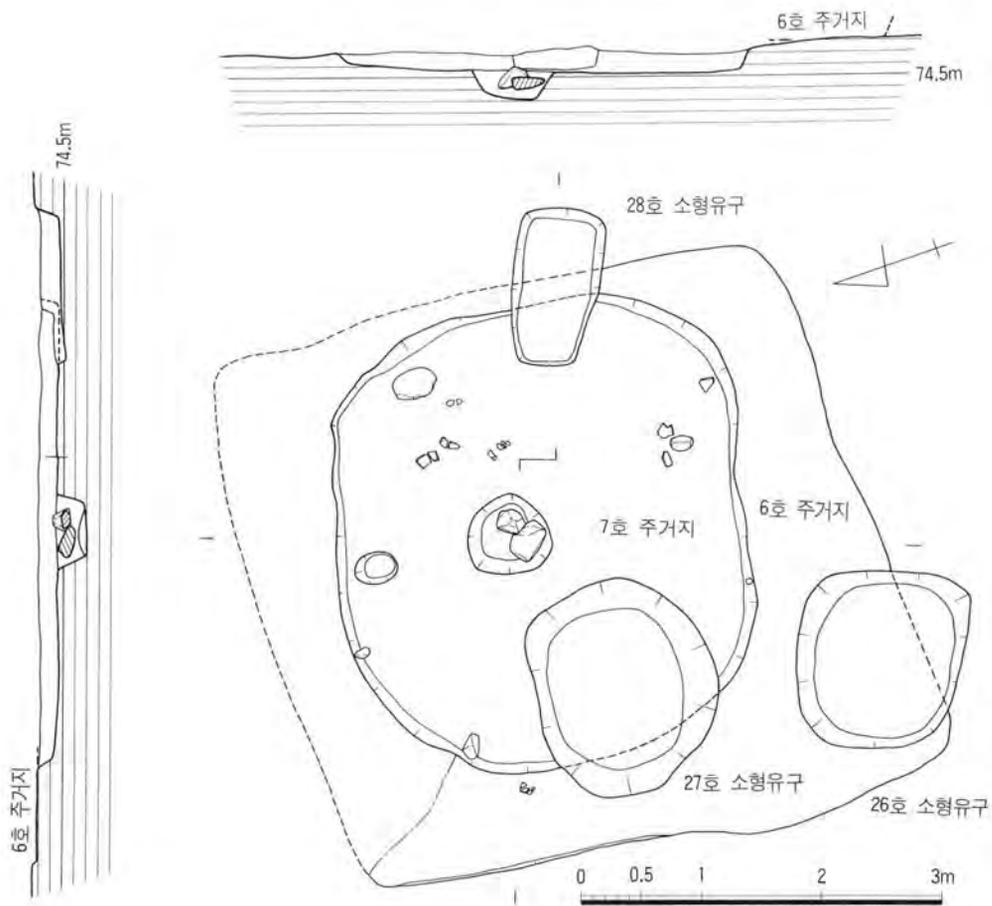
7) 7號 住居址

(1) 유구(도면 21, 사진 37-①)

6호 주거지를 파괴하고 축조된 타원형의 백제 주거지이다. 주거지가 폐기된 이후에 서벽 쪽에는 新羅時代의 소형유구가, 동벽 쪽에는 조선시대로 추정되는 민묘가 축조되었다. 동남-북서 장축 방향인 주거지의 규모는 길이 3.9m, 너비 3.4m 가량이며 수혈의 잔존 깊이는 15~20cm 가량이다.

주거지의 내부에는 암갈색 사질점토부식토 및 황색 사질토로 채워져 있으며 주거지의 북동 모서리와 서북 모서리에는 소토가 퇴적되어 있다. 특히 북동 모서리 부근에 퇴적된 소토부에는 적갈색의 연질 타날문토기 동체부편이 뒤섞인 상태로 출토되고 있어, 부뚜막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잔존 상태가 불량하여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주거지 바닥면은 중앙부를 중심으로 점토를 얇게 깔아 다짐 처리하였다. 기둥 구멍은 주거지 중앙부와 북벽 직하에 각각 한 개씩 확인되었다. 중앙부 기둥 구멍의 내부에는 20~30cm 크기의 할석 2매가 놓여져 있는데, 그 용도는 알 수 없다. 기둥 구멍의 크기는 직경 70cm, 깊이 25cm 가량으로 평면은 5각형에 가깝다(사진 37-②). 북벽에 위치한 기둥 구멍은 깊이



도면 21. 6호 및 7호 주거지(1/60)와 7호 주거지 출토유물(1/3)

가 알아 실제 기둥 구멍의 역할을 하였는지 분명치 않다.

유물은 주거지의 동북 모서리 소토부에서 적갈색의 연질 타날문토기가 출토되었으며, 동쪽 및 동남쪽 바닥면에서는 회색 및 회청색 경질토기편들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도면 21-①~⑤는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구연부편이다. 이 가운데 도면 21-①(사진 38-①)은 암갈색의 연질토기이며 석립이 소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완만하게 외반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구연 하단부터는 승문이 타날되었고, 물손질은 구연부 외면에만 이루어졌다. 잔존고: 5.9cm

도면 21-②(사진 38-②)는 직구호의 구연부편으로 회색의 경질토기이다. 태토는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직립하는 구연부 끝은 다소 둥글게 처리되었으며, 동체부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토기 내외면에는 물손질한 흔적이 있으며, 내면에 탄소흡착흔이 관찰된다. 6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직구호와 동일 개체인 것으로 판단된다. 잔존고: 3.5cm

도면 21-③(사진 38-③)은 적갈색의 연질토기로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외반되고 구연단은 직선적으로 처리되었다. 잔존고: 1.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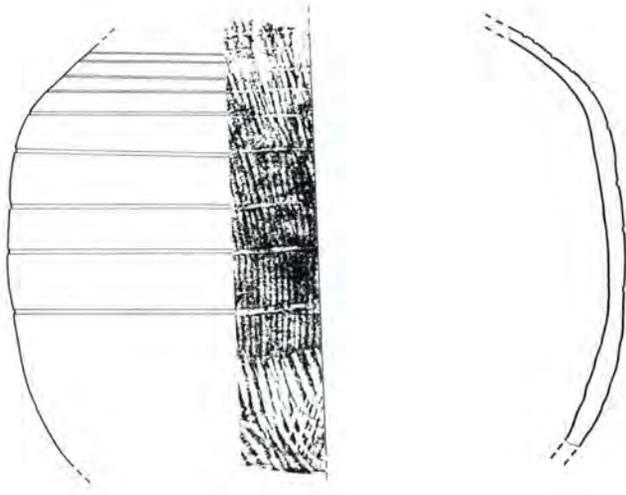
도면 21-④(사진 38-④)는 흑갈색의 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태토는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단은 결실되어 있으며, 동체부에는 승문을 타날한 후 횡선을 돌렸다.

도면 21-⑤(사진 38-⑤)는 황갈색의 연질토기 구연부편으로 미세한 사립이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완만하게 외반되며, 구연단은 결실되었다. 내면 일부에는 탄소흡착흔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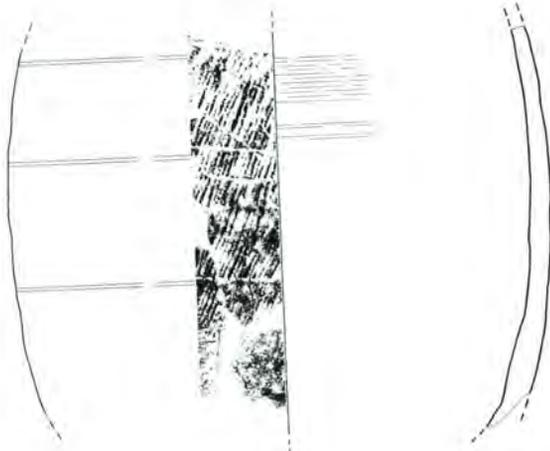
도면 22-①(사진 38-⑨)은 주거지 북서쪽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회색 경질토기로 도면상 복원한 것이다. 구연부와 저부는 결실되어 있는데 저부는 원저인 것으로 추정된다. 작은 석립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소성 상태는 양호하다. 동체부에는 승문을 타날한 후 횡선을 돌렸으며, 저부에는 승문을 교차 타날하였다.

도면 22-②(사진 38-⑩)는 (장)란형토기의 동체부-저부편으로 추정되는 황갈색의 연질토기이다. 미세한 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동체부에는 승문을 타날한 후 간격을 넓게 하여 횡선을 돌렸다. 동체부 하단에는 얇은 격자문이 희미하게 타날되어 있다. 토기 내면에는 횡으로 물손질한 흔적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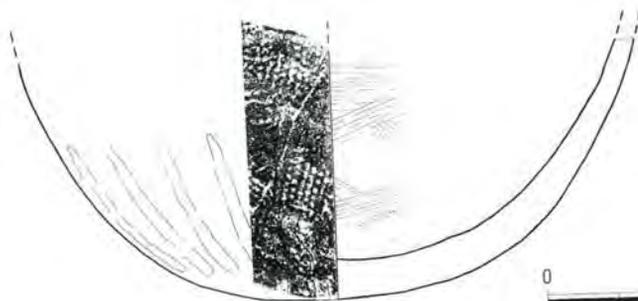
도면 22-③(사진 39-①)은 주거지 남동쪽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회백색 경질토기의 저부편을 도면상 복원한 것이다. 작은 석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는데, 기벽이 매우 두터운 원저이다. 동체부 아랫쪽까지만 격자문이 희미하게 타날되어 있으며, 指頭引痕이 관찰된다. 내부에는 불규칙적인 목리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①



②



③



도면 22. 7호 주거지 출토유물(1/3)

기타 내부퇴적층에서 백제토기 동체부편들이 출토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9)와 같다.

(표 9) 7호 주거지 출토 토기 동체부편

| 도면 | 사진 | 색 조 | 경도 | 태 토 | 특 징 |
|------|------|-----|----|--------|-------------------------|
| 21-⑥ | 38-⑥ | 회백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횡선 |
| 21-⑦ | 38-⑦ | 황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교차승문 |
| 21-⑧ | 38-⑧ | 회흑색 | 연질 | 점토 | 승문, 속심 황갈색 |
| 23-① | 39-① | 황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교차격자문, 일부 회황색 색조 |
| 23-③ | 39-③ | 회색 | 경질 | 점토 | 승문+횡선+교차승문, 내외면에 탄소흡착 |
| 23-④ | 39-④ | 황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교차격자문 |
| 23-⑤ | 40-② | 회황색 | 연질 | 점토 | 교차승문+횡선 |
| 23-⑦ | 40-③ | 황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격자문+교차승문 |
| 24-① | 40-⑤ | 황갈색 | 연질 | 점토 | 교차격자문 |
| 24-② | 40-⑥ | 암갈색 | 연질 | 점토 | 격자문 |
| 24-③ | 40-⑦ | 암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횡선, 내외면에 탄소흡착, 속심 흑색 |
| 24-⑤ | 40-⑨ | 황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교차승문+횡선 |
| 24-⑥ | 40-⑩ | 회백색 | 경질 | 점토 | 얇은 승문+횡선, 내면 물손질 |

도면 23-⑥, ⑧, 24-④는 주거지 바다에서 출토된 동체부편들이다. 이 가운데 도면 23-⑥(사진 40-①)은 회백색의 연질토기이며, 태토는 니질점토이다. 토기 외면에 교차승문이 타날 되어 있다.

도면 23-⑧(사진 40-④)은 적갈색의 연질토기이며, 태토는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외면에는 얇은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고, 탄소가 흡착된 흔적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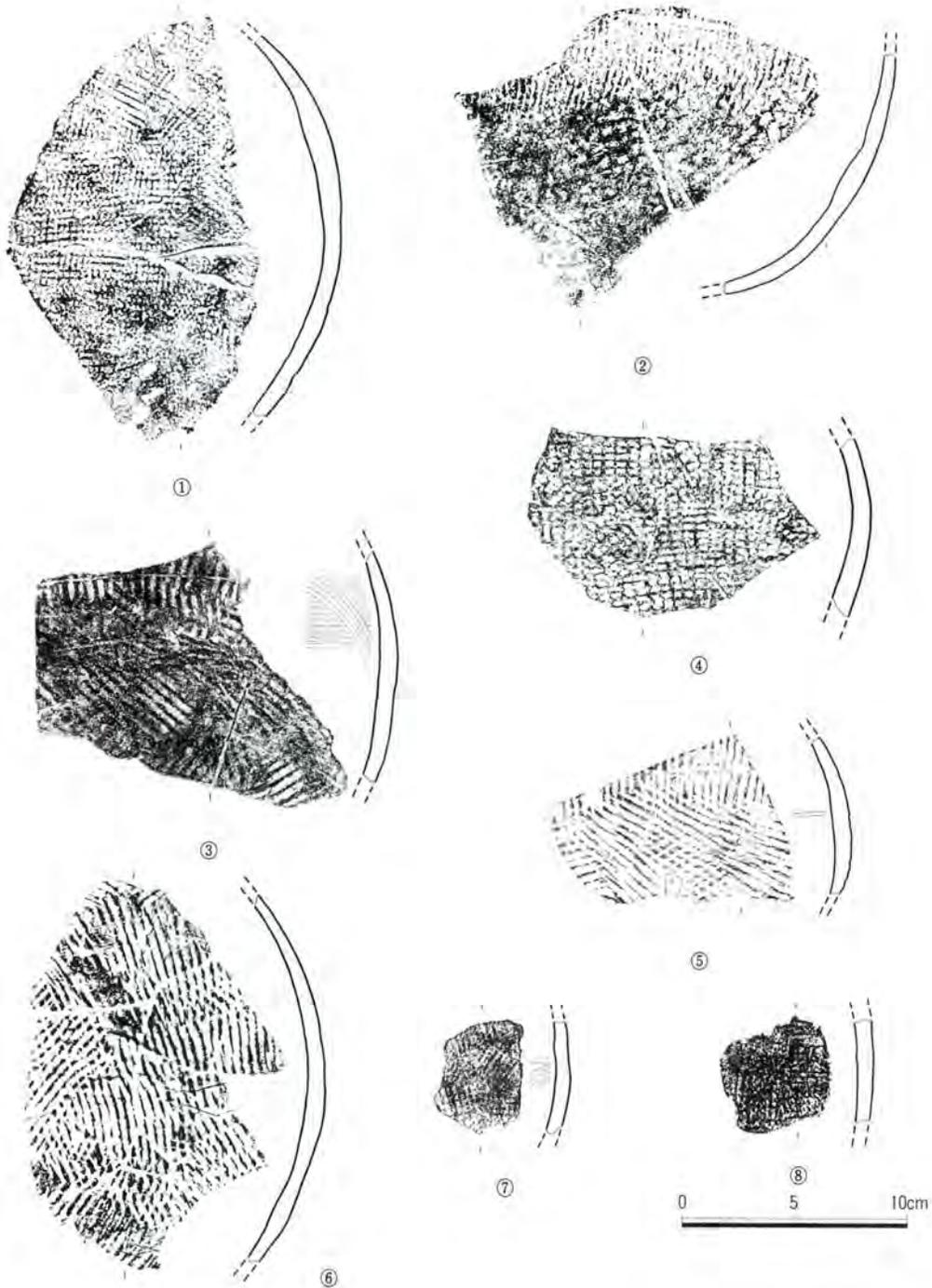
도면 24-④(사진 40-⑧)는 中島式無文土器의 동체부편으로 7호 주거지 폐기 과정에서 끌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굵은 석립이 다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색조는 암갈색(외), 황갈색(내)을 띤다. 외면에는 불규칙적인 목리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도면 23-②, 24-⑦~⑨는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저부편들이다. 이 가운데 도면 23-②(사진 39-②)는 장란형토기의 저부편으로 황갈색의 연질이다. 태토는 미세한 사립이 다량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동체부에는 승문을 타날한 후 횡선을 돌렸으며, 저부에는 얇은 격자문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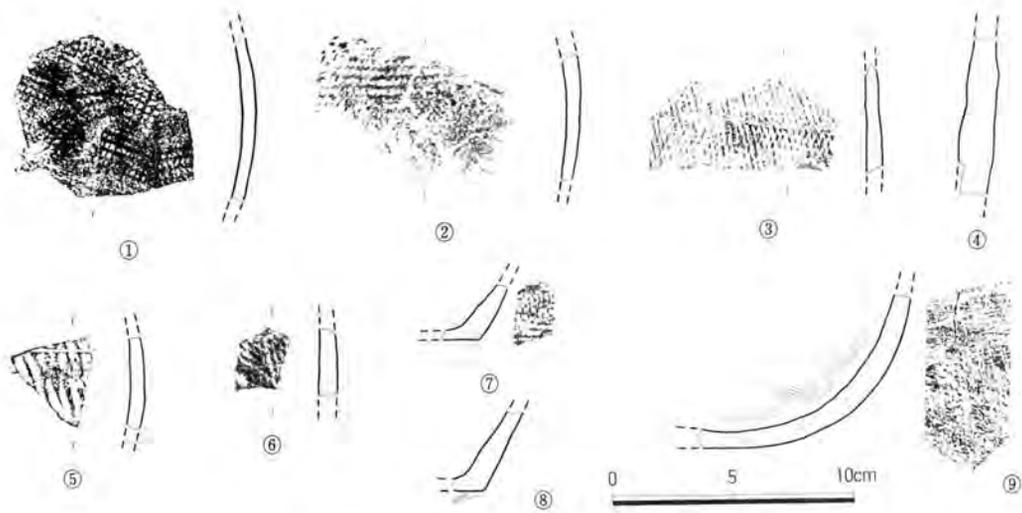
도면 24-⑦(사진 41-①)은 명황색 연질토기의 평저로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동체부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도면 24-⑧(사진 41-②)은 황갈색 연질토기의 평저이다. 태토는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으며 내면에는 유기물질이 탄화된 흔적이 관찰된다. 저부 바닥면에 압날한 흔적이 있다.

도면 24-⑨(사진 41-③)는 회백색 경질토기의 원저이다. 태토는 작은 석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동체부에는 승문이,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교차승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내면에는 거친 목리흔이 관찰된다.



도면 23. 7호 주거지 출토유물(1/3)



도면 24. 7호 주거지 출토유물(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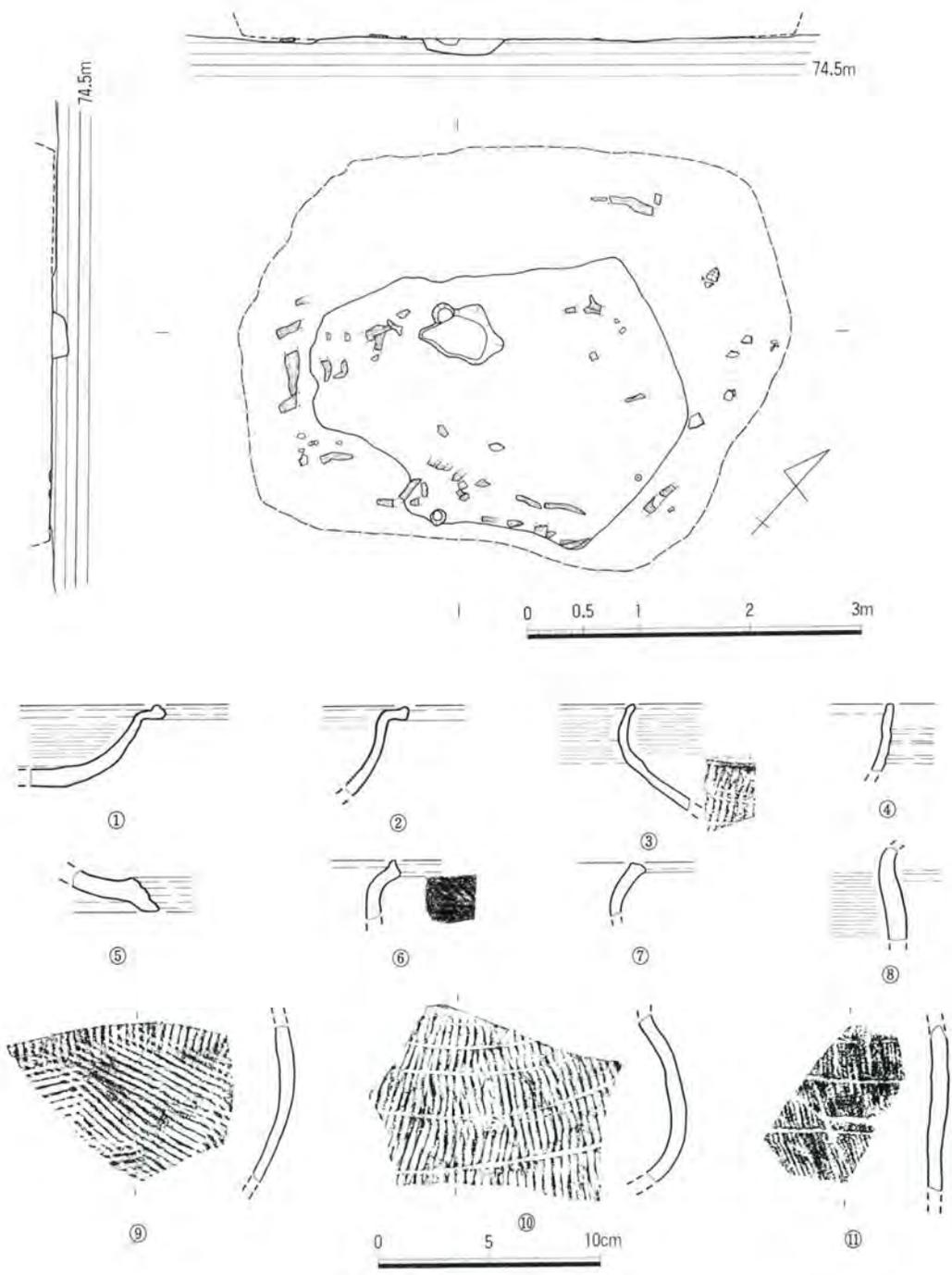
8) 8號 住居址

(1) 유구(도면 25, 사진 41-④)

7호 주거지 동북쪽 5m 지점에 위치한다. 조사 전에 이미 목탄이 노출되어 있어 화재로 인해 폐기된 주거지일 것으로 추측되었다. 조사결과, 중장비에 의해 대부분이 파괴되고 바닥면 일부만 남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잔존 상태로 보았을 때, 장축이 북동-남서 방향인 타원형 내지 말각장방형 주거지로 추정된다. 현재 남아 있는 바닥면의 규모는 길이 3.4m, 너비 2.4m 가량이다. 바닥면 아래에 까지 삭토되었지만, 주거지 축조시, 굴토된 흔적이 확인되는데, 규모는 길이 5m, 너비 3.8m 가량이나 적어도 주거지의 크기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바닥면은 중장비의 굴토에 의해 부분적으로 손상되었는데, 주거지 축조시, 굴광후 황갈색 사질점토부식토를 얇게 깔고 바닥면을 다졌다. 바닥면 전면에는 화재로 인한 목탄이 깔려 있으며, 화재의 영향으로 바닥면 일부가 단단해졌다.

내부시설로는 기둥 구멍만이 확인되고 있는데, 주거지 장축선에서 약간 남서쪽에 치우쳐 부정형의 기둥 구멍 1개소가 관찰되고 있다. 규모는 길이 76cm, 너비 54cm 가량이며 깊이는 14cm로 얇은 편이다. 또한 동벽 쪽에도 1개의 기둥 구멍이 보이는데, 직경 14cm의 원형 기둥 구멍으로 깊이는 9cm 가량이다.

바닥면과 내부퇴적토에서 토기편 및 방추차가 출토되었는데, 바닥면에서 新羅土器片과 함께 百濟土器片이 출토되고 있으며, 거의 바닥면만 남은 상태라 주거지의 시대는 알 수 없다.



도면 25. 8호 주거지(1/60)와 출토유물(1/3)

(2) 출토유물

도면 25-①, ②는 新羅土器인 甬의 구연부편이다. 이 가운데 도면 25-①(사진 42-①)은 흑갈색 내지 회갈색의 연질토기이며,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축약을 이루면서 직선적으로 외반하며, 구연단은 희미한 요철흔을 보이며 다소 둥글게 처리되었다. 내외면에는 거친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높이: 3.7cm

도면 25-②(사진 42-②)는 회색의 경질토기이며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축약을 이루면서 수평상으로 외반되었으며, 구연단은 다소 둥글게 처리되었다. 내외면에는 물손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도면 25-③(사진 42-③)은 회청색 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소성과정에서 뒤틀려져 있으나, 외반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체부에는 승문을 타날한 후 횡선을 돌렸으며, 구연부와 내면에 물손질 흔적이 관찰된다.

도면 25-④(사진 42-④)는 회색의 경질토기이며, 점토로 만들었다. 직립하는 구연부 끝은 둥글게 처리되었으며, 토기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도면 25-⑤(사진 42-⑤)는 회색의 경질토기 대각편으로 작은 석립이 소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 흔적이 남아 있다.

도면 25-⑥(사진 42-⑥)은 적갈색 연질의 新羅土器 구연부편으로 정선된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완만하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요철 흔적이 남아 있다. 구연부 외면에는 승문이 얇게 타날되어 있다.

도면 25-⑦(사진 42-⑦)은 암회색 경질의 대각편이다.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내외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도면 25-⑧(사진 42-⑧)은 회백색의 경질토기이며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동체부 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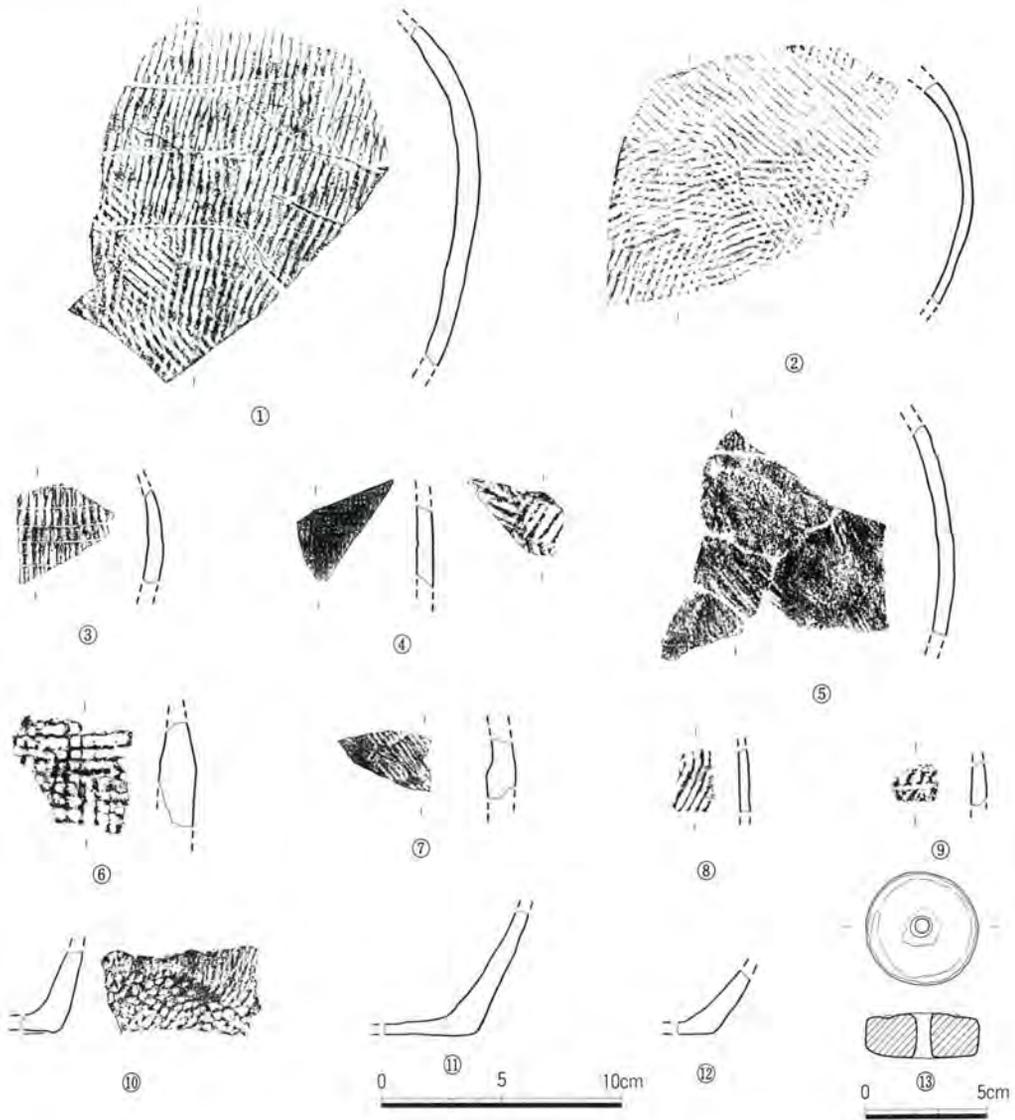
(표 10) 8호 주거지 출토 토기 동체부편

| 도면 | 사진 | 색조 | 경도 | 태 토 | 특 징 |
|------|------|-----|----|--------|-------------------------|
| 25-⑨ | 43-① | 흑회색 | 경질 | 점토 | 교차승문 |
| 25-⑩ | 43-② | 회색 | 경질 | 점토 | 승문+횡선, 내박자흔 |
| 25-⑪ | 43-③ | 명황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횡선 |
| 26-① | 43-④ | 회색 | 경질 | 점토 | 승문+횡선+교차승문, 내박자흔 |
| 26-② | 43-⑤ | 흑회색 | 경질 | 점토 | 교차승문, 외면에 탄소흡착 |
| 26-③ | 43-⑥ | 흑회색 | 경질 | 점토 | 승문+횡선 |
| 26-④ | 43-⑦ | 회색 | 경질 | 점토 | 격자문(외), 교차승문(내), 속심 자색 |
| 26-⑤ | 43-⑧ | 회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횡선+얇은 교차승문, 내외면 탄소흡착 |
| 26-⑥ | 43-⑨ | 황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격자문 |
| 26-⑦ | 43-⑩ | 회청색 | 경질 | 점토 | 내면에 승문 타날 |
| 26-⑧ | 43-⑪ | 회백색 | 연질 | 점토 | 승문 |
| 26-⑨ | 43-⑫ | 회백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횡선 |

만 일부 남아 있는 것인데, 토기 외면은 거친 물손질흔이 남아 있는 반면, 내면에는 고운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기타 기종 미상의 동체부편이 출토되었는데 그 내용은 (표 10)과 같다.

도면 26-⑩(사진 44-②)은 저부 바닥 중앙부가 들린 백제토기 저부편이다. 미세한 사립이



도면 26. 8호 주거지 출토유물(1/3)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동체부에는 교차승문,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고 내외면에 탄소가 흡착된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고: 3.3cm

도면 26-⑪(사진 44-①)은 황갈색 연질토기의 저부편으로 작은 석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외면의 표면바리가 심하며, 일부 탄소흡착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5.2cm

도면 26-⑫(사진 44-③)는 흑회색 연질의 평저편으로 작은 사립이 소량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동체부에는 얇은 승문이 타날되어 있고 내면에 탄소흡착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2.7cm

도면 26-⑬(사진 44-④)은 토제 방추차로 회흑색의 색조를 띠며,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중앙에는 직경 0.7~0.8cm 크기의 圓孔이 뚫려 있다. 표면에는 일부 얇은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마연된 흔적이 관찰된다. 직경: 4.7cm, 두께: 1.9cm

9) 9號 住居址

(1) 유구(도면 27, 사진 45)

8호 주거지 남동쪽 10.5m 지점에 위치하는 백제 주거지로 32호 ~ 36호 소형유구와 중복되어 있다. 중복관계를 보면, 34호 소형유구를 파괴하고 9호 주거지가 만들어졌으며, 주거지 폐기 후에 百濟 32호, 新羅 33호, 35호, 36호 소형유구가 만들어졌다³⁾.

주거지의 장축은 북동-남서 방향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의 수혈주거지이다. 주거지의 규모는 길이 5.5m, 너비 3.7m이며, 중장비에 의한 삭평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존의 경작과정에서 주거지 어깨선이 상당 부분 삭평되어 현재 남아 있는 수혈의 최고 깊이는 17cm 내외이다. 주거지 내부에는 암갈색 사질점토부식토가 퇴적되어 있는데, 내부퇴적토 출토유물은 적은 편이다. 바닥면은 생토인 황색 모래를 그대로 다짐처리하였으나, 주로 중앙부에만 단단할 뿐이다.

내부시설로는 남동벽 중앙부에 위치한 부뚜막 시설이 주목된다(사진 45-②). 부뚜막의 규모는 길이 1.3m 너비 0.9m 가량으로 남-북 방향으로 시설되어 있다. 이 부뚜막 시설은 점토로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부뚜막 양쪽 측벽만이 존재할 뿐, 나머지 부분의 잔존상태는 양호하지 않다. 또한 37호 소형유구가 만들어지면서 부뚜막 끝 부분이 일부 잘려 나갔다. 부뚜막의 양 측벽은 전체적으로 소토화되어 있으며, 기타 토기를 받치는 지각이나 천장, 연도부는 부뚜막이 파괴되면서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부뚜막 내부에는 소량의 목탄이 퇴적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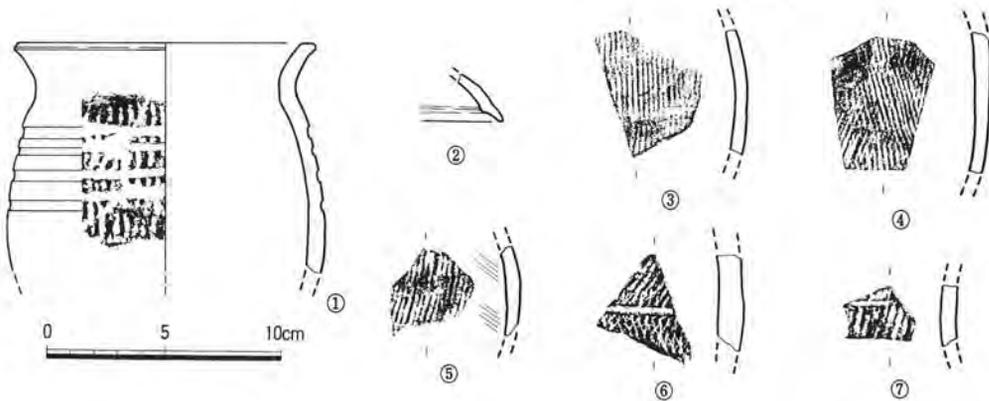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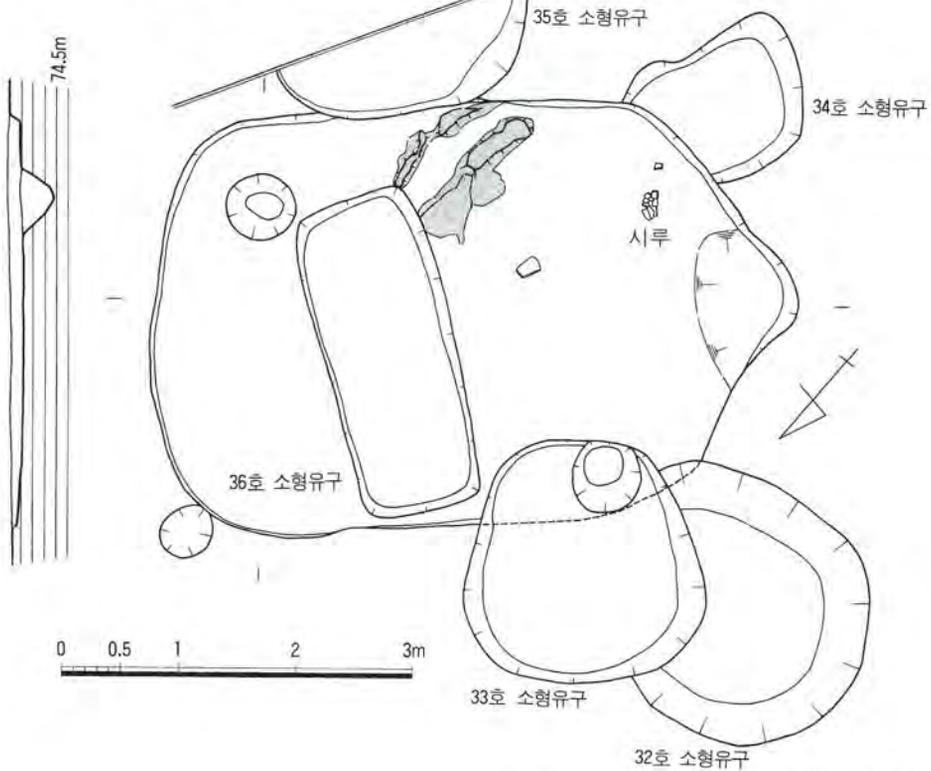
3) 유구간의 중복관계는 평면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트렌치를 넣어 단면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9호 주거지와 33호 소형유구와의 중복관계는 유구의 윤곽선을 확인할 당시에는 9호 주거지가 나중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사진 45-①), 나중에 토층과 유물을 검토한 끝에 발굴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 I: 암갈색 사질 점토 부식토층
- II: 갈색 사질점토 부식토층
- III: 명갈색 사질점토 부식토층
- IV: 황색 사질부식토층

- V: 갈색 사질점토 부식토층
- VI: 암갈색 사질점토 부식토층
- VII: 황갈색 사질점토 부식토층
- VIII: 황색 점토

- ①명갈색 사질점토 부식토층 (목판 소량 섞임)
- ②갈색 사질 점토 부식토층
- ③명갈색 사질점토 부식토층
- ④갈색 사질점토 부식토층
- ⑤암갈색 사질점토 부식토층



도면 27. 9호 주거지 및 34호, 36호 소형유구(1/60)와 9호 주거지 출토유물(1/3)

있다. 일반적으로 원삼국시대와 한성백제 주거지의 부뚜막 시설이 출입구 쪽에서 볼 때, 북동쪽 벽면에 시설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시설물이 과연 부뚜막인지 분명치 않은 측면도 있다.

한편, 주거지 남서쪽 단벽 중앙에 돌출부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이 출입구 역할을 한 것 생각된다. 기둥 구멍은 주거지의 동북모서리와 남서모서리에서 각각 1개씩 확인되었다. 규모는 직경 60cm, 깊이 30cm 내외이다.

(2)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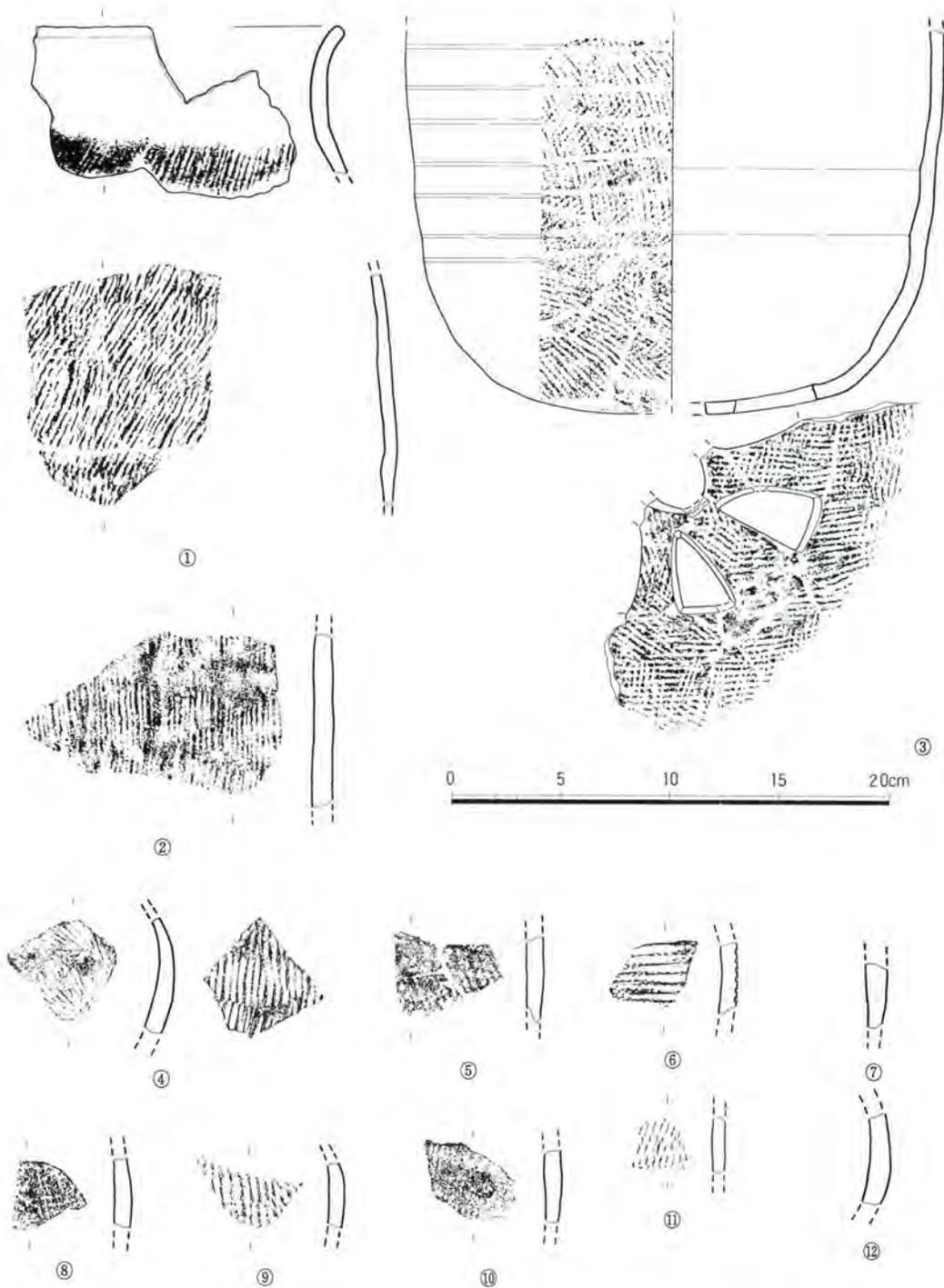
부뚜막 부근에서 방추차 1점, 부뚜막과 출입구 중간 지점에서 시루 동체-저부편 등 바닥에서 출토된 유물은 극히 적은 편이다(사진 45-③, ④).

도면 27-①(사진 46-①)은 주거지 바닥에서 출토된 연질의 심발형토기를 도면상 복원한 것이다. 작은 사립이 많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으며 색조는 흑갈색(외), 암갈색(내)을 띤다. 구연부는 완만하게 외반되며 구연단은 직선적으로 처리되었다. 동체부에는 굵은 승문이 타날된 뒤에 횡선이 돌아가는데, 횡선의 폭은 0.5cm로 넓은 편이다. 토기 내면에는 유기물질이 탄화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복원 구경: 12.9cm, 잔존고: 10cm

도면 27-②(사진 47-①)는 토기 뚜껑으로 추정되는 구연부편이다. 미세한 사립이 섞인

(표 11) 9호 주거지 출토 토기 동체부편

| 도면 | 사진 | 색조 | 경도 | 태 토 | 특 징 |
|------|------|-----|----|--------|-----------------------|
| 27-③ | 47-② | 회색 | 경질 | 정선된 점토 | 승문+횡선 |
| 27-④ | 47-③ | 흑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교차승문, 속심 황갈색, 내면에 물손질 |
| 27-⑤ | 47-④ | 흑색 | 연질 | 니질 점토 | 승문+횡선 |
| 27-⑥ | 47-⑤ | 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교차승문+횡선, 내면에 탄소흡착 |
| 27-⑦ | 47-⑥ | 회색 | 경질 | 점토 | 승문+횡선 |
| 28-② | 47-⑦ | 적갈색 | 연질 | 점토 | 승문 |
| 28-④ | 47-⑧ | 회색 | 경질 | 점토 | 승문, 내면에 박자흔, 속심 자색 |
| 28-⑤ | 47-⑨ | 황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격자문 |
| 28-⑥ | 47-⑩ | 회색 | 연질 | 니질 점토 | 격자문 |
| 28-⑦ | 47-⑪ | 회백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희미한 격자문 |
| 28-⑧ | 47-⑫ | 갈색 | 연질 | 점토 | 얇은 승문, 신라토기 |
| 28-⑨ | 47-⑬ | 회백색 | 연질 | 니질 점토 | 승문, 내면에 유기물질 탄화 |
| 28-⑩ | 48-① | 갈색 | 연질 | 점토 | 얇은 승문, 도면 28-⑧과 동일개체 |
| 28-⑪ | 48-② | 갈색 | 연질 | 점토 | 교차승문 |
| 28-⑫ | 48-③ | 회색 | 경질 | 점토 | 희미한 물손질 |
| 29-① | 48-④ | 암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교차승문+승문, 내면에 유기물질 탄화 |
| 29-③ | 48-⑤ | 명황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횡선 |
| 29-④ | 49-① | 회청색 | 경질 | 점토 | 교차격자문, 속심 자색 |
| 29-⑤ | 49-② | 흑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격자문, 외면 황색 |
| 29-⑥ | 49-③ | 회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격자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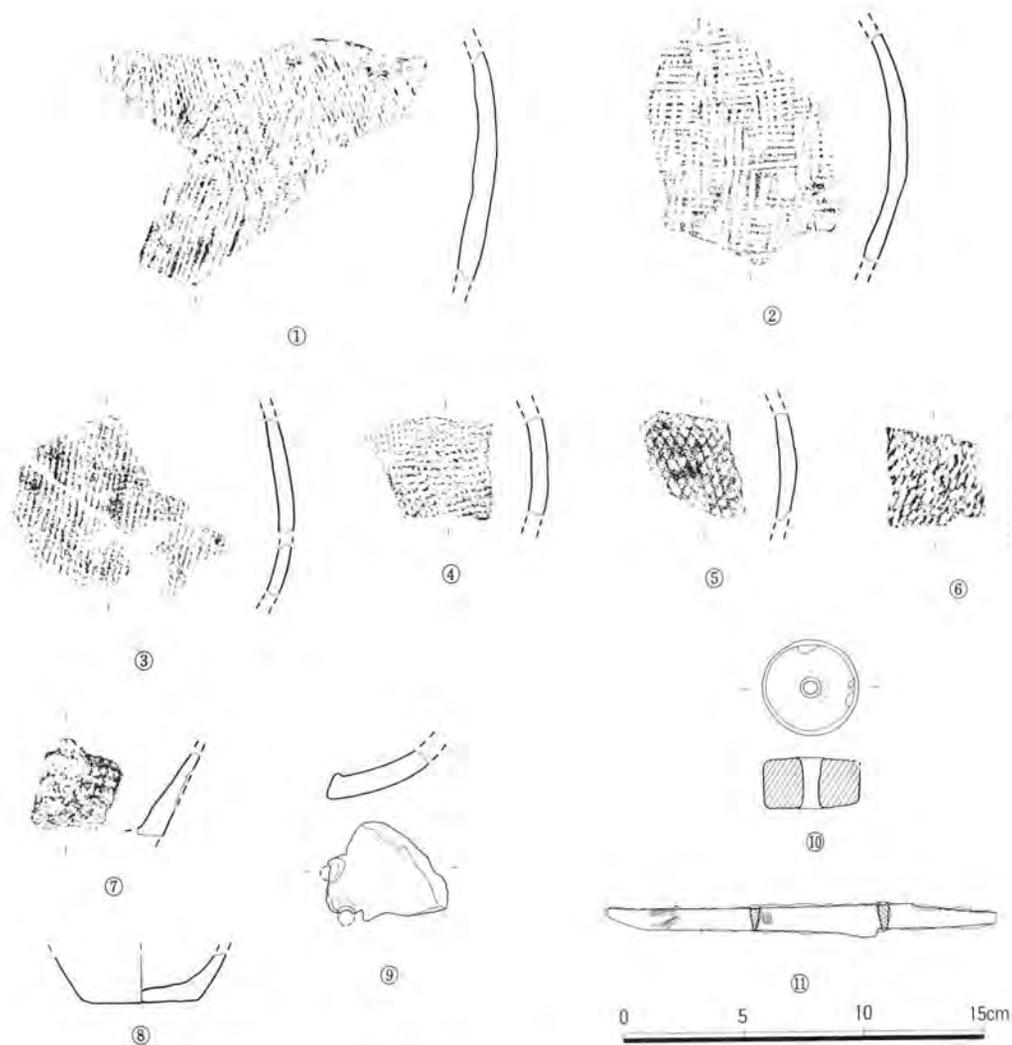


도면 28. 9호 주거지 출토유물(1/3)

정선된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으며 적갈색 연질이다. 드림은 짧게 돌출되어 있다.

도면 28-①(사진 46-②)은 주거지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황갈색 연질토기로서 난형 내지 장란형토기의 구연-동체부로 추정된다. 작은 석립이 많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동체부에서 축약없이 완만하게 외반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동체부에는 승문이 타날되어 있다.

도면 28-③(사진 46-③)은 출입구 서쪽 바닥에서 출토된 연질 시루의 동체부-저부편으로



도면 29. 9호 주거지 출토유물(1/3)

도면상 복원하였다. 작은 사립이 많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으며 색조는 내외 황갈색을 띤다. 저부는 원저이며 여기에 칼로 자른 듯이 시루 구멍을 뚫었다(사진 46-④). 동체부에는 승문을 타날한 후, 횡선을 돌렸으나 저부에는 승문을 교차 타날하였다. 토기 내면에는 종으로 물손질한 흔적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잔존고: 17.8cm

기타 내부퇴적층 및 바닥에서 동체부편들이 출토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11)과 같다.

도면 29-②(사진 48-⑥)는 갈색 내지 적갈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으로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토기 외면에는 횡으로 6줄, 종으로 3줄을 감은 박자를 이용하여 타날한 뒤에 일정한 간격으로 횡선을 돌렸다. 토기 내면에는 유기물질이 탄화된 흔적이 남아 있다.

도면 29-⑦(사진 49-④)은 흑갈색 연질토기의 저부편으로 바닥은 결실되었다. 미세한 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으며 저부 상단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도면 29-⑧(사진 49-⑤)은 갈색 연질토기의 저부편으로 평저이다. 작은 석립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복원 구경: 4.5cm, 잔존고: 2cm

도면 29-⑨(사진 49-⑥)는 시루편으로 밖에서 안으로 뚫은 2개의 구멍흔이 관찰된다. 작은 석립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갈색 연질이다. 바닥은 잔존상태로 볼 때, 원저로 추정된다.

도면 29-⑩(사진 49-⑧)은 부뚜막 주변에서 출토된 토제 방추차이다. 미세한 사립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색조는 갈색을 띤다. 일부 탄소가 흡착되어 흑색을 띠는 부분이 있으며 경도는 무척 단단한 편이다. 직경: 4cm, 두께: 2.2cm, 구멍 직경: 0.6cm

도면 29-⑪(사진 49-⑨)은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철도자로 병부에는 일부 목질흔이 남아 있다. 刀身의 단면은 이등변 삼각형을 이루며, 병부는 梯形이다. 刀身 길이: 11.1cm, 병부 길이: 4.9cm, 최대 두께: 0.5cm

사진 49-⑦은 주거지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鐵塊片이다. 길이는 3.3cm 내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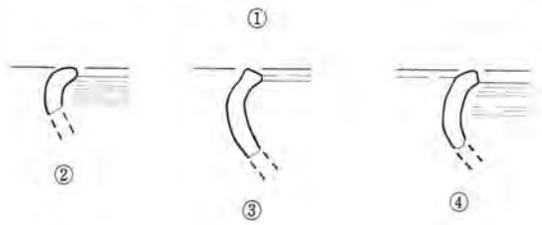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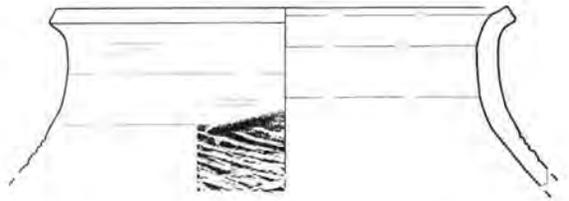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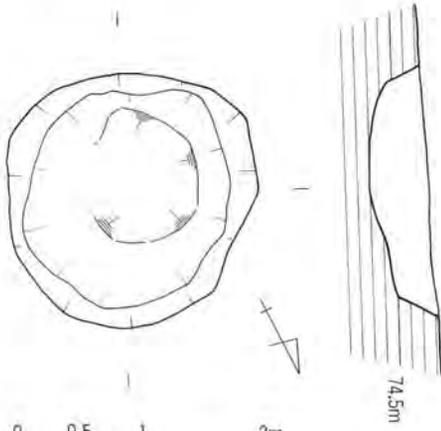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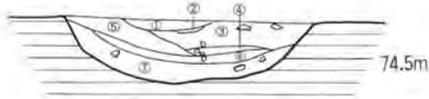
2. 小形遺構

1) 1號 小形遺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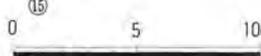
(1) 유구(도면 30, 사진 50-①)

조사지역 남서단에 위치한 백제시대 소형유구이다. 평면 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2.12m, 너비 2m이다. 깊이는 55cm 가량이다.

유구의 내부에는 흑갈색 내지 암갈색 사질점토부식토와 함께 황색 모래가 섞인 갈색의 사질점토부식토가 채워져 있으며, 간혹 소량의 목탄 부스러기들이 섞여 나왔다(사진 50-②).



- ① 흑갈색 사질점토 부식토층
- ② 황색 모래층
- ③ 암갈색 사질점토 부식토층
- ④ 암갈색 사질점토 부식토층
- ⑤ 갈색 사질점토 부식토층
- ⑥ 암갈색 사질점토 부식토층
- ⑦ 갈색 사질부식토층 (황색 모래 혼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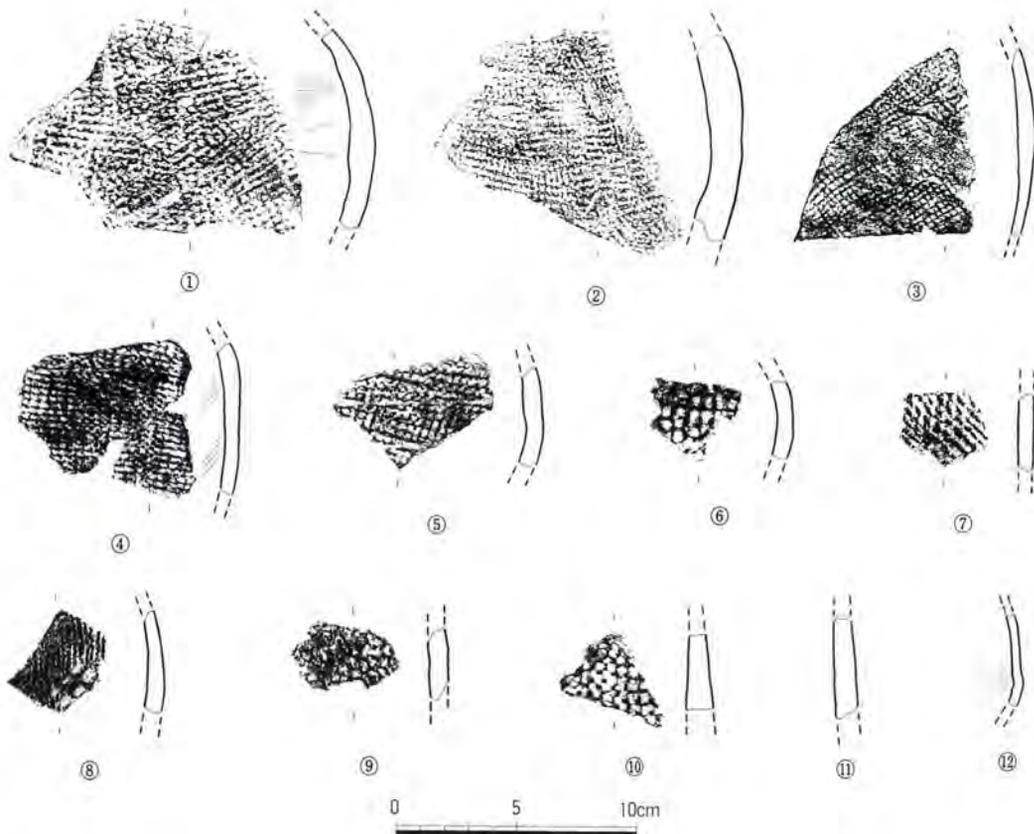
도면 30. 1호 소형유구(1/60)와 출토유물(1/3)

벽면은 비교적 완만하게 경사져 있으며, 바닥면은 편평한 편이다. 바닥은 생토인 황색 모래층에 두고 있는데 특별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출토유물은 주로 ①~⑤층의 상부 퇴적층에서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도면 30-①(사진 51-①)은 황갈색 연질토로 추정되는 구연부편으로 도면상 복원한 것이다. 태토는 다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이다. 구연부는 길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직선적으로 처리하였다. 동체부에는 승문을 타날한 후, 횡선을 돌린 흔적이 관찰되며, 목 부분에는 희미하게 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복원구경: 18.8cm, 잔존고: 7.5cm

도면 30-②(사진 51-②)는 회색의 연질토기로 미세한 석립이 소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하고,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토기 외면에 물손질한 흔적



도면 31. 1호 소형유구 출토유물(1/3)

이 관찰된다. 잔존고: 2cm

도면 30-③(사진 51-③)은 황갈색의 연질토기로 세사립이 다량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어졌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직선적으로 처리하였다. 잔존고: 3.7cm

도면 30-④(사진 51-④)는 회색의 연질토기 구연부편으로 다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어졌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직선적으로 처리하였다. 동체부에는 희미하게 물손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고: 3.3cm

이 밖에 기종 미상의 동체부편들(도면 30-⑤~⑰, 31-①~⑫)이 출토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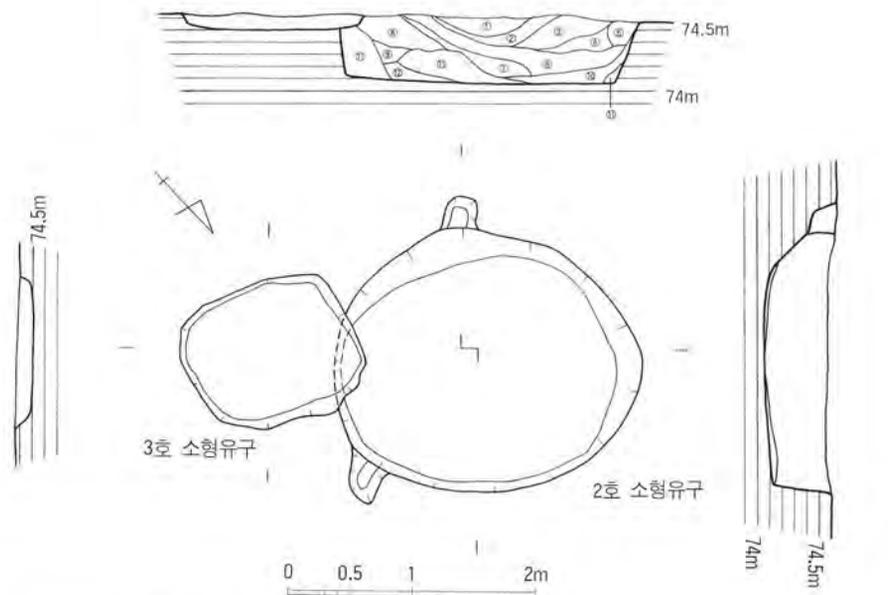
(표 12) 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도면 | 사진 | 색조 | 경도 | 태 토 | 특 징 |
|------|------|-----|----|--------|--------------------|
| 30-⑤ | 51-⑤ | 황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 |
| 30-⑥ | 51-⑥ | 회백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횡선, 내면과 속심은 흑회색 |
| 30-⑦ | 52-① | 회백색 | 경질 | 점토 | 얇은 격자문 |
| 30-⑧ | 52-② | 회백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얇은 격자문 |
| 30-⑨ | 52-③ | 흑회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 |
| 30-⑩ | 52-④ | 황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교차승문, 내면에 탄소흡착 |
| 30-⑪ | 52-⑤ | 황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교차승문+횡선, 내박자흔 |
| 30-⑫ | 52-⑥ | 황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횡선, 속심은 일부 흑색 |
| 30-⑬ | 52-⑦ | 회색 | 경질 | 점토 | 승문+횡선 |
| 30-⑭ | 52-⑧ | 흑회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 외면에 탄소흡착 |
| 30-⑮ | 52-⑨ | 회백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횡선, 속심은 흑색 |
| 30-⑯ | 52-⑩ | 암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교차승문+횡선 |
| 30-⑰ | 52-⑪ | 회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 |
| 31-① | 53-① | 회색 | 경질 | 점토 | 교차격자문 |
| 31-② | 53-② | 흑갈색 | 연질 | 점토 | 격자문, 내면 황갈색 |
| 31-③ | 53-③ | 회백색 | 연질 | 점토 | 격자문, 내면에 횡으로 물손질 |
| 31-④ | 53-④ | 회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격자문, 내면에 유기물 탄화흔 |
| 31-⑤ | 53-⑤ | 적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격자문, 외면에 탄소흡착 |
| 31-⑥ | 53-⑥ | 흑회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격자문 |
| 31-⑦ | 53-⑦ | 황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교차승문 |
| 31-⑧ | 53-⑧ | 흑회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횡선+격자문, 내면 회백색 |
| 31-⑨ | 53-⑨ | 암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격자문, 속심 흑색 |
| 31-⑩ | 53-⑩ | 황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격자문 |
| 31-⑪ | 53-⑪ | 회백색 | 연질 | 점토 | 저부편, 희미한 물손질 |
| 31-⑫ | 53-⑫ | 회색 | 경질 | 점토 | 횡으로 물손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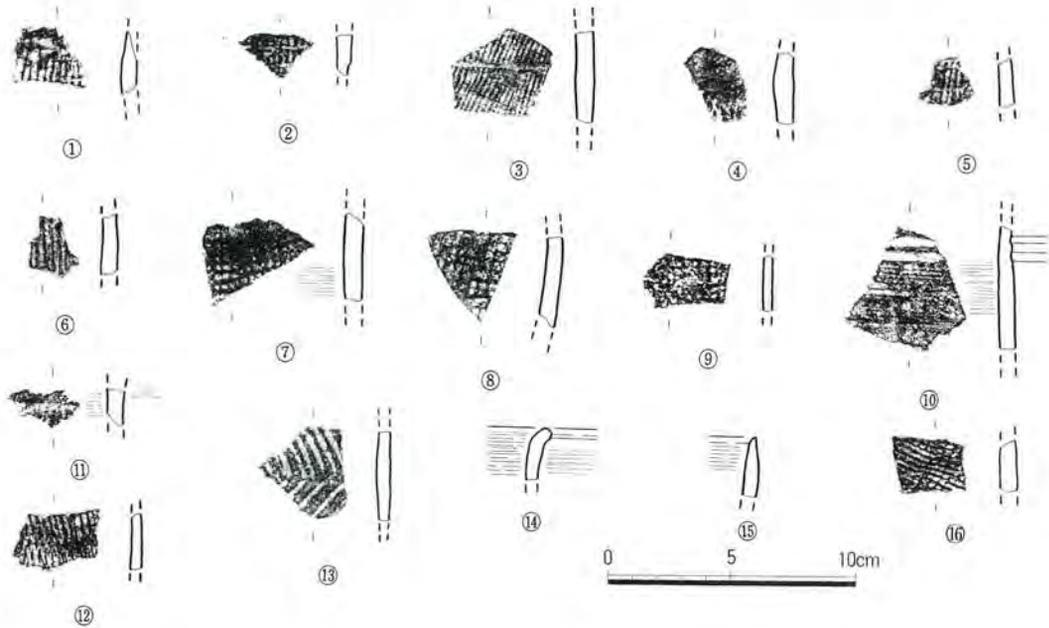
2) 2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32, 사진 54-①)

1호 소형유구 동남쪽 6m 지점에 위치한 백제시대의 소형유구이며, 3호 소형유구와 중복되어 있다. 평면에서 확인해 본 결과, 신라의 3호 소형유구가 2호 소형유구를 파괴하고 만들어졌다(사진 54-②). 소형유구의 평면은 원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길이 2.48m, 너비 2.16m, 깊이 60cm 가량이다.



- ① 황색 모래 혼입된 갈색 점토층
- ② 황색 사질토
- ③ 황색 모래 혼입된 암갈색 점토층
- ④ 황색 사질토
- ⑤ 황색 모래 혼입된 흑갈색 점토층
- ⑥ 황색 모래 혼입된 암갈색 점토층
- ⑦ 황갈색 사질점토층
- ⑧ 황색 모래 혼입된 갈색 점토층
- ⑨ 황색 사질토
- ⑩ 황색 모래 혼입된 흑갈색 점토층
- ⑪ 황색 사질토
- ⑫ 황색 모래 혼입된 암갈색 점토층



도면 32. 2호 및 3호 소형유구(1/60)와 2호 소형유구(①~⑬), 3호 소형유구(⑭~⑯) 출토유물(1/3)

소형유구의 동쪽과 서남쪽에는 직경 30cm 크기의 소형 기둥 구멍이 배치되어 있는데 소형 유구와 관련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바닥면은 특별한 처리 없이 생토인 황색 모래층에 두었는데 바닥의 남쪽 벽가 쪽에는 20~30cm 크기의 강자갈 내지 할석이 2~3겹으로 적석되어 있다. 상부퇴적층에도 작은 강자갈이 소량이 퇴적되어 있는데, 이는 쓸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퇴적층은 황색 내지 암갈색의 사질점토부식토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간 퇴적층에는 소량의 목탄 부스러기가 섞여 있다(사진 55-①). 유물은 바닥 근처의 내부 퇴적층에서 소량의 토기편만이 출토되었고 대다수의 토기편은 상부 퇴적층에서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출토된 유물은 대다수가 동체부편인데 자세한 내용은 (표 13)과 같다.

(표 13) 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도면 | 사진 | 색조 | 경도 | 태 토 | 특 징 |
|------|------|-----|----|--------|------------------|
| 32-① | 56-① | 암갈색 | 연질 | 점토 | 승문+횡선 |
| 32-② | 56-② | 회백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횡선 |
| 32-③ | 56-③ | 회청색 | 경질 | 점토 | 승문+횡선+승석문, 속심 적색 |
| 32-④ | 56-④ | 회백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 |
| 32-⑤ | 56-⑤ | 회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횡선, 외면에 탄소흡착흔 |
| 32-⑥ | 56-⑥ | 암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 |
| 32-⑦ | 56-⑦ | 적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격자문, 내면에 횡으로 물손질 |
| 32-⑧ | 56-⑧ | 회색 | 경질 | 점토 | 격자문 |
| 32-⑨ | 56-⑨ | 흑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얇은 격자문, 속심 갈색 |
| 32-⑩ | 56-⑩ | 회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횡선, 내외면에 횡으로 물손질 |
| 32-⑪ | 56-⑪ | 암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 내외면에 횡으로 물손질 |
| 32-⑫ | 56-⑫ | 회색 | 연질 | 점토 | 승문 |

도면 32-⑬(사진 56-⑬)은 櫛文土器 동체부편으로 세사립이 소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동체부에는 押引하여 橫走魚骨文을 시문하였다. 외면은 적갈색을 띠고 있으나, 내면은 흑갈색이다.

3) 3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32, 사진 55-②)

길이 1.34m, 너비 1.14m의 말각장방형 소형유구로 깊이는 14cm 가량이다. 바닥면은 생토인 황색 모래층에 시설되어 있는데 특별한 시설은 관찰되지 않았다. 내부퇴적토는 암황색 사질점토부식토이며 토층상의 구분은 관찰되지 않았다. 출토유물은 내부퇴적층에서 소량의 新羅土器片만이 출토되었을 뿐이다.

(2) 출토유물

도면 32-⑭(사진 56-⑭)는 회청색의 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외면에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2.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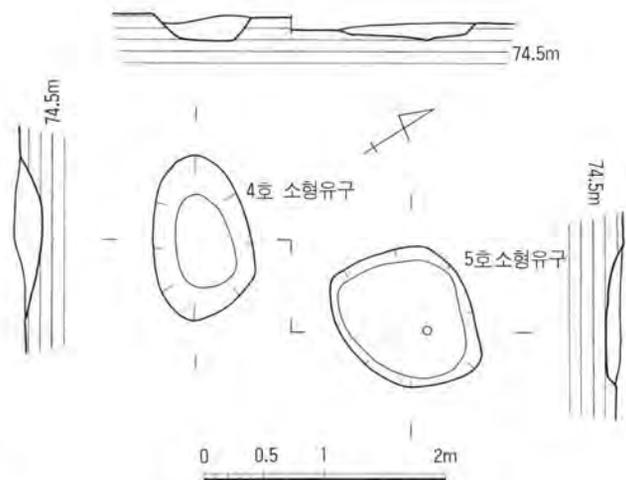
도면 32-⑮(사진 56-⑮)는 회청색의 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직립이며, 그 끝이 뾰족하게 처리되었다.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2.4cm

도면 32-⑯(사진 56-⑯)은 회색의 경질토기 동체부편이다.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외면에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4) 4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33, 사진 57-①)

조사 지역의 남동쪽 끝에 위치하며 동북쪽에 바로 인접하여 5호 소형유구가 위치하고 있다. 소형유구의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길이 1.42m, 최대 너비 0.84m, 깊이 23cm 가량이다. 유구 내부에는 암갈색 및 황갈색의 점토부식토가 퇴적되어 있으며 출토유물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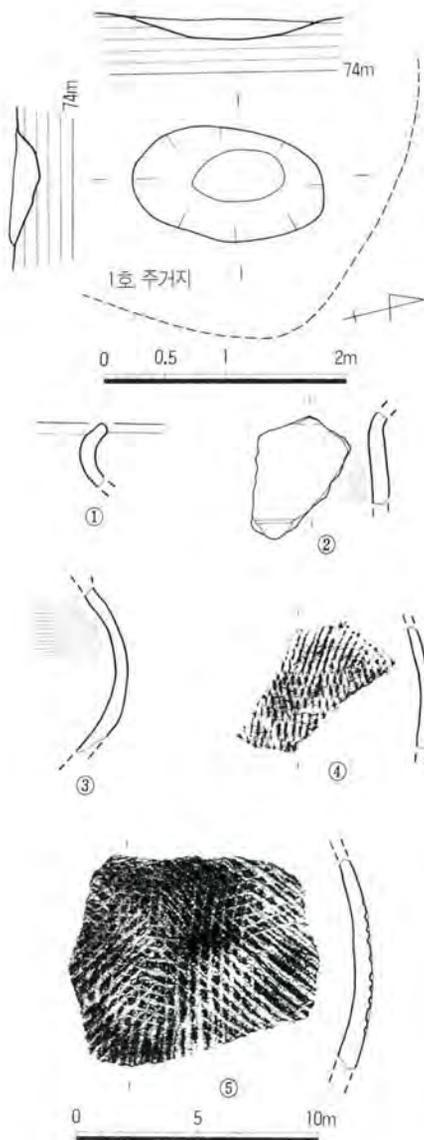


도면 33. 4호 및 5호 소형유구(1/60)

5) 5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33, 사진 57-②)

평면 부정형의 소형유구로 길이 1.2m, 너비 1.1m, 깊이 14cm 가량이다. 소형유구 내부에는 암갈색 사질점토부식토로 채워져 있으며 출토유물은 없다. 4호 소형유구와 함께 시대 및 성격은 알 수 없다.



도면 34. 6호 소형유구(1/60)와 출토유물(1/3)

(표 14) 6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등체부편

| 도면 | 사진 | 색조 | 경도 | 태토 | 특징 |
|------|------|-----|----|--------|-----------------|
| 34-② | 58-③ | 황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횡선, 내면에 횡으로 물손질 |
| 34-③ | 58-④ | 명갈색 | 연질 | 니질 점토 | 내면에 물손질, 속심 회색 |
| 34-④ | 58-⑤ | 회색 | 연질 | 점토 | 교차승문, 외면에 탄소흡착흔 |
| 34-⑤ | 58-⑥ | 암회색 | 경질 | 사질성 점토 | 교차승문 |

6) 6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34, 사진 58-①)

1호 주거지와 중복된 백제시대의 소형유구이다. 평면은 타원형으로 길이 1.56m, 너비 0.96m, 깊이 25cm 가량이다. 유구의 벽면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바닥면은 생토인 황색 모래층에 두었을 뿐, 특별한 처리 흔적은 관찰되지 않았다. 소형유구의 내부에는 암갈색 사질점토부식토로 채워져 있으며, 소량의 목탄이 섞여 있다. 유물은 대부분 상부 퇴적층에서 소량 출토되었는데, 일부 토기편들은 1호 주거지 상부 교란층에서 출토된 토기편과 접합된다.

(2) 출토유물

도면 34-①(사진 58-②)은 황갈색의 연질토기 구연부편으로 다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잔존고: 2.3cm
기타 출토된 동체부편들의 내용은 (표 14)와 같다.

7) 7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35, 사진 59-①)

6호 소형유구 동쪽 7.7m 지점에 위치한 백제시대 소형유구이다. 평면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2.12m, 깊이 56cm 가량이다. 처음 유구 확인 당시, 목탄편과 함께 소토가 노출되어 있어 유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목탄층은 현 지표하 18cm까지만 형성되어 있고 그 아래로는 흑갈색 내지 암갈색의 사질점토부식토로 채워져 있다. 소형유구의 벽면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바닥면은 특별한 처리없이 생토인 황색 모래층에 두었다. 바닥면은 편평한 편이며 그 위에 10~20cm 크기의 강자갈 내지 할석이 여러 겹으로 적석되어 있고 상부에는 20~30cm 크기의 큰 할석이 덮여 있다. 출토유물은 주로 적석 상부에서 소량의 토기편만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동체부편만이 출토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15)와 같다.

(표 15) 7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도면 | 사진 | 색조 | 경도 | 태토 | 특 징 |
|------|------|-----|----|--------|-----------------------------|
| 35-① | 59-② | 암회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횡선 |
| 35-② | 59-③ | 적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격자문, 외면에 탄소흡착흔 |
| 35-③ | 59-④ | 황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횡선, (내외면)탄소흡착흔, (내면)지두인흔 |

8) 8號 小形遺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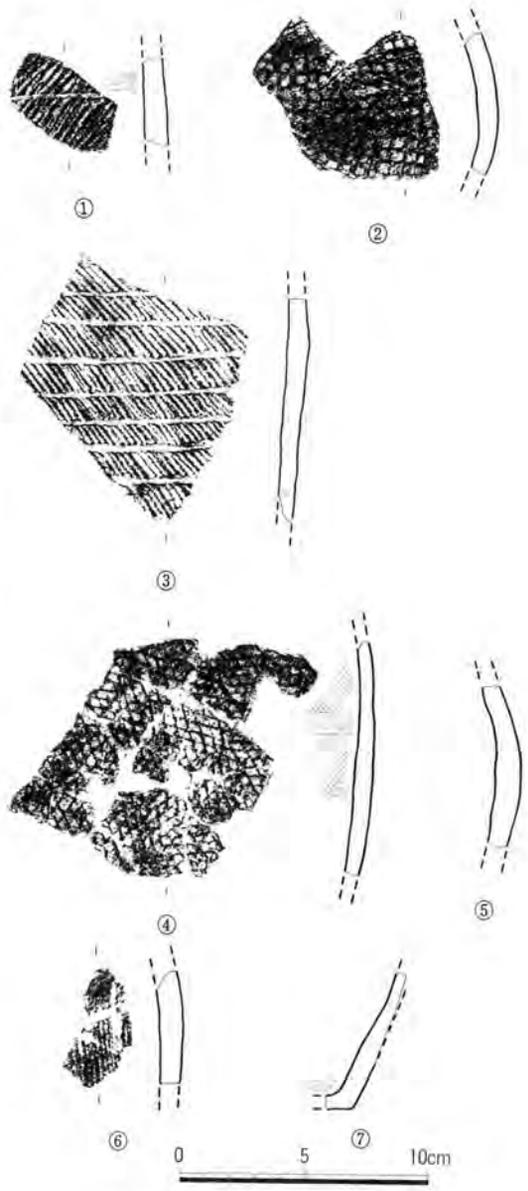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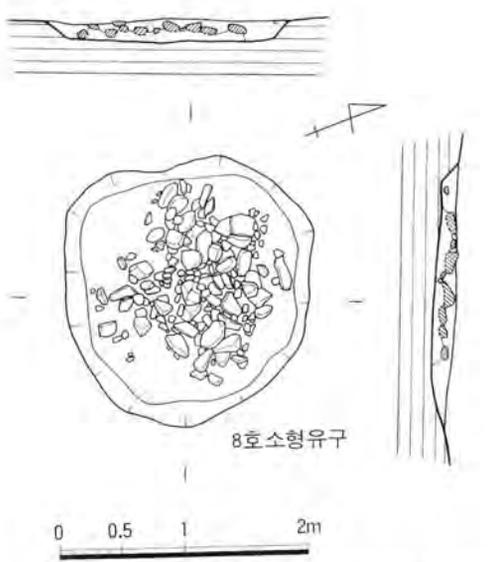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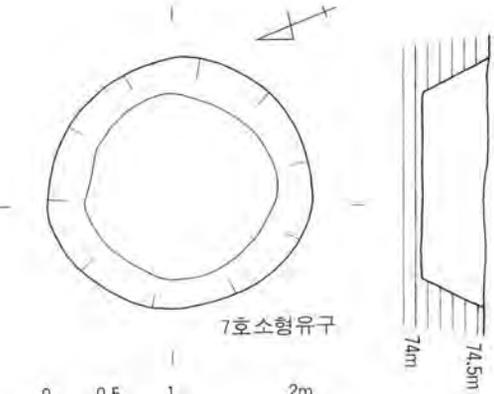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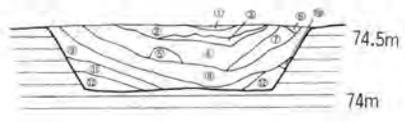
(1) 유구(도면 35, 사진 60-①)

6호 소형유구 북서쪽 6.3m 지점에 위치한 백제시대의 소형유구이다.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길이 2.2m, 너비 1.96m 가량이다. 거의 바닥만 남아 있는데 현 수혈의 깊이는 19cm 내외이다. 소형유구의 벽면은 완만하게 경사져 내려오고 바닥면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유구의 바닥면에는 10~25cm 크기의 강자갈 내지 할석이 2~3겹으로 적석되어 있는데, 특별히 불을 피운 흔적은 관찰되지 않는다. 유구의 내부에는 흑갈색 사질점토부식토로 채워져 있었는데 토층상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내부 퇴적층과 적석 사이에서 소량의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도면 35-④(사진 60-②)는 적석 아래에서 출토된 황갈색의 연질토기 동체부편이다. 소량

- ① 황색 사질토층
- ② 흑갈색 점토층 (황색 모래 혼입)
- ③ 황갈색 점토층 (국단 포함층)
- ④ 황갈색 사질점토 부식토층
- ⑤ 갈색 점토층
- ⑥ 흑갈색 점토 부식토층
- ⑦ 흑갈색 점토 부식토층
- ⑧ 황갈색 사질점토 부식토층
- ⑨ 암갈색 사질점토 부식토층
- ⑩ 황색 사질토층
- ⑪ 흑갈색 사질점토층
- ⑫ 황갈색 사질토층 (황색 모래 혼입)



도면 35. 7호 및 8호 소형유구(1/60)와 7호 소형유구(①~③), 8호 소형유구(④~⑦) 출토유물(1/3)

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고, 내면에는 거친 물순질흔이 관찰된다. 속심과 내면은 흑색을 띤다.

도면 35-⑤(사진 60-③)는 암갈색의 연결토기 동체부편으로 굵은 석립이 섞인 점토로 만

들었다. 외면에 탄소흡착흔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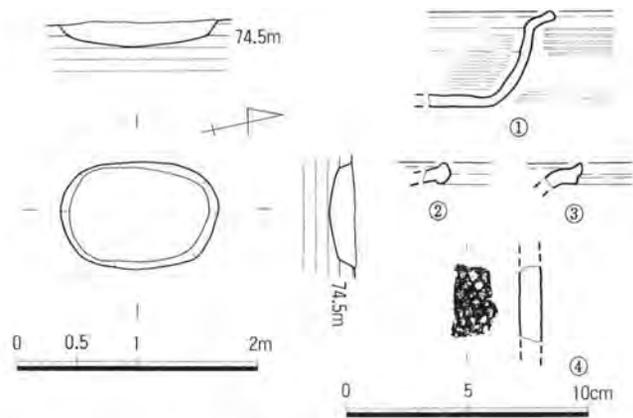
도면 35-⑥(사진 60-④)은 황갈색의 연질토기 동체부편으로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외면에 승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내면에는 유기물이 탄화된 흔적이 남아 있다.

도면 35-⑦(사진 60-⑤)은 적갈색 연질토기의 저부편이다. 세사립이 소량 섞인 점토로 만들었으며, 외면은 표면바리되었다. 내면에는 탄소흡착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5.7cm

9) 9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36, 사진 61-①)

7호 소형유구 북동쪽 2.8m 지점에 위치한 新羅時代의 소형유구이다. 평면 타원형이며 장축은 북동-남서 방향이다. 규모는 길이 1.32m, 너비 0.92m이며, 유구의 잔존 깊이는 20cm 내외이다. 바닥면에는 20cm 내외의 할석들이 놓여 있을 뿐, 특별한 시설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생토인 황색 모래와 역석들이 노출될 뿐이다. 유구 내부에는 암갈색의 사질점토부식토로 채워져 있으며, 여기에서 소량의 토기편들이 출토되었다.



도면 36. 9호 소형유구(1/60)와 출토유물(1/3)

(2) 출토유물

도면 36-①(사진 61-②)은 회황색 연질 甁으로 세사립이 소량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짧게 외반하고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저부는 말각을 이루는 평저이며, 동체부 내면에는 회전 물손질흔이, 외면에는 회전하면서 깎은 흔적이 관찰된다. 높이: 4cm

도면 36-②(사진 61-③)는 황갈색의 연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도면 36-③(사진 61-④)은 회색의 연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점토질의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단에 요철흔이 관찰된다.

도면 36-④(사진 61-⑤)는 황갈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으로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10) 10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37, 사진 62-②)

9호 소형유구 서쪽 3.7m 지점에 위치하며 11호 소형유구와 중복되어 있다. 유구의 상부는 심하게 교란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유구 확인 및 중복관계 확인이 무척 까다로웠다. 평면의 중복상태를 확인한 결과, 10호 소형유구가 11호 소형유구를 파괴하고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사진 62-①). 소형유구의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에 가까운 말각장방형으로 길이 1.64m, 너비 1m 가량이다. 잔존하는 최고 깊이는 28cm이다. 유구의 내부에는 암갈색 사질 점토부식토가 채워져 있으며, 소량의 新羅土器片이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도면 37-①(사진 63-①)은 회황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짧게 외반하며, 구연단에 요철흔이 있다.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5cm

도면 37-②(사진 63-②)는 회흑색 경질토기의 말각평저로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내외면에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1.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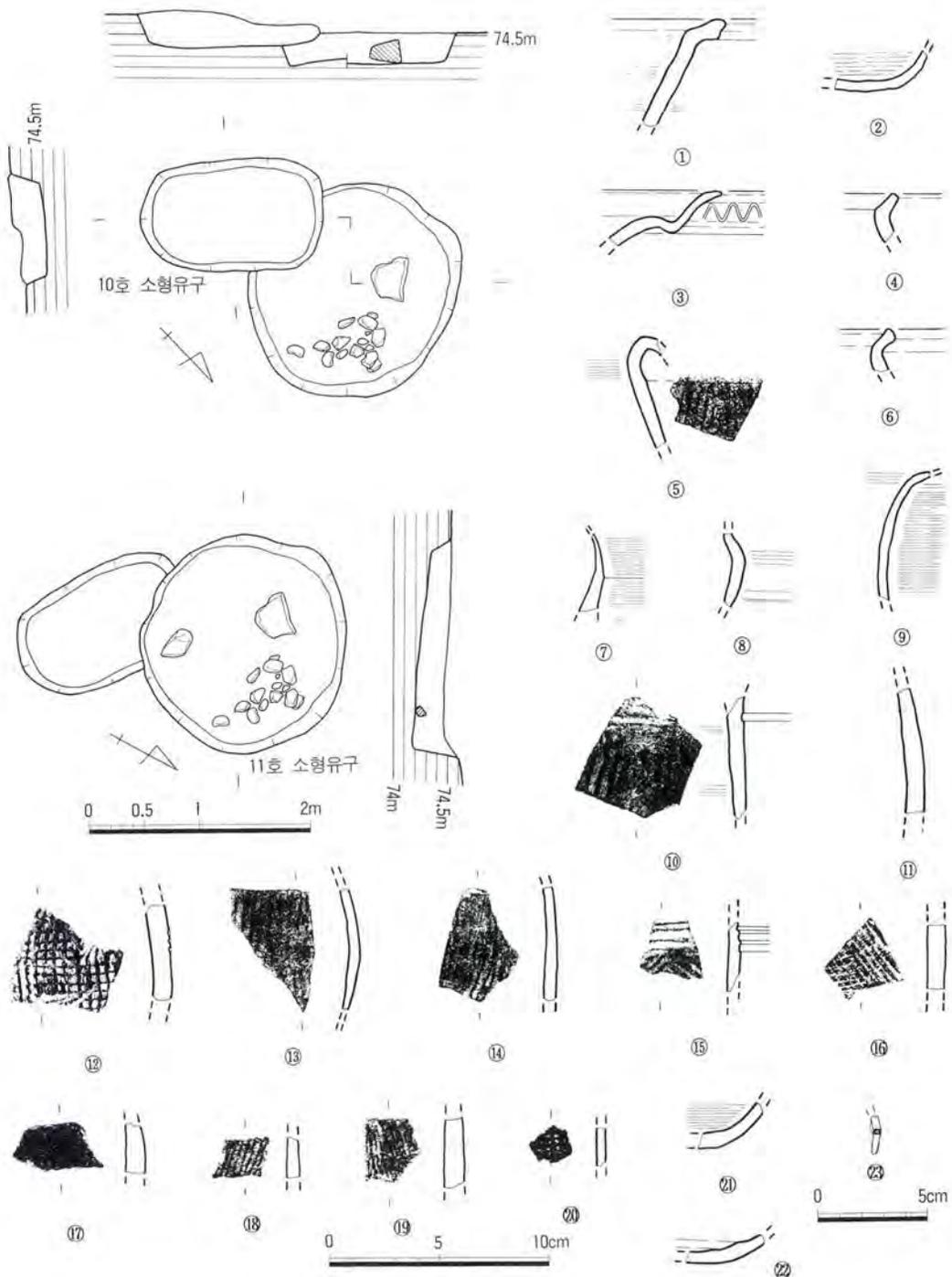
11) 11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37, 사진 62-③)

평면 圓形인 소형유구로 10호 소형유구에 의해 남쪽 어깨면 일부가 파괴되었다. 규모는 최대 직경 2.06m이며 잔존하는 최고 깊이는 39cm 가량이다. 유구 내부에는 10호 소형유구보다 더 짙은 암갈색의 사질점토부식토가 퇴적되어 있다. 유구의 바닥면은 생토인 황색 모래층에 두었는데 특별히 처리한 흔적은 없다. 바닥면에는 유구의 북서쪽에 35cm 크기의 강자갈이 놓여 있고 이와 인접하여 북동쪽에 10~15cm 크기의 강자갈 10여개가 깔려 있다. 그리고 강자갈 사이에는 소량의 소토 흔적이 관찰되고 있다. 출토유물은 내부퇴적층에서 新羅土器片들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도면 37-③~⑥, ⑨는 구연부편들로, 이 가운데 37-③(사진 63-③)은 흑회색 경질토기이며,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단을 이루면서 외반하며, 구연단은 뾰족하게 처리되었다. 구연부 외면에는 파상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2.5cm



도면 37. 10호 및 11호 소형유구(1/60)와 10호 소형유구(①,②), 11호 소형유구(③~㉑) 출토유물(1/3)

도면 37-④(사진 63-④)는 회백색 연질토기로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짧게 외반하고, 구연단은 직선적으로 처리되었다. 속심과 내면은 회색을 띤다. 잔존고: 2.2cm

도면 37-⑤(사진 63-⑤)는 회청색 경질토기로서 다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내경하다가 급격하게 외반하나 구연 상단부는 결실된 상태이다. 동체부 외면에는 얇은 승문을 타날한 후 회전물손질하였으며, 내면에도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속심은 자색을 띤다. 잔존고: 5.2cm

도면 37-⑥(사진 63-⑥)은 명황색의 연질토기로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짧게 외반하고, 구연단은 약간 둥글게 처리하였다. 잔존고: 1.9cm

도면 37-⑨(사진 63-⑨)는 회청색 경질토기로서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내외면에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되며, 속심은 자색을 띤다.

기타 기종 미상의 동체부편들(도면 37-⑦, ⑧, ⑩~⑳)이 출토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16)과 같다.

(표 16) 1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도면 | 사진 | 색조 | 경도 | 태도 | 특 징 |
|------|------|-----|----|--------|-------------------------------|
| 37-⑦ | 63-⑦ | 회청색 | 경질 | 점토 |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
| 37-⑧ | 63-⑧ | 명황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외면에 회전물손질 |
| 37-⑩ | 63-⑩ | 암갈색 | 연질 | 점토 | 얇은 승문+횡선, 내면에 거친 물손질, 속심은 암회색 |
| 37-⑪ | 63-⑪ | 회황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외면에 탄소흡착흔 |
| 37-⑫ | 63-⑫ | 회색 | 연질 | 점토 | 격자문, 소량의 세사립 혼입 |
| 37-⑬ | 64-① | 회청색 | 경질 | 사질성 점토 | 얇은 승문, 속심은 자색, 내면에 내박자흔 |
| 37-⑭ | 64-② | 황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얇은 승문 |
| 37-⑮ | 64-③ | 황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교차승문 |
| 37-⑯ | 64-④ | 암회색 | 연질 | 점토 | 교차승문, 내면과 속심은 회색 |
| 37-⑰ | 64-⑤ | 황갈색 | 연질 | 점토 | 얇은 승문, 외면에 탄소흡착흔 |
| 37-⑱ | 64-⑥ | 회백색 | 연질 | 점토 | 승문 |
| 37-⑲ | 64-⑦ | 회황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 내면은 회색, 속심은 일부 흑색 |
| 37-⑳ | 64-⑧ | 적갈색 | 연질 | 점토 | 얇은 격자문 |

도면 37-㉑, ㉒는 저부편이다. 이 가운데 도면 37-㉑(사진 64-⑨)은 회백색 연질 ㉑으로 추정되며, 다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내면에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2cm

도면 37-㉒(사진 64-⑩)는 황갈색의 연질 ㉒으로 추정되며, 작은 석립이 소량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1.4cm

도면 37-㉓(사진 64-⑪)은 유경식 철축의 경부편이다. 약간 휘어져 있으며, 경부의 단면은 말각 방형이다. 잔존길이: 1.8cm, 두께: 0.2~0.3cm

12) 12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38, 사진 65-①)

11호 소형유구 북쪽 1.4m 지점에 위치하는 타원형 내지 말각장방형의 소형유구이다. 장축 방향은 동남-서북 방향이다. 유구의 상부는 교란이 심하게 이루어져 있어, 처음 유구 확인시 원형의 평면형태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교란부 제거 후 본래의 평면형태를 찾을 수 있었다.

규모는 길이 2.7m, 너비 1.9m 가량이며 잔존 최고 깊이는 80cm이다. 유구의 바닥면은 황색 모래층에 두었으며 내부에는 소량의 목탄편이 섞인 암갈색 사질점토부식으로 채워져 있었다. 현 지표하 20~30cm 깊이에서 강자갈이 불규칙적으로 적석되어 있었는데 강자갈의 크기는 큰 것이 35~40cm 정도이며, 작은 것은 10cm 내외이다. 철검을 비롯한 대부분의 新羅土器가 적석부 상부에서 출토되었다(사진 65-②). 조사 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층위 기록은 남길 수 없었다.

(2) 출토유물

도면 38-①(사진 66-①)은 세사립이 다량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든 황색 연질토기 甁이다. 색조는 토기 외면에 부분적으로 흑회색을 띤다. 구연부는 동체부 상부에서 경미하게 축약을 이루면서 외반하며, 구연단은 다소 둥글게 처리하였다. 구연부 내측에는 완만하게 만곡된 형태를 보인다. 저부는 말각평저로 축약을 이루면서 동체부와 연결된다. 구경: 14.6cm, 저경: 8.7cm, 높이: 5.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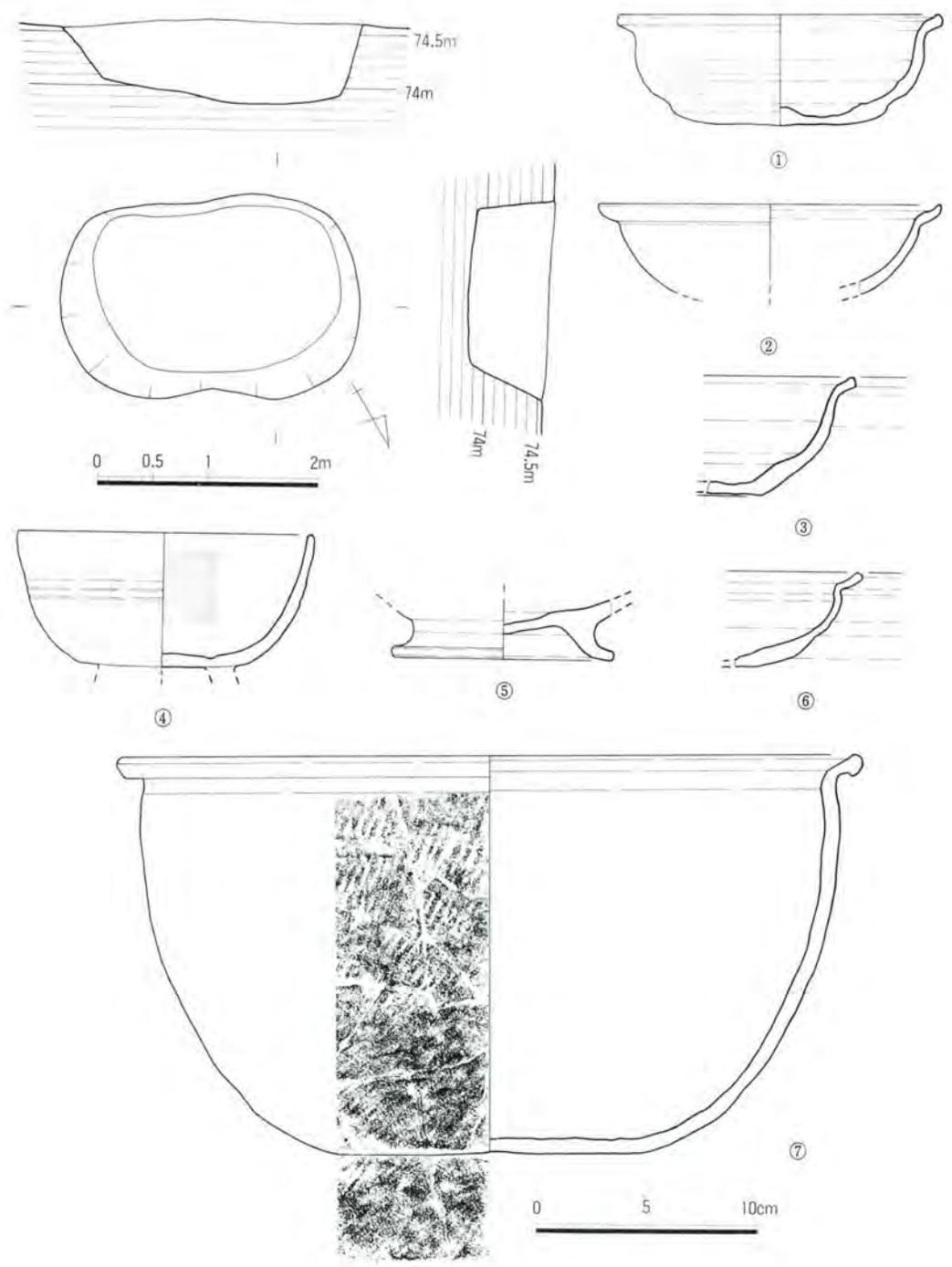
도면 38-②(사진 66-②)는 적석부 상부에서 출토된 흑회색 甁을 도면상 복원한 것으로 작은 사립이 소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축약을 이루면서 외반하며, 내측면은 완만하게 만곡되어 있다. 토기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복원 구경: 15.6cm, 잔존고: 3.6cm

도면 38-③(사진 66-③)은 회백색 연질의 甁이다.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으며, 구연부는 완만하게 외반된다. 내외면 모두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5.7cm

도면 38-④(사진 67-①)는 대각이 결실된 대부완으로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색조는 회색 내지 회황색을 띤 경질이다. 직선적으로 벌어진 구연부 끝은 다소 둥글게 처리되었으며, 동체부에는 3조의 횡선이 돌아간다. 바닥 외측에는 대각을 붙이기 위한 여러 겹의 원형 조흔이 관찰된다. 구경: 13.4cm, 저경: 7.4cm, 잔존고: 6.3cm

도면 38-⑤(사진 67-②)는 대부완의 대각편으로 추정되는 회청색 경질토기이다. 미세한 사립이 다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소성 상태는 양호하다. 대각은 짧게 벌어지다가 접지면에서 완만하게 벌어지며, 각단은 다소 둥글게 처리되었다. 완신은 대각에서 완만하게 외반되면서 연결될 것으로 추정된다. 저경: 10.3cm, 잔존고: 2.7cm

도면 38-⑥(사진 66-④)은 세사립이 많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든 회청색의 연질 甁이다. 구연부는 축약을 이루면서 외반하며, 구연단은 다소 둥글게 처리되었다. 토기 외면에는 희미한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도면 38. 12호 소형유구(1/60)와 출토유물(1/3)

도면 38-⑦(사진 67-③)은 전체의 1/2이 결실된 회색 연질의 동이다. 동 최대폭경은 胴上位에 위치하며, 여기에서 급격히 외반되어 구연부와 연결된다. 구연 내측면은 약간 내만되어 있으며, 저부는 말각평저이다. 토기 외면 전체에 얇은 승문을 타날한 후, 회전물손질하여 타날문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내면에는 동체부 중위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평행집선열의 내박자흔이 관찰되며, 동체부 상부에는 물손질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바닥 일부는 불을 받은 듯, 밝은 황갈색을 띤다. 복원 구경: 33.3cm, 저경: 14.3cm, 높이: 18.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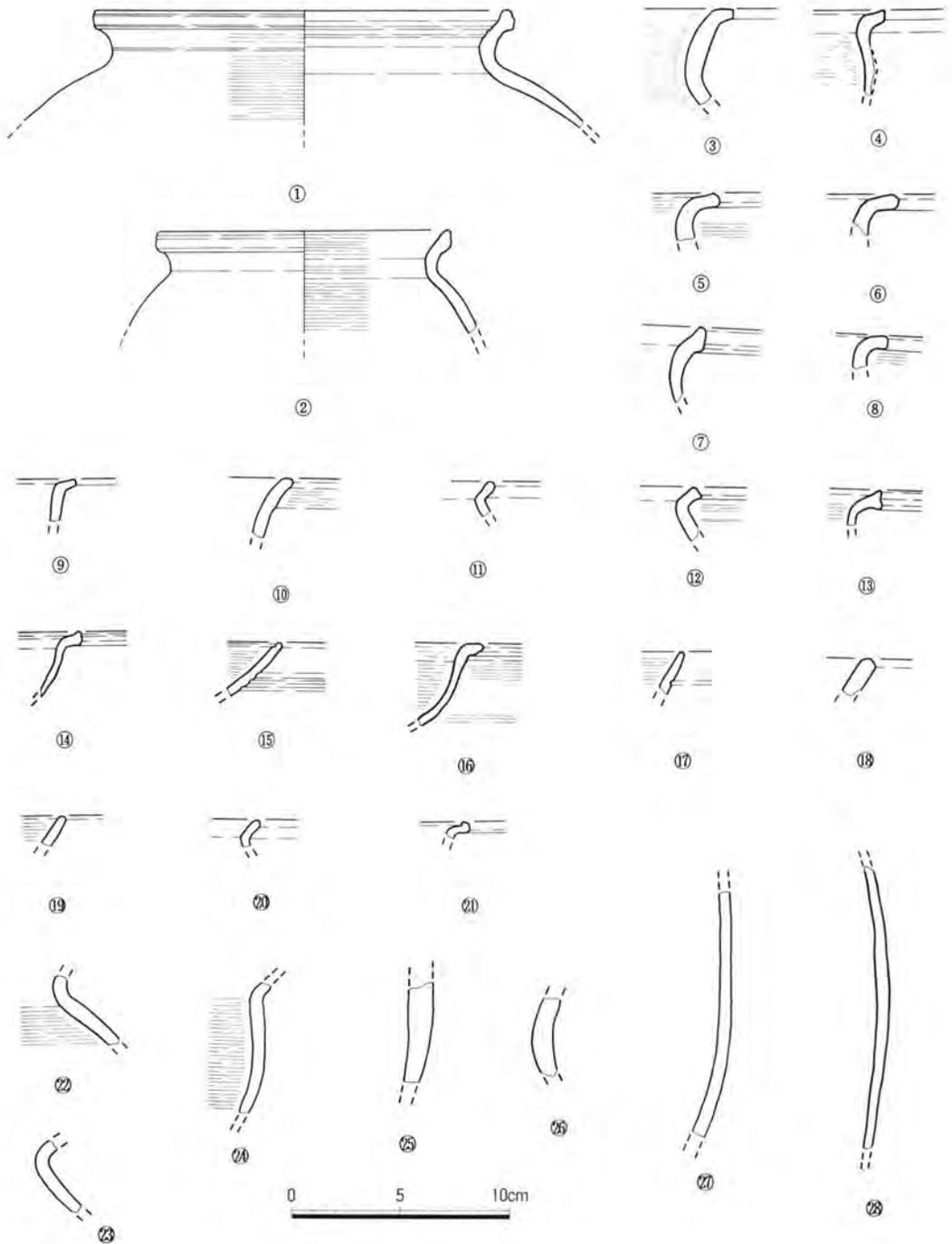
도면 39-①(사진 68-①)은 적석부 상부에서 출토된 회백색 경질토기의 구연부편을 도면상 복원한 것이다. 구연부는 완만하게 외반되며, 구연단은 다소 둥글게 처리되었는데, 희미한 요철흔이 관찰된다. 구연 내측면에는 기면 조정시 생긴 요철흔이 남아 있으며, 내외면에 희미한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작은 사립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복원 구경: 19.3cm, 잔존고: 5.5cm

도면 39-②(사진 68-②)는 적석부 상부에서 출토된 적갈색 연질 소성의 外反口緣甕이다. 미세한 사립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소성 상태는 양호하다. 구연부는 축약을 이루면서 외반하며 구연단은 다소 둥글게 처리되었는데, 희미한 요철흔이 관찰된다. 구연부에는 희미한 승문이 남아 있으며, 내면에는 횡으로 물손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복원 구경: 13.5cm, 잔존고: 4.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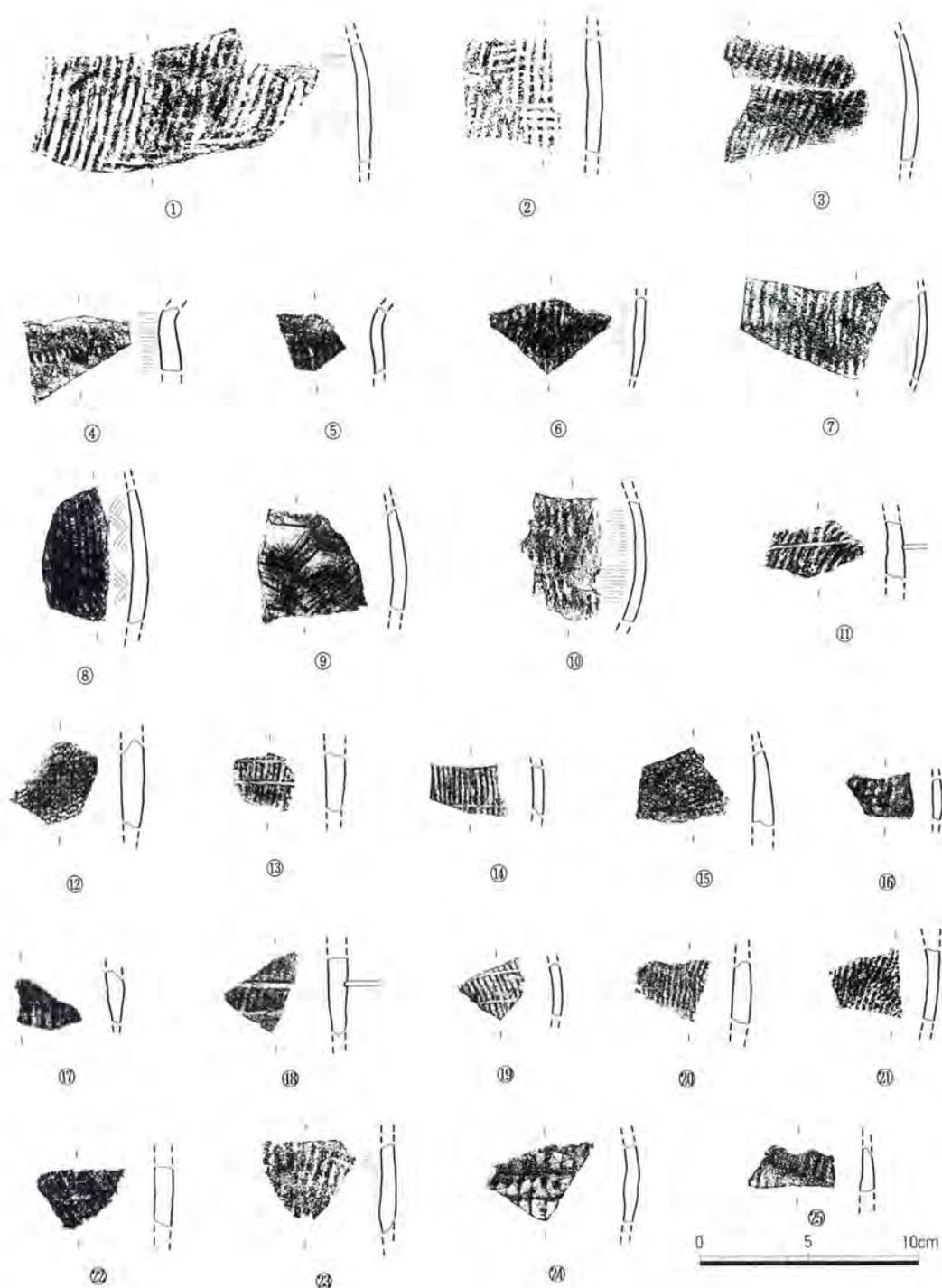
도면 39-③~⑭는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구연부편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 17)과 같다.

(표 17) 1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구연부편

| 도면 | 사진 | 색조 | 경도 | 태토 | 특징 |
|------|------|-----|----|--------|--------------------------|
| 39-③ | 68-③ | 회백색 | 경질 | 점토 | 내면에 회전물손질 |
| 39-④ | 68-④ | 황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내면에 회전물손질, 외면 표면박리 심함 |
| 39-⑤ | 68-⑤ | 암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
| 39-⑥ | 68-⑥ | 암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구연단 각이 지게 처리 |
| 39-⑦ | 69-① | 암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구연단에 희미한 물손질 |
| 39-⑧ | 69-② | 황갈색 | 연질 | 점토 | 구연단 내측면에 희미한 물손질 |
| 39-⑨ | 69-③ | 암갈색 | 연질 | 점토 | 구연단 내측면을 완만하게 처리 |
| 39-⑩ | 69-④ | 황갈색 | 연질 | 점토 | 내외면에 희미한 물손질 |
| 39-⑪ | 69-⑤ | 회백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구연단 내측면을 완만하게 처리 |
| 39-⑫ | 69-⑥ | 암갈색 | 연질 | 점토 | 구연단에 희미한 요철흔 |
| 39-⑬ | 69-⑦ | 황갈색 | 연질 | 점토 | 구연단에 요철흔 |
| 39-⑭ | 69-⑧ | 회백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완 구연부, 구연단에 요철흔 |
| 39-⑮ | 69-⑨ | 회색 | 경질 | 정선된 점토 | 동체부에 3조의 횡선, 내면에 회전물손질 |
| 39-⑯ | 69-⑩ | 적갈색 | 경질 | 점토 | 완 구연부, 구연단에 요철흔 |
| 39-⑰ | 69-⑪ | 회색 | 경질 | 점토 | 동체부에 1조의 횡선 |
| 39-⑱ | 69-⑫ | 명황색 | 연질 | 점토 | 구연단 각이 지게 처리 |
| 39-⑲ | 70-① | 회색 | 경질 | 점토 | 완 구연부 |
| 39-⑳ | 70-② | 암회색 | 경질 | 점토 | 구연부에 희미한 물손질 |
| 39-㉑ | 70-③ | 흑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구연부에 물손질, 내면 갈색 |
| 39-㉒ | 70-④ | 암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구연단 결실, 외면 표면박리, 내면에 물손질 |
| 39-㉓ | 70-⑤ | 회색 | 경질 | 점토 | 구연단 결실, 내면에 희미한 물손질 |
| 39-㉔ | 70-⑥ | 암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구연단 결실, 내면에 희미한 물손질 |



도면 39. 12호 소형유구 출토유물(1/3)



도면 40. 12호 소형유구 출토유물(1/3)

또한 도면 39-㉕~㉘, 도면 40, 도면 41-①~⑭, ㉕는 유구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동체 부편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 18)과 같다.

(표 18) 1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도면 | 사진 | 색조 | 경도 | 태토 | 특징 |
|------|------|-----|----|--------|--------------------------|
| 39-㉕ | 70-⑦ | 회백색 | 경질 | 점토 | 토기 외면에 희미한 목리흔 |
| 39-㉖ | 70-⑧ | 회백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頸部, 속심 회색, 내면에 물손질 |
| 39-㉗ | 70-⑨ | 회색 | 경질 | 니질 점토 | 내면 회백색 |
| 39-㉘ | 70-⑩ | 회황색 | 경질 | 니질 점토 | 내면 회백색 |
| 40-① | 71-① | 회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얇은 교차승문, 내면에 희미한 물손질 |
| 40-② | 71-② | 회황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얇은 교차승문, 내면에 평행집선열의 내박자흔 |
| 40-③ | 71-③ | 명황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얇은 승문, 내면에 물손질 |
| 40-④ | 71-④ | 암갈색 | 경질 | 점토 | 얇은 승문, 내외면에 물손질 |
| 40-⑤ | 71-⑤ | 갈색 | 연질 | 점토 | 구연단 결실, 얇은 승문, 내면에 물손질 |
| 40-⑥ | 71-⑥ | 황갈색 | 연질 | 점토 | 얇은 승문 |
| 40-⑦ | 71-⑦ | 회색 | 경질 | 점토 | 얇은 승문, 내면에 평행집선열의 내박자흔 |
| 40-⑧ | 71-⑧ | 황갈색 | 연질 | 점토 | 얇은 승문, 내면에 내박자흔 |
| 40-⑨ | 71-⑨ | 흑색 | 연질 | 니질 점토 | 얇은 교차승문, 내면에 거친 물손질 |
| 40-⑩ | 71-⑩ | 흑갈색 | 연질 | 점토 | 얇은 승문 타날 후 물손질, 내면 물손질 |
| 40-⑪ | 71-⑪ | 회백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횡선 |
| 40-⑫ | 71-⑫ | 명황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격자문 |
| 40-⑬ | 71-⑬ | 회백색 | 연질 | 점토 | 승문+횡선 |
| 40-⑭ | 71-⑭ | 흑갈색 | 경질 | 니질 점토 | 승문+횡선, 내면 흑색 |
| 40-⑮ | 71-⑮ | 황갈색 | 연질 | 점토 | 내면에 거친 물손질 |
| 40-⑯ | 71-⑯ | 회백색 | 연질 | 점토 | 격자문 |
| 40-⑰ | 72-① | 회황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얇은 승문, 걸면 회백색 |
| 40-⑱ | 72-② | 회황색 | 연질 | 점토 | 얇은 승문+깊은 횡선 |
| 40-⑲ | 72-③ | 암갈색 | 연질 | 점토 | 승문+횡선 |
| 40-⑳ | 72-④ | 회백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얇은 승문 |
| 40-㉑ | 72-⑤ | 회청색 | 경질 | 점토 | 교차승문 |
| 40-㉒ | 72-⑥ | 암회색 | 연질 | 점토 | 얇은 승문, 내면에 평행집선열의 내박자흔 |
| 40-㉓ | 72-⑦ | 회색 | 경질 | 사질성 점토 | 격자문 타날 후 물손질 |
| 40-㉔ | 72-⑧ | 암회색 | 연질 | 점토 | 얇은 승문 |
| 41-① | 72-⑨ | 황갈색 | 연질 | 점토 | 교차격자문, 내면에 물손질 |
| 41-② | 72-⑩ | 암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얇은 승문 |
| 41-③ | 72-⑪ | 황갈색 | 연질 | 점토 | 얇은 승문, 내면에 물손질 |
| 41-④ | 72-⑫ | 명황색 | 연질 | 점토 | 얇은 승문+횡선 |
| 41-⑤ | 72-⑬ | 회백색 | 경질 | 점토 | 얇은 승문 |
| 41-⑥ | 72-⑭ | 회색 | 경질 | 점토 | 얇은 승문, 내면에 물손질 |
| 41-⑦ | 72-⑮ | 암회색 | 경질 | 점토 | 얇은 승문, 내면에 물손질 |
| 41-⑧ | 73-① | 암회색 | 경질 | 점토 | 격자문 |
| 41-⑨ | 73-② | 회백색 | 연질 | 니질 점토 | 승문 |
| 41-⑩ | 73-③ | 회백색 | 경질 | 점토 | 얇은 승문 |
| 41-⑪ | 73-④ | 회색 | 경질 | 점토 | 얇은 승문, 내면에 평행집선열의 내박자흔 |
| 41-⑫ | 73-⑤ | 회청색 | 경질 | 점토 | 얇은 승문, 내면에 평행집선열의 내박자흔 |
| 41-⑬ | 73-⑥ | 암회색 | 경질 | 점토 | 얇은 승문 |
| 41-⑭ | 73-⑦ | 회색 | 연질 | 점토 | 얇은 승문 |
| 41-㉕ | 73-⑧ | 회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횡선, 내면 회백색 |

도면 41-⑮~⑰은 대각편이다. 이 가운데 도면 41-⑮(사진 73-⑪)는 회청색 경질의 단각 고배 대각편으로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대각은 끝에서 급격히 밖으로 벌어지며, 각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대각에는 밖에서 안으로 뚫은 원형의 투창이 관찰되며, 대각의 상단부에는 배신과 연결된 접착흔이 일부 남아 있다. 토기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3.6cm

도면 41-⑯(사진 73-⑩)은 회청색 경질 고배의 대각편으로 점토로 만들었다. 각단은 바깥 쪽으로 말아 붙여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외면에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4.3cm, 대각 높이: 2.1cm

도면 41-⑰(사진 73-⑨)은 회청색 경질의 단각고배 대각편으로 다량의 세사립이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세부적인 형태는 도면 41-⑮와 유사하나, 크기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잔존고: 3.9cm

도면 41-⑱(사진 73-⑫)은 회청색 경질의 대각편으로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대각은 직선적으로 벌어지며, 각단은 약간 둥글게 돌출되어 있다. 대각 상부에는 3조의 횡선이 둘러지며, 내외면에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2.4cm

도면 41-⑲~⑳는 저부편들이다. 이 가운데 도면 41-⑲(사진 74-①)는 황갈색 연질토기이며,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내면에는 거친 물손질흔이, 바닥에는 포흔이 관찰된다.

도면 41-㉑(사진 74-②)은 회청색 경질토기이며,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되며, 속심은 자색을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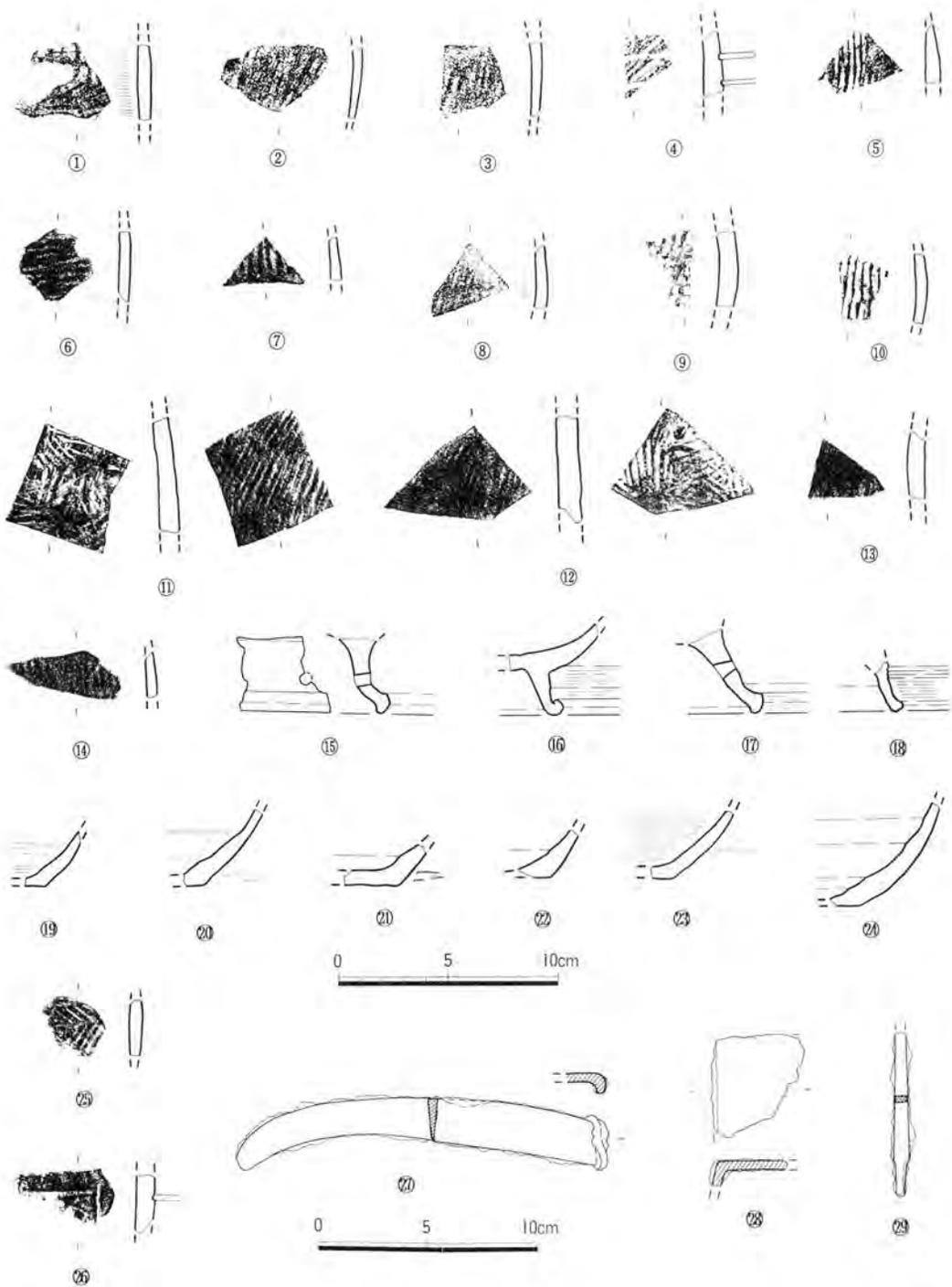
도면 41-㉒(사진 74-③)은 암황색 연질토기이며, 소량의 세사립과 약간의 석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도면 41-㉓(사진 74-④)는 회황색 연질토기이며,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속심은 일부 회색을 띤다.

도면 41-㉔(사진 74-⑤)은 암갈색 연질토기이며, 다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외면에는 얇은 2조의 횡선이 둘러지며, 일부 탄소흡착흔이 관찰된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있다.

도면 41-㉕(사진 74-⑥)는 암갈색 연질의 말각평저이며, 소량의 세사립과 약간의 석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외면에는 거친 물손질흔이, 내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또한, 내면에는 일부 유기물 흡착흔이 있다.

도면 41-㉖(사진 74-⑩)은 철검으로서 基部는 “L”자형으로 刃과 직각되게 접었는데, 이 접힌 부분을 上面으로 놓았을 때, 先端部가 좌측을 향한다. 길이: 17cm, 최대폭: 2.3cm, 기부 폭: 2cm, 두께: 0.5cm



도면 41. 12호 소형유구 출토유물(1/3)

도면 41-㉘(사진 74-⑨)은 주조철부편으로 횡단면은 잔존 부분으로 보아 사다리꼴인 것으로 추정된다. 잔존 길이: 4.6cm, 잔존폭: 4cm, 두께: 0.45cm

도면 41-㉙(사진 74-⑩)는 유경식 철촉으로 축신과 경부 일부만이 남아 있다. 축신의 단면은 장방형이다. 잔존 길이: 7.6cm

도면 40-㉚와 41-㉚는 櫛文土器 동체부편이다. 이 가운데 도면 40-㉚(사진 74-⑦)는 운모편이 많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내외 명갈색을 띤다. 외면에 희미하게 종주어골문이 시문되어 있다.

도면 41-㉛(사진 74-⑧)은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으며, 갈색의 색조를 띤다. 단치구로 침선문을 시문하였으나, 작은 편이라 문양 조합은 알 수 없다.

사진 74-⑫는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동물의 골편이다. 매우 작은 조각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13) 13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42, 사진 75-①)

12호 소형유구 서쪽 3.3m 지점에 위치한 부정형의 소형유구이다. 소형유구의 북서쪽 1.4m 지점에는 2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다. 규모는 길이 2.44m, 최대 너비 1.3m 가량이며 남아 있는 최대 깊이는 56cm이다. 유구의 바닥면은 황색 모래층에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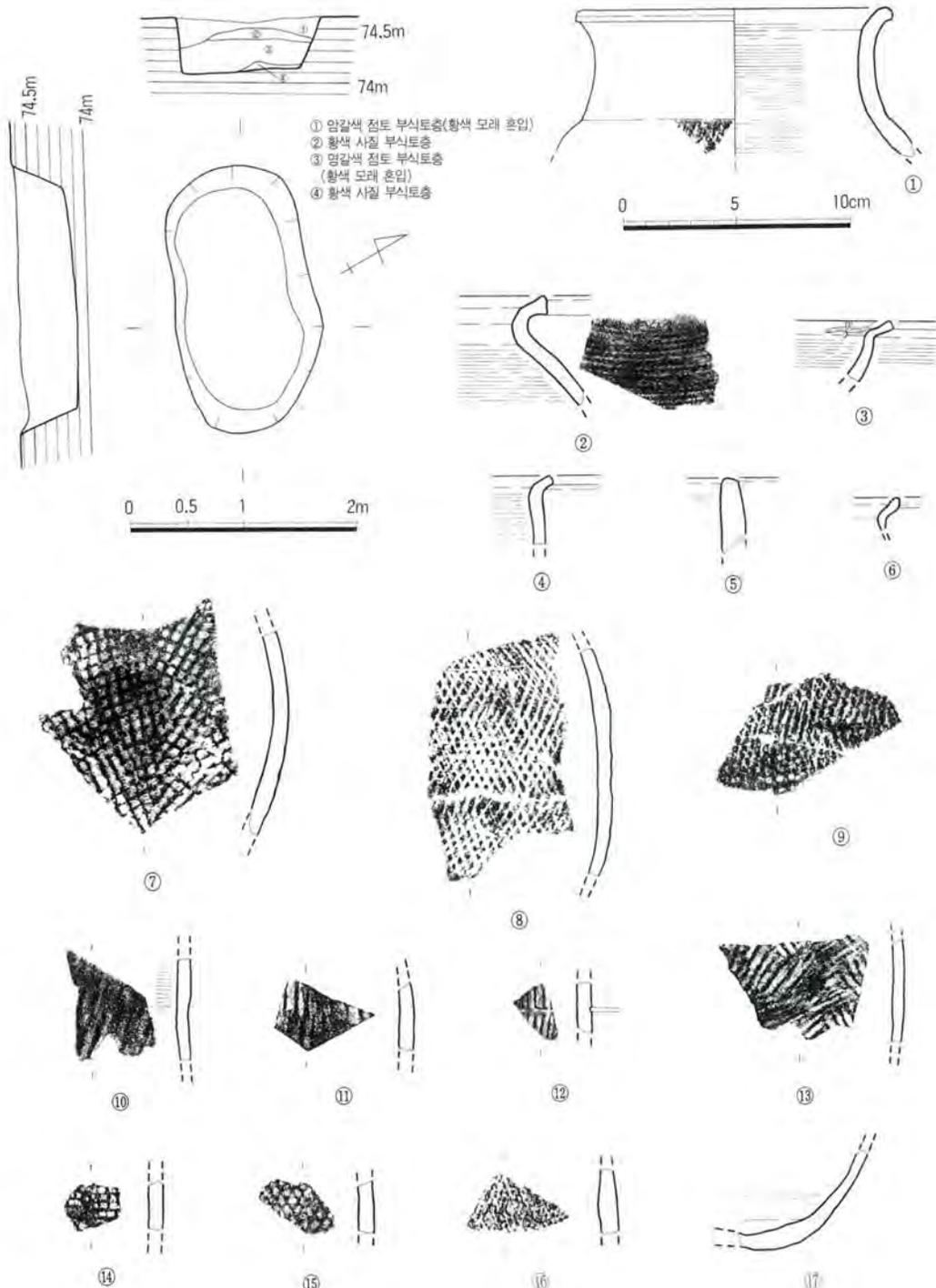
유구의 내부에는 암갈색 점토부식토 및 황색 사질점토부식토가 퇴적되어 있다(사진 75-②). 현 지표하 15cm 깊이에서 10~20cm 크기의 강자갈 내지 할석 20여 개가 불규칙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소량의 목탄편과 섞여 있다. 유물은 주로 新羅土器片으로 상부퇴적층에서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도면 42-①~⑥은 구연부편들로서 이 중에 도면 42-①(사진 76-①)은 회백색 연질토기로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상 복원한 것이다. 다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완만하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다소 둥글게 처리하였다. 동체부에는 승문이 타날되어 있고, 내외면에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복원 구경: 14cm, 잔존고: 7.3cm

도면 42-②(사진 76-②)는 암갈색 연질토기로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섞인 사질성 점토이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짧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각이 지게 처리하였다. 동체부 내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외면에는 회전조정흔이 관찰된다. 내면과 속심은 연갈색을 띠고 있다. 잔존고: 5.6cm

도면 42-③(사진 76-③)은 隴의 구연부편으로 암회색의 경질토기이다. 정선된 고운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외반하고, 구연단은 곡선적으로 처리되었다. 구연 내측면에는 “十”자



도면 42. 13호 소형유구(1/60)와 출토유물(1/3)

형의 線紋이 관찰된다. 내외면에 회전물손질흔이 있고, 속심은 회백색을 띤다. 잔존고: 2.8cm

도면 42-④(사진 76-④)는 암갈색의 연질토기로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짧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곡선적으로 처리되었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3.1cm

도면 42-⑤(사진 76-⑤)는 명황색의 연질토기로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직립이고, 구연 상단은 직선적으로 처리되었다.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3.4cm

도면 42-⑥(사진 76-⑥)은 적갈색의 연질이며, 다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짧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직선적으로 처리되었는데, 희미하게 요철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1.4cm

기타 동체부편들이 출토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19)와 같다.

(표 19) 13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도면 | 사진 | 색조 | 경도 | 태 토 | 특 징 |
|------|------|-----|----|--------|-------------------------|
| 42-⑦ | 76-⑧ | 회백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교차격자문, 외면에 탄소흡착흔 |
| 42-⑧ | 76-⑦ | 회백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교차승문, 외면에 탄소흡착흔 |
| 42-⑨ | 77-⑤ | 회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교차승문, 외면에 탄소흡착흔 |
| 42-⑩ | 77-① | 회갈색 | 연질 | 점토 | 얇은 승문, 내면에 회전물손질 |
| 42-⑪ | 76-⑨ | 회갈색 | 연질 | 점토 | 승문 |
| 42-⑫ | 77-⑦ | 회색 | 연질 | 점토 | 승문+횡선 |
| 42-⑬ | 77-④ | 적갈색 | 연질 | 점토 | 교차승문, 내면에 내박자흔 |
| 42-⑭ | 77-③ | 적갈색 | 연질 | 점토 | 격자문 |
| 42-⑮ | 77-⑥ | 암회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격자문, 내면은 회백색, 속심 일부는 흑색 |
| 42-⑯ | 77-② | 암회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 속심 일부는 흑색 |

도면 42-⑰(사진 77-⑧)은 말각평저의 저부편으로 흑회색의 경질 소성이다. 다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외면에는 거친 물손질흔이, 내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4.5cm

14) 14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43, 사진 78-①)

장타원형에 가까운 소형유구로 15호 소형유구와 인접하고 있다. 장축 방향은 남동-북서 방향이다. 규모는 길이 1.9m, 너비 9.2m이며 남아 있는 최고 깊이는 17cm이다. 바닥면은 황색 모래층에 두었으며 특별히 바닥을 처리한 흔적은 관찰되지 않았다. 내부에는 흑갈색의 점토 부식토로 채워져 있었는데 출토유물은 없다.

15) 15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43, 사진 78-②)



도면 43. 14호 및 15호 소형유구(1/60)

14호 소형유구 남쪽 0.4m 지점에 위치한, 장타원형에 가까운 소형유구이다. 장축 방향은 남-북 방향에 가깝다. 유구의 규모는 길이 1.44m, 최대 너비 0.88m이며 남아 있는 최고 깊이는 52cm 가량이다. 내부에는 황갈색의 점토부식토가 채워져 있으며, 출토유물은 없다.

16) 16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44, 사진 13)

2호 주거지 동쪽 모서리와 중복되어 있는 소형유구이다. 선후관계에 있어서는 2호 주거지가 16호 소형유구 서쪽 어깨면 일부를 파괴하고 만들어졌다. 유구의 평면은 말각장방형에 가까우며 장축 방향은 남-북 방향이다. 규모는 최대 길이 1.04m, 너비 0.6m 가량이며, 남아 있는 최대 깊이는 34cm 가량이다. 내부에는 암갈색 사질점토부식토가 퇴적되어

있으며(사진 79-①), 여기에서 마노제 구슬을 비롯한(사진 79-②) 소량의 유물이 출토되어 시기 파악은 어렵다.

(2) 출토유물

도면 44-①(사진 79-③)은 회백색 연질토기 동체부편으로 정선된 점토질의 태토로 만들었다. 동체부 내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도면 44-②(사진 79-④)는 적갈색의 櫛土器片으로 다량의 세사립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외면에는 押引文이 시문되어 있으나, 잔존 부분이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문양 구성은 알 수 없다.

도면 44-③(사진 79-⑤)은 마노제 구슬로서 연한 적갈색을 띠고 있다. 중앙에 0.2cm 정도

의 구멍이 뚫려 있다. 직경: 0.95~1cm

17) 17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45, 사진 80-①)

조사구역의 동쪽 가장자리에서 조사된 新羅時代의 소형유구이다. 유구 확인작업 당시, 상부 교란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불명확하게 윤곽이 잡혔으나 교란부 제거 후에 전체 윤곽을 다시 확인하였다. 유구의 평면은 말각장방형에 가까우나 동남 단벽이 둥글게 처리되었다. 장축 방향은 북서-남동 방향이다. 규모는 길이 1.6m, 너비 1.2m 가량이며 남아 있는 최대 깊이는 51cm이다. 바닥면은 황색 모래층에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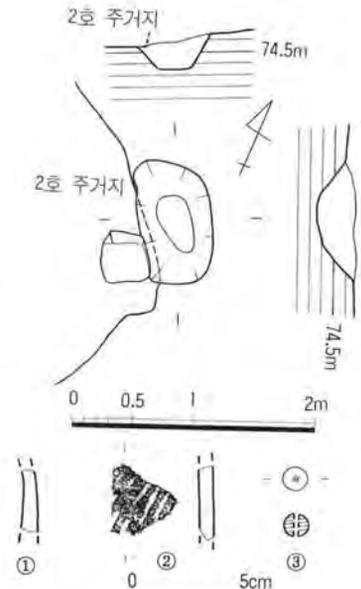
유구의 내부에는 소량의 목탄이 섞인 암갈색 사질점토부식토가 퇴적되어 있는데 대체로 상부퇴적층과 하부퇴적층으로 구분된다. 내부퇴적토 내에는 주먹 크기의 강자갈이 노출되기도 하지만, 불규칙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폐기 과정에서 끌려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상부퇴적층에서만 출토되었으며, 동물이빨이 동쪽 모서리에서 노출되었는데, 바닥에서 약간 뜬 상태이다(사진 80-②).

(2)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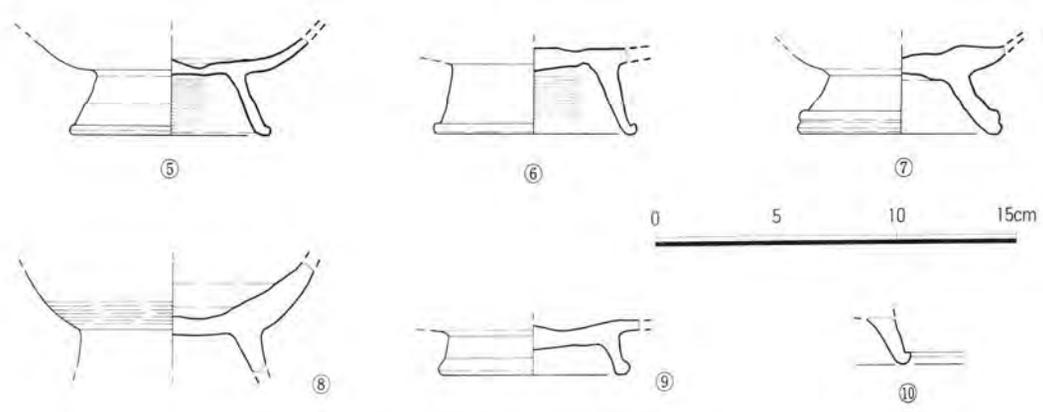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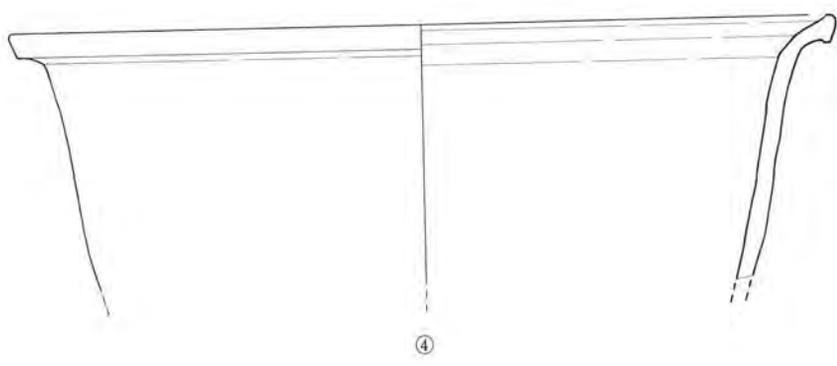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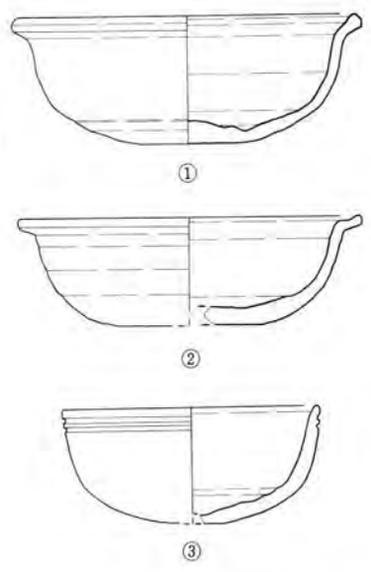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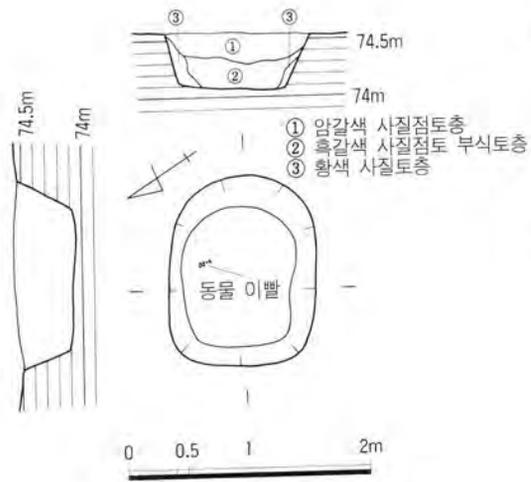
도면 45-①(사진 81-①)은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든 회색 연질의 굽이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짧게 외반하고,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구연 내측면은 만곡되었다. 말각평저이며, 저부 바닥면에 남아 있는 성형흔으로 보아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가며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복원 구경: 14.6cm, 높이: 5cm, 저경: 8.5cm

도면 45-②(사진 81-②)는 회백색 연질의 굽으로 다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짧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구연 내측면은 만곡되었다. 저부는 말각평저이며, 바닥면에는 얇은 승문이 타날되었다. 동체부 내외면에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복원 구경: 14.2cm, 높이: 4.6cm, 복원 저경: 6cm

도면 45-③(사진 81-③)은 회청색 경질 소성으로 대부분 내지 무개식고배로 추정된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이다. 직립된 구연부의 상단은 둥글게 처리하였으며, 동체부 상단에 2조의 횡선을 돌렸다. 저부는 말각평저이며, 토기 내외면에 희미한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속심은 자색을 띤다. 복원 구경: 10.7cm, 높이: 5.1cm, 복원 저경: 2.8cm



도면 44. 16호 소형유구(1/60)와 출토유물(1/3)



도면 45. 17호 소형유구(1/60)와 출토유물(1/3)

도면 45-④(사진 81-④)는 명황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짧게 외반하고, 구연단은 직선적으로 처리되었다. 동체부 외면에는 얇은 승문을 타날한 후, 물손질하여 타날문이 거의 지워졌으며, 내면에는 내박 자흔과 물손질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도면 45-⑤~⑩은 대각편들이다. 이 가운데 도면 45-⑤(사진 81-⑤)는 회청색 경질의 단각 고배로 추정되며,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대각은 직선적으로 벌어지며, 각단은 외측 상부가 돌출되게 처리되었다. 대각 외면에는 고운 물손질흔이 남아 있고, 내면에는 거친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4cm, 복원 각저경: 8.2cm

도면 45-⑥(사진 81-⑥)은 회황색 연질의 단각고배 대각편이다.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배신과 대각 일부만이 남아 있는 것을 도면상 복원하였다. 대각은 직선적으로 약간 벌어지고, 각단의 외측 상부가 돌출되어 있다. 대각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3.6cm, 각저경: 8.4cm

도면 45-⑦(사진 81-⑦)은 회청색 경질 고배이며,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대각 일부와 배신의 일부만이 남아 있는 것을 도면상 복원하였다. 대각은 짧게 밖으로 벌어지며, 각단에 요철흔이 형성되어 있다. 기면 전체에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3.7cm, 복원 각저경: 8.4cm

도면 45-⑧(사진 82-①)은 회색 연질 고배이며, 태토는 다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이다. 대각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배신도 일부만 남아 있다. 내외면에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4.7cm

도면 45-⑨(사진 82-②)는 대부분으로 추정되는 회청색 경질토기 대각편으로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대각은 직선적으로 벌어지며, 각단은 단면이 반타원형으로 처리되었다. 외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2.3cm

도면 45-⑩(사진 82-③)은 회청색 경질의 대각편으로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대각은 직선적으로 약간 벌어지고, 각단의 외측 상부는 돌출되었다.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이 이루어져 있으며, 속심은 자색을 띤다. 잔존고: 2cm

도면 46-①~⑰은 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각종의 토기 구연부편들이다.

도면 46-①(사진 82-④)은 회청색 경질토기로서,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짧게 외반하며, 구연단에 요철흔이 돌려져 있다. 동체부 내면에는 거친 물손질흔이 남아 있으며, 속심은 자색을 띤다. 잔존고: 4.5cm

도면 46-②(사진 82-⑤)는 회색의 연질토기이며, 동체부 일부만 남아 있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이다. 동체부 내외면에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되며, 속심은 황갈색을 띤다.

도면 46-③(사진 82-⑥)은 회흑색 경질의 고배 구연부편으로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뚜껑받이 턱 안에서 짧게 내경하며, 구연단은 각지게 처리되었다. 동체부 내면에는 거친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내면은 회청색을, 속심은 자색을 띤다. 잔존고: 4.5cm

도면 46-④(사진 82-⑦)는 암갈색의 연질토기로서 작은 사립이 소량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약간 외반하는 듯 하나, 직립에 가깝다.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고, 구연단은 편평한 면을 이룬다. 동체부 외면에는 승문을 타날한 후 횡으로 물손질하였다. 잔존고: 4.8cm

도면 46-⑤(사진 82-⑧)는 회색 연질토기로 태토는 사질성 점토이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짧게 외반하고 구연단은 직선적으로 처리되었다. 구연 내측은 약간 넓은 면에 걸쳐 만곡되게 처리되었다. 잔존고: 4cm

도면 46-⑥(사진 82-⑨)은 암갈색의 연질토기로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짧게 외반되며, 구연단에는 희미한 요철흔이 관찰된다.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잔존고: 3cm

도면 46-⑦(사진 83-①)은 황갈색의 연질토기로 작은 석립이 소량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완만하게 외반되며, 구연단은 곡선적으로 처리되었다. 잔존고: 1.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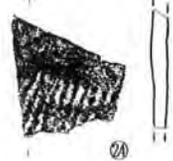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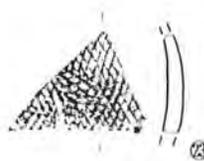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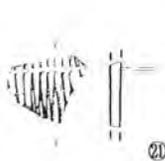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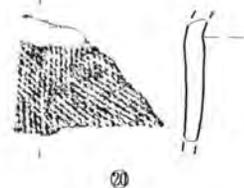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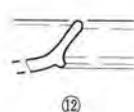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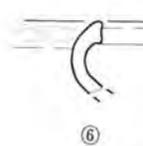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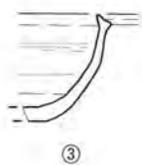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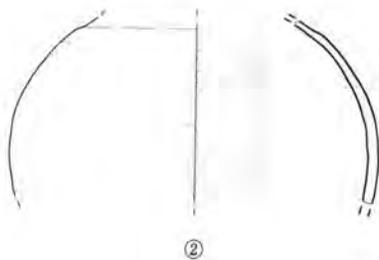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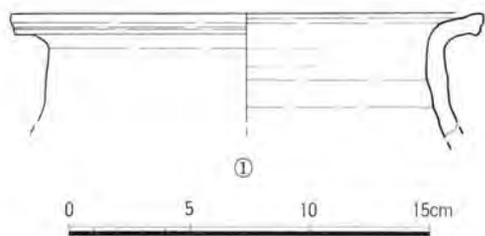
도면 46-⑧(사진 83-②)은 암갈색 연질토기이며,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하고, 구연단에 요철흔이 관찰된다. 구연 내측면에는 횡으로 물손질한 흔적이 남아 있다. 잔존고: 2.6cm

도면 46-⑨(사진 83-③)는 회갈색 연질토기로 세사립이 다량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짧게 외반하고, 구연단은 곡선적으로 처리되었다. 내외면에 희미하게 물손질한 흔적이 관찰되며, 속심은 황갈색의 색조를 띤다. 잔존고: 1.7cm

도면 46-⑩(사진 83-④)은 Ⅱ의 구연부편으로 회흑색 연질토기이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점토이다. 구연부는 내경하는 듯 하다가 짧게 외반한다.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고, 구연 내측면은 만곡되게 처리되었다. 속심은 회색을 띤다. 잔존고: 2.4cm

도면 46-⑪(사진 83-⑤)은 Ⅱ의 구연부편으로 회갈색 연질이다. 세사립이 소량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동체부 외면에는 횡으로 조정한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고: 2cm

도면 46-⑫(사진 83-⑥)는 회흑색 경질토기이며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완만하게 외반하고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동체부에는 돌대가 돌려져 있으며, 횡으로 조정한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고: 2.2cm



도면 46. 17호 소형유구 출토유물(1/3)

도면 46-⑬(사진 83-⑦)은 회청색 경질 소성으로 대부분 내지 무개식고배의 구연부편으로 추정된다. 태토는 점토이다. 구연부는 직립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외면에는 2조의 횡선이 돌아가며, 내면 상단에도 횡선이 돌아간다. 동체부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이 이루어져 있다. 잔존고: 2.9cm

도면 46-⑭(사진 83-⑧)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구연부편이며,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끝에서 약간 내경하고,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구연 내면에는 얇은 횡선이 돌려져 있으며, 기면 전체에 걸쳐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1.8cm

도면 46-⑮(사진 83-⑨)는 회색의 경질토기로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직립이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동체부 내외면에 회전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잔존고: 2.2cm

도면 46-⑯(사진 83-⑩)은 적갈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끝에서 약간 내경하며, 동체부 내면에 만곡된 흔적이 남아 있다. 기면 전체에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2.8cm

도면 46-⑰(사진 83-⑪)은 회백색 연질토기로서 완의 구연부편으로 추정된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이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짧게 외반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구연 내측면에는 약간 만곡된 흔적이 관찰된다. 기면 전체에 회전물손질이 이루어졌다. 잔존고: 2.7cm

동체부편은 모두 9점이 출토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20)과 같다.

(표 20) 17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도면 | 사진 | 색조 | 경도 | 태 토 | 특 징 |
|-------|------|-----|----|--------|-------------------------------|
| 46-18 | 84-① | 회청색 | 경질 | 점토 | 교차승문, 속심은 적갈색, 내박자흔 |
| 46-19 | 84-② | 회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내외면에 얇은 승문 |
| 46-20 | 84-③ | 회백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교차승문, 속심은 회색 |
| 46-21 | 84-④ | 회청색 | 경질 | 점토 | 승문+횡선 |
| 46-22 | 84-⑤ | 회색 | 경질 | 점토 | 얇은 승문, 내면에 거친 물손질 |
| 46-23 | 84-⑥ | 회백색 | 연질 | 점토 | 격자문 |
| 46-24 | 84-⑦ | 암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얇은 승문, 내면에 회전물손질, 내면과 속심은 황갈색 |
| 47-① | 84-⑧ | 암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속심은 황갈색 |
| 47-② | 84-⑨ | 황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1조의 횡선이 돌려짐,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

도면 47-③, ④, ⑥은 저부편들이다. 이 가운데 도면 47-③(사진 85-①)은 회백색의 연질 완이다.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동체부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1.3cm

도면 47-④(사진 85-②)는 암갈색의 경질토기로서 저부 바닥면 일부만이 남아 있다. 태토는 약간의 세사립이 섞인 점토이다. 저부 내면은 중앙이 돌출되어 있다. 속심의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잔존고: 1.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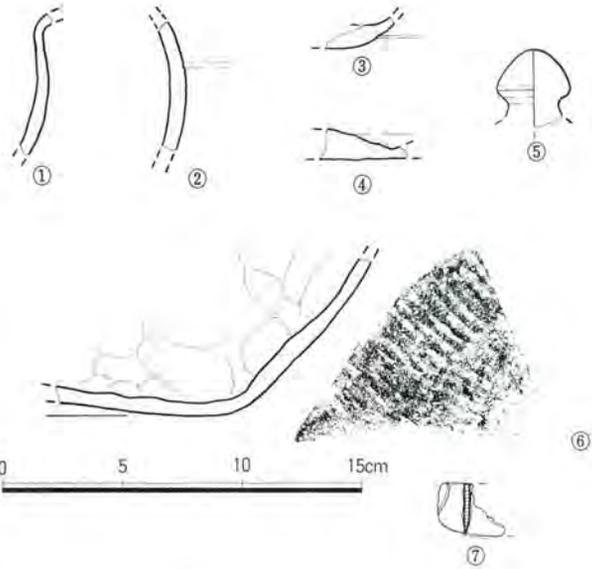
도면 47-⑥(사진 85-④)은 말각 평저편으로 적갈색의 연질이다. 약간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동체부 외면에는 얇은 승문이 사선방향으로 타날되었고, 내면에는 전체적으로 내박자흔이 관찰된다. 저부 바닥은 회색의 색조를 띤다. 잔존고: 6.4cm

도면 47-⑤(사진 85-③)는 보주형의 꼭지로서 회갈색을 띤다. 태토는 점토질 태토이다. 꼭지 상방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잔존고: 3.3cm, 직경: 2.9cm

도면 47-⑦(사진 85-⑤)은 철점의 基部만 남은 것으로 표면 부식이 심하다.

잔존 길이: 2.7cm, 기부 폭: 2.1cm

사진 85-⑥은 멧돼지의 송곳니로 추정되는 동물 이빨이다. 모두 3점인데, 거의 바닥부근에서 나란하게 출토되었다.



도면 47. 17호 소형유구 출토유물(1/3)

18) 18號 小形遺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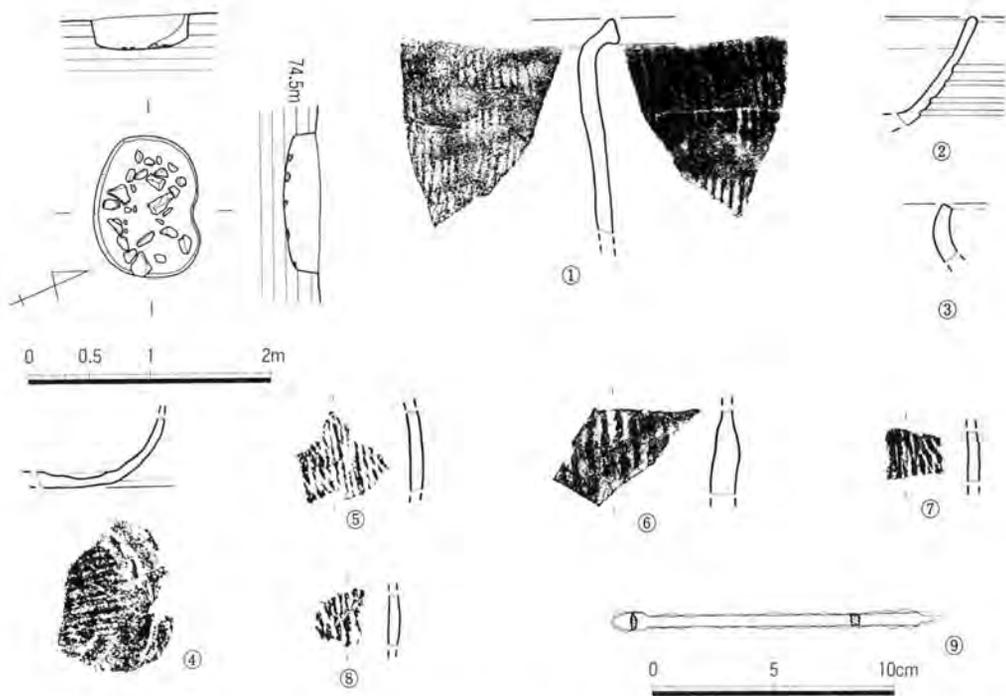
(1) 유구(도면 48, 사진 86-①)

17호 소형유구로부터 북서쪽 4.3m 지점에 위치한다. 평면 타원형의 소형유구이나 북동 장벽이 약간 안으로 만곡된 형태이다. 장축 방향은 동-서 방향에 가깝다. 유구의 규모는 길이 1.2m, 너비 0.84m 가량이며 남아 있는 최대 깊이는 29cm 가량이다. 바닥면에는 10~15cm 크기의 강자갈이 불규칙하게 깔려 있다. 내부퇴적층은 소량의 목탄편이 섞인 갈색 사질점토부식토로 채워져 있으며(사진 86-②), 토기편은 층위에 관계없이 내부퇴적토에서만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출토유물은 대부분이 新羅土器片이고 일부 百濟土器片이 출토되었다.

도면 48-①(사진 87-①)은 동이류로 추정되는 회색 연질토기이며, 미세한 사립이 많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거의 수평상으로 외반되며, 구연단은 다소 직선적으로



도면 48. 18호 소형유구(1/60)와 출토유물(1/3)

처리되었다. 토기 내외면에는 얇은 승문이 타날되어 있다. 잔존고: 9.2cm

도면 48-②(사진 87-②)는 회청색 경질 소성으로 대부분 내지 무개식고배의 구연부편으로 추정된다.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직선적으로 외반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외면에는 4조의 횡선이 돌아간다. 잔존고: 4.7cm

도면 48-③(사진 87-③)은 황백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작은 석립이 소량 섞인 니질 점토로 만들었다. 속심은 흑색을 띤다. 잔존고: 2.5cm

도면 48-④(사진 87-④)는 황색 연질 완의 저부편이며,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바닥면에는 얇은 승문이 타날되어 있다. 잔존고: 2.9cm

이 외에 4점의 동체부편이 출토되었는데 이 가운데 도면 48-⑤(사진 87-⑤), ⑦(사진 87-⑦), ⑧(사진 87-⑧)은 갈색 연질토기로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으며, 승문이 타날된 百濟土器片이다.

도면 48-⑥(사진 87-⑥)은 회청색 경질토기이며 얇은 승문이 타날되어 있다. 벽면에는 기포가 형성되어 있다.

도면 48-⑨(사진 87-⑨)는 유경식 철촉으로 촉신의 평면은 유엽형이다. 촉신의 단면은 장방형을 이룬다. 전체 길이: 13.3cm, 촉신 길이: 1.5cm, 경부 길이: 11.8cm

19) 19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10, 사진 88-①)

3호 주거지와 중복된 원형의 소형유구이다. 3호 주거지 유구 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구 윤곽 확인 당시, 3호 주거지의 출입구 시설로 추정되었으나, 조사 결과, 별개의 유구로 확인되었다. 선후관계는 알 수 없다. 규모는 최대 직경 0.86m이며 잔존하는 최대 깊이는 38cm 가량이다. 내부에는 암갈색 사질점토부식토로 채워져 있으며 토기편 한 점만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도면 10-14(사진 88-②)는 격자문이 타날된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작은 석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으며, 속심은 일부 자색을 띤다.

20) 20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11, 사진 88-③)

4호 주거지 동남 모서리와 중복된 평면 타원형의 소형유구이다. 토층상 중복관계를 밝힐 수 없었으나 유구 내부에서 신라토기가 출토되는 점으로 미루어, 4호 주거지를 파괴하고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길이 1.76m, 너비 1.5m이며 남아 있는 최대 깊이는 76cm가량이다. 내부에는 갈색 내지 암갈색의 사질점토부식토로 채워져 있었는데 상부에는 소량의 목탄편과 함께 소토가 섞여 있다. 바다면은 굵은 강자갈이 섞인 황색 모래층으로 유구의 벽면에 강자갈들이 노출되어 있다. 유물은 주로 내부퇴적층에서만 토기편들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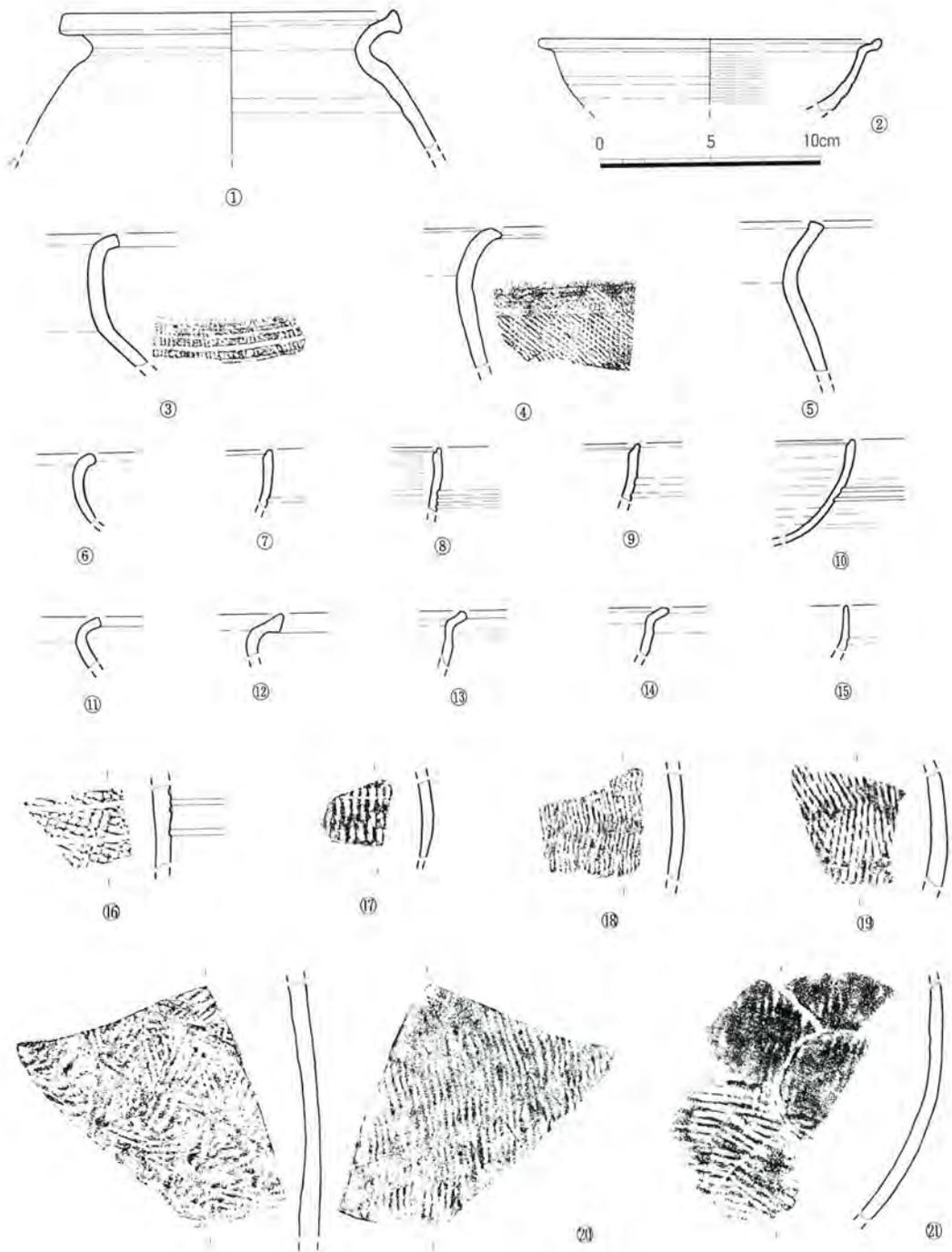
(2) 출토유물

유물은 新羅土器片과 함께 百濟土器片이 섞여서 출토되었다.

도면 49-①(사진 89-①)은 회색 연질 外反口緣甕의 구연부편으로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급격하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다소 둥글게 처리되었다. 토기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복원 구경: 15.7cm, 잔존고: 6.7cm

도면 49-②(사진 89-②)는 흑황색 연질 甕으로, 세사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축약을 이루면서 짧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외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되며, 속심은 황색을 띤다. 복원 구경: 15.7cm, 잔존고: 3.1cm

도면 49-③(사진 89-③)은 황갈색 연질 호의 백제토기 구연부편이다. 작은 석립이 소량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은 끝에서 축약을 이루면서 짧게 외반하고, 구연단은 직선적으로 처리하였다. 구연부와 동체부는 큰 축약 없이 완만하게 연결되며, 동체부에는 승문



도면 49. 20호 소형유구 출토유물(1/3)

을 타날한 후 횡선을 들렸다. 내외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되며, 구연부 외면에는 탄소가 흡착되어 있다. 잔존고: 6cm

도면 49-④(사진 89-④)는 장란형토기 내지 난형호로 추정되는 갈색 연질의 백제토기이다. 작은 석립이 많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완만하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직선적으로 처리되었다. 동체부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동체부 상부에는 회전물손질하여 일부 타날문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잔존고: 6.5cm

도면 49-⑤(사진 89-⑤)는 회흑색 연질토기로 작은 석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완만하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직선적으로 처리되었다. 속심은 황색을 띤다. 잔존고: 7cm

기타 10점의 구연부편이 출토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2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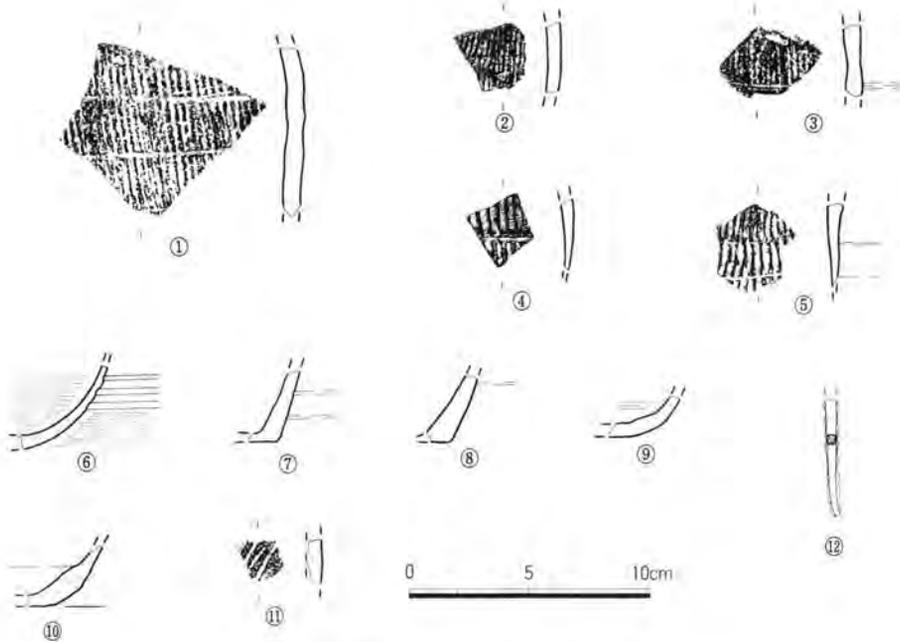
(표 21) 20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구연부편

| 도면 | 사진 | 색조 | 경도 | 태 토 | 특 징 |
|------|------|-----|----|--------|-----------------------|
| 49-⑥ | 89-⑥ | 회백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백제토기, 내면 회색 |
| 49-⑦ | 89-⑭ | 회색 | 경질 | 정선된 점토 | 외면에 1조의 횡선, 내면에 물손질흔 |
| 49-⑧ | 89-⑧ | 회백색 | 경질 | 정선된 점토 | 외면에 3조의 횡선, 내외면에 물손질흔 |
| 49-⑨ | 89-⑬ | 회청색 | 경질 | 정선된 점토 | 외면에 2조의 횡선, 외면에 물손질흔 |
| 49-⑩ | 89-⑨ | 회백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외면에 2조의 횡선, 내외면에 물손질흔 |
| 49-⑪ | 89-⑪ | 암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백제토기 |
| 49-⑫ | 89-⑫ | 황갈색 | 연질 | 점토 | 속심 황색 |
| 49-⑬ | 89-⑩ | 회황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완 |
| 49-⑭ | 89-⑦ | 회흑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완 |
| 49-⑮ | 89-⑮ | 회청색 | 경질 | 정선된 점토 | 외면에 1조의 횡선 |

동체부편은 모두 12점이 출토되었는데, 百濟土器片과 新羅土器片이 섞여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22)와 같다.

(표 22) 20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도면 | 사진 | 색조 | 경도 | 태 토 | 특 징 |
|------|------|-----|----|--------|------------------------------|
| 49-⑯ | 90-⑥ | 회백색 | 경질 | 정선된 점토 | 격자문+횡선 |
| 49-⑰ | 90-⑦ | 황색 | 연질 | 니질 점토 | 승석문+횡선 |
| 49-⑱ | 90-⑧ | 회황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백제토기, 교차승문+횡선, 속심 및 내면은 회회색 |
| 49-⑲ | 90-⑨ | 백황색 | 연질 | 니질 점토 | 교차승문 |
| 49-⑳ | 90-⑩ | 회청색 | 경질 | 정선된 점토 | 외면에 얇은 교차승문 타날후 횡으로 물손질, |
| 49-㉑ | 90-⑪ | 회황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도면 49-①과 동일 개제로 추정됨, 얇은 교차승문 |
| 50-① | 90-① | 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백제토기, 승문+횡선 |
| 50-② | 90-② | 회색 | 연질 | 점토 | 승문 |
| 50-③ | 90-③ | 황색 | 연질 | 점토 | 백제토기, 승문+횡선, 외면은 회회색 |
| 50-④ | 90-⑤ | 회황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백제토기, 승석문+횡선 |
| 50-⑤ | 90-④ | 암회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백제토기, 승문+횡선 |
| 50-⑥ | 90-⑫ | 회회색 | 경질 | 정선된 점토 | 3조의 횡선, 외면에 자연유 흡착, 내외 물손질 |



도면 50. 20호 소형유구 출토유물(1/3)

기타 4점의 저부편이 출토되었다. 도면 50-⑦(사진 90-⑬)은 연갈색 연질토기이며,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토기 외면은 흑회색을 띠며, 2조의 횡선이 돌아간다.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3.1cm

도면 50-⑧(사진 90-⑮)은 회색 연질토기이며,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외면에 희미한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1조의 횡선이 관찰된다. 토기 내외면에 탄소흡착흔이 남아 있다. 잔존고: 2.9cm

도면 50-⑨(사진 90-⑭)는 황갈색 연질토기이며,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저부는 말각평저이며, 내면에 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잔존고: 1.9cm

도면 50-⑩(사진 90-⑯)은 甁으로 추정되는 회색 연질토기이다. 작은 사립이 많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잔존고: 2.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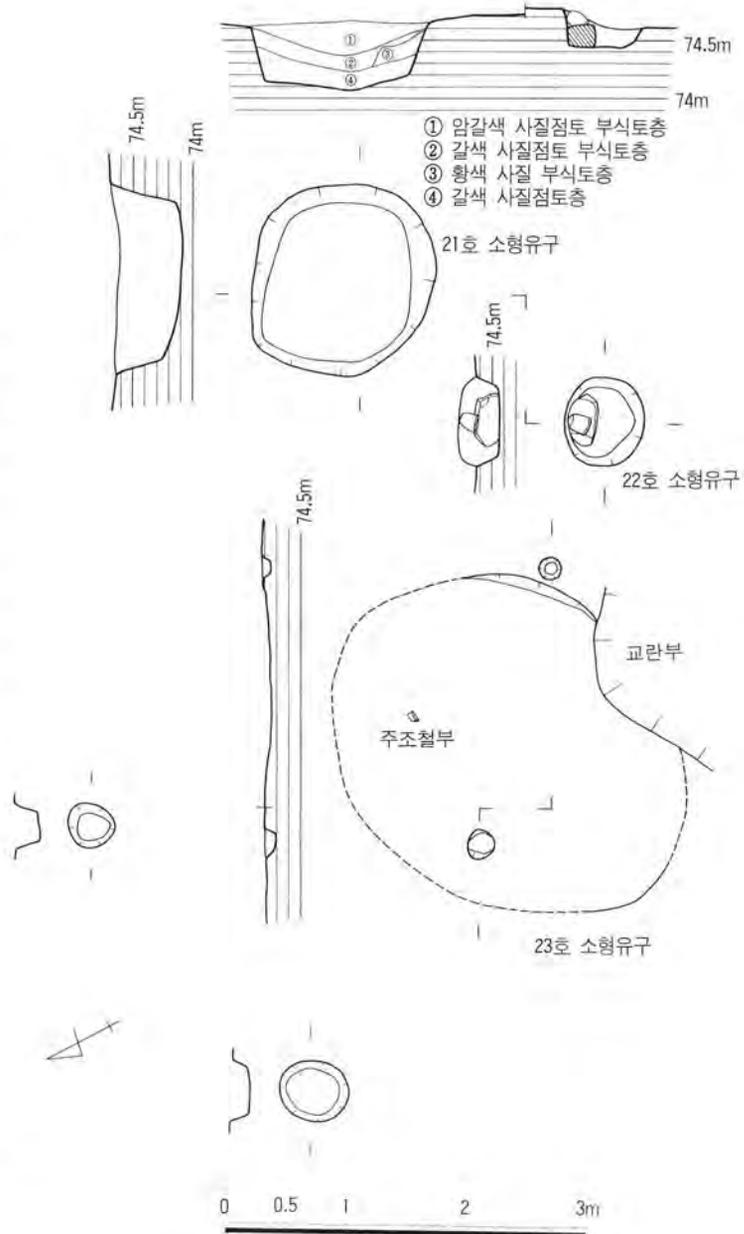
기타 도면 50-⑪(사진 90-⑰)은 櫛文土器 동체부편으로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도면 50-⑫(사진 90-⑱)는 철축의 경부편으로 표면 부식이 심하다. 경부의 단면은 장방형에 가깝다. 잔존 길이: 5cm

21) 21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51, 사진 91-①)

18호 소형유구 동북쪽 4.5m 지점에 위치한다. 평면 원형에 가까운 소형유구로 길이 1.66m, 너비 1.48m 가량의 규모이다. 남아 있는 최대 깊이는 63cm이다. 내부퇴적층은 암갈색 내지 흑갈색의 점토부식층으로 구성되며, 주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흑갈색의 토양으로 변화한다(사진 91-②). 상부에는 주먹 크기의 강자갈이 퇴적되어 있으나, 폐기 과정에서 쓸려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바닥은 황색 모래층에 두었으며 유구 벽면에는 강자갈이 노출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내부퇴적층에서 소량의 新羅土器片들이 출토되었다.



도면 51. 21호, 22호, 23호 소형유구(1/60)

(2) 출토유물

도면 52-①(사진 92-①)은 황색 연질 甁의 구연부편이다. 미세한 사립이 섞인 점토로 만들었

다. 구연부는 축약을 이루면서 외반하며, 구연단은 다소 둥글게 처리되었다. 잔존고: 3.2cm

동체부편은 百濟土器片 1점을 포함하여 모두 8점이 출토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23)과 같다.

(표 23) 2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도면 | 사진 | 색조 | 경도 | 태 토 | 특 징 |
|------|------|-----|----|--------|----------------------------|
| 52-② | 92-② | 회백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백제토기편, 승문 |
| 52-③ | 92-③ | 회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얇은 승문 |
| 52-④ | 92-④ | 회백색 | 연질 | 니질 점토 | 승문+황선, 외면은 흑회색 |
| 52-⑤ | 92-⑤ | 회황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승문 |
| 52-⑥ | 92-⑥ | 회청색 | 경질 | 정선된 점토 | 얇은 승문 타날후 물손질, 내면에 황으로 물손질 |
| 52-⑦ | 92-⑦ | 회황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얇은 승문 |
| 52-⑧ | 92-⑧ | 회청색 | 경질 | 정선된 점토 | 격자문, 속심은 자색 |
| 52-⑨ | 92-⑨ | 회청색 | 경질 | 정선된 점토 | 외면에 파상문, 내면에 물손질흔 |

도면 52-⑩(사진 92-⑩)은 갈색 연질의 시루편이다. 작은 석립이 다소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잔존상태로 볼 때, 둥근 바닥에 밖에서 안으로 뚫은 시루공 흔적이 관찰된다. 바닥에는 얇은 승문이 교차타날되어 있다.

도면 52-⑪~⑬(사진 92-⑪~⑬)은 모두 갈색 연질토기의 저부편이다. 이 가운데 도면 52-⑬(사진 92-⑬)은 바닥에 얇은 승문이 타날되어 있다.

도면 52-⑭(사진 93-①)는 용도 미상의 철기편이다. 단면 원형에 가까우며, 전체적으로 표면에 부식이 심하다. 잔존길이: 4.1cm, 직경: 0.5cm

사진 93-②는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동물의 뼈이다. 작은 조각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22) 22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51, 사진 93-③)

21호 소형유구 서남쪽 1.4m 지점에 위치한 타원형의 소형유구이다. 규모는 길이 0.76m, 너비 0.66m 가량이며, 최대 잔존 깊이는 34cm이다. 유구의 바닥면은 황색 모래층에 두었다. 바닥면에는 북동벽에 붙여 길이 42cm, 너비 24cm, 높이 21cm의 큰 강자갈이 놓여 있으며, 그 위에 外反口緣甕이 눕혀진 상태로 출토되었다(사진 94-①). 유구 내부에는 암갈색 사질점토 부식토로 채워져 있다.

(2) 출토유물

도면 52-⑮(사진 94-②)는 암갈색 연질의 外反口緣甕이다. 미세한 석립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최대북경은 동 중위에 위치하며, 구연부는 축약을 이루면서 직선적으로 외반한다. 구연단은 각지게 처리하였다. 동체부 상부에는 얇은 승문을 타날하였으나, 물손질하여 거의 지워졌

다. 토기 외면에는 일부 탄소흡착흔이 관찰되며, 내면에는 유기물이 탄화된 흔적이 남아 있다.

23) 23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51, 사진 95-①)

바닥만 남은 타원형의 소형유구이며, 22호 소형유구 북서쪽 1m 지점에 위치한다. 바닥만 남았지만, 유구의 전체 윤곽은 바닥에 희미하게 남아 있는 부식토로 확인할 수 있다. 규모는 길이 3.3m, 너비 2.6m 가량이다. 유구의 남쪽 일부는 교란에 의해 파괴되었다. 바닥면은 특별히 처리한 흔적이 없으며, 직경 24cm 크기의 기둥 구멍이 북서쪽에 배치되어 있는데 유구와 관계있는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 외에 외곽에서도 기둥 구멍이 3개소에서 확인되었는데 유구와는 관련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유물은 주조철부편 1점과 함께 백제토기 동체부편 2점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도면 52-⑩(사진 95-②)은 승문이 타날된 황갈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으며, 내면에는 유기물이 탄화된 흔적이 남아 있다.

도면 52-⑪(사진 95-③)은 격자문이 타날된 갈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굵은 석립이 소량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내면은 흑색을 띤다.

도면 52-⑫(사진 95-④)은 유구 바닥에서 출토된 주조철부편이다. 단면 梯形을 이루며, 상면의 측면부에는 縱走突帶가 마련되어 있다. 잔존길이: 10.1cm, 최대 두께: 3.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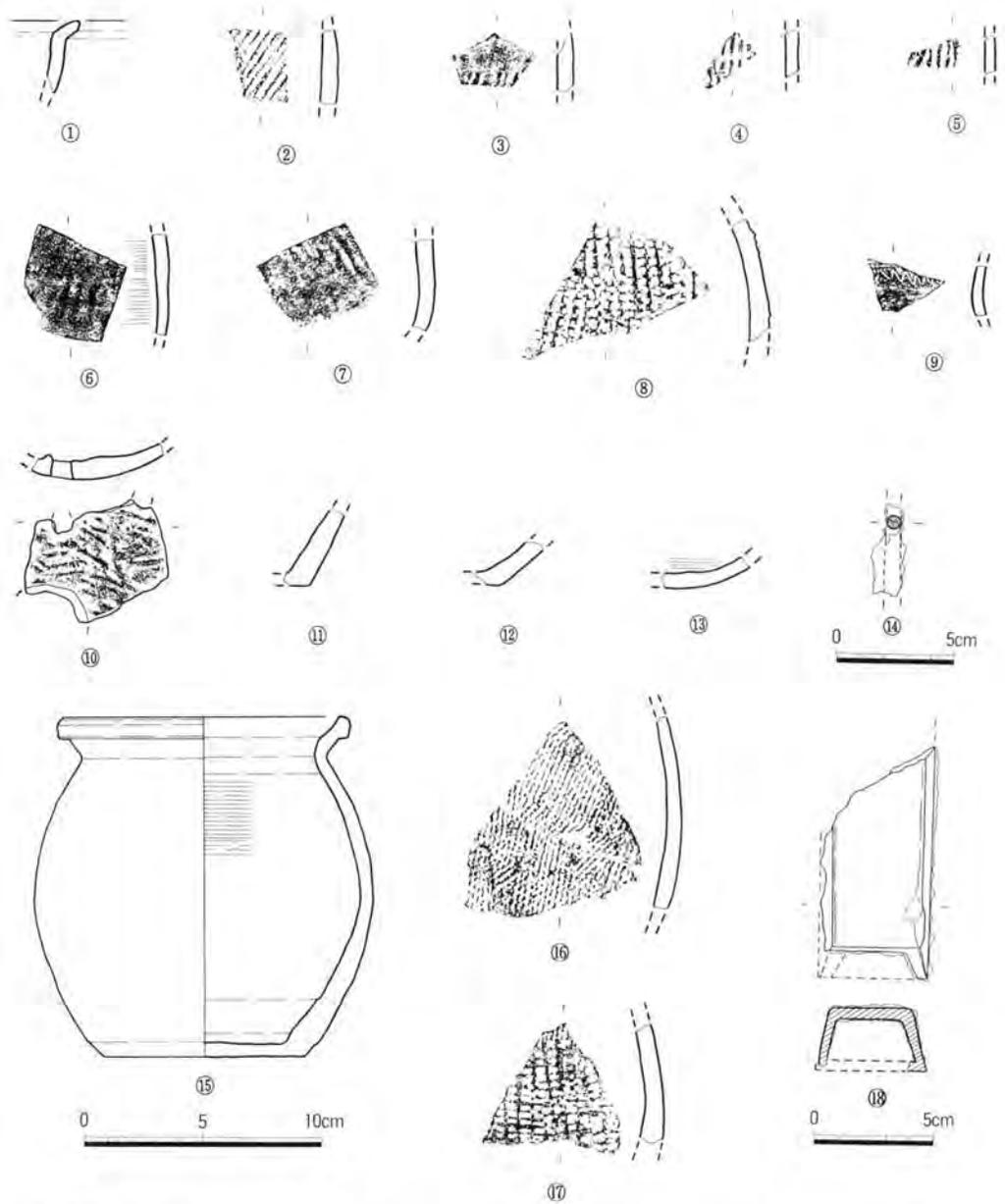
24) 24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53, 사진 96-①)

평면 말각장방형의 유구로 조선시대 민묘로 추정된다. 장축방향은 북서-남동 방향이다. 규모는 길이 1.26m, 너비 0.64m로 비교적 소형에 속한다. 남아 있는 최대 깊이는 16cm가량이다. 내부에는 황색 점토가 섞인 갈색 점토부식토가 층위 구분 없이 채워져 있어 인위적인 퇴적 양상을 보여준다. 내부퇴적토에서 약간의 木質痕이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28호 소형유구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유구 내부에서는 끌려 들어온 것으로 판단되는 토기편 2점과 철환 1점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도면 53-①(사진 96-②)은 회백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구연단은 약간 둥글게 처리하였다. 잔존고: 1.5cm



도면 52. 21호 소형유구(①~⑭), 22호 소형유구(⑮), 23호 소형유구(⑯~⑱) 출토유물(1/3)

도면 53-②(사진 96-③)는 얇은 승문을 타
날한 후, 횡선을 돌린 회색 경질토기의 동체
부편이다.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도면 53-③(사진 96-④)은 유구의 남서벽
바다에서 출토된 철환이다. 직경: 1.8cm

25) 25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53, 사진 97-①)

24호 소형유구 동북쪽 3.5m 지점에 위치
한다. 평면 원형의 소형유구로 최대 직경은
1.72m이며, 잔존하는 최대 깊이는 20cm 가
량이다. 바닥면은 황색 모래층에 두었다. 내
부에는 토층의 변화가 없고, 목탄이 소량 섞
인 황갈색 사질점토부식토로 채워져 있으며,
황색 모래가 함께 뒤섞여 있어 인위적인 퇴
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유물은 소
량의 百濟土器片 뿐이다.

(2)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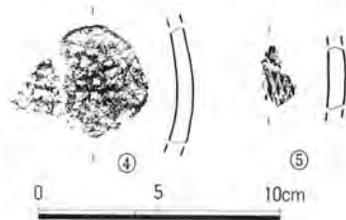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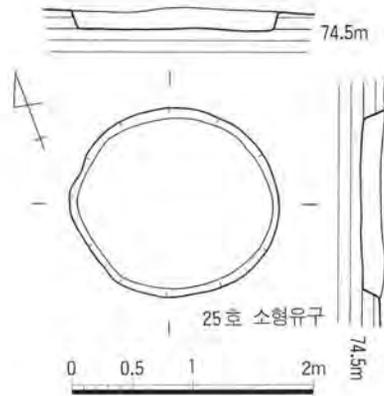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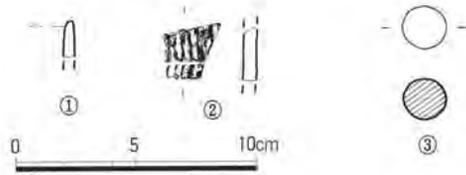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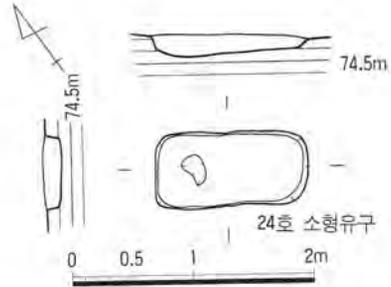
도면 53-④(사진 97-②)는 갈색 연질의 토
기 동체부편으로 격자문이 희미하게 남아 있
다.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으며, 내면에는 유
기물이 탄화된 흔적이 관찰된다.

도면 53-⑤(사진 97-③)는 승문이 타날된
토기 동체부편이다.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으
며, 외면에는 탄소가 흡착되어 있다. 내면의
색조는 황색을 띤다.

26) 26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54, 사진 98-①)

6호 주거지 서남 모서리와 중복된 팔각방



도면 53. 24호 및 25호 소형유구(1/60)와 24호 소형
유구(①~③), 25호 소형유구(④,⑤) 출토유물(1/3)

형의 소형유구이다. 6호 주거지가 거의 바닥만 남은 상태에서 조사되었기 때문에 층위상 26호 소형유구와 6호 주거지와는 중복관계는 밝힐 수 없었다. 그러나 출토유물로 보았을 때, 26호 소형유구가 나중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유구의 규모는 길이 1.5m, 너비 1.34m이며, 남아있는 최대 깊이는 50cm 정도이다. 유구의 상부는 일부 교란이 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평면형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바닥면은 강자갈이 섞인 황색 모래층에 두어, 유구의 벽면과 바닥에 강자갈이 드러나 있다.

내부퇴적층은 상층의 암갈색 점토층과 하층의 암갈색 사질점토부식토층으로 구분되며, 하층에는 주로 소량의 목탄편이 섞여 있었다(사진 98-②). 출토유물은 주로 상층에서만 출토되었는데, 百濟土器片과 함께 新羅土器片이 출토되어, 신라의 소형유구로 판단된다.

(2) 출토유물

도면 54-①(사진 99-①)은 회백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세사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는데, 동일 개체로 생각되는 2점의 구연부편이 출토되었다. 구연부는 급격하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각지게 처리하였다. 구연 내측부는 만곡되어 있다. 동체부에는 얇은 승문을 타날한 후, 거칠게 회전물손질하였으며, 토기 내면에도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6.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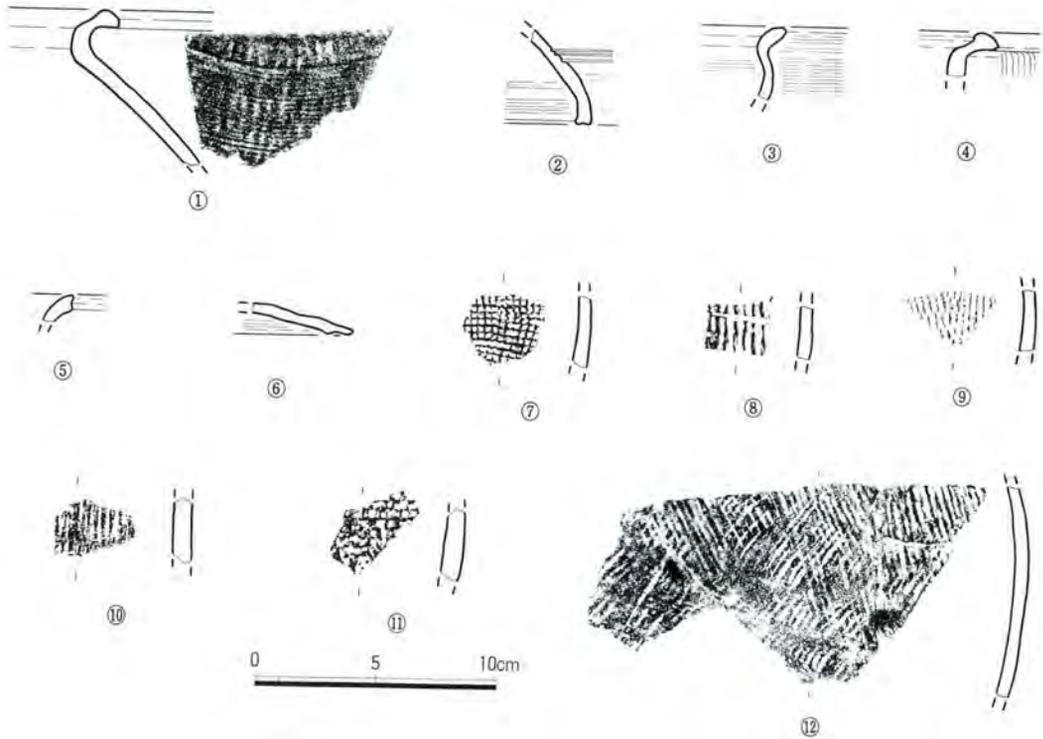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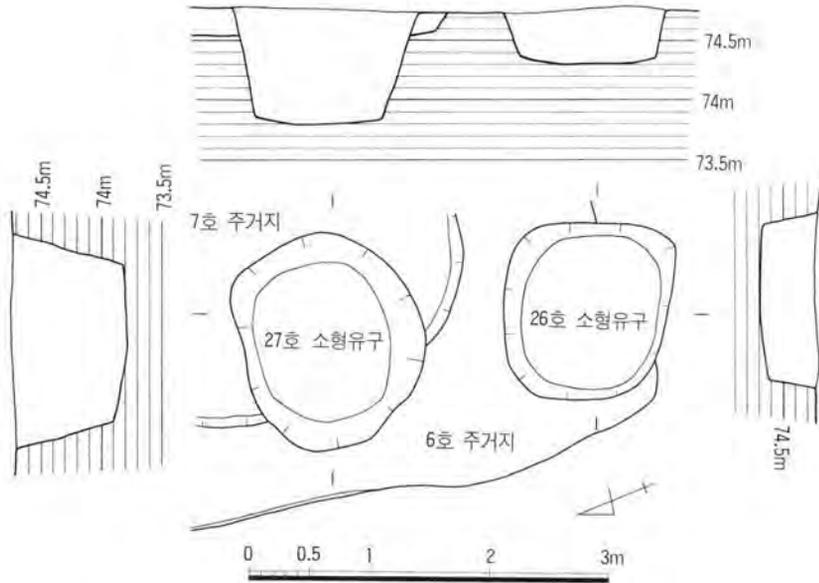
도면 54-②(사진 99-③)는 회색 경질의 뚜껑편으로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단은 '凹部'를 이루며, 동체부에는 3조의 횡선이 돌아간다. 토기 내외면에는 희미한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4.1cm

도면 54-③(사진 99-④)은 甕으로 추정되는 암갈색 연질토기이다. 세사립이 많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축약을 이루며 외반하고,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면의 색조는 황갈색을 띤다. 잔존고: 3.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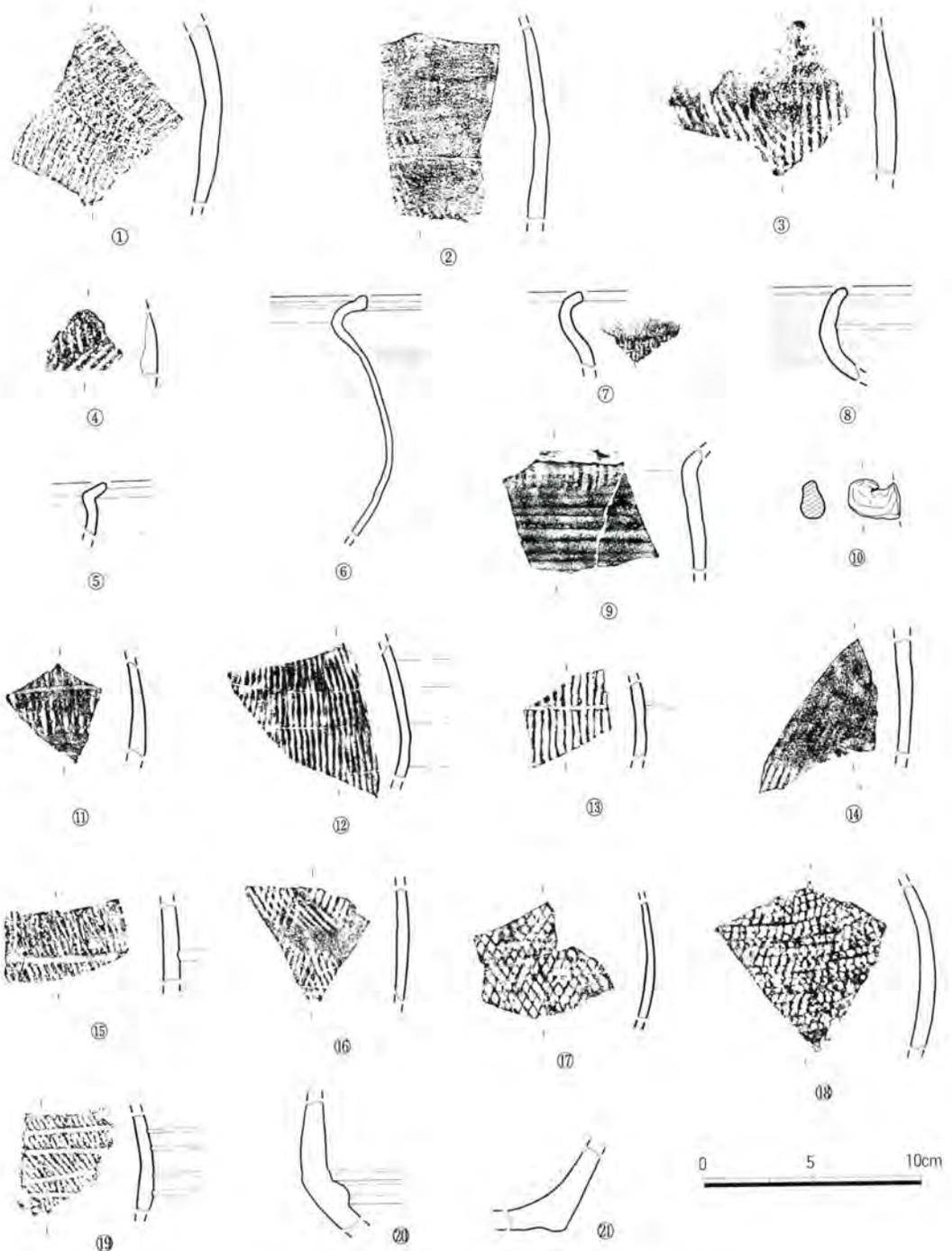
도면 54-④(사진 99-②)는 회백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정선된 니질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거의 수평상으로 외반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구연의 내측부는 단을 이루며 오목하게 처리하였다. 목부분에는 승문이 타날되어 있으나, 회전물손질하는 과정에서 지워져, 희미한 흔적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잔존고: 1.9cm

도면 54-⑤(사진 99-⑤)는 암갈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며,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단은 약간 오목하게 처리하였다. 잔존고: 1.2cm

도면 54-⑥(사진 99-⑥)은 깊이가 얇은 뚜껑편으로 암갈색 연질 소성이다. 세사립이 많이 섞인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으며, 내면에는 수직상으로 돌출시킨 짧은 턱을 만들었다. 잔존고: 1.3cm



도면 54. 26호 및 27호 소형유구(1/60)와 26호 소형유구 출토유물(1/3)



도면 55. 26호 소형유구(①~④), 27호 소형유구(⑤~⑳) 출토유물(1/3)

기타 10점의 동체부편이 출토되었는데, 여기에는 百濟土器片이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24)와 같다.

(표 24) 26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도면 | 사진 | 색조 | 경도 | 태 토 | 특 징 |
|------|------|-----|----|--------|----------------------------|
| 54-⑦ | 99-⑦ | 회백색 | 경질 | 점토 | 백제토기, 격자문, 외면은 회색 |
| 54-⑧ | 99-⑧ | 회색 | 경질 | 점토 | 백제토기, 승문+횡선 |
| 54-⑨ | 99-⑨ | 회색 | 경질 | 점토 | 백제토기, 교차승문 |
| 54-⑩ | 99-⑩ | 암갈색 | 연질 | 점토 | 백제토기, 승문 |
| 54-⑪ | 99-⑪ | 황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백제토기, 격자문 |
| 54-⑫ | 99-⑬ | 회황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신라토기, 얇은 교차승문 타날후 물손질 |
| 55-① | 99-⑭ | 흑회색 | 경질 | 점토 | 신라토기, 승문 |
| 55-② | 99-⑮ | 회청색 | 경질 | 점토 | 신라토기, 얇은 승문 타날후 횡으로 거친 물손질 |
| 55-③ | 99-⑯ | 암갈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신라토기, 교차승문 |
| 55-④ | 99-⑰ | 황갈색 | 연질 | 점토 | 신라토기, 교차승문 |

27) 27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54, 사진 100-①)

7호 주거지 서쪽 벽면과 중복된 타원형에 가까운 소형유구이다. 층위상 7호 주거지를 파괴하고 만들어진 신라의 소형유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구의 규모는 길이 1.84m, 최대 너비 1.5m이며 남아 있는 최대 깊이는 96cm로 소형유구 중 가장 깊은 편이다. 유구의 내부에는 갈색 내지 암갈색의 사질점토부식도가 퇴적되어 있는데 전체 5개층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아래쪽 ④층과 ⑤층에서 20~30cm 크기의 강자갈이 불규칙하게 적석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유구가 폐기되는 과정에서 쓸려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사진 100-②). 유물은 주로 상층에서만 출토되었는데, 소량의 百濟土器片과 함께 新羅土器片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도면 55-⑤(사진 101-④)는 회색 경질 甁의 구연부편으로,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은 축약을 이루면서 직선적으로 외반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2.5cm

도면 55-⑥(사진 101-①)은 회색 연질토기의 구연-동체부편으로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은 축약을 이루면서 급격하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가운데에 홈이 돌아간다. 내외 회전물손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고: 11.5cm

도면 55-⑦(사진 101-②)은 흑갈색 연질토기로 작은 석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

다. 구연은 축약을 이루면서 외반하고, 구연단은 다소 직선적으로 처리하였다. 동체부에는 승문을 타날한 후, 스치듯 횡선을 돌렸다. 색조, 태토, 타날 기법 등을 고려할 때, 백제의 심발형토기로 추정된다. 잔존고: 3.6cm

도면 55-⑧(사진 101-③)은 회색 경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비교적 곡선적으로 외반하며, 구연단은 다소 둥글게 처리하였다. 구연 내측면은 돌아가면서 홈이 나 있다. 내외 거친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되며, 1조의 횡선이 돌아간다. 잔존고: 4.6cm

도면 55-⑨(사진 101-⑤)는 얇은 승문을 타날한 후, 거칠게 회전 조정한 회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작은 석립이 소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내면에는 희미한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도면 55-⑩(사진 102-①)은 암회색 연질의 파수편으로 손잡이 끝을 고사리 모양으로 위로 굽아 올렸다. 작은 석립이 소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기타 기대편을 포함하여 10점의 동체부편이 출토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25)와 같다.

(표 25) 27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도면 | 사진 | 색조 | 경도 | 태토 | 특 징 |
|------|-------|-----|----|--------|-------------------------------|
| 55-⑪ | 101-⑥ | 황색 | 연질 | 점토 | 신라토기, 얇은 승문+횡선 |
| 55-⑫ | 101-⑦ | 회청색 | 경질 | 점토 | 백제토기, 승문+횡선, 속심은 자색 |
| 55-⑬ | 101-⑧ | 암회색 | 경질 | 점토 | 백제토기, 승문+횡선 |
| 55-⑭ | 101-⑨ | 회청색 | 경질 | 점토 | 신라토기, 얇은 승문, 내외 회전물손질, 속심은 자색 |
| 55-⑮ | 101-⑩ | 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신라토기, 얇은 승문+횡선 |
| 55-⑯ | 101-⑪ | 회황색 | 연질 | 니질 점토 | 백제토기, 교차승문 |
| 55-⑰ | 101-⑫ | 회갈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격자문 |
| 55-⑱ | 101-⑬ | 암회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백제토기, 격자문, 내면에 불규칙적인 물손질 |
| 55-⑲ | 102-② | 암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백제토기, 승문+횡선 |
| 55-⑳ | 102-③ | 회청색 | 경질 | 점토 | 신라토기, 기대편, 외면에 자연유 흠착 |

도면 55-㉑(사진 102-④)은 적갈색 연질의 中島式無文土器 저부편이다. 굵은 석립이 다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바닥의 중앙부는 들려 있다. 잔존고: 3.5cm

사진 102-⑤는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동물뼈이다. 형태로 보아서는 소의 어금니로 추정된다.

28) 28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21, 사진 103-①)

5호, 6호 주거지 동남벽을 파괴하고 만들어진 말각장방형의 유구이다. 규모, 내부퇴적토의

양상, 장축 방향에서 24호 소형유구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 조선시대의 민묘로 추정된다. 규모는 길이 1.34m, 최대내비 0.72m이며 남아 있는 최대 깊이는 27cm 정도이다. 황색 모래가 섞인 암갈색 점토부식층이 유구 내의 단일층을 이루며 棺材로 판단되는 木質痕과 함께 소량의 인골편이 관찰되었다. 출토유물은 없다.

29) 29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56, 사진 103-②)

6호 주거지 북쪽에 인접한 원형의 소형유구이다. 규모는 직경 1.34m 정도이며 남아 있는 최대 깊이는 29cm이다. 단면은 상협하광의 형태로 생각되나, 남아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 분명치 않다. 내부퇴적층은 주머니형 저장공에서 관찰되는 토층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대체로 황색 사질부식토 및 암갈색의 사질점토부식토가 퇴적되어 있다. 유물은 소량의 百濟土器片만이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되었다. 바닥면은 편평한 편이며, 작은 강자갈이 섞인 황색 모래층에 바닥을 두어 강자갈이 드러나 있다.

(2)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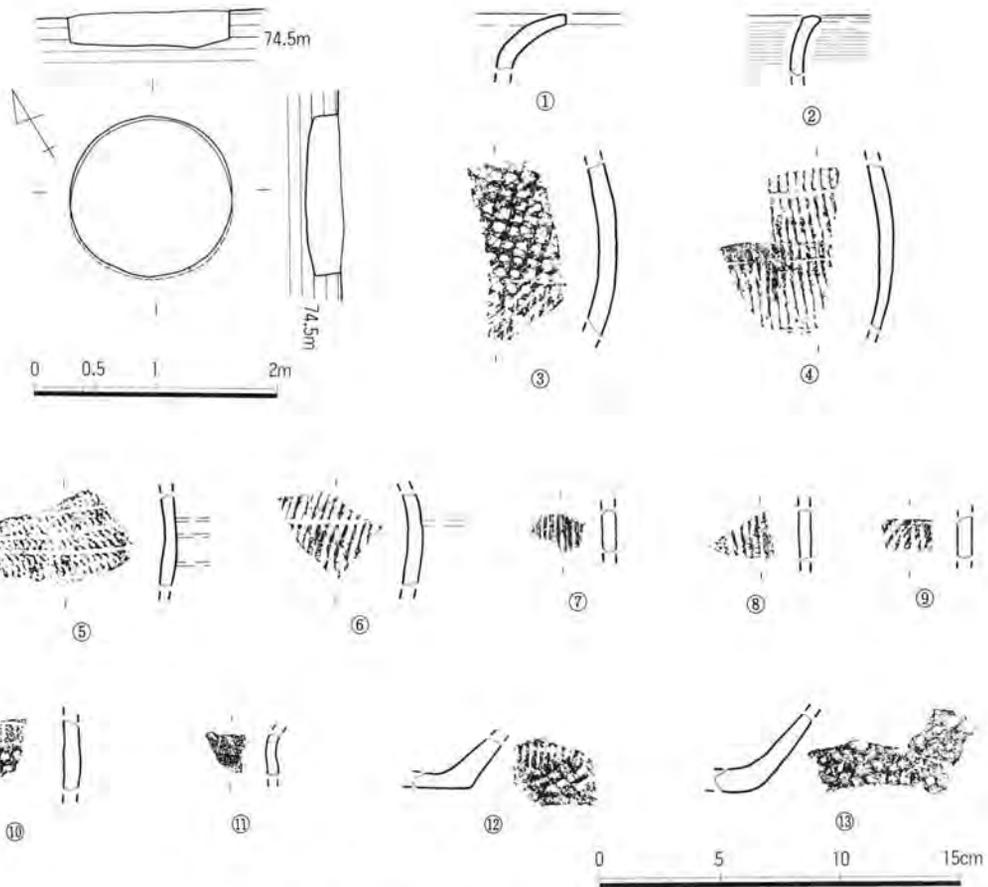
도면 56-①(사진 104-①)은 회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작은 석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급격하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직선적으로 처리하였다. 내외 희미한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2.3cm

도면 56-②(사진 104-②)는 회색 경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완만하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다소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외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2.4cm

기타 9점의 동체부편이 출토되었다(표 26).

(표 26) 29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도면 | 사진 | 색조 | 경도 | 태토 | 특 징 |
|------|-------|-----|----|--------|-----------------|
| 56-③ | 104-③ | 암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교차승문+격자문 |
| 56-④ | 104-④ | 회색 | 경질 | 정선된 점토 | 승문+횡선 |
| 56-⑤ | 104-⑤ | 암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횡선, 외면에 탄소흡착 |
| 56-⑥ | 104-⑥ | 회청색 | 경질 | 정선된 점토 | 승문+횡선 |
| 56-⑦ | 104-⑦ | 암갈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승문 |
| 56-⑧ | 104-⑧ | 회색 | 경질 | 점토 | 승문 |
| 56-⑨ | 104-⑨ | 황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교차승문, 내면은 황색 |
| 56-⑩ | 104-⑩ | 황갈색 | 연질 | 점토 | 승문+격자문+횡선 |
| 56-⑪ | 104-⑪ | 회청색 | 경질 | 점토 | 외면에 음각 |



도면 56. 29호 소형유구(1/60)와 출토유물(1/3)

도면 56-⑫(사진 104-⑫)는 암갈색 연질토기의 저부편으로 석립이 소량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토기 외면에 승문과 격자문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속심의 색조는 흑색이다. 잔존고: 2.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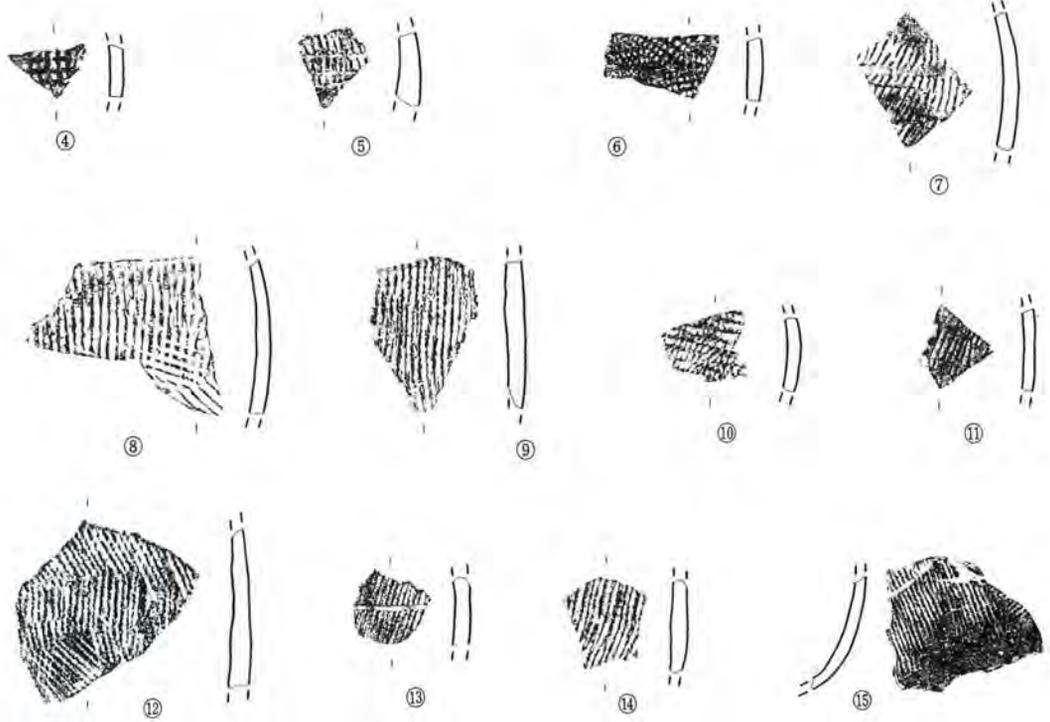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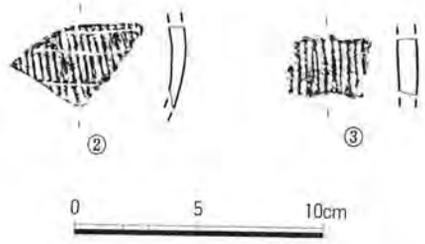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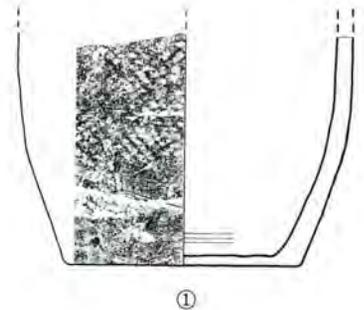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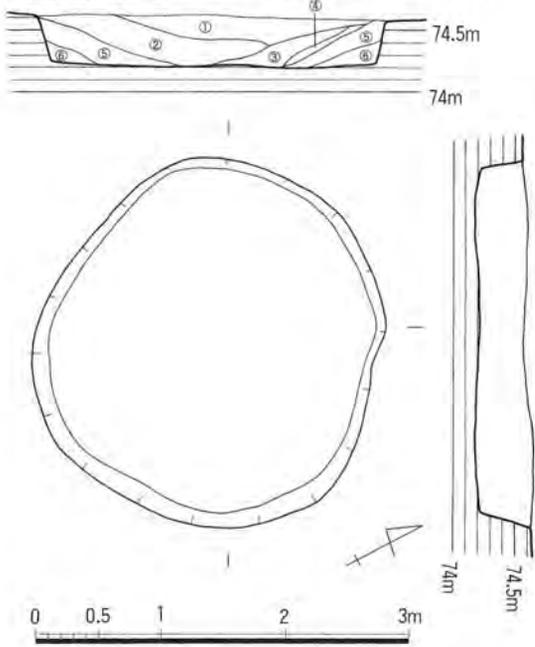
도면 56-⑬(사진 104-⑬)은 암갈색 연질토기의 말각평저편으로, 사립이 많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토기 외면에 희미한 격자문이 관찰된다. 잔존고: 3.3cm

30) 30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57, 사진 105-①)

원형 내지 말각방형에 가까운 유구이며, 소형유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29호 소형유구 북서쪽 1.7m 지점에 위치한다. 규모는 길이 3.04m, 너비 2.82m 가량이며, 남아 있는

- ① 암갈색 점토층 (황색 모래 혼입)
- ② 흑갈색 점토층 (황색 모래 혼입)
- ③ 명갈색 점토층 (부식토층)
- ④ 황색 사질토층
- ⑤ 적갈색 점토층 (황색 모래 혼입)
- ⑥ 명갈색 사질토층 (황색 모래 혼입)



도면 57. 30호 소형유구(1/60)와 출토유물(1/3)

최대 깊이는 45cm 정도이다.

내부퇴적층은 6개층으로 구분되는데 황색 사질부식토와 황색 모래가 섞인 암갈색 사질점토부식토가 반복적으로 퇴적되어 있다. 주로 유구의 상부퇴적층에 20~40cm 크기의 큰 강자갈들이 30~40여개가 적석되어 있는데 유구의 남동쪽에 밀집되어 분포하고 있다(사진 105-②). 유물은 소량의 百濟土器片들이 출토되었는데, 주로 상부퇴적층에서만 출토되었으며, 심발형토기의 저부편이 적석 사이에서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도면 57-①(사진 106-①)은 심발형토기로 추정되는 연질토기의 저부편이다. 색조는 암갈색(외면) 내지 갈색(내면)을 띠며, 작은 석립이 소량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동체부에는 희미한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저경: 9.5cm, 잔존고: 9.5cm

이 외에 14점의 百濟土器片이 출토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2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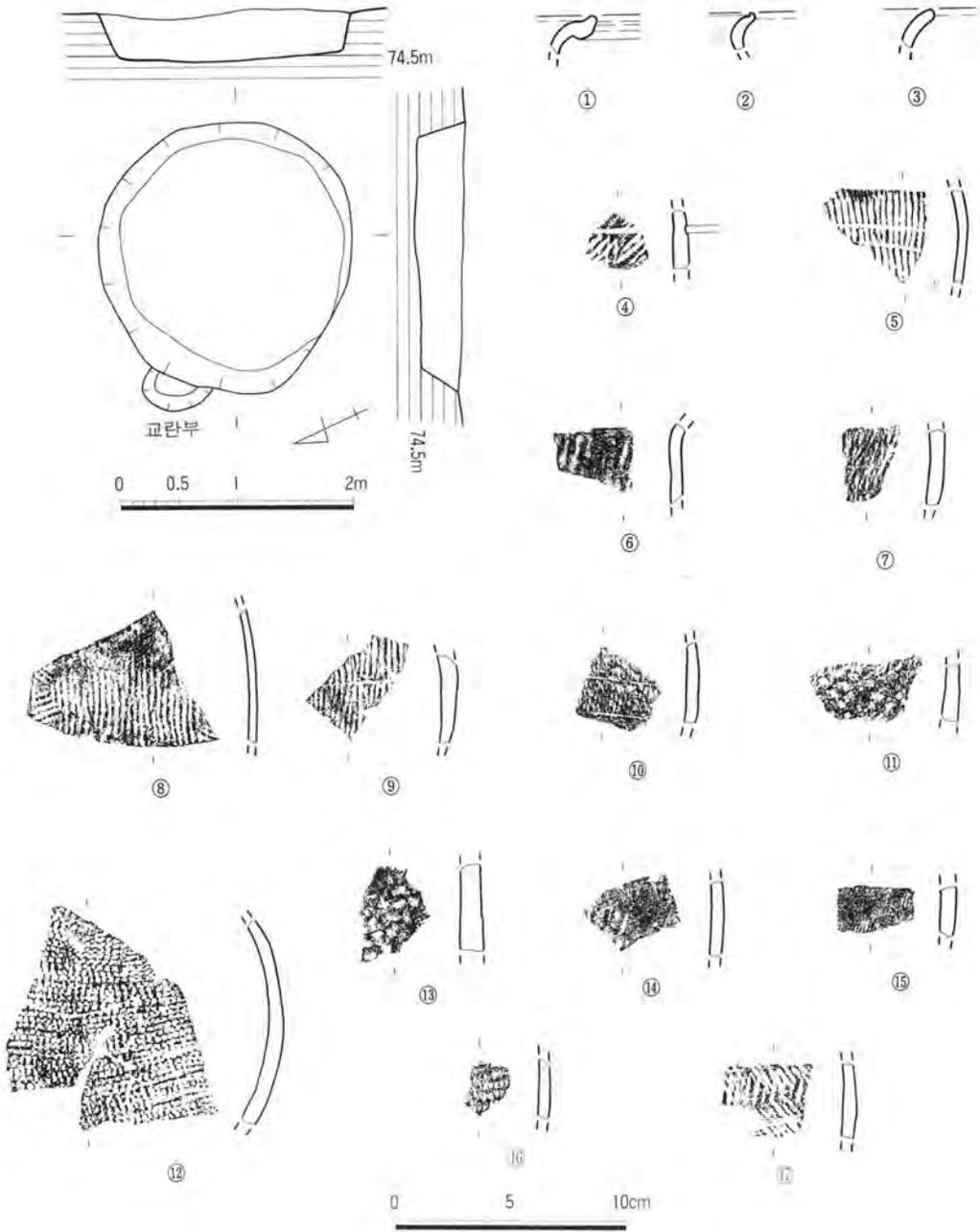
(표 27) 30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도면 | 사진 | 색조 | 경도 | 태토 | 특 징 |
|------|-------|-----|----|--------|------------------|
| 57-② | 106-② | 흑회색 | 연질 | 니질 점토 | 승문+횡선, 내면은 명황색 |
| 57-③ | 106-③ | 회황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 |
| 57-④ | 106-④ | 암갈색 | 연질 | 점토 | 격자문 |
| 57-⑤ | 106-⑤ | 회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횡선 |
| 57-⑥ | 106-⑥ | 황색 | 연질 | 니질 점토 | 격자문, 내면에 유기물질 탄화 |
| 57-⑦ | 106-⑦ | 회황색 | 연질 | 니질 점토 | 교차승석문, 외면은 흑색 |
| 57-⑧ | 106-⑧ | 회색 | 경질 | 점토 | 교차승문 |
| 57-⑨ | 106-⑨ | 암갈색 | 연질 | 점토 | 승문, 외면에 탄소흡착 |
| 57-⑩ | 106-⑩ | 갈색 | 연질 | 점토 | 격자문, 내면에 유기물질 탄화 |
| 57-⑪ | 106-⑪ | 회색 | 연질 | 니질 점토 | 승문, 외면은 흑회색 |
| 57-⑫ | 106-⑫ | 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교차승문 |
| 57-⑬ | 106-⑬ | 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횡선 |
| 57-⑭ | 106-⑭ | 적갈색 | 연질 | 점토 | 승문 |
| 57-⑮ | 106-⑮ | 흑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교차승문 |

31) 31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58, 사진 107-①)

조사지역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31호 소형유구부터 45호 소형유구에 이르기까지 모두 15기의 소형유구가 집중 분포하고 있다. 31호 소형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길이 2.4m, 너비 2.18m 가량의 크기이다. 남아 있는 최대 깊이는 44cm 가량이다. 바닥면은



도면 58. 31호 소형유구(1/60)와 출토유물(1/3)

비교적 편평한 편이며, 강자갈이 섞인 황색 모래층에 두었다. 유구의 내부에는 황색 모래가 소량 섞인 암갈색 사질점토부식토로 채워져 있으며(사진 107-②), 출토유물은 내부퇴적층에서만 소량의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출토유물은 3점의 新羅土器片을 제외하면 모두가 百濟土器片이므로 백제의 소형유구로 추정된다.

도면 58-①(사진 108-①)은 황갈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작은 석립이 소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든 新羅土器片이다. 구연단은 각지게 처리하였으며, 구연단 끝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외 희미한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1.7cm

도면 58-②(사진 108-②)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내외 희미한 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잔존고: 1.6cm

도면 58-③(사진 108-③)은 암갈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작은 석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외반하는 구연부의 끝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百濟土器片으로 추정된다. 잔존고: 1.7cm

기타 14점의 백제토기 및 신라토기 동체부편이 출토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28)과 같다.

(표 28) 3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도면 | 사진 | 색조 | 경도 | 태토 | 특 징 |
|------|-------|-----|----|--------|--------------------------------|
| 58-④ | 108-④ | 회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백제토기편, 교차승문+횡선 |
| 58-⑤ | 108-⑤ | 회색 | 연질 | 니질 점토 | 백제토기편, 승문+횡선, 내면은 회황색 |
| 58-⑥ | 108-⑥ | 황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신라토기편, 얇은 승문, 내외 물손질 |
| 58-⑦ | 108-⑦ | 암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백제토기편, 승문 |
| 58-⑧ | 108-⑧ | 황갈색 | 연질 | 니질 점토 | 백제토기편, 교차승문, 내면(회색)에 희미한 박자흔, |
| 58-⑨ | 108-⑨ | 황갈색 | 연질 | 니질 점토 | 도면 58-⑧과 동일 개체, 교차승문+횡선 |
| 58-⑩ | 108-⑩ | 암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백제토기편, 승문+횡선, 외면에 탄소흡착, 내면(회색) |
| 58-⑪ | 108-⑪ | 암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백제토기편, 승문+격자문 |
| 58-⑫ | 108-⑫ | 암갈색 | 연질 | 점토 | 백제토기편, 격자문, 외면에 탄소흡착 |
| 58-⑬ | 108-⑬ | 회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백제토기편, 격자문 |
| 58-⑭ | 108-⑭ | 황갈색 | 연질 | 점토 | 신라토기편, 얇은 승문 |
| 58-⑮ | 108-⑮ | 암갈색 | 연질 | 점토 | 백제토기편, 승문, 외면에 탄소흡착, 내면(회색) |
| 58-⑯ | 108-⑯ | 갈색 | 연질 | 점토 | 백제토기편, 격자문 |
| 58-⑰ | 108-⑰ | 회황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백제토기편, 교차승문+횡선 |

32) 32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59, 사진 109-①)

31호 소형유구 동쪽에 바로 인접하여 위치한다. 33호 소형유구, 9호 주거지와 중복되어 있는데 층위상 9호 주거지를 파괴하고 만들어졌으며, 후에 33호 소형유구가 다시 32호 소형

유구 동쪽 일부를 파괴하였다. 유구의 평면은 잔존상태로 보았을 때, 타원형으로 보이며, 크기는 추정 길이 2.6m, 너비 2.2m 가량이다. 남아 있는 최대 깊이는 21cm 정도이다. 유구의 벽면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서 바닥면과 연결된다. 바닥면은 특별히 처리한 흔적이 없으며 황색 모래층에 두었다. 유구의 내부에는 갈색 사질점토부식토 및 황색 사질토가 퇴적되어 있으며(사진 109-②), 소량의 百濟土器片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도면 59-①(사진 110-①)은 승문을 타날한 후, 횡선을 돌린 암갈색의 연질토기편이다. 작은 석립이 소량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내면에 유기물질이 탄화된 흔적이 남아 있다.

도면 59-②(사진 110-②)는 승문이 교차타날된 황색 연질토기편이다. 작은 석립이 다량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33) 33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59, 사진 109-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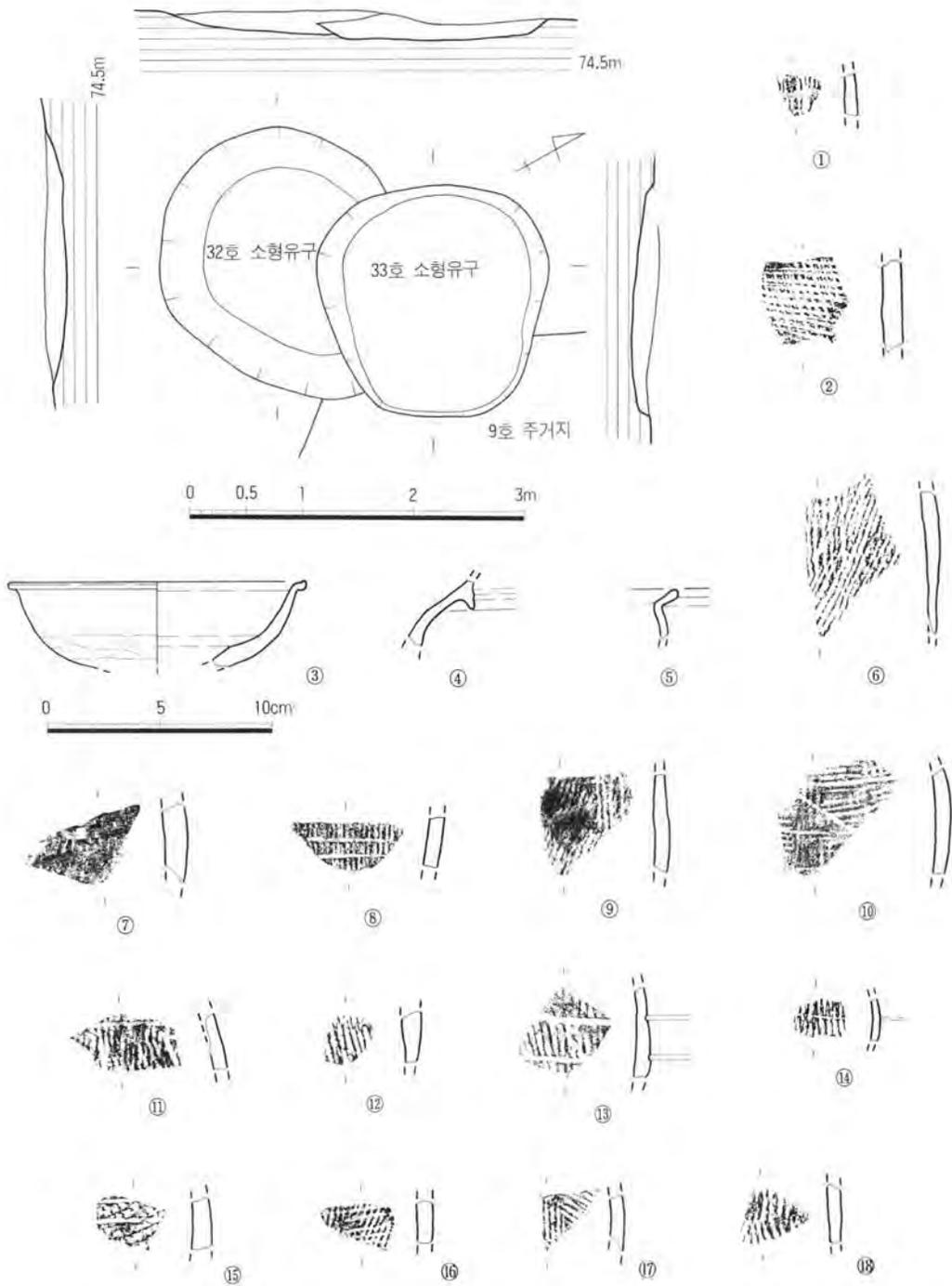
9호 주거지와 32호 소형유구를 파괴하고 만들어진 소형유구로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깝다. 규모는 길이 2.12m, 최대 너비 2.06m이며 남아 있는 최대 깊이는 26cm 정도이다. 바닥면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벽면과 축약없이 연결된다. 유구의 내부에는 암갈색 내지 갈색의 사질 점토부식토가 퇴적되어 있으며 新羅土器片과 함께 소량의 百濟土器片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도면 59-③(사진 110-③)은 회색 연질 甁으로 도면상 복원한 것이다. 작은 석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은 축약되어 짧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다소 둥글게 처리되었다. 동체부 상부에는 거친 물손질흔이, 하단에는 각기흔이 관찰된다. 복원 구경: 13.3cm, 잔존고: 4cm

도면 59-④(사진 110-④)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구연부편이나, 구연단은 결실되었다. 토기 외면에는 미세한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되며, 내면에는 자연유가 형성되어 있다. 속심은 자색을 띤다.

도면 59-⑤(사진 110-⑤)는 회흑색 경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미세한 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급격하게 외반되며, 구연단은 다소 둥글게 처리되었다. 잔존고: 2.2cm



도면 59. 32호 및 33호 소형유구(1/60)와 32호 소형유구(①,②), 33호 소형유구(③~⑱) 출토유물(1/3)

기타 동체부편 13점이 출토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29)와 같다.

(표 29) 33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도면 | 사진 | 색조 | 경도 | 태 토 | 특 징 |
|------|-------|-----|----|--------|------------------------------|
| 59-⑥ | 110-⑥ | 회백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백제토기편, 교차승문 |
| 59-⑦ | 110-⑦ | 흑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격자문, 외면은 황갈색 |
| 59-⑧ | 110-⑧ | 암회색 | 연질 | 점토 | 승문+횡선, 외면은 회색 |
| 59-⑨ | 110-⑨ | 회황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백제토기편, 교차승문, 외면에 탄소흡착 |
| 59-⑩ | 110-⑩ | 갈색 | 연질 | 점토 | 9호 주거지 출토 토기(도면 29-②)와 동일 개체 |
| 59-⑪ | 110-⑪ | 회백색 | 연질 | 니질 점토 | 교차승문+횡선 |
| 59-⑫ | 110-⑫ | 황색 | 연질 | 점토 | 승문 |
| 59-⑬ | 110-⑬ | 연황색 | 연질 | 니질 점토 | 얇은 승문+횡선 |
| 59-⑭ | 110-⑭ | 회백색 | 연질 | 점토 | 백제토기편, 승문+횡선 |
| 59-⑮ | 110-⑮ | 흑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격자문+횡선, 속심은 황색 |
| 59-⑯ | 110-⑯ | 연황색 | 연질 | 점토 | 교차승문 |
| 59-⑰ | 110-⑰ | 회흑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교차승문 |
| 59-⑱ | 110-⑱ | 회황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교차승문 |

34) 34號 小形遺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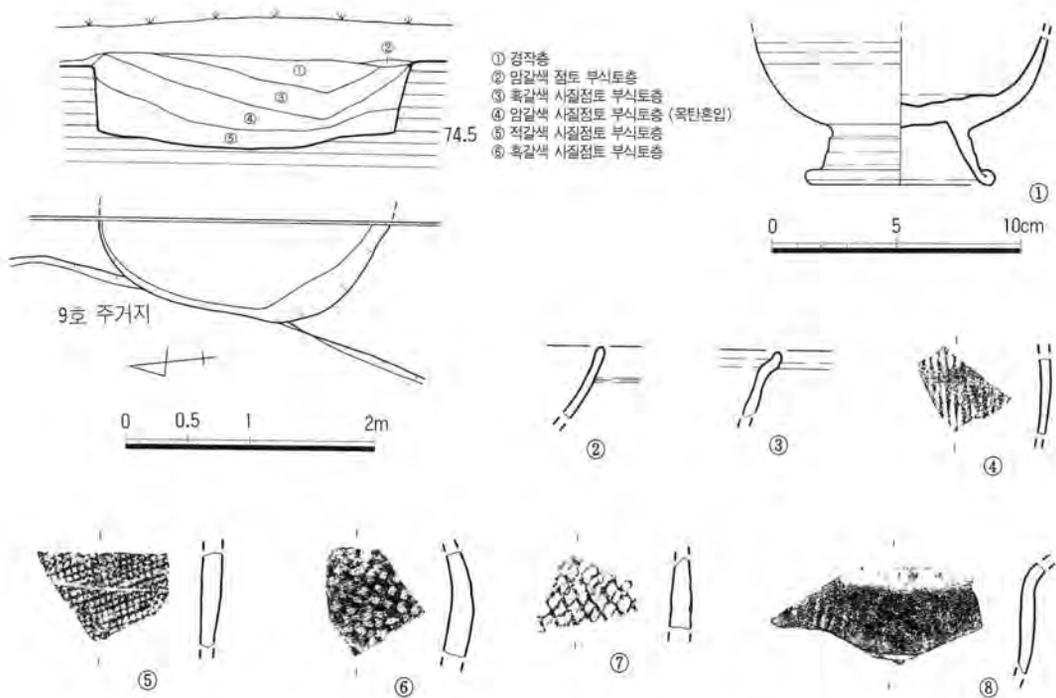
(1) 유구(도면 27, 사진 111-①)

9호 주거지 남쪽에 위치한 부정형의 소형유구이다. 9호 주거지와 일부 중복되어 있는데 9호 주거지가 34호 소형유구를 파괴하고 만들어졌다. 규모는 추정 길이 1.6m, 너비 1.16m 가량이며 잔존하는 최대 깊이는 24cm 정도이다. 유구의 내부에는 갈색 및 암갈색의 사질점토 부식토가 퇴적되어 있으며, 출토유물은 없다.

35) 35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60, 사진 111-②)

9호 주거지 서벽 일부를 파괴하고 만들어진 소형유구이다. 조사지역 밖으로 윤곽이 연장되고 있어 처음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9호 주거지 내부조사 과정 중에 중복된 부분에서 시루로 추정되는 동이류가 노출되어 유구의 일부만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유구의 상태로 보았을 때, 평면은 원형으로 추정되며 잔존 깊이는 76cm 가량이다. 벽면에서 확인된 토층상태를 보면, 경작층 밑에서 바로 유구가 노출되는데 이는 다른 지역보다 경작이 깊게 이루어진 결과가 아닌가 추정된다. 유구 내부에는 암갈색 내지 흑갈색의 사질점토부식토가 퇴적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신라토기들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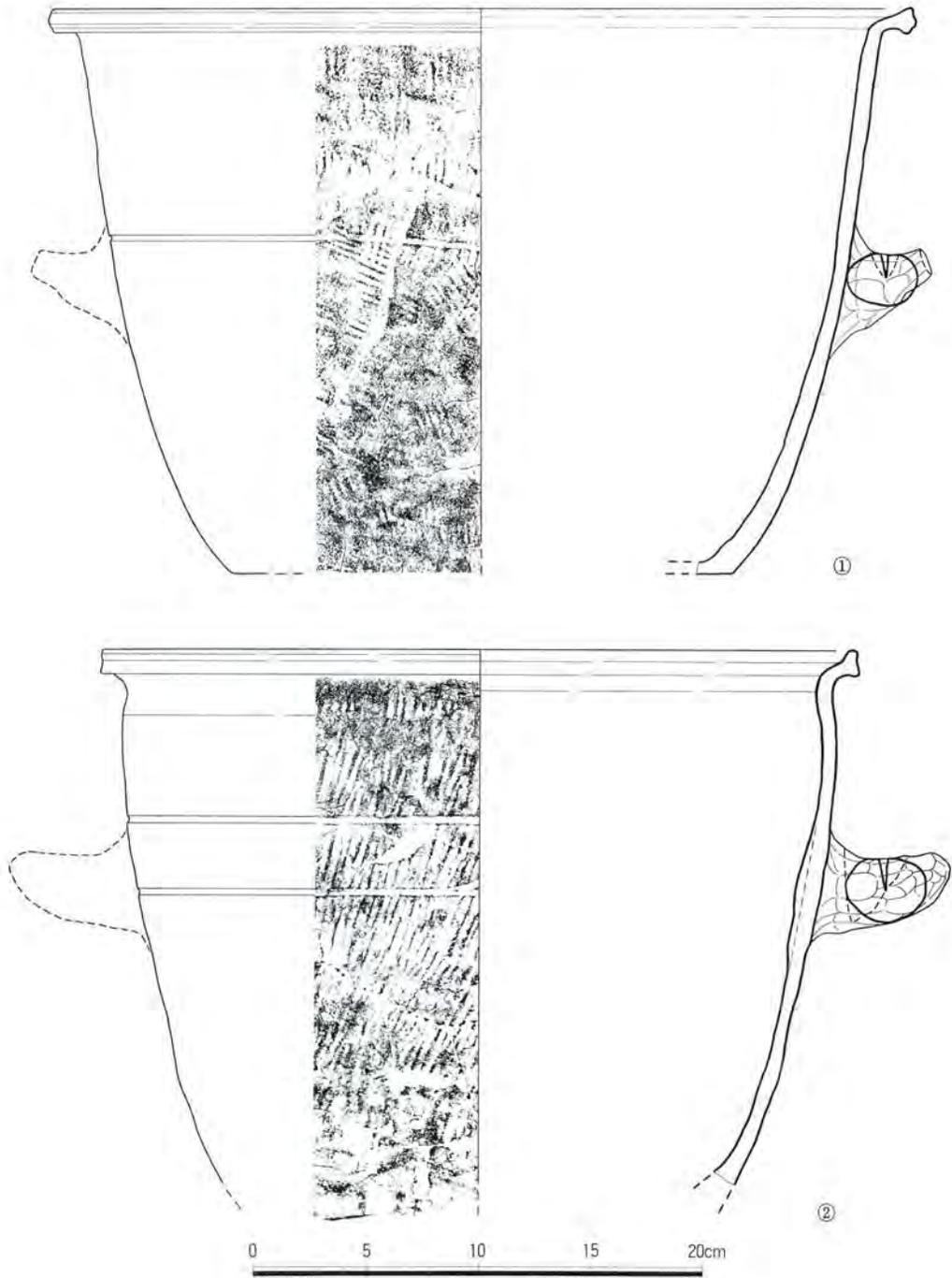


도면 60. 35호 소형유구(1/60)와 출토유물(1/3)

(2) 출토유물

도면 60-①(사진 112-①)은 점토질 태토로 만든 회청색 경질고배이다. 배신은 비교적 깊으며, 하단 일부에 氣泡가 형성되어 있다. 대각은 짧으며, 각단은 바깥쪽으로 말아 둥글게 처리하였다. 잔존고: 6.1cm, 대각 높이: 2.5cm

도면 61-①. ②는 시루로 추정되는 연결토기이다. 이 가운데 도면 61-①(사진 113-①)은 회황색 연질 소성으로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수평상으로 외반하며, 구연단 아랫쪽은 홈이 돌아간다. 구연의 내측면은 약간 오목하게 처리하였다. 동체부의 최대부경은 동 상부에 위치하며, 여기에서 거의 직선적으로 내경하며 저부에 이른다. 동체부 중앙에는 상면이 깊게 파여진 우각형파수가 부착되어 있으며, 이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1조의 횡선이 돌아간다. 외면에는 전체적으로 얇은 승문이 교차 타날되어 있으나, 저부로 내려갈수록 희미한 흔적만이 남아 있다. 내면에는 희미한 내박자흔이 관찰된다. 저부 바닥면은 결실되었다. 구경: 38.6cm, 저경: 22.4cm, 높이: 25.6cm



도면 61. 35호 소형유구 출토유물(1/3)

도면 61-②(사진 113-②)는 전체적인 기형, 소성 등에서 도면 61-①과 유사한 시루이다. 색조는 암회색(외면), 황색(내면)을 띠며, 미세한 사립이 다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은 축약되어 수평상 외반하며, 구연단은 중앙부가 오목하게 처리되었다. 동체부 중상위에 깊게 파여진 우각형과수가 부착되어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중앙과 상부에 2조의 횡선이 돌아간다. 전체적으로 얇은 승문이 타날되었으며, 목부분은 물손질하여 타날흔을 지웠다. 내면에는 평행집선열의 내박자흔이 관찰된다. 구경: 33.8cm, 잔존고: 25.4cm

60-②(사진 112-②)는 녹유가 시유된 구연부편이다. 작은 석립이 소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경질이다. 외면에는 2조의 횡선이 돌아간다. 잔존고: 3cm

60-③(사진 112-③)은 회황색 연결토기의 구연부편으로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단은 약간 등글게 처리하였으며, 내측면은 만곡되어 있다. 잔존고: 2.7cm

기타 5점의 동체부편이 출토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30)과 같다.

(표 30) 35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도면 | 사진 | 색조 | 경도 | 태토 | 특징 |
|------|-------|-----|----|----|-------------------|
| 60-④ | 112-④ | 회흑색 | 경질 | 점토 | 얇은 승문 타날후 물손질 |
| 60-⑤ | 112-⑤ | 회청색 | 경질 | 점토 | 격자문+횡선 |
| 60-⑥ | 112-⑥ | 황색 | 연질 | 점토 | 격자문, 외면에 일부 탄소흡착 |
| 60-⑦ | 112-⑦ | 황색 | 연질 | 점토 | 격자문 |
| 60-⑧ | 112-⑧ | 회색 | 연질 | 점토 | 얇은 승문+횡선, 내면에 물손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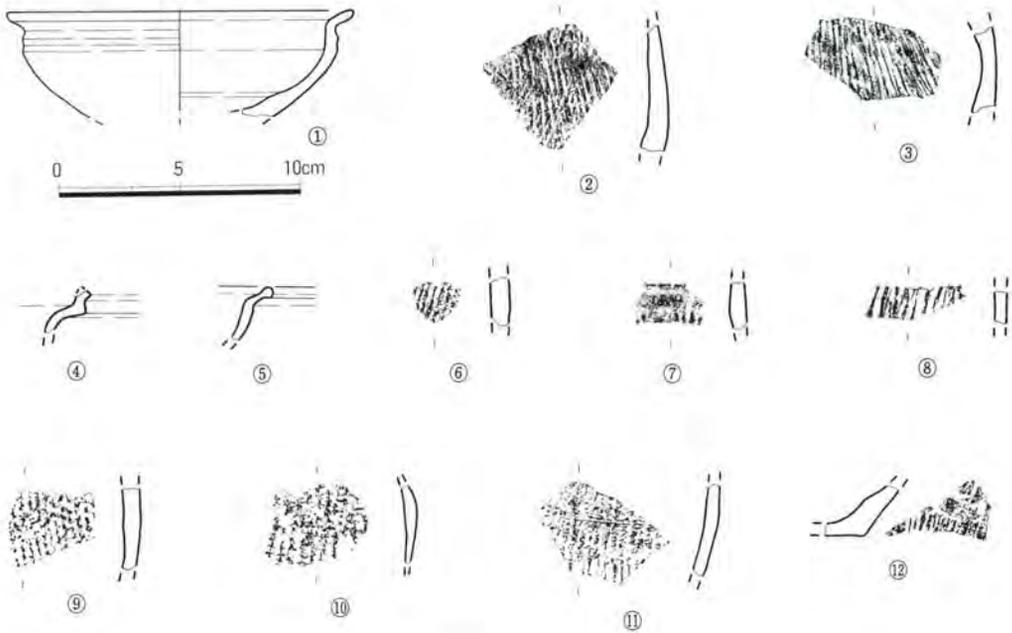
36) 36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27, 사진 114-①)

9호 주거지를 파괴하고 만들어진 장방형의 소형유구이다. 9호 주거지 내부조사를 실시하다가 주거지 바닥면에서 확인되었으나, 뚝의 토층단면에서 선후관계를 확인하였다(사진 114-②). 유구의 규모는 길이 2.8m, 최대너비 1.14m이며 남아 있는 최고 깊이는 38cm 가량이다. 유구의 장축 방향은 동남-서북 방향이다. 유구의 내부에는 갈색 내지 암갈색의 사질점토 부식토가 퇴적되어 있으며, 소량의 목탄이 섞여 있다. 바닥면은 작은 자갈이 소량 섞인 황색 모래층에 두었다. 출토유물은 소량의 新羅土器片이 출토되었을 뿐이다.

(2) 출토유물

도면 62-①(사진 115-①)은 황색 연질의 껌으로 작은 사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급격하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등글게 처리하였다. 동체부 상단에서 최대경을 이루며, 이 부분에서 급격하게 내경한다. 저부는 결실되었다. 내면의 하단부에



도면 62. 36호 소형유구 출토유물(1/3)

는 회전 성형흔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복원 구경: 14.4cm, 잔존고: 4.5cm

도면 62-④(사진 115-②)는 황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외반하며, 구연단은 직선적으로 처리하였다. 잔존고: 2cm

도면 62-⑤(사진 115-③)는 회황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미세한 사립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외반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외 회전물손 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2.3cm

기타 8점의 동체부편이 출토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31)과 같다.

(표 31) 36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도면 | 사진 | 색조 | 경도 | 태토 | 특 징 |
|------|-------|-----|----|--------|-------------|
| 62-② | 115-④ | 암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 |
| 62-③ | 115-⑤ | 회색 | 경질 | 점토 | 승문, 기포 형성 |
| 62-⑥ | 115-⑥ | 회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 내면은 암회색 |
| 62-⑦ | 115-⑦ | 황색 | 연질 | 점토 | 승문 타날후 물손질 |
| 62-⑧ | 115-⑧ | 회색 | 연질 | 점토 | 얇은 승문 |
| 62-⑨ | 115-⑨ | 회청색 | 경질 | 점토 | 격자문 |
| 62-⑩ | 115-⑩ | 암갈색 | 연질 | 점토 | 격자문 |
| 62-⑪ | 115-⑪ | 회색 | 경질 | 점토 | 승문+횡선 후 물손질 |

도면 62-⑫(사진 115-⑫)는 회색 연질의 저부편으로 외면은 암회색을 띤다. 작은 석립이 소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되어 있으나, 표면 일부가 박리되었다. 잔존고: 2.2cm

37) 37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63, 사진 116-②)

9호 주거지 서북쪽 4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39호 소형유구와 중복되어 있다. 층위상 39호 소형유구가 37호 소형유구를 파괴하고 만들어졌다(사진 116-①). 유구는 거의 바닥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분명하지만, 남아 있는 상태로 보아 삼각형의 형태이다. 규모는 추정 길이 2.4m, 최대 너비 2.2m이며 깊이는 14cm가량이다. 유구의 내부에는 암갈색 사질점토부식토가 퇴적되어 있으며, 출토유물은 없다.

38) 38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63, 사진 117-①)

37호 소형유구 바로 북쪽에 인접하여 위치하는 부정형의 소형유구이다. 유구의 동쪽 끝 부분은 교란되어 있다. 규모는 추정 길이 2.9m, 최대 너비 1.2m이며 남아 있는 최대 깊이는 10cm 내외이다. 유구의 바닥면은 강자갈이 다량 섞인 황색 모래층에 두었으며 유구의 내부에는 암갈색 점토부식토가 퇴적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없다.

39) 39號 小形遺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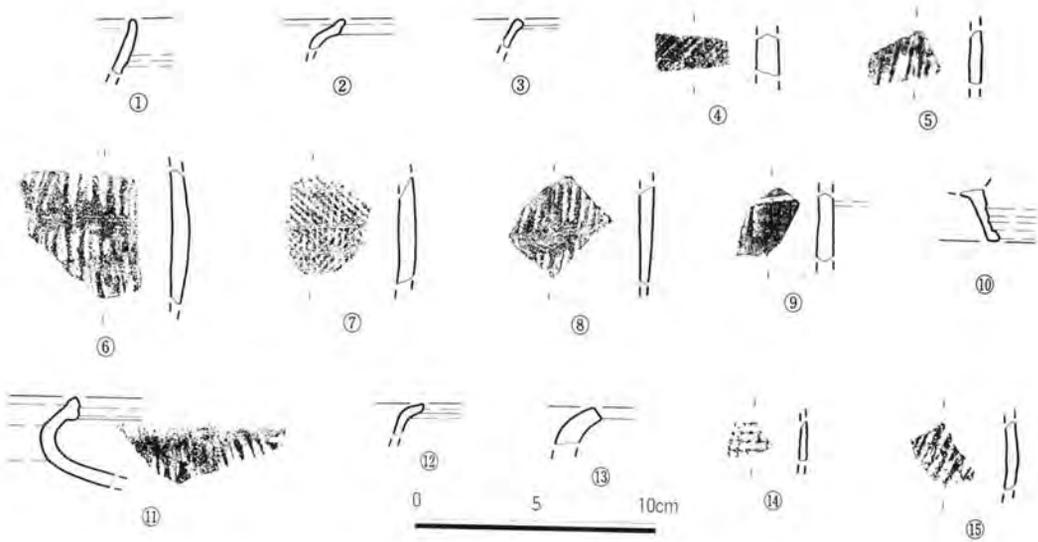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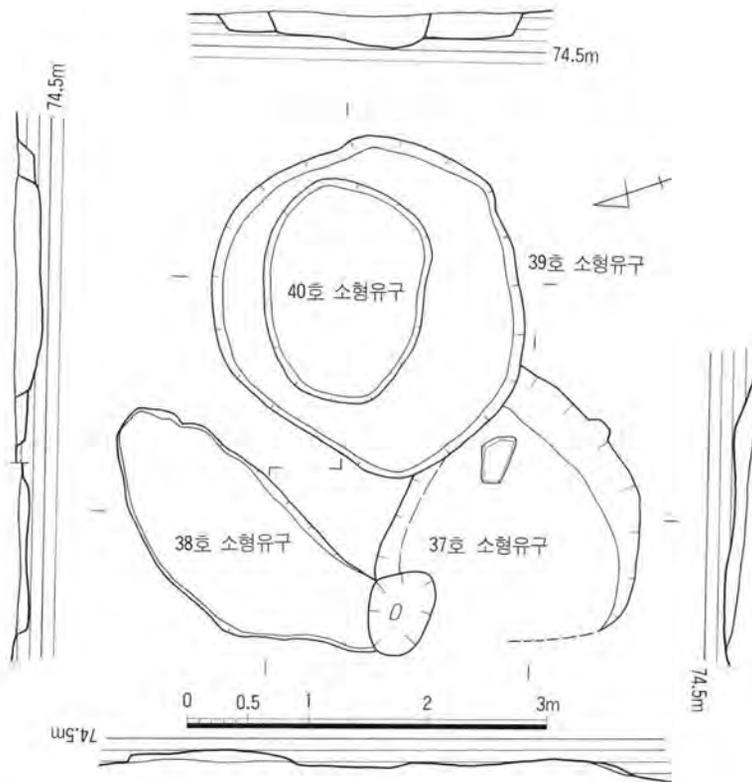
(1) 유구(도면 63, 사진 118-①)

37호 소형유구를 파괴하고 만들어진 소형유구이며, 폐기 후에 40호 소형유구에 의해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운 부정형으로 규모는 길이 2.8m, 너비 2.6m 가량이다. 남아 있는 최대 깊이는 23cm이다. 내부퇴적층은 흑갈색의 사질점토부식토로 이루어지며, 토층상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바닥면은 굵은 강자갈이 섞인 황색 모래층에 두었다. 출토유물은 모두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출토유물은 1점의 百濟土器片을 제외하면, 모두 新羅土器片이다.

도면 63-①(사진 119-①)은 흑회색 경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외



도면 63. 37호, 38호, 39호, 40호 소형유구(1/60)와 39호 소형유구(①~⑩), 40호 소형유구(⑪~⑮) 출토유물(1/3)

면에는 2조의 황선이 돌아간다.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으며, 내외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2.4cm

도면 63-②(사진 119-②)는 적갈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나, 경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단의 외측면은 단을 이루며, 상단 끝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잔존고: 1.3cm

도면 63-③(사진 119-③)은 회황색 연질토기이다.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으며, 구연단 끝은 다소 둥글게 처리하였다. 잔존고: 1.2cm

기타 6점의 동체부편이 출토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32)와 같다.

(표 32) 39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도면 | 사진 | 색조 | 경도 | 태토 | 특 징 |
|------|-------|-----|----|--------|---------------------------|
| 63-④ | 119-④ | 황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 |
| 63-⑤ | 119-⑤ | 황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얇은 승문 |
| 63-⑥ | 119-⑥ | 황색 | 연질 | 점토 | 얇은 승문 타날후 황으로 물손질, 외면은 회색 |
| 63-⑦ | 119-⑦ | 황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백제토기편, 교차타날 |
| 63-⑧ | 119-⑧ | 황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얇은 승문 타날후 황으로 물손질 |
| 63-⑨ | 119-⑨ | 회황색 | 연질 | 점토 | 얇은 승문+황선, 내박자흔 |

도면 63-⑩(사진 119-⑩)은 단각고배의 대각편으로 회청색 경질 소성이며, 속심은 자색을 띤다. 대각의 상단부에는 배신과 접착하기 위한 흔적이 관찰된다. 각단은 다소 둥글게 처리되었다. 잔존고: 2.8cm

40) 40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63, 사진 118-①, ②)

39호 소형유구 내부에 중복된 타원형의 소형유구이다. 39호 소형유구 내부조사를 실시하면서 바닥 부근에서 새로운 윤곽이 확인되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행히도 39호 소형유구 내부 뚝(baulk)에서 중복관계가 확인되어 40호 소형유구가 나중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었다(사진 117-②). 유구의 크기는 길이 1.9m, 최대너비 1.4m이며, 남아 있는 최고 깊이는 30cm가량이다. 유구의 내부에는 암갈색의 사질점토부식토가 퇴적되어 있으며, 바닥면은 굵은 강자갈이 섞인 황색 모래층에 두었다. 유물은 소량의 新羅土器片만이 출토되었을 뿐이다.

(2) 출토유물

도면 63-⑪(사진 119-⑪)은 회황색 연질의 단경호로 추정되는 구연부편이다. 세사립이 다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급격하게 곡선적으로 외반하며, 구연단에는 '凹部'가 관찰된다. 동체부에는 얇은 승문이 타날되어 있다. 잔존고: 3.8cm

도면 63-⑫(사진 119-⑫)는 황색 연질토기이며, 니질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단은 다소 곡선적으로 처리하였다. 잔존고: 1.3cm

도면 63-⑬(사진 119-⑬)은 기벽이 두터운 황색 연질토기이며, 작은 석립이 소량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외반하는 구연부의 끝 단은 다소 곡선적으로 처리하였으며, 내외 회전물손질흔이 잘 남아 있다. 잔존고: 1.6cm

도면 63-⑭(사진 119-⑭)는 격자문이 타날된 동체편으로 회색 연질이며, 도면 63-⑮(사진 119-⑮)는 승문이 타날된 황색 연질토기이다.

사진 119-⑯은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동물뼈이다. 작은 조각이 출토되었지만, 형태로 보아 새의 뼈로 추정된다.

41) 41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64, 사진 120-①)

9호 주거지 북쪽 1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42호 소형유구와 중복되어 있다. 토층상태로 보았을 때, 42호 소형유구가 41호 소형유구를 파괴하고 만들어졌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으로 장축 방향은 북서-남동 방향이다. 규모는 길이 2.3m, 너비 1.4m, 최대 잔존 깊이 28cm가량이다. 유구의 내부에는 약간의 목탄이 섞인 암갈색의 사질점토부식토가 퇴적되어 있으며, 주로 상부퇴적층에서 新羅土器片들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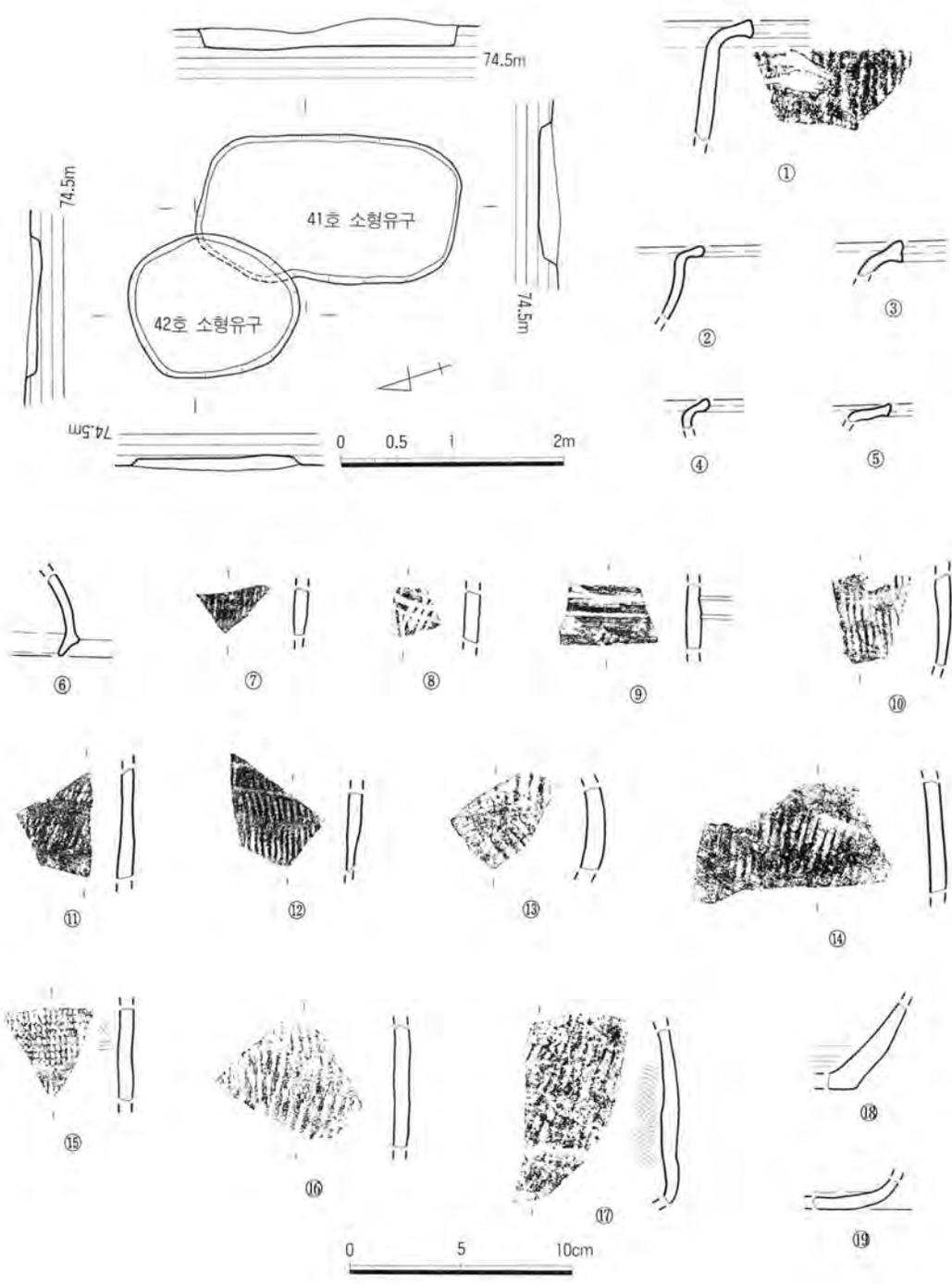
도면 64-①(사진 121-①)은 동이류로 추정되는 회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미세한 세사립이 다량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급격하게 벌어지며, 구연단은 다소 둥글게 처리되었다. 토기 외면에는 희미한 승문이 타날되었으며, 내면에는 미세한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5.5cm

도면 64-②(사진 121-②)는 황색 연질 甑의 구연부편이다.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은 축약되어 급격하게 벌어지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잔존고: 3.4cm

도면 64-③(사진 121-③)은 흑회색 경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은 곡선적으로 외반하며, 구연단은 '凹部'를 이룬다. 구연 내측면에는 일부 자연유가 관찰되며, 속심은 자색을 띤다. 잔존고: 1.5cm

도면 64-④(사진 121-④)는 회백색 연질토기이다.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으며, 축약되어 외반된 구연부 끝 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잔존고: 1.2cm

도면 64-⑤(사진 121-⑤)는 황갈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인 점



도면 64. 41호 및 42호 소형유구(1/60)와 41호 소형유구 출토유물(1/3)

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단은 약간 둥글게 처리하였으며, 내외 물손질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잔존고: 0.7cm

도면 64-⑥(사진 121-⑥)은 석립이 다소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든 회청색 경질 소성의 뚜껑편이다. 속심은 자색을 띤다. 구연은 짧게 내경하고 구연단은 약간 둥글게 처리되었다. 내외 희미한 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잔존고: 3.8cm

기타 11점의 동체부편이 출토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33)과 같다.

(표 33) 4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도면 | 사진 | 색조 | 경도 | 태토 | 특징 |
|------|-------|-----|----|--------|------------------------|
| 64-⑦ | 121-⑦ | 황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얇은 승문, 외면은 흑회색 |
| 64-⑧ | 121-⑧ | 회색 | 경질 | 점토 | 교차승문, 내면에 희미한 정면흔 |
| 64-⑨ | 121-⑨ | 황갈색 | 연질 | 점토 | 횡선+격자문, 내면에 물손질 |
| 64-⑩ | 121-⑩ | 황색 | 연질 | 점토 | 얇은 승문, 내외면에 물손질 |
| 64-⑪ | 122-① | 황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얇은 승문 타날후 물손질 |
| 64-⑫ | 122-② | 흑회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승문+횡선, 속심은 회색, 내면에 물손질 |
| 64-⑬ | 122-③ | 암회색 | 경질 | 점토 | 교차타날, 속심은 자색 |
| 64-⑭ | 122-④ | 황색 | 연질 | 점토 | 얇은 승문, 내면에 물손질 |
| 64-⑮ | 122-⑤ | 흑회색 | 경질 | 점토 | 격자문, 내면에 목리조정흔 |
| 64-⑯ | 122-⑥ | 연갈색 | 연질 | 점토 | 얇은 승문 |
| 64-⑰ | 122-⑦ | 회흑색 | 경질 | 점토 | 내면에 내박자흔 |

도면 64-⑱(사진 122-⑧)은 회백색 경질의 저부편으로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내면에는 거친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4.2cm

도면 64-⑲(사진 122-⑨)는 회황색 연질의 말각평저편이다. 세사립이 소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잔존고: 1.2cm

42) 42號 小形遺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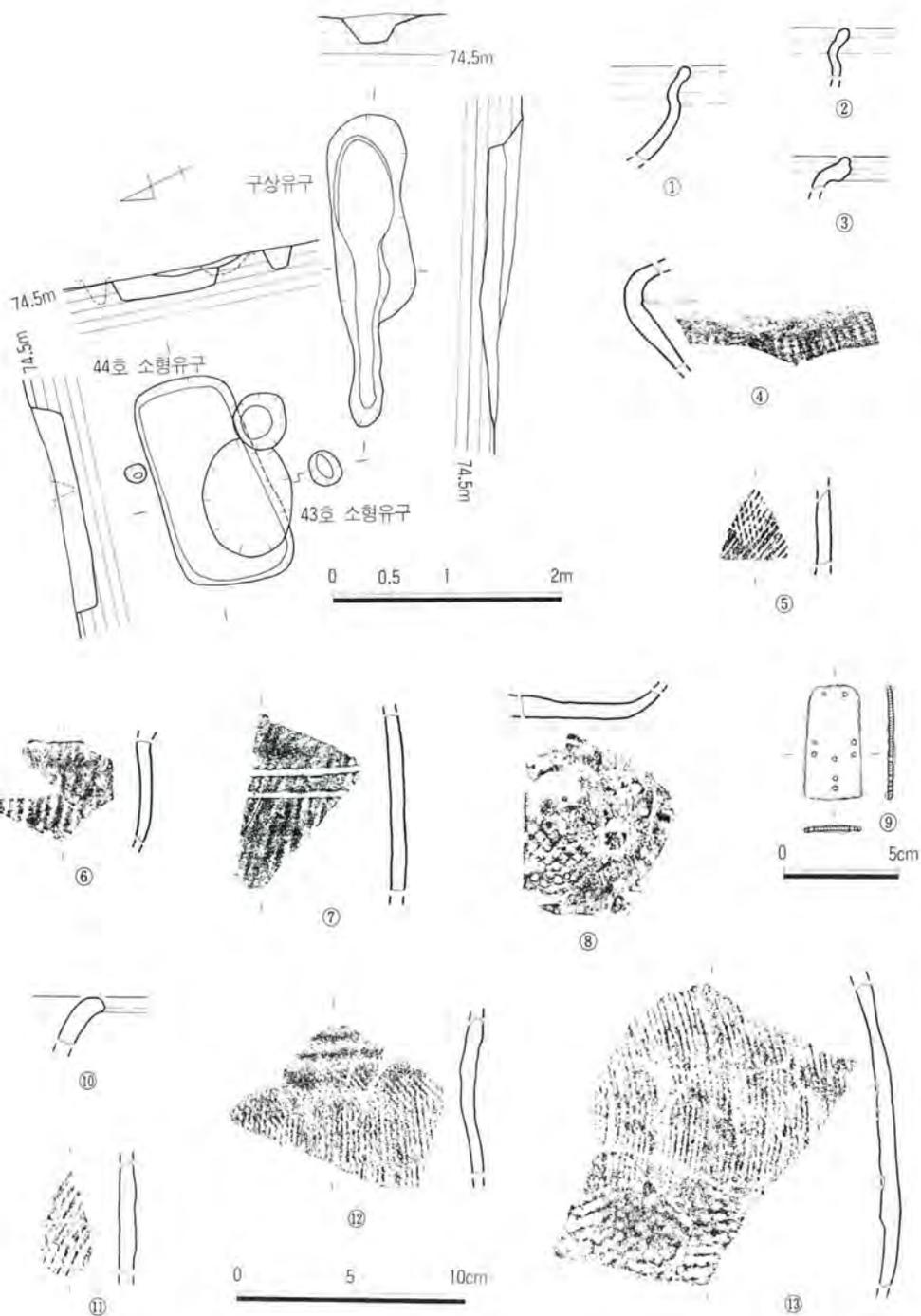
(1) 유구(도면 64, 사진 120-②)

타원형에 가까운 소형유구로 41호 소형유구 북쪽 모서리 일부를 파괴하고 만들어졌다. 유구의 규모는 길이 1.5m, 너비 1.32m이며 남아 있는 최고 깊이는 15cm 가량으로 얇은 편이다. 바닥면은 생토인 황색 모래층이며, 내부에는 갈색의 사질점토부식도가 퇴적되어 있는데 출토유물은 없다.

43) 43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65, 사진 123-①)

42호 소형유구 북동쪽에 바로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44호 소형유구와 중복되어 있다.



도면 65. 43호, 44호 소형유구 및 구상유구(1/60)와 44호 소형유구(①~⑨), 구상유구(⑩~⑬) 출토유물(1/3)

층위상 44호 소형유구를 파괴하고 만들어졌으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유구의 동남쪽 끝 일부는 기둥 구멍에 의해 파괴되었다. 유구의 크기는 추정 길이 1.06m, 너비 0.78m의 소형이다. 남아 있는 최고 깊이는 5cm에 불과하다. 내부에는 암갈색 사질점토부식토로 채워져 있으며 출토유물은 없다.

44) 44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65, 사진 123-②)

말각장방형의 소형유구로 43호 소형유구에 의해 상부 일부분이 파괴되었다. 장축 방향은 동남-북서 방향이다. 유구의 규모는 길이 1.92m, 너비 1m 가량이며 남아 있는 최고 깊이는 26cm가량이다. 바닥면은 굵은 강자갈이 섞인 황색 모래층에 두었으며, 유구의 내부에는 암갈색의 사질점토부식토가 퇴적되어 있다. 유물은 소량의 新羅土器片과 함께 小札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도면 65-①(사진 124-①)은 회황색 연질 甁의 구연부편으로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은 축약되어 짧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내외 물손질 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4.2cm

도면 65-②(사진 124-②)는 황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잔존상태로 볼 때, 甁으로 추정된다. 세사립이 소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은 짧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잔존고: 2.1cm

도면 65-③(사진 124-③)은 황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밖으로 말아 붙였으며, 구연단은 각지게 처리되었다. 구연 내측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있다. 잔존고: 1.5cm

도면 65-④(사진 124-④)는 구연단 끝이 결실된 적갈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미세한 세사립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부와 동체부 경계 지점에 흠이 돌아가며, 여기에서 구연부는 곡선적으로 외반한다. 동체부에는 희미하게 격자문을 타날하고 횡으로 물손질하였다.

기타 3점의 동체부편과 1점의 저부편이 출토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34)와 같다.

(표 34) 44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 도면 | 사진 | 색조 | 경도 | 태토 | 특 징 |
|------|-------|-----|----|--------|---------------------|
| 65-⑤ | 124-⑤ | 회황색 | 연질 | 점토 | 교차타날, 백제토기편, 내면 흑회색 |
| 65-⑥ | 124-⑥ | 황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얇은 승문, 내면 물손질 |
| 65-⑦ | 124-⑦ | 회색 | 연질 | 점토 | 얇은 승문+횡선, 내면 물손질 |
| 65-⑧ | 124-⑧ | 암회색 | 연질 | 점토 | 바닥면에 격자문 타날 |

도면 65-⑨(사진 124-⑨)는 소형유구 북쪽 상부퇴적층에서 출토된 小札로서 상단은 모가 약간 둥글게 처리되었으며, 하단은 수평상으로 만들었다. 하단의 폭이 약간 넓어 길이 2.5cm이며, 상단의 폭은 2.2cm이다. 전체 길이는 5.1cm, 두께 0.23cm 가량이다.

45) 45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66, 사진 125-①)

조사 지역 북쪽 끝단에서 유구 윤곽이 확인되어 확장하여 조사를 실시한 소형유구이다. 그러나, 유구는 거의 바닥 부분만 남아 있고 서쪽 부분은 이미 파괴된 상태이다. 남아 있는 상태로 보았을 때, 평면은 방형 계통이나 분명치 않다. 규모는 남북 길이 2.5m, 남아 있는 동서 길이 1.2m 가량이다. 깊이는 가장 깊은 곳이 8cm 정도이다. 내부에는 암갈색의 사질점토 부식토가 퇴적되어 있으며, 주로 상부에서 百濟土器片들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도면 66-①(사진 126-①)은 회황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석립이 다량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경미하게 축약되어 직립하며, 구연단은 다소 직선적으로 처리되었다. 동체부 상부에는 희미하게 승문을 타날한 흔적이 보이며, 구연 내외에는 모두 황으로 물손질하였다. 잔존고: 3.2cm

기타 4점의 동체부편이 출토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35)와 같다.

(표 35) 45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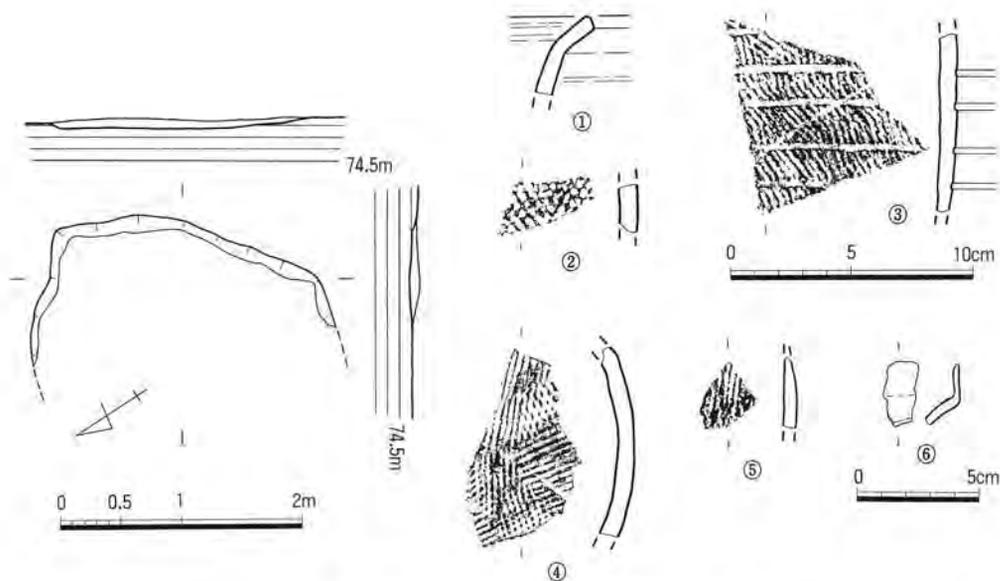
| 도면 | 사진 | 색조 | 경도 | 태 토 | 특 징 |
|------|-------|-----|----|--------|----------------|
| 66-② | 126-② | 회백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격자문 |
| 66-③ | 126-③ | 황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황선 |
| 66-④ | 126-④ | 회색 | 경질 | 정선된 점토 | 교차승문, 외면에 탄소흡착 |
| 66-⑤ | 126-⑤ | 황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 |

도면 66-⑥(사진 126-⑥)은 용도미상의 철편으로 부식이 심한 편이다. 두께: 0.2~0.4cm

46) 溝狀遺構

(1) 유구(도면 65, 사진 125-②)

41호와 44호 소형유구 사이의 동남쪽에 위치한다. 유구의 전체적인 형태로 보았을 때, 溝의 역할을 하였는지 의심스럽다. 유구의 규모는 길이 2.8m, 너비 0.66m이며 깊이는 가장



도면 66. 45호 소형유구(1/60)와 출토유물(1/3)

깊은 곳이 28cm가량이다. 구의 남쪽 부분은 어깨면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에는 흑갈색의 사질점토부식토가 퇴적되어 있으며(사진 125-③), 상부에서 소량의 百濟土器片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도면 65-⑩(사진 124-⑩)은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든 갈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구연부는 살짝 외반하며, 구연단은 직선적으로 처리되었다. 구연단의 내측면은 각지게 만들었다. 내외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도면 65-⑪(사진 124-⑪)은 승문+횡선이 있는 흑갈색 연질토기편이다. 작은 석립이 많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으며, 내면은 명황색을 띤다.

도면 65-⑫(사진 124-⑫), ⑬(사진 124-⑬)은 동일 개체의 장란형토기이다. 작은 석립이 다량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으며, 내외면은 회색 내지 암회색을 띤다. 구연부 하단에는 횡으로 물손질하였으며, 동체부에는 승문, 저부에는 격자문을 타날하였다. 외면에는 탄소흡착흔이, 내면에는 유기물질이 탄화된 흔적이 남아 있다.

3. 文化層 出土遺物

도면 67-①(사진 127-①)은 II층에서 출토된 회백색 경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구연단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표면이 박리되었다.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으며, 구연부는 바깥쪽으로 말아 붙여, 수평상 위반되었다. 잔존고: 2.9cm

도면 67-②~⑨는 III층에서 출토된 동체부편들이다. 자세한 내용은 (표 36)과 같다.

(표 36) III 문화층 출토 토기 동체부편

| 도면 | 사진 | 색조 | 경도 | 태도 | 특 징 |
|------|-------|------|----|--------|--------------------------|
| 67-② | 127-② | 암적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즐문토기 |
| 67-③ | 127-③ | 암회색 | 경질 | 정선된 점토 | 신라토기, 얇은 승문 교차타날, 속심은 자색 |
| 67-④ | 127-④ | 암회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격자문, 내면은 황갈색 |
| 67-⑤ | 127-⑤ | 암회색 | 경질 | 정선된 점토 | 신라토기, 얇은 승문 타날후 횡으로 물손질 |
| 67-⑥ | 127-⑥ | 회백색 | 연질 | 니질 점토 | 백제토기, 승문+횡선 |
| 67-⑦ | 127-⑦ | 황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백제토기, 교차승문 |
| 67-⑧ | 127-⑧ | 회청색 | 경질 | 점토 | 격자문 |
| 67-⑨ | 127-⑨ | 회백색 | 경질 | 정선된 점토 | 격자문, 내면에 불규칙적인 물손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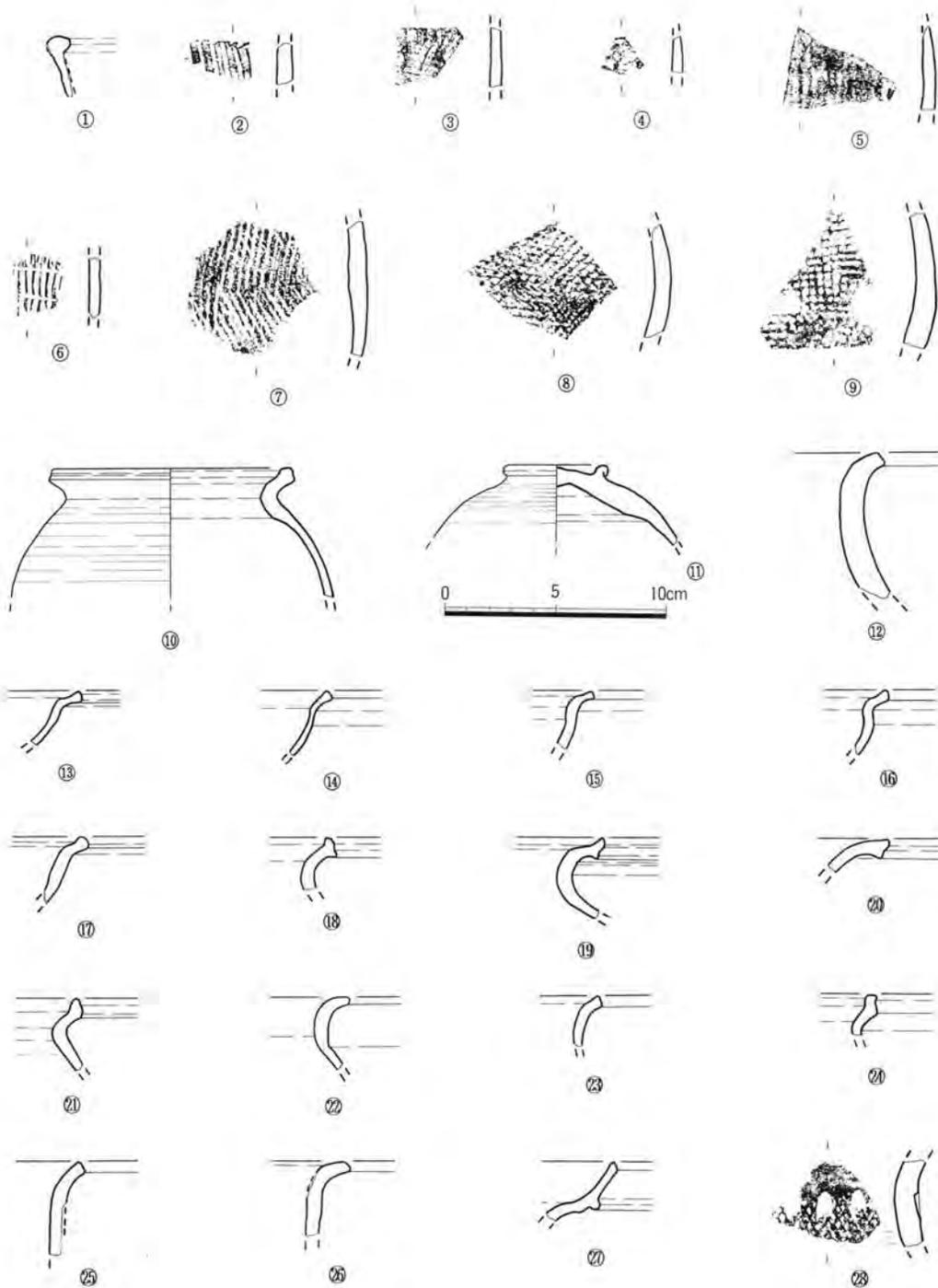
4. 地表採集 遺物

발굴조사 과정에서 유구와 관련 없이 재퇴적층에서 주로 채집된 유물들이다. 많은 양이 채집되었지만, 이 가운데 중요한 것들만 소개하기로 한다.

도면 68-①(사진 129-①)은 적갈색 연질의 장동용이다. 4호 주거지 북쪽 5m 지점의 재퇴적층에서 출토되었는데, 본래는 바닥면까지 깎여 나간 유구의 출토품으로 추정된다. 작은 석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최대복경은 胴 中上位에 위치하며, 구연부는 곡선을 그리면서 완만하게 위반한다. 구연단은 약간 둥글게 처리되었다. 저부는 잔존 상태로 볼 때, 원저로 생각된다. 동체부 전면에는 얇은 승문이 타날되어 있는데, 동체부 중위 이하로는 승문이 교차 타날되어 있다. 복원 구경: 22.5cm, 복원 높이: 37cm

도면 67-⑩(사진 127-⑩)은 회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세사립이 많이 섞인 점토질 태도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급격하게 위반하며, 구연단은 중앙에 홈이 돌아간다. 토기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되며, 내면과 속심은 일부 황색을 띤다. 복원 구경: 11cm, 잔존고: 6cm

도면 67-⑪(사진 127-⑪)은 회색 경질의 뚜껑편으로 세사립이 소량 섞인 점토질 태도로 만들었다. 굽모양의 꼭지가 부착되어 있는데, 꼭지는 바깥쪽으로 말아 붙여 둥글게 처리되었다. 토기 내외면에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3.5cm



도면 67. II문화층 및 III문화층과 지표채집 유물(1/3)

기타 16점의 구연부편이 출토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37)과 같다.

(표 37) 성동리유적 지표채집 토기 구연부편

| 도면 | 사진 | 색조 | 경도 | 태토 | 특 징 |
|-------|--------|-----|----|--------|----------------------------|
| 67-12 | 127-11 | 암황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백제토기, 내외 황으로 물손질 |
| 67-13 | 128-1 | 회색 | 연질 | 점토 | 신라토기, 완, 외면에 물손질 |
| 67-14 | 128-2 | 회황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신라토기, 완, 내외 황으로 물손질 |
| 67-15 | 128-3 | 암회색 | 경질 | 점토 | 신라토기 |
| 67-16 | 128-4 | 적황색 | 연질 | 점토 | 신라토기, 완 |
| 67-17 | 128-5 | 회백색 | 연질 | 점토 | 신라토기, 완 |
| 67-18 | 128-6 | 갈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신라토기, 구연단에凹凸 형성 |
| 67-19 | 128-7 | 암회색 | 경질 | 정선된 점토 | 신라토기, 내외면에 물손질 |
| 67-20 | 128-8 | 암회색 | 경질 | 정선된 점토 | 신라토기, 구연단에 홈이 돌아감 |
| 67-21 | 128-9 | 회백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신라토기, 내외면에 물손질 |
| 67-22 | 128-10 | 암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백제토기, 동체부에 승문 타날, 내외면에 물손질 |
| 67-23 | 128-11 | 암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백제토기, 내면은 흑갈색 |
| 67-24 | 128-12 | 회황색 | 연질 | 점토 | 신라토기, 속심은 황색 |
| 67-25 | 128-13 | 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백제토기, 외면 표면박리, 내면에 물손질 |
| 67-26 | 128-14 | 회백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백제토기 |
| 67-27 | 128-15 | 흑회색 | 경질 | 정선된 점토 | 신라토기, 표면에 자연유 흡착, 속심은 자색 |

특징적인 동체부편은 5점이 출토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38)과 같다.

(표 38) 성동리유적 지표채집 토기 동체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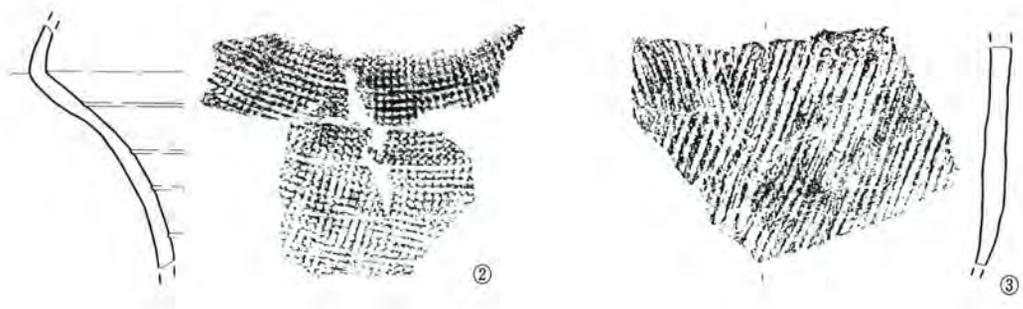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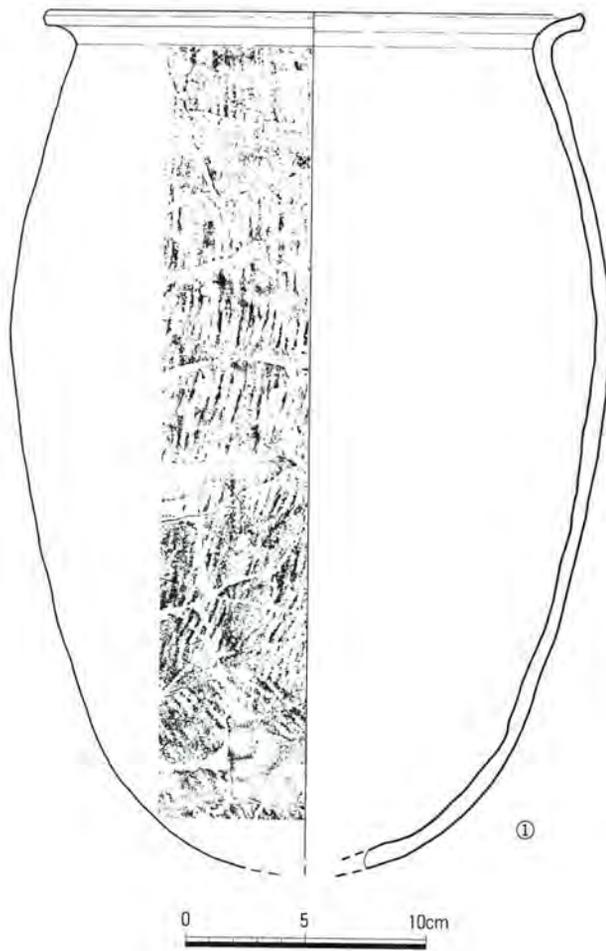
| 도면 | 사진 | 색조 | 경도 | 태토 | 특 징 |
|-------|--------|-----|----|--------|------------------------------|
| 67-28 | 128-16 | 회청색 | 경질 | 점토 | 백제토기, 격자문, 목부분에 押文이 등간격으로 배치 |
| 68-2 | 129-2 | 적갈색 | 연질 | 점토 | 백제토기, 격자문+횡선, 속심은 일부 흑색 |
| 68-3 | 129-3 | 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백제토기, 교차승문, 내면은 암회색 |
| 69-1 | 130-1 | 암회색 | 경질 | 정선된 점토 | 신라토기, 외면에 돌대, 파상문 |
| 69-2 | 130-2 | 암회색 | 경질 | 정선된 점토 | 신라토기, 삼각집선문·원문 시문 |

기타 3점의 저부편이 출토되었다. 도면 69-3(사진 130-3)은 회청색 경질의 신라토기로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잔존 상태로 볼 때, 대부분으로 추정되나 분명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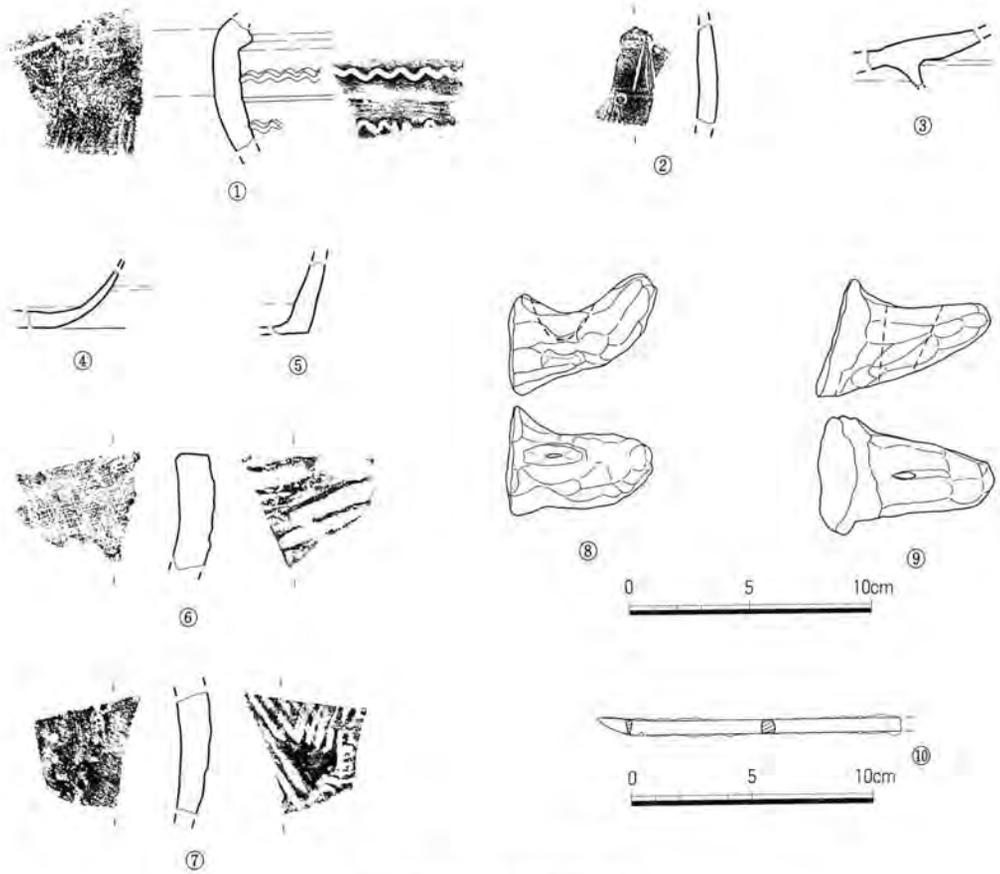
도면 69-4(사진 130-5)는 회청색 경질 소성으로 작은 석립이 많이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외면에는 1조의 횡선이 돌아가며, 내외 물손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고: 2.5cm

도면 69-5(사진 130-4)는 적갈색 연질토기이며, 작은 석립이 소량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내외면에 물손질한 흔적이 남아 있다. 잔존고: 3cm

2점의 파수가 채집되었다. 이 가운데 도면 69-8(사진 130-8)은 황색 연질이며, 작은 석립이 소량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도면 69-9(사진 130-9)는 작은 사립이 많이 섞인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색조는 황갈색 내지 흑색을 띤다.



도면 68. 지표채집 유물(1/3)



도면 69. 지표채집 유물(1/3)

한편, 2점의 신라 기와편이 출토되었는데(도면 69-⑥·⑦, 사진 130-⑥, ⑦), 모두가 선조문이 배풀어진 평기와편이다.

철기류로는 철도자 1점이 채집되었다. 도면 69-⑩(사진 130-⑩)의 철도자는 표면 부식이 심한 상태이며, 날 끝 부분만이 예리한刃을 형성한다. 잔존 길이: 12.5cm

V. 考 察

1. 段階의 設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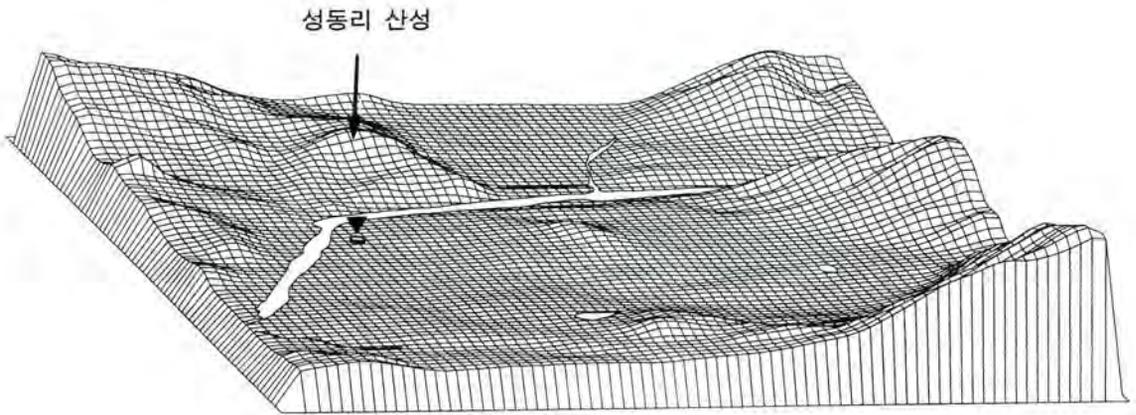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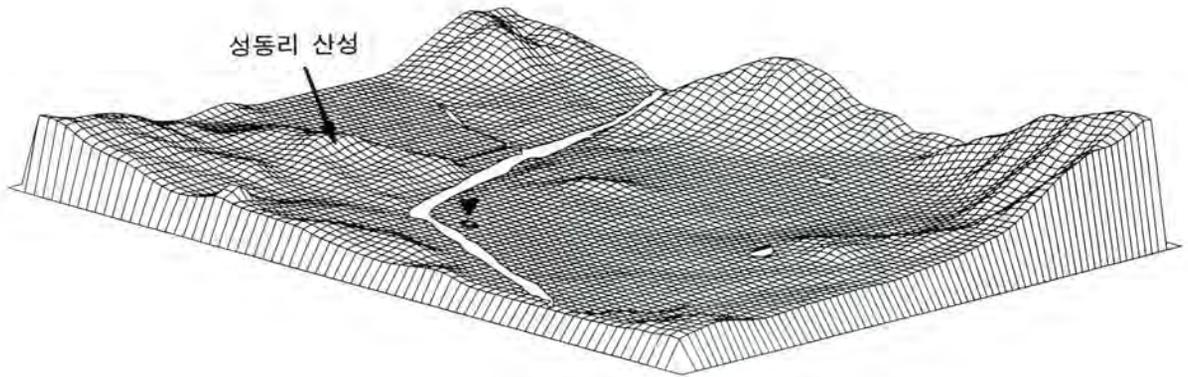
지금까지 경기북부에서 原三國時代 내지 三國時代의 마을遺蹟이 발굴, 조사된 것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抱川 永松里(金秉模 外 1995), 議政府 民樂洞(崔夢龍 外 1996), 坡州 舟月里(김규상 1998) 등의 유적들이 1990년대에 들어와서 처음 조사되어 경기북부지역에서의 역사시대 마을유적의 조사, 연구는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마을유적들의 입지적인 조건은 한강유역 원삼국시대와 삼국시대 마을유적의 입지조건과 큰 차이가 없다. 즉, 대부분의 마을유적들이 하천변의 충적대지에 입지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으며, 특히 城洞里遺蹟은 永平川이 심하게 곡류하면서 형성된 활주사면의 충적대지상에 형성되어 있다(도면 70). 이와 유사한 입지적 조건에서 형성된 유적은 河南 漢沙里遺蹟(漢沙里先史遺蹟發掘調查團 1994)을 비롯하여 驪州 淵陽里遺蹟, 坡州 舟月里遺蹟 등으로 대체로 대규모의 마을유적이 형성되어 있다.

대개 하천변의 마을유적의 입지는 생업경제와 함께 방어의 역할이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國立中央博物館 1998, 188쪽), 城洞里遺蹟의 경우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활주사면의 충적대지에 위치한 마을유적들은 전방 감시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삼면을 둘러싸면서 흐르는 하천 수로가 自然核字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 방어물은 후대로 갈수록 적의 기습과 같은 긴급을 요할 때에만 유효할 뿐이지, 항구적이고 적극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좀 더 체계적인 방어 수단이 필요한데, 城洞里遺蹟의 북쪽 500m 지점에 위치한 城洞里山城은 바로 城洞里 마을遺蹟과 연계된 방어 수단으로 판단된다.

이번 城洞里 마을遺蹟의 발굴결과, 주거지 9기, 소형유구 45기, 溝狀遺構 1기 등이 확인·조사되었다. 그러나 조사된 유구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잔존상태가 좋지 않고 또한 유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적의 형성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출토유물이나 유구의 중복관계를 볼 때, 城洞里遺蹟은 동일 시기에 유적이 형성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먼저 유구간의 중복관계를 살펴보면, 2호 소형유구→3호 소형유구, 11호 소형유구→10호 소형유구, 16호 소형유구→2호 주거지, 4호 주거지→20호 소형유구, 6호 주거지→7호 주거지→26호·27호 소형유구→28호 소형유구, 34호 소형유구→9호 주거지→32호 소형유구→33호·35호·36호 소형유구, 37호 소형유구→39호 소형유구→40호 소형유구, 42호 소형유구→41호 소형유구 등이 확인되고 있다. 중복된 유구의 출토유물로 보면, 대부분은 漢城百濟時代



도면 70. 포천 성동리유적 3차원 지형도(▼:유적위치)

의 유구를 新羅時代의 유구가 파괴하고 만들어졌지만, 동일 시기 내에서의 유구간의 중복관계도 보이고 있다. 가령 9호 주거지→32호 소형유구와 같이 漢城百濟時代 유구간의 중복이나 11호 소형유구→10호 소형유구, 39호 소형유구→40호 소형유구 등의 新羅時代 유구간의 중복관계가 확인된다. 그러나 동일 시기 내에서의 주거지 간의 중복관계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 시기 내에서의 시기 세분은 불가능할 듯 싶다. 그리고 6호 주거지→7호 주거지→26호·27호 소형유구→28호 소형유구의 중복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原三國時代→漢城百濟→新羅→朝鮮의 順으로 遺構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비록 櫛文土器 관련 유구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城洞里遺蹟은 적어도 新石器時代 段階까지를 포함하면, 주민이 거

주하기 시작한 이후에 대략 5段階의 遺蹟 占有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1단계는 신석기시대 단계로 출토유물은 소량의 櫛文土器片뿐이다. 2호·3호 주거지, 2호·12호·16호·20호 소형유구와 文化層(Ⅲ層)에서 櫛文土器片이 출토되었는데, 대부분이 후대의 유구에 재퇴적된 것이며, 櫛文土器와 관련된 유구 및 문화층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양상 즉, 遺構의 흔적 없이 토기편만 채집되는 경우는 경기북부에서 많이 관찰되는데, 단기적인 유적 점유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후대의 경작과 같은 교란 행위로 유구 자체가 인멸된 것인지 분명치 않다.

2단계는 中島式無文土器와 타날문토기가 공반되는 原三國時代 段階이며, 城洞里遺蹟에서는 6호 주거지 1例만이 확인되고 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유적 주변에서 소량의 中島式無文土器片이 채집되는 것으로 미루어 유적 전반에 걸쳐 2단계의 유적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단계는 漢城百濟時代 段階이며, 1호·4호·7호·9호 주거지와 1호·2호·6호·7호·8호·23호·25호·29호·30호·31호·32호·45호 소형유구, 溝狀遺構 등이 이 단계에 속한다.

4단계는 新羅時代 段階이며, 3호·5호 주거지와 3호·9호·10호·11호·12호·13호·17호·18호·19호·20호·21호·22호·26호·27호·33호·35호·36호·39호·40호·41호·44호 소형유구 등이 여기에 속한다.

5단계는 朝鮮時代의 民墓로 추정되는 24호 소형유구와 28호 소형유구가 조영되는 단계이다. 이들 民墓들은 규모가 길이 1.2m~1.3m, 너비 0.6m~0.7m 가량으로 소형이며, 장축이 동남-북서 방향인 공통점이 있다. 또한 내부퇴적토는 인위적인 퇴적 양상을 보여주며, 내부에서 棺材로 생각되는 木質痕이 관찰되는 공통점이 있다.

기타 거의 바닥만 남은 상태로 조사되었거나, 출토유물이 섞여 있어 소속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2호와 8호 주거지는 거의 바닥만 남은 상태에서 유물이 뒤섞여 있어 소속을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4호·5호·14호·15호·37호·38호·42호·43호등 총 8基의 小形遺構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城洞里遺蹟은 3단계와 4단계의 주거지와 소형유구가 중심을 이루는 마을유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3단계와 4단계의 유구와 유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原三國時代 住居址로 분류된 6호 주거지는 출토유물상 3단계의 유적 군보다 약간 이른 시기로 판단된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城洞里遺蹟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 과정에서 永平川의 하류 쪽에서는 주로 百濟土器片이 채집된 반면, 상류 쪽에서는 新羅土器片이 채집되었다(도면 2 참조). 특히 조사 지역의 하류인 남쪽 50m 지점에 골재 채취로 깎여진 단애면상에서는 百濟土器片들이 출토되는 주거지 및 소형유구들이 집중 분포하고 있어, 동일 유적 내에서도 백제와 신라의 마을 중심의 위치는 서로 달랐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번 발굴조사 지점은 지표조사시 백제토기와 신라토기가 같이 채집되었는데, 실제 발굴조사에서도 백제 및 신

라의 유구가 함께 조사되었다.

현재 유구의 분포로 볼 때, 漢城百濟時代의 유구는 발굴지역 내에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지만, 新羅時代 유구는 주로 북쪽 즉 永平川의 상류 쪽에 집중 분포되어 있는 양상을 볼 수 있다(도면 71). 그리고 百濟時代 住居址인 1호·4호·7호·9호 주거지가 圓形狀으로 배치되어 있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배치는 河南 漢沙里遺蹟의 百濟時代 住居址에서도 보이고 있다. 가령 서울대 조사의 B-2호 주거지와 숭실대 조사의 B1호~B4호 주거지가 圓形狀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 내부에는 저장공과 고상식건물이 분포하고 있다(崔鍾澤 1994). 물론 성동리와 미사리유적은 일부만이 조사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주변 지역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러한 주거지 배치에 있어서의 정형성은 漢城百濟時代의 마을의 공간 구조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漢城百濟時代의 마을遺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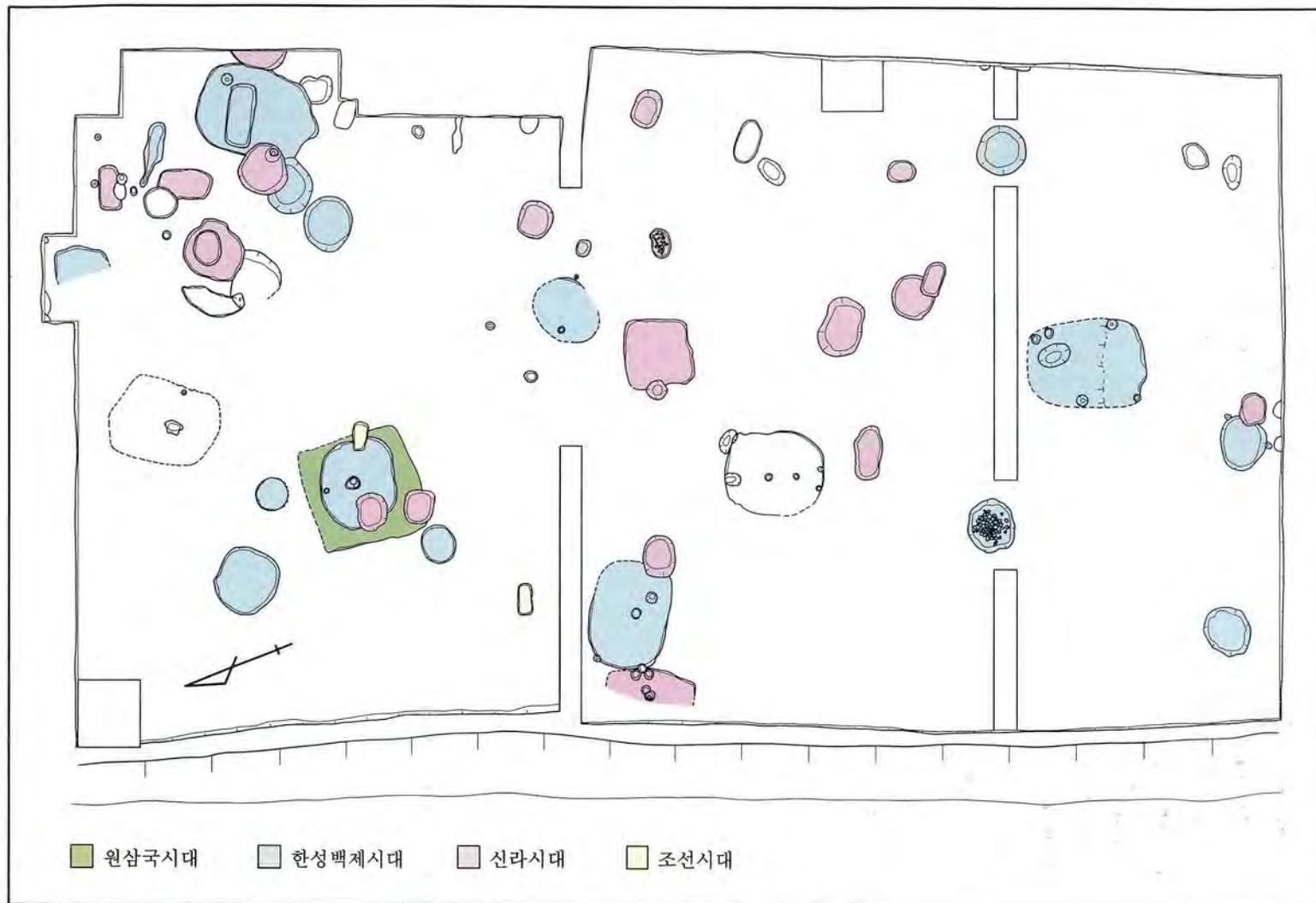
1) 遺構

이 시기에 해당되는 유구로는 4基의 住居址와 12基의 小形遺構, 기타 溝狀遺構 1基 등이 있다. 주거지(표 39)의 평면형태는 모두가 말각장방형에 가까운 타원형이며, 장축방향은 일정치 않으나, 1호·9호 주거지가 북동-남서 방향이고 4호·7호 주거지가 동남-북서 방향이다. 이들 주거지들은 대략적으로 10m~18.5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어 密集度가 다른 마을 유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9) 성동리유적 한성백제시대 주거지 명세표

| | 규모(cm) | | | 평면형태 | 내부시설 | 바닥처리 | 비 고 |
|--------|--------|--------|----|--------|-------|---------------|----------------------------------|
| | 길이 | 너비 | 깊이 | | | | |
| 1호 주거지 | 540(?) | 390(?) | 16 | 타원형(?) | 기둥 구멍 | 모래다짐 | 남동쪽 일부만 남음 |
| 4호 주거지 | 490(?) | 360 | 14 | 타원형 | 기둥 구멍 | 모래다짐 | 20호 소형유구와 중복 |
| 7호 주거지 | 390 | 340 | 20 | 타원형 | 기둥 구멍 | 모래다짐 | 27·28호 소형유구에 의해 파괴 |
| 9호 주거지 | 550 | 370 | 17 | 타원형 | 기둥 구멍 | 모래다짐 부뚜막시설 | 32·33·35~37호 소형유구에 의해 파괴, 출입구 시설 |

주거지의 규모는 길이 3.9m~5.5m, 너비 3.4m~3.9m 가량으로 소형에 속하며, 수혈의 깊이는 분명치는 않지만, 단애면에서 확인된 구지표면의 레벨을 감안하면, 적어도 60cm~65cm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지 바닥면은 특별한 처리를 한 흔적은 없지만, 생토층인 황색 모래를 다진 흔적이 관찰된다. 주로 주거지 중앙부는 비교적 단단하게 처리되어 있는데, 주거지의 사용과정에서 단단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주거지 축조시에 의도적으로 단단하게 처리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도면 71. 단계별 유구 분포도

주거지의 내부시설로는 기둥 구멍과 부뚜막 시설이 있다. 먼저 기둥 구멍은 각각의 주거지 내부에서 1개~5개 가량 조사되었지만, 그 위치에 있어서의 정형성은 보이지 않는다. 부뚜막 시설은 9호 주거지에서만이 확인되었다. 城洞里遺蹟과 같이 타원형 주거지에 부뚜막 시설이 설치된 주거지는 河南 漢沙里遺蹟과 龍仁 水枝遺蹟(李南珪 外 1998)이 있다. 이 가운데 고려대에서 조사한 미사리 타원형 주거지의 부뚜막 시설은 북동쪽 내지 북쪽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 城洞里遺蹟에서는 남동쪽에 설치되어 있다. 중부지방의 원삼국시대에서 漢城百濟時代에 걸친 주거지의 부뚜막 시설이 북쪽 내지 북동쪽에 설치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城洞里遺蹟의 부뚜막 시설은 다소 예외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기타 출입구 시설이 9호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다. 출입구 시설은 완만하게 경사를 이루면서 외부로 약간 돌출된 형태인데,

(표 40) 성동리유적 한성백제시대 소형유구 명세표

| | 규모(cm) | | | 평면 형태 | 출 토 유 물 | 비 고 |
|----------|--------|-----|----|----------|----------------|-------------|
| | 길이 | 너비 | 깊이 | | | |
| 1호 소형유구 | 212 | 200 | 55 | 원형 | 단경호 | |
| 2호 소형유구 | 248 | 216 | 60 | 원형 | 즐문토기편, 타날문토기편 | 내부퇴적토 내에 적석 |
| 6호 소형유구 | 156 | 96 | 25 | 타원형 | 타날문토기편 | 1호 주거지와 중복 |
| 7호 소형유구 | 212 | 210 | 56 | 원형 | 타날문토기편 | 내부퇴적토 내에 적석 |
| 8호 소형유구 | 220 | 196 | 19 | 원형 | 타날문토기편 | 바닥 중앙에 부서시설 |
| 23호 소형유구 | 330 | 260 | 7 | 타원형 | 타날문토기편, 주조철부편 | 바닥만 남음 |
| 25호 소형유구 | 172 | 160 | 20 | 원형 | 타날문토기편 | 인위적 퇴적 |
| 29호 소형유구 | 134 | 132 | 29 | 원형 | 타날문토기편 | 단면 주머니형 |
| 30호 소형유구 | 304 | 282 | 45 | 원형 | 심발형토기편, 타날문토기편 | 내부퇴적토 내에 적석 |
| 31호 소형유구 | 240 | 218 | 44 | 원형 | 타날문토기편 | |
| 32호 소형유구 | 260 | 220 | 21 | 타원형 | 타날문토기편 | 9호 주거지와 중복 |
| 45호 소형유구 | 250 | ? | 8 | ? | 타날문토기편, 철편 | 바닥만 남음 |

이와 같은 형태 및 규모의 출입구 시설은 미사리 송-B1호 주거지(林炳泰 外 1994)의 것과 유사하다.

주거지의 폐기 원인은 1호 주거지만이 화재에 의한 폐기로 판단된다. 그리고 나머지 주거지는 화재의 흔적이 없으며, 주거지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량이 소량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자연 이주인 것으로 생각된다.

漢城百濟時代 小形遺構(표 40)의 평면 형태는 원형이 가장 많으며, 6호·23호·32호 소형유구만이 타원형이다. 참고적으로 漢沙里遺蹟에서 조사된 소형유구의 평면형태는 대부분이 원형과 방형이며, 議政府 民樂洞의 경우에는 주류가 장방형이고 원형의 소형유구는 1기가 조

사되어 城洞里遺蹟의 소형유구와는 차이가 있다. 소형유구의 배치 형태를 보면, 대체로 3개의 무리로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할 자료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소형유구의 규모는 가장 큰 23호 및 30호 소형유구가 3m 내외이고 나머지는 모두 1.3m~2.6m 가량이다. 깊이는 삭토된 토사를 감안해도 1m를 넘은 것이 없다.

주거지 주변에서 조사된 소형유구의 성격에 대해서 저장유구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특히 몽촌토성에서 조사된 저장공 내에서는 많은 유물들이 출토된 반면, 미사리유적에서는 그다지 유물의 출토량이 많지 않아 어느 정도 습도 유지가 필요한 구근작물을 저장했던 시설로 파악하기도 한다(崔鍾澤 1994). 기타 저장시설 이외에도 洪水時에 범람으로 인한 효과적인 배수를 위해 도랑 시설과 연계하여 설치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林炳泰 外 1994).

城洞里遺蹟의 소형유구는 특별히 저장 시설로 볼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주거지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이 시기의 주거지들이 자연이주로 폐기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소형유구 내에서 소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던 사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출토유물을 통해서 소형유구의 성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소형유구의 성격과 관련하여 주목할 수 있는 자료는 2호·7호·30호 소형유구에서 관찰되는 내부퇴적토 내의 적석 시설이다. 토층 양상에서 볼 때, 적석 시설은 사용이 아닌 폐기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와 관련 있는지 분명치 않다. 한편, 7호 소형유구 상부 내부퇴적층에는 木炭層이 형성되어 있는데, 특히 두께 7cm 가량의 목탄이 출토된 점으로 미루어, 유구의 상부에는 지붕 시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기타 8호 소형유구는 바닥에 數石 施設이 있는 소형유구이다. 대개 이러한 소형유구는 야외 노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8호 소형유구 내부에서는 목탄이나 소토 등을 포함한 불을 맞은 흔적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2) 遺物과 編年的 位置

주거지 및 소형유구 내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이 토기이고, 철기는 극히 소량이 출토되었는데, 4호 주거지에서 주조철부편 2점, 철도자편 1점과 함께 용도미상의 철편이 출토되었으며, 9호 주거지에서 철도자 1점과 45호 소형유구에서 철편 1점이 출토되었다. 기타 토제품으로 4호 주거지에서 토제 구슬이, 9호 주거지에서 토제 방추차가 출토되었다.

토기는 주거지와 소형유구 내에서 비교적 소량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이 시기 주민들의 자연 이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거지의 대부분이 후대의 삭평으로 인하여 거의 바닥 부분만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교란으로 주거지 내부에 신라토기까지 뒤섞여 있기 때문

에 주거지 내부에서의 유물의 사용 맥락을 추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주거지의 조영 시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출토된 백제토기를 중심으로 편년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주거지 및 소형유구에서 출토된 백제토기의 기종 구성을 살펴보면, 심발형토기, (장)란형토기가 주 기종을 이루며, 기타 직구호, 완, 시루가 극히 소량 출토되었다. 대부분의 토기가 완형이 없고, 전부 깨진 채로 출토되었기 때문에 전체 기종 구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앞서 열거한 기종과 더불어 壺類의 기종만이 포함될 수 있을 뿐, 타 기종은 보이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기종 구성은 이천 효양산 유적(湖巖美術館 1995)에서 출토된 토기의 기종 구성과 유사하다.

먼저 심발형토기는 4호·9호 주거지와 30호 소형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신라의 27호 소형유구 내에 끌려 들어간 것으로 생각되는 심발형토기 구연부편 1점이 있다. 대체로 암갈색 내지 흑갈색의 색조를 띠며,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동체부 전면에는 승문을 타날한 후 횡선을 돌리거나(9호 주거지, 27호 소형유구), 격자문을 타날하였다(4호 주거지, 30호 소형유구).

(장)란형토기는 7호·9호 주거지와 溝狀遺構에서 출토되었으며, 기타 끌려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는 장란형토기편이 20호 소형유구에서도 출토되었다. 대체로 황갈색 내지 회색의 연질로서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으며, 동체부에는 승문을 타날하였는데, 일부 토기에는 횡선을 돌렸다. 그리고 동체부 하단부터 저부에 이르는 器面에는 격자문을 타날하였다. 심발형토기와 함께 자비용기로 사용되었는데, 실제 溝狀遺構에서 출토된 장란형토기의 내면에는 유기물이 탄화된 흔적이 잘 남아 있다.

직구호는 1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는데, 회색의 연질 소성이며, 무문양이다. 이러한 직구호는 비록 구연단의 처리 수법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原三國時代의 6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바 있으며, 이의 동일 개체로 생각되는 구연부편이 7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짧은 4호 주거지에서 1점 출토되었다. 물론 출토된 토기 구연부 가운데 완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전체적인 기형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4호 주거지 출토품뿐이다. 흑갈색의 색조를 띤 산화 소성으로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태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크기, 외반 형태 및 구연단의 처리수법은 襄陽 柯坪里 1호 주거지(白弘基 1984) 바다 출토품과 유사하다.

시루는 9호 주거지에서 2점이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한 점은 사립이 많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으며, 황갈색의 색조를 띤 연질 소성이다. 원저 바닥 중앙부에 뚫은 원형 구멍을 중심으로 주변으로 돌아가면서 곡선화된 삼각형의 구멍을 뚫었다. 동체부와 저부 전면에는 승문을 타날하였는데, 동체부에는 횡선을 돌린 반면, 저부에는 승문을 교차타날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시루는 加平 馬場里遺蹟(韓永熙 1982)에서 출토된 바 있다. 나머지 한 점은 바다의 일부만 남은 상태이지만, 원저에 0.8cm 내외의 작은 구멍을 많이 뚫은 多孔이 특징이다. 이러한 시루는 原三國時代 전 기간에 걸쳐 사용된 일반적인 형태로 春川 中島(李健茂 外 1980), 橫城 屯內(元永煥·崔福奎 1984; 白弘基·池賢柄 1997), 襄陽 柯坪里에서 출토된 바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동리의 漢城百濟時代 유적은 주거지와 소형유구의 특징이나 출토유물로 볼 때, 양양 가평리, 가평 마장리, 여주 연양리, 이천 효양산, 하남 미사리유적과 시기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城洞里에서 조사된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타원형으로 이는 漢沙里 A地區의 서울대와 고려대 조사구역에서 조사된 바 있다. 비록 漢沙里遺蹟의 주거지와는 달리 城洞里의 주거지는 말각장방형에 가까운 장타원형의 평면 형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평면 구조는 타원형 계통이며, 전체적인 토기 기종 구성 상에도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타원형 주거지는 한성백제의 등장과 함께 출현하여, 원삼국시대의 呂자형 내지 凸자형 주거지가 변화 발전된 육각형 주거지⁴⁾와 공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미사리 A지구에서 타원형 주거지와 함께 육각형 주거지인 고려대-033호 주거지(윤세영·이홍중 1994)가 조사되었으며, 龍仁 水枝遺蹟에서도 타원형 주거지와 함께 육각형주거지가 공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토기 기종 구성을 중심으로 漢沙里遺蹟 A地區의 타원형 주거지와 비교하면, 城洞里遺蹟이 약간은 이른 시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漢沙里遺蹟에서는 한성백제의 전형적인 생활용기인 심발형토기, 장란형토기 이외에도 새로이 高杯, 뚜껑, 短頸廣口小壺 등의 일부 동춘유형(朴淳發 1992)의 토기들이 보이고 있는 반면, 城洞里遺蹟에서는 이러한 토기들이 출토되지 않았다. 오히려 4호 주거지에서는 中島式無文土器 1점이 출토되고 있어 원삼국시대의 종말기로 생각되기도 한다. 특히 城洞里遺蹟에서 출토된 시루와 넓은 한성백제보다는 原三國時代 후기의 유적인 加平 馬場里와 襄陽 柯坪里遺蹟에서 출토된 것에 보다 가깝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中島式無文土器가 소멸 단계인 점, 그리고 심발형토기와 장란

4) 原三國時代의 장방형주거지에서 漢城百濟時代의 육각형주거지로의 변화는 상부 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부 구조의 변화는 주거지의 평면형태에 반영되어 있는데, 原三國時代 前期에는 주거지 출입구시설에 의한 벽면이 곡선화하거나, 둔각상 꺾인 형태로 변하고, 中期에는 출입구시설 반대편의 벽면도 곡선화하는 변화를 보이다가, 後期 무렵에는 둔각상 꺾인 형태로 변화하면서 육각형주거지와 유사한 형태가 된다. 그러나 후기의 육각형주거지는 평면형태상 과도기적인 형태의 주거지로 양쪽 측벽인 동, 서벽이 남, 북벽보다 긴 특징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양상은 백제 초기의 주거지인 용인 수지 I-2호, 파주 주월리 96-7호 주거지, 미사리 고-033호 주거지 단계를 거쳐 점차 동, 서벽의 길이가 줄어들면서 동춘토성, 의정부 민락동유적, 미사리 B지구의 전형적인 육각형 주거지로 발전하게 된다(宋滿榮 1999).

형토기가 자비용기로서 정착된 점을 고려하면, 여주 연양리유적, 이천 효양산유적보다 약간 늦고 하남 미사리 A지구 백제시대 주거지보다 이른 시기인 3세기 중반 무렵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토기의 기종 구성상에서는 원삼국시대 종말기로 이해되지만, 새로운 평면형태의 주거지가 채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잠정적으로 漢城百濟時代의 마을유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3. 新羅時代의 마을遺蹟

1) 遺構

신라토기가 출토되는 유구로는 2기의 주거지와 함께 21기의 소형유구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5호 주거지가 남동 모서리 일부만 조사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면형태 및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잔존상태로만 보았을 때, 말각방형의 평면형태이고, 한 변의 길이가 3m 가량인 소형에 속한다. 이러한 특징은 大邱 時至洞 마을유적(國立文化財研究所 1996)의 수혈주거지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時至洞 2호, 3호 주거지가 그 예이다. 주거지의 장축 방향은 동-서 방향에 가까우며, 住居址 間的 간격은 12.5m로 漢城百濟時代의 주거지 밀집도와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 내부 바닥은 대체로 생토인 황색 모래를 다져서 사용하였다. 기타 주거지의 내부시설로는 3호 주거지에서 부뚜막으로 추정되는 시설물이 확인되었으며, 5호 주거지에서는 기둥 구멍이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폐기 원인은 화재에 의한 것은 없으나, 5호 주거지와 같이 내부 바닥에 토기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긴급한 상황에서의 폐기 행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소형유구의 평면 형태는 말각장방형 7기, 타원형 6기, 원형 5기 순이며, 기타 말각방형 1기, 부정형 2기 등이다. 이러한 평면 형태에 있어서의 분포 상황은 漢城百濟時代의 소형유구가 타원형 내지 원형인 점과 차이가 있다. 규모는 3m를 넘은 것이 없으며, 1m~2m 내외의 것들이 많다. 그리고 소형유구의 평면형태와 규모와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깊이는 漢城百濟時代의 소형유구보다는 깊은 것이 더 많으나, 깊이가 얇은 것도 다수 존재한다.

특정적인 것으로는 소형유구의 용도와 관련하여 12호, 17호, 21호, 27호, 40호 소형유구에서 동물이빨 내지 동물뼈들이 출토되었다는 것이다. 유존 상태가 좋지 않지만, 형태로 보아서는 17호 소형유구에서는 멧돼지의 송곳니가, 27호 소형유구에서는 소의 어금니로 추정되는 동물이빨이 출토되었으며, 40호 소형유구에서는 새뼈가 출토되었다. 이와 같이 동물뼈가 출토되는 소형유구는 평면형태 및 유구의 규모에 있어 정형성이 관찰되지 않으며, 밀집되어 분포되어 있지도 않다. 현재로서는 동물뼈들이 출토되는 소형유구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적어도 이들 동물뼈들이 나중에 끌려들어간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표 41) 성동리유적 신라시대 소형유구 명세표

| | 규 모(cm) | | | 평면 형태 | 출 토 유 물 | 비 고 |
|----------|---------|-----|----|----------|----------------------------------|------------------|
| | 길이 | 너비 | 깊이 | | | |
| 3호 소형유구 | 134 | 114 | 14 | 말각장방형 | 회청색 경질토기 구연부편 | 2호 소형유구 파괴 |
| 9호 소형유구 | 132 | 92 | 20 | 타원형 | 완 | |
| 10호 소형유구 | 164 | 100 | 28 | 말각장방형 | | 11호 소형유구 파괴 |
| 11호 소형유구 | 206 | - | 39 | 원형 | 완, 철축 | |
| 12호 소형유구 | 270 | 190 | 80 | 말각장방형 | 완, 대부완, 동이, 고배, 外反口緣甕, 철검, 주조철부편 | 내부퇴적토 내에 적석, 동물뼈 |
| 13호 소형유구 | 244 | 130 | 56 | 부정형 | | 내부퇴적토 내에 적석 |
| 17호 소형유구 | 160 | 120 | 51 | 말각장방형 | 완, 대부완, 고배, 철검 | 동물이빨 |
| 18호 소형유구 | 120 | 84 | 29 | 타원형 | 완, 동이, 철축 | 바닥면에 강자갈 깔림 |
| 19호 소형유구 | 86 | - | 38 | 원형 | 회청색 경질토기편 | 3호 주거지와 중복 |
| 20호 소형유구 | 176 | 150 | 76 | 타원형 | 완, 外反口緣甕, 철축 | 4호 주거지 파괴 |
| 21호 소형유구 | 166 | 148 | 63 | 원형 | 완, 시루 | 동물뼈 |
| 22호 소형유구 | 76 | 66 | 34 | 타원형 | 外反口緣甕 | |
| 26호 소형유구 | 150 | 134 | 50 | 말각방형 | 완, 뚜껑 | 6호 주거지와 중복 |
| 27호 소형유구 | 184 | 150 | 96 | 타원형 | 완, 기대 | 7호 주거지 파괴, 동물이빨 |
| 33호 소형유구 | 212 | 206 | 26 | 원형 | 완 | 9호 주거지 파괴 |
| 35호 소형유구 | - | - | 76 | 원형 | 대부완, 고배, 시루 | 9호 주거지 파괴, 1/2조사 |
| 36호 소형유구 | 280 | 114 | 38 | 장방형 | 완 | 9호 주거지 파괴 |
| 39호 소형유구 | 280 | 260 | 23 | 부정형 | 고배 | 37호 소형유구 파괴 |
| 40호 소형유구 | 190 | 140 | 30 | 타원형 | 단경호 | 39호 소형유구 파괴 |
| 41호 소형유구 | 230 | 140 | 28 | 말각장방형 | 완, 동이, 뚜껑 | 42호 소형유구에 의해 파괴 |
| 44호 소형유구 | 192 | 100 | 26 | 말각장방형 | 완, 소칼 | 43호 소형유구에 의해 파괴 |

한강유역에서 조사된 유적 가운데 이 무렵의 동물뼈가 二聖山城 내부 저수지에서 출토된 바 있다. 약 200여점 이상이 출토되었는데, 동물뼈의 분석 결과, 소, 개, 돼지, 말 등과 같은 짐승이동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기타 사슴, 자라, 새, 곰, 사람의 뼈가 출토되었다고 한다(배기동 1991; 1992). 도살된 동물의 공통성으로 볼 때, 城洞里遺蹟에서 출토된 동물뼈들은 식료원으로 조리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 遺物과 編年的 位置

新羅時代 주거지 및 소형유구에서 출토된 유물량은 유구수에 비하면 많지 않은 편이다. 이는 漢城百濟時代 마을의 소멸 원인과 마찬가지로 新羅時代 마을도 자연이주로 소멸되었기 때

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나마 유물이 완전하게 출토된 경우로 5호 주거지가 있지만, 이 역시 유구의 대부분이 잘려져 나간 상태이다. 이와 같이 빈약한 유물 이외에도 생활유적이라는 성격 때문에 新羅時代 마을의 편년적 위치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유물, 특히 토기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시기에 따른 형식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실생활용기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유구에서 출토된 신라토기의 기종은 罍, 外反口緣甕, 高杯, 뚜껑, 호, 동이, 장동용, 대부분 완, 시루, 기대 등으로 다양하지 못한 편이다. 이 외에도 좀 더 다른 기종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출토된 토기의 대다수가 파편이기 때문에 기종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기종을 파악할 수 있는 토기 가운데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것이 罍이다. 대체로 회백색 내지 황갈색의 색조를 띠며, 연질 소성이다. 구연부가 축약을 이루며 급격하게 외반되거나, 완만하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점토질 태토로 만들기도 하지만, 모래가 섞인 사질성 점토를 사용하기도 한다. 일부의 罍 바닥에는 5호 주거지, 17호 소형유구의 출토품과 같이, 얇은 승문을 타날하기도 한다. 이러한 罍 기종은 古墳의 매장품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주로 생활유적에서 사용되던 배식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外反口緣甕은 罍과 함께 실생활용기로 사용되던 기종으로, 특히 5호 주거지에서 4점의 外反口緣甕이 출토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한다. 기타 3호 주거지와 12호·20호·22호 소형유구에서 출토되었다. 대체로 석립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기도 하지만, 정선된 점토로 만들기도 한다. 색조는 적갈색 내지 암갈색 등 주로 갈색 계통이며, 연질 소성이다. 도면 16-①과 같은 5호 주거지 출토 外反口緣甕은 전체적인 기형 내지 소성 상태로 보았을 때, 中島式無文土器와 흡사하다. 그러나 동체부 상부에 얇은 승문을 타날한 점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外反口緣甕은 대체로 古墳 내지 山城에서는 흔히 보이는 기종은 아니며, 大邱 時至洞과 같은 마을유적에서 보이고 있다. 가령 時至洞遺蹟 1호유물(國立文化財研究所 1996) 출토 外反口緣甕이 그것이다.

고배는 5호 주거지, 12호·17호·35호 소형유구에서 모두 10점이 출토되었지만, 전체적인 기형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남아 있는 상태로 보았을 때, 5호 주거지 출토품이 유개식 고배인데, 배신이 얇은 것이 특징이다. 이외의 대부분의 고배는 대각만이 남은 것인데, 대각이 짧고, 각단을 바깥쪽으로 둥글게 말았다. 기타 12호 소형유구 출토 고배 가운데에는 0.5cm 내외의 작은 원형의 투창이 뚫린 것이 2점 있는데, 이와 같이 원형의 작은 투창이 뚫린 고배는 中原 樓岩里 古墳群(車勇杰 外 1993)에서 출토된 바 있다.

토기 뚜껑은 5호 주거지, 26호·41호 소형유구에서 5점이 출토되었으며, 기타 지표채집품이 1점 있다. 이 가운데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5호 주거지 출토품뿐으로, 폭이 넓은

굽모양의 꼭지가 달려 있으며, 구연단은 극히 짧게 直下되었다. 지표채집된 뚜껑(도면 67-①) 역시 굽모양의 꼭지가 달려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구연부 일부만 남아 있다.

동이는 5호 주거지와 12호·18호·41호 소형유구에서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 대체로 회색 연질 소성이며,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 및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이 가운데 전체 형태를 알 수 있는 것은 12호 소형유구 출토품 1점뿐이다. 구연부는 수평상 외반되거나 축약되어 급격하게 외반되고, 외면 전체에 얇은 승문을 타날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동이로는 陝川 苧浦里 E地區 8-2號墳(釜山大學校博物館 1987) 출토품이 있다.

장동옹은 2점이 출토되었다. 적갈색의 연질 소성으로 5호 주거지 내부퇴적층과 지표채집품 1점이 있다. 동 최대복경은 중상위에 있으며 저부는 원저이다. 동체부 전면에는 얇은 승문을 타날하였으며, 저부에는 얇은 승문을 교차 타날하였다.

시루는 35호 소형유구에서 2개체분이 출토되었다. 바닥면은 결실되었지만, 이와 유사한 형태의 시루가 大邱 時至洞 4호燒土部(國立文化財研究所 1996)에서 출토되었다. 전체적으로 얇은 승문을 타날한 점, 그리고 상면이 깊게 파여진 손잡이가 부착되고, 여기에 횡선이 돌아간 점은 공통적이지만, 時至洞 출토의 시루는 圓低로 추정되고 있어 차이가 있다. 또한 慶山林堂 D-II-215호墳(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8) 副槨에서 출토된 시루는 평저에 多孔이지만, 전체적으로 長胴인 점이 차이가 있다. 기타 壺, 대부완, 기대 등의 기종은 전체 기형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드물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위와 같이 城洞里遺蹟에서 출토된 신라토기들은 대부분이 생활용기인 점, 그리고 완형이 거의 없는 점, 등으로 해서 편년적 위치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문헌기록에 나타난 신라의 한강유역으로의 진출 시기를 감안하면, 6세기 중반이 상한연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즉 新羅 眞興王 14年(553)에 한강 하류지역을 점령하여 여기에 新州를 설치하였으며, 그 이후 556년과 568년에 각각 北漢山州와 南川州를 설치하면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는 고고학 자료가 한강 하류의 석촌동, 방이동, 가락동고분군과 남한강변의 양평 단석리고분군, 여주 매룡리고분군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경기북부지역의 坡州 城東里古墳群에서도 신라토기가 출토되고 있다(崔秉鉉 1997). 이들 古墳群들은 대체로 6세기 중반에서 7세기 후반까지 편년되고 있는데, 城洞里 마을유적은 출토된 고배의 특징으로 보았을 때, 중심연대는 6세기 후반인 것으로 판단되며, 하한연대는 7세기 이후로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전체 城洞里遺蹟에서 극히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면 조사가 이루어지면 보다 명확한 編年案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된다.

VI. 맺음말

抱川 城洞里遺蹟은 한성백제의 성립 과정을 밝힐 수 있는 마을유적일 뿐만 아니라, 한강유역 이북에서 처음으로 조사된 신라의 마을유적이란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번 긴급발굴조사에서는 원삼국시대에서 漢城百濟時代에 이르는 마을유적과 新羅時代의 마을유적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주거지 9기와 소형유구 45기, 溝狀遺構 1기 등을 발굴조사하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가 성동리 전체 유적 가운데 1% 미만에 걸친 부분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유적 전체의 규모 및 성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城洞里遺蹟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는 마을유적과 관련된 생산유적, 무덤유적 등과 더불어 관방유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선적으로 城洞里山城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를 보고서 말미에 수록하였다.

漢城百濟時代 유구는 주거지 4기, 소형유구 12기, 溝狀遺構 1기 등 모두 17기가 조사되었다. 이들 주거지 및 소형유구에서 출토된 유물은 동촌유형의 토기가 출현하기 이전 단계의 기종 구성을 보이며,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인 점으로 미루어 한성백제가 등장하기 시점의 마을유적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로 볼 때, 한성백제의 출현과 관련된 고고학자료들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개념 설정이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城洞里遺蹟을 漢城百濟時代의 마을유적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新羅時代 유구는 주거지 2기, 소형유구 21기 등 총 23기가 조사되었다. 지금까지 한강유역을 포함한 중부지방에서 신라의 古墳 내지 山城은 조사된 적은 있었지만, 마을유적이 조사된 일은 없었다. 이와 같이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 시기의 마을유적이 경기북부지방에서 조사되었다는 사실은 신라의 영토전쟁 과정에서 사민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되었던 사실을 입증하는, 의미있는 고고학자료라 생각된다. 당시 경기북부지방과 한강유역에 얼마나 많은 신라인들이 사민되었는지, 그리고 사민의 대상이 주로 어떠한 신분층으로 구성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확장된 영토 내에 군사, 행정 조직 외에 人戶를 移住케 함으로써 점령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신라 주거지의 규모가 소형인 점, 그리고 화재주거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내부에 토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영구적인 목적의 마을유적으로 보기에는

5) 가락동·방이동 석실분의 주인공이 古墳의 구조나 출토유물로 보았을 때, 신라 중심지역의 인물이기보다는 주변 지역의 인물, 즉 伽倻系의 지방귀족이며, 신라의 한강유역으로의 진출 이후, 이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은 지방귀족에게 의존했던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임영진 1995)가 있어 城洞里遺蹟 신라토기의 계통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요망된다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경기북부에 진출한 신라의 마을유적이 언제든지 고구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라의 마을유적이 永平川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점도 결국 한시적인 방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城洞里 마을遺蹟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와 아울러 보존 노력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城洞里遺蹟은 현재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유적의 극단적인 파괴행위는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최근에 골재 채취로 인한 유적 파괴가 심각할 정도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상황은 비단 城洞里遺蹟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永平川 유역 전체 유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永平川 유역이 구석기유적의 寶庫일 뿐만 아니라, 청동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를 거쳐 삼국시대에 이르는 대규모 마을유적이 밀집 분포하고 있는 지역임을 고려하면, 永平川 유역 내의 문화유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國立文化財研究所 1996, 『大邱時至洞 I』-옥수국민학교 부지-
- 國立中央博物館 1998, 『驪州 淵陽里遺蹟』
- 김규상 1998, 「坡州 舟月里遺蹟 發掘調査」 『3~5세기 금강유역의 고고학』, 제22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 金秉模 外 1995, 『영송리 선사유적』, 한양대학교 박물관
- 漢沙里先史遺蹟發掘調査團 1994, 『漢沙里』1권~5권
- 박경식 외 1998, 「포천군의 역사 유적」 『포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단국대학교 사학과
- 朴淳發 1992, 「백제토기의 형성과정-한강유역을 중심으로-」 『백제연구』23집
- 배기동 1991, 「동물뼈 분석」 『二聖山城』3차발굴조사보고서, 한양대학교
- 배기동 1992, 「동물뼈에 대한 1차분석」 『二聖山城』4차발굴조사보고서, 한양대학교
- 白弘基 1984, 『襄陽郡柯坪里住居址發掘調査報告(I)』, 강릉대학박물관
- 白弘基·池賢柄 1997, 『橫城 屯內 住居址』, 江陵大博物館
- 釜山大學校博物館 1987, 『陝川 苧浦里E地區遺蹟』
- 宋滿榮 1999, 「中部地方 原三國 文化의 編年的 基礎」 『韓國考古學報』41집
- 윤세영·이홍중 1994, 『漢沙里』第5卷, 고려대발굴조사단
- 元永煥·崔福奎 1984, 『屯內』, 江原大博物館
- 李健茂 外 1980, 『中島』I, 國立中央博物館
- 李南珪 外 1998, 『龍仁 水枝 百濟 住居址』, 한신대학교박물관
- 이선복 1989, 『동북아시아 구석기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林炳泰 外 1994, 『漢沙里』第3卷, 숭실대학교박물관
- 林永珍 1995, 『百濟漢城時代古墳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車勇杰 1993, 『中原 樓岩里 古墳群』, 충북대학교박물관
- 崔夢龍 外 1986, 『議政府 民樂洞遺蹟』, 서울대학교박물관
- 崔秉鉉 1997, 「서울 江南地方 石室墳의 性格」 『崇實史學』第10輯
- 崔鍾澤 1994, 「漢沙里遺蹟의 住居樣相과 變遷」 『마을의 考古學』, 제18회 한국고고학전국대

회 발표요지

抱川郡 1997, 『抱川郡誌』上, 下

하문식 1993, 「포천 중리 선사유적」 『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 경기도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8, 『慶山 林堂遺蹟(V)』D-II地區 古墳群

韓永熙 1982, 「馬場里住居址出土遺物」 『中島 III』, 國立中央博物館

한창균 외 1998, 「포천군의 선사 유적」 『포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단국대학교 사학과

湖巖美術館 1995, 『利川 孝養山遺蹟 발굴조사 보고서』

여 백



①



②

사진 1. 포천 성동리유적 전경(①:원경, ②:근경)



①



②

사진 2. 조사전 전경(①)과 교란지역 조사 시굴갱(②)



①



②

사진 3. 골재 채취 지역(①)과 단애면에 노출된 유구 전경(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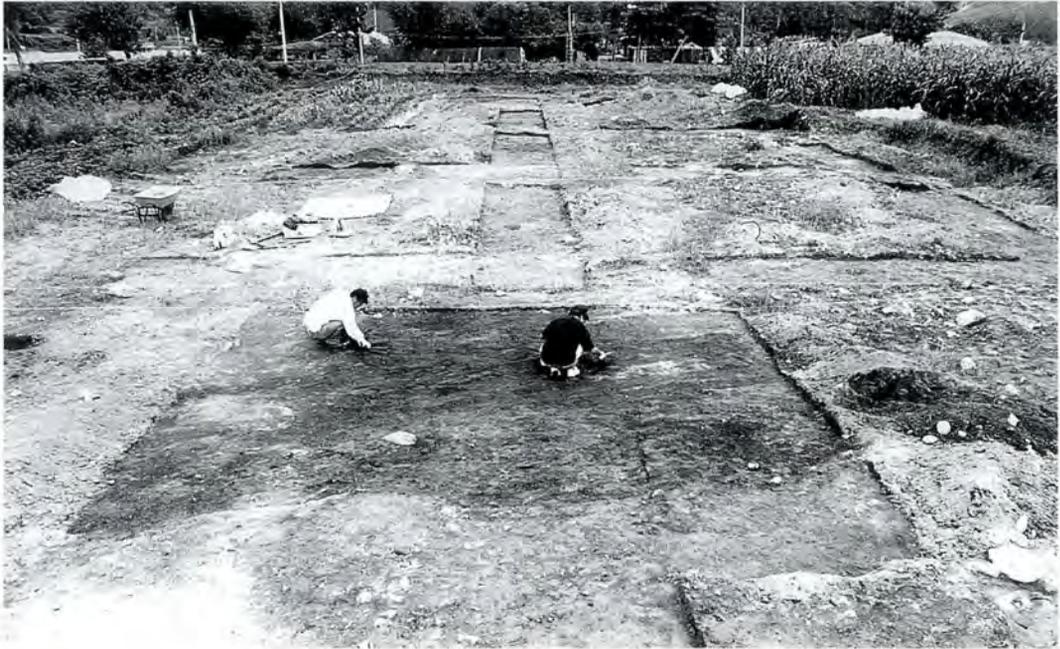


①



②

사진 4. 포천 성동리유적 층위 전경



①



②



③

사진 5. 조사 과정(①:유구확인작업, ②:조사후 복토작업, ③:복토후)



①



②

사진 6. 조사후 전경(①:1호~3호 주거지 주변, ②:2호, 4호, 5호 주거지 주변)



①



②

사진 7. 조사후 전경(①:6호~8호 주거지 주변, ②:9호 주거지 주변)



①



②

사진 8. 1호 주거지 전경(①: 조사후, ②:내부 층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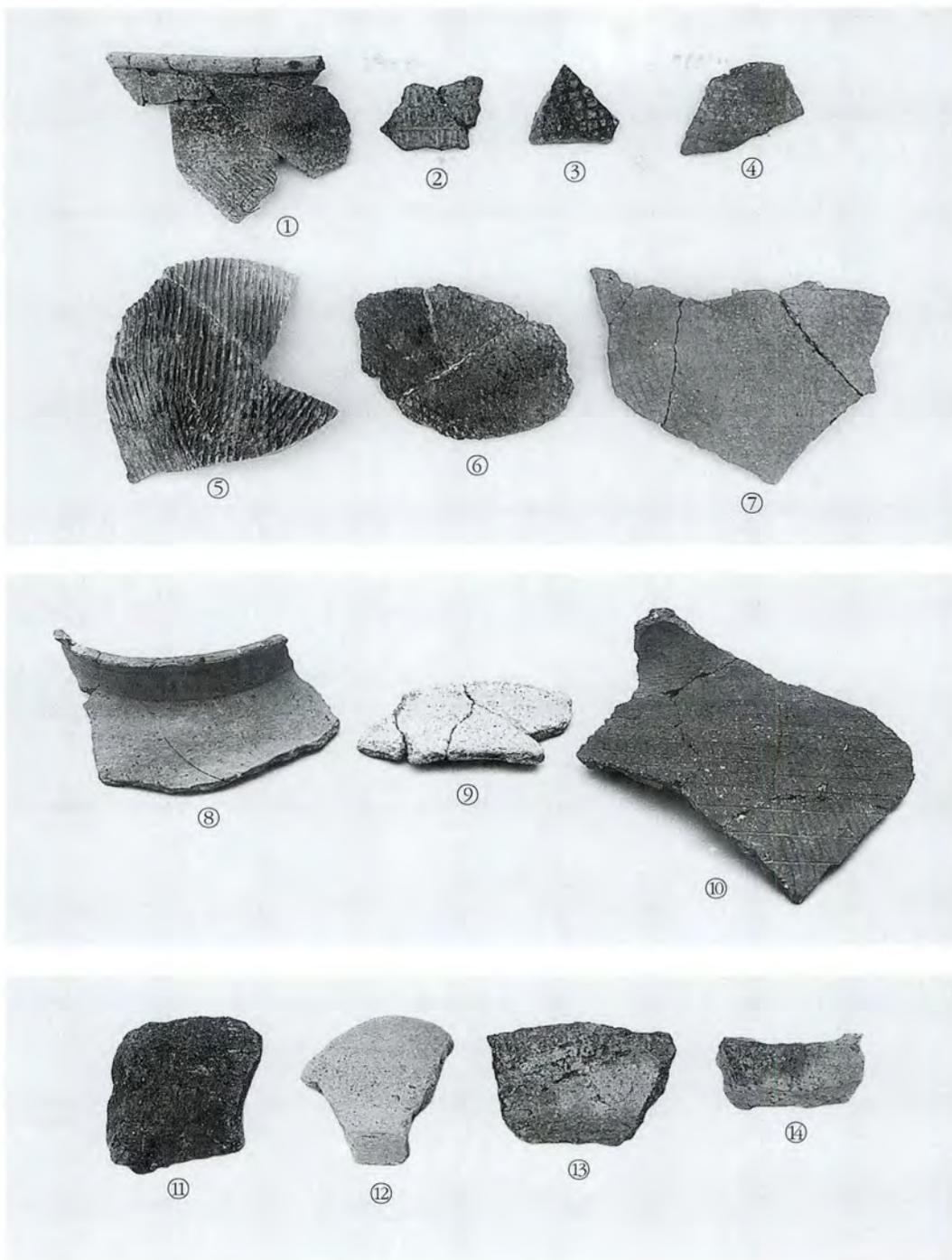


사진 9. 1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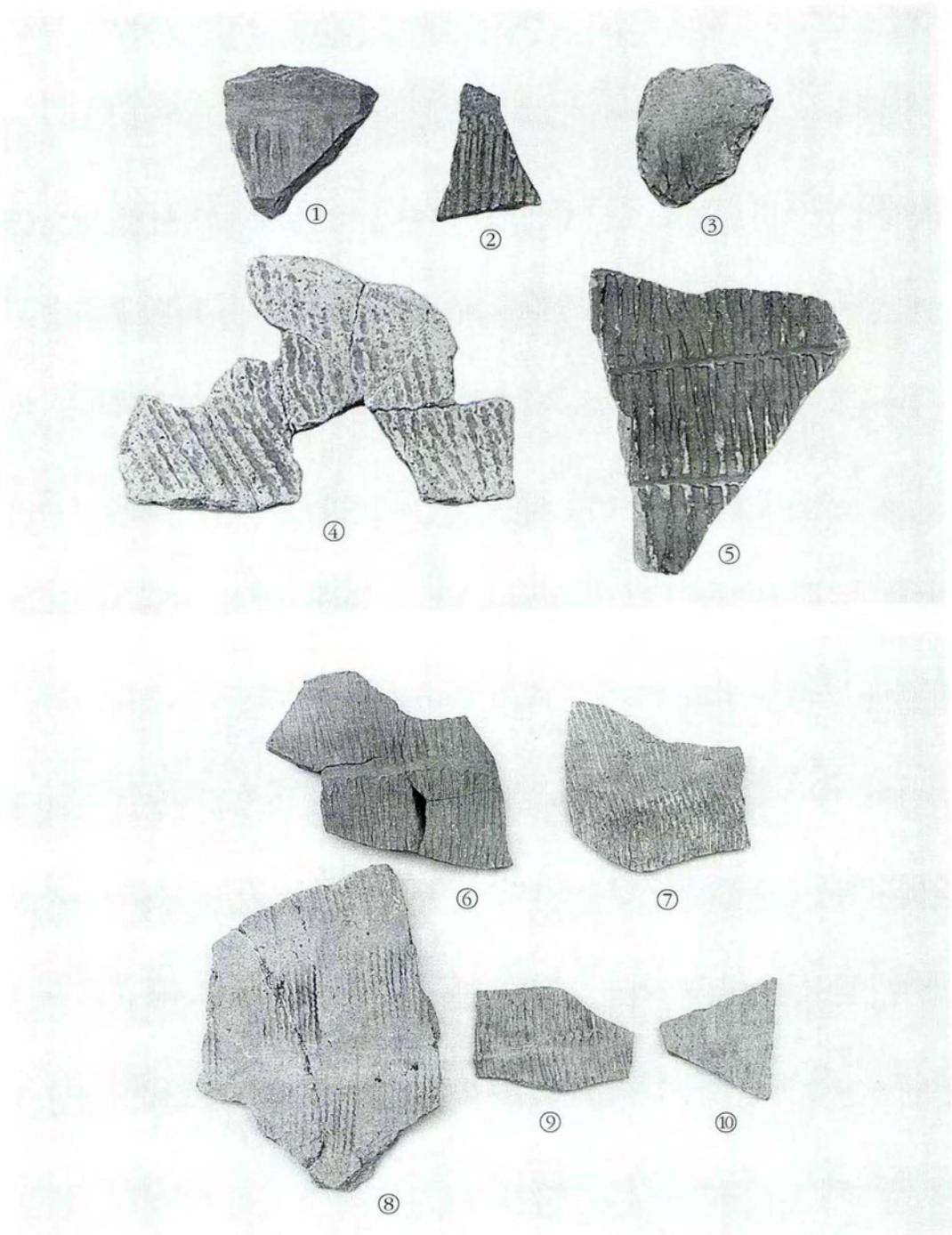


사진 10. 1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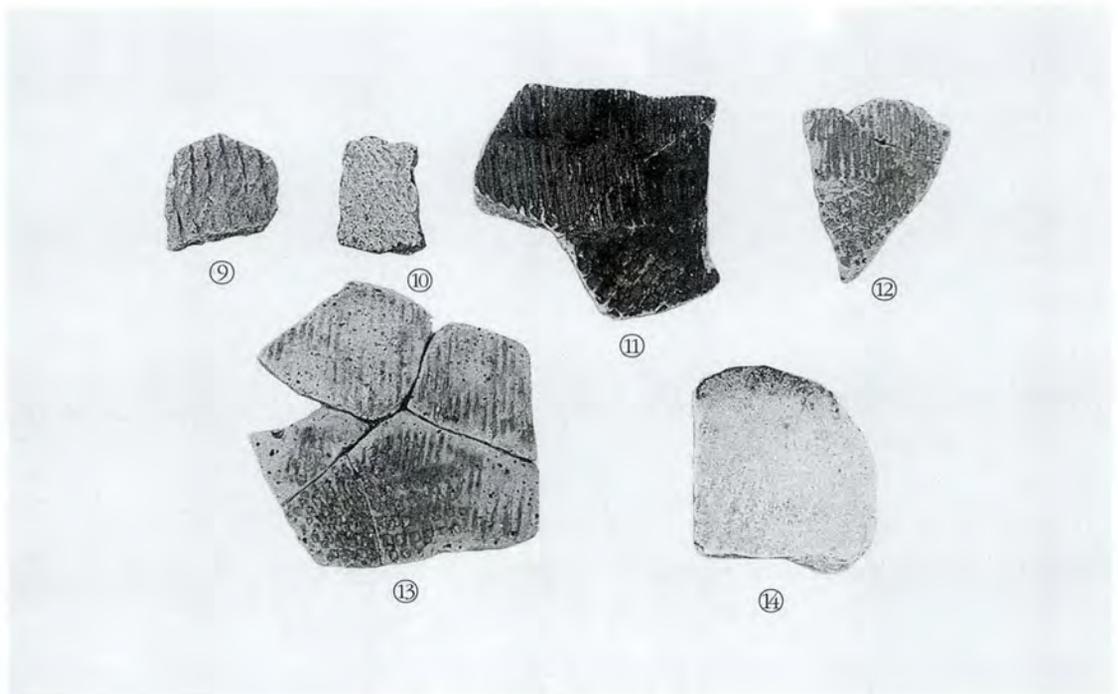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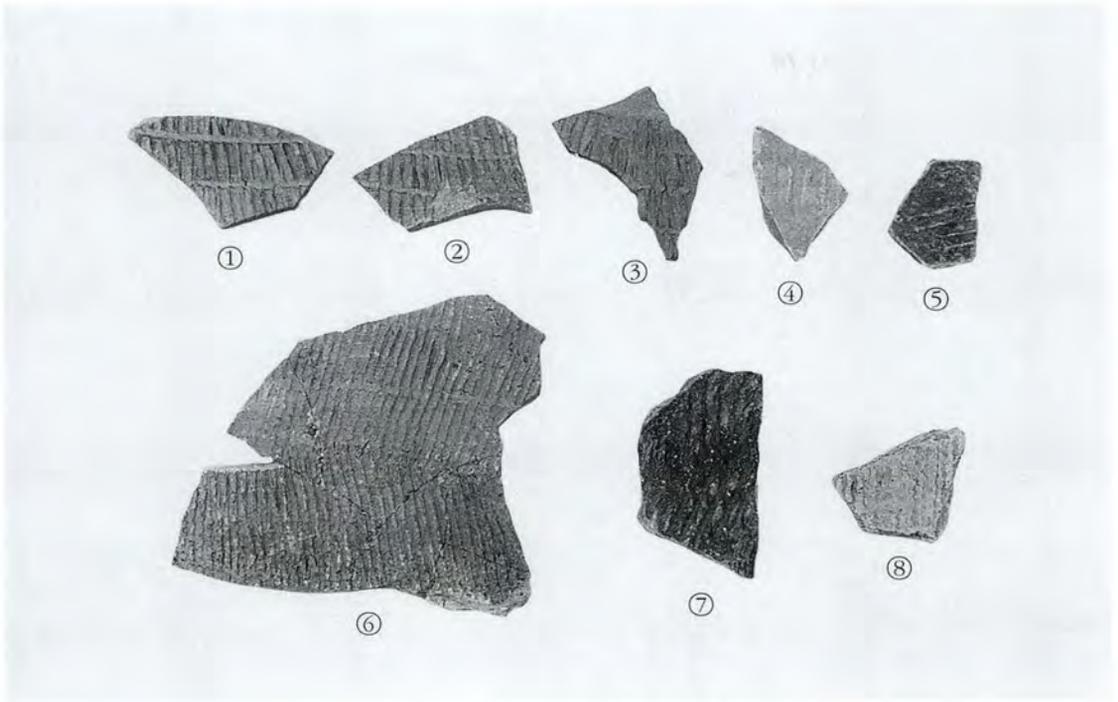


사진 11. 1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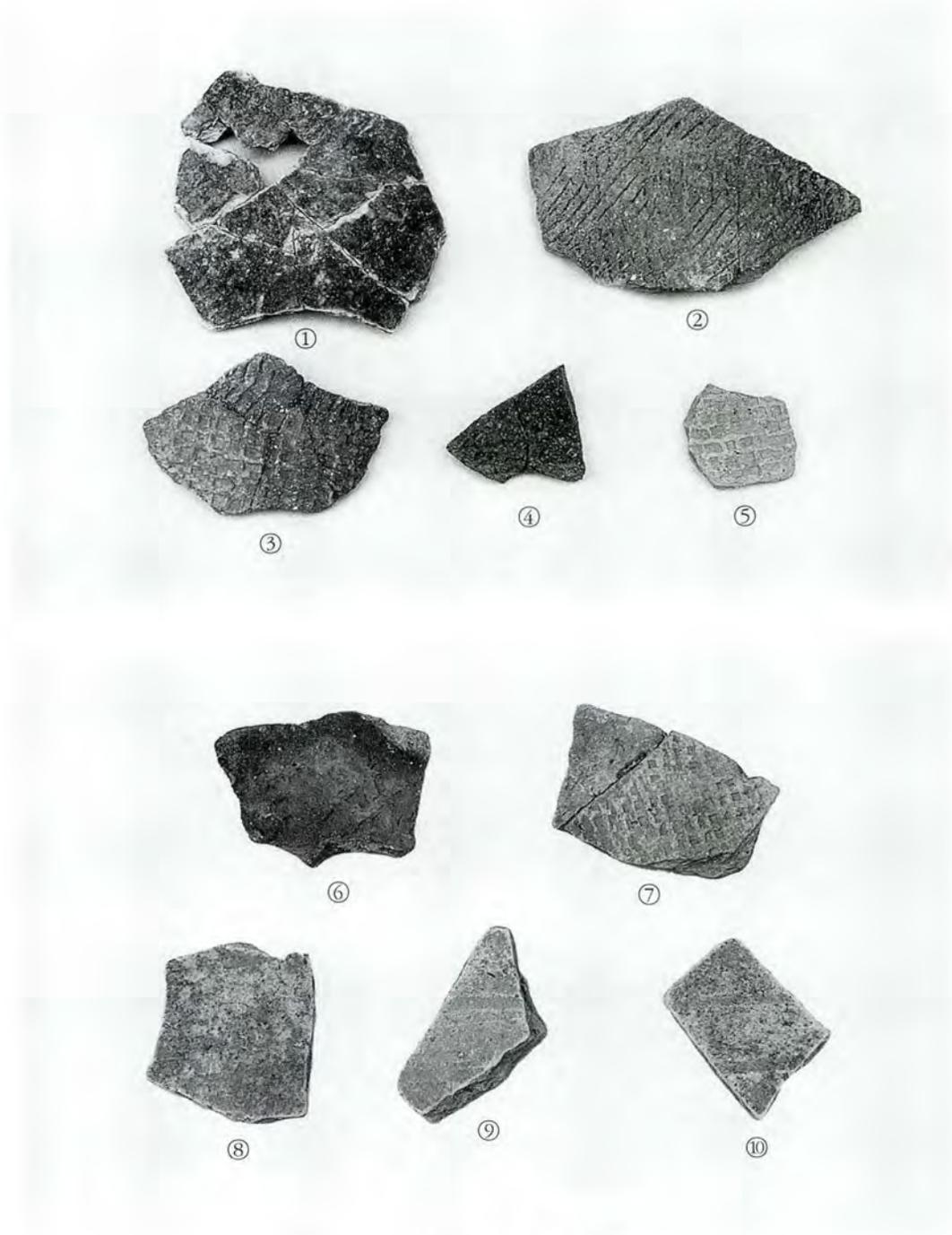


사진 12. 1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⑩)



①



②

사진 13. 2호 주거지 전경(①:조사후, ②:온돌시설 노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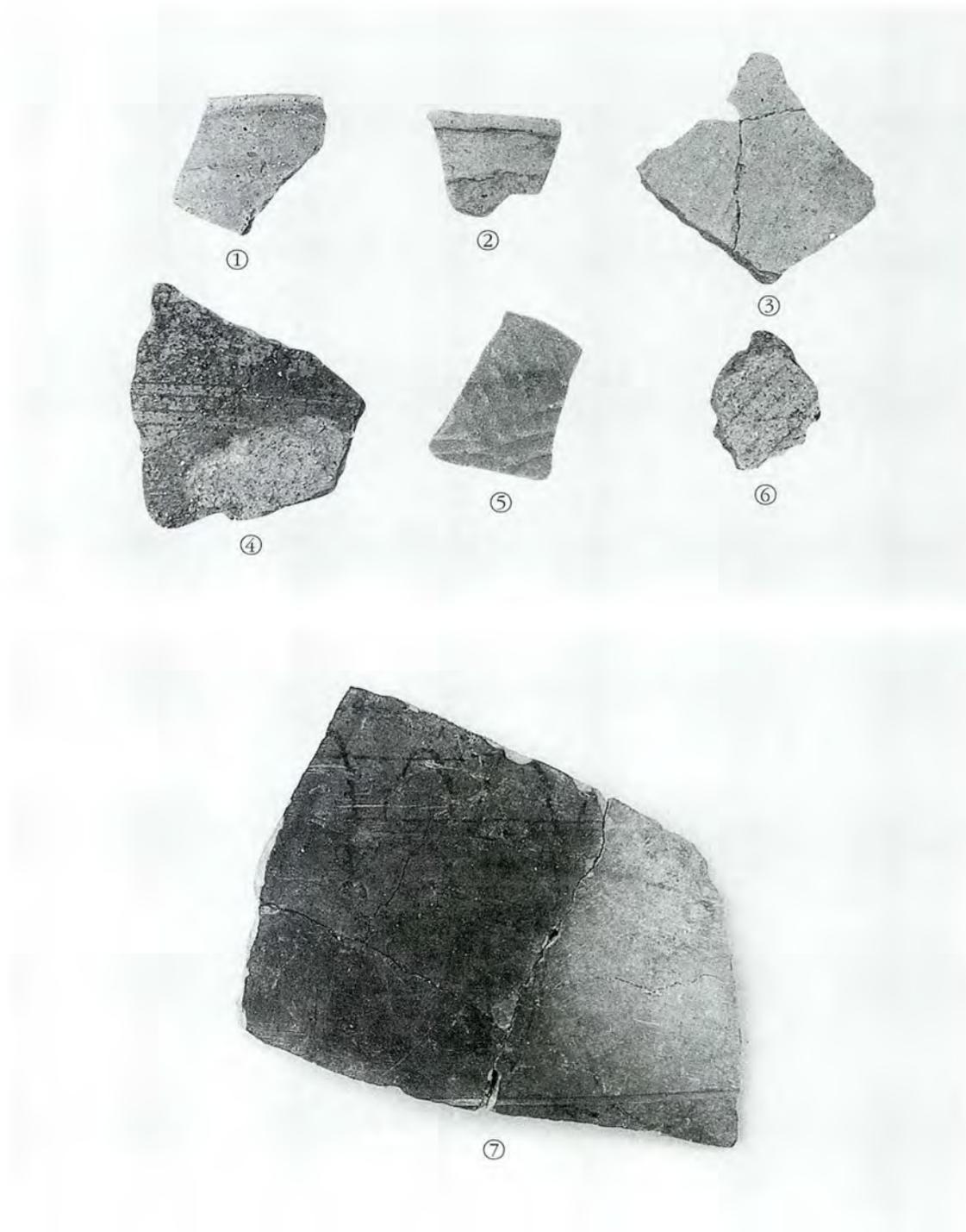


사진 14. 2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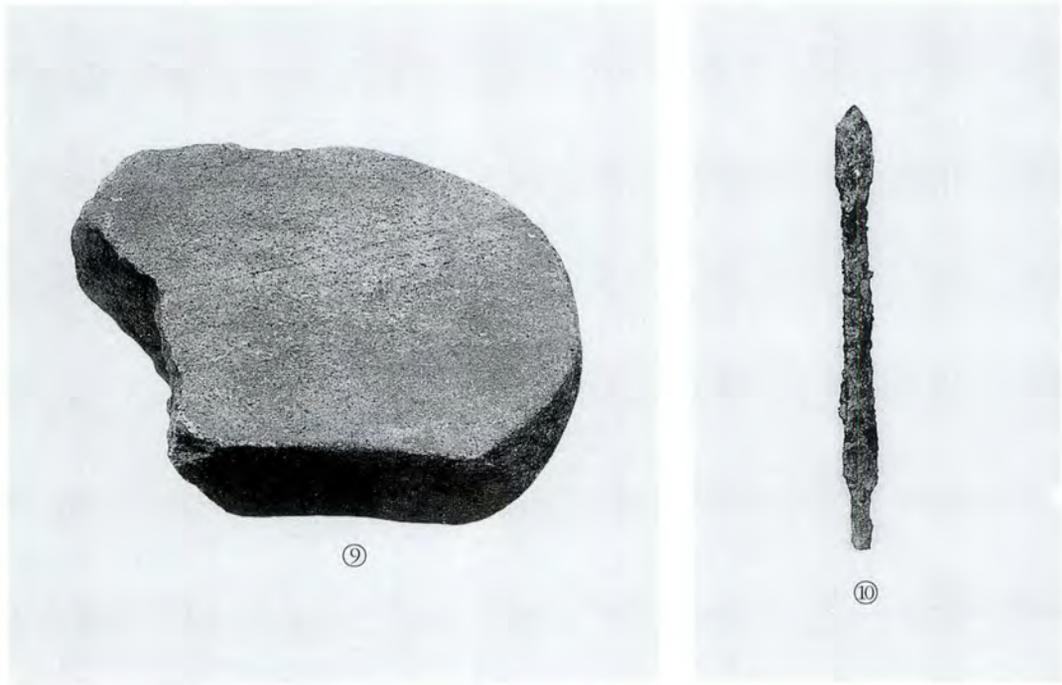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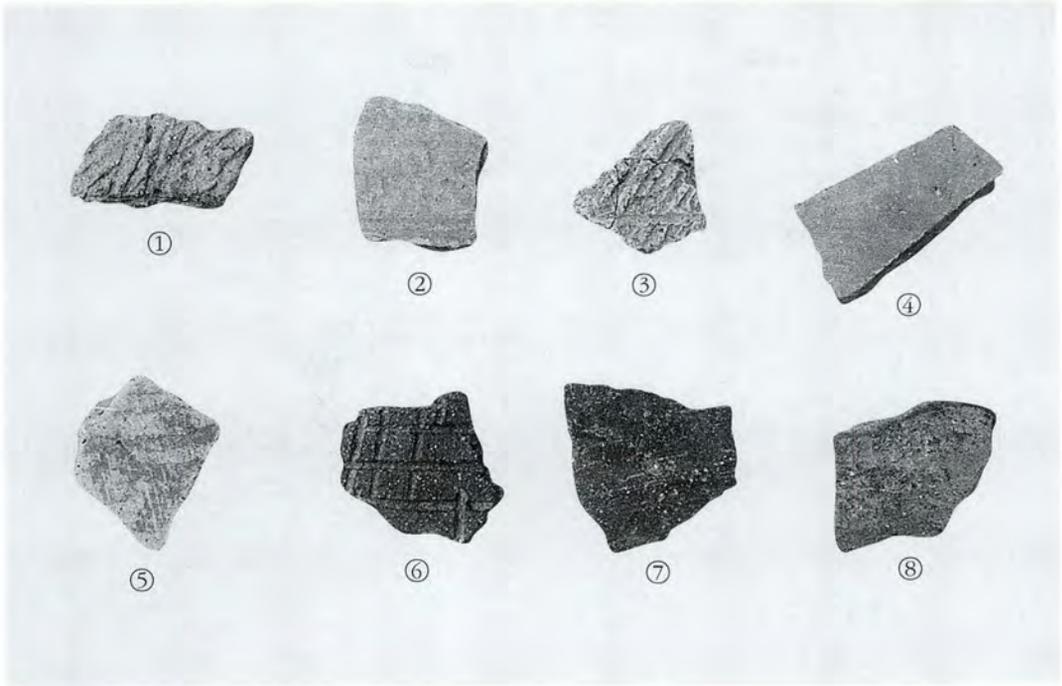


사진 15. 2호 주거지 출토 유물(①~⑩)



①



②



③

사진 16. 3호 주거지 전경(①:조사후, ②:19호 소형유구 중복 상태, ③:부뚜막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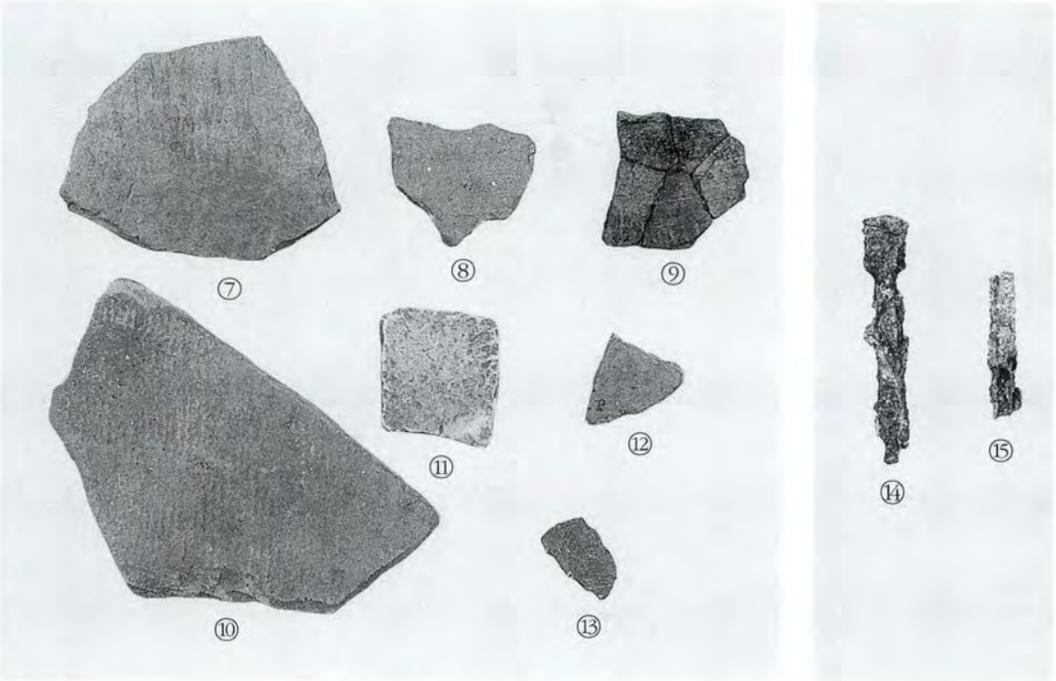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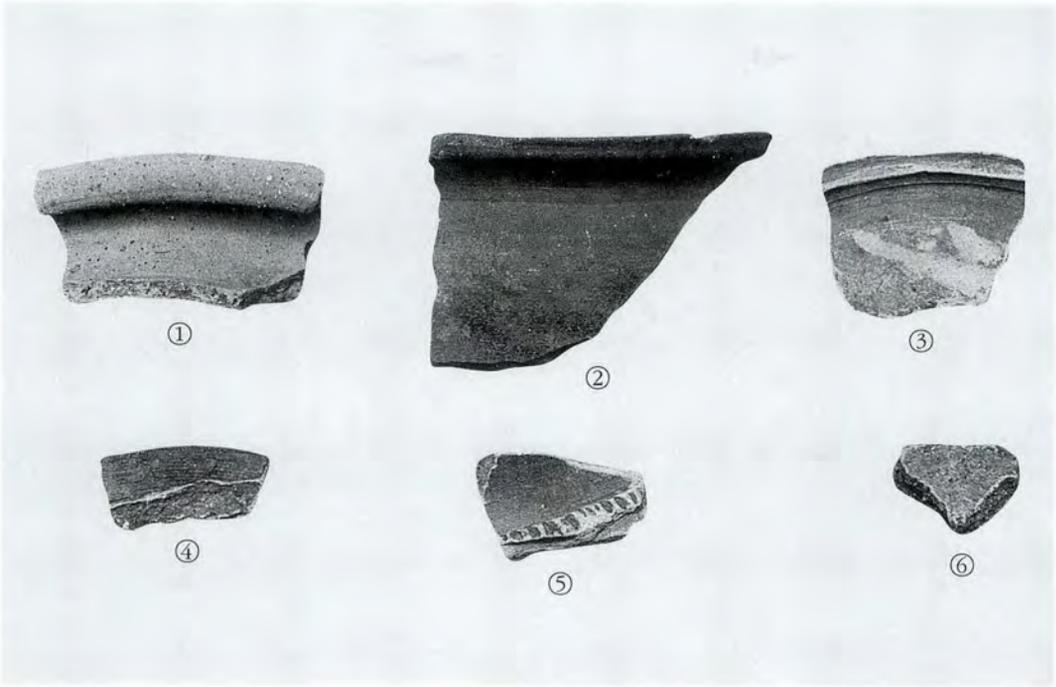


사진 17. 3호 주거지 출토 유물(①~⑮)



①



②



③

사진 18. 4호 주거지 전경(①:조사후, ②·③:토기 출토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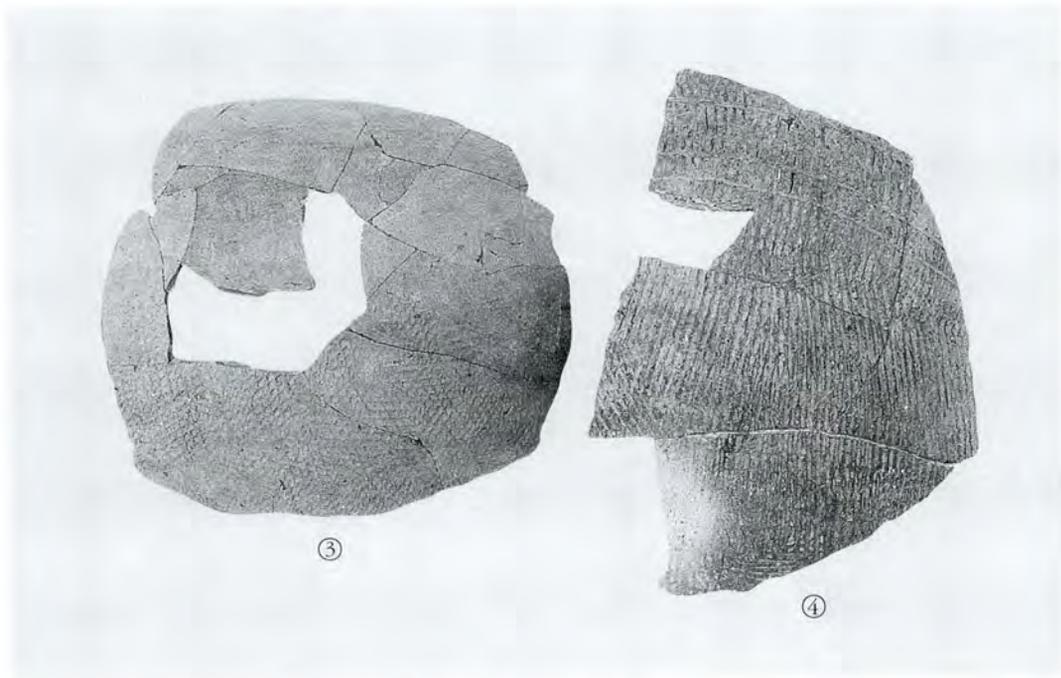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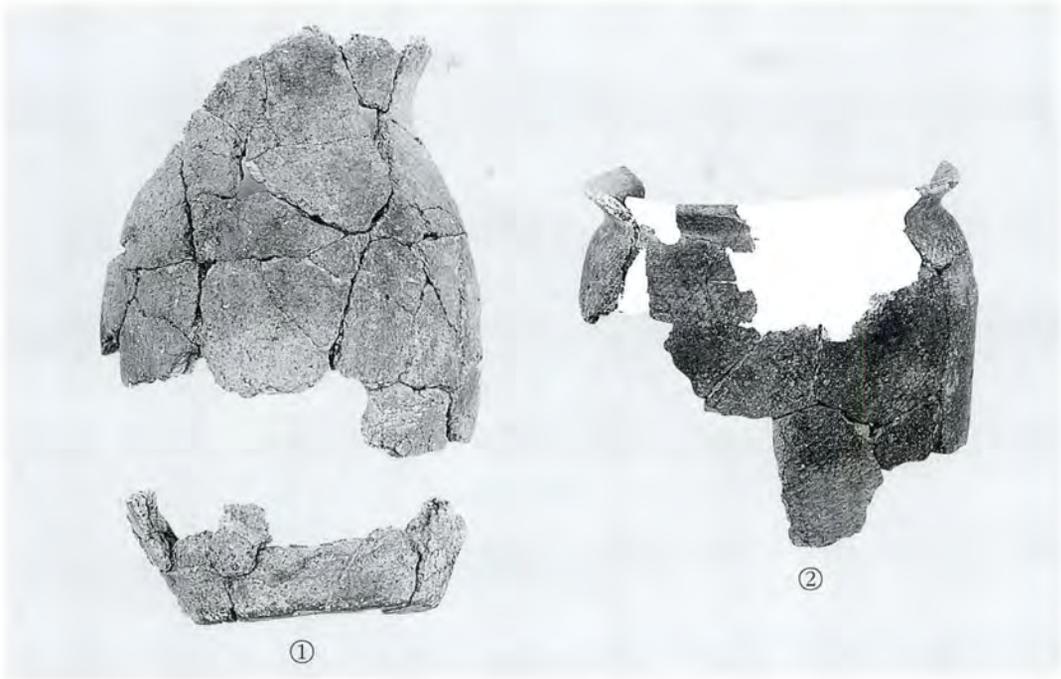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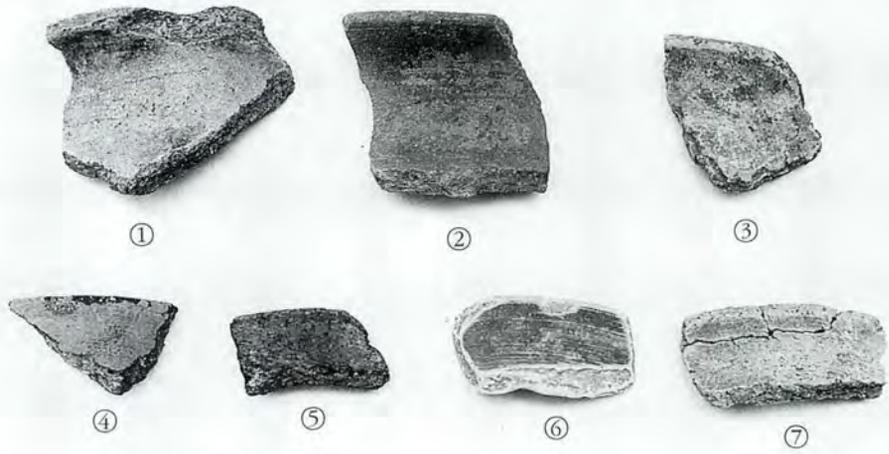


사진 19. 4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④)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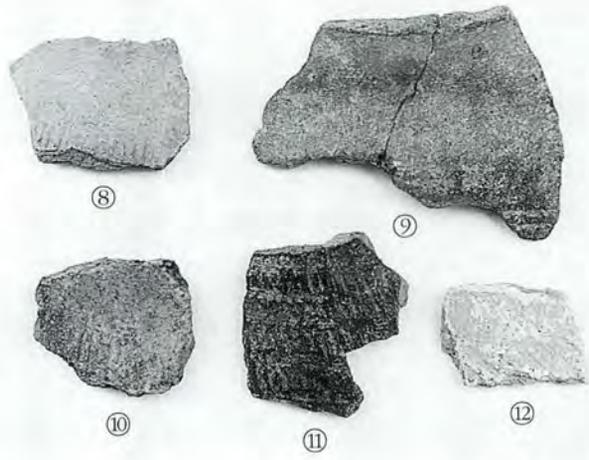
③

④

⑤

⑥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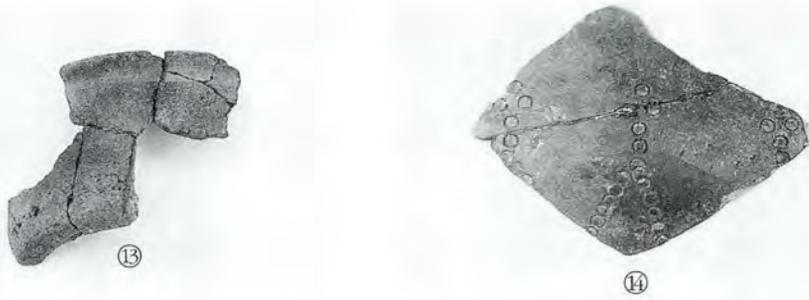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사진 20. 4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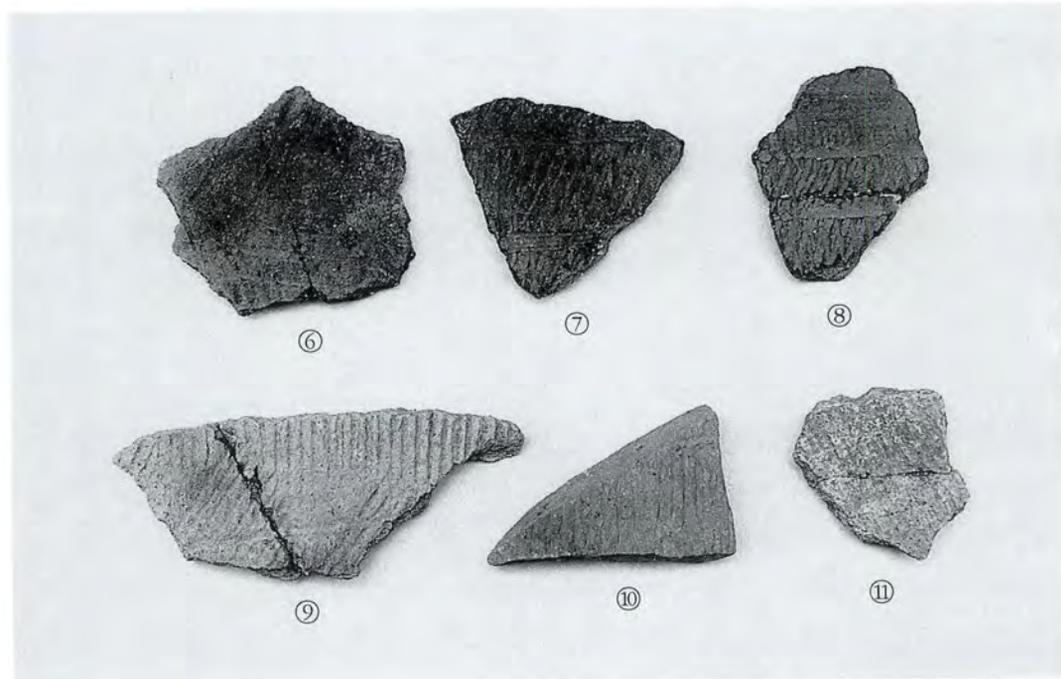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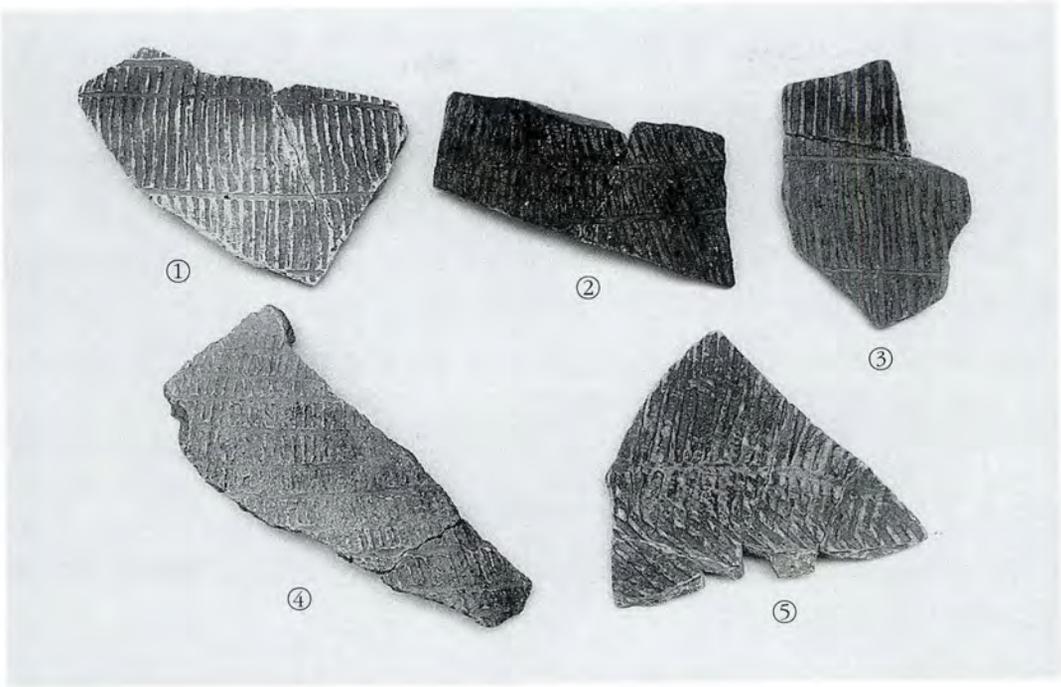


사진 21. 4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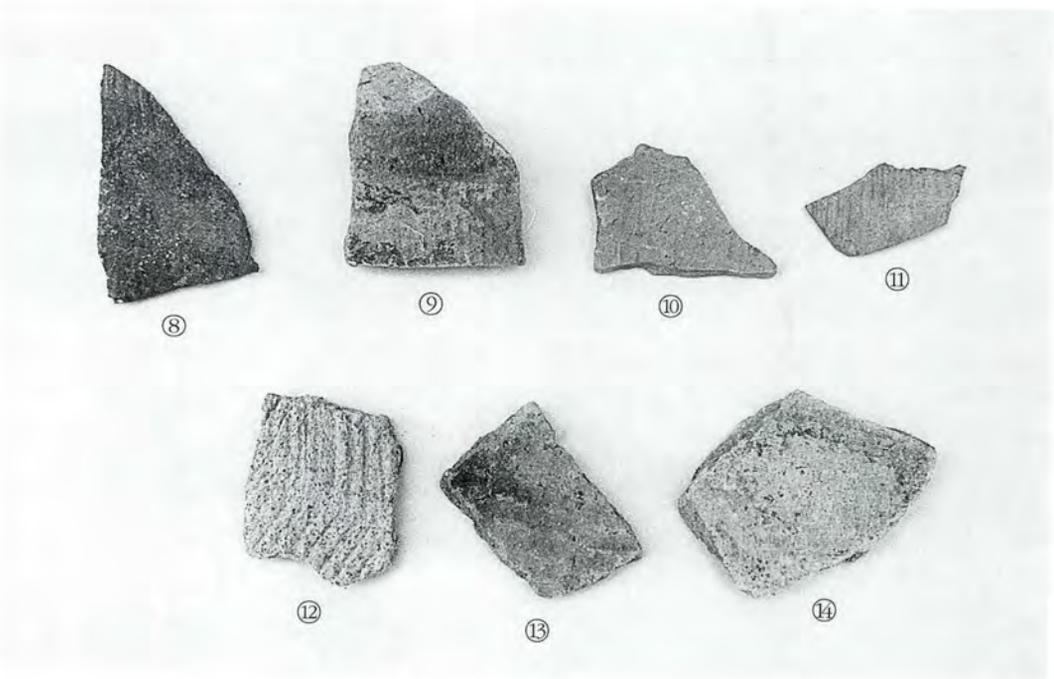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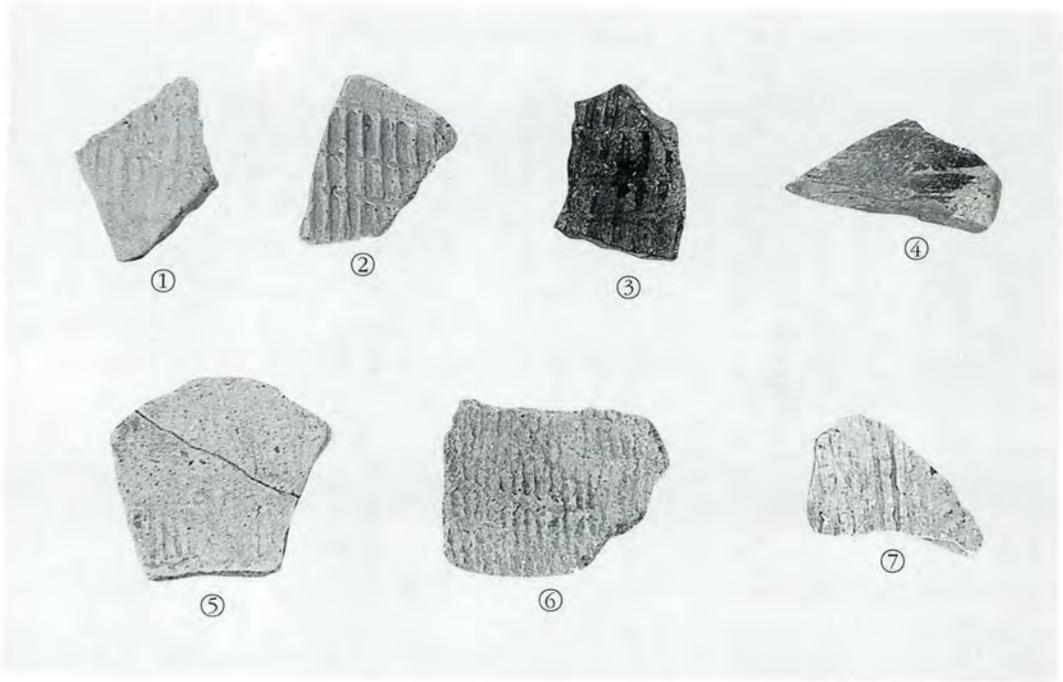


사진 22. 4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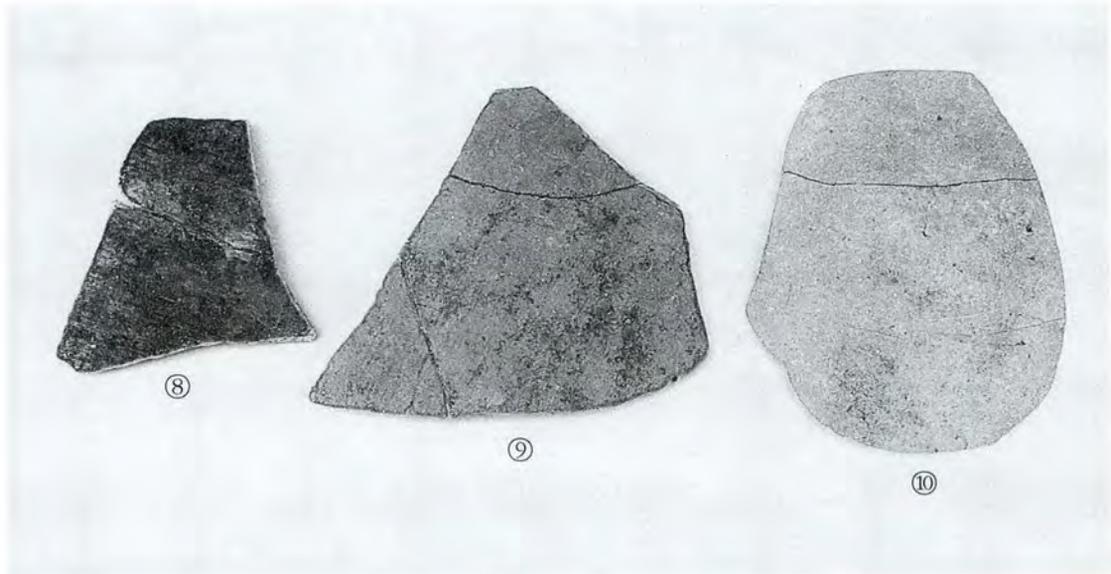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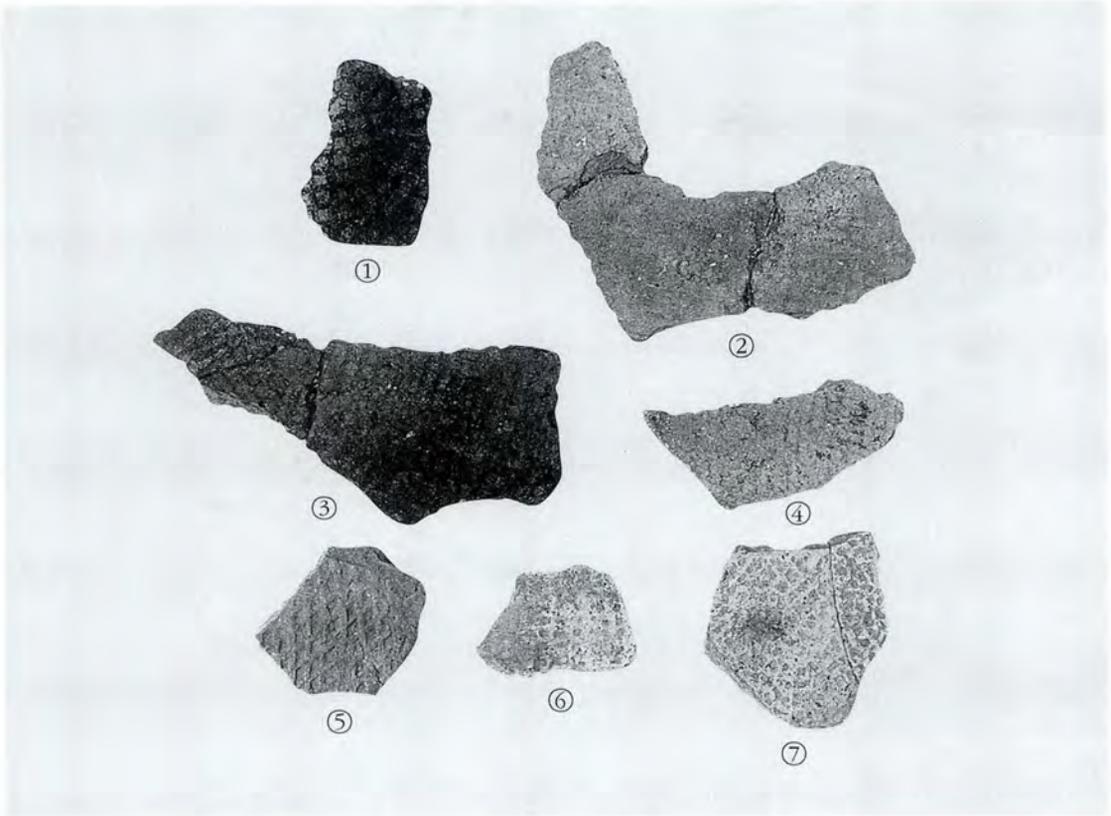


사진 23. 4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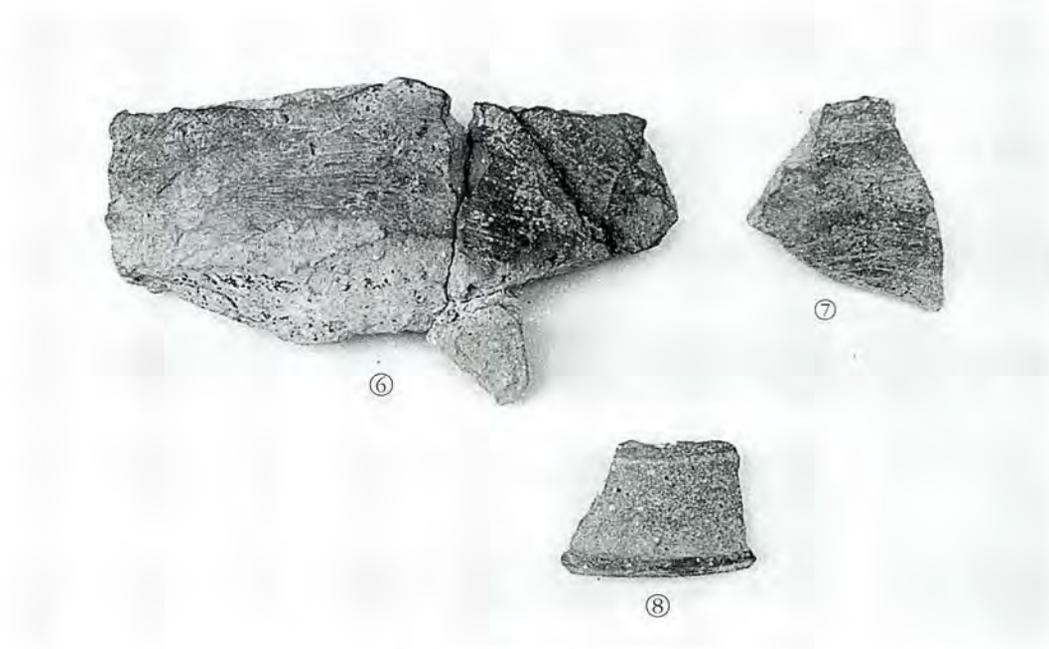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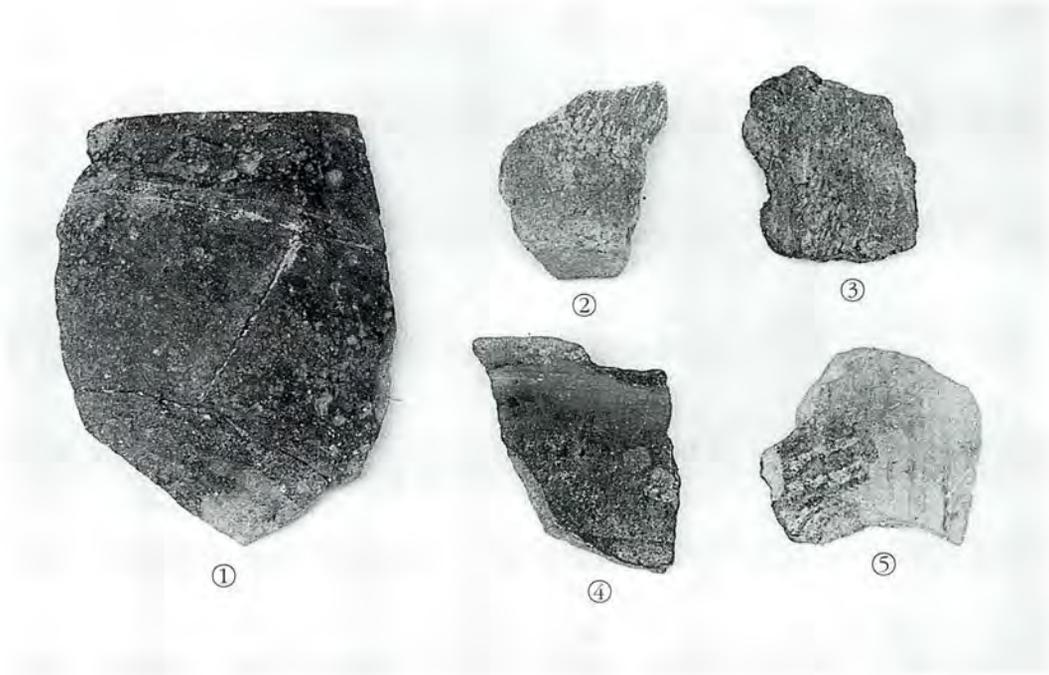


사진 24. 4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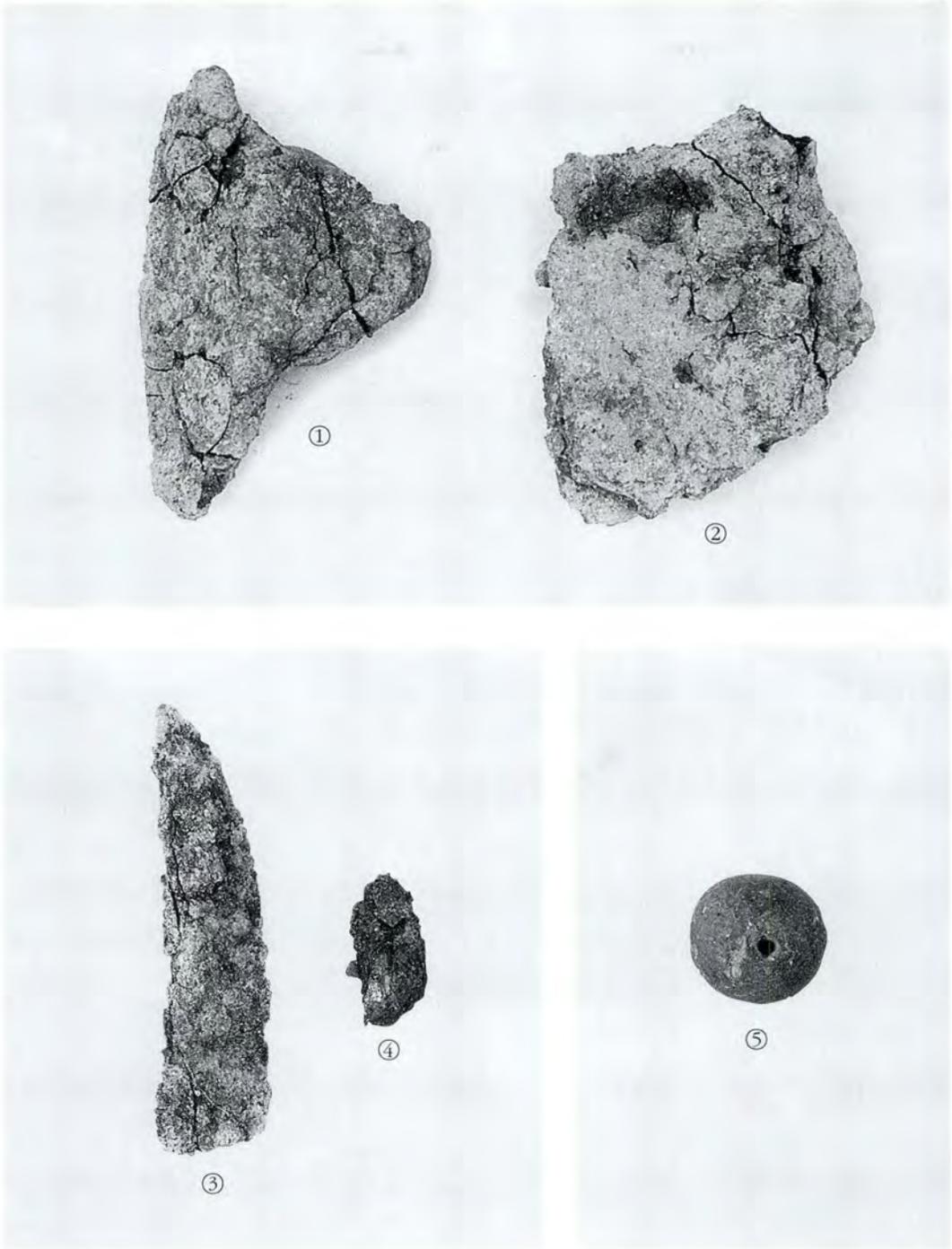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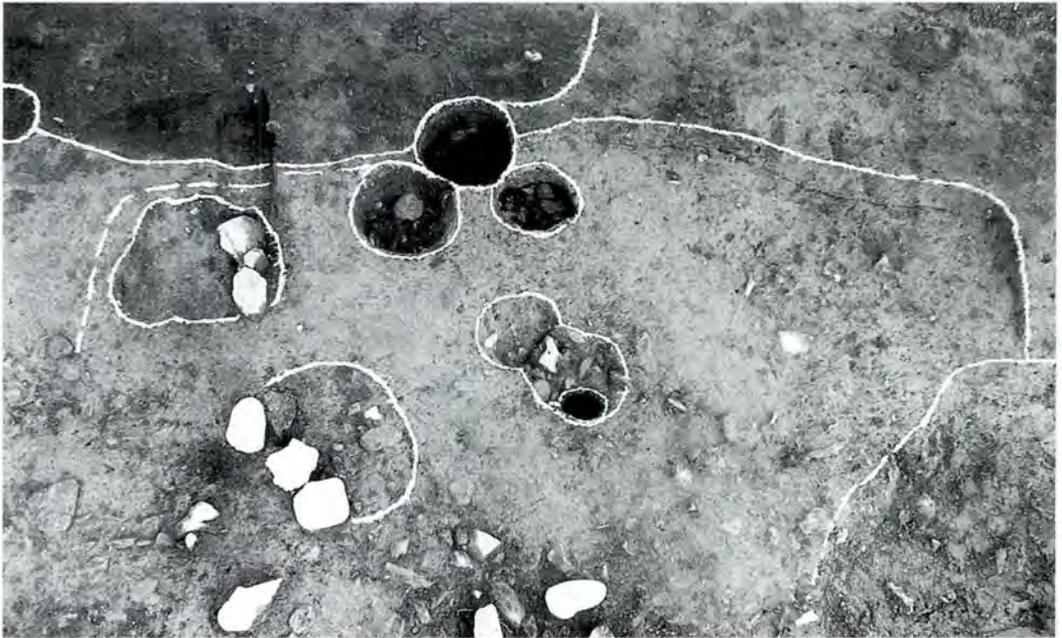


사진 25. 4호 주거지 출토 유물(①~⑤)



①



②



③

사진 26. 5호 주거지 전경(①:조사후, ②:층위 상태, ③:유물 출토 상태)



①



②



③



④

사진 27. 5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④)



①



②



③

사진 28. 5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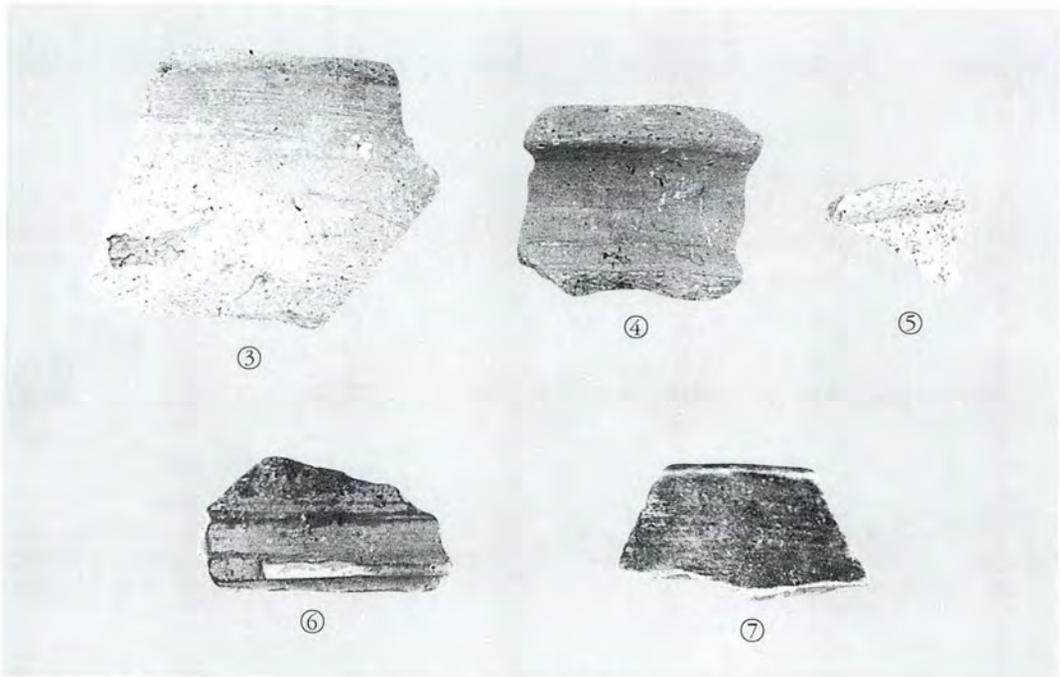


사진 29. 5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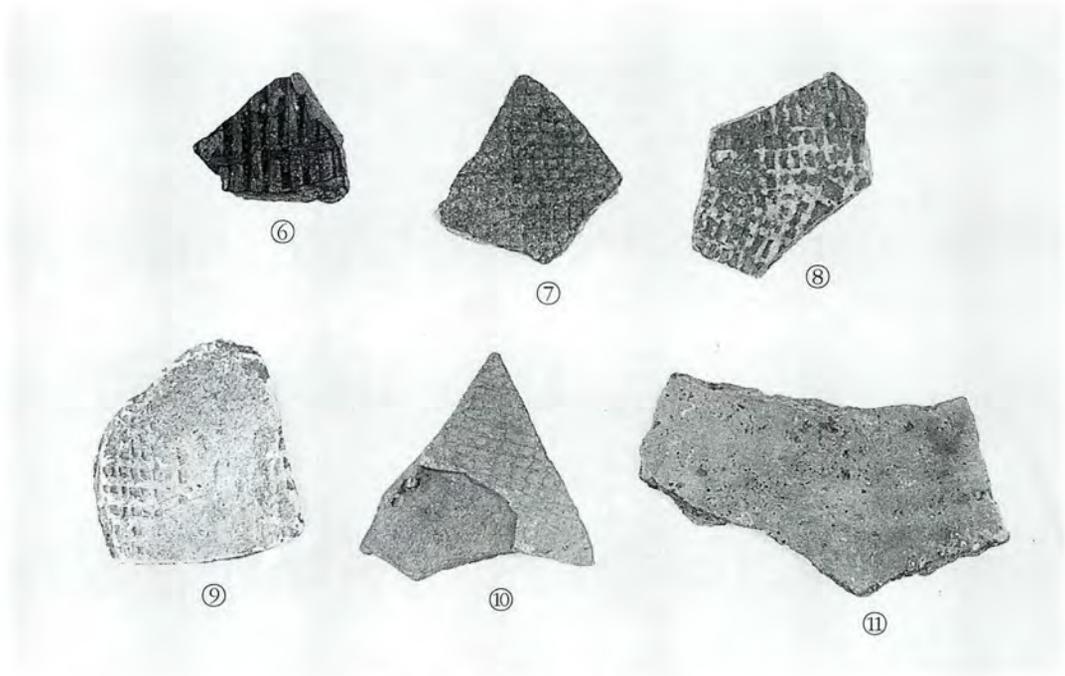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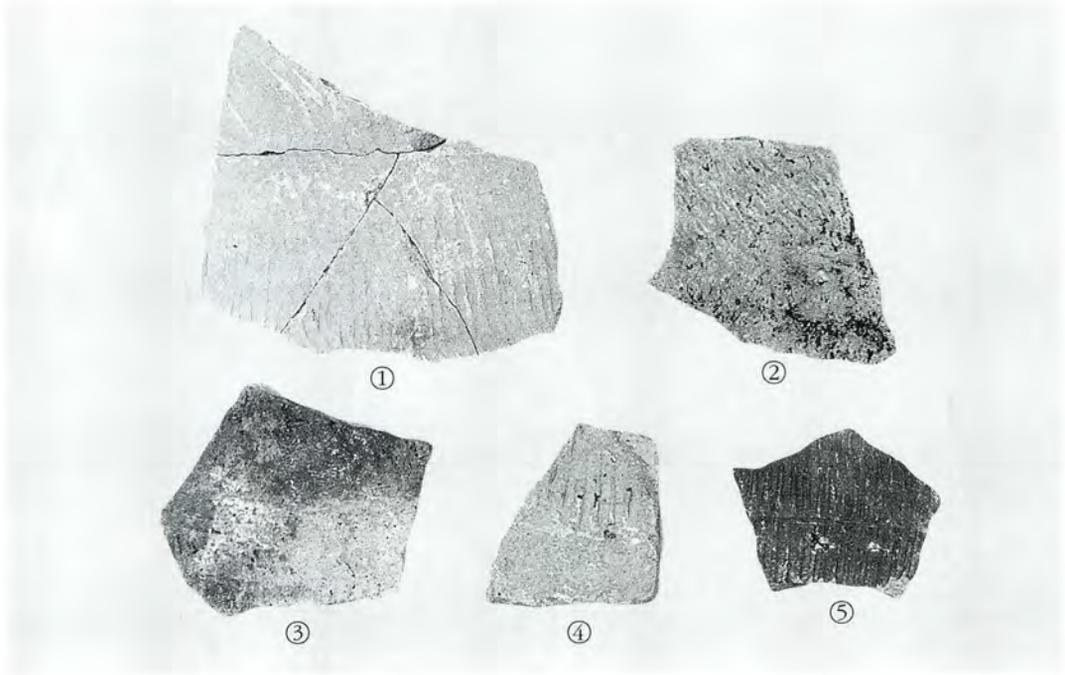


사진 30. 5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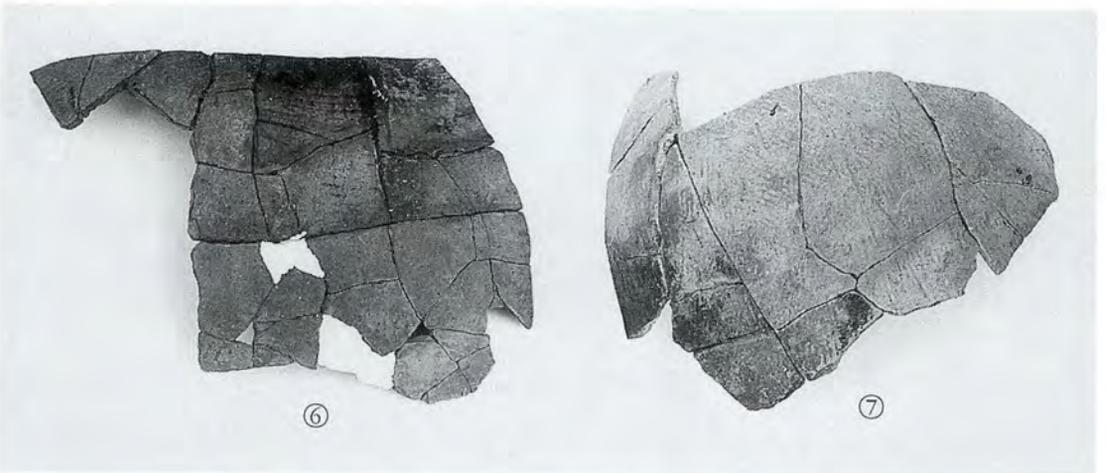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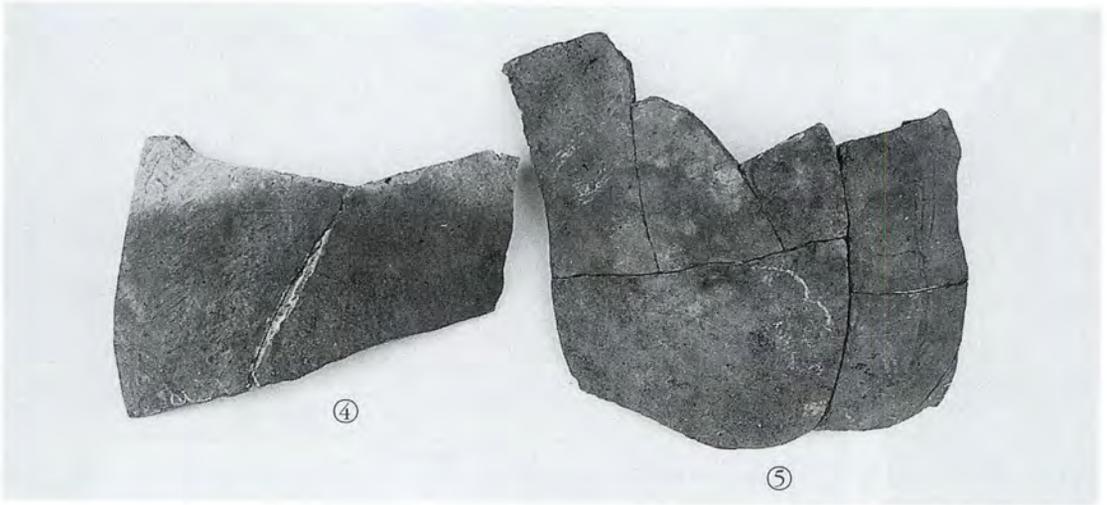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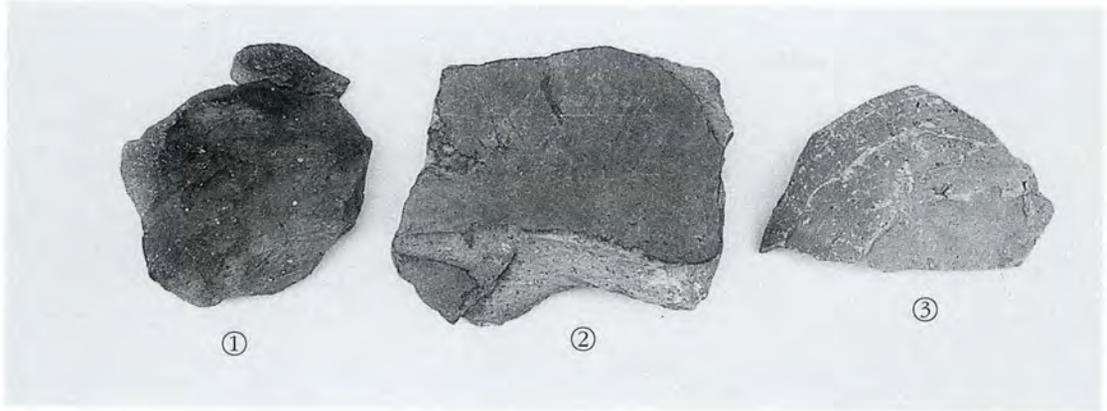


사진 31. 5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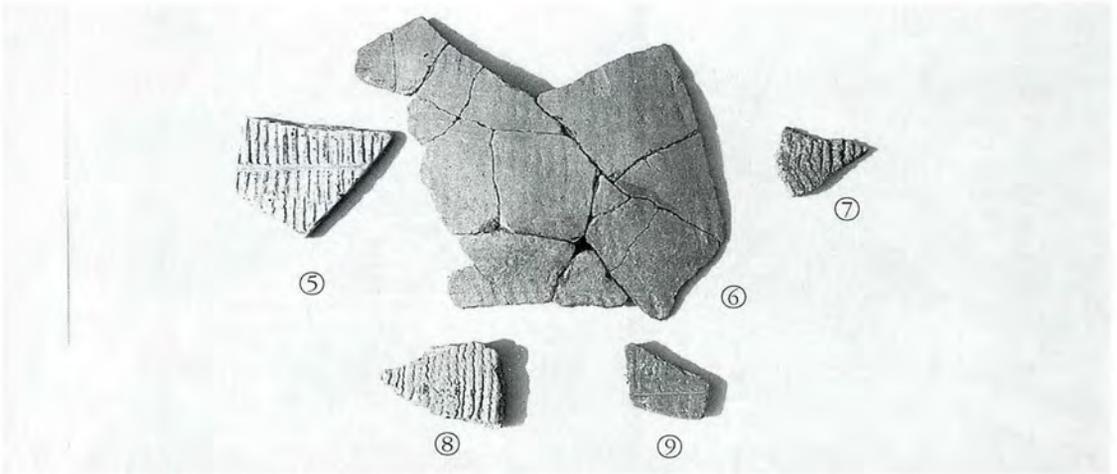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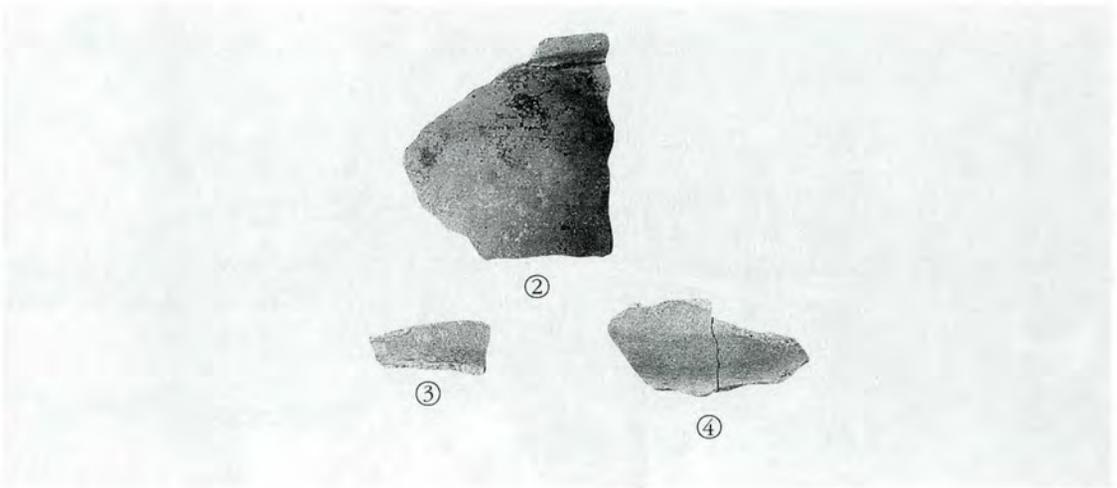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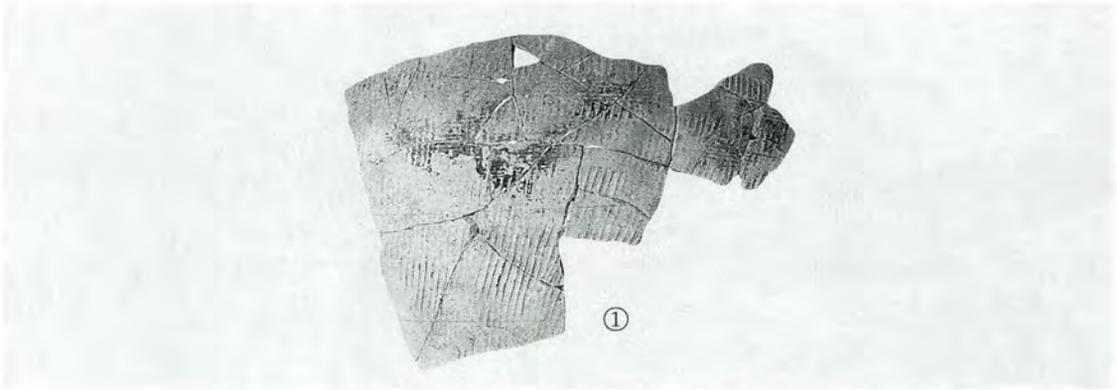


사진 32. 5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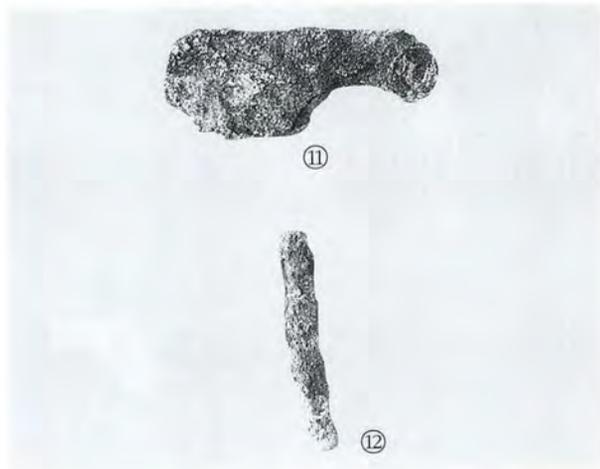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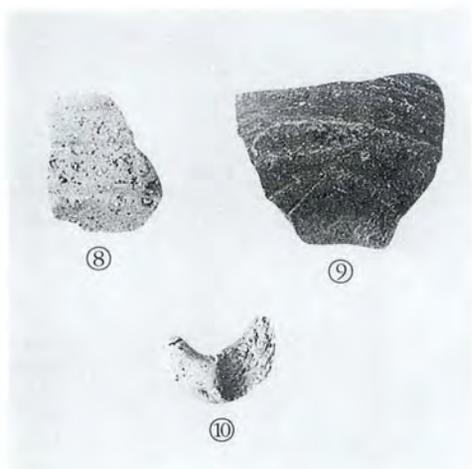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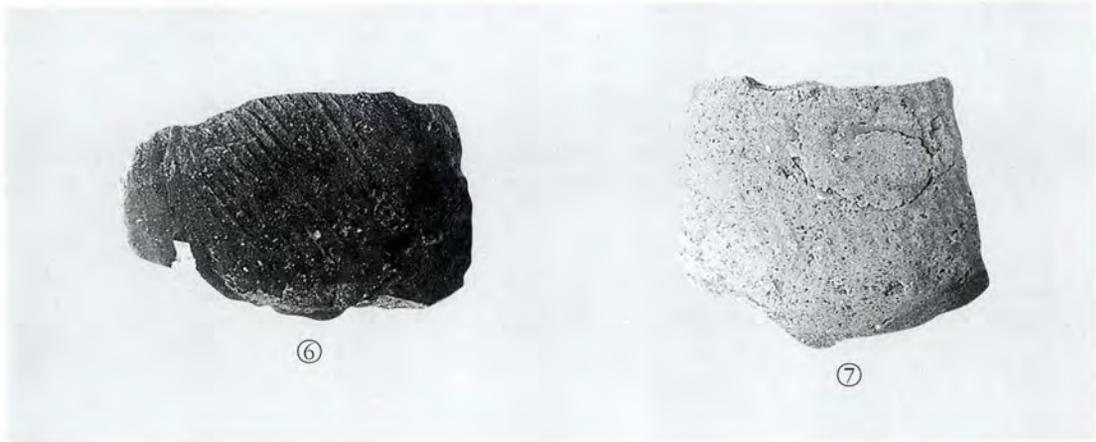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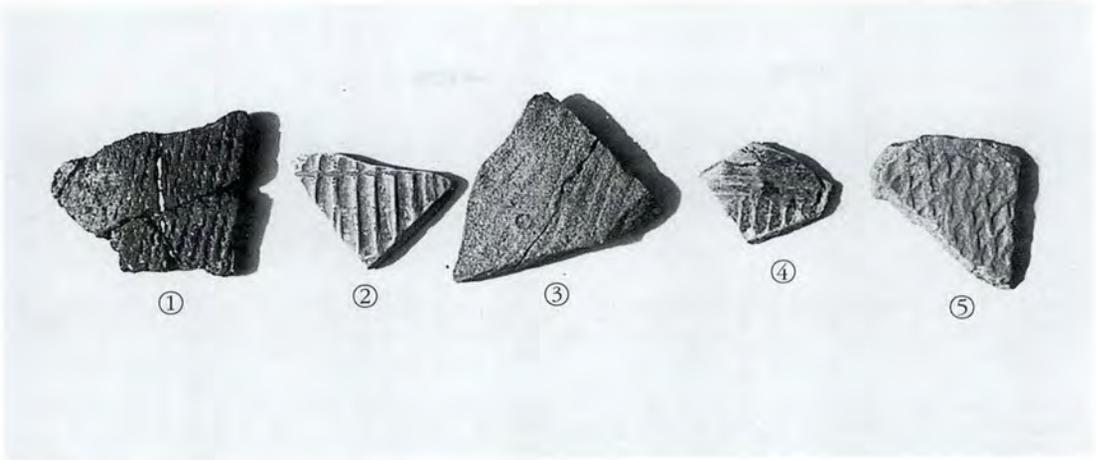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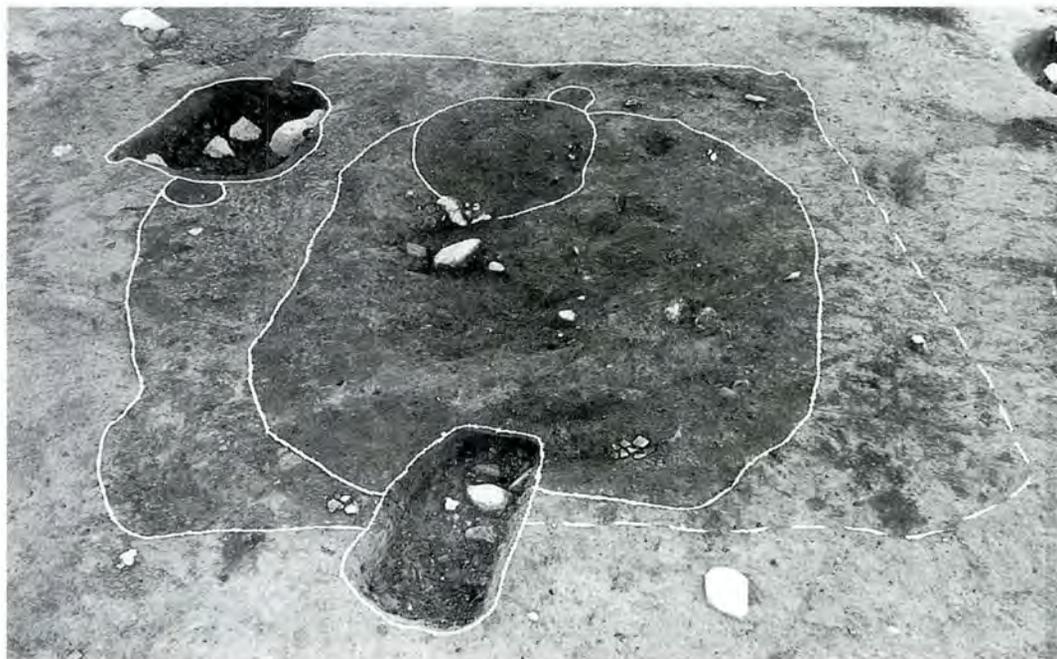


사진 33. 5호 주거지 출토 유물(①~⑫)



①



②

사진 34. 6호 주거지 전경(①:7호 주거지 중복 상태, ②:조사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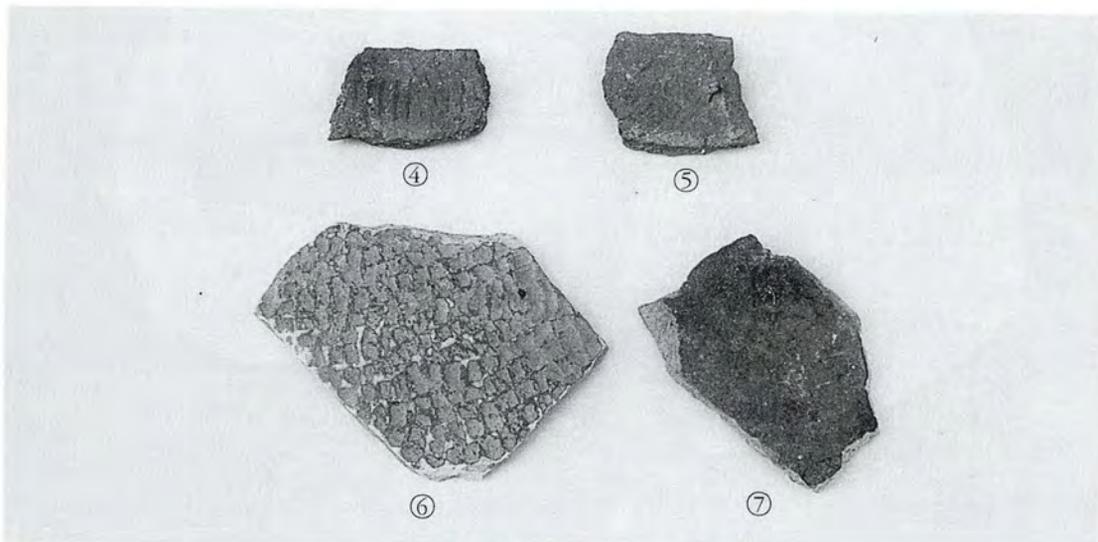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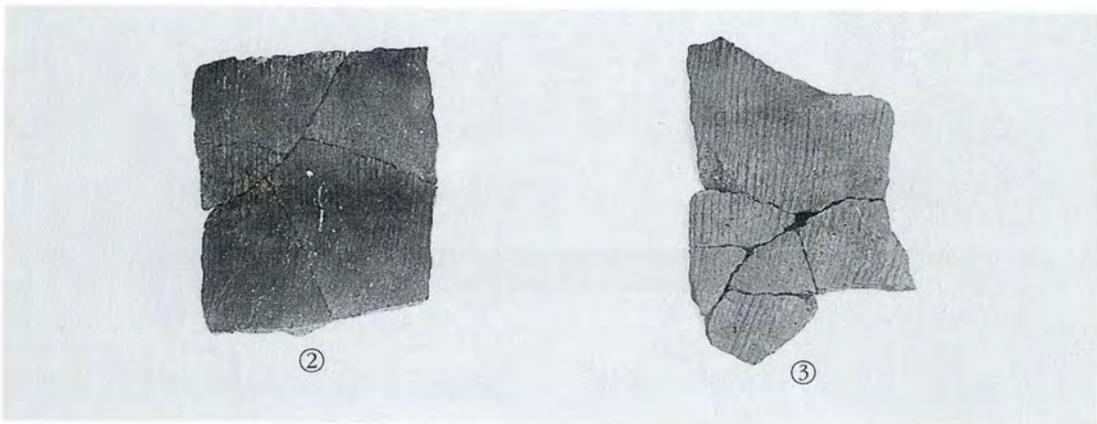


사진 35. 6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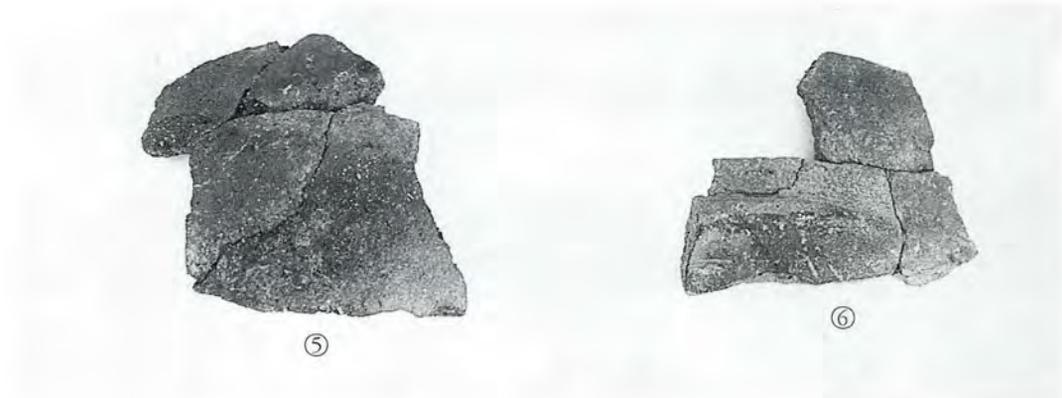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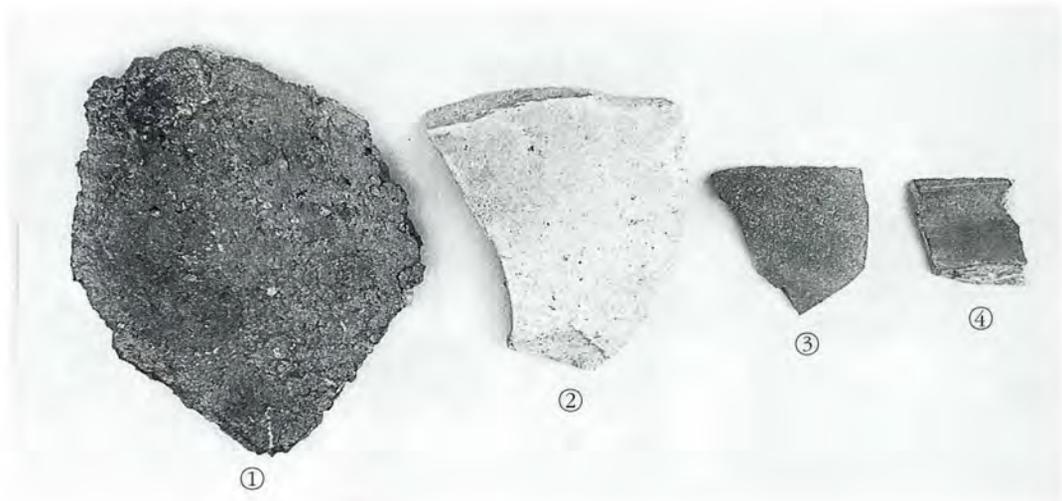


사진 36. 6호 주거지 출토 유물(①~⑧)



①



②

사진 37. 7호 주거지 전경(①:조사후, ②:기둥구멍 노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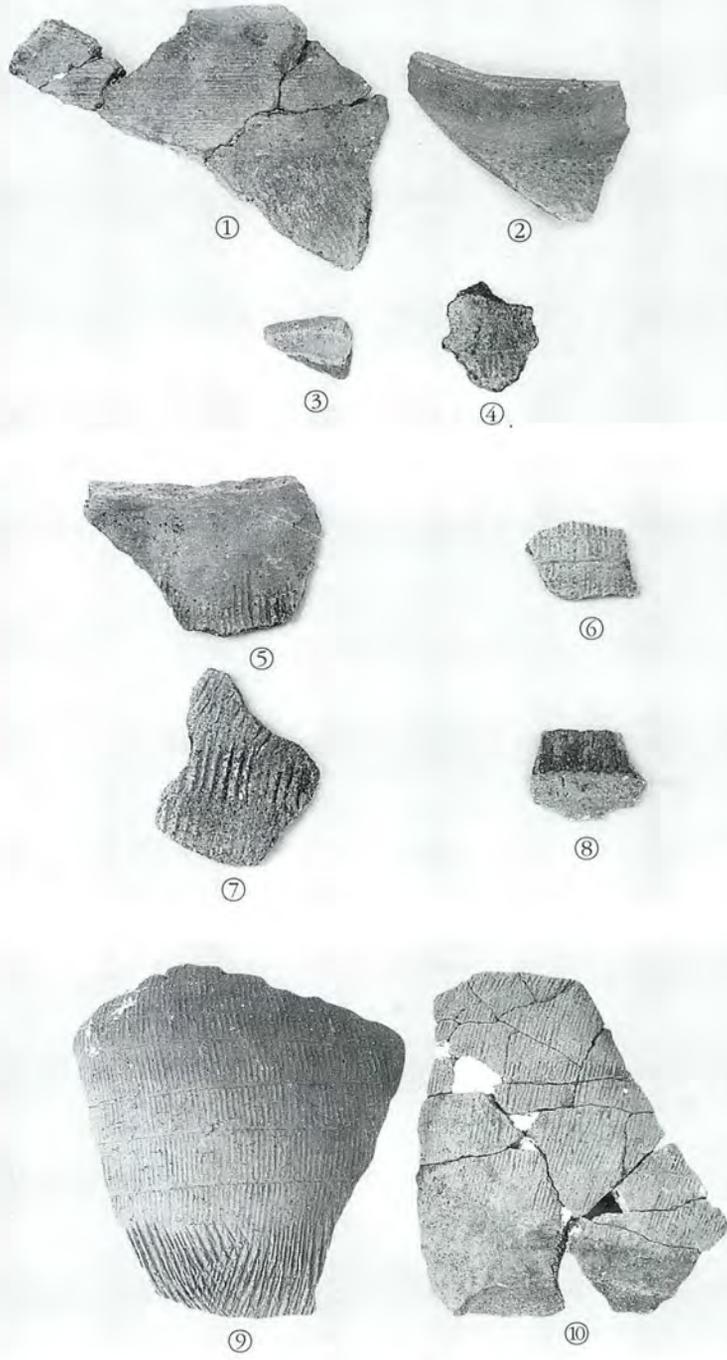


사진 38. 7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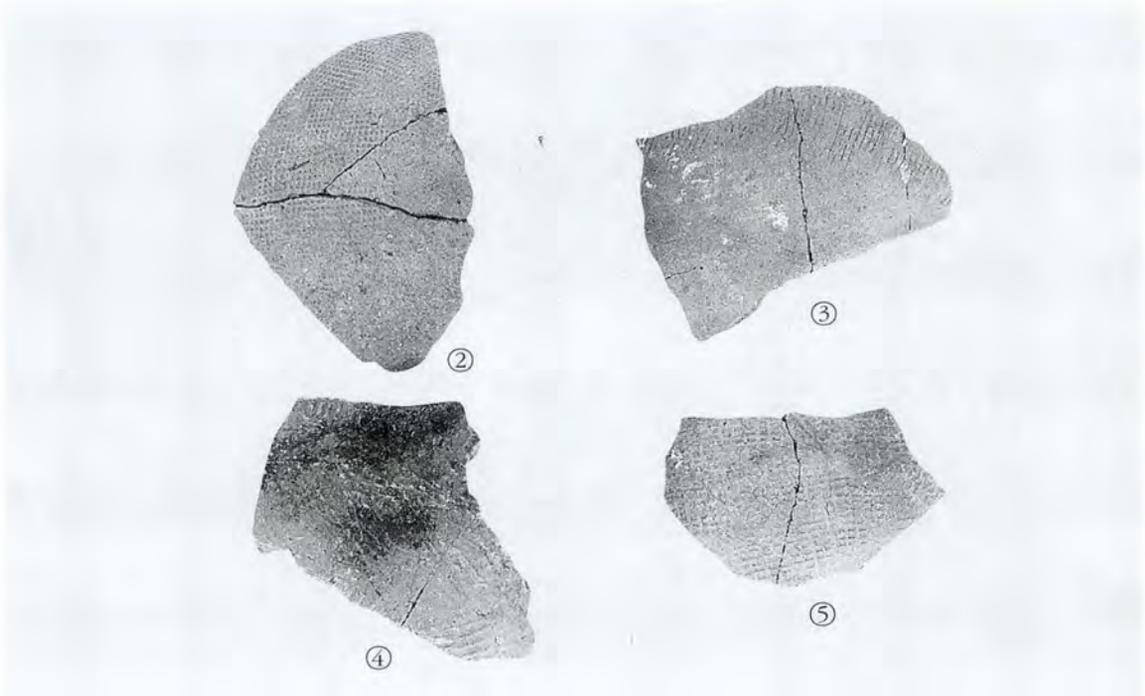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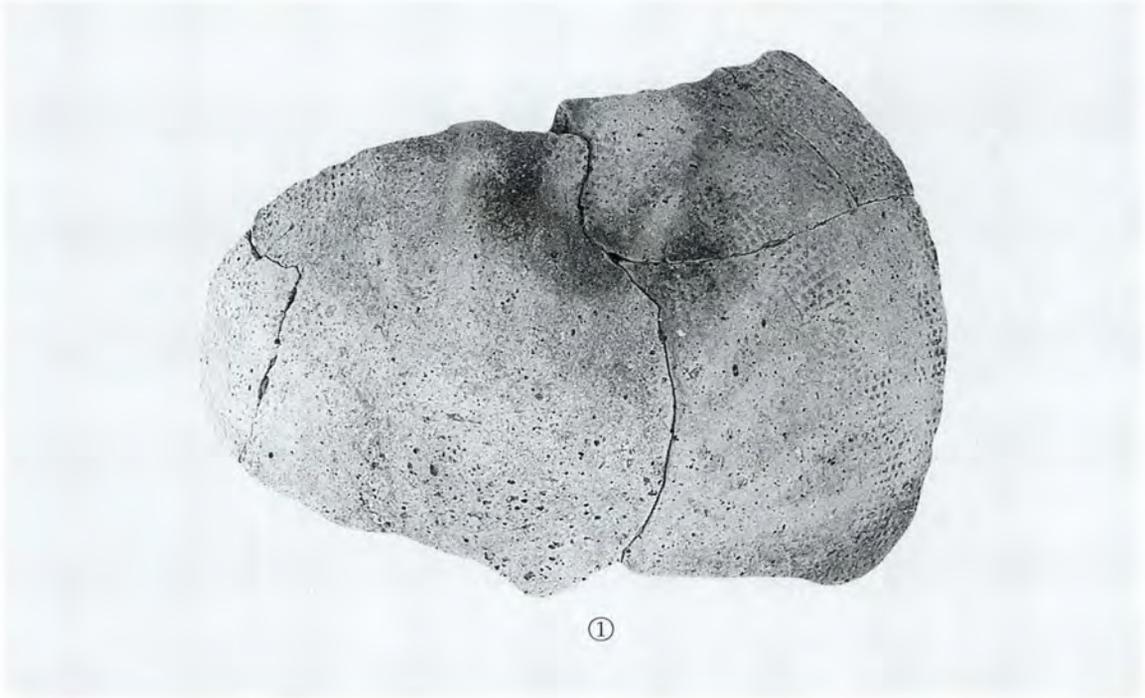


사진 39. 7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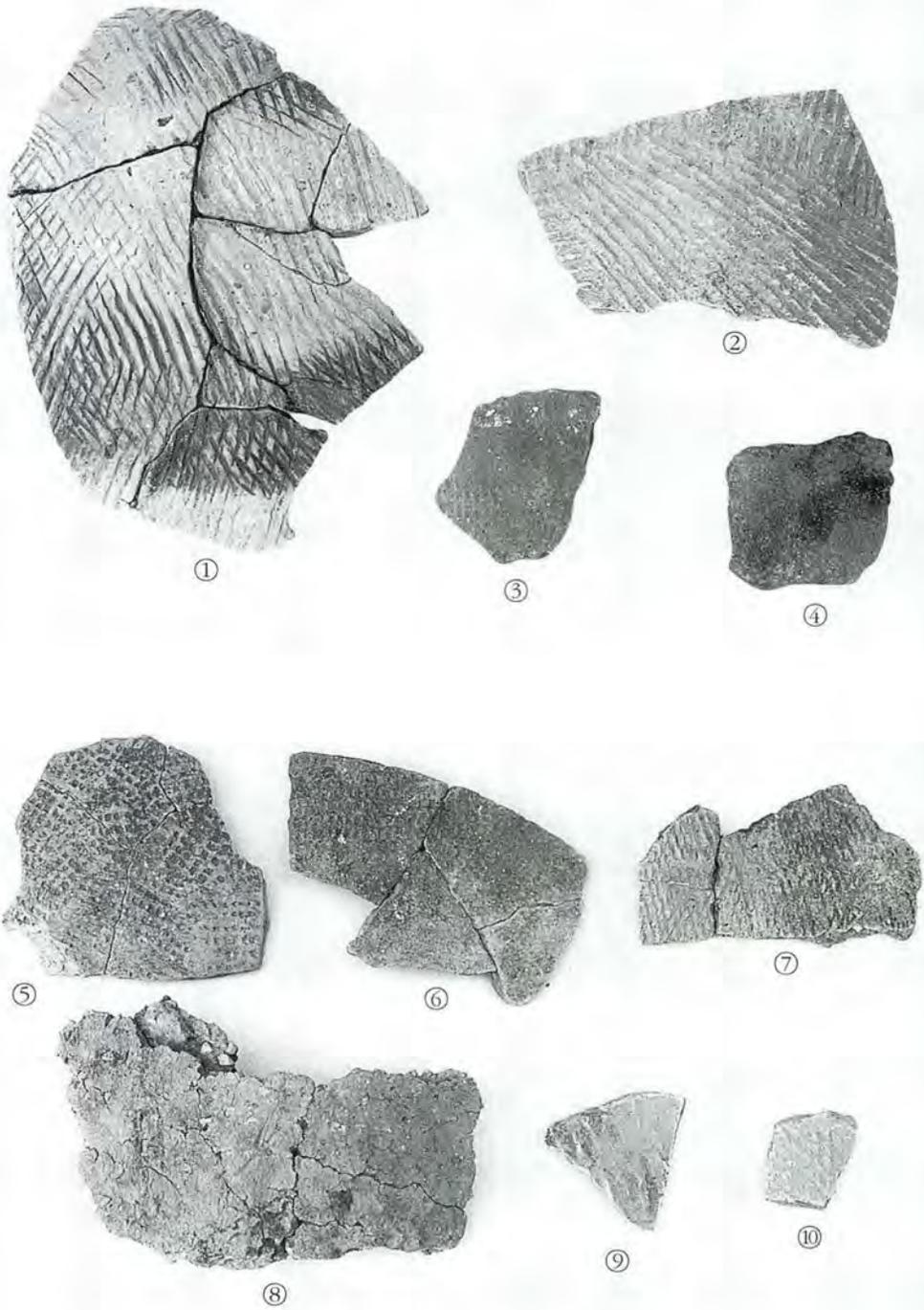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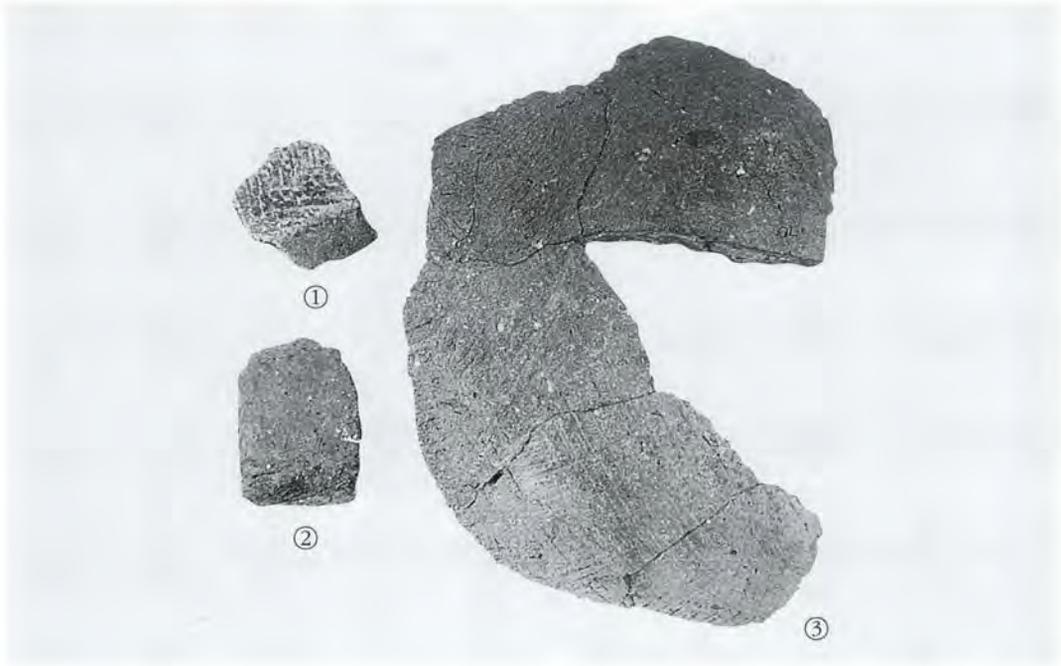


사진 40. 7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⑩)



④

사진 41. 7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③)와 8호 주거지 전경(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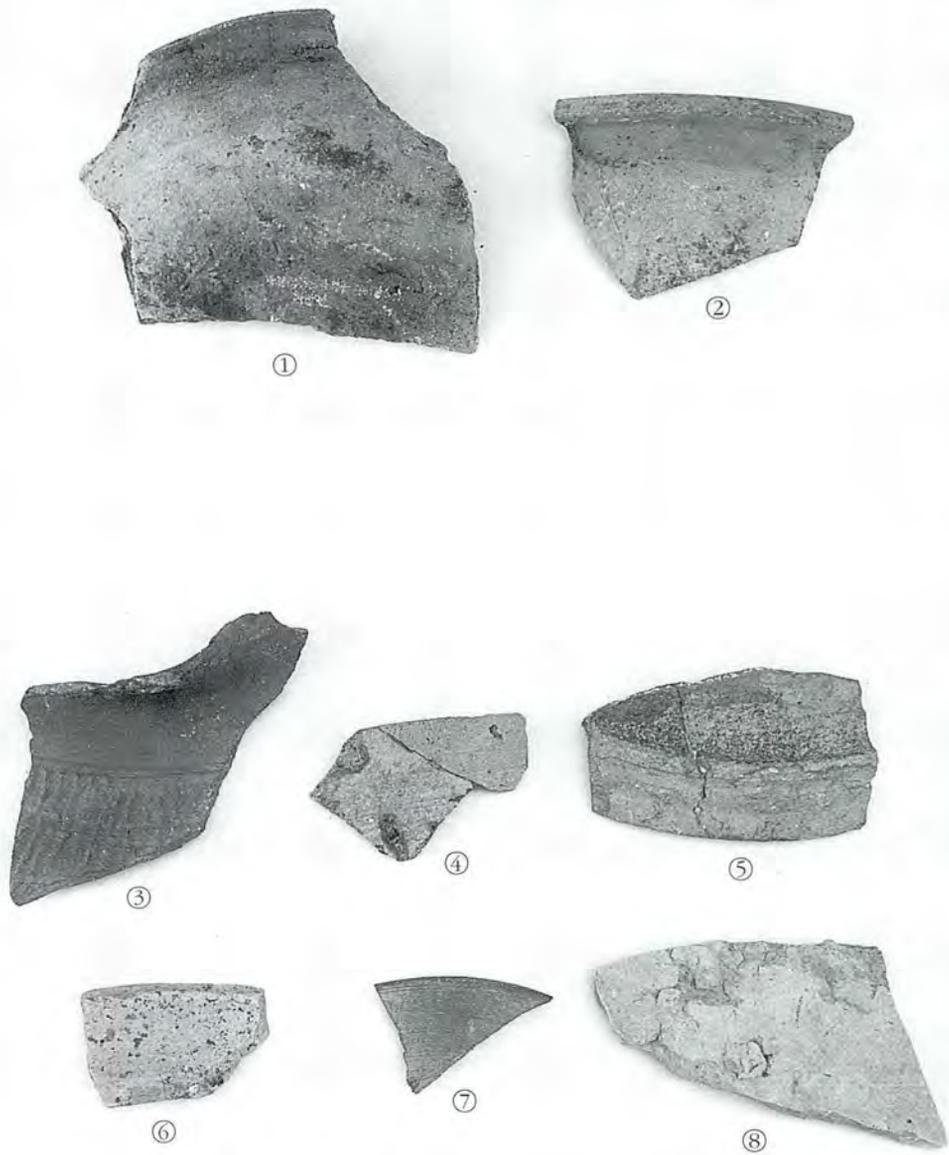


사진 42, 8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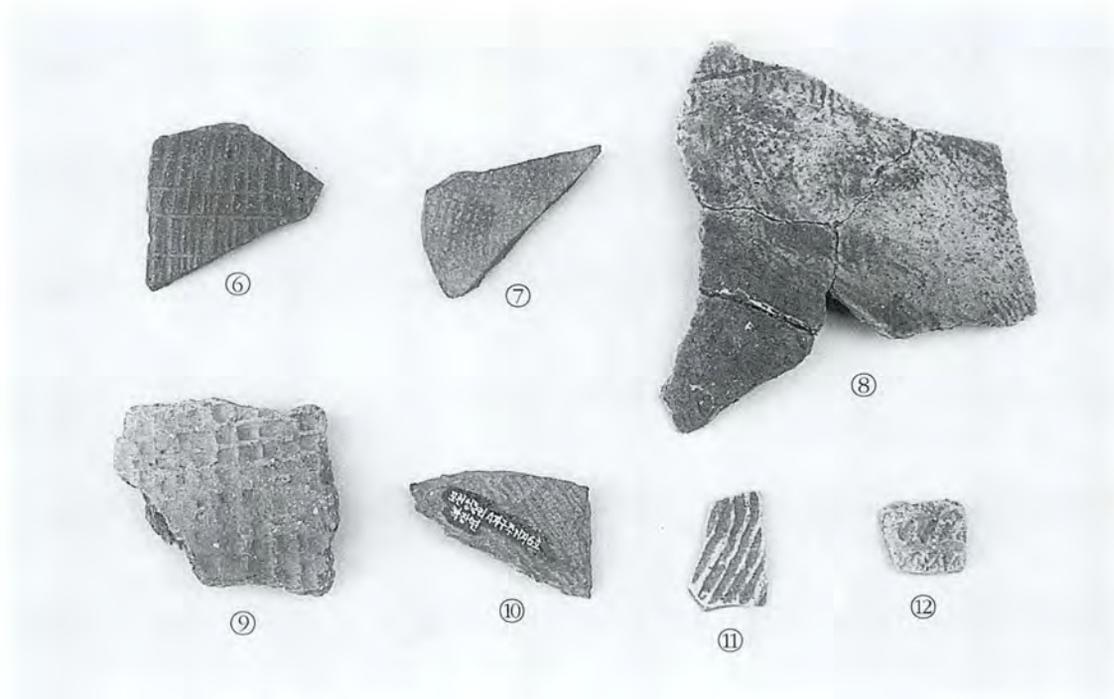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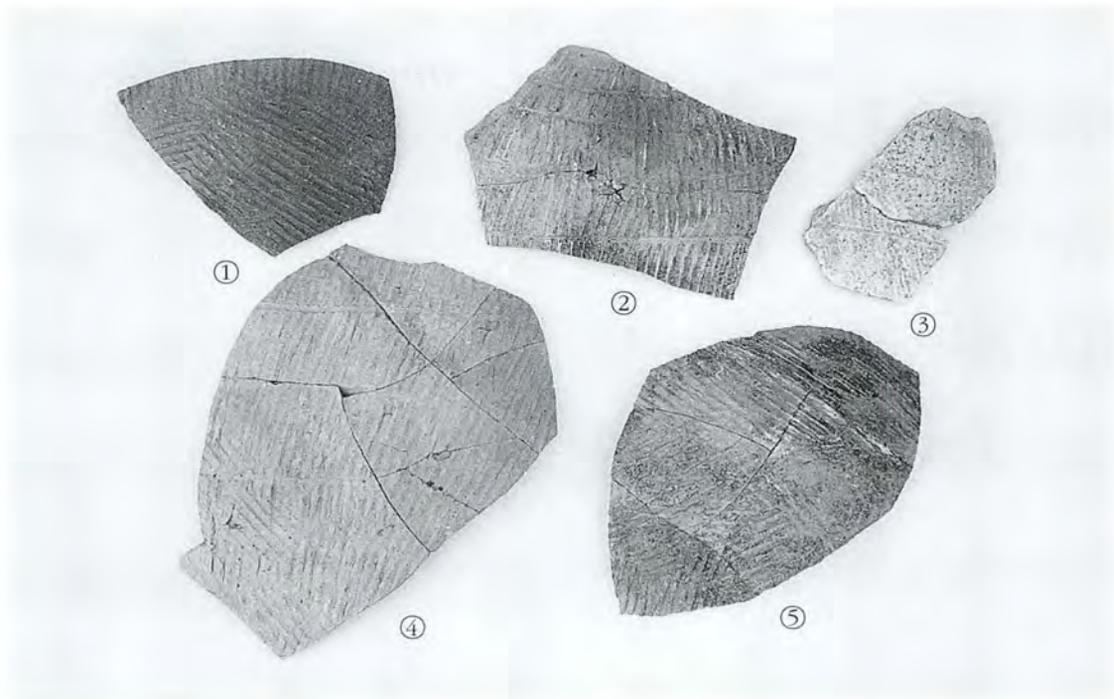


사진 43. 8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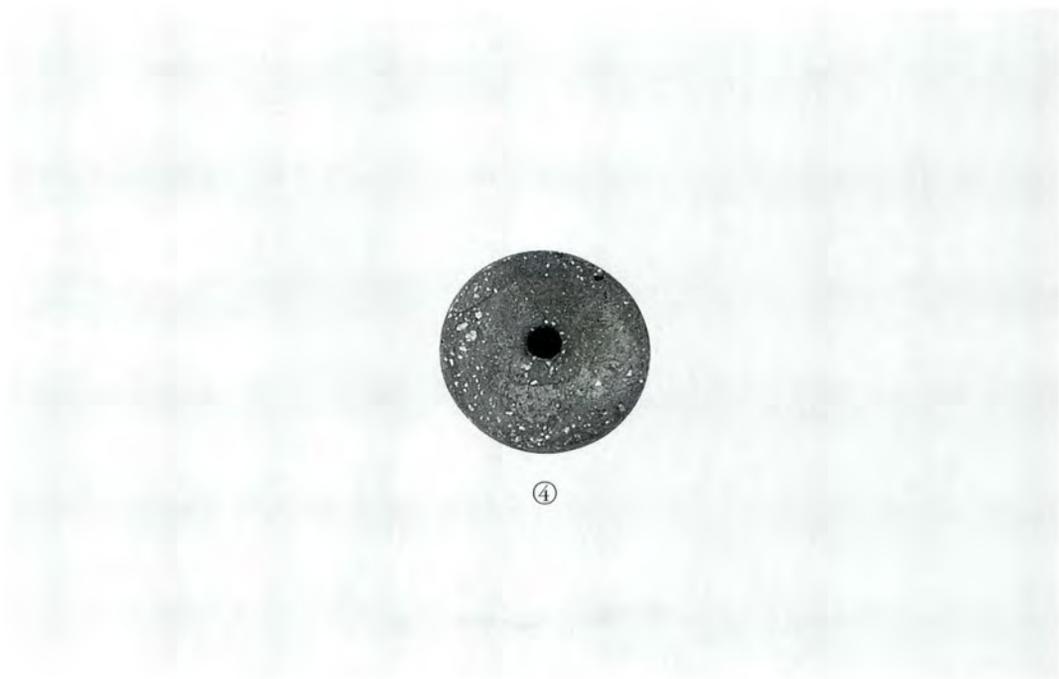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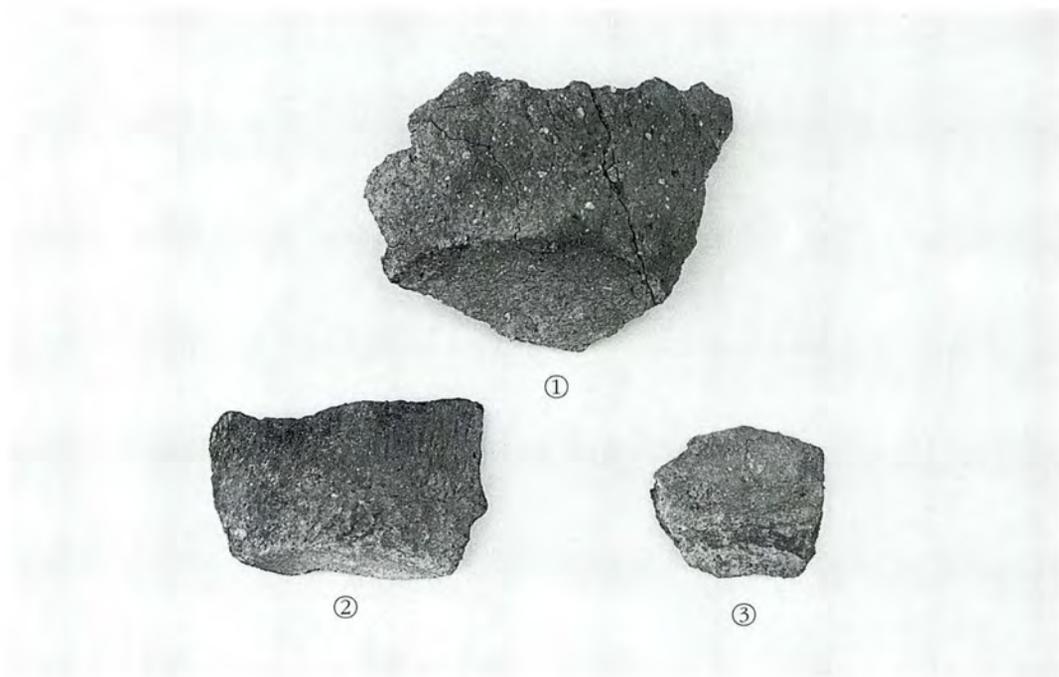


사진 44, 8호 주거지 출토 유물(①~④)



①



②



③



④

사진 45. 9호 주거지 전경(①:조사후, ②:부뚜막 노출 상태, ③·④:유물 노출 상태)



①



②



③



④

사진 46. 9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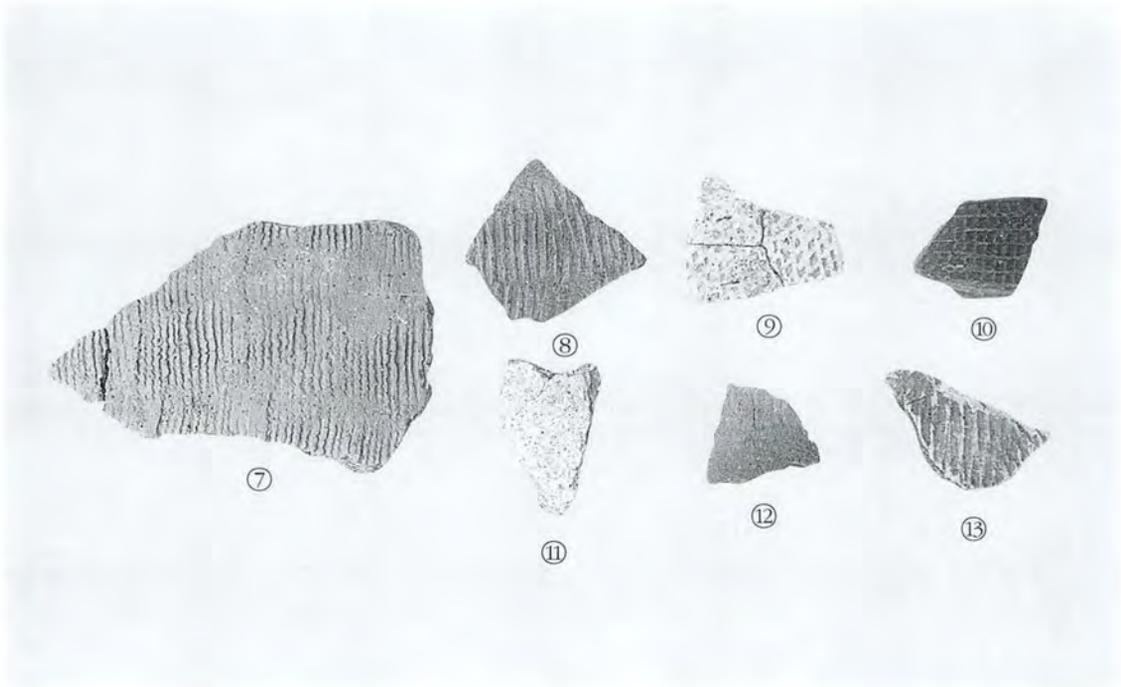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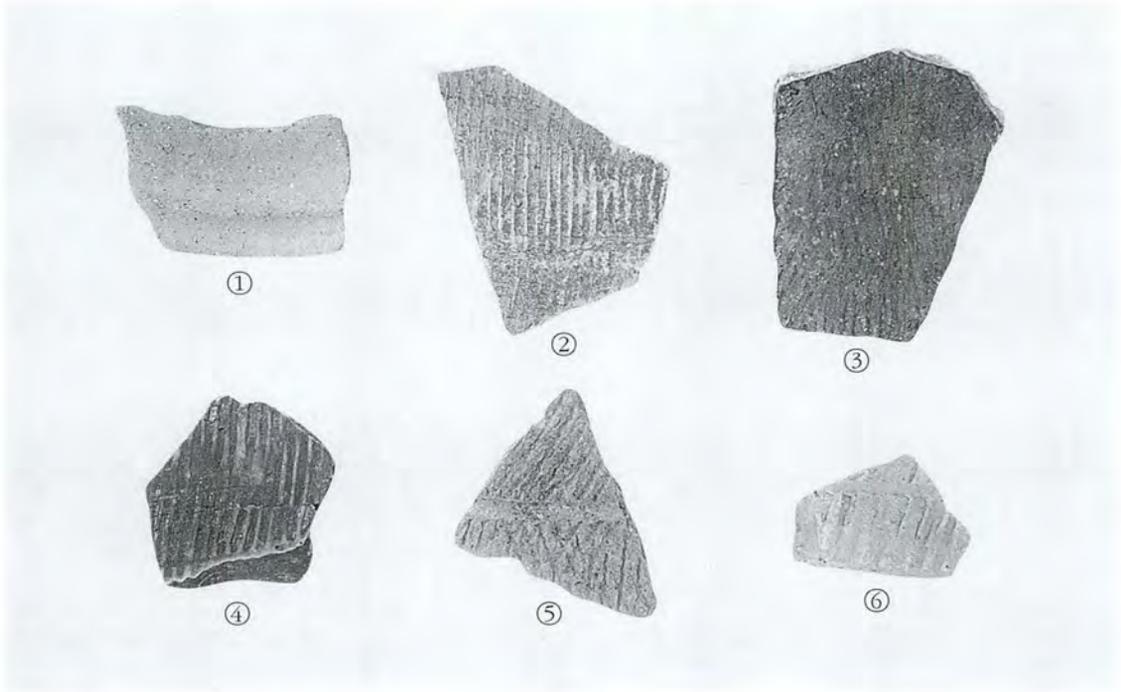


사진 47. 9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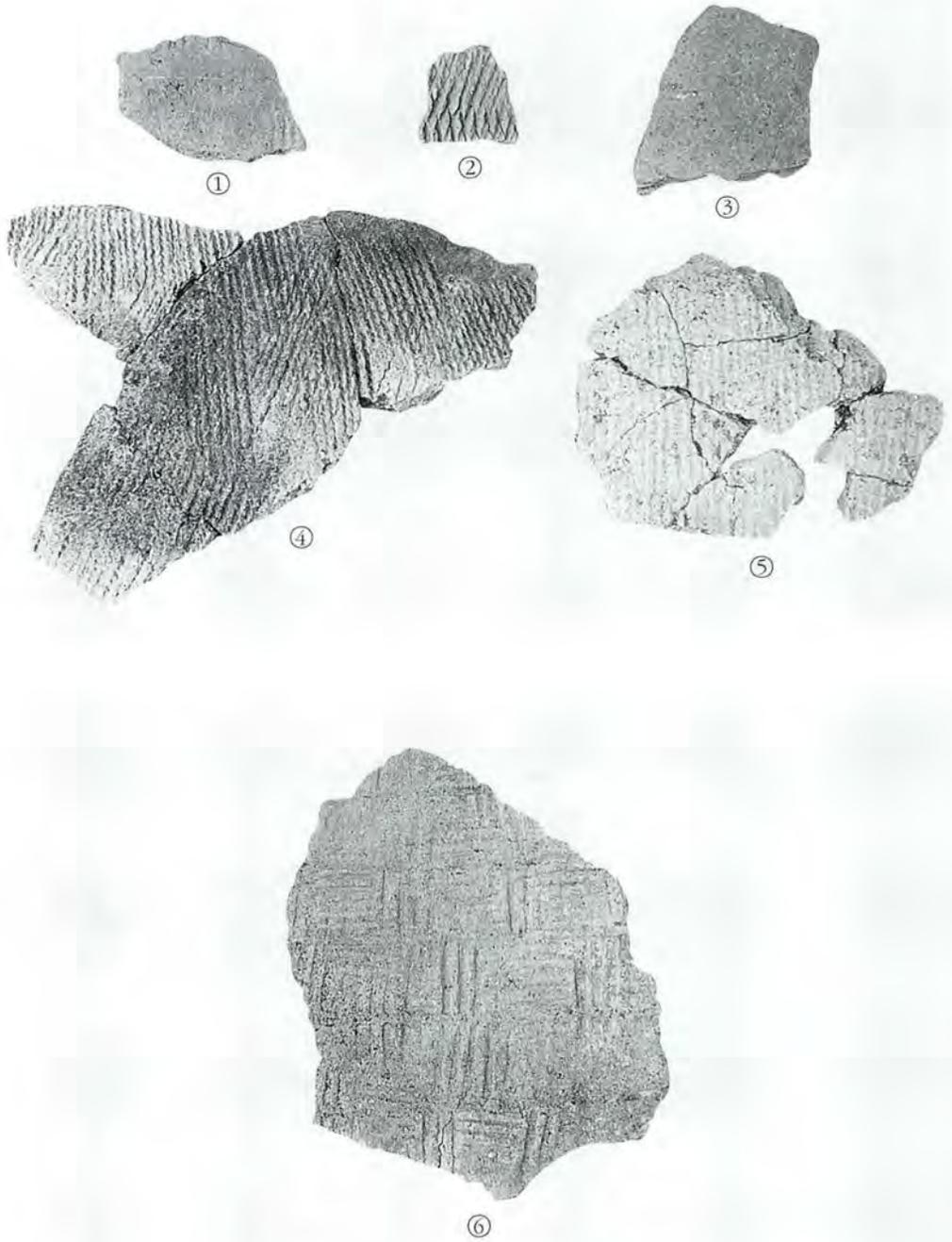


사진 48. 9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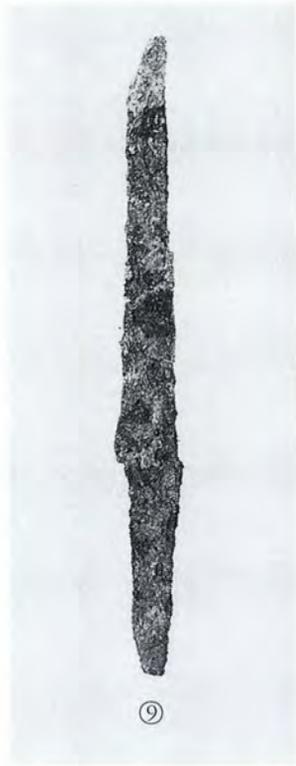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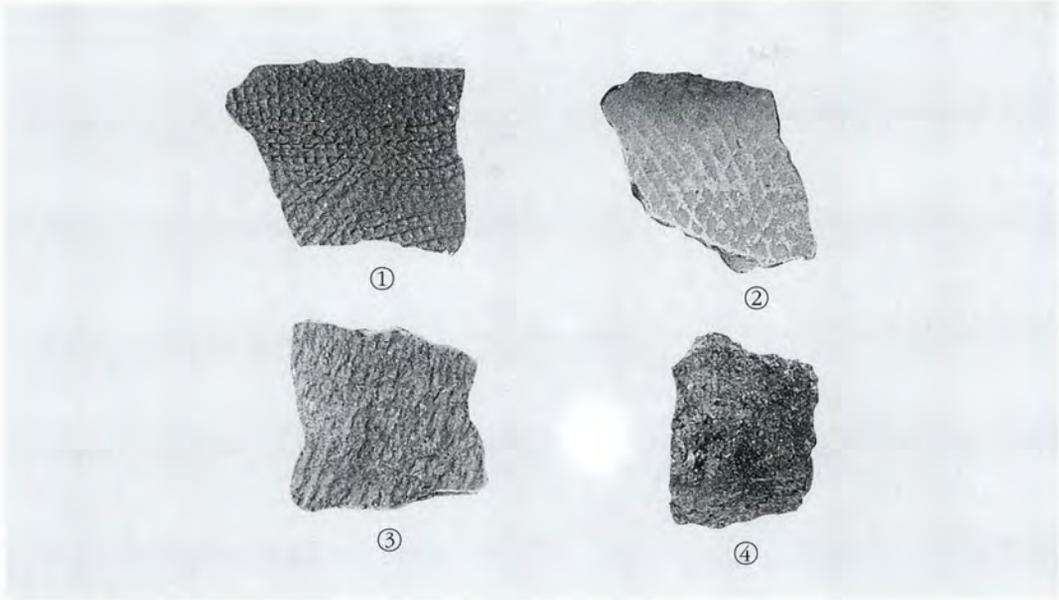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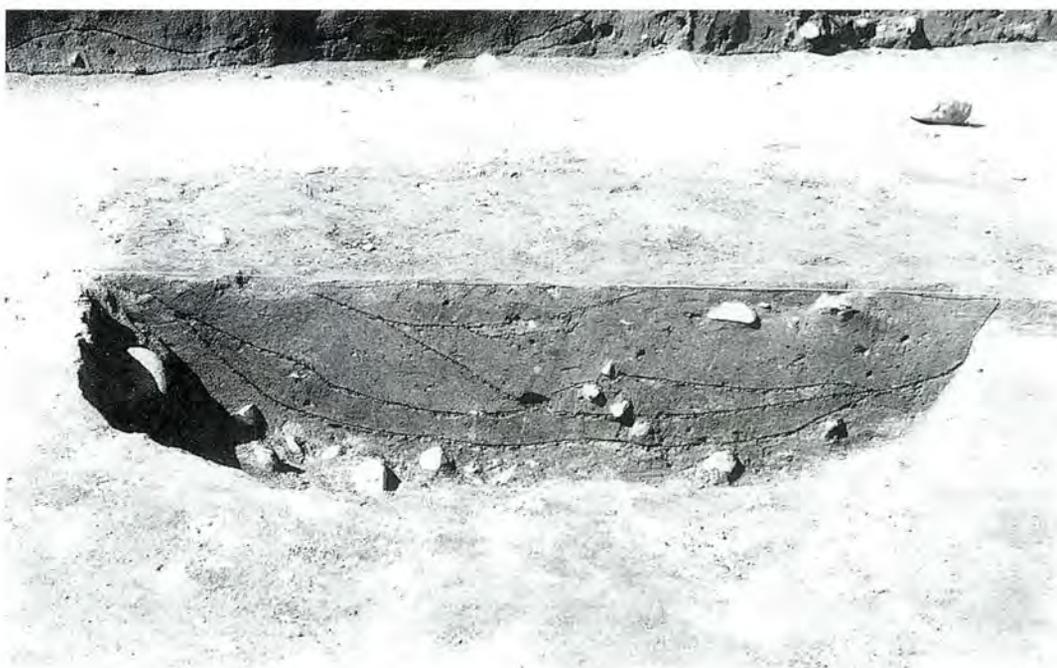


사진 49. 9호 주거지 출토 유물(①~⑨)



①



②

사진 50. 1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내부 층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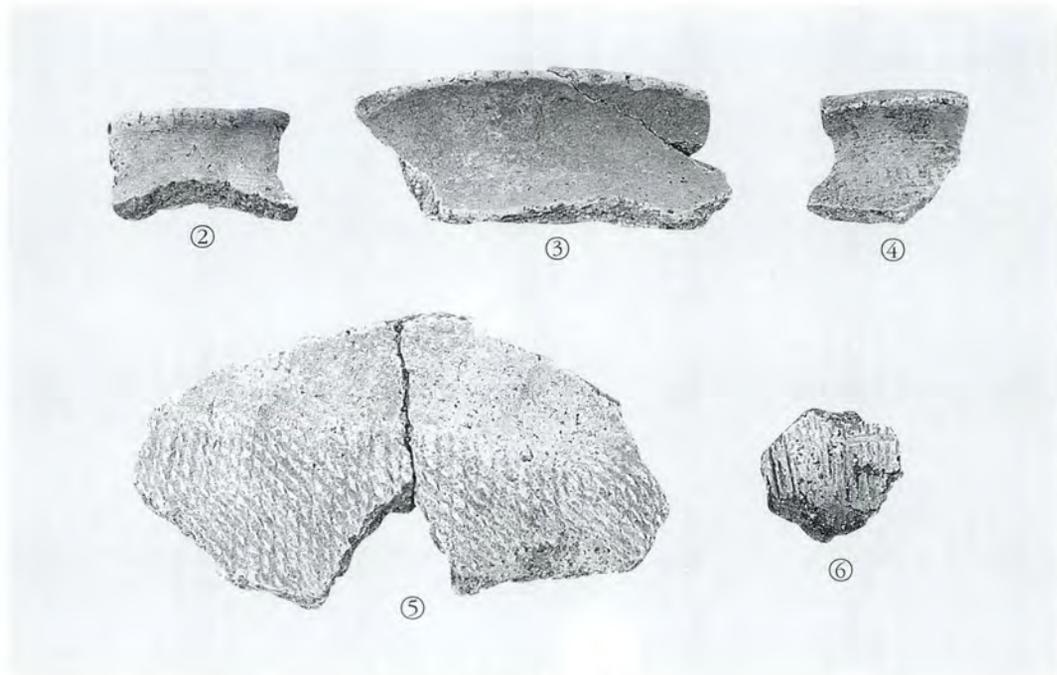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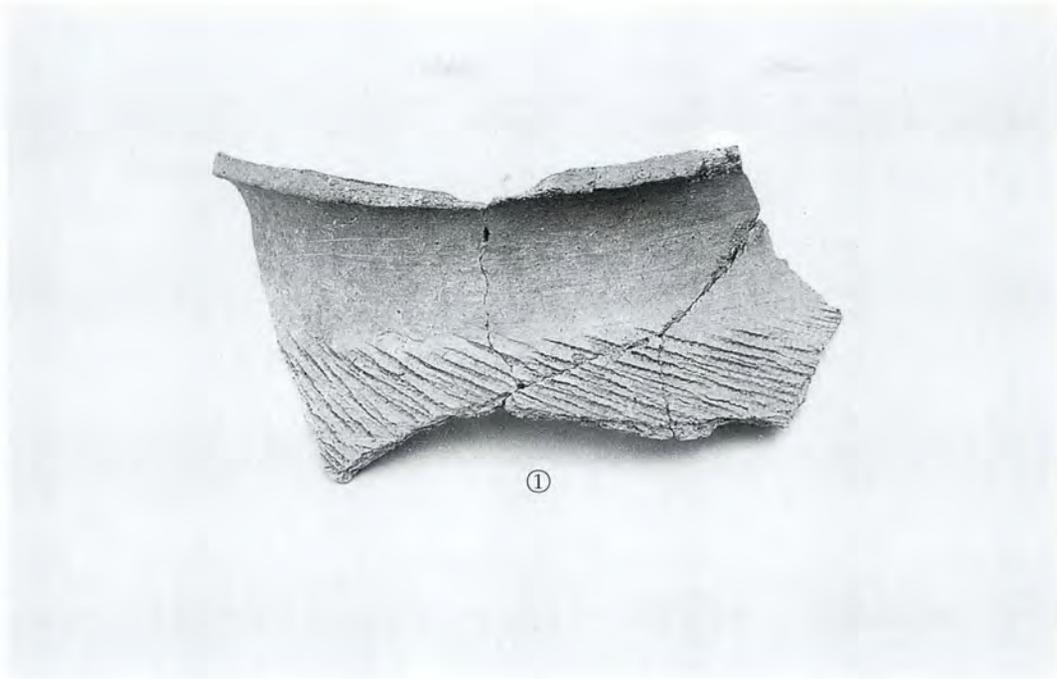


사진 51. 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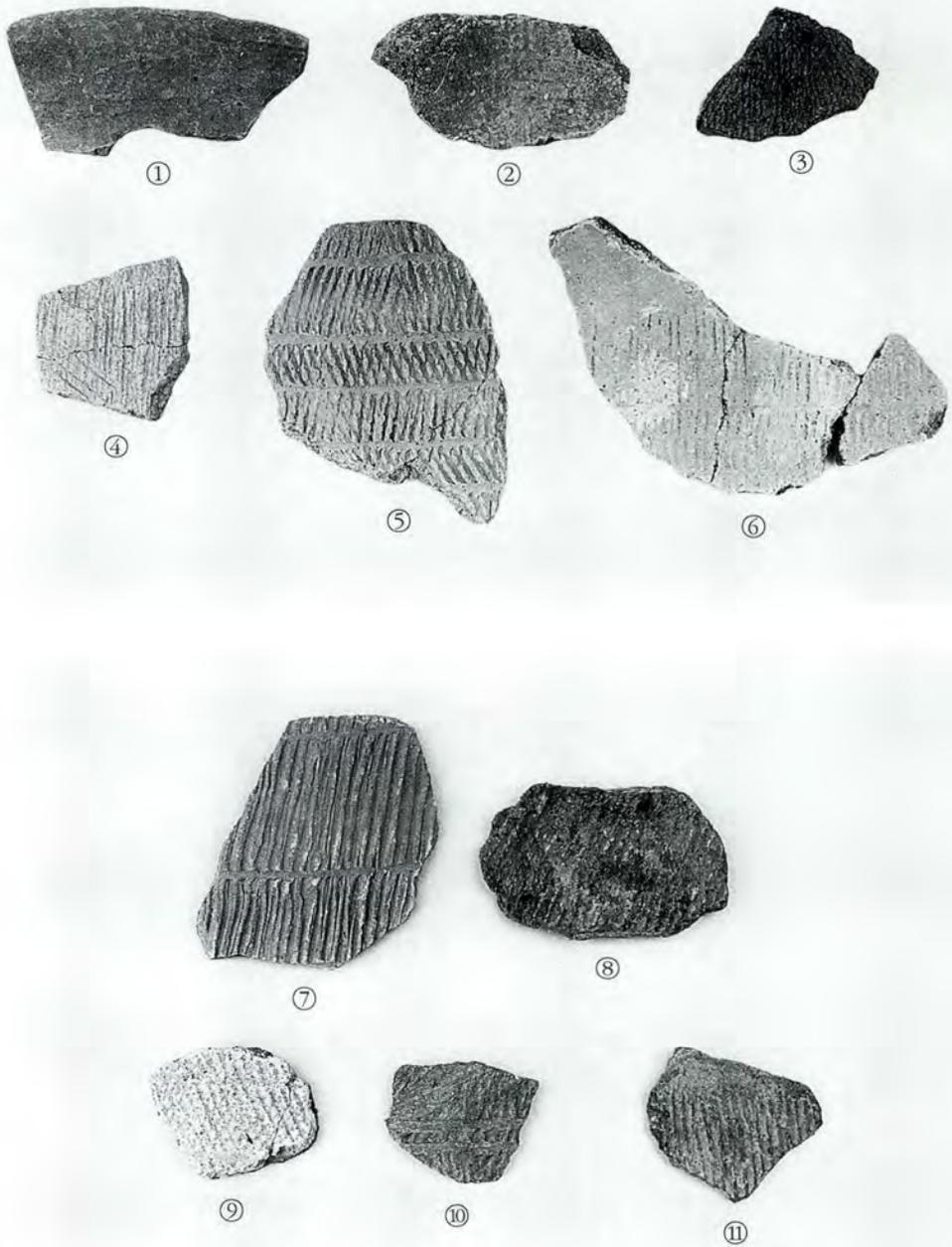


사진 52. 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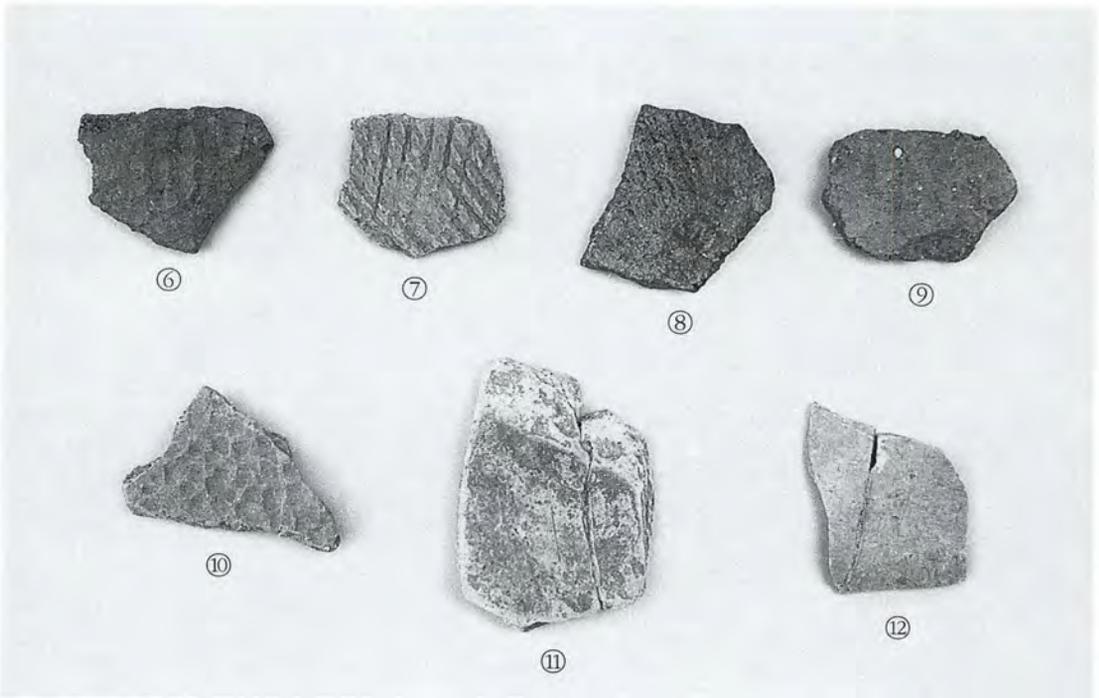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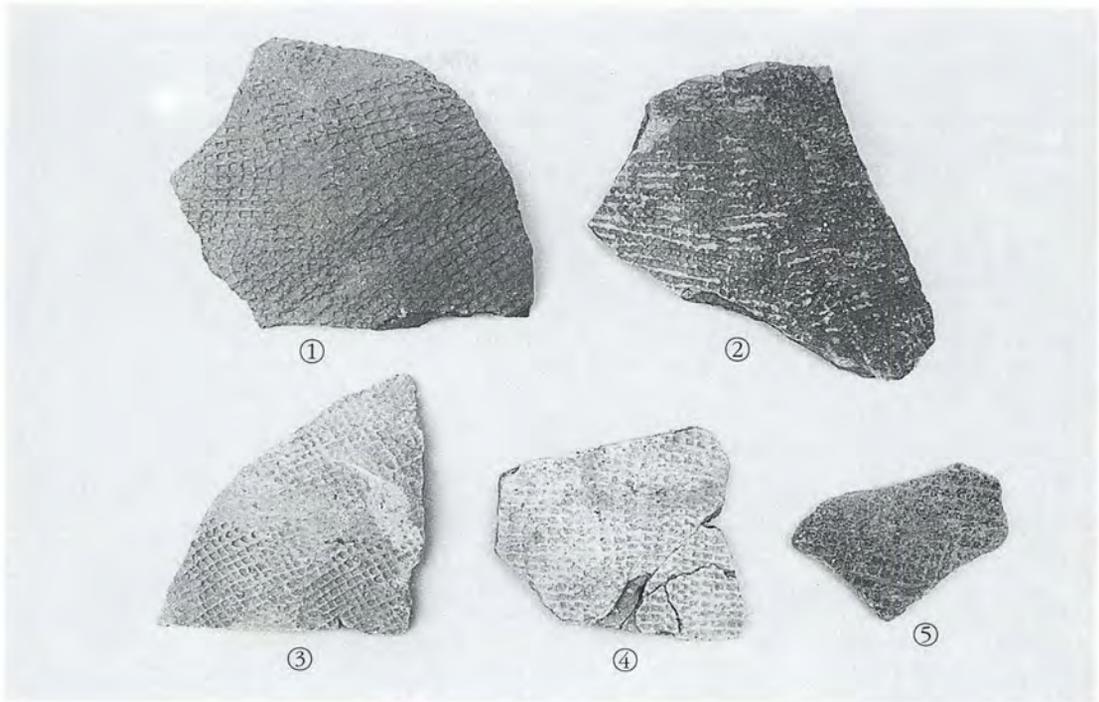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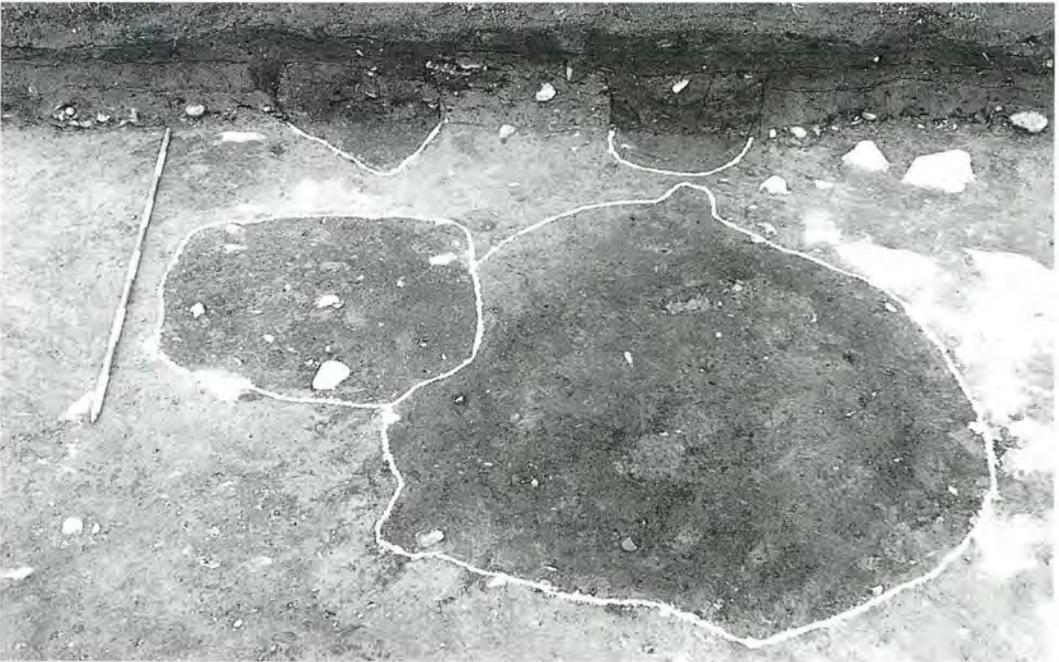


사진 53. 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⑫)



①



②

사진 54. 2호, 3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중복 상태)



①



②

사진 55. 2호 소형유구 총위 상태(①)와 3호 소형유구 전경(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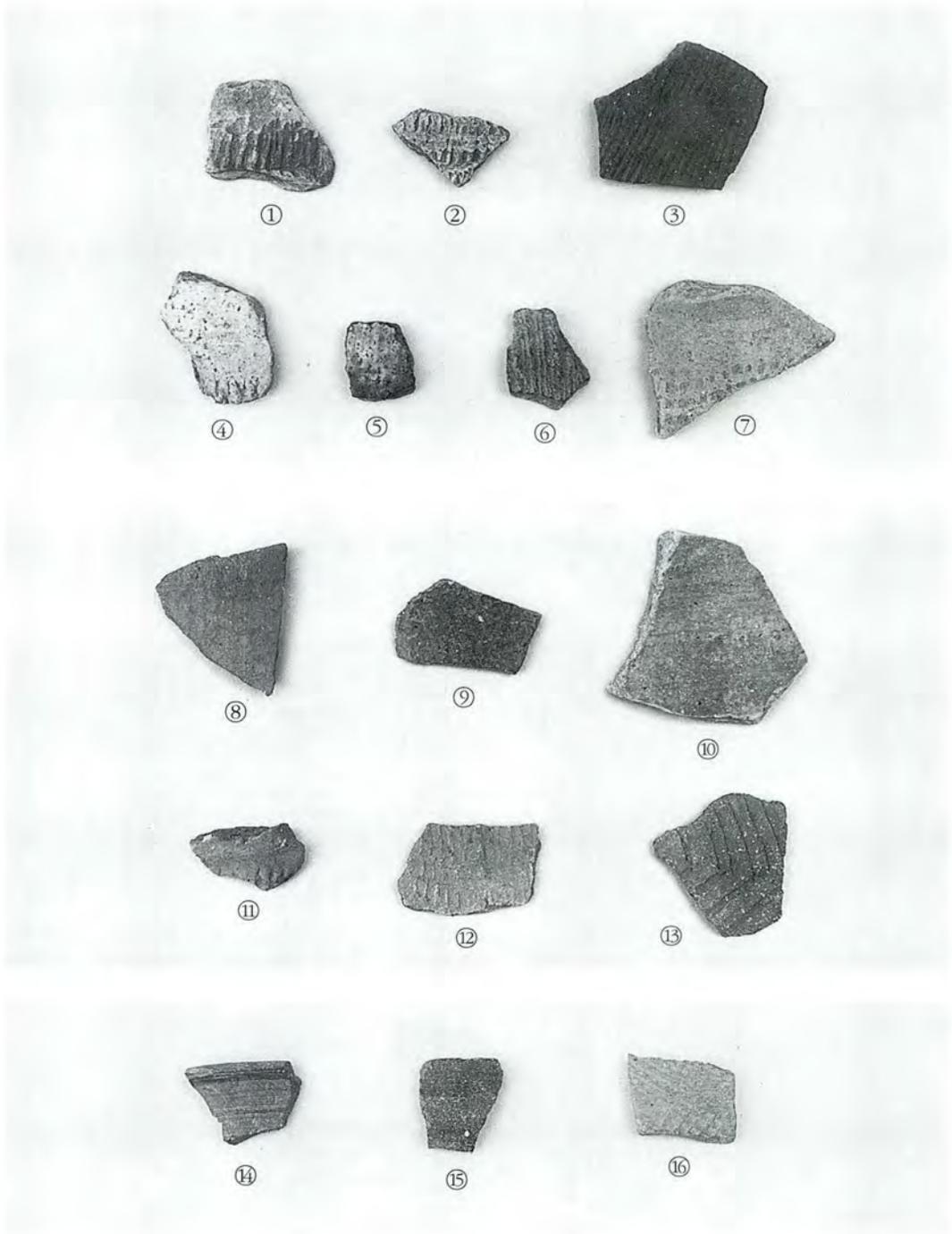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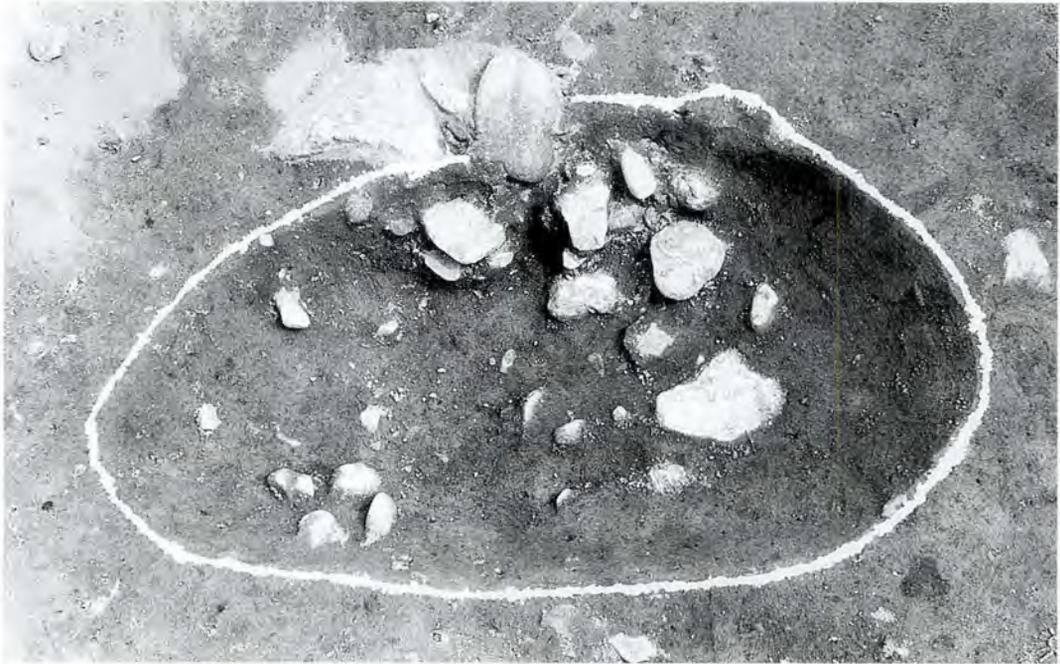


사진 56. 2호 소형유구(①~⑬)와 3호 소형유구(⑭~⑯) 출토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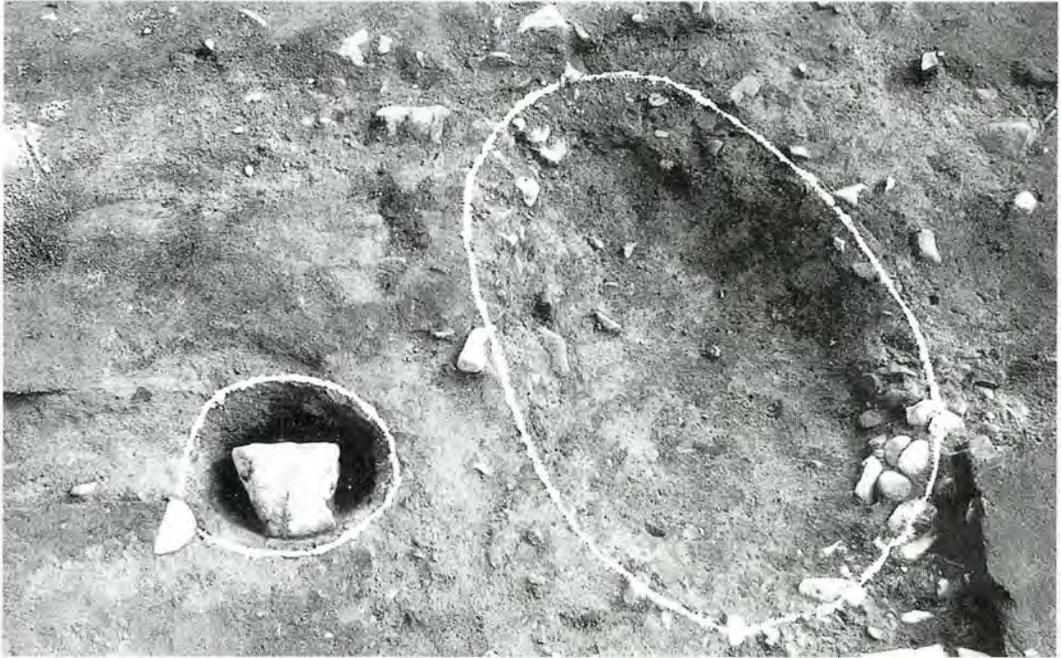


①



②

사진 57. 4호(①), 5호(②) 소형유구 전경



①



②



③



④



⑤



⑥

사진 58. 6호 소형유구(①)와 출토 토기(②-⑥)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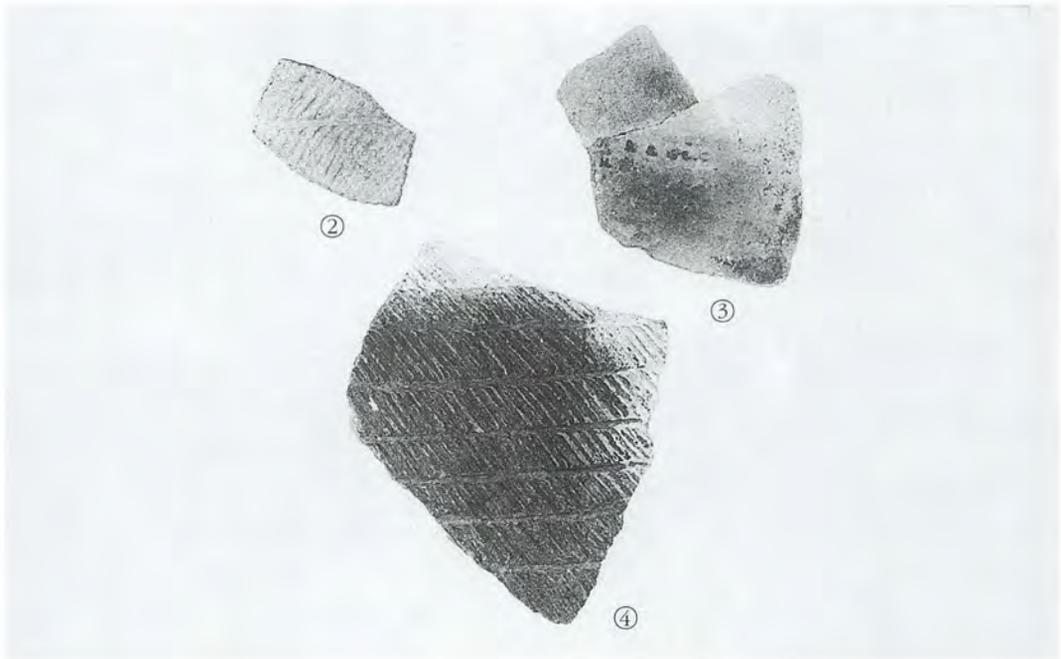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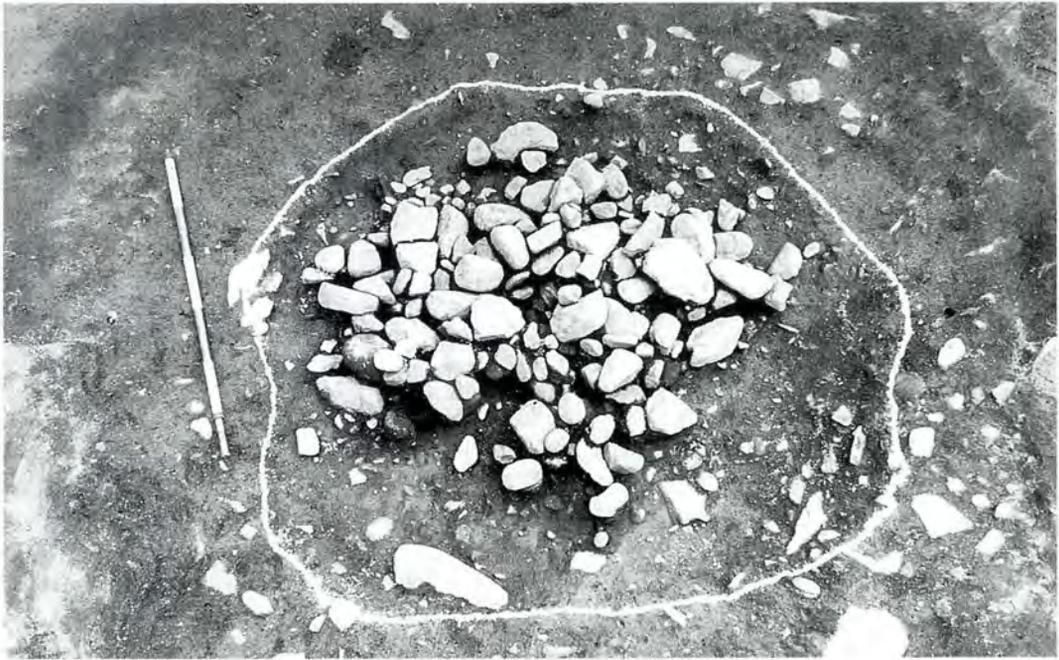


사진 59. 7호 소형유구(①)와 출토 토기(②~④)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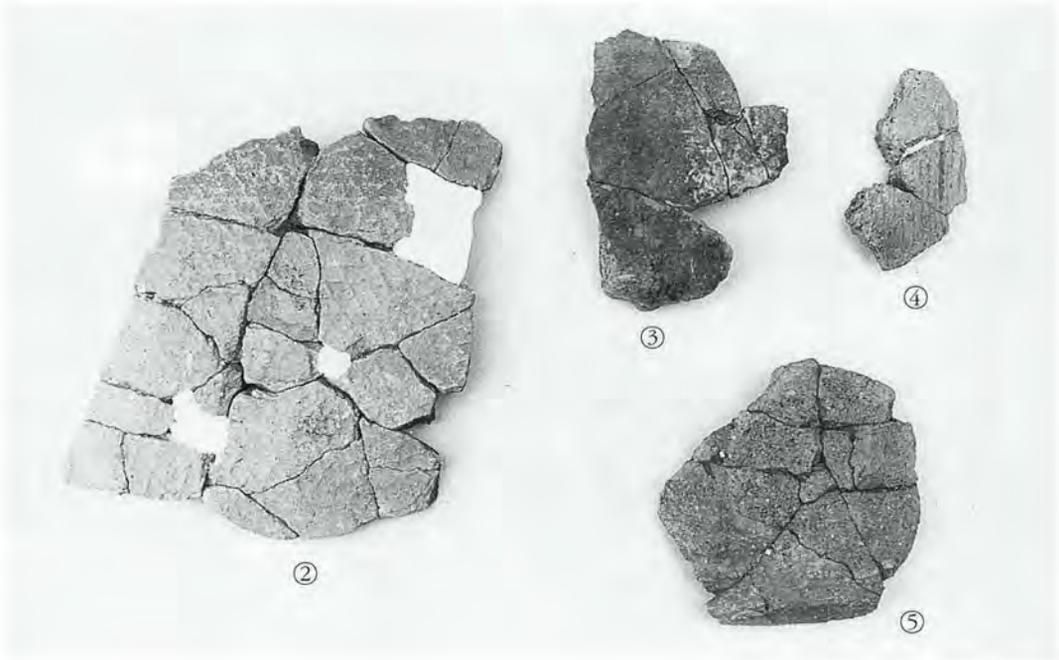


사진 60. 8호 소형유구(①)와 출토 토기(②~⑤)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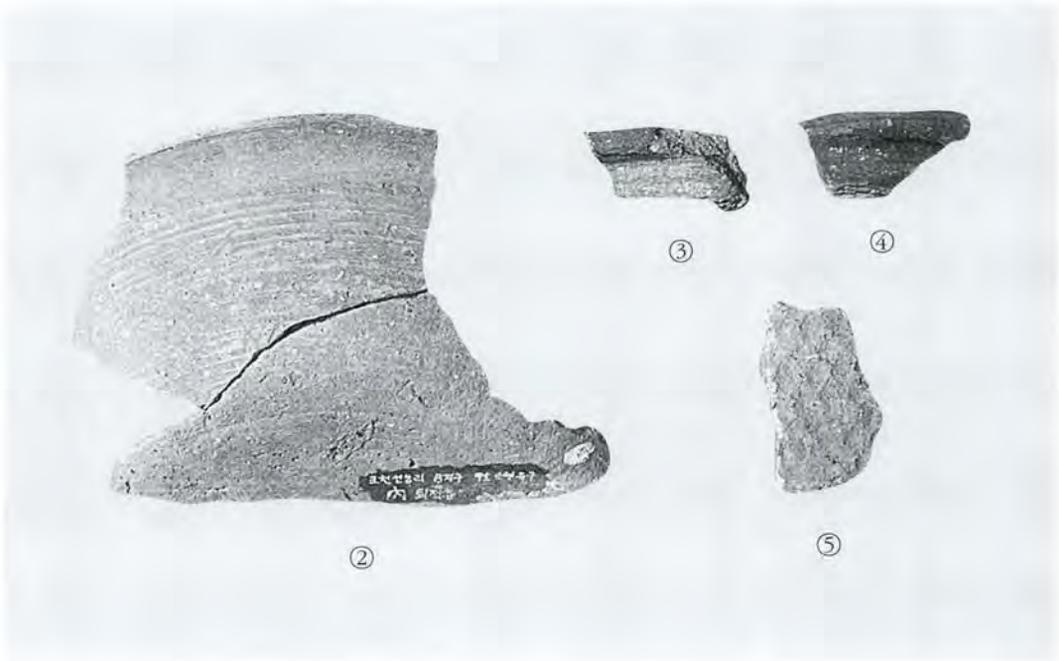


사진 61. 9호 소형유구(①)와 출토 토기(②-⑤)



①



②



③

사진 62. 10호(②), 11호(③) 소형유구와 중복 상태(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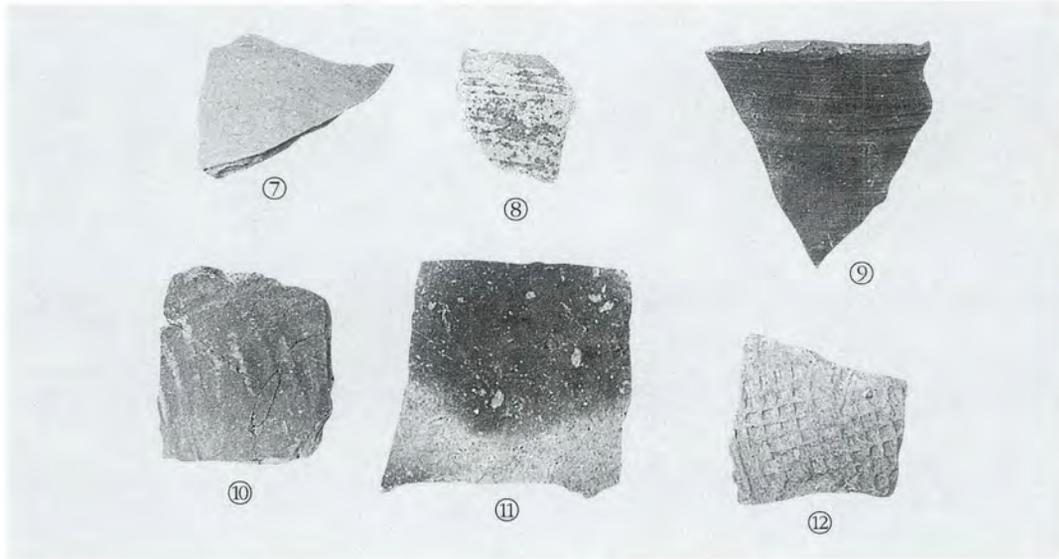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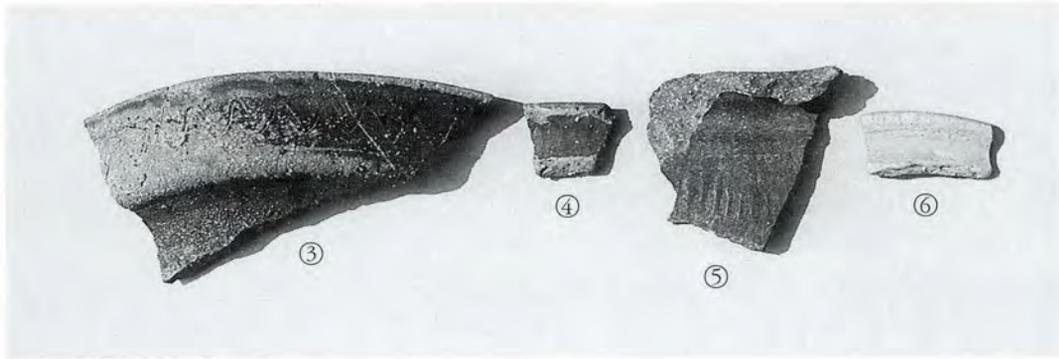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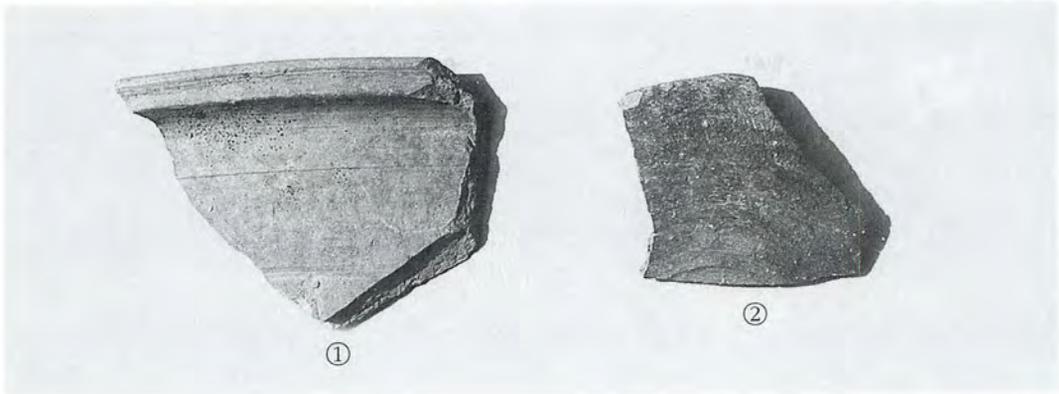


사진 63. 10호 소형유구(①, ②), 11호 소형유구(③~⑫) 출토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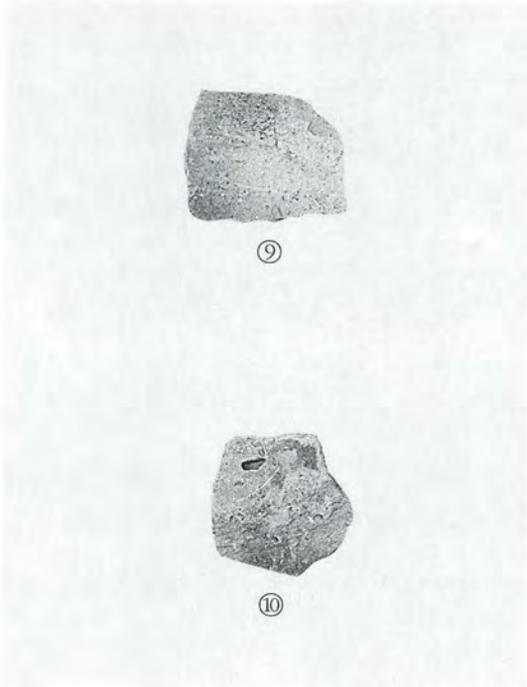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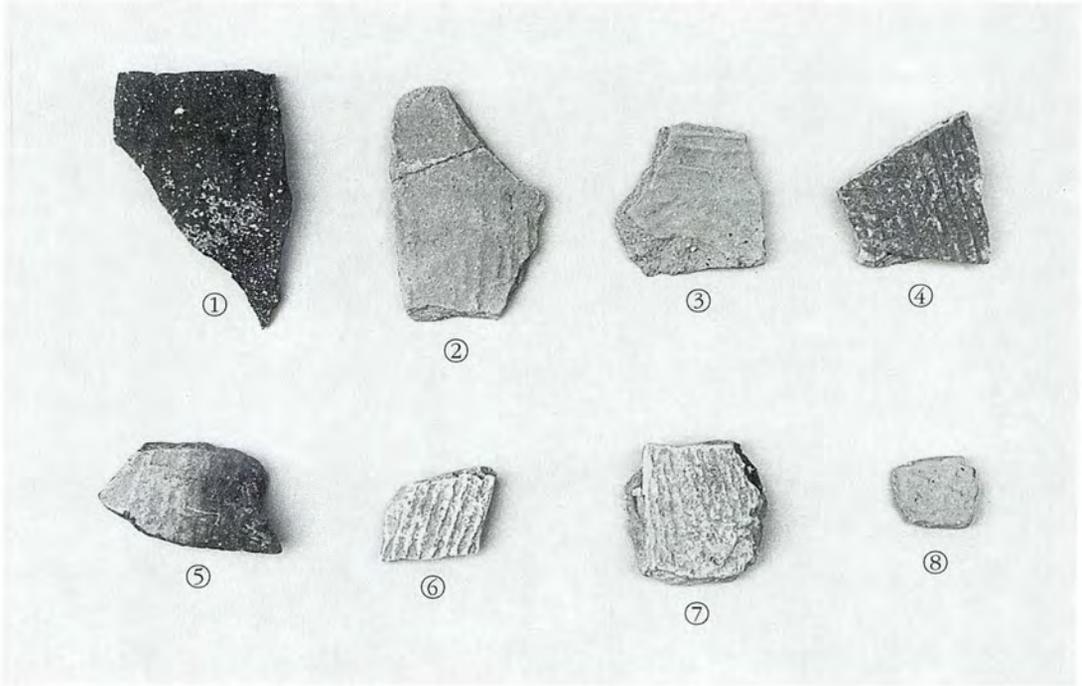


사진 64. 11호 소형유구 출토 유물(①~⑾)



①



②

사진 65. 12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철검 출토 상태)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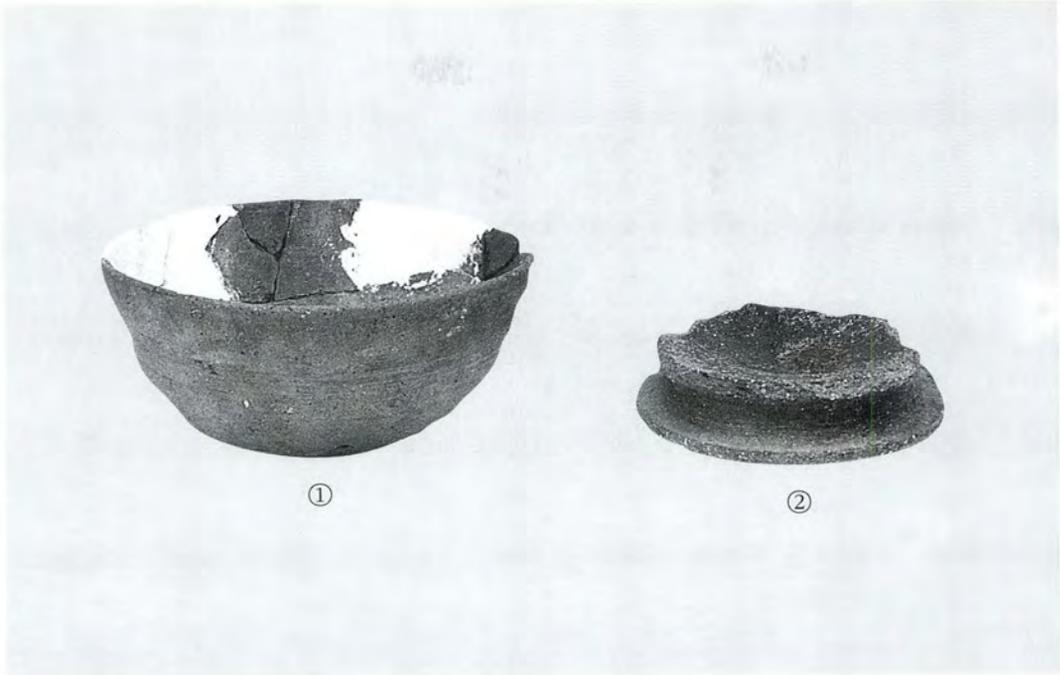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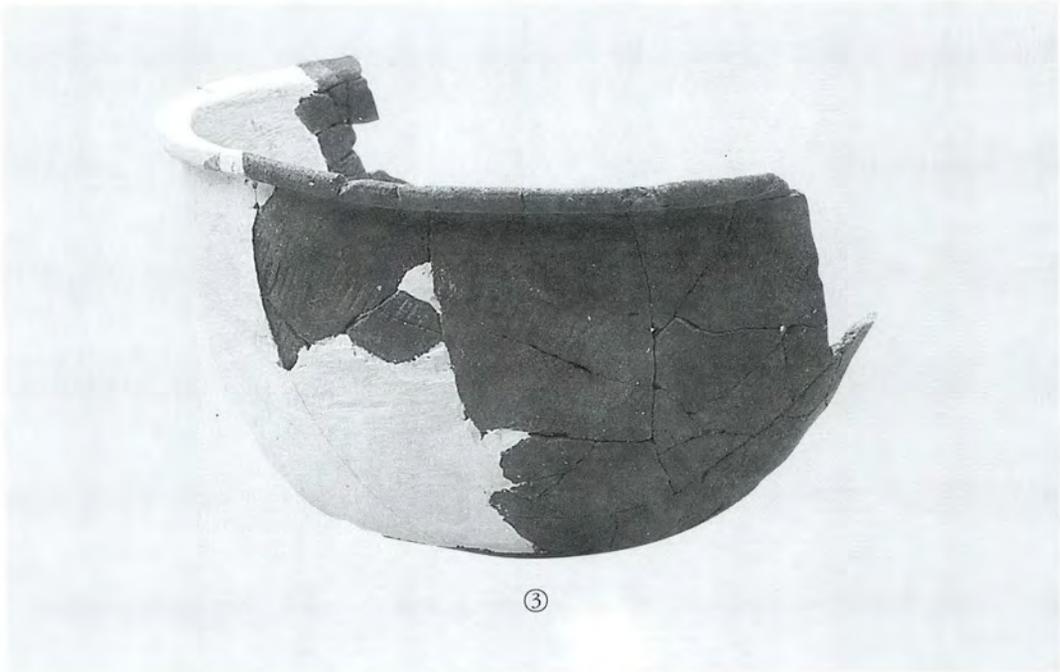
④

사진 66. 1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④)



①

②



③

사진 67. 1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③)



①



②



③



④



⑤



⑥

사진 68. 1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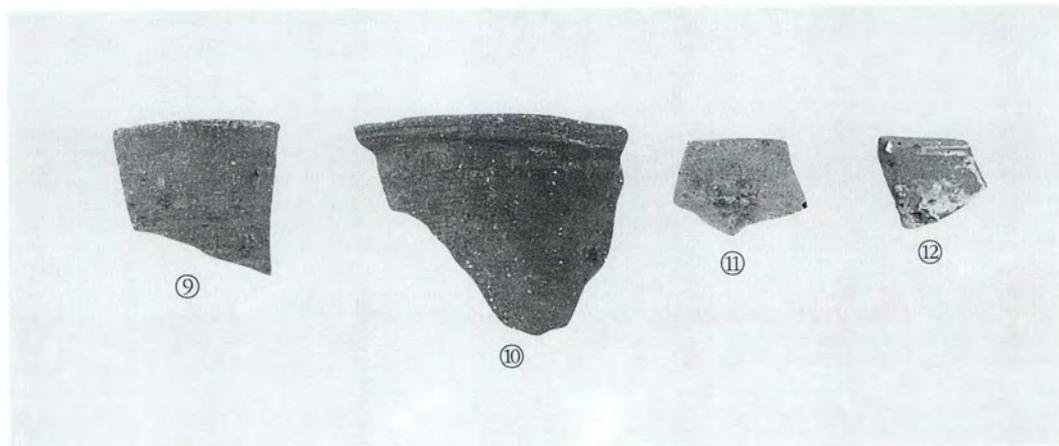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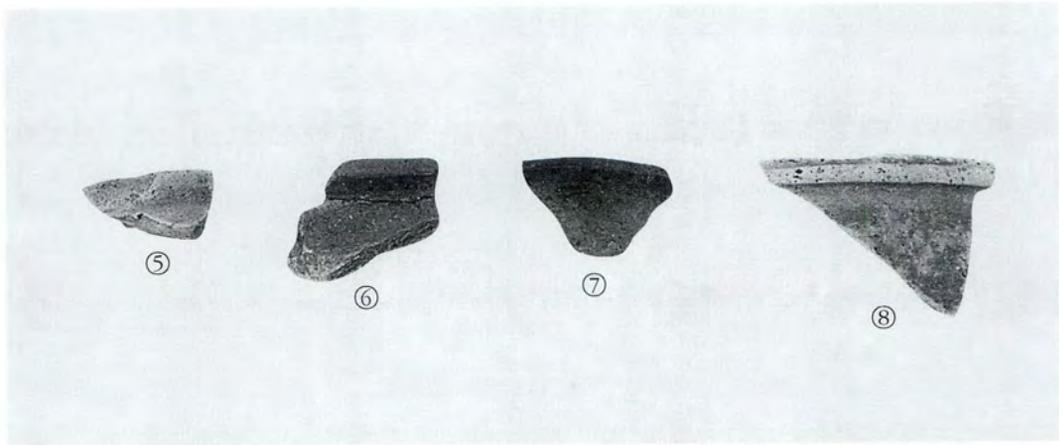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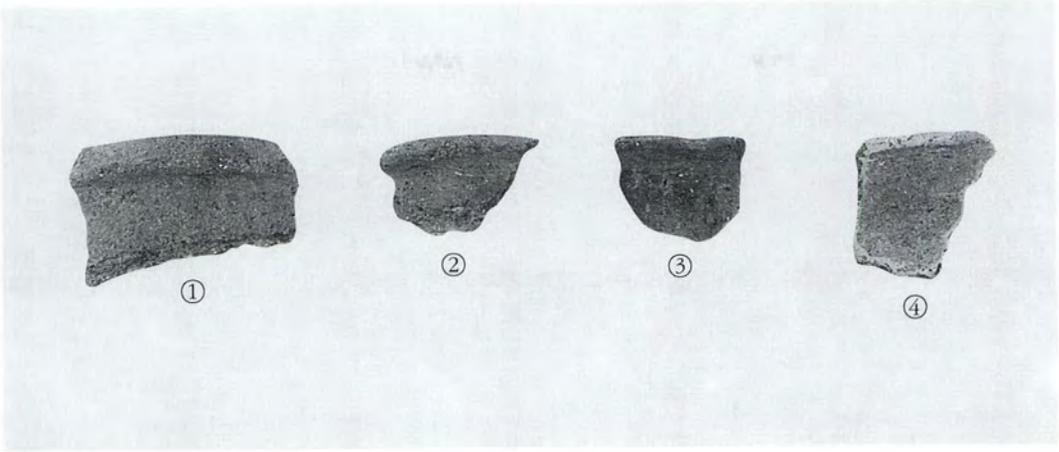


사진 69. 1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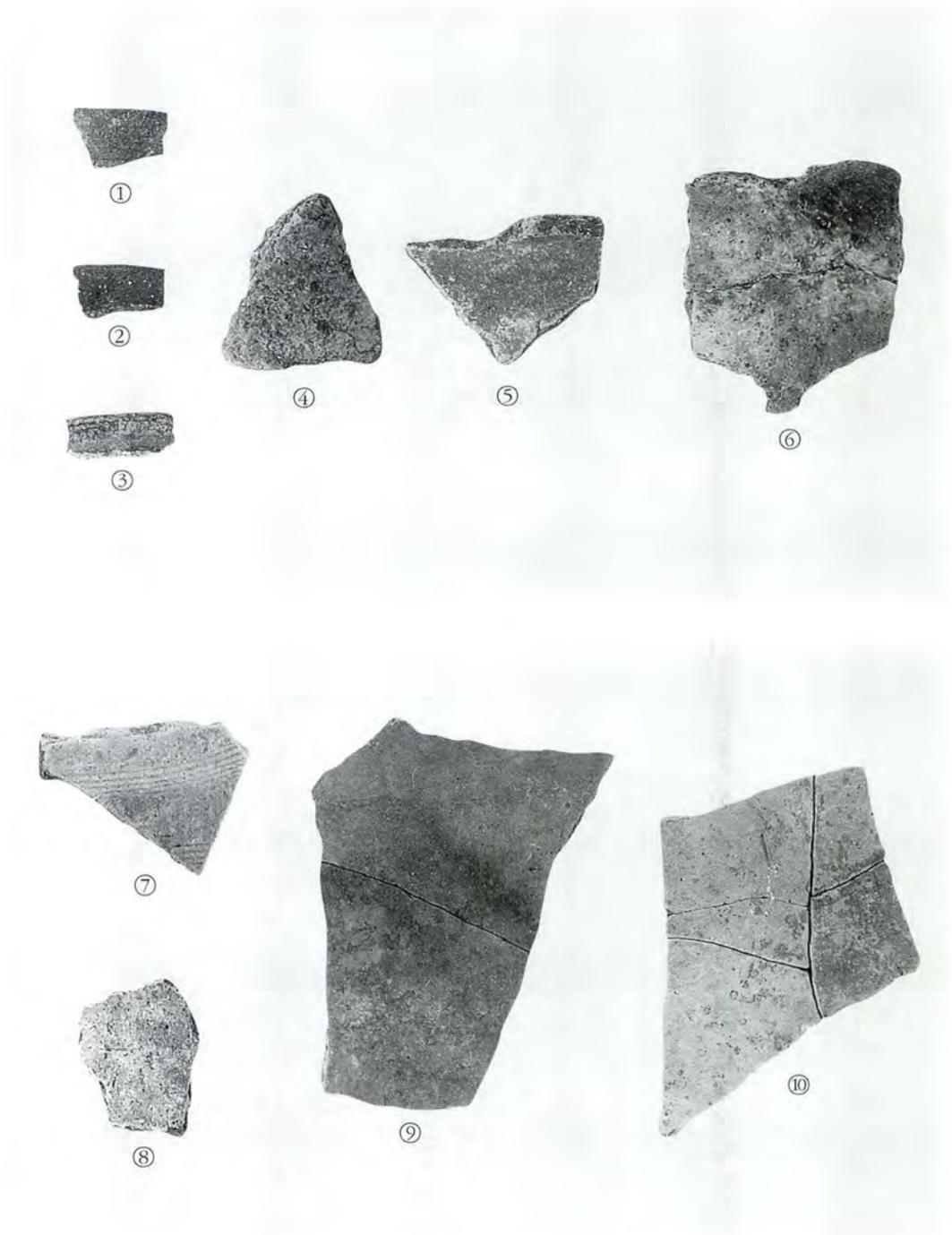


사진 70. 1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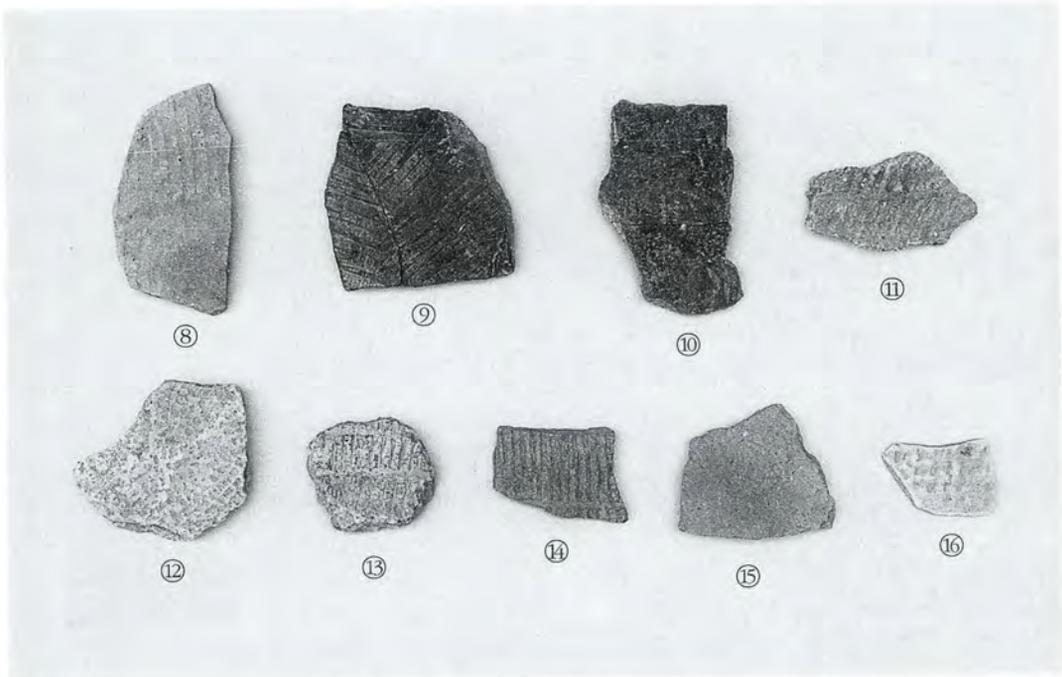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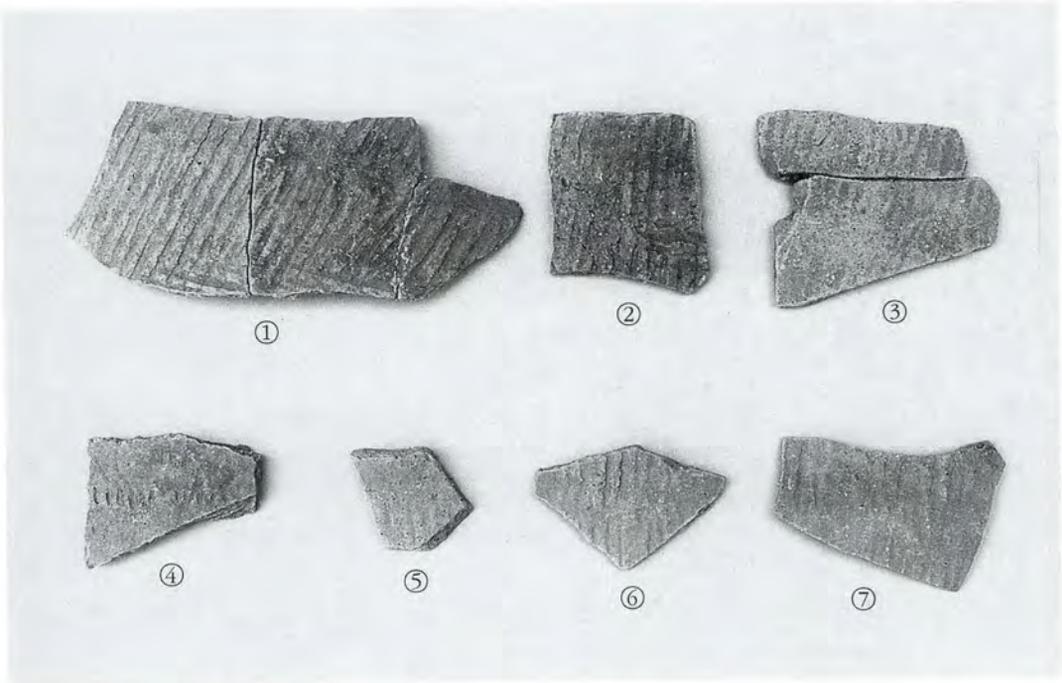


사진 71. 1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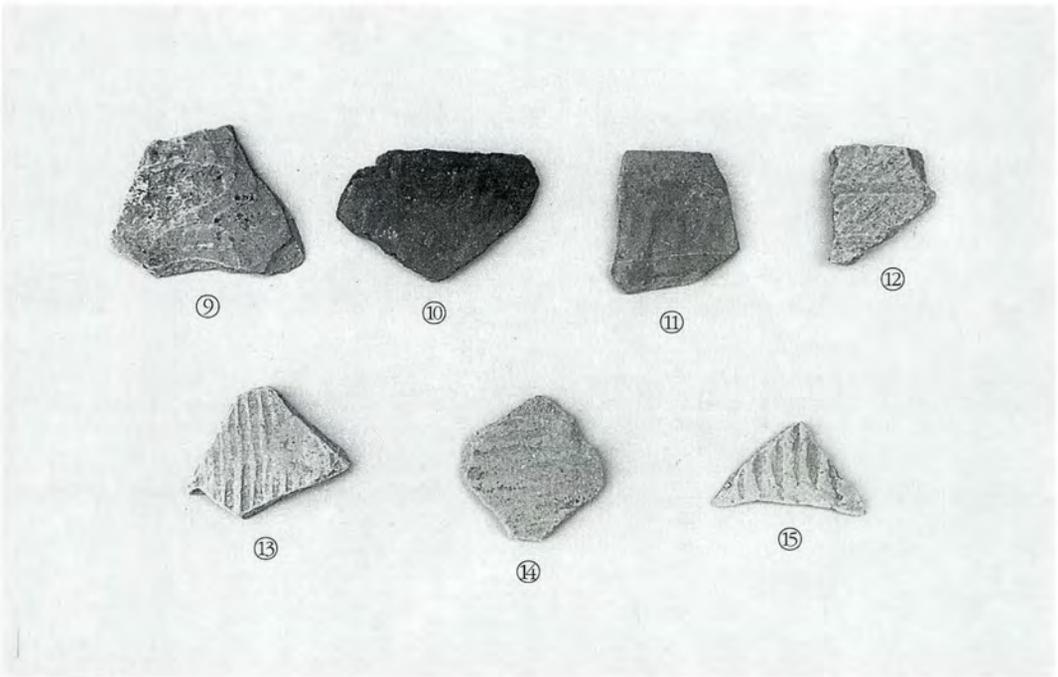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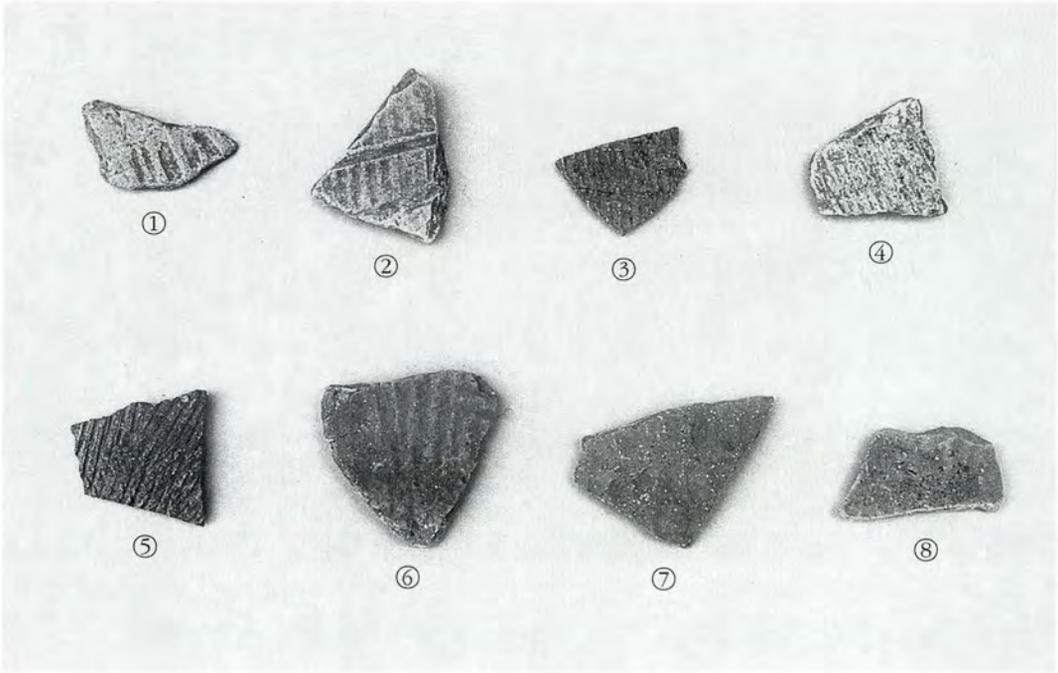


사진 72. 1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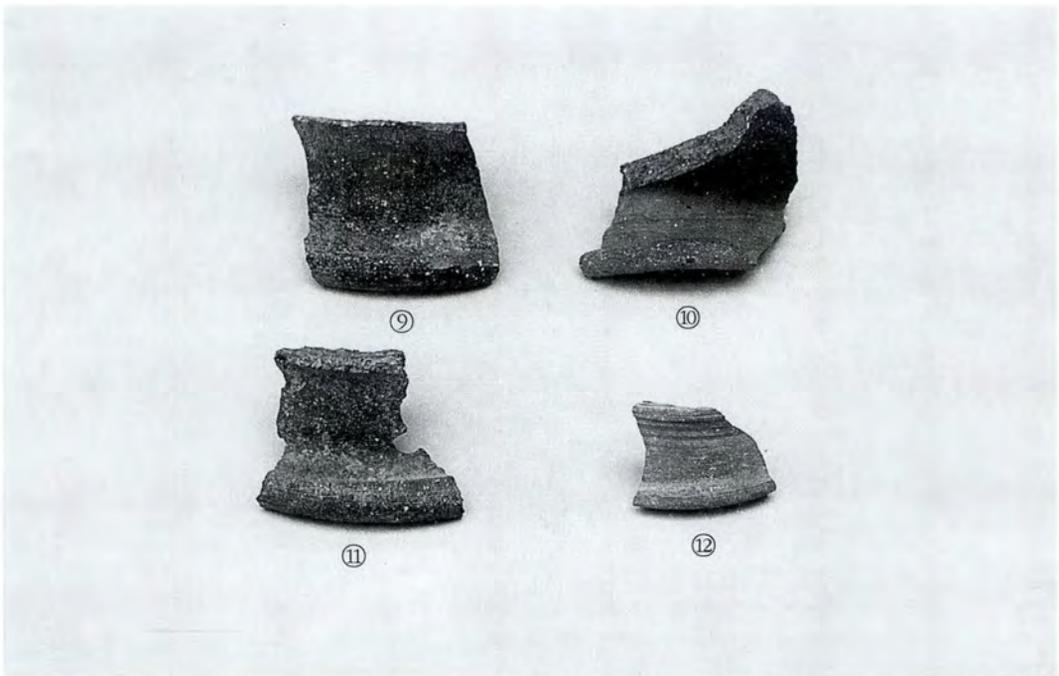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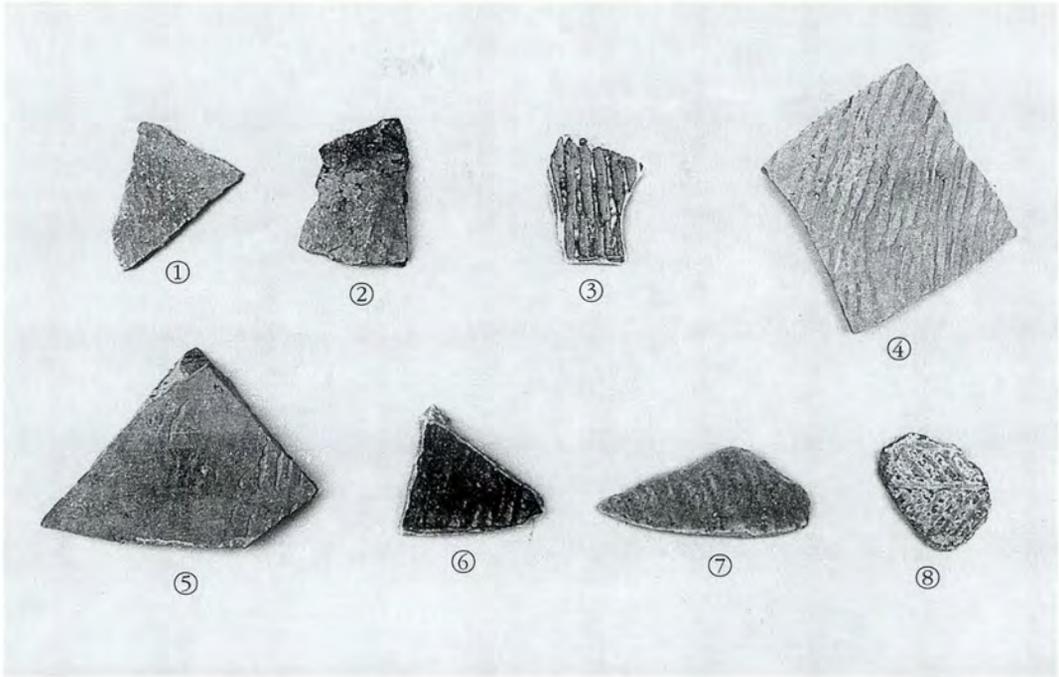


사진 73. 1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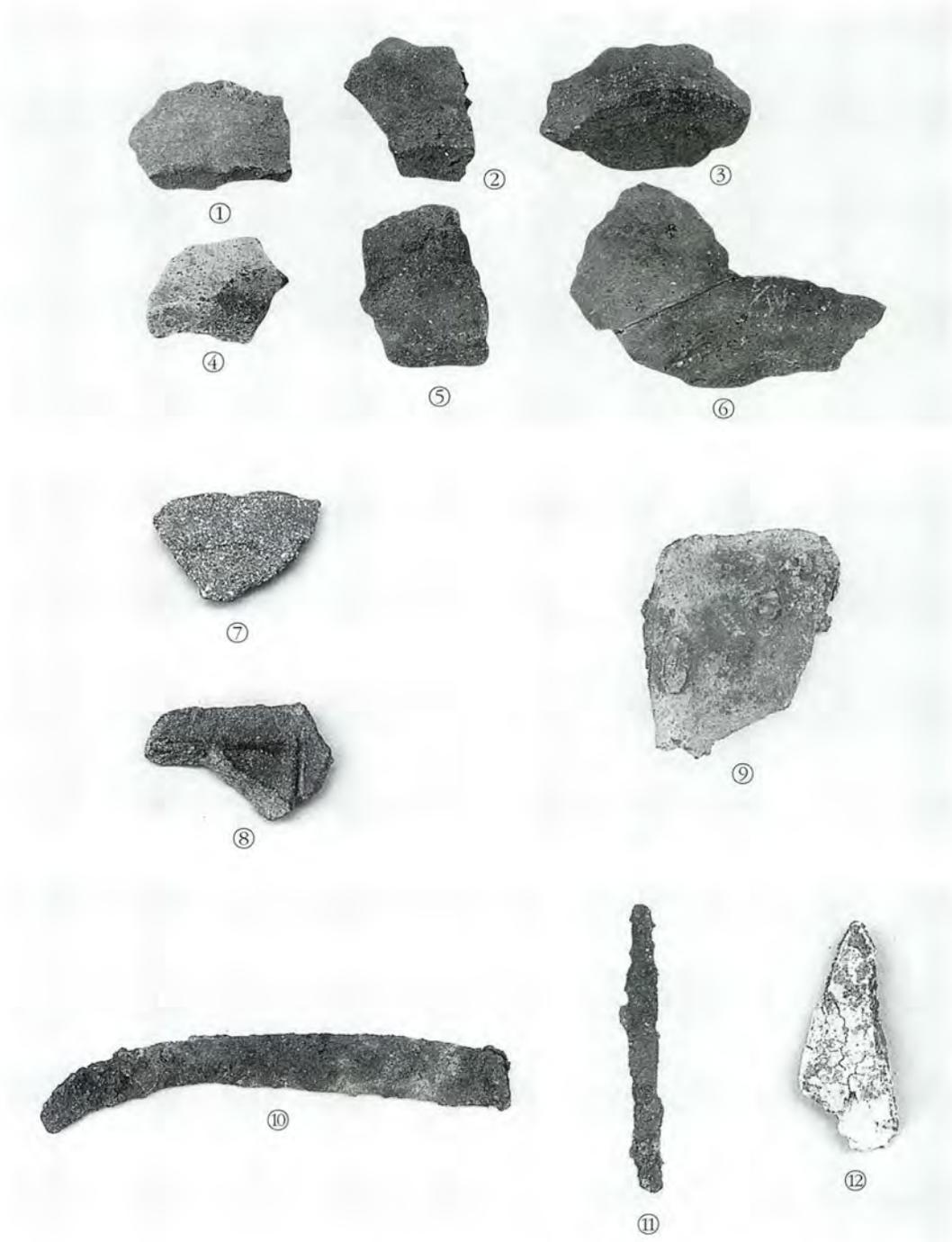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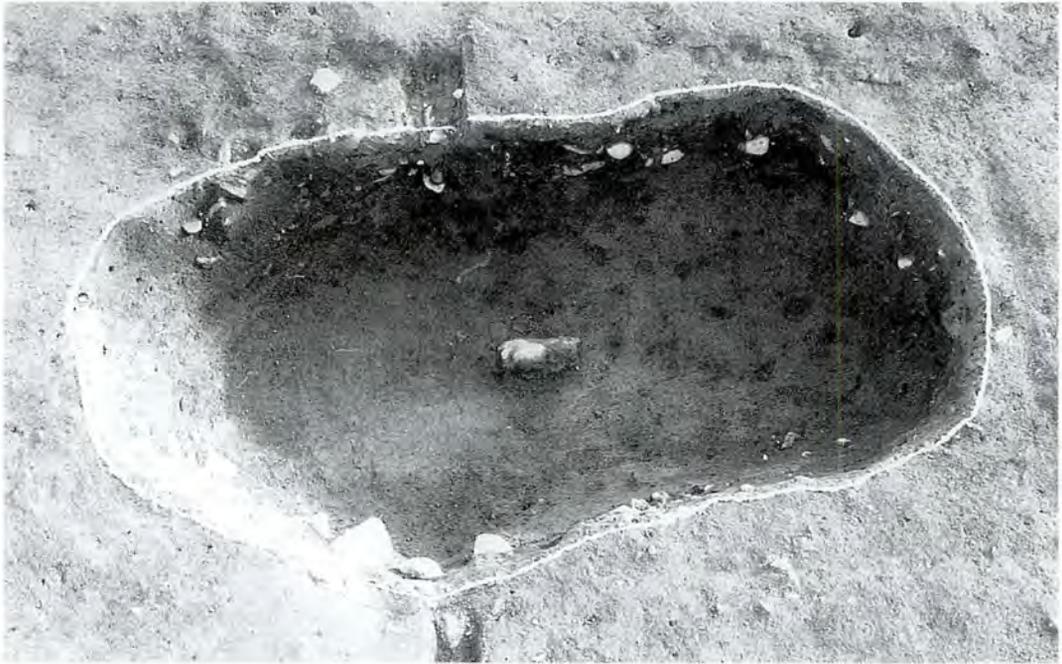


사진 74. 12호 소형유구 출토 유물(①~⑫)



①



②

사진 75. 13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내부 층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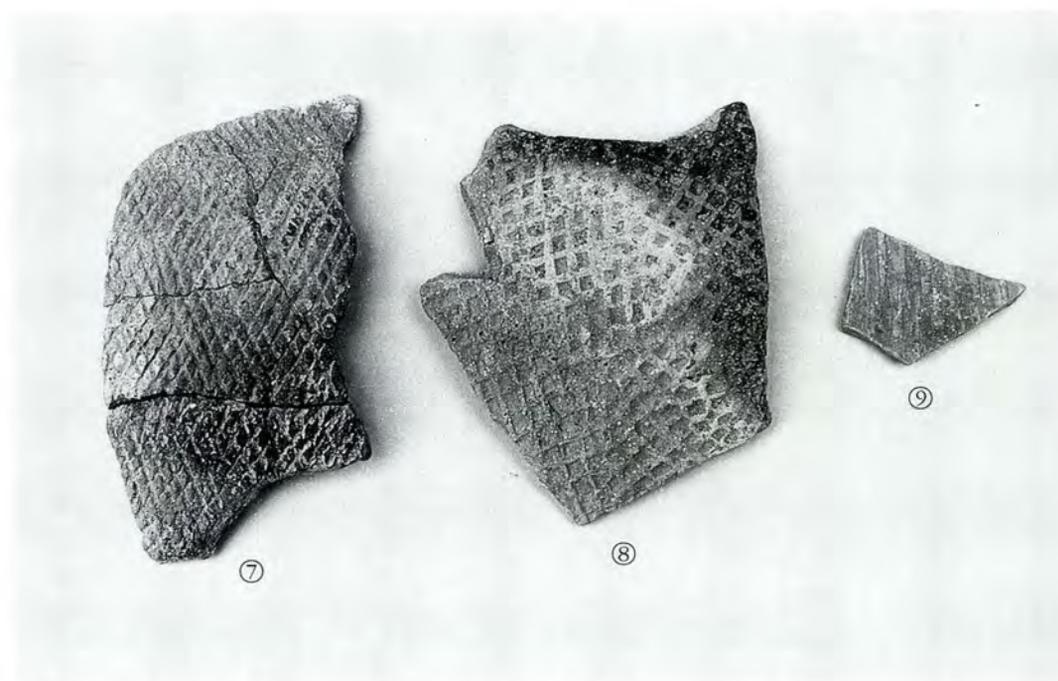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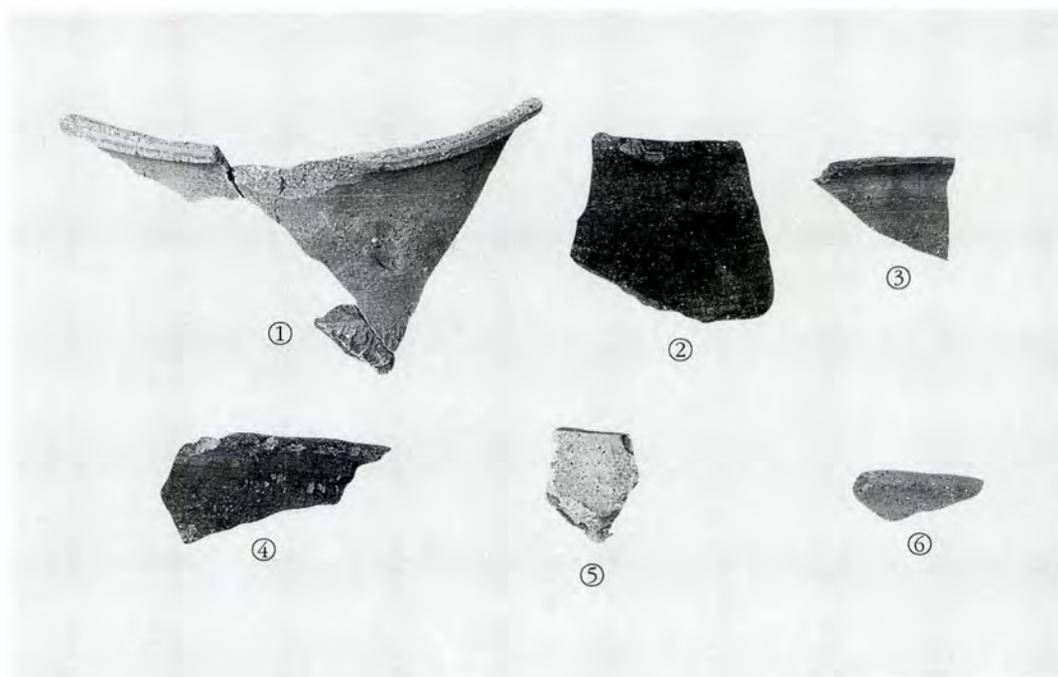


사진 76. 13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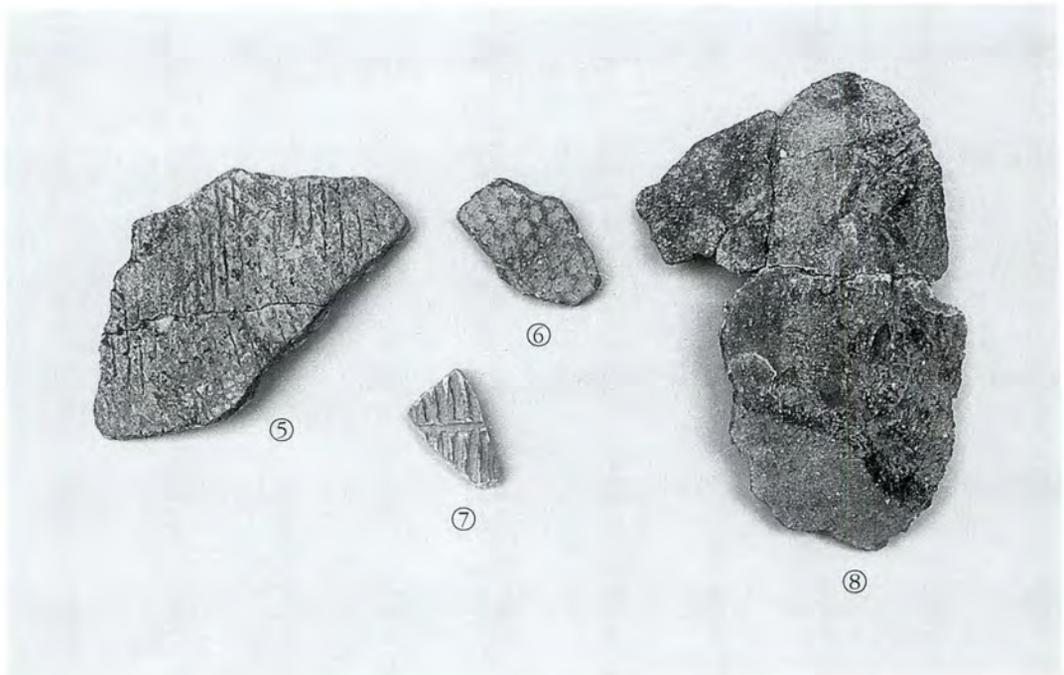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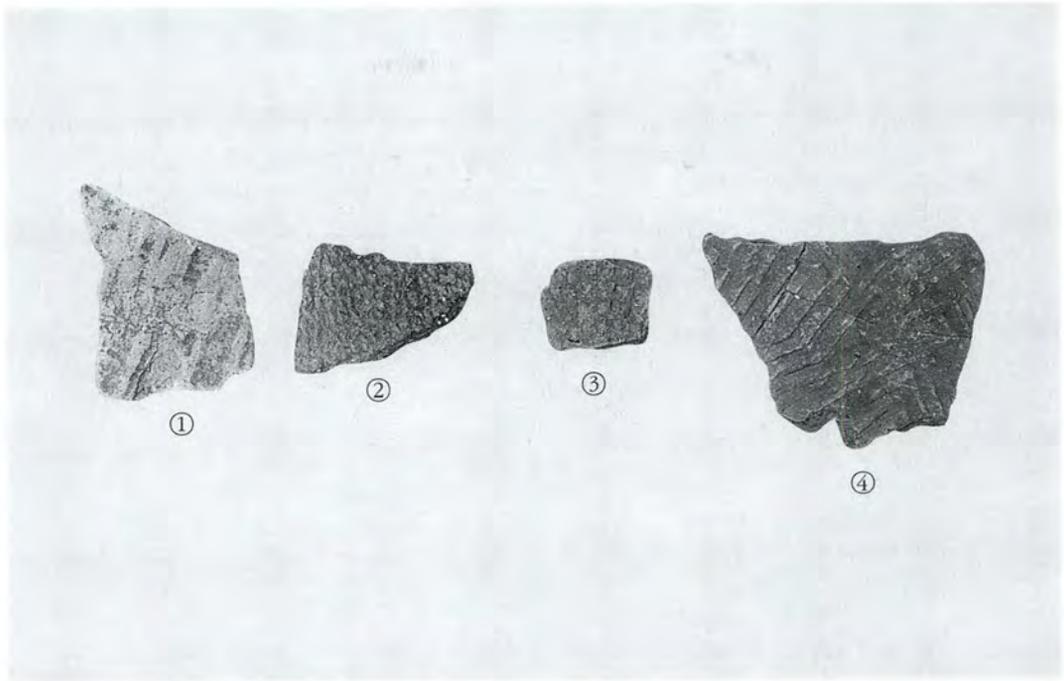


사진 77. 13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⑧)



①



②

사진 78. 14호(①), 15호(②) 소형유구 전경



①



②



사진 79. 16호 소형유구 전경(①:내부 층위, ②:구슬 출토 상태)과 출토 유물(③~⑤)



①



②

사진 80. 17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동물이빨 출토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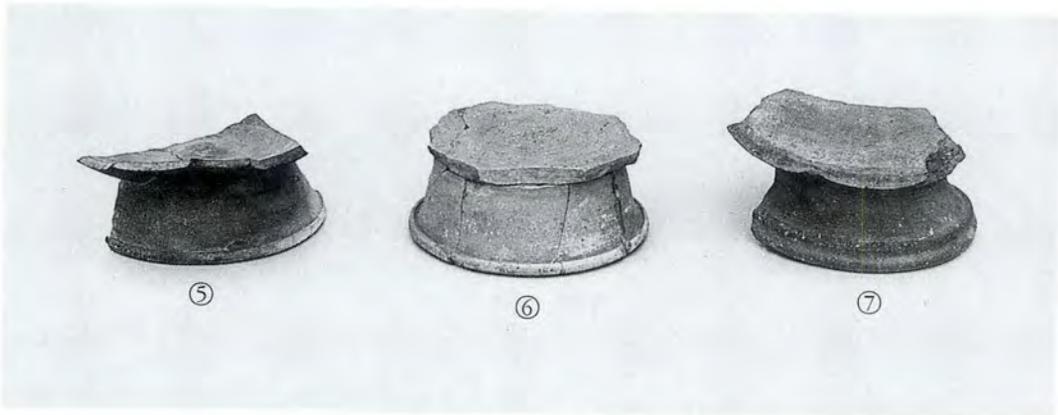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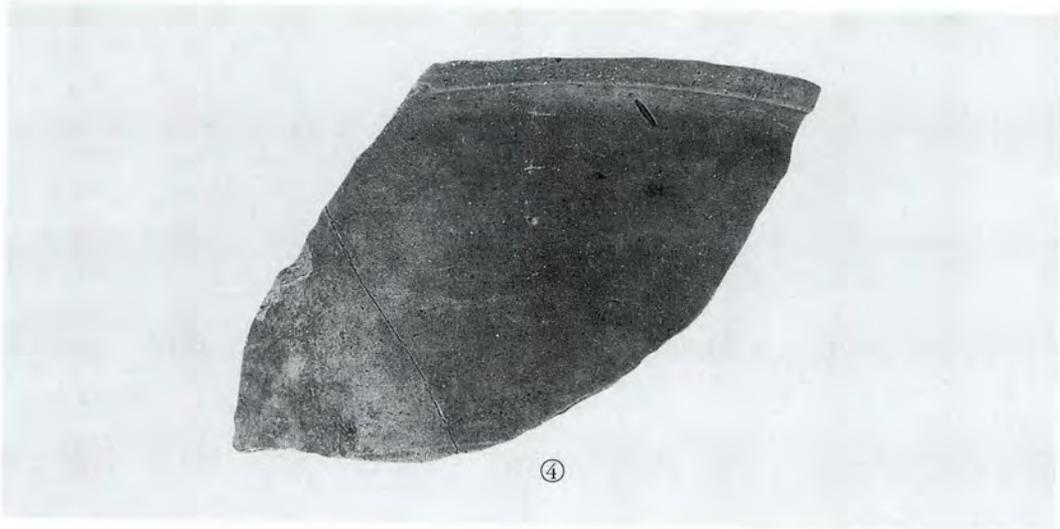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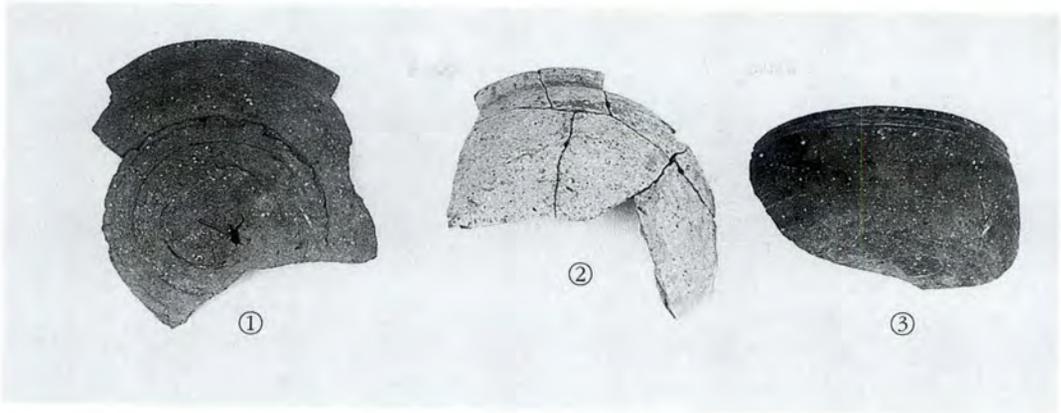


사진 81. 17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⑦)



사진 82. 17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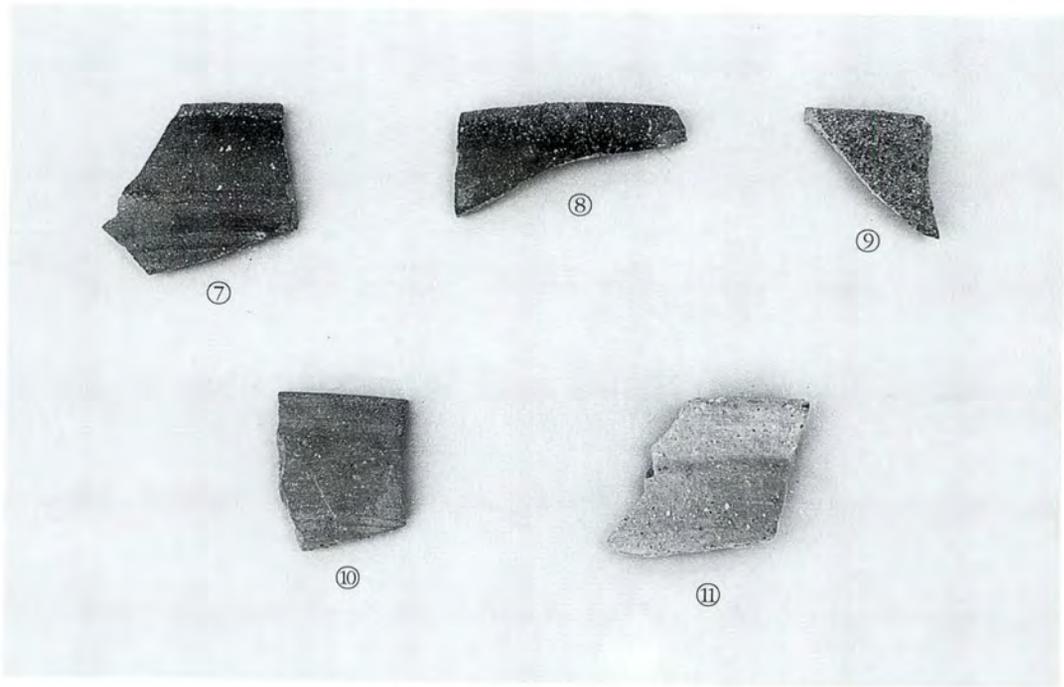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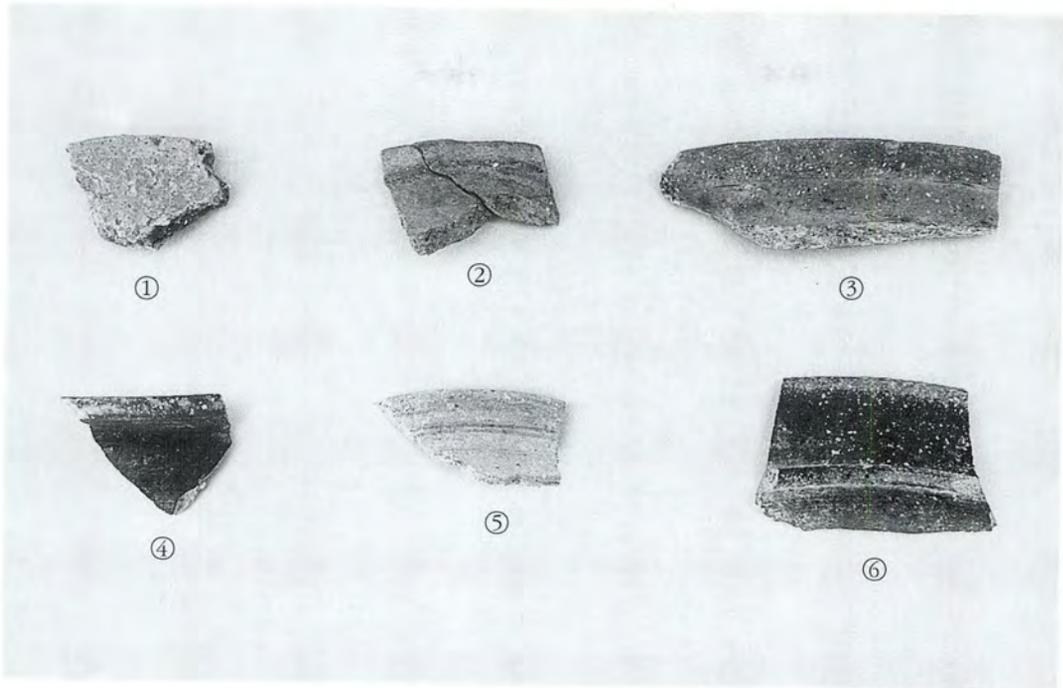


사진 83. 17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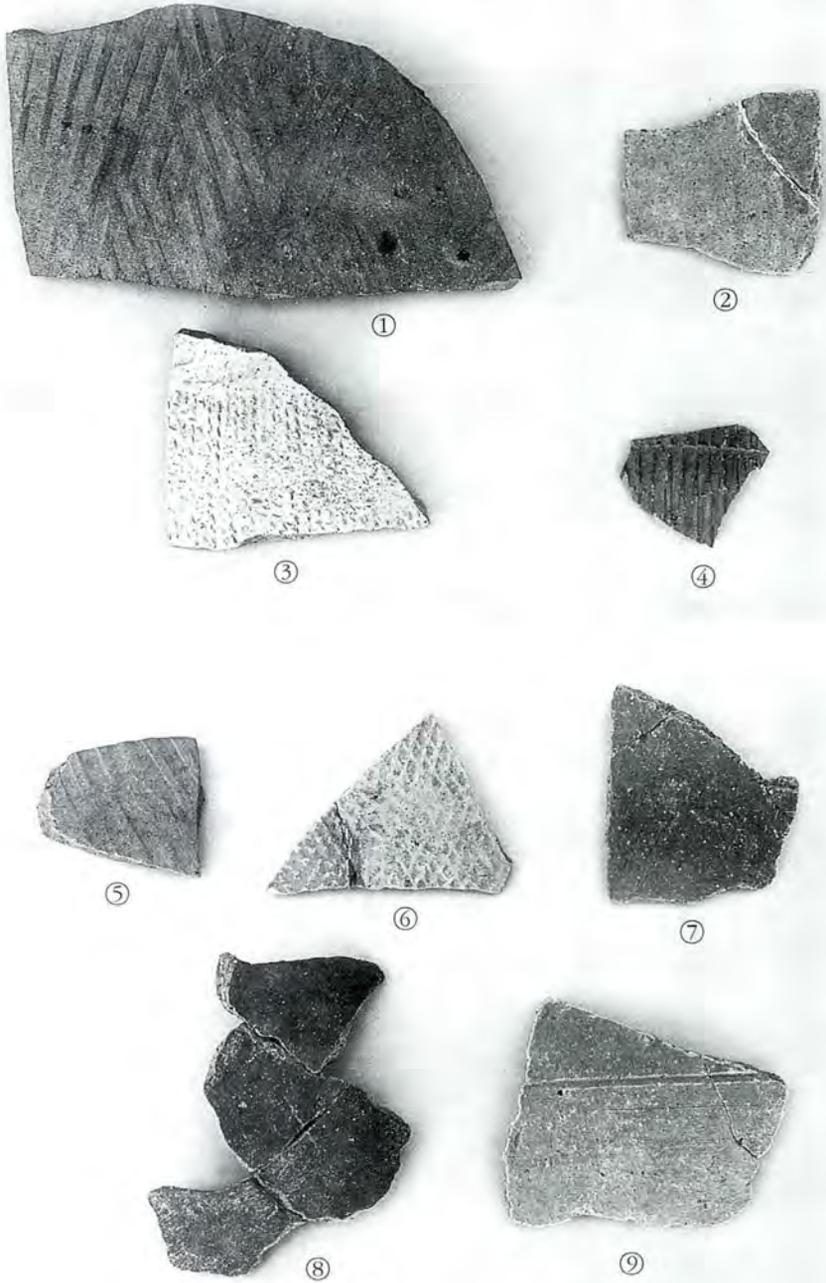


사진 84. 17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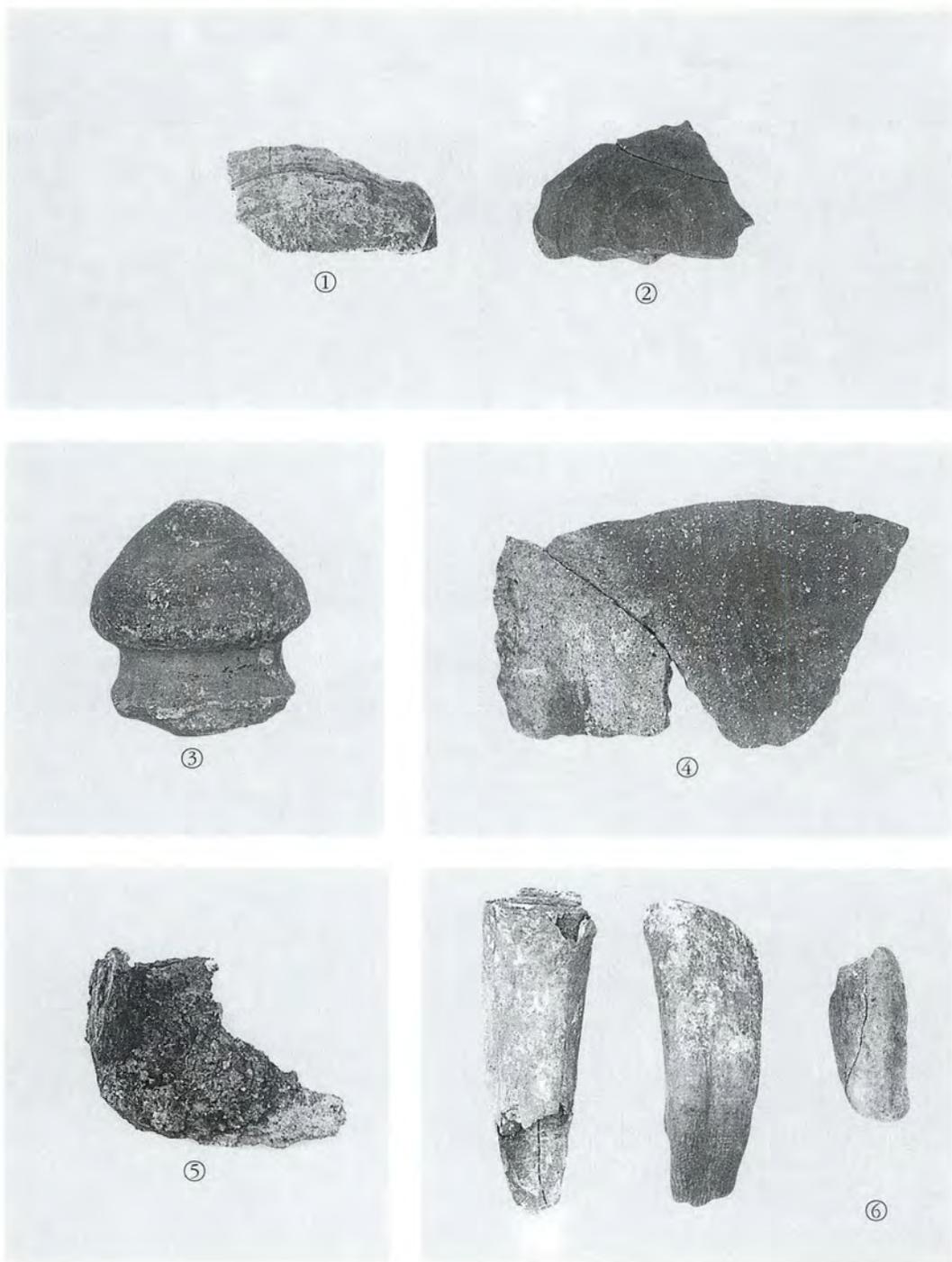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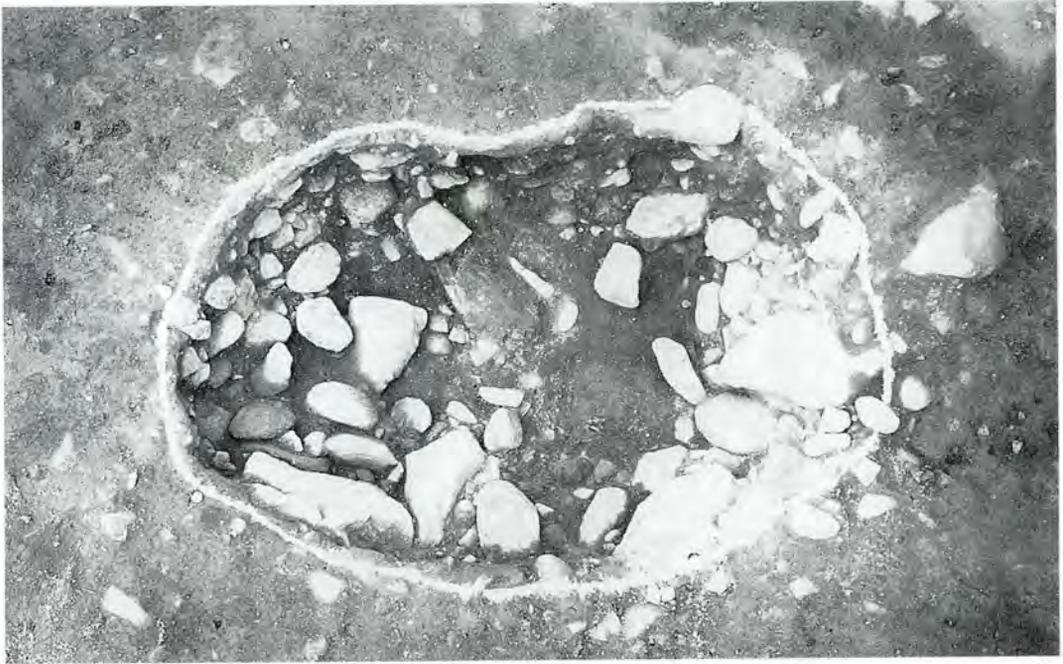


사진 85. 17호 소형유구 출토 유물(①~⑥)



①



②

사진 86. 18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내부 층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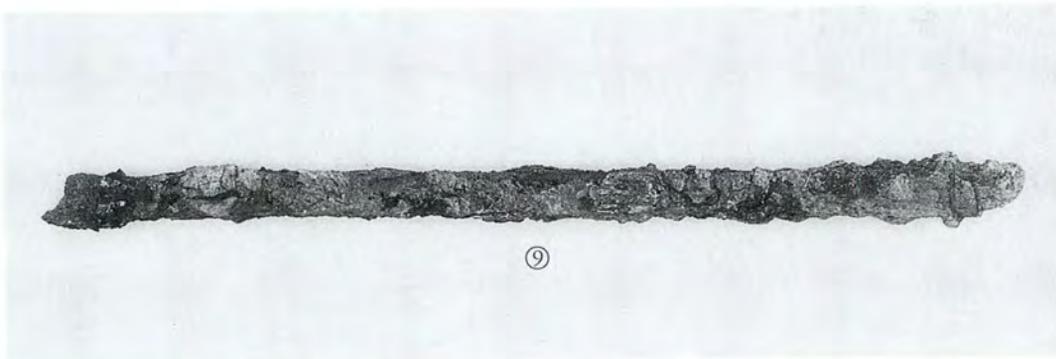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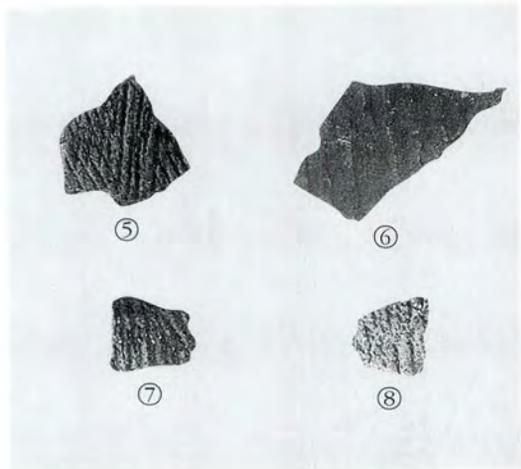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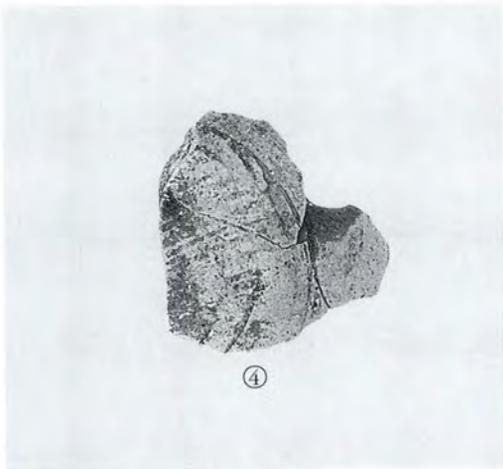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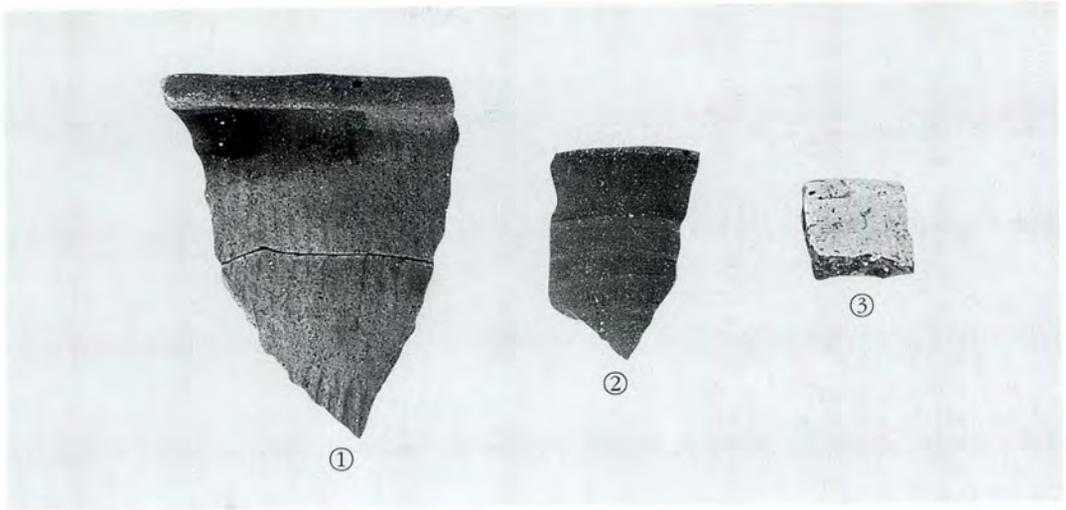


사진 87. 18호 소형유구 출토 유물(①~⑨)



①



②



③

사진 88. 19호(①), 20호(③) 소형유구 전경과 19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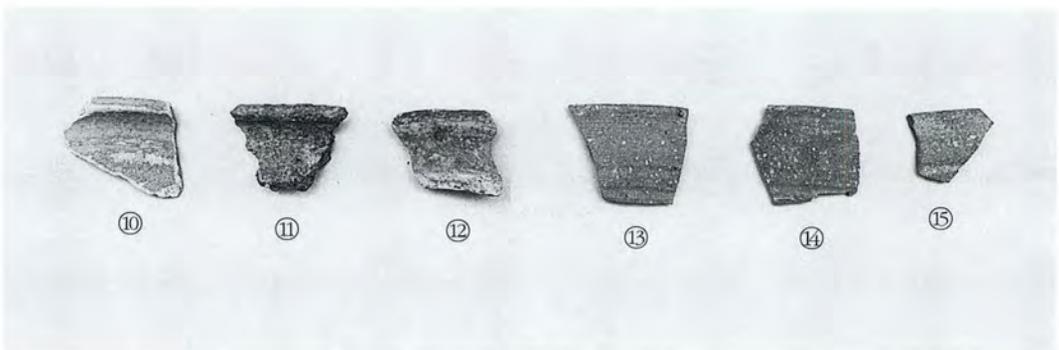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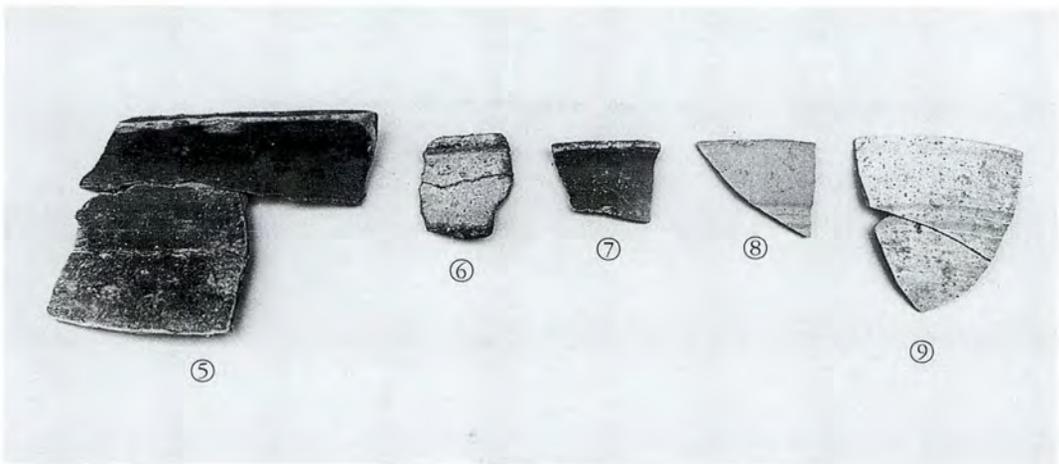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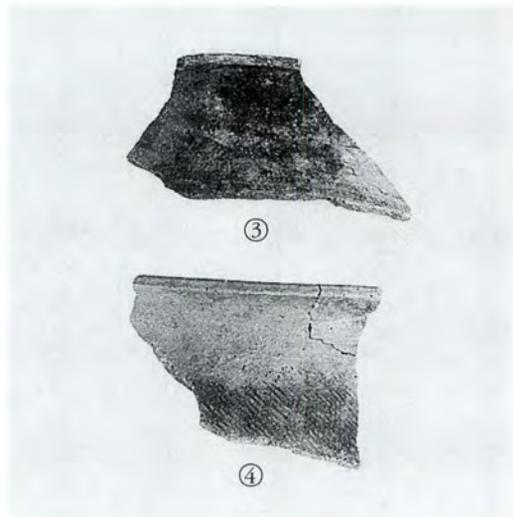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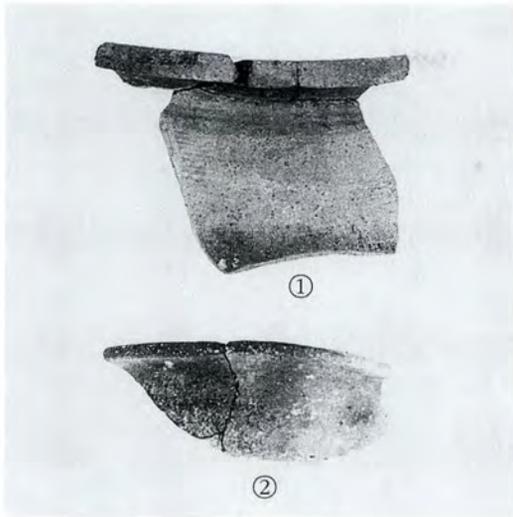


사진 89. 20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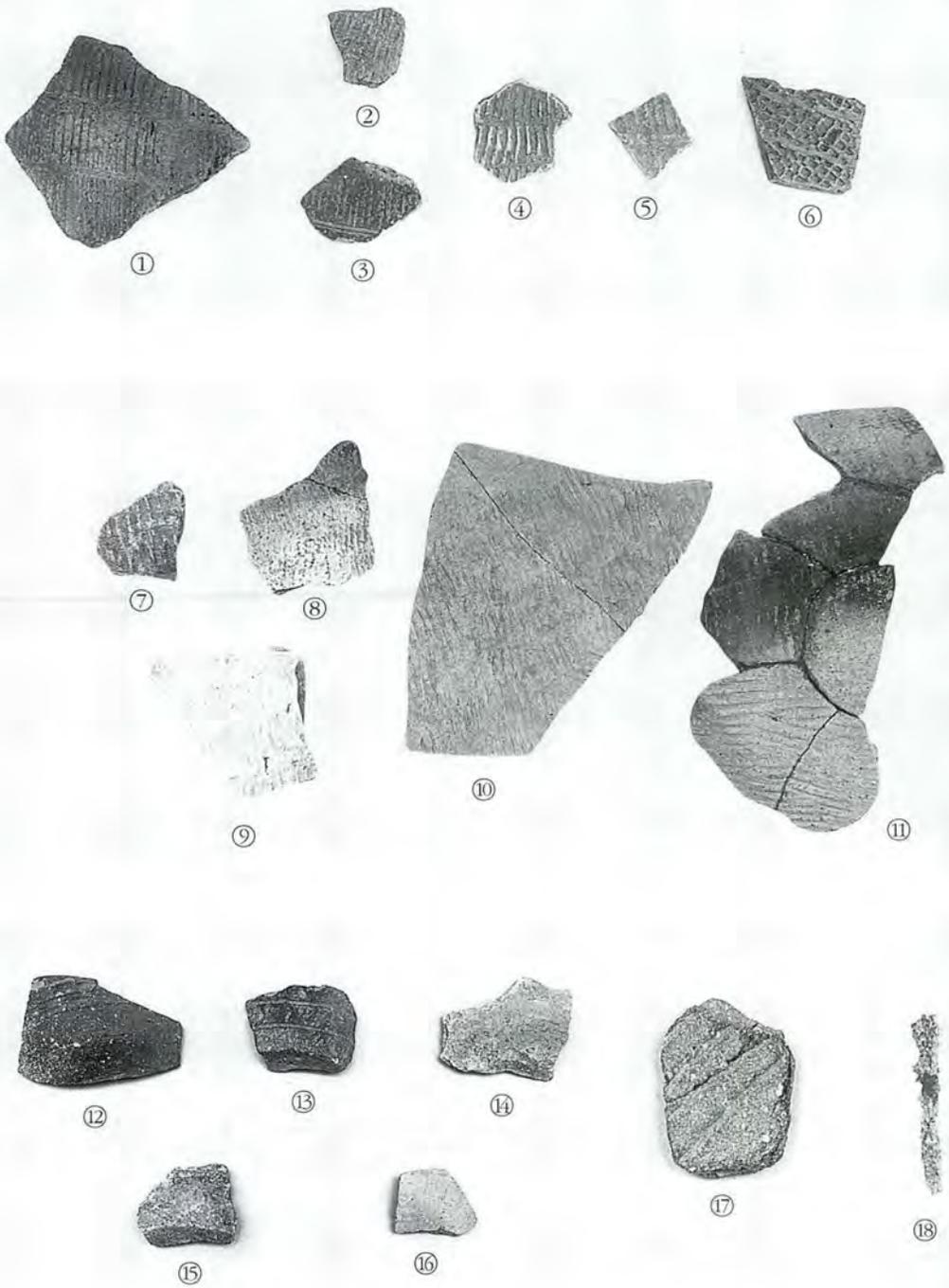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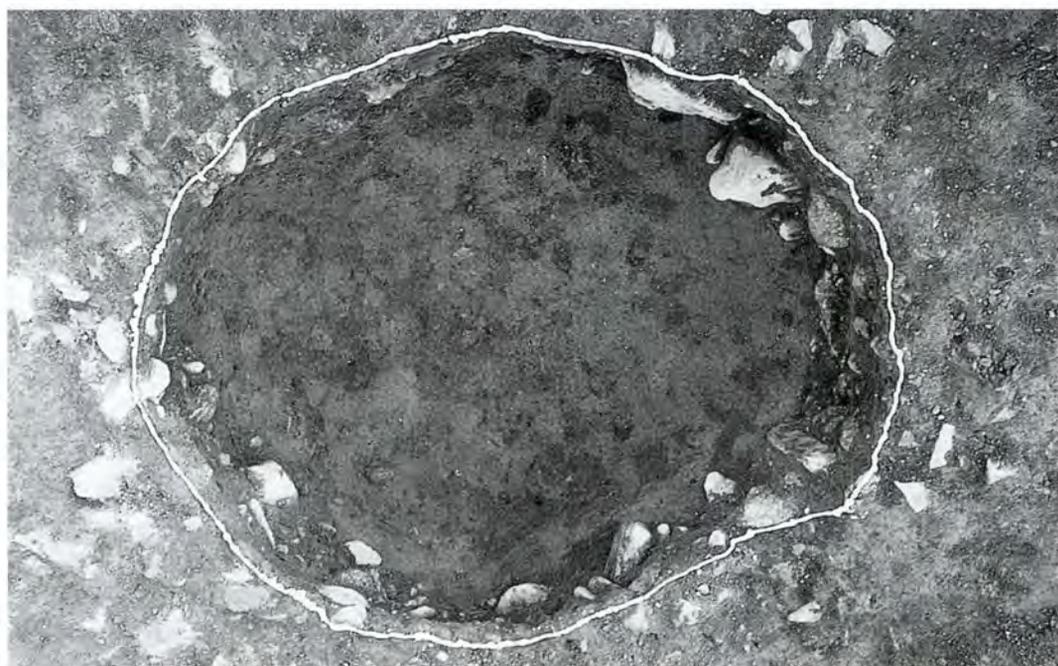


사진 90. 20호 소형유구 출토 유물(①~⑱)



①



②

사진 91. 21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내부 총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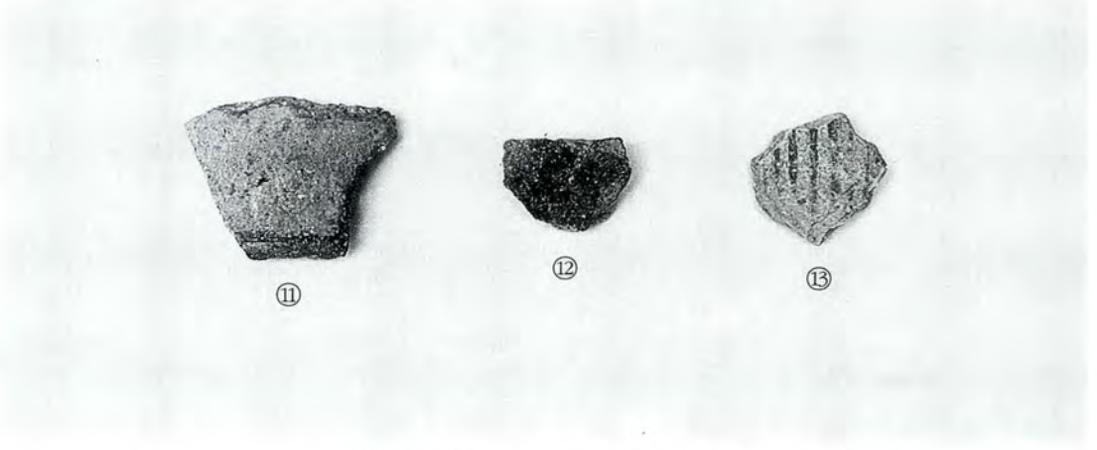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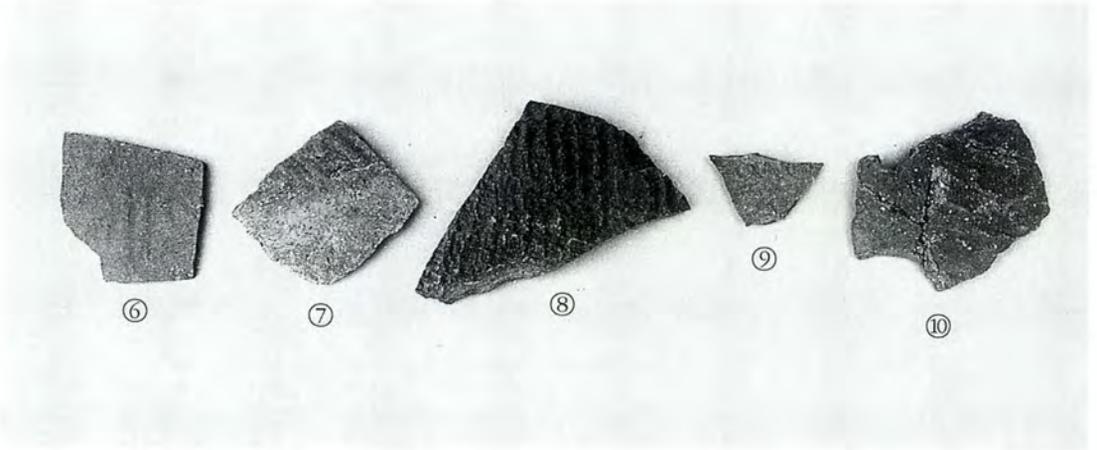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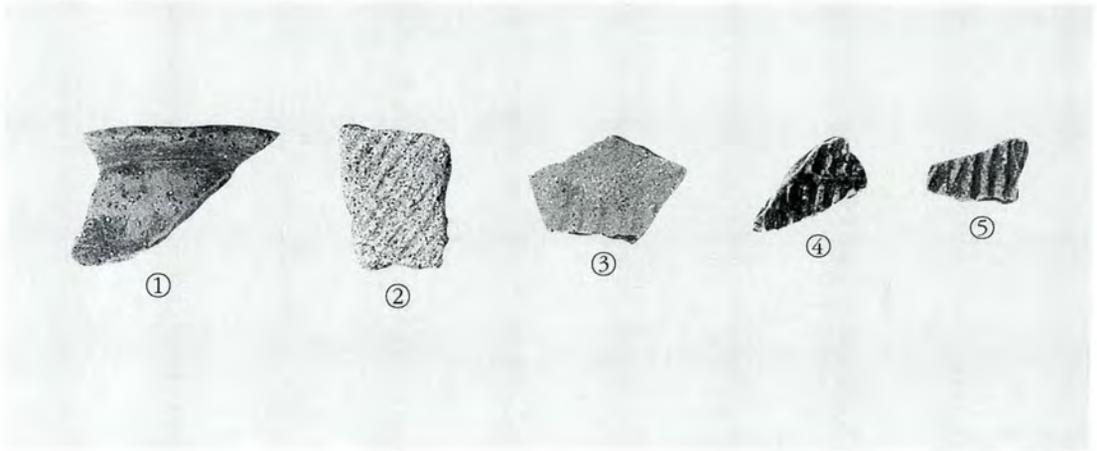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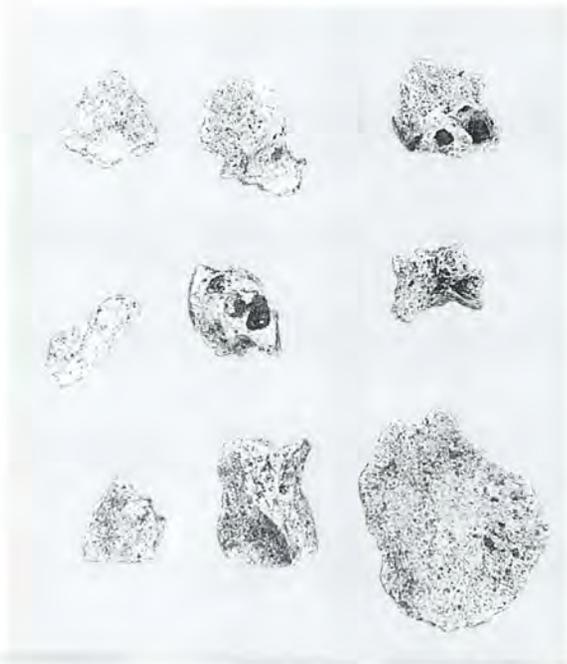


사진 92. 2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⑬)



①



②



③

사진 93. 21호 소형유구 출토 유물(①, ②)과 22호 소형유구(③)



①



②

사진 94. 22호 소형유구 내 토기 출토 상태(①)와 토기(②)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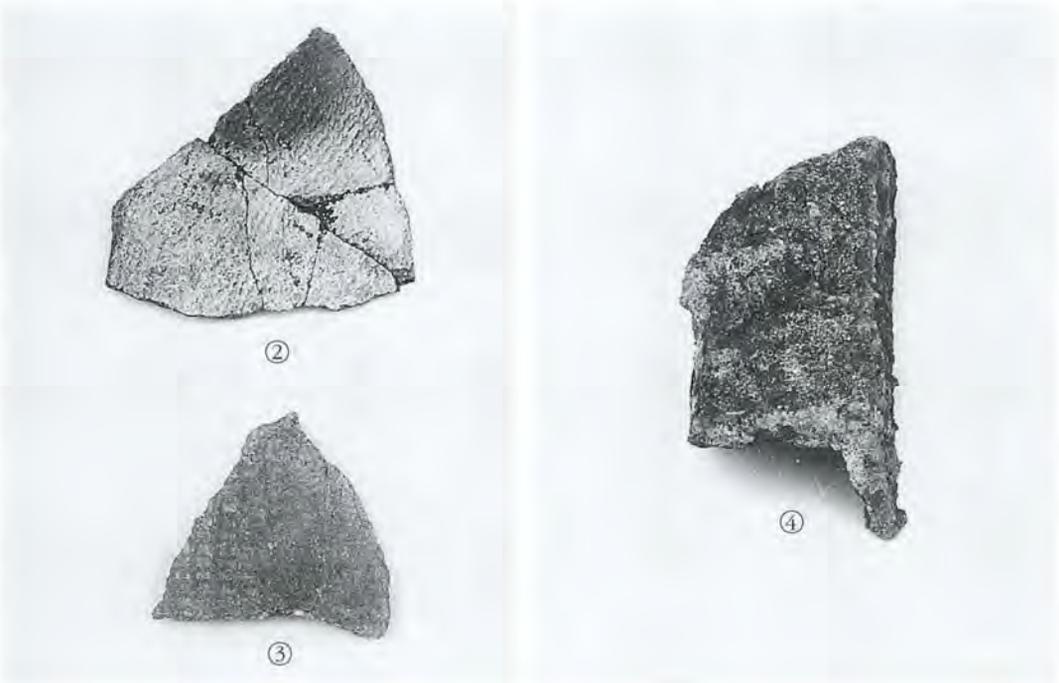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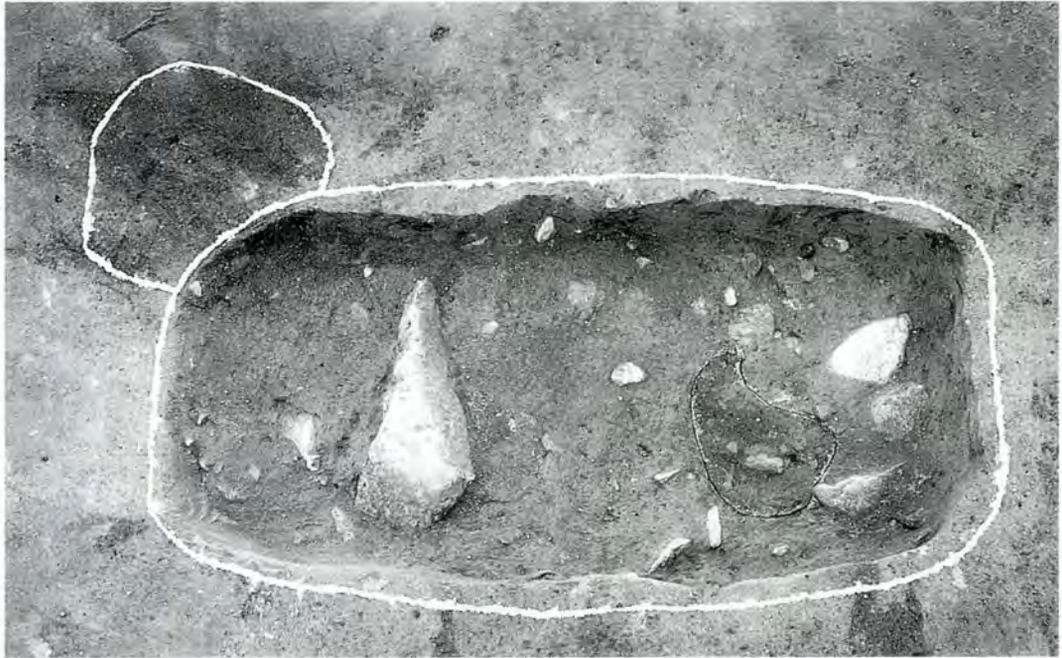


사진 95. 23호 소형유구(①)와 출토 유물(②-④)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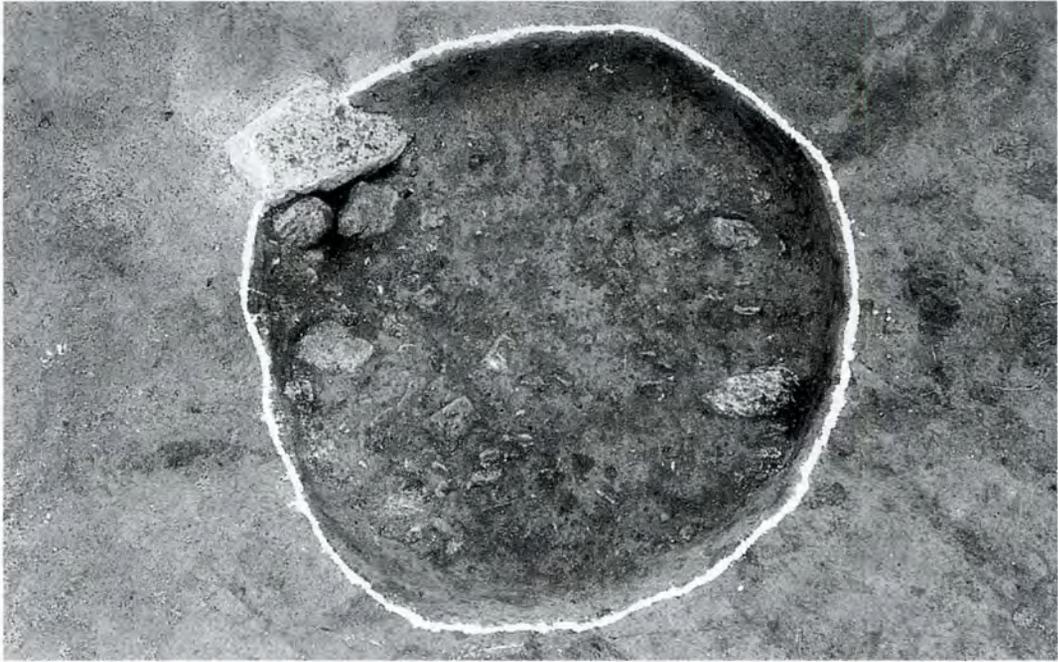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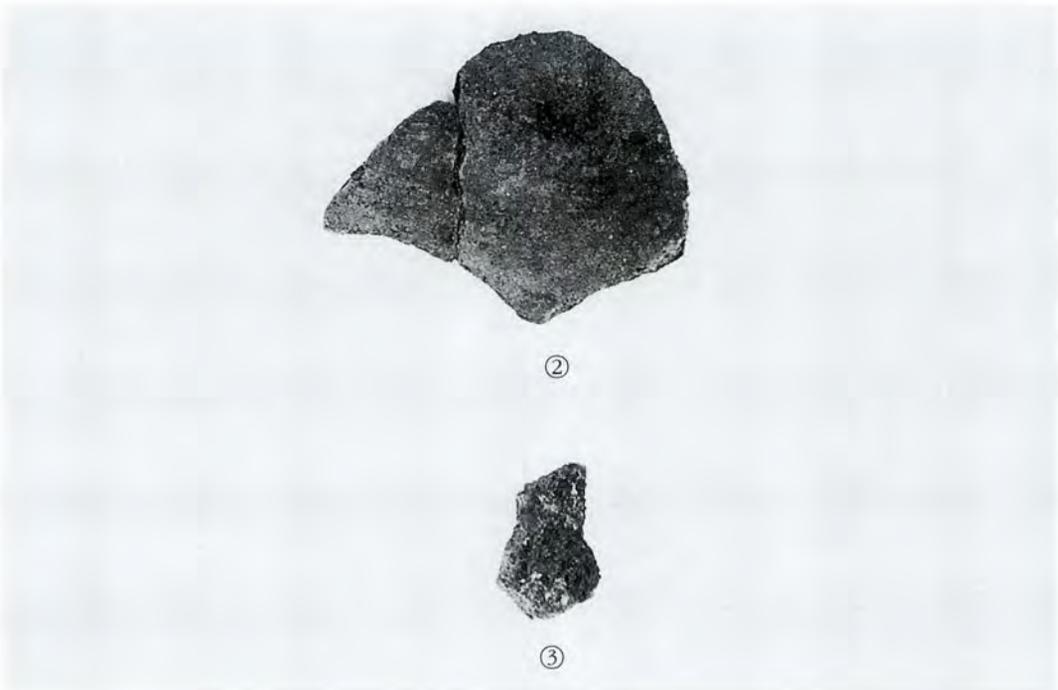


③

사진 96. 24호 소형유구(①)와 출토 유물(②~④)



①



②

③

사진 97. 25호 소형유구(①)와 출토 토기(②, ③)



①



②

사진 98. 26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내부 층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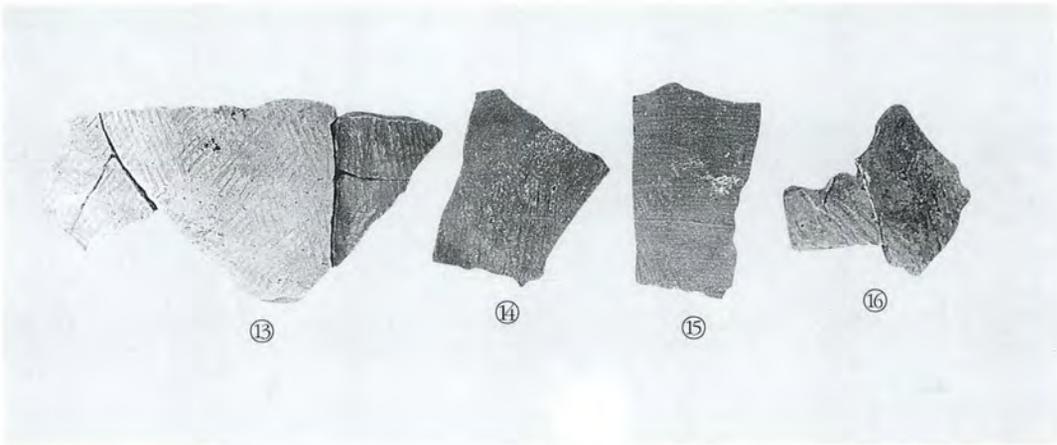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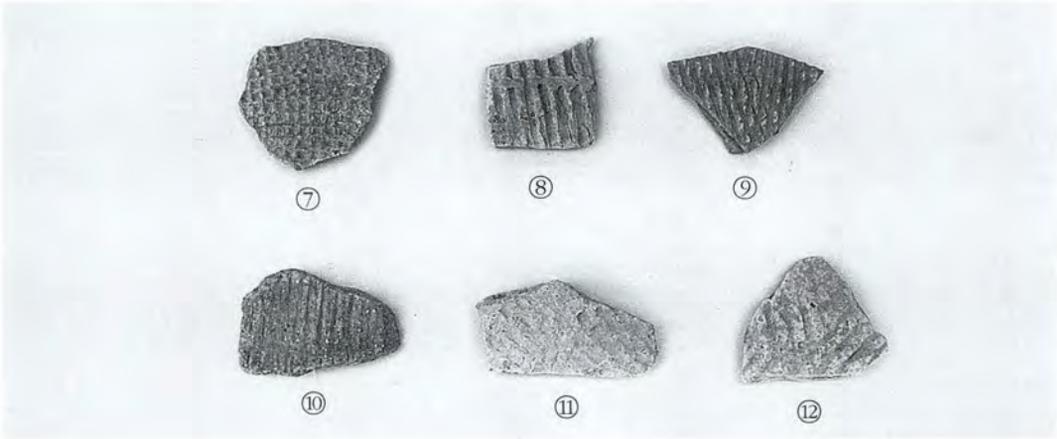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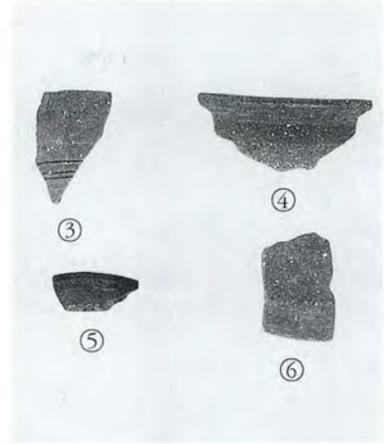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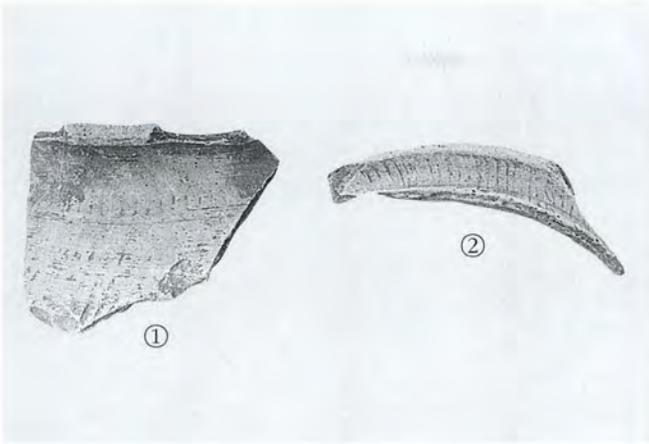


사진 99. 26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⑯)



①



②

사진 100. 27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내부 층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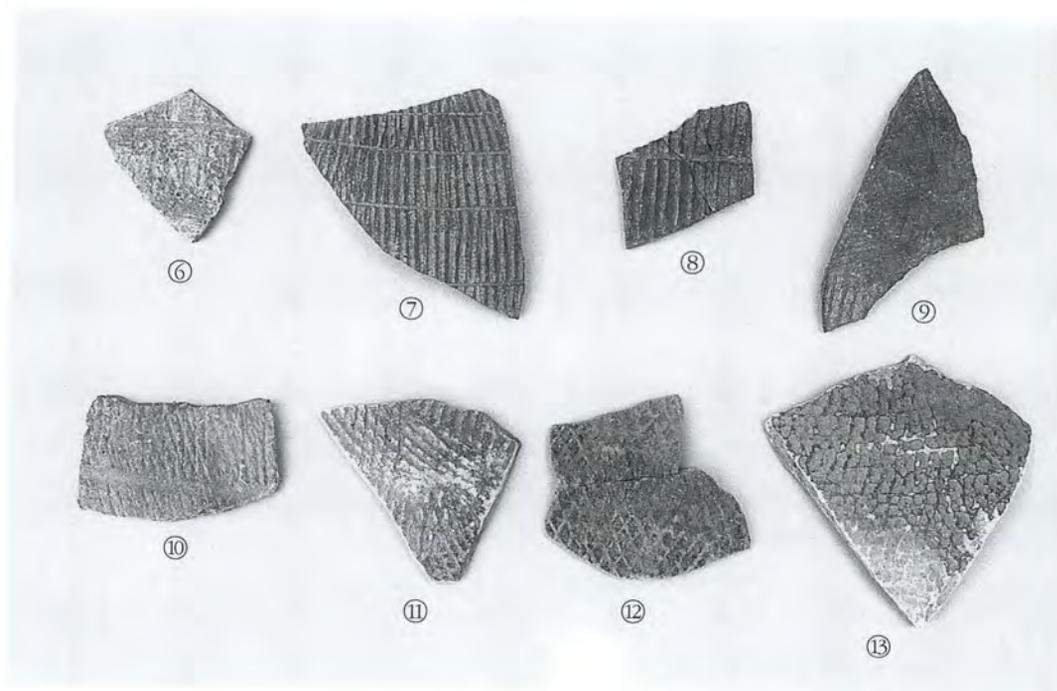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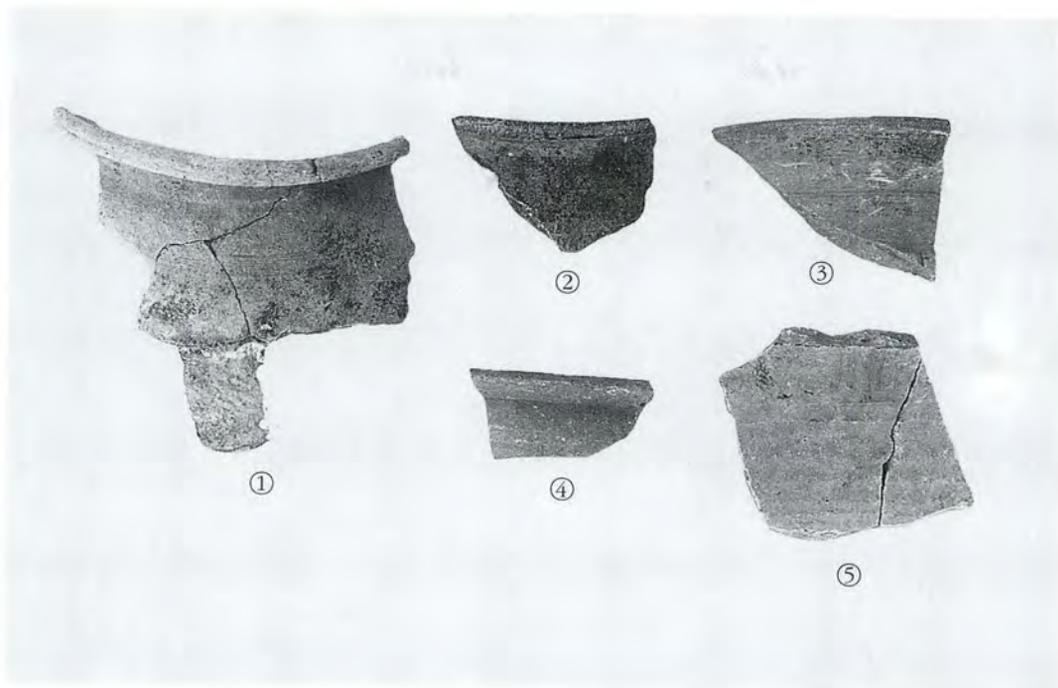


사진 101. 27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⑬)



①



②



③



④



⑤

사진 102. 27호 소형유구 출토 유물(①~⑤)



①



②

사진 103. 28호(①), 29호(②) 소형유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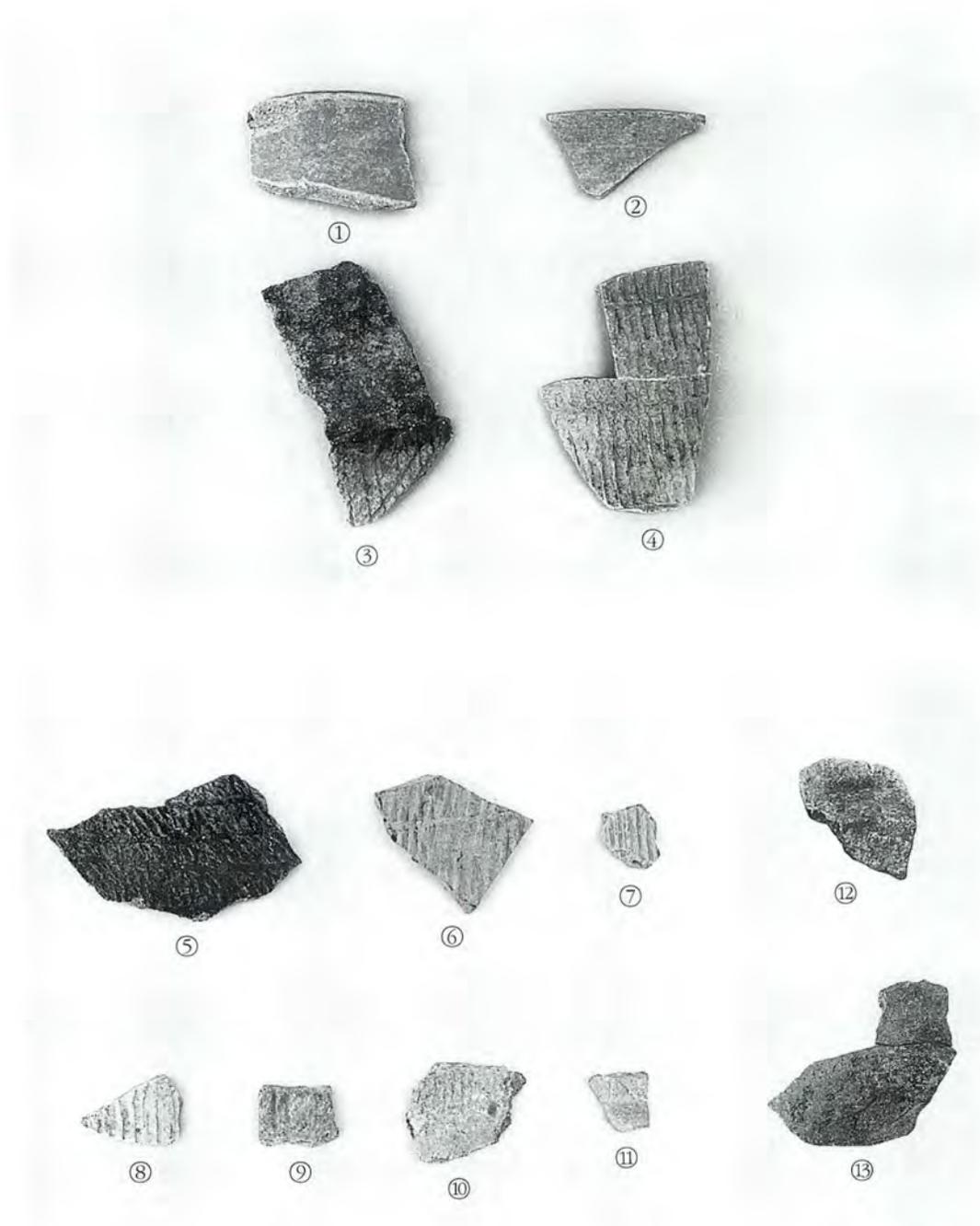


사진 104. 29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⑬)



①



②

사진 105. 30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내부 층위)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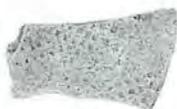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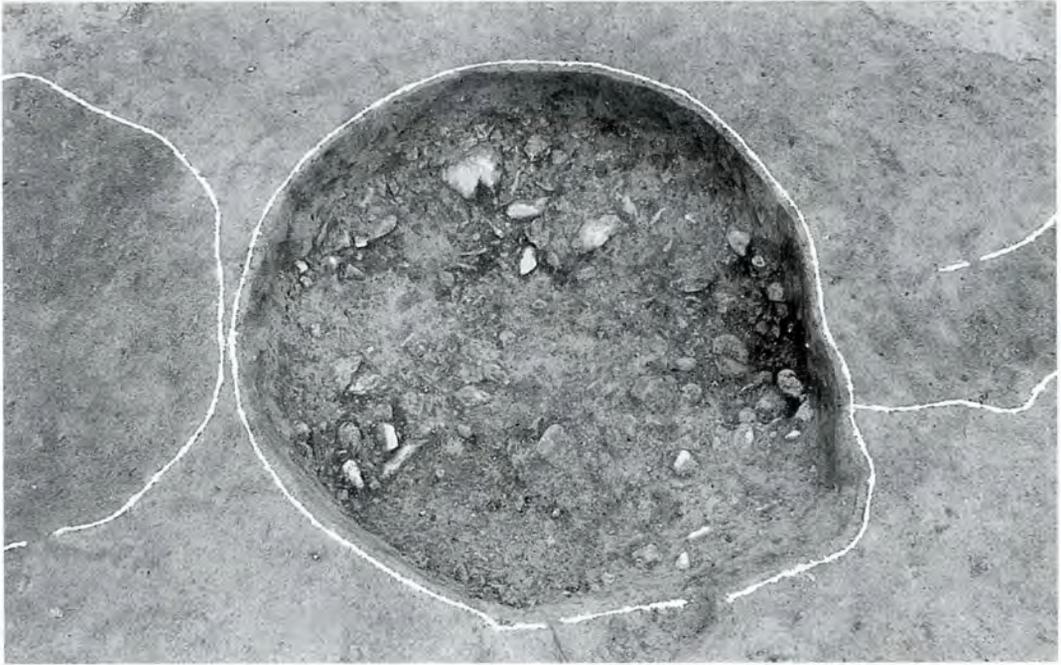


⑭



⑮

사진 106. 30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⑮)



①



②

사진 107. 31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내부 층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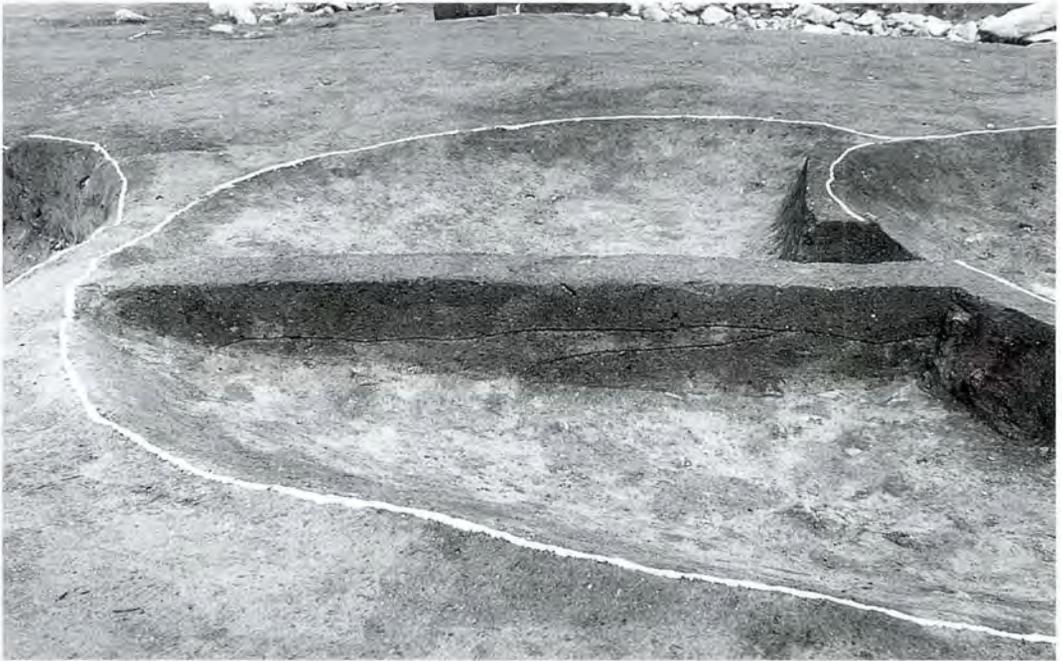


⑰

사진 108. 3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⑰)



①



②

사진 109. 32호, 33호 소형유구 전경(①)과 32호 소형유구 내부 층위(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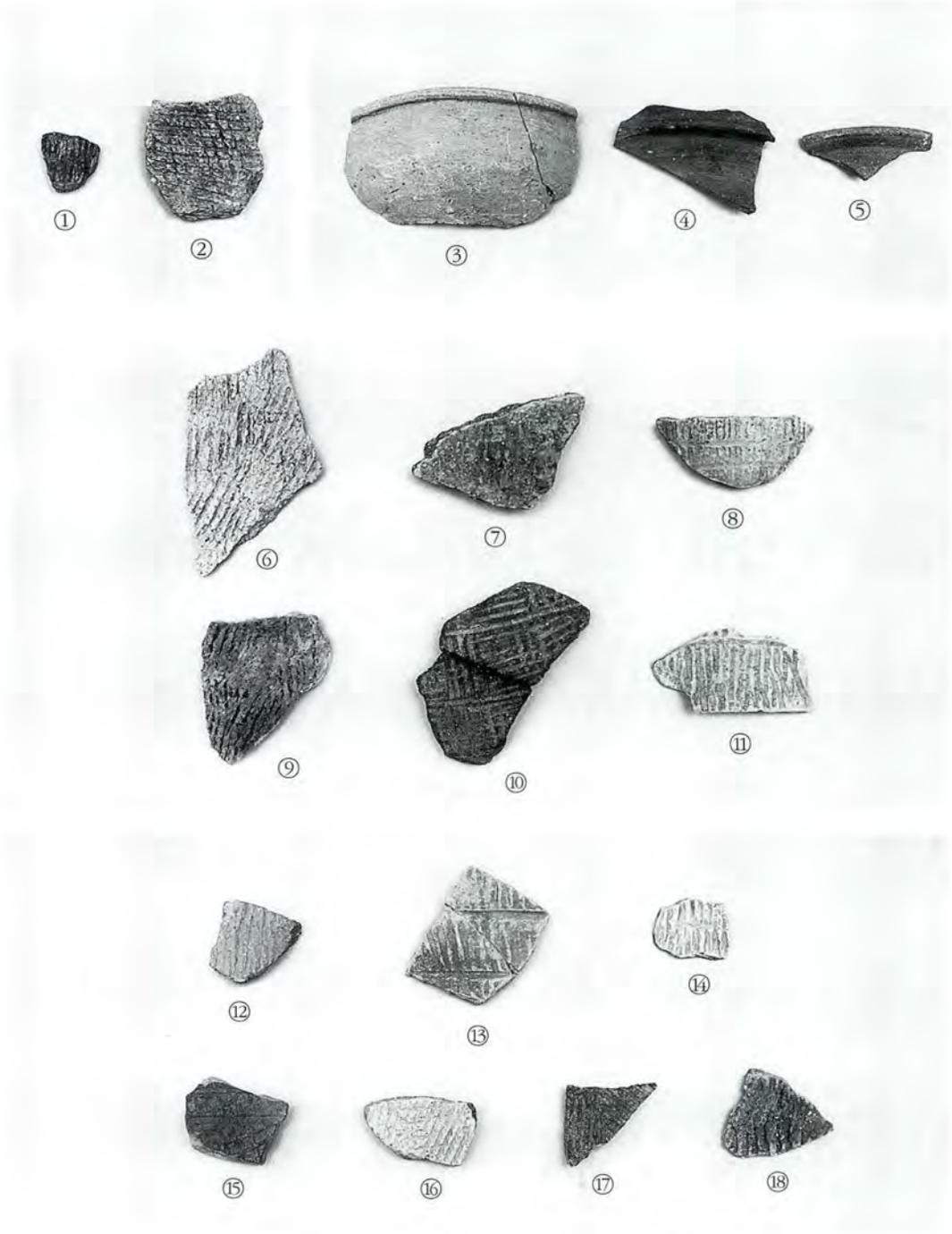


사진 110. 32호 소형유구(①, ②), 33호 소형유구(③~⑱) 출토 토기



①



②

사진 111. 34호(①), 35호(②) 소형유구 전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사진 112. 35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⑧)



①



②

사진 113. 35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 ②)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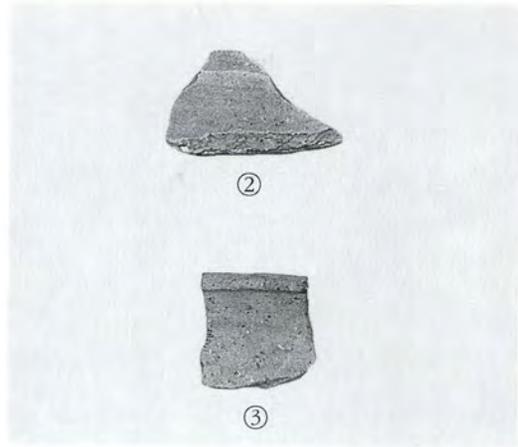


②

사진 114. 36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내부 층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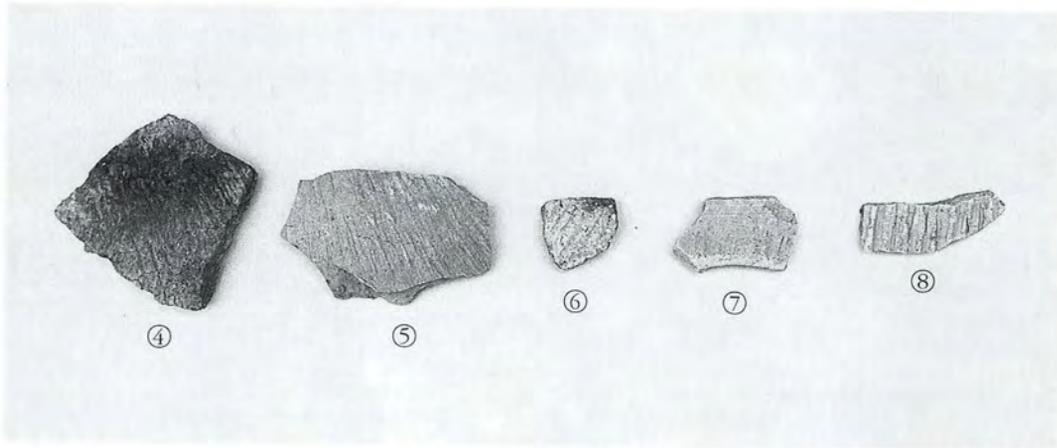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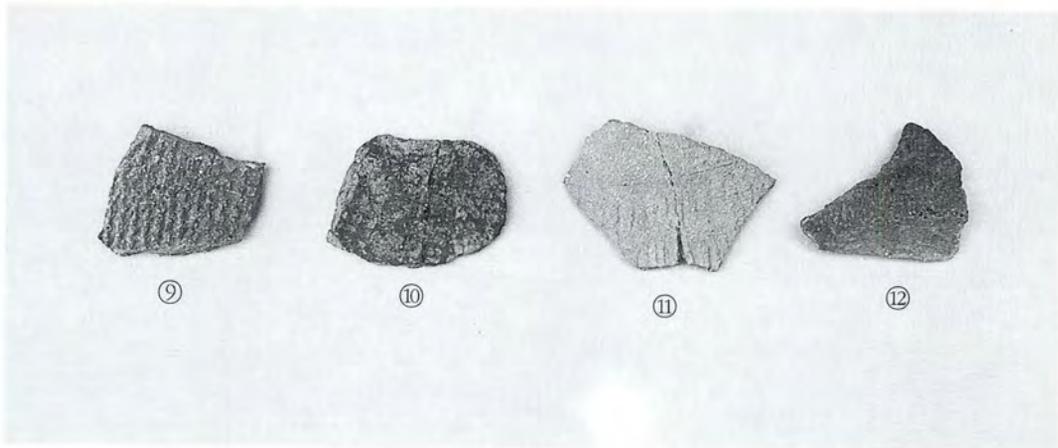
④

⑤

⑥

⑦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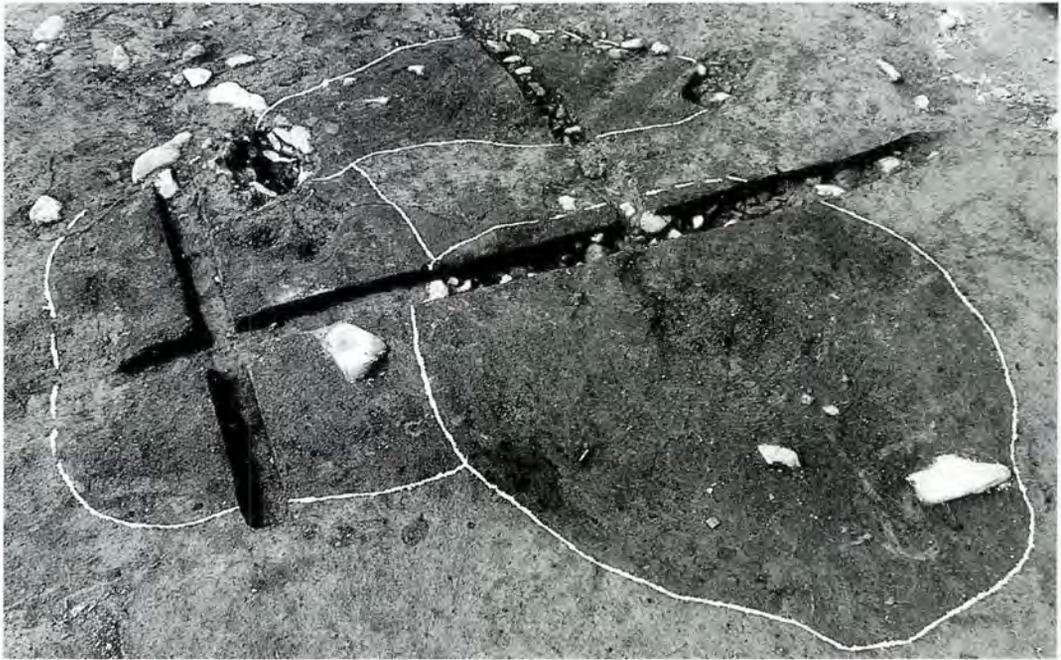
⑨

⑩

⑪

⑫

사진 115. 36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⑫)



①



②

사진 116. 37호~40호 소형유구 중복 상태(①)와 37호 소형유구 전경(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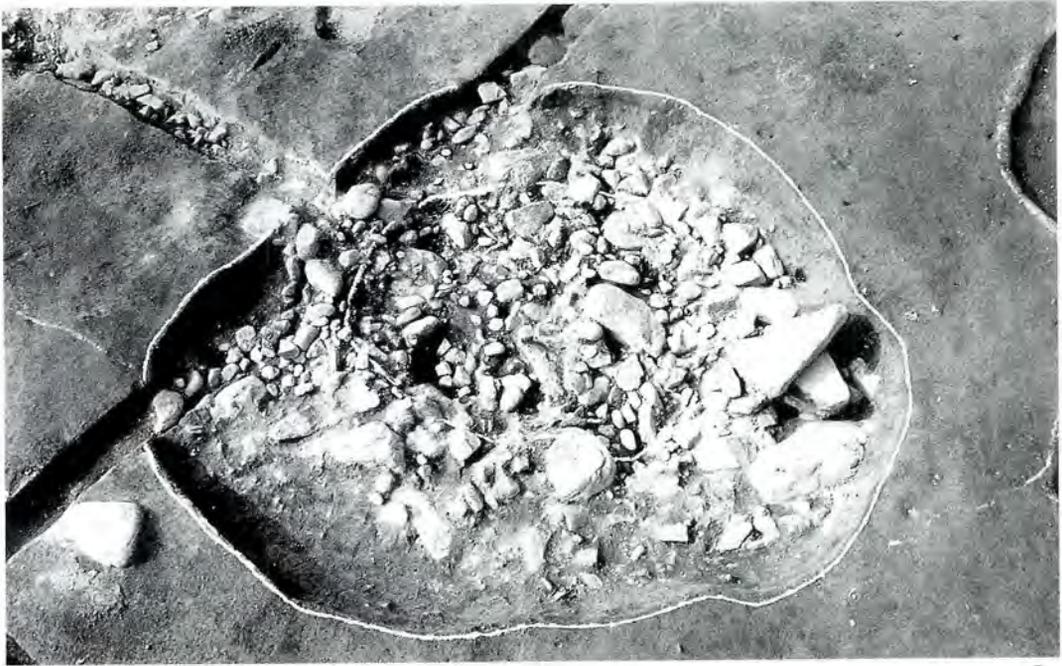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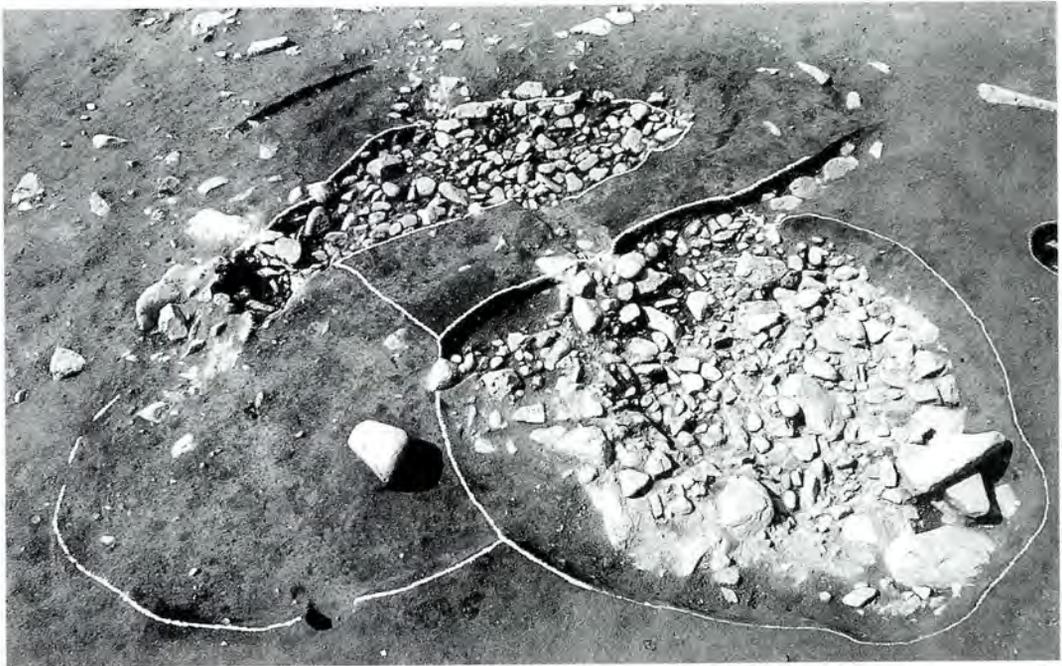


②

사진 117. 38호 소형유구 전경(①)과 39호, 40호 소형유구 중복 상태(②)



①



②

사진 118. 39호, 40호 소형유구 전경(①)과 37호~40호 소형유구 조사후 전경(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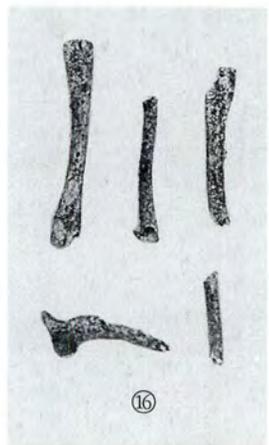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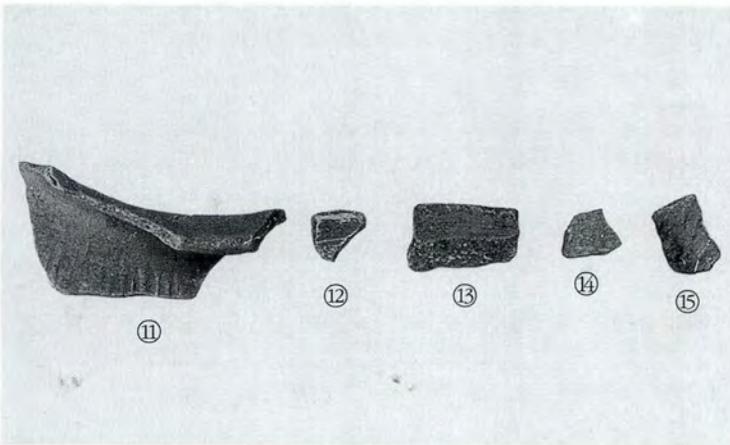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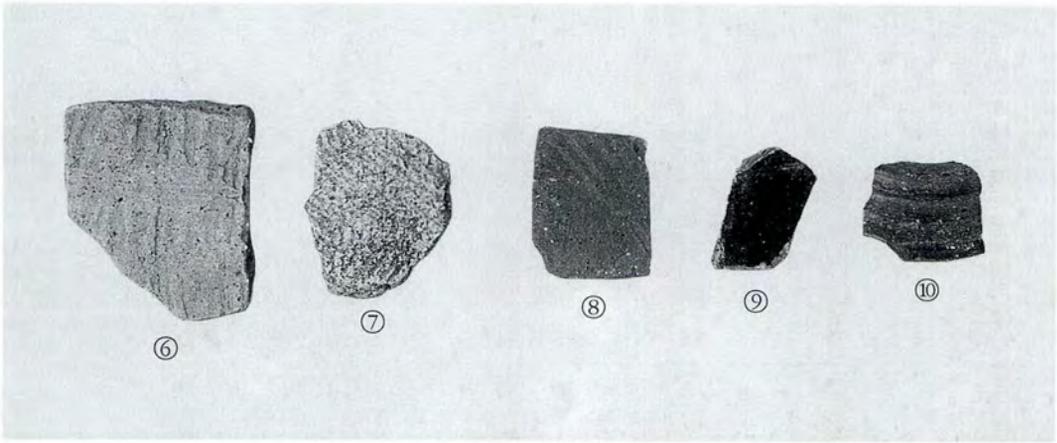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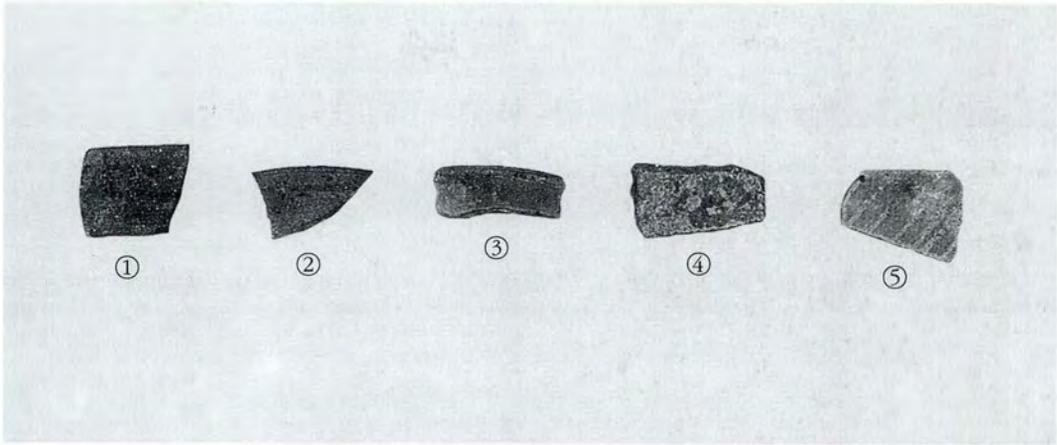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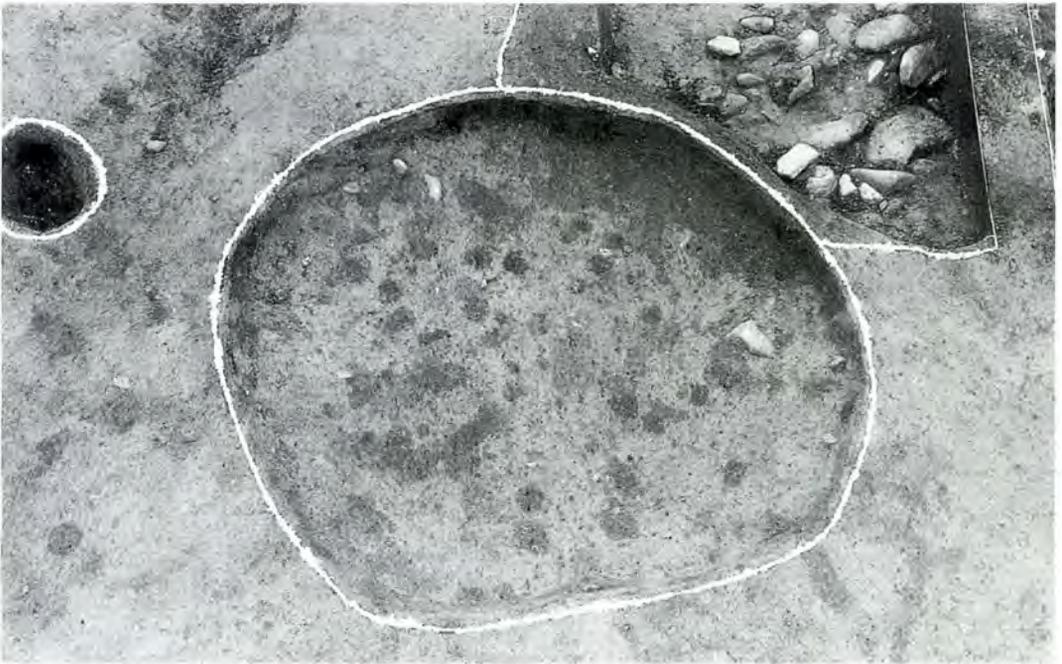


사진 119. 39호 소형유구(①~⑩), 40호 소형유구(⑪~⑯) 출토 유물



①



②

사진 120. 41호(①), 42호(②) 소형유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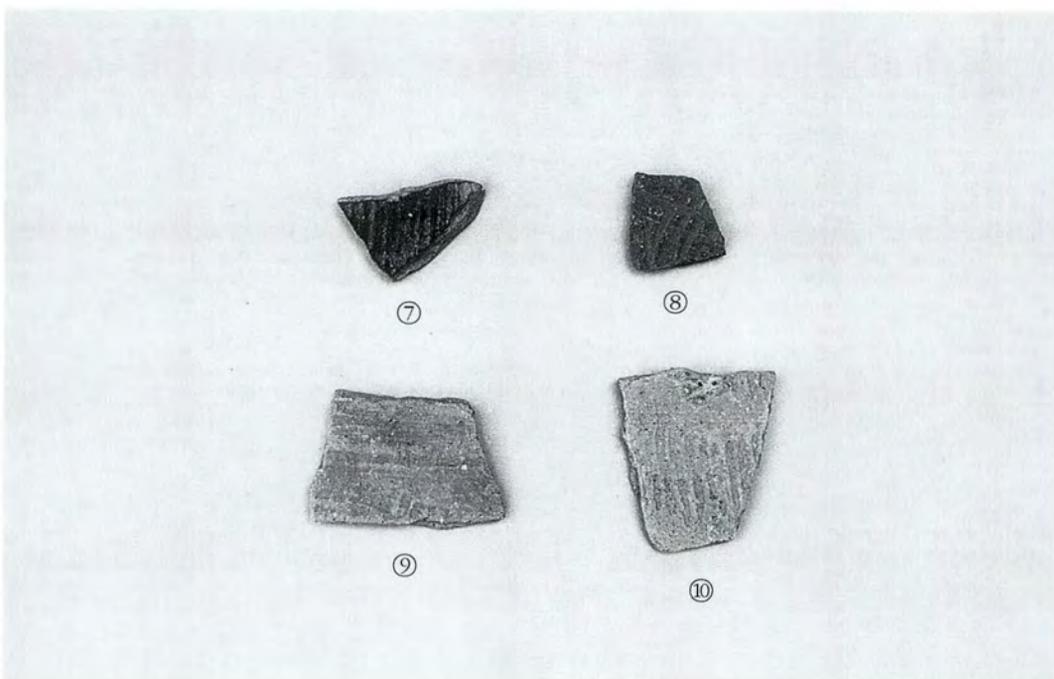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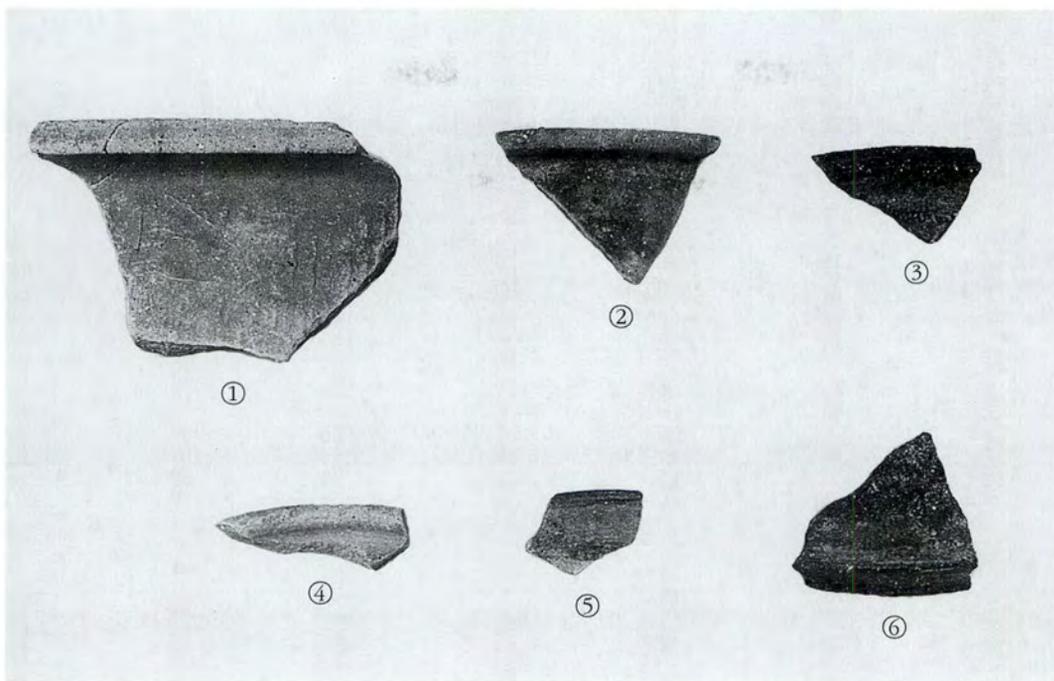


사진 121. 4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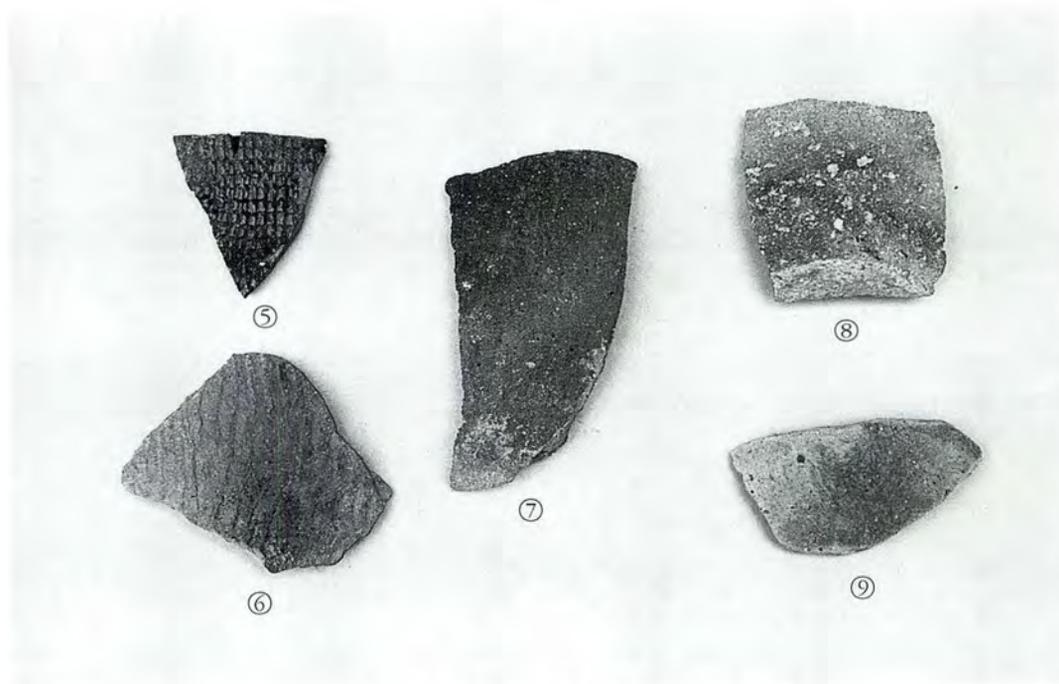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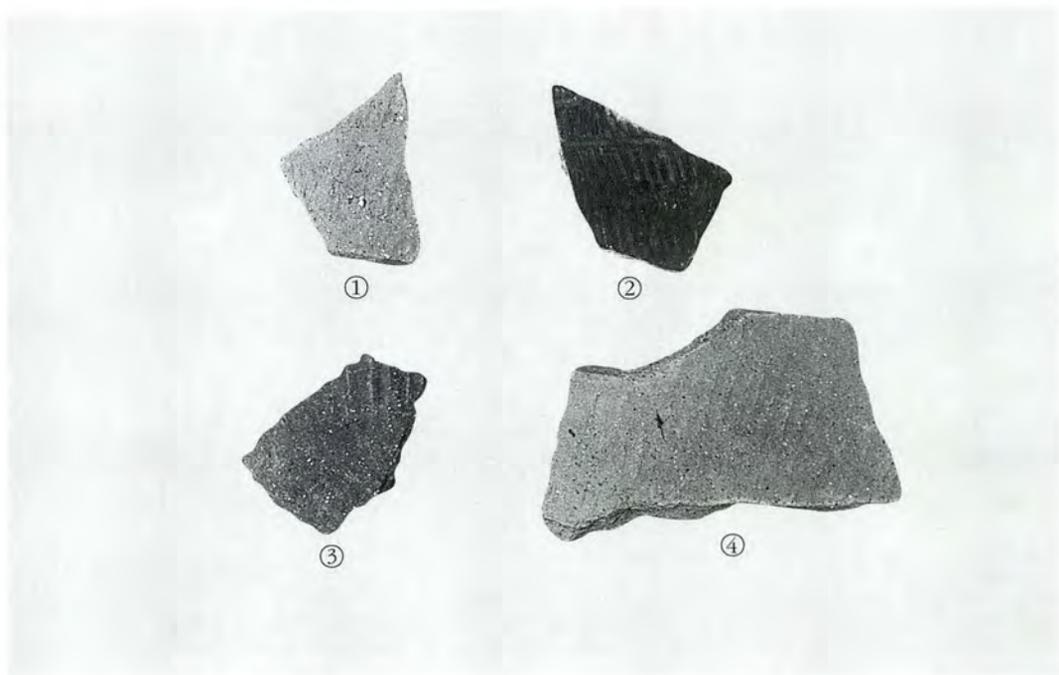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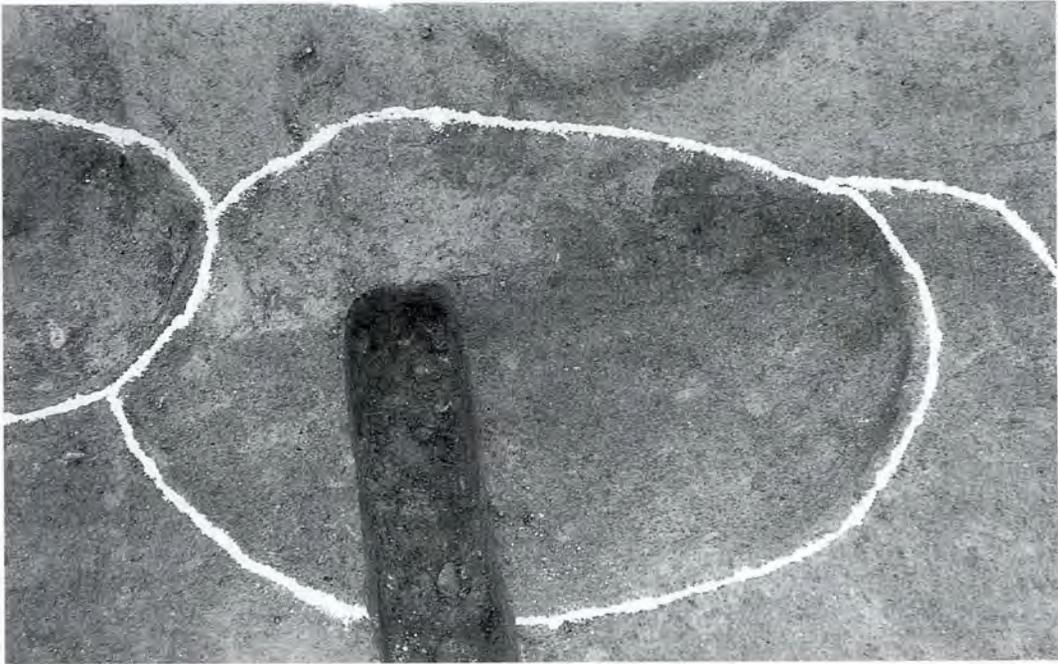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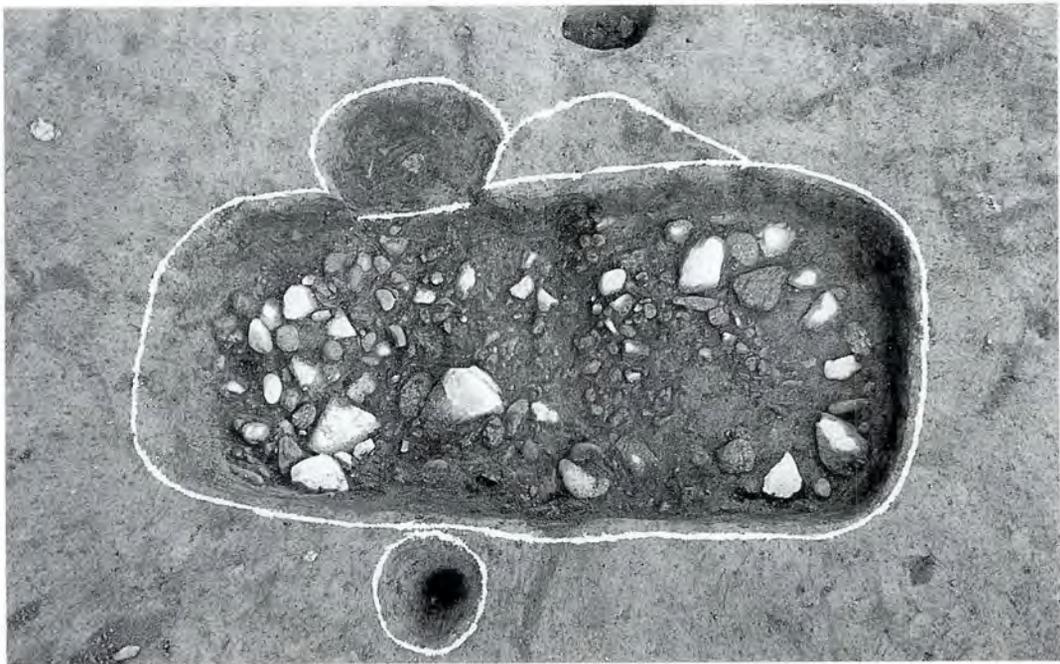


사진 122, 4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⑨)



①



②

사진 123. 43호(①), 44호(②) 소형유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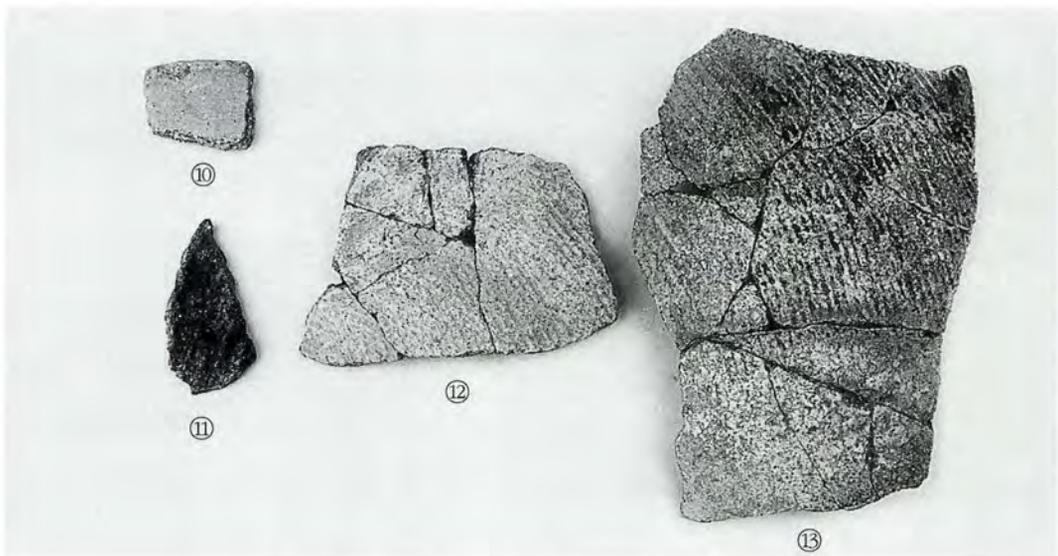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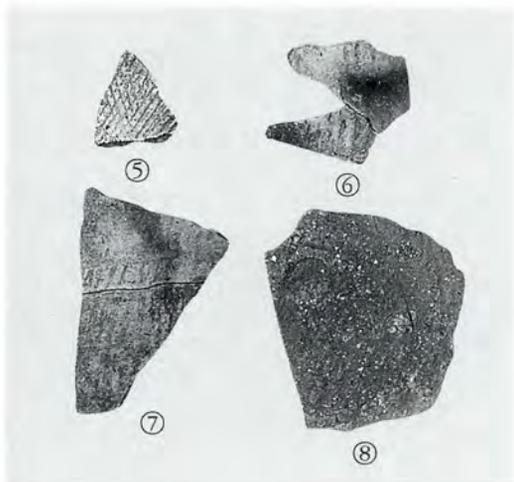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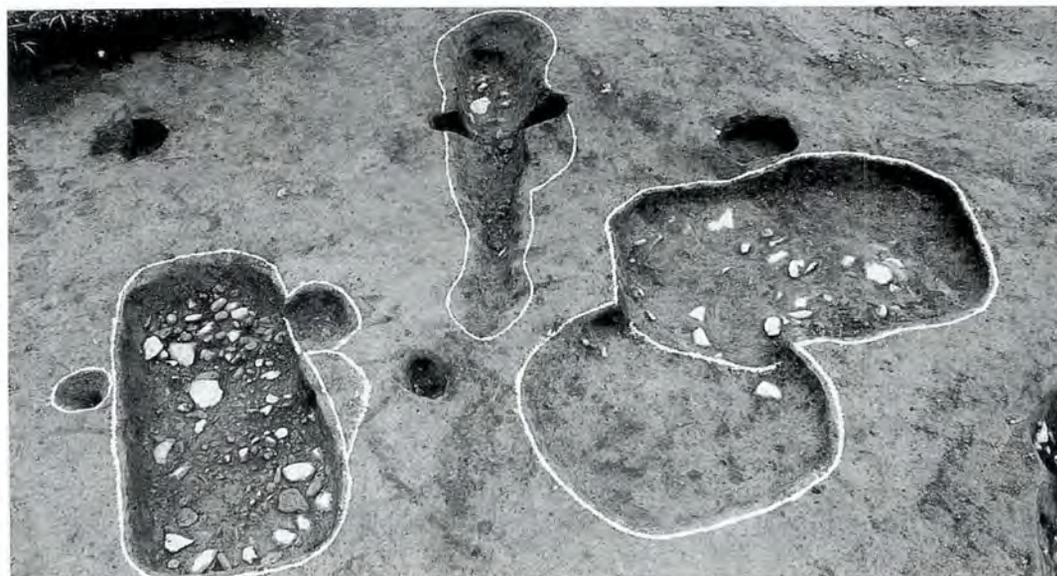


사진 124. 44호 소형유구(①~⑨), 구상유구(⑩~⑬) 출토 유물



①



②



③

사진 125. 45호 소형유구(①), 구상유구(②) 전경과 구상유구 내부 층위(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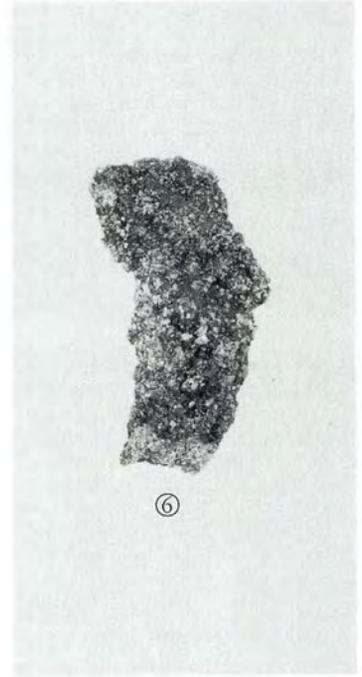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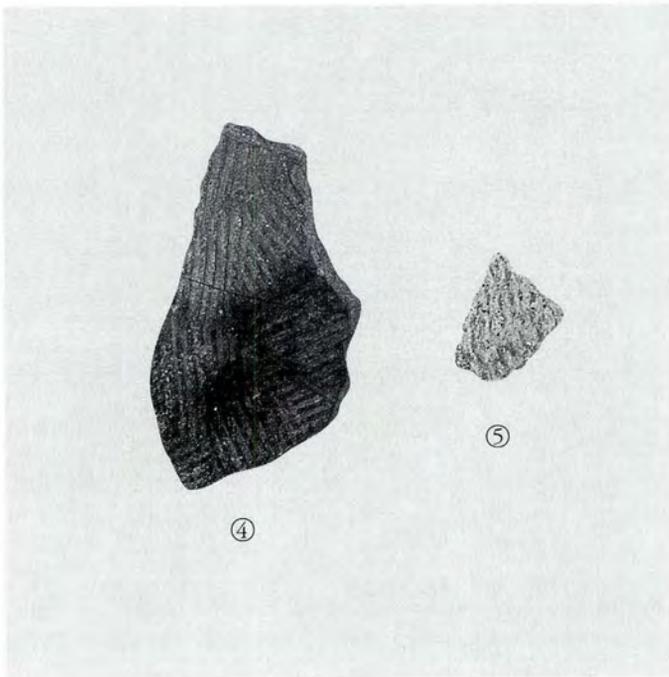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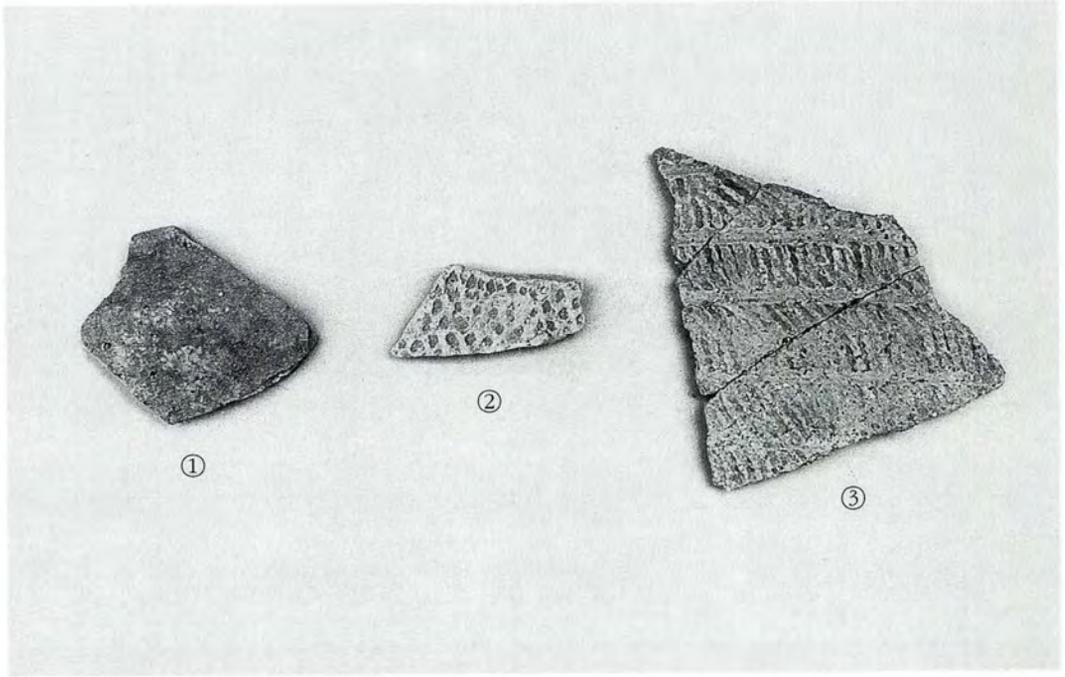


사진 126. 45호 소형유구 출토 유물(①~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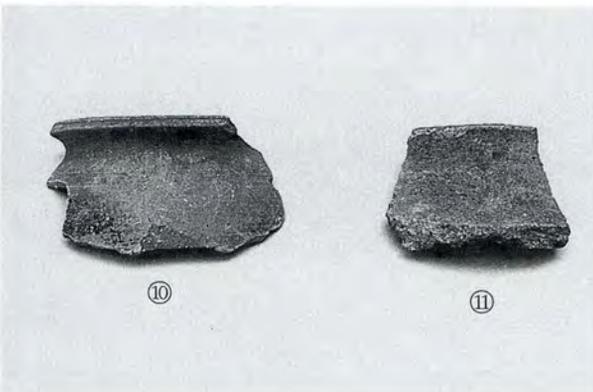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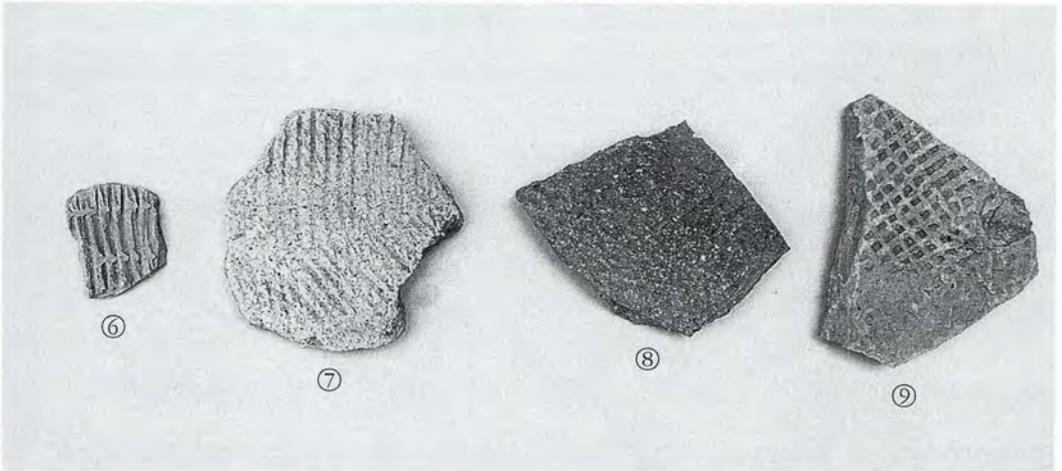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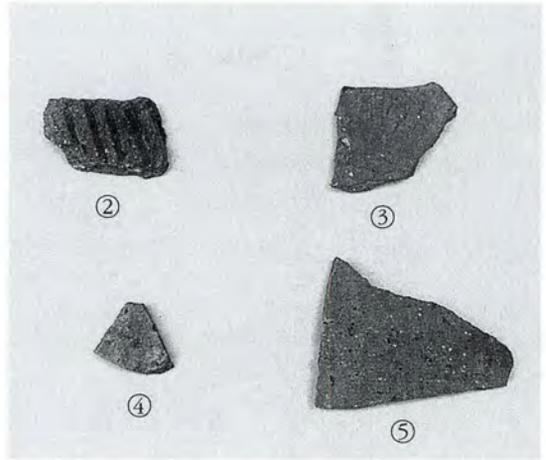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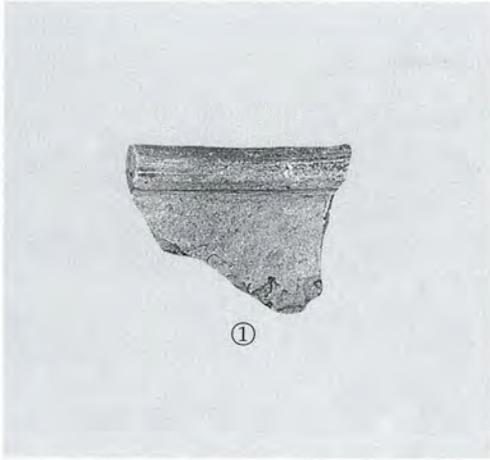


사진 127. 문화층(①~⑨)과 지표채집(⑩~⑫)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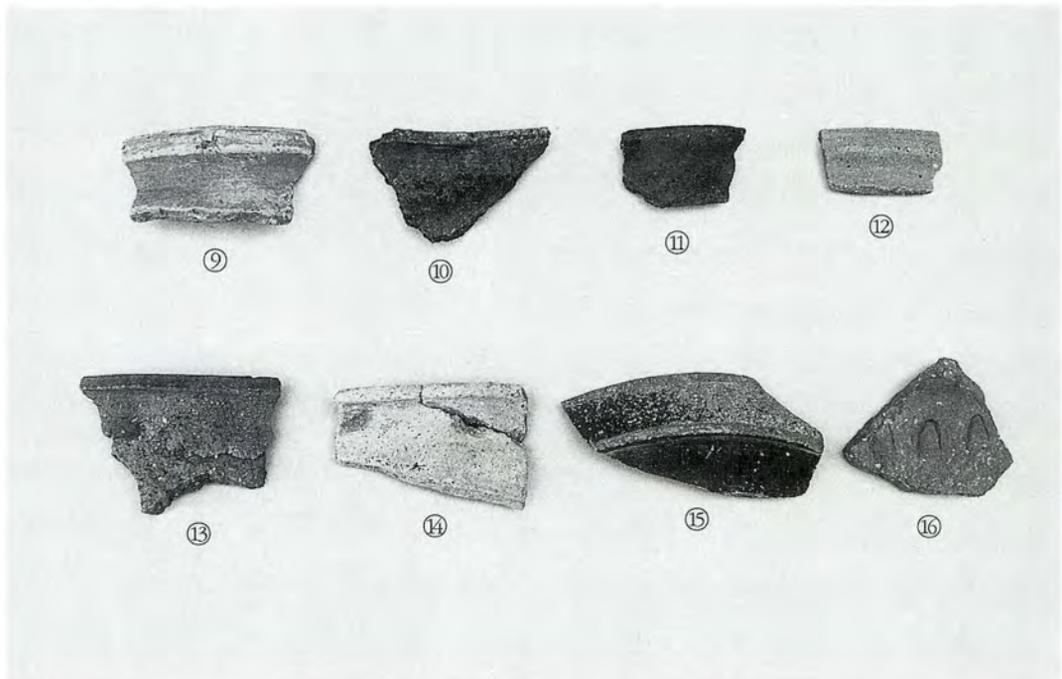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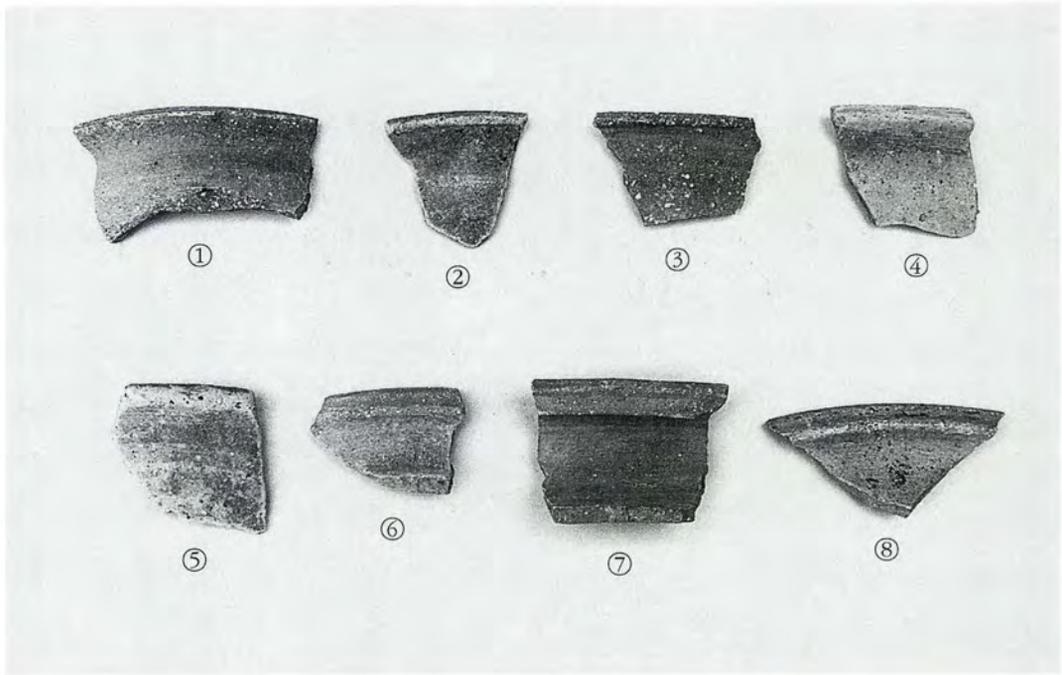


사진 128. 지표채집 토기(①~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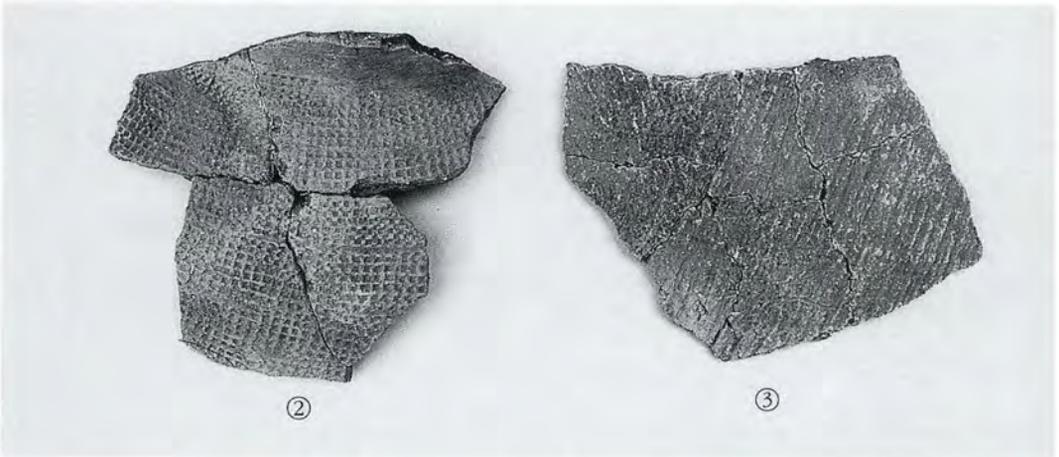


사진 129. 지표채집 토기(①~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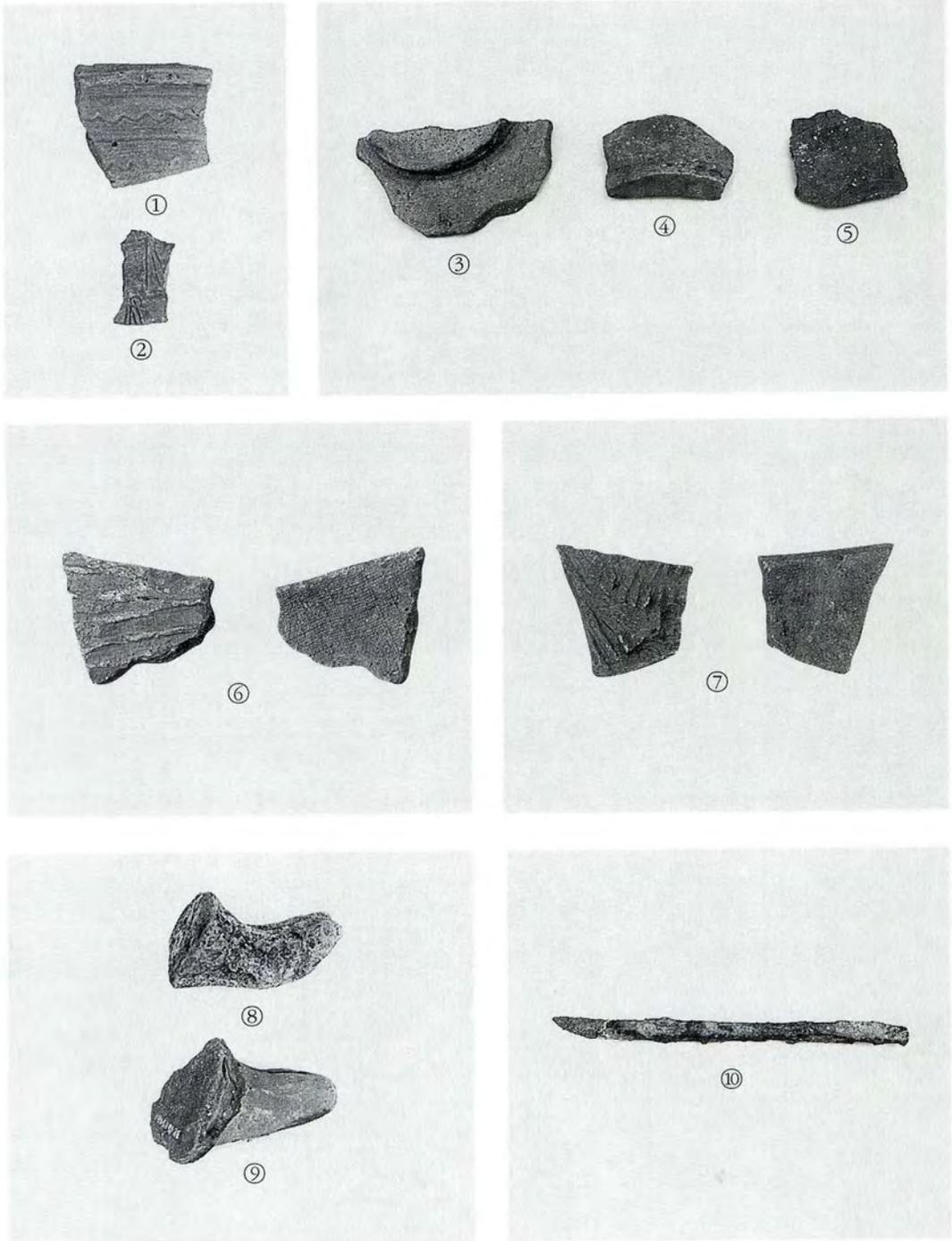


사진 130. 지표채집 유물(①~⑩)

京畿道博物館 遺蹟調査報告 第2冊

抱川 城洞里山城

精密地表調査 報告

白 種 伍
玄 男 周

1999

京畿道博物館

여 백



원색사진 1. 성동리산성 전경 (남에서)



원색사진 2. 성동리산성 동벽 외부 석축상태 -II 구간- (북에서)



원색사진 3. 성동리산성 북벽 외부 석축상태 -v 구간- (서에서)



원색사진 4. 성동리산성 북동치성 전경 (북에서)



원색사진 5. 성동리산성 우물지 전경 (남에서)



원색사진 6. 성동리산성 수구지 전경 (남에서)

여 백

目 次

| | |
|--------------------------|-----|
| I. 머리말 | 317 |
| II. 遺蹟의 環境과 歷史的 背景 | 319 |
| 1. 遺蹟의 環境 | 319 |
| 2. 歷史的 背景 | 322 |
| III. 文獻檢討 | 327 |
| IV. 調査內容 | 329 |
| 1. 城洞里山城의 現狀 | 329 |
| 1) 體城 | 329 |
| (1) 東壁 | 330 |
| (2) 南壁 | 331 |
| (3) 西壁 | 332 |
| (4) 北壁 | 333 |
| 2) 門址 | 333 |
| 3) 雉城 | 334 |
| 4) 建物址 | 334 |
| 5) 將臺址 | 335 |
| 6) 飲料遺構 | 336 |
| 7) 水口 | 336 |
| 8) 廻郭道 | 337 |
| 2. 區間別 城壁調査 | 337 |
| 1) i 區間 | 338 |
| 2) ii 區間 | 339 |
| 3) iii 區間 | 339 |
| 4) iv 區間 | 340 |
| 5) v 區間 | 341 |
| 6) vi 區間 | 342 |
| V. 採集遺物 | 342 |
| 1. 瓦類 | 342 |
| 2. 土器類 | 359 |

| | |
|------------------------|-----|
| 3. 其他 | 371 |
| VI. 綜合考察 | 372 |
| 1. 遺構에 대한 檢討 | 375 |
| 2. 遺物에 대한 檢討 | 379 |
| VII. 保存整備를 위한 提言 | 382 |

삼 도 목 차

| | |
|-----------------------------------|-----|
| 삼도 1. 성동리산성 지형도(1:25,000) | 320 |
| 삼도 2. 성동리산성과 주변 유적 현황도 | 321 |
| 삼도 3. 성동리산성 주위의 옛 지도(大東興地圖) | 324 |
| 삼도 4. 성동리산성 주위의 옛 지도(永平郡地圖) | 325 |
| 삼도 5. 성동리산성 주위의 관방유적 분포도 | 326 |

표 목 차

| | |
|-------------------------------|-----|
| 표 1. 城洞里山城에 관한 文獻記錄 | 328 |
| 표 2. 각 성벽과 잔존 성벽 제원 | 330 |
| 표 3. 잔존 성벽구간 제원 | 337 |
| 표 4. 지표 채집 기와 분류표 | 343 |
| 표 5. 성동리산성 주위의 관방유적 현황 | 373 |
| 표 6. 궁예 관련 전설권의 관방유적 현황 | 375 |
| 표 7. 구간별 면석의 두께:길이 비율표 | 376 |

도 면 목 차

| | | |
|----|---|-----|
| 도면 | 1. 성동리산성 평면 및 단면도 | 383 |
| 도면 | 2. 성동리산성 현황도 | 384 |
| 도면 | 3. 성동리산성 지적도 | 385 |
| 도면 | 4. 우물지 평면 및 단면도 | 386 |
| 도면 | 5. 동벽 입면 및 단면도 -i-1구간- | 387 |
| 도면 | 6. 동벽 입면 및 단면도 -i-2구간- | 388 |
| 도면 | 7. 동벽 입면 및 단면도 -ii-구간- | 389 |
| 도면 | 8. 남벽 입면 및 단면도 -iii-1구간- | 391 |
| 도면 | 9. 남벽 입면 및 단면도 -iii-2구간- | 393 |
| 도면 | 10. 남벽 입면 및 단면도 -iv-구간- | 395 |
| 도면 | 11. 북벽 입면 및 단면도 -v-구간- | 396 |
| 도면 | 12. 북벽 입면 및 단면도 -vi-구간- | 397 |
| 도면 | 13. 지표채집 토기류 1 (①~⑨·완 구연부편, 뚜껑편) | 399 |
| 도면 | 14. 지표채집 토기류 2 (①~⑫·구연부편) | 400 |
| 도면 | 15. 지표채집 토기류 3 (①~⑩·경부편) | 401 |
| 도면 | 16. 지표채집 토기류 4 (①~⑮·동체부편 1) | 402 |
| 도면 | 17. 지표채집 토기류 5 (①~⑧·동체부편 2) | 403 |
| 도면 | 18. 지표채집 토기류 6 (①~⑫·동체부편 3) | 404 |
| 도면 | 19. 지표채집 토기류 7 (①~⑬·동체부편 4) | 405 |
| 도면 | 20. 지표채집 토기류 8 (①~⑤·저부편, ⑥ 기대편, ⑦ 대상파수부편, ⑧~⑬ 저부편) | 406 |
| 도면 | 21. 지표채집 자기류 (①~④) | 407 |

답 본 목 차

| | |
|--------------------------------|-----|
| 답본 1. 지표채집 기와류 1 (①~③) | 409 |
| 답본 2. 지표채집 기와류 2 (①~④) | 410 |
| 답본 3. 지표채집 기와류 3 (①~⑤) | 411 |
| 답본 4. 지표채집 기와류 4 (①~⑤) | 412 |
| 답본 5. 지표채집 기와류 5 (①~④) | 413 |
| 답본 6. 지표채집 기와류 6 (①~⑥) | 414 |
| 답본 7. 지표채집 기와류 7 (①~⑦) | 415 |
| 답본 8. 지표채집 기와류 8 (①~④) | 416 |
| 답본 9. 지표채집 기와류 9 (①~⑥) | 417 |
| 답본 10. 지표채집 기와류 10 (①~③) | 418 |
| 답본 11. 지표채집 기와류 11 (①~③) | 419 |
| 답본 12. 지표채집 기와류 12 (①~④) | 420 |
| 답본 13. 지표채집 기와류 13 (①~④) | 421 |
| 답본 14. 지표채집 기와류 14 (①~⑥) | 422 |
| 답본 15. 지표채집 기와류 15 (①~⑤) | 423 |
| 답본 16. 지표채집 기와류 16 (①~⑤) | 424 |
| 답본 17. 지표채집 기와류 17 (①~⑤) | 425 |

사 진 목 차

| | |
|------------------------------|-----|
| 사진 1. 성동리산성 전경(남에서) | 427 |
| 사진 2. 성동리산성 전경(북에서) | 427 |
| 사진 3. 성동리산성에서 바라본 남쪽전경 | 428 |
| 사진 4. 성동리산성에서 바라본 북쪽전경 | 428 |
| 사진 5. 성동리산성에서 바라본 동쪽전경 | 429 |
| 사진 6. 성동리산성에서 바라본 서쪽전경 | 429 |

| | |
|---|-----|
| 사진 7. 동벽 내부상태 - i 구간- (남에서) | 430 |
| 사진 8. 동벽 내부상태 - i 구간- (북에서) | 430 |
| 사진 9. 동벽 외부 석축상태 - i 구간- (남에서) | 431 |
| 사진 10. 동벽 외부 석축상태 - i 구간- (북에서) | 431 |
| 사진 11. 동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1 | 432 |
| 사진 12. 동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2 | 432 |
| 사진 13. 장대지 전경(남에서) | 433 |
| 사진 14. 장대지 상면상태(동에서) | 433 |
| 사진 15. 동벽 내부상태 - ii 구간- | 434 |
| 사진 16. 동벽 내부상태 - ii 구간- (남에서) | 434 |
| 사진 17. 동벽 외부 석축상태 - ii 구간- (남에서) | 435 |
| 사진 18. 동벽 외부 석축상태 - ii 구간- (북에서) | 435 |
| 사진 19. 동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1 | 436 |
| 사진 20. 동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2 | 436 |
| 사진 21. 동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3 | 437 |
| 사진 22. 동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4 | 437 |
| 사진 23. 동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5 | 438 |
| 사진 24. 동벽 외부 석축 뒷채움석 노출상태 | 438 |
| 사진 25. 남벽 내부상태 -iii구간- (동에서) | 439 |
| 사진 26. 남벽 내부상태 -iii구간- (서에서) | 439 |
| 사진 27. 남벽 외부 석축상태 -iii-1구간- (동에서) | 440 |
| 사진 28. 남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 440 |
| 사진 29. 남벽 외부 석축상태 -iii-2구간- (동에서) | 441 |
| 사진 30. 남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1 | 441 |
| 사진 31. 남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2 | 442 |
| 사진 32. 남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3 | 442 |
| 사진 33. 남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4 | 443 |
| 사진 34. 남벽 외부 석축의 풍화된 면석 이탈상태 | 443 |
| 사진 35. 남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5 | 444 |
| 사진 36. 남벽에 사용된 현무암 면석 | 444 |
| 사진 37. 남벽 외부 석축상태 1 -iv구간- | 445 |

| | |
|----------------------------------|-----|
| 사진 38. 남벽 외부 석축상태 2 -iv구간- | 445 |
| 사진 39. 남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1 | 446 |
| 사진 40. 남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2 | 446 |
| 사진 41. 남벽 외부 석축의 면석과 뒷채움석 상태 | 447 |
| 사진 42. 수구지 전경 | 447 |
| 사진 43. 남문지 전경(동에서) | 448 |
| 사진 44. 남문지 전경(서에서) | 448 |
| 사진 45. 서벽 내부상태(북에서) | 449 |
| 사진 46. 서벽 뒷채움석 노출상태 | 449 |
| 사진 47. 북벽 내부상태 -v 구간- (서에서) | 450 |
| 사진 48. 북벽 내부상태 -vi구간- (동에서) | 450 |
| 사진 49. 북벽 외부 조사전상태 -v 구간- | 451 |
| 사진 50. 북벽 외부 석축상태 1 -v 구간- (서에서) | 451 |
| 사진 51. 북벽 외부 석축상태 2 -v 구간- (동에서) | 452 |
| 사진 52. 북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1 | 452 |
| 사진 53. 북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2 | 453 |
| 사진 54. 북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3 | 453 |
| 사진 55. 북벽 외부 석축상태 1 -vi구간- | 454 |
| 사진 56. 북벽 외부 석축상태 2 -vi구간- | 454 |
| 사진 57. 북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1 | 455 |
| 사진 58. 북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2 | 455 |
| 사진 59. 북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3 | 456 |
| 사진 60. 북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4 | 456 |
| 사진 61. 북동치성 전경 | 457 |
| 사진 62. 북동치성 상면상태 | 457 |
| 사진 63. 북동치성 세부상태 | 458 |
| 사진 64. 북동치성 모서리돌 상태 | 458 |
| 사진 65. 건물지1 전경 | 459 |
| 사진 66. 건물지2 전경 | 459 |
| 사진 67. 건물지3 전경 | 460 |
| 사진 68. 건물지3 내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 | 460 |

| | |
|-----------------------------------|-----|
| 사진 69. 우물지 전경(동에서) | 461 |
| 사진 70. 우물지 전경(북에서) | 461 |
| 사진 71. 우물지 전경(남에서) | 462 |
| 사진 72. 우물지 세부상태 1 | 462 |
| 사진 73. 우물지 세부상태 2 | 463 |
| 사진 74. 우물지 세부상태 3 | 463 |
| 사진 75. 성내에 흩어져 있는 현무암 면석 1 | 464 |
| 사진 76. 성내에 흩어져 있는 현무암 면석 2 | 464 |
| 사진 77. 성내에 흩어져 있는 현무암 면석 3 | 465 |
| 사진 78. 성 내부 채집 투석용 석환 | 465 |
| 사진 79. i 구간 채집 崇寧重寶 노출상태 | 466 |
| 사진 80. i 구간 채집 토기 구연부편 노출상태 | 466 |
| 사진 81. 지표채집 기와류 1 (①~⑤·등면) | 467 |
| 사진 82. 지표채집 기와류 1 (①~⑤·내면) | 467 |
| 사진 83. 지표채집 기와류 2 (①~⑪·등면) | 468 |
| 사진 84. 지표채집 기와류 2 (①~⑪·내면) | 468 |
| 사진 85. 지표채집 기와류 3 (①~⑤·등면) | 469 |
| 사진 86. 지표채집 기와류 3 (①~⑤·내면) | 469 |
| 사진 87. 지표채집 기와류 4 (①~⑦·등면) | 470 |
| 사진 88. 지표채집 기와류 4 (①~⑦·내면) | 470 |
| 사진 89. 지표채집 기와류 5 (①~⑦·등면) | 471 |
| 사진 90. 지표채집 기와류 5 (①~⑦·내면) | 471 |
| 사진 91. 지표채집 기와류 6 (①~⑨·등면) | 472 |
| 사진 92. 지표채집 기와류 6 (①~⑨·내면) | 472 |
| 사진 93. 지표채집 기와류 7 (①~⑥·등면) | 473 |
| 사진 94. 지표채집 기와류 7 (①~⑥·내면) | 473 |
| 사진 95. 지표채집 기와류 8 (①~⑥·등면) | 474 |
| 사진 96. 지표채집 기와류 8 (①~⑥·내면) | 474 |
| 사진 97. 지표채집 기와류 9 (①~⑧·등면) | 475 |
| 사진 98. 지표채집 기와류 9 (①~⑧·내면) | 475 |
| 사진 99. 지표채집 기와류 10 (①~⑤·등면) | 476 |

| | |
|---|-----|
| 사진 100. 지표채집 기와류 10 (①~⑤·내면) | 476 |
| 사진 101. 지표채집 기와류 11 (①~⑦·등면) | 477 |
| 사진 102. 지표채집 기와류 11 (①~⑦·내면) | 477 |
| 사진 103. 지표채집 기와류 12 (①~③·등면) | 478 |
| 사진 104. 지표채집 기와류 12 (①~③·내면) | 478 |
| 사진 105. 지표채집 토기류 1 (①~⑨·완 구연부편, 뚜껑편) | 479 |
| 사진 106. 지표채집 토기류 2 (①~⑫·구연부편) | 480 |
| 사진 107. 지표채집 토기류 3 (①~⑩·경부편) | 480 |
| 사진 108. 지표채집 토기류 4 (①~⑮·동체부편 1) | 481 |
| 사진 109. 지표채집 토기류 5 (①~⑧·동체부편 2) | 481 |
| 사진 110. 지표채집 토기류 6 (①~⑭·동체부편 3) | 482 |
| 사진 111. 지표채집 토기류 7 (①~⑪·동체부편 4) | 482 |
| 사진 112. 지표채집 토기류 8 (①~⑤·저부편, ⑥ 기대편, ⑦ 대상파수부편) | 482 |
| 사진 113. 지표채집 토기류 9 (①~⑥·저부편) | 483 |
| 사진 114. 지표채집 자기류 (①~④·안쪽) | 483 |
| 사진 115. 지표채집 자기류 (①~④·바닥) | 484 |
| 사진 116. 지표채집 투석용 석환, 崇寧重寶 | 484 |

여 백

I. 머리말

抱川地域의 文化遺蹟은 漢灘江의 지류인 永平川·抱川川·山內川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1) 동쪽의 廣州山脈의 주축을 이루는 廣德山(해발 1,046m)에서 발원한 永平川은 二東面과 永中面을 거쳐 蒼水面에서 漢灘江을 만나 臨津江으로 合流하고 있다. 남쪽의 祝石嶺에서 始流한 抱川川은 포천군 중앙부를 관통하며 北流하다가 永中面에서 합류하고 山內川은 서쪽의 國師峰에서 發源하여 漢灘江으로 流入된다.

이들 하천유역으로는 비교적 넓은 평지가 발달되어 고대로부터 취락과 농경지로 이용되어 왔다. 다른 유적과 마찬가지로 關防遺蹟 역시 이들 하천의 연안에 배치되어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抱川地域 關防遺蹟은 15個所 정도로 파악되며 학술조사는 半月山城²⁾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는 관방유적의 대부분이 산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군 작전지역에 편입되어 조사수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城洞里山城은 半月山城에서 북쪽으로 15km 지점에 위치하여 남쪽으로 永平川이 동에서 서로 흐르며 自然 垓字의 역할을 하고 주변으로 抱川-鐵原, 漣川-二東간의 교통로가 지나는 요충지에 입지하고 있다.

城洞里山城 남쪽의 영평천변에서 三國時代 前期³⁾에 해당하는 住居遺蹟이 긴급발굴조사⁴⁾되었는데 이 住居遺蹟과 인접 山城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城洞里山城에 대한 조사를 계획하게 되었다. 이번 조사는 산성에 대한 정확한 현상 파악과 학술자료를 확보하여 유적의 보존과 정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이는 군 시설물의 설치와 방치에 의해 점차 파괴되고 있는 城洞里山城의 보존을 위한 기초작업이기도 하였다.

城洞里山城에 대한 현장조사는 1999년 4월 19일부터 4월 31일까지 진행하였다. 우선 현장조사는 유적의 정확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벽주위를 따라 잡목제거와 제초작업을 진행한 후 성내외의 측량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잔존하는 성벽과 성내외 시설물에 대한

- 1)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포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8.
- 2) 강남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포천 반월산성 지표조사보고서』, 1995.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포천 반월산성 1차발굴조사보고서』, 1996.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포천 반월산성 2차발굴조사보고서』, 1997.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포천 반월산성 3차발굴조사보고서』, 1998.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포천 반월산성 4차발굴조사보고서』, 1999.
- 3) 이 글에서는 철기시대를 전기와 후기의 두 시기로 구분하여 기원전 300~1년까지를 鐵器時代 前期(初期鐵器時代), 기원후 1~300년까지를 鐵器時代 後期 즉, 三國時代 前期(原三國時代, 三韓時代)라는 최몽룡교수의 시기구분법을 따랐다.
최몽룡, 「철기문화」, 『한국사』3, 국사편찬위원회, 1997.
- 4) 경기도박물관, 『포천 성동리유적 긴급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자료』, 1998.

실측 및 유물채집 등을 진행하여 유적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한 조사단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조사 단 장 : 장경호(경기도박물관장)

책임조사원 : 이인숙(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조 사 원 : 최근성(경기도박물관 민속미술부장)

백종오(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조사보조원 : 현남주(아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과정)

이재섭(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과정)

강동석(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과정)

한준영(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과정)

한혜선(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과정)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해주신 조사단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현지조사 시 물심양면으로 조사단의 편의를 제공해 주셨고, 지역의 향토사에 깊은 애착을 보이시는 한승철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보고서 작업중 유물정리와 도면작성은 백종오·현남주·이재섭·강동석·한준영·한혜선, 사진촬영은 백종오·현남주가 담당하였다. 보고서 집필은 백종오·현남주가 분담하였으며 교열은 최근성, 최종적으로 이인숙이 감수하였다.

II. 遺蹟의 環境과 歷史的 背景

1. 遺蹟의 環境

城洞里山城은 京畿道 抱川郡 永中面 城洞里 山 693-10番地 일대에 위치하며, 地理座標는 북위 38도 1분 29초~32초, 동경 127도 15분 28초~35초(축적 1:25,000, 도엽번호 NJ 52-5-27-3 永北)에 해당한다. (삽도 1·2)

行路는 抱川邑에서 鐵原 方면의 43번 국도를 이용해 15km정도 북진하여 永平川을 지나면 37번 국도와 분기되는 성동리 신장삼거리에 이르게 된다. 이곳에서 鐵原·雲川 方면으로 우회전하면 정면에 해발 180m의 殘丘性 山地를 만나게 된다. 山城은 바로 이 산의 8~9부 능선에 자리하고 있으며 성 남쪽의 잣골마을을 통해 오를 수 있다. 남문지로 오르는 등산로에는 인근부대에서 페타이어를 이용한 계단시설을 마련하여 쉽게 성안으로 진입할 수 있다.

城洞里山城은 抱川-鐵原 方면의 남북교통로와 旣谷-二東 方면의 동서교통로가 교차하는 陸上交通과 永平川이 남서방향으로 흘러 抱川川과 만나 漢灘江으로 合流하는 水運의 要衝地에 위치하여 關防遺蹟의 입지조건으로서는 최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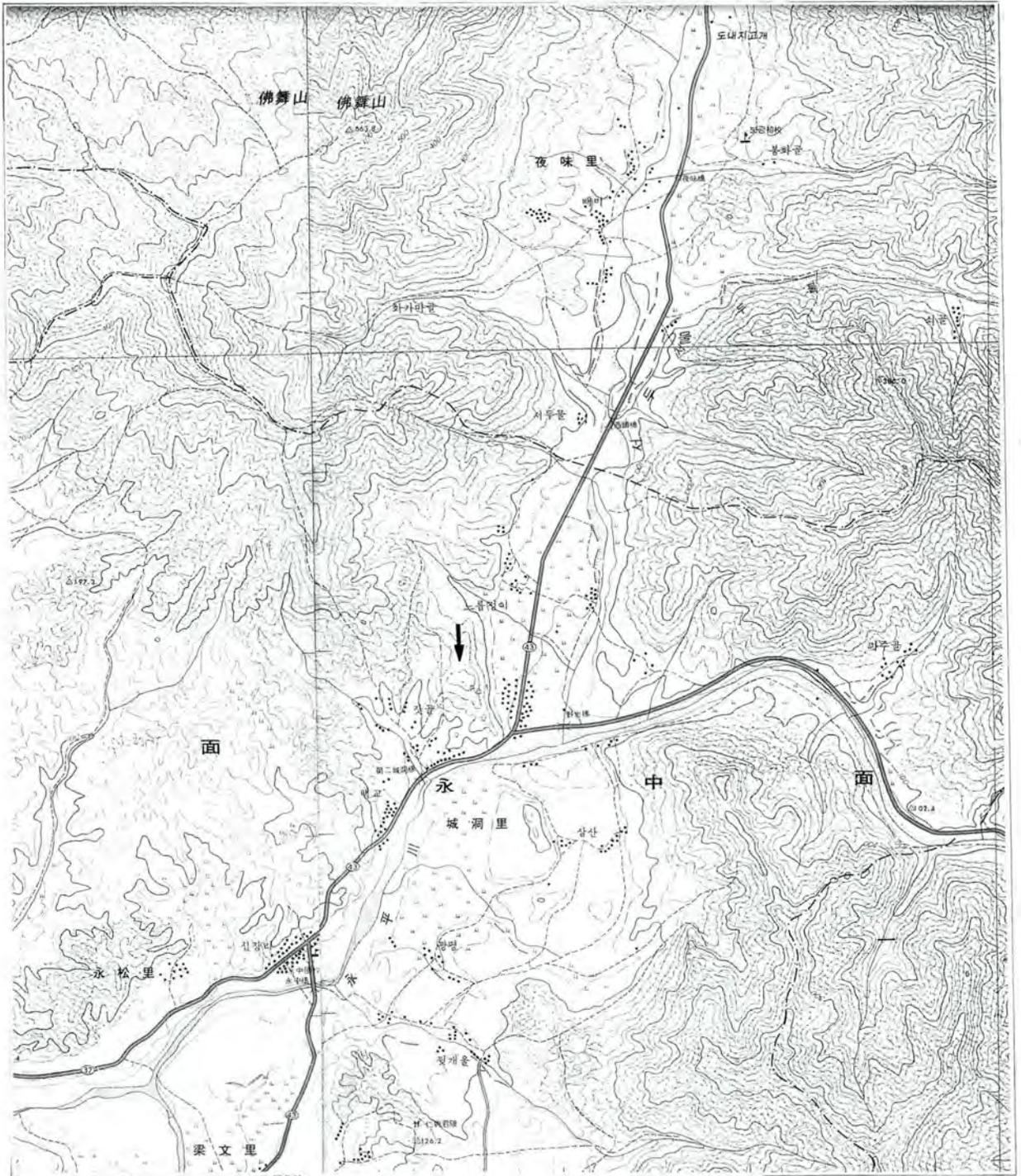
주변지형은 동쪽으로 觀音山(해발 733m)·冠帽峰(해발 585m), 북쪽으로 佛舞山(해발 663m), 서쪽으로 寶藏山(해발 555m)·種子山(해발 642m)이 솟아있고, 남쪽으로는 自然垓字의 역할을 하는 永平川이 동에서 서로 흐르고 있다.

고고학적 환경을 살펴보면, 城洞里山城에서 남쪽으로 800m 떨어진 永平川의 南岸에서는 三國時代 住居遺蹟이 京畿道博物館에 의해 발굴되었고⁵⁾ 永平川을 따라 남서쪽으로 3km 지점에는 漢陽大學校 博物館에서 三國時代 前期의 住居遺蹟인 永松里遺蹟을 발굴하였다.⁶⁾ 또한 檀國大學校 史學科의 포천군 광역지표조사에서는 城洞里山城 인근의 城洞3里·伍佳里 등에서 舊石器가 採集되었음을 보고하였다.⁷⁾ 關防遺蹟은 抱川川을 따라 남쪽 15km 지점에는 포천지역의 중심 성곽이라 할 수 있는 半月山城과 永平川을 따라 서쪽 6~10km 떨어진 蒼水面에는 注院里山城과 姑蘇城이 있으며, 철원 方면의 交通路를 따라 鳴聲山城·彌老谷烽燧·適骨山烽燧 등 다수의 관방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다. (삽도 5)

5) 경기도박물관, 「포천 성동리유적 긴급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자료」, 1998.

6) 한양대학교 박물관, 『영송리 선사유적』, 1995, 113쪽.

7)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포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8, 103쪽.



삽도 1. 성동리산성 지형도(1:25,000)



삽도 2. 성동리산성과 주변 유적 현황도

2. 歷史的 背景⁸⁾

城洞里山城이 위치한 포천지역은 한강 이북에 위치하였지만 水路와 陸路⁹⁾를 통해 쉽게 漢江流域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고대로부터 이 지역은 각국간의 치열한 戰場이 되었으며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이 시기에 쌓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山城들이 수개소에 이른다.

삼국 가운데 포천지역을 가장 먼저 점령했던 나라는 百濟일 것이다. 백제는 河南慰禮城에 도읍하여 나라를 세운 이래 주변의 여러 소국들을 차츰 정복하면서 고대국가로 발전하였고 近肖古王代에 이르러서는 帶方故地를 차지함으로써 북으로는 황해도 일대까지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 백제와 고구려가 예성강을 중심으로 대적을 하고 있었다면 이 시기 즉 5세기 중반까지는 포천일대가 백제의 세력권내에서 對高句麗 戰爭을 수행하는 前方基地로서의 기능을 갖추었을 것이다.

『三國史記』地理志를 살펴보면 포천은 원래 고구려의 馬忽郡¹⁰⁾과 梁骨縣¹¹⁾이었다가 경덕왕대에 堅城郡으로 바뀌었고 고려에 들어와서 抱州로 변화했다고 적고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면 포천지역은 처음에는 고구려의 영역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기사만으로 포천일대가 고구려의 영역이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三國史記』地理志는 한강이북의 여러 지역을 '본래 고구려의 땅이었는데(本高句麗)……'로 기록하였는데 고구려 이전에 그 지역을 영유했던 백제에 관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三國史記』의 이러한 내용은 『世宗實錄』地理志, 『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등에 그대로 이어지다가 18세기 실학자 柳馨遠의 『東國輿地志』와 김정호의 『大東地志』에 와서 한강유역을 먼저 '본래 백제의 땅이었는데(本百濟)……'라고 기록한 후에 고구려가 점령한 사실을 기록하게 된다.

고구려가 만주지역에서 한반도지역으로 관심을 돌려 적극적인 남진정책을 구사하게 된 것은 故國原王代 이후이다. 美川王代에 낙랑군을 점령하여 대동강유역까지 진출한 후 고국원왕대에 들어 요서지방으로서의 진출이 좌절됨으로서 한반도 내로 관심을 돌리게 된 것이다. 그

8) 이 장에서 지칭하는 포천지역은 오늘날의 포천군일대를 의미한다. 하지만 옛 문헌에서는 포천지역을 포천과 영평의 2지역으로 구분하여 때때로 포천은 양주에, 영평은 철원에 속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포천과 영평을 하나의 지역으로 묶어 포천의 역사적 배경에 관해 약술하기로 한다.

9) 水路는 永平川, 抱川川을 이용해 漢灘江·臨津江을 거치면 바로 한강 하구에 닿게 되고 陸路로는 포천에서 祝石嶺을 지나 의정부, 서울로 이르거나 내촌과 퇴계원을 거쳐 한강유역에 다다를 수 있다.

10) 포천 반월산성 발굴조사시 '馬忽·'명 기와가 출토되었는데 이것은 포천지역이 고구려에 의해 馬忽이라고 불리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포천 반월산성 1차발굴조사 보고서』, 1996.

11) 梁骨縣은 현재 영증면 일대로 비정되는데 때때로 철원에 속하기도 하였다.

이후 한때 고국원왕이 백제와의 전투에서 사망하는 등 일시적인 좌절을 겪긴 하지만 小獸林王代에 內政을 정비하고 廣開土王代에 한강유역에 진출하고 멀리 신라영토까지 내려가 倭를 물리치게 된다. 그후 長壽王代에 들어서 수도를 平壤으로 옮기고 南進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마침내 백제로부터 한강유역을 탈취하게 된다.

이후 550년 백제와 신라의 동맹군에 의해 한강유역을 빼앗기기전까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중반까지 약 1세기동안 포천지역은 고구려의 영역이었다. 고구려는 포천지역에 馬忽郡을 설치하는 등 한강유역에 중심 거점들을 설치하였다. 이때의 기록이 『三國史記』 편찬 당시에 반영되어 한강유역의 영역을 '본래 고구려의 땅(本高句麗)...'으로 기록되게 된 것으로 보인다. 馬忽郡 이전의 지명은 『東國輿地勝覽』 卷11 抱川縣 建置沿革條에 '本高句麗馬忽郡 一云 命擘'란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命擘"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¹²⁾ 고구려 점령 이후 현재의 포천 일대는 크게 2개의 영현으로 나뉘어졌던 것 같다. 하나는 丙乙買縣이고 다른 하나는 梁骨縣인데 지금의 성동리산성이 위치한 지역으로 추정되는 梁骨縣은 『三國史記』地理志 37권에서는 鐵原郡의 영현으로 기록되어 있다.

6세기 중반 眞興王代에 이르러 신라는 小白山脈을 넘어 漢江流域으로 진출하게 된다. 먼저 백제의 聖王과 羅濟同盟을 맺은 후 진흥왕 12년(564)년 고구려를 공격하여 "竹嶺以外 高峴以內"의 10군을 빼앗고 이듬해에는 한강유역마저 백제로부터 빼앗아 한강유역 전체에 지배권을 확보하게 된다. 신라의 이러한 일련의 진출과정들이 나타나는 유적으로는 利川 雪峰山城¹³⁾, 平澤 慈美山城¹⁴⁾, 抱川 半月山城¹⁵⁾ 등이 있다.

이후 신라는 진흥왕대에 일시 동해안을 따라 황초령과 마운령까지 진출하여 巡狩碑를 세우고 국경을 개척했지만 대체로 임진강과 한탄강을 따른 坡州-漣川-抱川-鐵原-春川 일대에서 고구려와 대치하였다. 따라서 抱川地域은 新羅의 최북단 前哨基地로서 활용되었을 것이다. 이때의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도 대체로 北漢山城, 七重城, 牛鳴山城, 述川城 등으로 대개 漢江以北·臨津江以南으로 비정되는 지역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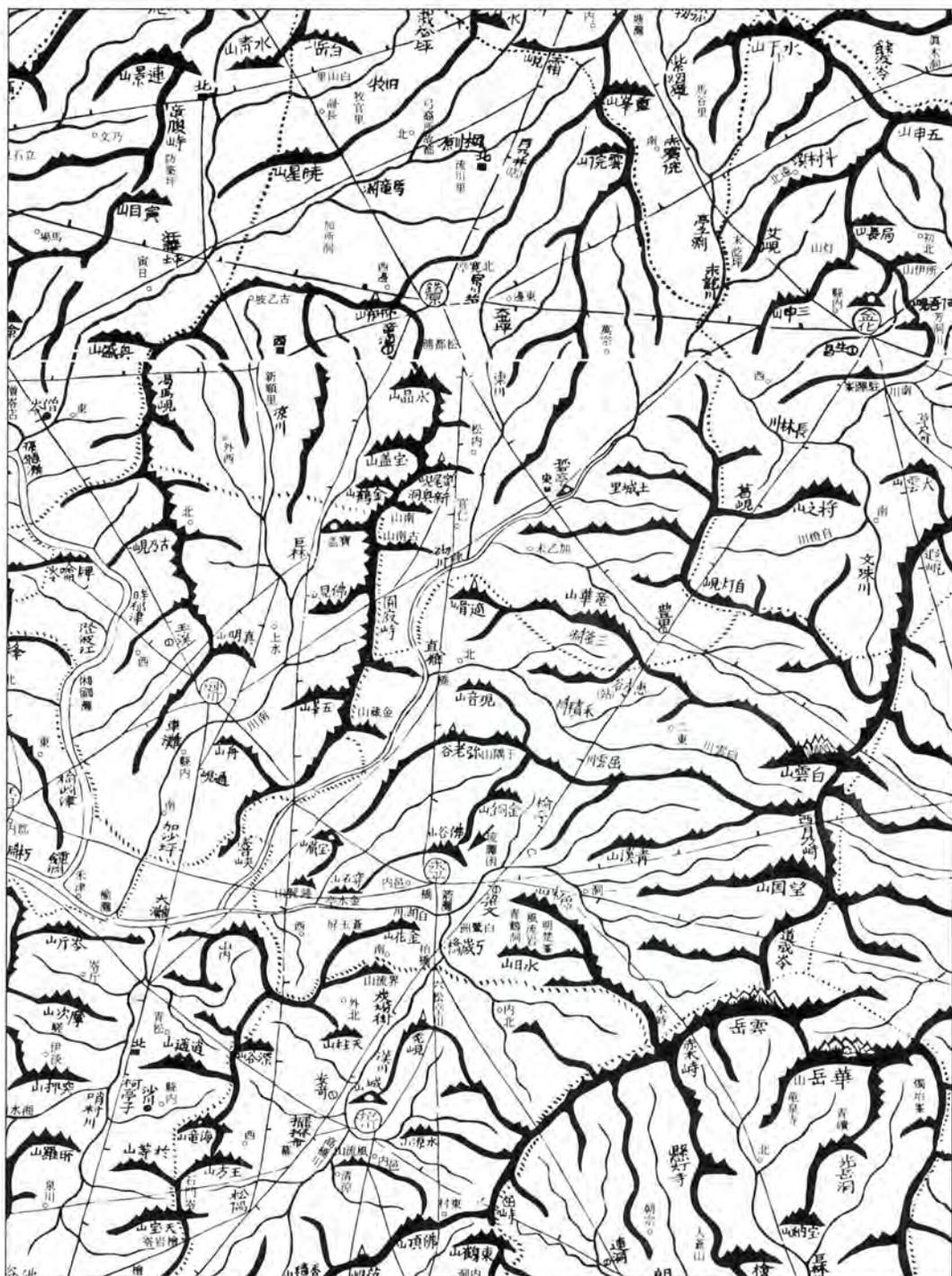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 이후 임진강·예성강 이북에 주둔하던 당군과 羅唐戰爭의 戰線이 형성된 곳도 임진강과 한강사이의 京畿北部地域一帶이다. 이때 신라는 동해안의 安邊으로부터 서해의 임진강에 이르는 선을 배수진으로 삼아 이 일대의 성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당의 남진을 저지하였다. 당의 철수 이후 포천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은 이전에 비해 축소되어

12) 고구려의 뒤를 이은 신라의 점령이후 명칭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경덕왕 이후 전국의 지명을 한자식으로 개명하는 것으로 보아 '命擘'는 '馬忽'보다 이전에 존재했던 명칭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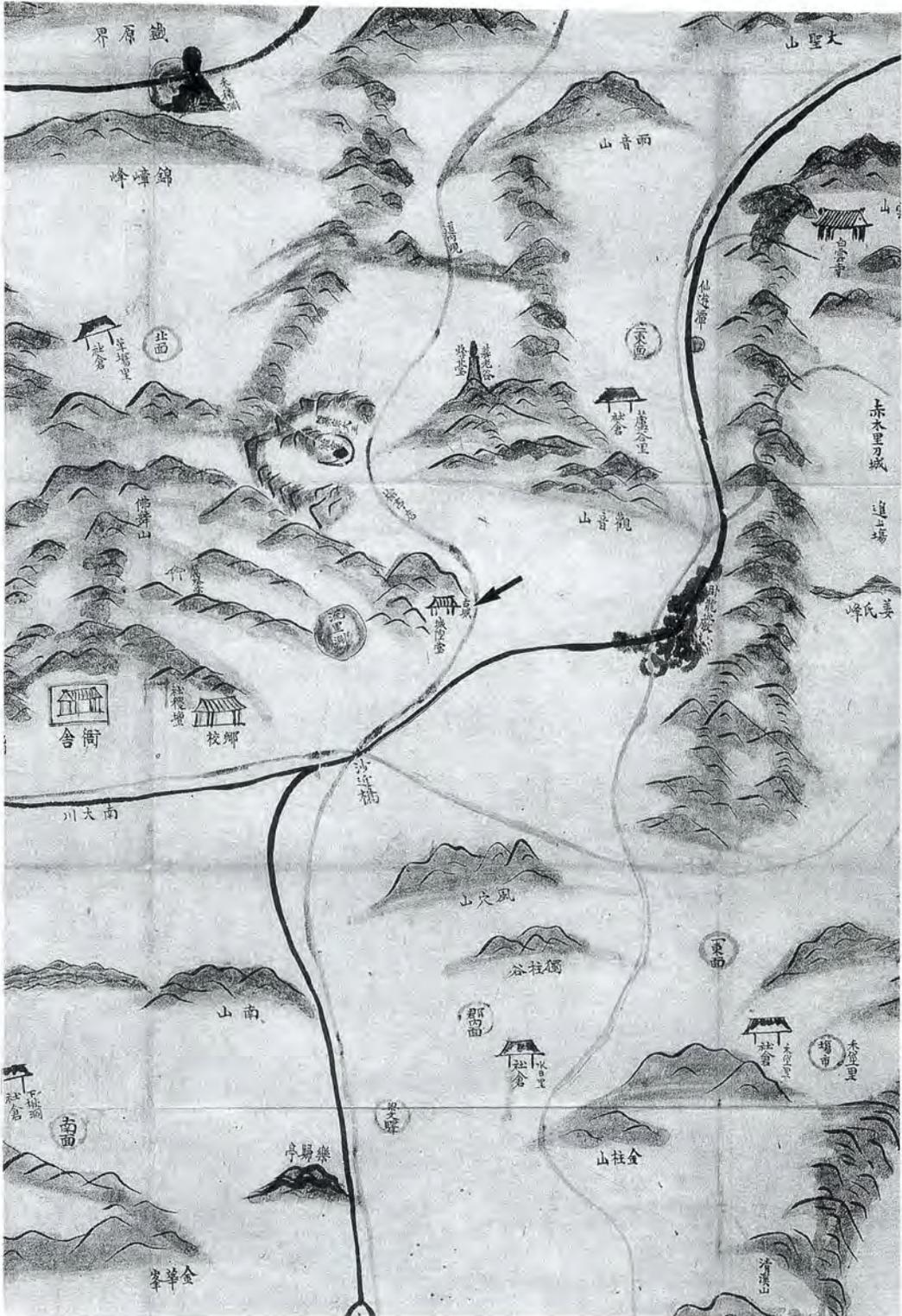
13)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이천 설봉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1998.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이천 설봉산성 1차 발굴조사 보고서』, 1999.

14) 京畿道博物館, 『平澤 關防遺蹟(Ⅰ) 精密地表面調査報告書』,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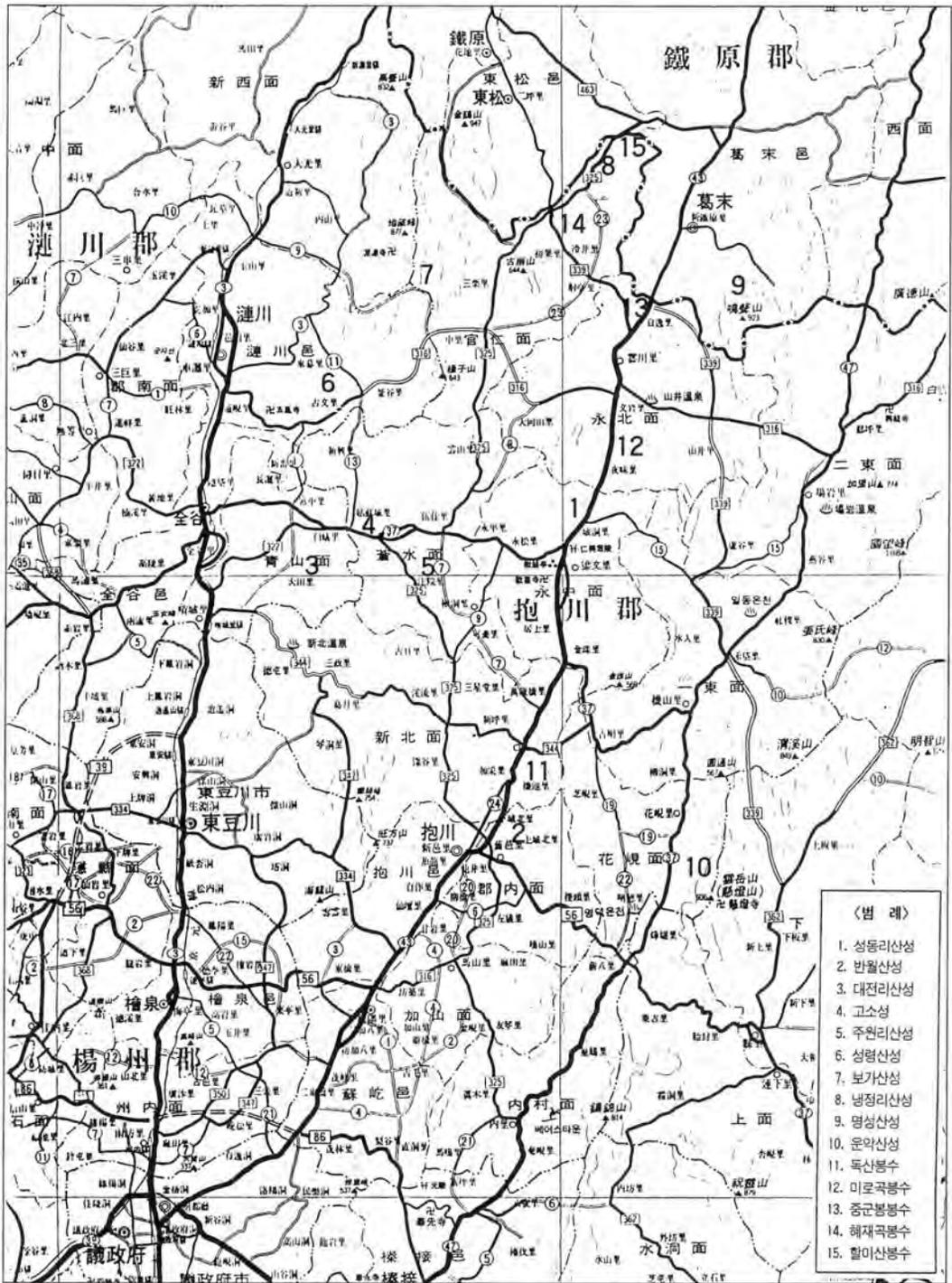
15) 강남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포천 반월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1995.



삽도 3. 성동리산성 주위의 옛 지도(大東輿地圖)



삽도 4. 성동리산성 주위의 옛 지도(永平郡地圖)



삼도 5. 성동리산성 주위의 관방유적 분포도

졌다. 우선 신라는 북방의 개척보다 새로 편입된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경영에 경주하여 한강이북·예성강이남지역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포천 일대에 대한 전략적 관심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신라 말기 弓裔가 鐵原에 泰封國을 세우고 甄萱의 後百濟, 新羅와 대립하게 되면서 부터이다. 궁예가 도읍을 정한 철원 지역은 성동리산성이 위치한 영중면 일대에서 불과 10km내에 위치하는 거리여서 이 시기에 궁예의 지배하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지역에 궁예가 축성했다는 전설이 전하는 성들이 5~6개소에 달하는데 이는 한강이남에서 철원에 이르는 길목에 해당하는 포천일원을 궁예가 중시한 것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王建에 의해 후삼국이 통일된 이후 포천일대는 군사적으로는 전략적 가치가 감소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초기에는 西京을 중시해 북진책을 추진하였으므로 都城의 남쪽에 해당하는 포천지역은 일단 군사적 관심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포천일대의 성들 가운데 고려 시대에 축성·보수된 흔적이 있는 것이 드문 것으로 보아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朝鮮時代에 들어 포천지역은 함경도에서 서울에 이르는 關北路의 主要據點이 되어 수도를 방어하는 전초기지로써의 기능을 가지긴 했지만 포천의 主城이라 할 수 있는 반월산성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성들이 이미 폐성이 되거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삼도 3·4)

III. 文獻檢討

城洞里山城에 관해 성의 명칭이나 축성시기, 시설물 등에 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으며, 다만 조선 중기이후 각 地理志에 城洞里山城으로 추정되는 옛 성의 폐성기사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들 문헌기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⁶⁾

16) 조선시대 許禧의 문집인 『水色集』에는 永平山城(城洞里山城)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題永平山城

昔日抱川今永平 何年誰子此經營
靈巖欲效李公井 南漢將追溫祚城
邑裡村墟尙磊落 山頭椎堞空鶻嶸
人和終古勝天險 版築不須勞我氓

옛날의 포천은 지금의 영평인데, 어느해에 누가 이곳을 경영했던가,
영암은 이공정을 본받으려 하고, 남한은 온조성을 따르려고 하네,
읍내의 마을은 무너진지 오래고, 산마루의 산성은 술잔처럼 가파르네,
인화는 옛부터 천협보다 나으니, 성을 짓는 것으로 우리 백성을 수고롭히지 말아라.

(표 1) 城洞里山城에 관한 文獻記錄

| 文 獻 | 內 容 |
|-------------------------|--|
| 『新增東國輿地勝覽』(1530年) | 古石城有二 一在縣東十二里 周一里 一西在縣十五里 周二里 今皆頽廢 |
| 『東國輿地志』(1656年) | 有二 一在縣東十二里 周一里 一西十五里 周二里 今皆頽廢 |
| 『輿圖備志』 | 治東十二里 周一里 有石築遺址 |
| 『大東地志』(1863年) | 古城 東十二里 周一里餘 古城 西十五里 周二里餘 |
| 『永平郡地圖』(1872年) | 城池郡東十里有一古城蹟或破或完今作城隍基 |
| 『增補文獻備考』(1908年) | 古石城有二 一在東十二里 周一里 一在西十五里 周二里 今皆廢 |
|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1942年) | 京元道路ノ路傍ニ位シ 城壁ハ全部崩壞 石築周圍約二百五十間 城內ハ民有耕地ト化シ 唯瓦ノ破片殘存スルノミニ過ギズ |

여기에서 城洞里山城을 나타내는 것은 '永平縣 동쪽 12리 둘레 1리의 古石城'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의 永平縣이 현재의 城洞里山城 서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永中面 永平里에 있었다고 하므로 '永平縣 동쪽 12리의 古石城'이 城洞里山城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겠다.

위와 같이 朝鮮 中期에 이미 古城으로 불릴 만큼 폐성이 된 사실을 제외하고는 성의 명칭, 축성시기 등이 남아있지 않아 문헌자료를 가지고 城洞里山城을 접근하기에는 출발점부터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한편, 城洞里山城을 弓裔가 築城했다는 전설이 있다고 한다. 918년 왕건의 군대에 쫓기던 궁예가 한때 이곳에 웅거하였으며, 백성과 군사를 동원하여 漢灘江에서 돌을 날라다 성을 급조하였으며 이러한 전설이 와전되어 "泰封城"이라고 불렸다는 것이다.¹⁷⁾ 하지만 궁예와 관련된 전설을 가진 성들이 鐵原·漣川·抱川地域에만 수 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성의 명칭에 관해서는 성내에 城洞里山城을 '胎封山城'이라 표기한 문화재안내판을 세워 놓았는데, 이는 이곳에 조선 純祖의 세자 翼宗의 胎를 안치하여 생겨난 것이라 한다.¹⁸⁾ 그러나, 조선후기 永平郡地圖에는 古城(城洞里山城)의 북쪽 능선상에 "翼宗大王 胎室"로 명확히 표기되어 있는 점이 매우 주목된다. 이러한 표기는 永平郡地圖의 제작연대(1872年)와 翼宗이 태어난 연대(1809年)가 19세기라는 점, 이 당시 古城안에는 城隍堂이 위치하는 점, 古地圖에 명확하게 山勢와 胎室의 위치를 표시한 점 등에서 좀더 신빙성 있는 기록으로 판단된다. (삽도4 참조)

17) 抱川郡誌 編纂委員會, 『抱川郡誌』 下, 1997, 419쪽.

18) 抱川郡誌 編纂委員會, 『抱川郡誌』 下, 1997, 419쪽.

현재 익종의 태봉은 성동1리 영평천변에 조성된 공원으로 옮겨져 있다.

IV. 調査內容

1. 城洞里山城의 現狀

城洞里山城은 京畿道 抱川郡 永中面 城洞里 갯골마을의 해발 180m의 殘丘性 山地에 축조된 堆石式 石築山城이다.

平面은 동서로 긴 사다리꼴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斷面은 北高南低·東高西低의 형태를 하고 있다. 둘레는 401.9m이며 現存성벽의 길이는 105.5m로 전체성벽의 약 28%정도만이 잔존하고 있다.¹⁹⁾ 성벽은 8~9부 능선상인 해발 157~176m의 높이에 축조하였고 평지와 의 相對高度는 100m 정도로 비교적 높은 고도를 지니고 있다.

東壁은 永平川과 抱川-鐵原간의 交通路와 인접하여 경사도가 매우 급한 반면, 西壁은 佛舞山의 지맥을 막아 축조하여 접근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南·北壁 역시 西壁과 같이 서쪽에 서 뿐어나온 능선으로 인해 성벽으로의 접근은 양호한 편이다.

內部面積은 10,775㎡(3,259평)이고 동서길이 142m, 남북길이 84m이다. 성내 構造物은 南門址, 北東雉城, 우물지, 將臺址, 水口址가 각 1개소씩, 건물지는 3개소 정도로 파악된다.

현재, 성벽상면을 따라 군사용 교통호와 지하참호가 조밀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성내부에도 군사시설이 설치된 상태이다.

1) 體城

體城이란 일반적으로 城壁의 本體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성벽의 본체에 안팎으로 또는 그 상면에 덧붙여 축조한 施設物과는 구별된다. 다시 말해서, 성벽의 윗부분에 女牆이나 성벽에 덧붙여 쌓은 雉城·曲城 등과는 구별되고 있다.

성동리산성의 城壁區分은 鐵原-抱川간의 국도와 접하는 北東回折部의 모서리를 기준점으로 하여 시계방향으로 돌며 東壁·南壁·西壁·北壁을 설정하였다. 즉 將臺址를 중심으로 하여 깎아지른 듯한 경사도를 가진 東壁, 포천 방향으로 뻗은 남쪽 능선상에 축조한 南壁, 서쪽에서 뻗어나온 능선을 가로막아 축조한 西壁, 철원 방향의 능선상에 축조한 北壁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현재의 方位概念과도 부합되며, 古代 交通路와도 일치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각 성벽의 제원과 잔존성벽, 성벽에 설치된 시설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 陸軍士官學校 博物館의 『京畿道 抱川郡 軍事遺蹟 地表調査 報告書』(19쪽)에 의하면 1997년 조사시 잔존성벽의 길이가 약 118m라고 하였는데 이번 조사에서 실측된 잔존길이와는 차이가 난다.

(표 2) 각 성벽과 잔존 성벽 제원 (단위 : m)

| | 성벽길이 | 성벽높이 | 잔존길이 | 잔존높이 | 시 설 물 |
|-------|-------|-------|-------|---------|---------|
| 東壁 | 88.4 | 4.2 | 51.8 | 3.3~4.1 | 북동치성 |
| 南壁 | 139.8 | 7.5 | 32.9 | 4.7~7.2 | 남문지, 수구 |
| 西壁 | 68.9 | . | . | . | |
| 北壁 | 105.0 | 5.2 | 24.4 | 4.2~5.0 | |
| 계(평균) | 401.9 | (5.6) | 105.5 | (4.75) | |

현재는 全區間에 걸쳐 軍事施設인 교통호와 참호가 城壁 上面에 造成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벽이 뒷채움석 부분까지 파괴된 상태이다. 殘存하는 城壁은 東壁·南壁·北壁에서만 확인되며 서벽에서는 뒷채움석 일부만 드러나 있고 面石은 완전히 사라져 나타나지 않는다.

(1) 東壁 (도면 5~7, 사진 7~24)

동벽은 성의 동쪽에 가파른 경사면을 따라 축조하였다. 이곳은 성에서 가장 경사가 급한 부분으로 성벽의 아래로는 鐵原-抱川간의 交通路와 永平川이 自然壕宇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동벽 길이는 88.4m이며 잔존하는 성벽 길이는 51.8m이다.

북벽의 중간부에서 안으로 꺾여들어오던 성벽이 北東回折部에 이르러 북동쪽으로 돌출되어 北東雉城을 축조하고 將臺址를 향해 上向傾斜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 북동회절부에서 8m 지점까지는 군사시설과 교통호로 인해 성내·외벽이 모두 파괴되어 있다. 성내로는 平坦地가 완만한 上向傾斜로 이어지고 있으며 성 밖으로는 수직에 가깝도록 험준한 지형을 나타낸다.

8m地點을 통과하면서 성벽이 나타나는데 30~35m정도 외벽의 면석이 이어지고 있다. 기저부는 낙엽과 토사로 인하여 확인할 수 없으나, 잔존 성벽의 높이는 1.5~5m 내외로 잘 다듬은 화강암을 이용하여 쌓아올렸다.

18m地點에서는 참호와 배수로의 설치로 인해 성벽이 2m정도 유실되어 뒷채움석들이 노출되어 있다. 이 부근에서는 외벽이 계곡과 접해 있는데 성내외의 지형과 성벽의 잔존상태로 보아 성내의 유수를 동쪽 계곡을 통해 영평천으로 배수하는 수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성벽이 무너져 내려 확인할 수 없었다.

32m地點부터는 성벽이 높이 1.5~2.1m, 5~10단 정도만 남아있다.

38m地點을 통과하면서 성벽이 동쪽으로 突出되어 있는데 이곳은 성내에 자리한 將臺址의 하단부이기도 하며, 성동리산성의 전체 성벽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해당한다. 현재 성벽 대부분이 유실되어 확인은 어렵지만 동벽의 다른 곳은 지형이 수직에 가깝도록 험준한 편이나 이곳에서는 외벽 하단 30m 아래까지 경사가 대체로 완만한 편이다. 이것은 가파른 경사

로 인해 城壁이 崩壞되는 것을 防止하고, 城壁의 修築時 工事의 容易性을 고려한 결과로 생각되어진다.

동벽의 중간부를 지나면서 성벽은 下向傾斜를 보이며 南東回折部를 향해 안으로 곡선을 그리며 이어져 내려간다. 76m地點부터는 성내에서 성벽이 가장 잘 남아있는 구간으로 잔존 성벽의 길이는 약 18m이며 높이는 5.5m로 면석들을 30단정도 정교하게 쌓아 놓았다.

안으로 곡선을 그리던 동벽은 88m地點을 통과하면서 南壁과 直交하고 있는데 이 직교지점에는 전방으로 능선이 돌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치성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회절부 아래로는 정상부에서 내려온 가지능선이 영평천을 향해 뺏어 내려가고 있어 이 구간의 상대적인 취약점을 드러낸다.

(2) 南壁 (도면 8~10, 사진 25~44)

남벽은 성의 서쪽에서 뺏어오는 남쪽 능선상에 축조하여 동벽에 비해 완만한 편이지만 동측편으로 계곡을 포함하고 있어 성벽 아래에서의 접근은 쉽지 않다. 남벽의 길이는 139.8m로 다른 성벽보다 길며 잔존하는 성벽 길이는 32.9m이다.

이곳에서는 성벽의 아래로 철원-포천간의 南北交通路와 전곡-이동간의 東西交通路의 交叉가 쉽게 관찰되며 남서쪽으로 흐르는 永平川이 自然垓字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또한 남쪽으로 800m정도 떨어진 영평천 하안의 三國時代의 住居遺蹟인 城洞里遺蹟과 멀리 남쪽으로는 포천의 주요한 거점이었던 半月山城이 한눈에 조망된다.

南東回折部를 지나온 성벽은 南壁 中間部에 위치한 南門址를 향해 직선으로 下向傾斜로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 남동회절부 구간은 溪谷部와 접하고 있어 성벽의 유실이 심한 상태이다. 성내의 廻郭道는 성벽상면을 따라 5~8m정도 이어지고 있으나, 교통호 조성으로 인해 대부분 파괴되었고 형태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회곽도의 안쪽으로는 완만한 경사의 오르막으로 이어지다가 내부의 平坦地로 연결되고 있다.

103m地點에서는 잔존성벽이 약 10m정도 남아 있으며 높이는 7~8m정도로서 수직에 가깝도록 축조되어졌다. 성벽의 기저부는 커다란 자연암반위에 다듬은 판상석 계통의 장방형석재를 이용해 수평을 유지하며 정교하게 쌓아 올렸으며 면석과 면석의 틈새에는 쇄기돌을 박아 단단하게 고정시켜 놓았다. 동측편은 면석이 무너져내려 뒷채움석들이 노출되어 있으며 성벽 또한 밖으로 밀려나와 중간부분으로 불룩하게 나온 형상을 하고 있다.

148m地點에서도 잔존성벽이 길이 4m, 높이 5m정도로 남아있다. 이 구간의 양 옆으로는 뒷채움석들이 노출되어 있어 斷面相에서 면석과 뒷채움석의 築造技法을 살펴볼 수 있다. 뒷채움석을 가로놓기와 세로놓기를 교대로 하며, 면의 긴쪽을 면석과 서로 맞물리도록 쌓아올려 성벽을 견고하게 축조하였다. 이 구간의 성벽하단 3.5m 지점에 水口가 시설되어 있다.

크기는 상단 25cm, 하단 50cm, 높이 35cm 정도로 사다리꼴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곳은 성내에서 성벽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성내의 流水가 이곳으로 모여 성밖으로 排出되어 영평천 방향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

이 수구는 성내 우물지의 排水路와 남북방향으로 一直線上에 連結되고 있다.

168m地點에서는 양측벽이 절개되어 있고 성안으로 오르는 계단시설이 나 있는데, 이 부근은 南門址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즉, 이 지점의 성벽은 동쪽에서 이어지는 성벽이 안으로 꺾여 들어오고 서쪽에서 이어지는 성벽은 밖으로 돌아나가게 시설되었다. 두 성벽은 평행인 상태에서 어긋나 있으며 성벽 사이에 성문을 설치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문지는 登山路로 이용하기 위해 잘 정비되어 있지만 문지 양 옆의 측벽은 모두 무너져 내려있다. 문지의 상단너비는 5m, 하단너비는 2m내외이다. 문지의 북측 내부에는 民墓 1기가 조성되어 있다.

門址를 지나면서 성벽은 다시 上向傾斜를 보이며 南西回折部를 향해 올라가고 있다. 남서회절부에 이르러서 남벽은 크게 회절하여 남서방향으로 돌아가 회절부를 형성하고 있다. 남서회절부 역시 바깥으로 능선이 뻗어내리고 주위의 조건으로 보아 치성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성 내부로 오르는 계단시설이 설치되어 원형을 상실하였다. 현재는 지하참호와 교통호로 인해 본래의 모습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회절부의 외벽은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편으로 밖으로 너비 2m정도의 반원형의 段이 형성되어 있다.

(3) 西壁 (사진 45·46)

서벽은 성의 서쪽에 위치한 보장산·종자산의 능선을 막아 축조하여 성벽의 높이나 외벽의 경사도가 다른 구간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하지만 북·서쪽으로는 불무산에서 내려오는 높은 連峰들이 늘어서 있어 서벽으로의 접근도 쉽지 않은 편이다. 서벽은 전체길이가 68.9m로서 성내 성벽 가운데 가장 짧은 편이다. 다른 성벽이 비교적 직각에 가깝게 경사진 지형에 쌓았던 데 비해 서벽은 평탄한 지형을 보임에도 남아있는 성벽은 거의 없다.

성벽은 片築式으로 축조되었으며 성벽 상면을 따라 폭 7~8m정도의 회곽도가 개설되어 있다. 남서회절부에서 회절한 서벽은 조그만 계곡부를 지나 북벽을 향해 오르막 경사로 이어지고 있다.

서벽은 현재 잔존성벽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모두 붕괴되어 있는데 이것은 西壁과 主防禦方向의 關聯性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동벽과 북벽은 지형이 서벽에 비해 더 험준하지만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되었고 후대에도 修改築이 빈번히 이루어졌지만 서벽은 맞은 편에 높은 능선들이 자리하는 등 방어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교한 축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벽 아래로는 성동 5리 잣골마을로

이어지는 폭 3~4m정도의 도로가 개설되어있다.

(4) 北壁 (도면 11·12, 사진 47~64)

북벽은 남벽과 같이 성의 서쪽에서 뻗어나오는 북쪽 능선상에 축조하여 동벽에 비해 완만한 경사를 가지며 성벽 하단부에는 고원의 넓은 대지가 펼쳐져 있다. 이 대지는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북벽에서는 성벽 아래로 지나는 鐵原-抱川間의 交通路와 雲川方面이 훤히 眺望된다. 북벽은 전체길이가 105m이며 잔존성벽의 길이는 24.4m이다.

北西回折部에서 북서쪽으로 돌출되어 들어 온 북벽은 거의 직선으로 이어져 동벽과 연결되며 성벽의 높이차도 거의 나지 않는다. 서벽과 북벽의 회절부에는 가지능선이 뻗어내려 가고 있는데 성벽 20m정도의 하단부에는 길이 70~80m, 폭 40~50m의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 평탄지도 주변과의 상대고도가 약 100m에 달한다.

316m地點에는 길이 20m정도의 성벽이 잔존한다. 성벽은 기저부를 약간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약간 안으로 들어 쌓았다. 성벽의 면석은 잘 다듬어진 판상석 계통의 장방형석재를 이용하여 수평을 유지하며 정교하게 쌓아 올렸으며 면석과 면석 사이의 틈새에는 상하좌우에 쇠기돌을 박아 견고성을 유지하고 있다. 성벽아래로 10m지점에는 무너진 성돌을 이용하여 길이 20m정도의 돌무지를 쌓아 놓았다. 이것은 군의 교통호·참호조성시 무너진 성돌을 한곳에 모아 놓은 것으로 생각된다. 성안쪽으로는 넓은 규모의 平坦地가 자리하고 있는데 성내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기와가 채집되는 것으로 보아 建物址로 추정되는 곳이다.

370m地點에서는 길이 14m정도의 잔존성벽이 남아있다. 이곳은 원래 성벽이 평행한 형태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하에 조성된 참호로 인해 성벽이 안으로 꺾여 들어온 곡선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북벽에서 동벽으로 회절하는 부분에는 북쪽으로 돌출시켜 雉城을 축조하였는데 현재 상면에 군의 진지가 조성되어 일부는 파괴되었다. 이 北東雉城은 다른 성벽구간과는 달리 玄武岩을 사용하여 築造한 점이 注目된다. 축조재료로 현무암을 사용한 것은 弓裔가 한탄강에서 돌을 날라다 성을 쌓았다는 傳說과 附合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이런 축조재료의 차이가 시기적인 선후관계와 관련있는지, 시설물의 기능과 관련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추후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門址 (사진 43·44)

門址는 城内外를 連結하는 通路로서 유사시 적의 침입과 공격을 차단하는 構造物을 뜻한다.

성동리산성의 문지는 남쪽 계곡부를 막아 축조한 남벽의 서측편에서 1개소가 확인되었다. 현재 이곳은 인근 부대에서 페타이어와 城石을 사용하여 성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계단을 시설하였다. 평면형태는 서측벽이 남쪽으로 약간 돌출되어 북쪽으로 들어온 동측벽과 서로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平面은 “—” 形態로 어긋문 양식을 하고 있다. 문지 안쪽에는 반원추형의 둔덕이 성벽과 연결되고 있다. 이 둔덕은 성문을 감싸고 돌아가며 안쪽에서 방어할 수 있는 內甕城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문지의 규모는 상단너비 5m, 하단너비 2~3m이며, 바닥부에서 성벽 상면까지의 높이는 5~7m가량이다. 양측벽 면석들은 모두 사라지고 뒷채움석들만 남아있어 정확한 현상과악은 어려운 상태이다.

3) 雉城 (사진 61~64)

雉城은 성벽을 바깥쪽으로 突出시켜 축조한 構造物로 적이 성벽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적의 공격을 감시·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동·서·남·북벽의 회절부 밖으로는 완만한 능선이 뻗어 나가고 있으며, 주변의 지형조건으로 보아 치성이 설치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각 회절부마다 성벽 상면에 교통호·참호 등의 군사시설과 성내부로 오르는 계단이 시설되어 있어 원형을 확인할 수 없다. 雉城이 확인되는 구간은 北東回折部로서 북쪽의 철원과 동쪽의 영평천 방향에 접한 성벽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축조한 것으로 여겨진다.

치성은 전면의 북편과 모서리돌(隅石) 일부만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상면과 전면의 동쪽으로는 교통호와 지하참호가 조성되어 있다. 축조방법은 두께 20cm, 길이 40cm내외의 잘 치석된 현무암 면석을 사용하여 장방형쌓기를 주로 하였으며 수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 단 틈새에 췌기돌을 촘촘하게 박아 놓았다.

남아있는 치성의 규모는 체성에서 4m정도 돌출하여 전면너비 3.2m이고 상면까지의 높이는 2.2m내외이다. 모서리돌은 두께 30cm, 길이 60cm정도이며 2~3cm가량 안물림하였다. 현재 전면에는 3~4단에 1m의 높이로 장방형쌓기 한 현무암성벽을 관찰할 수 있다.

이와같이 북동치성은 玄武岩을 축조재료로 사용한 점이 特徵的이다. 이러한 현무암석재는 弓裔傳說과 附승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곳에는 泰封國의 왕인 弓裔가 부하인 王建에게 쫓길 때 하루저녁을 宿營하기 위해 쌓은 城으로 北江(漢灘江)에서 이곳까지 백성과 군졸들이 일렬로 서서 손에서 손으로 돌을 전달하여 날랐다는 이야기가 傳하고 있다.

4) 建物址

산성의 안에는 유사시 전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물만을 두었는데 산성의 설치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중 빼놓을 수 없는 건물이 무기와 식량을 저장하는 倉庫建物이다.

城洞里山城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성내의 높이가 낮아지는 3段 垜地를 형성하고 있다. 그 중에서 우물지를 중심으로 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상단의 평탄대지가 내부면적 가운데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성내에서의 가장 주요한 공간을 차지하며, 중·하단대지들은 경사면에 의지한 소규모의 평탄지들이다.

현재 건물지로 추정되는 지역은 우물지를 중심으로 상단대지에 2개소, 중단대지에 1개소 등 모두 3個所이다. 하단대지는 현재 군사시설물로 인해 파괴가 심한 편이다.

평탄지 상면에 소나무가 인공조림되어 있고 낙엽과 부식토가 덮혀 있어 지표에서 건물지 관련 유구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성 내외에서 채집되는 삼국~고려시대에 걸치는 많은 양의 기와·토기류 등의 유물을 통해 볼 때 성동리산성 내에는 폭 넓은 시기에 걸쳐 건물지가 존재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1) 建物址1 (사진 65)

상단대지의 우물지 서편에 위치하며 크기는 20×20m정도이다. 현재 성내에서 가장 넓은 평지이며 내부에는 20년생 소나무가 인공조림되어 있다. 초석과 같은 유구는 발견되지 않으며 곳곳에 지름 2m 내외의 원형구덩이가 파여 있고 그 내부에 城石이 적체되어 있다.

(2) 建物址2 (사진 66)

상단대지의 우물지 동북편에 위치하며 크기는 15×15m 내외로 동서방향의 긴 장방형의 형태이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지형이 높아지는 형태이며 동편으로 정상부의 장대지와 접해 있다. 건물지의 남쪽으로는 길이 15m, 너비 2m, 높이 1m의 돌무지가 동서방향으로 쌓여져 있다. 이 돌무지들은 최근에 성벽상면을 따라 조성된 참호·교통호 공사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면석들과 뒷채움석, 투석용 석환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建物址3 (사진 67·68)

중단대지의 서측편에 위치하여 성의 남벽과 성 밖 영평천의 모습이 한눈에 공제되는 지역이다. 건물지의 하단부에 민묘 1기가 조성되어 있다. 규모는 10×3.5m 정도이다.

5) 將臺址 (사진 13·14)

장대지는 군사의 지휘·관측이 용이한 지점에 축조하는 지휘소를 뜻하는 것이다. 성동리산성의 내부 동측에 위치한 해발 180m의 정상부에 해당하며 현재는 군의 지휘참호가 지하에 시설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남쪽으로 영평천 주위와 반월산성, 북쪽으로는 철원-포천을 잇는 교통로를 따라 철원·운천방면이 한눈에 조망되는 등 주변 시계가 매우 좋을 뿐만 아니라 성 내부를 통제할 수 있어 장대지로서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갖고 있다.

성내에서의 높이는 2.5~3m이고 평면은 직경 7~10m 정도의 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다. 동남쪽에는 암반이 솟아 있고, 동벽과 접한 동측부를 제외하고는 군사설물로 인해 그 원형을 파악할 수 없다. 조선후기 永平縣地圖에는 성안에 城隍堂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정상부근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장대지 아래의 동벽구간에서만 조선시대의 기와·자기편이 채집되고 있기 때문이다.

6) 飲料遺構 (도면 4, 사진 69~74)

음료유구란 성내의 사람의 식수, 세탁 등을 위한 것과 군마가 먹을 수 있는 썸, 우물, 연못 등을 말하는 것으로, 성내에서 일정기간을 농성할 경우 가장 필수적인 시설이다.

성안에서의 음료유구는 상단대지의 중간부에서 우물지 1개소가 확인되었다. 상부는 원형, 하부는 팔각형의 평면을 하고 있다. 하단부에서 60cm까지는 지름 67cm의 팔각형 석축을 수직으로 축조한 후 그 위로는 밖으로 벌어지는 나팔상의 단면형태로 지름 2.1m의 원형석축을 계단식으로 물러가며 축조하였다. 규모는 지름 2.1m, 깊이 1.7m에 10~12단을 석축하였다. 남향하는 배수로는 너비 60cm에 길이 3m정도로 남아있으며 바닥에는 판석재가 일부 노출되어 있다.

우물과 배수로의 연결부를 살펴보면 동측벽은 수직의 3단석축이 남아있고 서측벽은 7단의 석축을 계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하였다. 석재는 두께 10~20cm, 길이 20~50cm내외의 화강암 석재를 주재료로 사용하였으나 일부 현무암석재도 관찰되고 있다.

그리고 배수로의 방향이 남벽부의 수구방향과 일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성내의 유수가 남벽 수구를 통해 배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물에서 수구까지의 거리는 52.5m이다. 그리고, 우물에서 서쪽으로 3.5m거리에 지름 4.8m정도의 갈대숲이 원형으로 형성되었는데 이곳 지하에는 용수를 저장하였던 저수유구가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우물지는 인근 군부대에서 철조망을 설치하여 보호하고 있다.

7) 水口 (도면 10, 사진 42)

수구는 성벽 안의 물이 흘러 나가게 한 배수시설로서, 남벽의 중간부에 위치하며 이곳은 남문지의 동측편에 해당한다. 형태는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사다리꼴의 모습을 하고 있다.

성벽 하단에서 1m 높이에 넓은 판석을 깔고 그 위에 2단의 석축을 쌓으면서 아래돌보다 윗돌을 안으로 들여쌓아서 좁힌 다음 다시 판석으로 윗부분을 마무리하였다. 수구의 크기는

높이 35cm, 상부폭 25cm(추정), 하부폭 40cm(추정)이다. 면석의 크기는 50cm×15cm×50cm, 60cm×14cm×53cm 정도로 다른 곳보다 큰 석재를 사용하여 축조하였는데 이는 수구의 기능수행에 따른 배려로 생각된다.

수구의 방향과 성내 우물지 배수로의 방향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성내의 유수 등을 남쪽 계곡으로 배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벽 북측편도 성 밖으로 계곡과 접해있고 성벽이 높이가 현저히 낮아 수구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성벽이 2m정도 유실되어 확인할 수 없다.

8) 廻郭道 (사진 7·8·16·25·26·45·47·48)

회곽도는 성벽이나 성벽 내외에 성벽을 따라 돌 수 있게 설치한 인공적인 도로를 말한다. 성동리산성은 산봉우리 주변을 삭토하고 편축법으로 성벽을 축조하여 성벽의 안쪽으로 회곽도가 동·서·남·북벽 모두에서 나타난다. 동·서·북벽은 성벽을 축조한 상면에 회곽도를 조성한 반면 남벽은 성벽 축조시 삭토한 지형 위에 폭 5~14m정도의 회곽도를 시설하였다.

현재 성벽 상면을 따라 군의 교통호가 설치되어 원형이 대부분 손상되었다.

2. 區間別 城壁調査

성동리산성의 둘레는 401.9m이지만 현존성벽의 길이는 105.5m로 전체성벽의 약 28%정도만이 잔존하고 있다. 잔존성벽은 동·남·북벽에만 나타나고 서벽에서는 뒷채움석 일부만이 확인된다.

현존 성벽의 정확한 실측과 구간설정을 위하여 북동회절부의 군참호 상면에 위치한 고목을 기준점으로 삼아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성벽잔존 구간을 i ~ vi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각 잔존구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잔존 성벽구간 제원

| 구 간 | 길이(m) | 높이(m) | 단수 | 경사도 | 비 고 | |
|--------|-------|--------|-------|--------|-----------|----|
| i 구간 | 30.4 | 3.3 | 17단 | 86도 | 동벽 | |
| ii 구간 | 21.4 | 4.1 | 23단 | 81~86도 | 동벽 | |
| iii 구간 | 1 | 8.9 | 4.7 | 21단 | 85도 | 남벽 |
| | 2 | 12 | 7.3 | 29단 | 81~90도 | |
| iv 구간 | 8.4 | 5.2 | 23단 | 85도 | 남벽(수구 포함) | |
| v 구간 | 10.3 | 5.0 | 27단 | 78~84도 | 북벽 | |
| vi 구간 | 14.1 | 4.2 | 20단 | 82~80도 | 북벽 | |
| 계(평균) | 105.5 | (4.8) | (23단) | (83도) | | |

1) i 區間 (도면 5·6, 사진 7~12)

북동회절부와 접하여 산의 정상부를 향해 오르는 동벽의 북측편에 해당하며 현재는 길이 30.4m, 높이 3.3m 정도로 석축은 17단이 남아있다. 성벽의 기울기는 1단에서 7단까지는 약 86도를 유지하며 8단이후부터는 참호조성으로 인해 면석들이 밀린 것으로 보인다.

i 구간은 산의 경사면을 따라 축성하여 경사가 가장 급한 부분이다. 먼저 산의 경사면을 깎아내고 잘 다듬어진 판상석 계통의 장방형석재를 이용하여 수평을 유지하면서 바르게 쌓아 올렸고 면석과 면석사이의 틈새가 생기면 췌기돌을 박아 고정하였다. 일부 무너진 구간을 통해 뒷채움석과 면석의 상태를 살펴보면, 뒷채움석의 긴쪽을 면석과 서로 맞물리도록 쌓아올려 성벽을 견고히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i 구간에서는 판상석 계통의 장방형석재와 현무암을 면석으로 사용한 것이 관찰되는데 이것은 다른 성벽잔존구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i 구간과 인접한 북동치성이 현무암을 면석으로 사용한 것과 유사하다.

유물은 조선시대 기와와 토기류, 백자류 등이 다량으로 산포되어 있으며 고려시대 동전인 승녕중보가 채집되었다. 이는 i 구간에 상면에 위치한 장대지구근에 과거 성황당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때 성황당의 유물이 휩쓸려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i 구간 면석의 두께와 길이의 비율을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i-1 區間 上部(단위 : cm)

| | 두께 | 길이 | 두께:길이 |
|----|------|------|-------|
| 1 | 22 | 48 | 1:2.2 |
| 2 | 20 | 32 | 1:1.6 |
| 3 | 22 | 38 | 1:1.7 |
| 4 | 20 | 44 | 1:2.2 |
| 5 | 20 | 32 | 1:1.6 |
| 6 | 19 | 68 | 1:3.6 |
| 7 | 24 | 42 | 1:1.8 |
| 8 | 26 | 30 | 1:1.2 |
| 9 | 20 | 48 | 1:2.4 |
| 10 | 22 | 44 | 1:2 |
| 평균 | 21.5 | 42.6 | 1:2 |

i-1 區間 下部(단위 : cm)

| | 두께 | 길이 | 두께:길이 |
|----|------|------|-------|
| 1 | 14 | 54 | 1:3.9 |
| 2 | 13 | 48 | 1:3.7 |
| 3 | 12 | 42 | 1:3.5 |
| 4 | 14 | 38 | 1:2.7 |
| 5 | 18 | 36 | 1:2 |
| 6 | 18 | 46 | 1:2.6 |
| 7 | 16 | 56 | 1:3.5 |
| 8 | 18 | 32 | 1:1.8 |
| 9 | 16 | 34 | 1:2.1 |
| 10 | 18 | 42 | 1:2.3 |
| 평균 | 15.7 | 42.8 | 1:2.8 |

i-2區間 上部(단위 : cm)

| | 두께 | 길이 | 두께:길이 |
|----|------|----|-------|
| 1 | 18 | 58 | 1:3.2 |
| 2 | 14 | 48 | 1:3.4 |
| 3 | 16 | 58 | 1:3.6 |
| 4 | 18 | 46 | 1:2.6 |
| 5 | 22 | 36 | 1:1.6 |
| 6 | 20 | 50 | 1:2.5 |
| 7 | 18 | 44 | 1:2.4 |
| 8 | 20 | 56 | 1:2.8 |
| 9 | 22 | 60 | 1:2.7 |
| 10 | 14 | 64 | 1:4.6 |
| 평균 | 18.2 | 52 | 1:2.9 |

i-2區間 下部(단위 : cm)

| | 두께 | 길이 | 두께:길이 |
|----|------|------|-------|
| 1 | 18 | 42 | 1:2.3 |
| 2 | 18 | 44 | 1:2.4 |
| 3 | 20 | 36 | 1:1.8 |
| 4 | 16 | 44 | 1:2.8 |
| 5 | 20 | 46 | 1:2.7 |
| 6 | 28 | 52 | 1:1.9 |
| 7 | 26 | 48 | 1:1.8 |
| 8 | 28 | 58 | 1:2.1 |
| 9 | 26 | 44 | 1:1.7 |
| 10 | 22 | 58 | 1:2.6 |
| 평균 | 22.2 | 47.2 | 1:2.2 |

2) ii區間 (도면 7, 사진 15~24)

동벽의 중앙부인 장대지의 하단에서 시작하여 남동회절부까지 이어지며 현재는 길이 21.4m, 높이 5.1m 정도로 석축은 23단이 남아있다. 성벽의 기울기는 약 81~86도를 유지하다가 15단부터는 거의 직각에 가깝게 90도정도로 축조하였다.

ii구간의 축조방법은 먼저 산의 경사면을 깎아내고 바깥쪽에 장방형의 화강암을 이용하여 각 단의 수평을 유지하면서 고르게 쌓아올렸고 면석과 면석사이의 틈새가 생기면 쇠기돌을 박아 고정하였다.

ii 구간 면석의 두께와 길이의 비율을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ii區間 上部(단위 : cm)

| | 두께 | 길이 | 두께:길이 |
|----|----|------|-------|
| 1 | 12 | 54 | 1:4.5 |
| 2 | 14 | 42 | 1:3 |
| 3 | 18 | 28 | 1:1.6 |
| 4 | 16 | 54 | 1:3.4 |
| 5 | 12 | 48 | 1:4 |
| 6 | 18 | 42 | 1:2.3 |
| 7 | 10 | 62 | 1:6.2 |
| 8 | 26 | 38 | 1:1.5 |
| 9 | 20 | 50 | 1:2.5 |
| 10 | 14 | 38 | 1:2.7 |
| 평균 | 16 | 45.6 | 1:3.2 |

ii區間 下部(단위 : cm)

| | 두께 | 길이 | 두께:길이 |
|----|----|------|-------|
| 1 | 14 | 58 | 1:4.1 |
| 2 | 12 | 48 | 1:4 |
| 3 | 14 | 42 | 1:3 |
| 4 | 20 | 36 | 1:1.8 |
| 5 | 18 | 42 | 1:2.3 |
| 6 | 16 | 44 | 1:2.8 |
| 7 | 22 | 28 | 1:1.3 |
| 8 | 20 | 48 | 1:2.4 |
| 9 | 22 | 44 | 1:2 |
| 10 | 22 | 48 | 1:2.2 |
| 평균 | 18 | 43.8 | 1:2.6 |

3) iii區間 (도면 8·9, 사진 25~28)

남벽에 위치하며 현재는 길이 24.5m, 높이 7.3m정도로 석축은 29단이 남아있다. 성벽의

기울기를 살펴보면 iii-1구간은 85도를 유지하며 iii-2구간은 1단에서 14단까지 81도를 유지하다가 15단부터는 약 90도를 유지하여 거의 직각에 가깝게 축조하였다.

성벽은 크기가 30cm×15cm~65cm×25cm 정도의 잘 다듬어진 장방형석재를 면과 모를 맞추어 고르게 쌓아올렸고, 틈새에는 쇠기돌을 박아 고정하였다. 현재 성벽 하단부에 커다란 자연암반이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자연암반을 기저부로 삼아 성벽을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성벽 중간부 곳곳이 암질의 차이로 붕괴가 진행되고있다.

iii구간 면석의 두께와 길이의 비율을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iii-1區間 上部(단위 : cm)

| | 두께 | 길이 | 두께:길이 |
|----|------|------|-------|
| 1 | 18 | 46 | 1:2.6 |
| 2 | 22 | 58 | 1:2.6 |
| 3 | 22 | 40 | 1:1.8 |
| 4 | 22 | 38 | 1:1.7 |
| 5 | 18 | 14 | 1:0.8 |
| 6 | 19 | 52 | 1:2.7 |
| 7 | 17 | 64 | 1:3.8 |
| 8 | 18 | 38 | 1:2.1 |
| 9 | 20 | 50 | 1:2.5 |
| 10 | 18 | 28 | 1:1.6 |
| 평균 | 19.4 | 42.8 | 1:2.2 |

iii-1區間 下部(단위 : cm)

| | 두께 | 길이 | 두께:길이 |
|----|------|------|-------|
| 1 | 24 | 48 | 1:2 |
| 2 | 23 | 42 | 1:1.8 |
| 3 | 25 | 40 | 1:1.6 |
| 4 | 22 | 41 | 1:1.9 |
| 5 | 22 | 52 | 1:2.4 |
| 6 | 19 | 50 | 1:2.6 |
| 7 | 20 | 34 | 1:1.7 |
| 8 | 18 | 38 | 1:2.1 |
| 9 | 20 | 44 | 1:2.2 |
| 10 | 20 | 78 | 1:3.9 |
| 평균 | 21.3 | 46.7 | 1:2.2 |

iii-2區間 上部(단위 : cm)

| | 두께 | 길이 | 두께:길이 |
|----|------|------|-------|
| 1 | 20 | 68 | 1:3.4 |
| 2 | 22 | 56 | 1:2.5 |
| 3 | 24 | 44 | 1:1.8 |
| 4 | 28 | 38 | 1:1.4 |
| 5 | 24 | 58 | 1:2.4 |
| 6 | 22 | 40 | 1:1.8 |
| 7 | 18 | 48 | 1:2.7 |
| 8 | 20 | 38 | 1:1.9 |
| 9 | 22 | 64 | 1:2.9 |
| 10 | 24 | 54 | 1:2.3 |
| 평균 | 22.4 | 50.8 | 1:2.3 |

iii-2區間 下部(단위 : cm)

| | 두께 | 길이 | 두께:길이 |
|----|------|------|-------|
| 1 | 22 | 56 | 1:2.3 |
| 2 | 24 | 34 | 1:2.4 |
| 3 | 22 | 52 | 1:1.8 |
| 4 | 20 | 50 | 1:2.8 |
| 5 | 22 | 48 | 1:2.7 |
| 6 | 18 | 44 | 1:1.9 |
| 7 | 12 | 46 | 1:1.8 |
| 8 | 16 | 56 | 1:2.1 |
| 9 | 26 | 52 | 1:1.7 |
| 10 | 20 | 54 | 1:2.6 |
| 평균 | 20.2 | 49.2 | 1:2.2 |

4) iv區間 (도면 10, 사진 37~42)

남벽의 중앙부인 계곡부에 축조한 성벽으로 현재는 길이 8.4m, 높이 5.2m, 23단 정도의 석축이 남아있다. 성벽의 기울기는 약 85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구간은 크기가 35cm×25cm~ 50cm×30cm 정도의 장방형석재를 이용하여 수평을 유지하면서 고르게 쌓아 올렸고, 틈새에는 쇄기돌을 박아 고정하였다. 뒷채움석은 활석재를 이용하여 활석재의 긴쪽과 면석을 서로 맞물리도록 쌓아 성벽을 매우 견고하게 하였다.

iv 구간 면석의 두께와 길이의 비율을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iv 區間 上部(단위 : cm)

| | 두께 | 길이 | 두께:길이 |
|----|------|------|-------|
| 1 | 20 | 34 | 1:1.7 |
| 2 | 22 | 44 | 1:2 |
| 3 | 22 | 36 | 1:1.6 |
| 4 | 20 | 48 | 1:2.4 |
| 5 | 24 | 44 | 1:1.8 |
| 6 | 22 | 42 | 1:1.9 |
| 7 | 20 | 30 | 1:1.5 |
| 8 | 18 | 48 | 1:2.7 |
| 9 | 21 | 32 | 1:1.5 |
| 10 | 28 | 36 | 1:1.3 |
| 평균 | 21.7 | 39.4 | 1:1.8 |

iv 區間 下部(단위 : cm)

| | 두께 | 길이 | 두께:길이 |
|----|----|------|-------|
| 1 | 28 | 42 | 1:1.5 |
| 2 | 24 | 68 | 1:2.9 |
| 3 | 24 | 18 | 1:0.8 |
| 4 | 32 | 54 | 1:1.7 |
| 5 | 28 | 42 | 1:1.5 |
| 6 | 26 | 48 | 1:1.8 |
| 7 | 24 | 44 | 1:1.8 |
| 8 | 32 | 38 | 1:1.2 |
| 9 | 18 | 48 | 1:2.7 |
| 10 | 24 | 40 | 1:1.7 |
| 평균 | 26 | 44.2 | 1:1.8 |

5) v 區間 (도면 11, 사진 47~54)

북벽에 위치하며 현재는 길이 10.3m, 높이 5m, 27단 정도의 석축이 남아있다. 성벽의 기울기는 1단에서 16단까지는 약 84도를 유지하다가 17단부터는 78도의 경사도로 축조하였다.

이 구간은 30cm×25cm~ 50cm×30cm 정도 크기의 장방형석재를 이용하여 수평을 유지하면서 바른층 쌓기로 축조하였고 틈새가 벌어진 곳에는 쇄기돌을 박아 고정하였다.

v 구간 면석의 두께와 길이의 비율을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v 區間 上部(단위 : cm)

| | 두께 | 길이 | 두께:길이 |
|----|------|------|-------|
| 1 | 22 | 42 | 1:1.9 |
| 2 | 18 | 54 | 1:3 |
| 3 | 14 | 64 | 1:4.6 |
| 4 | 22 | 68 | 1:3.1 |
| 5 | 20 | 48 | 1:2.4 |
| 6 | 22 | 32 | 1:1.5 |
| 7 | 12 | 54 | 1:4.5 |
| 8 | 16 | 58 | 1:3.6 |
| 9 | 14 | 44 | 1:3.1 |
| 10 | 16 | 46 | 1:2.9 |
| 평균 | 17.6 | 45.2 | 1:3.1 |

v 區間 下部(단위 : cm)

| | 두께 | 길이 | 두께:길이 |
|----|------|------|-------|
| 1 | 18 | 62 | 1:3.4 |
| 2 | 20 | 44 | 1:2.2 |
| 3 | 16 | 48 | 1:3 |
| 4 | 22 | 62 | 1:2.8 |
| 5 | 18 | 62 | 1:3.4 |
| 6 | 18 | 50 | 1:2.8 |
| 7 | 16 | 66 | 1:4.1 |
| 8 | 12 | 42 | 1:3.5 |
| 9 | 14 | 44 | 1:3.1 |
| 10 | 20 | 52 | 1:2.6 |
| 평균 | 17.4 | 53.2 | 1:2.5 |

6) vi區間 (도면 12, 사진 55~60)

북벽에 위치하며 현재는 길이 14.1m, 높이 3.4cm, 20단의 석축이 남아있다. 성벽의 기울기는 약 80~82도를 유지하며 성벽 윗부분으로 가면서 성내의 참호조성으로 인해 면석들이 밀려나 있다.

성벽은 크기가 30cm×20cm~65cm×25cm 정도의 장방형석재를 면과 모를 맞추어 고르게 쌓아올렸고, 틈새에는 쇄기돌을 박아 고정하였다. 현재 중앙부는 면석이 무너져 뒷채움석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뒷채움석은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하여 자연석의 긴쪽과 면석을 서로 맞물리도록 쌓아 성벽을 매우 견고하게 하였다.

vi구간 면석의 두께와 길이의 비율을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vi區間 上部(단위 : cm)

| | 두께 | 길이 | 두께:길이 |
|----|------|------|-------|
| 1 | 14 | 48 | 1:3.4 |
| 2 | 18 | 48 | 1:2.7 |
| 3 | 18 | 50 | 1:2.8 |
| 4 | 18 | 38 | 1:2.1 |
| 5 | 16 | 58 | 1:3.6 |
| 6 | 16 | 36 | 1:2.3 |
| 7 | 24 | 56 | 1:2.3 |
| 8 | 18 | 54 | 1:2.3 |
| 9 | 18 | 48 | 1:2.7 |
| 10 | 22 | 28 | 1:1.3 |
| 평균 | 18.2 | 46.4 | 1:2.6 |

vi區間 下部(단위 : cm)

| | 두께 | 길이 | 두께:길이 |
|----|------|------|-------|
| 1 | 20 | 46 | 1:2.3 |
| 2 | 22 | 32 | 1:1.5 |
| 3 | 16 | 56 | 1:3.5 |
| 4 | 16 | 50 | 1:3.1 |
| 5 | 18 | 54 | 1:3 |
| 6 | 18 | 58 | 1:3.2 |
| 7 | 16 | 44 | 1:2.8 |
| 8 | 16 | 38 | 1:2.4 |
| 9 | 20 | 58 | 1:2.9 |
| 10 | 20 | 52 | 1:2.6 |
| 평균 | 18.2 | 48.8 | 1:2.7 |

V. 採集遺物

성동리산성에서는 성내외에 교통호, 참호 등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유물들이 노출되었다. 유물들은 대부분 파편으로 채집되었고 기와와 토기류가 주종을 이루며 승녕중보(崇寧重寶) 1점이 채집되었다.²⁰⁾

1. 瓦類

이번 조사에서 채집된 기와는 대부분 평기와이며 “使令”銘 명문기와가 1점 채집되었다. 평

20) 성내에서 철술이 매장문화재로 신고된 바 있다.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중요 발견 매장문화재 도록』제1집, 1989, 282쪽.

기외에 시문된 문양은 주로 선문계열(직선문·사선문), 격자문계열(정격자문·사격자문) 등이 주종을 이룬다. 기와 표면의 색깔은 회청색과 회백색계열이 주를 이루고 적갈색 연질기와류도 몇 점 채집되었다.

기와는 성내외에서 많은 양이 채집되었으나 대표적인 문양을 선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채집한 기와류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지표 채집 기와 분류표

| 문 양 | | 입키와 | 수키와 | 소 계 | 합계(%) | |
|---------|------|----------|--------|-----|---------|--------------|
| 평기와 | 선문 | 직선문 | 16 | | 16 | 44 (55.6) |
| | | 사선문 | 26 | 2 | 28 | |
| | 격자문 | 정격자문 | 6 | | 6 | 20 (25.3) |
| | | 사격자문 | 13 | 1 | 14 | |
| | 복합문 | 복합문 A | 5 | | 5 | 14 (17.9) |
| | | 복합문 B | 2 | 1 | 3 | |
| | | 복합문 C | 2 | | 2 | |
| | | 복합문 D | 1 | 1 | 2 | |
| | | 복합문 E | 2 | | 2 | |
| | 명문기와 | | | 1 | 1 | 1(1.2) |
| 합 계 (%) | | 73(92.4) | 6(7.6) | | 79(100) | |

1) 線文

① 直線文

답본 1-①(사진 81-①)은 회청색 경질의 직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영알갱이가 들어간 점토질이다. 등면의 전면에는 두께 0.2cm의 직선문을 0.5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등면 일부에는 시문구를 사용하면서 일정한 방향을 유지하지 못해 문양이 사선문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손누름자국이 4개 정도 나타난다.

내림면 상단 1.5cm구간은 본래 직선문을 시문하였다가 고운 솔로 쓸어내 문양을 지웠다. 내림면의 일부는 바탕흙을 덧대어 0.3cm정도의 턱을 만들었다. 내림면 전면에는 사선문이 0.3cm 간격으로 음각되었으나 일부는 지워진 상태이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를 이용해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내면에는 포흔이 있으나 빗질로 인해 대부분이 지워졌다. 또한 너비 0.5cm, 길이 9cm의 홈들이 7cm의 간격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원통형 와통 자체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된다. 길이 16cm, 너비 18cm, 두께 1.3~1.7cm

답본 1-②(사진 81-②)는 회청색 경질의 직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영알갱이가 포함된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두께 0.3cm의 직선문이 0.8cm 간격으로 시문되

었으나 전체적으로 불규칙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시문이 되지 않았다. 내림면의 상단 1.5cm 구간은 본래 직선문을 시문하였다가 고운 솔로 쓸어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림면은 거칠며 1줄의 직선문이 음각되어 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일부분에서는 0.3cm 너비로 와도가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나타난다. 그 후 다시 내면방향의 측면을 정면하였다. 내면에는 포흔과 너비 0.5cm의 분할선, 포목의 접합흔이 남아 있다. 또한 바탕흙을 접합한 후 정면하지 않아 너비 0.5cm, 길이 0.2cm의 흠이 가로방향으로 남아있는 것이 관찰된다. 길이 12.5cm, 너비 20cm, 두께 1.2cm

답본 1-③(사진 81-③)은 회청색 경질의 직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에는 자갈한 석영알갱이가 포함되어 있다. 등면의 전면에는 두께 0.3cm의 직선문을 0.7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문양의 상면을 손으로 누른 자국과 와도로 직선문을 분할한 자국이 남아있다. 내림면은 와도를 이용해 4번에 걸쳐 매끄럽게 다듬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를 이용해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그리고 다시 등·내면방향을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이 있으나 빗질로 인해 일부가 지워졌다. 포를 덧댄 접합흔이 남아있다. 길이 16cm, 너비 11cm, 두께 1.3cm

답본 2-①(사진 81-④)은 회백색 경질의 직선문 암키와편이다. 가는 석영알갱이가 포함된 점토질의 바탕흙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두께 0.3cm정도의 직선문을 0.2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내림면 상단 2.5cm 구간은 본래 직선문이 시문되어 있었으나 고운 솔로 쓸어내 깨끗이 다듬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내림면은 거칠게 조성하였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다시 등·내면방향을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이 있으나 빗질로 인해 대부분이 지워졌다. 포를 덧댄 접합흔이 남아있다. 길이 11cm, 너비 13cm, 두께 1.6cm

답본 2-②(사진 81-⑤)는 회청색 경질의 직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자갈한 석영알갱이가 포함되어 있는 점토질이다. 등면에는 두께 0.2cm정도의 직선문을 0.4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등면의 일부에는 자연유가 배어나와 있다. 내림면은 등면에 비해 0.2cm정도 높게 턱을 만들었고 내림면의 전면은 모두 파손되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으며 내면 방향은 한번 더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이 남아 있으나 빗질로 인해 약하게 관찰된다. 사선방향의 포를 덧댄 접합흔과 분할선이 남아있다. 길이 13cm, 너비 11cm, 두께 1.5cm

답본 2-③(사진 83-①)은 회청색 경질의 직선문 암키와편이다. 등면 일부는 밝은 회색을 띠기도 한다. 바탕흙은 가는 석영알갱이가 들어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두께

0.2cm정도의 직선문을 0.6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일부에는 세로방향의 선이 더해지기도 하였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내면에는 고운 포흔과 분할선이 남아있다. 길이 9cm, 너비 12cm, 두께 1.7~2.2cm

탑본 2-④(사진 83-②)는 적갈색 연질의 직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고운 모래가 들어간 점토질이다. 등면에는 두께 0.5cm의 직선문을 1~1.5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또한 와도로 선을 그어 직선문을 절단한 흔적이 나타난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등·내면 방향은 한번 더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과 빗질흔이 관찰된다. 또한 길이 3.5cm의 사선방향 칼과선이 남아있다. 길이 9cm, 너비 13cm, 두께 1.9cm

탑본 3-①(사진 83-③)은 회청색 경질의 직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자갈한 석영알갱이가 포함된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선이 굵은 직선문을 시문하였다. 내림면은 3번에 걸쳐 매끄럽게 다듬었다.

측면은 남아 있지 않다. 내면에는 포흔이 있으나 빗질로 인해 지워졌다. 길이 13cm, 너비 9cm, 두께 1.6cm

탑본 3-②(사진 83-④)는 회청색 경질의 직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으로는 가는 석영알갱이가 들어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두께 0.3cm정도의 직선문을 0.8cm 간격으로 시문하였는데 문양 상면을 빗질하였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등·내면방향은 한번 더 매끄럽게 다듬었다. 하지만 와도를 중간에 멈췄는지 중간부분에 단이 지어 있다. 내면에는 빗질로 고운 포흔의 일부가 지워졌다. 또한 너비 0.5cm정도의 분할선이 남아있다. 길이 10.5cm, 너비 10cm, 두께 1.5cm

탑본 3-③(사진 83-⑤)은 회청색 경질의 직선문 암키와편이다. 가는 석영알갱이가 들어있는 점토질의 바탕흙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두께 0.2cm정도의 직선문을 0.4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내림면 주위는 시문된 문양을 지우고 와도로 등·내면을 깎아내어 두께를 0.6cm정도로 조절하였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등·내면방향은 한번 더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과 함께 너비 1cm, 길이 4cm정도의 홈이 남아있다. 길이 10cm, 너비 10cm, 두께 0.6~1.4cm

탑본 3-④(사진 83-⑥)는 회청색 경질의 직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질이며 자갈한 석영알갱이가 포함되어 있다. 등면에는 두께 0.2cm정도의 날카로운 직선문을 0.4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등·내면 방향은 한번 더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고운 포흔과 너비 0.2cm, 길이 2.5cm정도의 세로방향 홈이 남아있다. 길이 9.5cm, 너비 5.5cm, 두께 1.4cm이다.

답본 3-⑤(사진 83-⑦)는 회청색 경질의 직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영알갱이가 들어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두께 0.3cm정도의 직선문을 0.5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등·내면 방향은 한번 더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고운 포흔이 남아 있으며 너비 0.5cm정도의 분할선이 관찰된다. 길이 12.5cm, 너비 5.5cm, 두께 1.2cm

답본 4-①(사진 83-⑧)은 황갈색 경질의 직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자갈한 석영알갱이가 들어간 점토질이 사용되었다. 등면에는 두께 0.2cm정도의 날카로운 직선문을 0.3cm 간격으로 시문하였는데 시문구 타격시 힘때문에 등면에 각이 져 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다.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등·내면 방향은 한번 더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과 빗질흔이 있으며, 가로방향의 찰과선이 남아있다. 길이 8.5cm, 너비 8.5cm, 두께 1.1cm

답본 4-②(사진 83-⑨)는 회청색 경질의 직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으로는 가는 석영알갱이가 포함된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두께 0.2cm정도의 직선문을 0.3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내림면는 거칠게 만들었다.

측면은 남아 있지 않다. 내면에는 포흔과 빗질흔이 잘 남아 있다. 또한 길이 0.3cm, 너비 0.3cm정도의 사선방향 홈이 남아있다. 길이 8cm, 너비 8cm, 두께 0.8cm

답본 4-③(사진 83-⑩)은 회청색 경질의 직선문 암키와편이다. 점토질의 바탕흙에는 가는 석영알갱이가 포함되어 있다. 등면에는 두께 0.2cm정도의 직선문을 0.5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를 이용해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내면에는 거친 포흔과 분할선이 남아있다. 길이 8cm, 너비 5cm, 두께 0.9cm

답본 4-④(사진 83-⑪)는 회청색 경질의 직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자갈한 석영알갱이가 포함된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두께 0.2cm정도의 직선문을 0.3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내면에는 포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길이 6cm, 너비 4.8cm, 두께 0.8cm

② 斜線文

답본 4-⑤(사진 85-①)는 회청색 경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질을 사용하

었는데 가는 석영알갱이가 포함되어 있다. 등면의 전면에는 두께 0.2cm의 날카로운 사선문을 0.8~1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문양은 끈을 꼬아 새긴 것 같아 마치 승문기와와 유사하다. 내림면 상단 1.5cm 구간은 본래 사선문을 시문하였다가 고운 솔로 쓸어내 문양을 지워 매끄럽게 다듬고 내림면은 와도로 3번에 걸쳐 정면하였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등·내면방향은 한번 더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이 남아있다. 길이 17.5cm, 너비 14.5cm, 두께 1.8cm

탑본 5-①(사진 85-②)은 회청색 경질의 사선문 수키와편이다. 내면에는 상당부분이 검은색을 띤다. 바탕흙은 가는 석영알갱이가 포함된 점토질이다. 등면에는 두께 0.3~0.5cm 정도의 사선문을 0.7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사선의 모양이 끈을 꼬아 새긴 것 같아 마치 승문기와와 유사하다. 문양을 등면전체에 시문하였다. 등면 일부에 손가락으로 누른 자국이 너비 1.5cm, 길이 5.5cm 정도 남아있다. 내림면은 매끄럽게 다듬었는데 한쪽을 둥그렇게 말리듯 하여 등면과 단을 만들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등·내면방향은 한번 더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과 빗질흔이 남아있다. 길이 12cm, 너비 12cm, 두께 1.4cm

탑본 5-②(사진 85-③)는 회청색 경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으로는 가는 석영알갱이가 포함된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두께 0.2cm 정도의 사선문을 0.8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그 문양이 끈을 꼬아 새긴 것 같다. 문양의 위쪽에는 손누름자국과 와도로 사선을 절단한 자국이 남아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등·내면방향은 한번 더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과 너비 0.2cm의 포목접합흔이 남아 있다. 또한 세로방향의 찰과선과 분할선이 관찰된다. 포목의 접합흔을 경계로 포목의 형태가 바뀌는 것으로 보아 2장이상의 포를 덧대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길이 10.5cm, 너비 10.5cm, 두께 1.4cm

탑본 5-③(사진 85-④)은 회청색 경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모래가 포함된 점토질이다. 등면에는 두께 0.3cm 정도의 사선문을 1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사선의 좌우가 끈을 꼬아 만든 것과 같아 마치 승문기와와 유사하다.

측면은 남아 있지 않다. 내면에는 고운 포흔이 남아있다. 길이 8cm, 너비 6cm, 두께 0.2~1.1cm

탑본 5-④(사진 85-⑤)는 회청색 경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에는 자갈한 석영알갱이가 포함되어 있다. 등면에는 두께 0.2cm의 날카로운 사선문을 0.7cm 간격으로 시문하

었다. 끈을 꼬아서 타날한 것과 비슷하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등·내면방향은 한번 더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과 너비 0.2cm정도의 세로방향의 포목 매듭흔이 남아 있으며 너비 0.3cm의 분할선이 관찰된다. 길이 6cm, 너비 7cm, 두께 0.6~1.2cm

답본 6-①(사진 87-①)은 회청색 경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점토질의 바탕흙을 사용하였으며 가는 석영알갱이가 포함되어 있다. 등면의 전면에는 두께 0.2cm의 사선문을 0.5cm 간격으로 시문하였는데 표면에는 자연유가 배어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측면을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고운 포흔과 빗질흔적이 남아있다. 자연유가 배어나와 있다. 길이 15cm, 너비 16cm, 두께 1.5cm

답본 6-②(사진 87-②)는 회청색 경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영알갱이가 들어간 점토질이 사용되었다. 등면에는 두께 0.3~0.5cm의 사선문을 0.4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문양을 등면전체에 시문하고 난 뒤 손가락으로 기와를 누른 손누름자국이 4군데나 관찰된다. 내림면은 와도로 3번에 걸쳐 곱게 다듬고 고운 솔로 쓸어낸 흔적이 남아 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내림면 부근에서는 측면의 1/5정도로 와도를 넣은 후 중앙으로 가면서 측면전체를 와도로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와도로 자른 후 측면을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과 빗질흔이 남아있다. 길이 14cm, 너비 14cm, 두께 1.6cm

답본 6-③(사진 87-③)은 회청색 경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가는 석영알갱이가 포함되어 있는 점토질의 바탕흙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두께 0.3cm정도의 사선문을 0.5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등·내면방향은 한번 더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과 세로방향의 찰과선이 남아있다. 길이 13cm, 너비 8cm, 두께 1.2cm

답본 6-④(사진 87-④)는 적갈색 연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에는 가는 모래가 포함되어 있다. 등면에는 두께 0.3cm정도의 사선문을 0.6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측면을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과 가로방향의 찰과선·손누름자국이 남아있다. 길이 10cm, 너비 7cm, 두께 1.3cm

답본 6-⑤(사진 87-⑤)는 회청색 경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영알갱이가 들어간 점토질이다. 등면에는 두께 0.3~0.4cm의 사선문을 0.8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측면의 1/2정도로 와도를 넣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내면에

는 고운 포흔이 남아있다. 길이 9.5cm, 너비 9.5cm, 두께 1.5cm

답본 6-⑥(사진 87-⑥)은 회청색 경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가는 모래가 포함되어 있다. 등면에는 두께 0.3cm정도의 사선문을 0.5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문양상면을 빗질하여 문양이 지워졌고 일부에는 포흔이 나타난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한 후 다시 등면과 내면을 한번 더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고운 포흔과 세로방향의 찰과선이 남아있다. 길이 10.5cm, 너비 5.5cm, 두께 1.7cm

답본 7-①(사진 87-⑦)은 회청색 연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모래가 섞여 있는 점토질이다. 등면에는 두께 0.3cm정도의 사선문을 0.5cm 간격으로 시문하고 그 상면을 빗질한 자국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와도로 사선을 절단한 곳과 포흔이 찍혀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내면방향으로 한번 더 깎아내어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이 남아있다. 길이 11cm, 너비 6cm, 두께 1.4cm

답본 7-②(사진 89-①)는 회갈색 경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에는 자갈한 석영알갱이가 포함되어 있으며 점토질이다. 등면 전면에 두께 0.3cm정도의 사선문을 0.8cm 간격으로 시문하였는데 손누름자국으로 인해 문양의 일부가 지워졌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등·내면 방향은 한번 더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이 남아있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길이 14cm, 너비 10cm, 두께 1.8cm이다.

답본 7-③(사진 89-②)은 회청색 경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으로 가는 석영알갱이가 포함된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두께 0.5cm정도의 사선문을 1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문양은 비교적 고르게 시문되었고 표면에 길이 1.5cm, 너비 0.5cm의 구멍이 패여 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등·내면 방향은 한번 더 와도로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과 세로방향의 찰과선이 남아있다. 길이 13cm, 너비 12cm, 두께 1.4cm

답본 7-④(사진 89-③)는 황갈색 연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영알갱이가 포함된 점토질이다. 등면에는 두께 0.5cm정도의 사선문을 1cm 간격으로 시문하였는데 일부 포흔이 찍혀있다. 내림면은 와도로 깎아 매끄럽게 다듬었고 측면으로 가면서 내림면의 각을 줄여 마치 원형처럼 조성하였다. 내림면의 측면에도 포흔이 찍혀있다.

측면은 남아 있지 않다. 내면에는 포흔이 나타나지만 사선방향의 빗질흔에 의해 대부분 지워졌다. 너비 1cm정도의 분할선이 남아있다. 길이 9.5cm, 너비 13cm, 두께 1.3cm

답본 7-⑤(사진 89-④)는 회청색 경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자갈한 석영알갱이가 포함되어 있는 점토질의 바탕흙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두께 0.3~0.5cm의 사선문을 0.7~1cm 간격으로 시문하였는데 문양 상면을 손으로 누른 자국이 관찰된다. 내림면은 와도로 매끄럽게 다듬어 정면하였다.

측면은 남아 있지 않다. 내면에는 고운 포흔과 사선방향의 찰과선이 남아있다. 길이 9.5cm, 너비 8.5cm, 두께 2.4cm

답본 7-⑥(사진 89-⑤)은 적갈색 연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에는 가는 모래가 포함되어 있으며 점토질이다. 등면에는 두께 0.3cm정도의 사선문을 1cm 간격으로 시문하였는데 등면 일부가 깨져 나가고 모래들이 표면으로 나와있다.

측면은 남아 있지 않다. 내면에는 포흔이 있었으나 빗질에 의해 대부분 지워졌고 가로방향의 찰과선이 남아있다. 길이 9cm, 너비 8.5cm, 두께 0.8cm

답본 7-⑦(사진 89-⑥)은 회청색 경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영알갱이가 들어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두께 0.5cm의 사선문을 1cm 간격으로 시문하였는데 문양을 시문한 후 손으로 누른 자국이 관찰된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두께전체의 1/5정도를 와도로 그었다가 점차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내면에는 고운 포흔이 남아있다. 길이 7.5cm, 너비 7cm, 두께 1.1cm

답본 8-①(사진 89-⑦)은 회청색 경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고운 모래가 들어간 점토질이다. 등면에는 두께 0.2cm의 사선문을 0.6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문양을 시문한 후 고운 솔질로 다듬은 흔적이 있다.

측면은 한쪽이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등·내면방향은 한번 더 매끄럽게 다듬었다. 중앙부에는 1줄의 음각선과 사선방향의 빗질흔이 나타난다. 내면에는 고운 포흔이 남아있다. 길이 10.5cm, 너비 7.5cm, 두께 1.3cm

답본 8-②(사진 91-①)는 회청색 경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에는 자갈한 석영알갱이가 포함되어 있으며 점토질이다. 등면에는 두께 0.2cm정도의 사선문을 시문하였다. 일부에는 호형의 선문이 더해지기도 하였고 포흔과 손누름자국이 나타난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고운 포흔과 분할선이 남아있다. 길이 10cm, 너비 10cm, 두께 0.8~1.4cm

답본 8-③(사진 91-②)은 회청색 경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가는 석영알갱이가 들어간 점토질의 바탕흙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두께 0.2cm의 사선문을 0.2cm 간격으로 시문하였는데 문양 상면을 손으로 누른 자국이 2군데 관찰된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등면과 내면방향은 한번 더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과 가로방향의 찰과선이 남아있다. 길이 11cm, 너비 10.5cm, 두께 1~1.8cm

답본 8-④(사진 91-③)는 적갈색 경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영알갱이가 들어간 점토질이다. 등면에는 두께 0.2cm의 사선문을 0.4cm 간격으로 불규칙하게 시문하였는데 와도로 문양 상면을 그은 자국이 관찰된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빗질하여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과 빗질흔이 남아있다. 길이 10cm, 너비 0.2cm의 분할선이 관찰된다. 측면분할시 밀린 바탕흙이 한쪽에 접혀있다. 길이 12cm, 너비 12.5cm, 두께 1.1~1.4cm

답본 9-①(사진 91-④)은 회백색 연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에는 가는 모래가 포함되어 있다. 등면에는 두께 0.3cm정도의 사선문을 0.5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등면방향으로 한번 더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과 가로방향의 찰과선이 남아있다. 길이 7cm, 너비 8cm, 두께 0.6~1cm

답본 9-②(사진 91-⑤)는 황갈색 연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모래가 들어간 점토질이다. 등면에는 두께 0.2cm의 사선문을 0.5cm 간격으로 시문하였는데 문양의 모습이 희미하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이 남아있지만 손질에 의해 희미해졌고 너비 0.4cm, 길이 0.1cm의 분할선이 관찰된다. 길이 4cm, 너비 6.5cm, 두께 0.7cm

답본 9-③(사진 91-⑥)은 회청색 경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자잘한 석영알갱이가 포함되어 있다. 등면에는 두께 0.4cm의 사선문을 0.7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측면은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등면과 내면방향은 한번 더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이 남아있다. 길이 3.3cm, 너비 5cm, 두께 0.7~1cm

답본 9-④(사진 91-⑦)는 회청색 경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내면은 적갈색을 띠고 있다. 바탕흙은 가는 모래가 들어간 점토질이다. 등면에는 두께 0.3cm의 날카로운 사선문을 1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내면방향은 한번 더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이 나타나지만 빗질흔에 의해 일부는 지워졌고 대체로 희미하게 관찰된다. 길이 5cm, 너비 7cm, 두께 11.1cm

답본 9-⑤(사진 91-⑧)는 회청색 경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에는 자갈한 석영알갱이가 포함되어 있으며 점토질이다. 등면에는 두께 0.2cm 정도의 사선문을 0.3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측면은 남아 있지 않다. 내면에는 포흔이 남아있다. 길이 4cm, 너비 6cm, 두께 0.6cm

답본 9-⑥(사진 91-⑨)은 회청색 경질의 사선문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에는 가는 모래가 포함되어 있다. 등면에는 두께 0.2cm의 선문을 0.2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문양이 불규칙하고 문양상면을 빗질하여 마멸이 심해서 정확하게 관찰하기 어렵다. 시문구 사용으로 인해 2단의 각이 져 있고 측면 처리할 때 밀린 바탕흙이 단을 이루고 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어 기와를 분할한 후 측면을 사선방향으로 빗질하여 다듬었다. 측면분할할 때 와도로 한번에 긁지 못하고 중간에 멈춘 듯 측면의 바탕흙이 등면으로 밀려있다. 내면에는 포흔과 사선방향의 빗질흔이 남아있다. 길이 6.5cm, 너비 7.5cm, 두께 0.6~1.4cm

2) 格子文

① 正格子文

답본 10-①(사진 93-①)은 황갈색 연질의 정격자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으로는 가는 석영알갱이가 들어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 일부에는 정격자문을 시문하였다. 내림면은 와도로 깎아내고 빗질하여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과 빗질흔이 남아있다. 손누름자국과 사선방향의 찰과선 등이 관찰된다. 길이 15.5cm, 너비 9.5cm, 두께 1.7~2.1cm

답본 10-②(사진 93-②)는 회청색 경질의 정격자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질을 사용하였는데 자갈한 석영알갱이가 포함되어 있다. 등면에는 정격자문을 시문하였는데 내림면 조성시 너비 1cm정도가 지워졌다. 바탕흙을 덧댄 흔적이 있다. 내림면은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와도로 깎아 조성하였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등면과 내면방향은 한번 더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과 빗질흔이 남아 있다. 포를 덧대서 접합한 흔적이 남아있다. 길이 10.5cm, 너비 10cm, 두께 1.1cm

답본 10-③(사진 93-③)은 흑갈색 연질의 정격자문 암키와편이다. 점토질의 바탕흙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약 0.5×0.5cm 크기의 정격자문을 시문하였는데 표면 일부가 깨져 나갔다.

측면은 남아 있지 않다. 내면에는 포흔이 남아있다. 길이 10cm, 너비 8cm, 두께 0.9~1.2cm

탑본 11-①(사진 93-④)은 적갈색 경질의 정격자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으로는 작은 석영알갱이가 들어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 전면에 0.7×1.2cm 크기의 정격자문을 시문하였는데 문양 상면을 빗질한 흔적이 남아있다. 내림면을 와도로 깎아 부드럽게 다듬은 후 0.3~4cm 간격으로 사선문을 음각하였다.

내면에는 포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원래 내면 전체에 걸쳐 포흔이 있던 것을 빗질 등을 통해 지워버렸기 때문에 일부에서만 나타난다. 길이 9cm, 너비 13cm, 두께 0.9~1.3cm

탑본 11-②(사진 93-⑤)는 회청색 경질의 정격자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에는 가는 모래가 포함되어 있으며 점토질이다. 등면에는 매우 불규칙하게 정격자문이 시문되었는데 문양 상면을 손으로 누른 자국이 곳곳에 있다. 내림면 상단 3.5cm 구간은 본래 문양을 시문하였다가 문양을 지워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림면은 와도로 깎아 3번에 걸쳐 정면하였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등면과 내면방향은 한번 더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이 남아있으며 내림면 조성시 내면을 향해 와도를 사용해 바탕흙이 밀려나 있다. 길이 14.5cm, 너비 20cm, 두께 1.9cm

탑본 11-③(사진 93-⑥)은 회청색 경질의 정격자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영알갱이가 들어간 점토질이 사용되었다. 등면에는 정격자문을 바탕으로 한 복합문을 시문하였다. 내림면 상단 1.5cm 구간은 문양을 시문하지 않고 빗질로 다듬었다. 내림면은 와도로 깎아 거칠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으며 등면과 내면쪽으로 한번 더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과 길이 8cm, 너비 0.4cm의 분할선이 남아 있다. 길이 10.5cm, 너비 9.5cm, 두께 1.1~1.6cm

② 斜格子文

탑본 12-①(사진 95-①)은 회청색 연질의 사격자문 암키와편이다. 점토질의 바탕흙을 사용하였는데 가는 모래가 포함되어 있다. 등면에는 1×1cm 크기의 사격자문을 시문하였는데 문양시문이 일정하지 않고 바탕흙을 덧댄 흔적이 남아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으로 넣어 측면전체를 한번에 자르려고 했으나 와도가 끝까지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내면에는 희미한 포흔과 너비 0.4cm 정도의 분할선이 남아있는 것이 관찰된다. 길이 12.5cm, 너비 16.5cm, 두께 1.8cm

탑본 12-②(사진 95-②)는 적갈색 연질의 사격자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영알갱이가 포함된 점토질이다. 등면 전체에 1.5×1.5cm 크기의 사격자문을 시문하였는데 많이 지워진 상태이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다.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여 매끄럽게 다

듬었다. 내면에는 포흔과 사선방향의 찰과선이 남아있다. 길이 10cm, 너비 13.5cm, 두께 0.8~1.5cm.

답본 12-③(사진 95-③)은 적갈색 연질의 사격자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에는 가는 모래가 포함되어 있다. 등면에는 0.4×0.8cm 크기의 사격자문을 시문하였는데 빗질에 의해 문양의 일부가 지워졌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등면과 내면방향은 한번 더 다듬어 매끄럽게 처리하였다. 내면에는 포흔이 희미하게 나타나며 빗질에 의해 많이 지워졌다. 길이 6.5cm, 너비 9cm, 두께 2.1cm

답본 12-④(사진 95-④)는 회청색 경질의 사격자문 암키와편이다. 자갈한 석영알갱이가 포함된 점토질의 바탕흙을 사용하였다. 등면 전체에 1.5×0.8cm 크기의 사격자문을 시문하였는데 일부는 중복타날되어 있다. 내림면은 와도로 깎아내 매끄럽게 다듬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내림면 하단에서 시작하여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이 남아있다. 길이 10cm, 너비 10.5cm, 두께 1.3~1.8cm

답본 13-①(사진 95-⑤)은 흑갈색 연질의 사격자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모래가 들어간 점토질이다. 등면 일부에 1×1.2cm 크기의 사격자문을 시문하였고 표면에 균열이 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과 사선방향의 찰과선이 남아있다. 길이 9cm, 너비 12cm, 두께 2.5cm

답본 13-②(사진 95-⑥)는 회청색 경질의 사격자문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으로 가는 모래가 들어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 일부에 1×1.8cm 크기의 사격자문을 시문하였는데 문양상면을 빗질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워졌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다.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이 있었으나 빗질하면서 대부분이 지워진 상태이다. 길이 8cm, 너비 10.5cm, 두께 1.3cm

답본 13-③(사진 97-①)은 회갈색 연질의 사격자문 암키와편이다. 등면의 일부는 검은색을 띠기도 한다. 내면은 검은색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영알갱이가 들어간 점토질이 사용되었다. 등면 전체에 사격자문을 시문하였다. 전체적으로 문양이 불규칙하고 깊이가 얕는데다 연질이어서 많이 지워진 상태이다. 내림면 부근은 바탕흙을 덧댄 흔적이 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어서 분할하였으며 등면과 내면방향은 한번 더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과 빗질흔이 남아있다. 길이 18cm, 너비 12.5cm, 두

께 1~1.6cm

답본 13-④(사진 97-②)는 회청색 경질의 사격자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으로는 자갈한 석영알갱이가 포함된 점토질이 사용되었다. 등면에는 1.5×0.8cm 크기의 사격자문을 시문하였다. 바탕흙을 덧댄 부분에는 문양이 시문되지 않았다. 내림면은 와도로 깎아내 매끄럽게 다듬은 후 내면방향으로 한번 더 깎아내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과 길이 3cm정도의 접합흔이 관찰된다. 길이 9cm, 너비 9cm, 두께 1.4~1.8cm

답본 14-①(사진 97-④)은 회백색 연질의 사격자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모래가 포함된 점토질이다. 등면에는 0.5×0.5cm 크기의 사격자문이 시문되었다. 문양 상면을 빗질하여 문양이 희미해졌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내면에는 포흔이 희미하게 나타나며 빗질흔은 보이지 않는다. 길이 7cm, 너비 6cm, 두께 1.6cm

답본 14-②(사진 97-⑤)는 회청색 경질의 사격자문 암키와편이다. 가는 모래가 들어간 점토질의 바탕흙을 사용하였다. 등면 전체에 1×1.3cm 크기의 사격자문을 시문하였는데 문양 상면을 빗질하고 손으로 누른 자국이 나타난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어서 기와를 분할하고 등면과 내면방향은 한번 더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이 희미하게 나타나며 빗질에 의해 많이 지워졌다. 길이 5cm, 너비 4cm, 두께 0.9cm

답본 14-③(사진 97-⑥)은 회색 연질의 사격자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에는 가는 모래가 섞여 있다. 등면에는 사격자문과 정격자문을 함께 시문하였는데 등면을 매끄럽게 다듬어 문양을 지웠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방향으로 넣은 후 측면두께의 2/3정도를 자르고 분할하였다. 내면에는 포흔과 빗질흔이 남아 있다. 또한 길이 8cm, 너비 0.5cm, 깊이 0.2cm의 분할선이 관찰된다. 길이 8.5cm, 너비 8cm, 두께 1.1cm

답본 14-④(사진 97-⑦)는 황갈색 연질의 사격자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모래가 포함되어 있는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1.5×1.5cm 크기의 사격자문을 시문하였고 문양 상면을 빗질하였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어서 분할하였다. 등면과 내면방향은 한번 더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과 빗질흔이 남아있고 길이 5cm, 너비 0.4cm, 깊이 0.2cm의 분할선이 나타난다. 길이 7cm, 너비 5cm, 두께 1.2~1.5cm

답본 14-⑤(사진 97-⑧)는 적갈색 연질의 사격자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모래가

포함된 점토질이다. 등면에는 사격자문을 불규칙적으로 시문하였다. 표면의 일부가 깨져나가 고 남아 있는 부분이 적어 문양의 확인이 어렵다.

측면은 남아 있지 않다. 내면에는 포흔과 빗질흔이 남아있다. 길이 6cm, 너비 6cm, 두께 0.8~1cm

답본 14-⑥(사진 97-⑨)은 회백색 연질의 사격자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모래가 들어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0.5×0.5cm의 사격자문을 시문하였는데 문양이 겹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적어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렵다.

측면은 남아 있지 않다. 내면에는 포흔과 직선방향의 빗질흔이 남아있다. 길이 3.5cm, 너비 4.5cm, 두께 0.8~1cm

3) 複合文

① 複合文 A

답본 15-①(사진 99-①)은 황갈색 연질의 복합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에는 석영알갱이가 포함되어 있으며 점토질이다. 등면 전체에는 5점의 마름모문이 중첩된 복합문을 불규칙적으로 시문하였다. 타격이 고르지 못해 문양이 일정하지 않다.

측면은 한쪽만 남았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어서 기와를 분할하고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과 빗질흔이 남아있다. 길이 20cm, 너비 13.5cm, 두께 2cm

답본 15-②(사진 99-②)는 회백색 연질의 복합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자갈한 석영알갱이가 포함된 점토질이 사용되었다. 등면 전체에는 5점의 마름모문이 들어간 복합문을 불규칙적으로 시문하였다. 타격시 힘이 고르지 않아 단이 저 있다. 내림면은 와도로 깎고 솔질을 하여 다듬었다. 등면과 내면방향을 다시 와도로 깎아 매끄럽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하여 넣고 측면두께의 1/5~1/2정도를 그어서 분할하고 측면을 다듬었다. 등면방향은 측면이 울퉁불퉁하다. 내면에는 포흔과 가로방향의 찰과선이 관찰된다. 바탕흙이 모자라 덧댄 흔적이 남아있다. 길이 8.5cm, 너비 14.5cm, 두께 1.3~1.8cm

답본 15-③(사진 99-③)은 회청색 경질의 복합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에는 작은 석영알갱이가 포함되어 있다. 등면 전면에는 5점의 마름모문이 들어간 복합문을 불규칙적으로 시문하였다. 타격이 고르지 못해 문양이 일정하지 않으며 바탕흙이 밀려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어서 기와를 분할하였다. 등면과 내면방향은 한번 더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과 약한 빗질흔이 남아있다. 길이 12.5cm, 너비 10cm, 두께 1.8cm

탐본 15-④(사진 99-④)는 황갈색 연질의 복합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영알갱이가 포함된 점토질이다. 등면 전체에는 5점의 마름모문이 중첩된 복합문을 시문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문양이 중복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적어 정확하게 문양을 확인하기 어렵다. 내면에는 고운 포흔과 빗질흔이 남아있다. 길이 6.5cm, 너비 6cm, 두께 0.8cm

탐본 15-⑤(사진 99-⑤)는 황갈색 경질의 복합문 암키와편이다. 점토질의 바탕흙을 사용하였는데 가는 모래가 포함되어 있다. 등면 전체에 5점의 마름모문이 들어간 복합문을 중복되게 시문하였다. 타격이 고르지 못해 문양이 일정하지 않으며 바탕흙이 밀려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남아 있는 부분이 너무 작아 와도의 흔적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내면에는 포흔과 약한 빗질흔적이 남아있다. 길이 9.5cm, 너비 14cm, 두께 1.1~1.4cm

② 複合文 B

탐본 16-①(사진 101-①)은 회갈색 경질의 복합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에는 가는 모래가 포함되어 있다. 등면 전체에 사선문과 호선문이 혼합된 복합문을 시문되었다. 타날시 힘의 차이에 의해 바탕흙이 밀린 자국이 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은 후 측면전체를 그어서 분할하였다. 일부에서는 와도가 끝까지 들어가지 못한 채 기와가 분할되었다. 내면에는 포흔이 남아있는데 빗질흔에 의해 많이 지워졌다. 너비 0.3cm, 깊이 0.1cm의 분할선이 남아있다. 길이 21.5cm, 너비 8cm, 두께 0.9cm

탐본 16-②(사진 101-②)는 회백색 경질의 복합문 암키와편이다. 가는 모래가 포함된 점토질의 바탕흙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직선문, 사선문, 호선문이 혼합된 복합문을 시문하였다. 타날할 때 타격이 고르지 못해 바탕흙이 밀렸다. 내림면은 바탕흙을 덧대 높이 0.4cm 정도의 턱을 만들고 거치문을 음각하였다.

측면은 한쪽만 남았는데,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어서 분할하였다. 와도가 끝까지 들어가지 않고 분할한 흔적도 남아있다. 분할한 측면은 빗질로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과 사선방향의 빗질흔이 남아있다. 내림면 주위는 바탕흙을 깎아내 두께를 조정하였다. 길이 13.5cm, 너비 10cm, 두께 1.2~1.6cm

탐본 16-③(사진 101-③)은 회청색 경질의 복합문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모래가 섞여 있는 점토질이다. 등면에는 직선문과 호선문이 혼합된 복합문을 시문하였다. 타격할 때의 힘에 의해 3단의 각이 생겼다. 내림면은 내면을 향해 와도로 각을 죽여 부드럽게 다듬었는데 바탕흙이 내면으로 밀려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았는데,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의 1/2정도를 그은 후 점

차 측면전체를 그어서 분할하였다. 분할한 측면은 빗질로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과 손누름자국이 남아있다. 또한 내림면조성시 밀린 바탕흙이 내면으로 뭉쳐있다. 길이 13cm, 너비 12cm, 두께 0.9~1.2cm

③ 複合文 C

답본 16-④(사진 101-④)는 회갈색 경질의 복합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에는 가는 모래가 포함되어 있다. 등면에는 어골문을 바탕으로 한 복합문을 여러방향으로 시문하였다. 한쪽에는 바탕흙을 덧대고 다듬지 않아 표면이 고르지 못한 곳도 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등면방향으로는 한번 더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과 가로방향의 찰과선, 분할선이 남아있다. 길이 12.5cm, 너비 4.5cm, 두께 0.7~1.1cm

답본 16-⑤(사진 101-⑤)는 회갈색 경질의 복합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모래가 들어간 점토질이다. 등면에는 어골문을 바탕으로 한 복합문이 불규칙하게 시문되어 있는데 문양이 고르지 못해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다. 와도를 이용해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어서 기와를 분할하였다. 내면에는 희미한 포흔과 빗질흔이 남아있다. 길이 8.5cm, 너비 10.5cm, 두께 1.1~1.7cm

④ 複合文 D

답본 17-①(사진 101-⑥)은 적갈색과 회청색으로 혼합된 경질의 복합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자갈한 석영알갱이가 들어간 점토질이다. 등면에는 어골문과 유사한 복합문을 불규칙적으로 시문하였다. 내림면은 와도로 깎아 조성하고 내면쪽으로는 바탕흙을 덧대 0.5cm 정도의 턱을 만들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어서 기와를 분할하였다. 등면과 내면방향은 한번 더 매끄럽게 다듬었는데 와도로 한번에 자르지 못한 흔적이 나타난다. 내면에는 포흔과 빗질흔이 남아있다. 또한 너비 0.2cm의 분할선과 길이 6.5cm, 너비 0.3cm, 깊이 0.3cm정도의 사선방향 홈이 나타난다. 길이 15cm, 너비 12cm, 두께 1.4~2.1cm

답본 17-②(사진 101-⑦)는 적갈색 연질의 복합문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에는 가는 모래가 포함되어 있다. 등면 전체에 불규칙적인 선문을 시문하였는데 남아 있는 부분이 적어 정확한 문양을 확인할 수 없다. 문양상면을 약하게 빗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어 측면두께의 1/2정도를 그은 후 분할하였다. 내면에는 포흔과 빗질흔이 남아있다. 길이 8.5cm, 너비 1.5cm, 깊이 0.2cm정도의 홈이 사선방향으로 나 있는데 이 홈을 경계로 포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길이 11cm, 너비 9.5cm, 두께 1.3~1.5cm.

⑤ 複合文 E

답본 17-③(사진 103-①)은 회백색 연질의 복합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자갈한 석영알갱이가 들어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 일부에는 복합문을 불규칙적으로 시문하였다. 여러방향으로 직선문이 타날되어 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하여 넣고 측면두께의 1/5~1/2정도를 그어서 기와를 분할하였다. 내면에는 포흔과 너비 0.3cm, 깊이 0.1cm의 분할선이 남아있다. 길이 17.5cm, 너비 13cm, 두께 1.8~2.1cm

답본 17-④(사진 103-②)는 회백색 경질의 복합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영알갱이가 포함된 점토질이다. 등면 전체에 어골문과 정격자문이 혼합된 복합문을 시문하였다. 문양의 형태는 0.8cm 크기의 정격자문을 길이 5cm, 너비 4cm정도로 배치하고 상하에 어골문이 들어간 형태이다. 문양상면을 빗질하여 문양의 일부가 지워졌고 등면의 표면 일부가 깨져 나갔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은후 측면의 1/3~1/2정도를 그어서 기와를 분할하였다. 내면에는 포흔이 나타나지만 빗질에 의해 대부분이 지워졌다. 길이 8cm, 너비 3cm, 깊이 0.1cm정도의 홈이 사선방향으로 나 있다. 길이 18cm, 너비 14cm, 두께 1.6~2.1cm

4) 명문기와

답본 17-⑤(사진 103-③)는 회흑색 경질의 “使令”銘 기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영알갱이가 들어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장방형의 방곽을 짜고 “使令” 명문이 좌서로 양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등면의 마멸이 심하고 “使”가 2/3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아 완전한 형태를 추정할 수는 없다.

측면은 남아 있지 않으며 내면에는 포흔이 관찰된다. 길이 7.5cm, 너비 10.5cm, 두께 1.6~2.0cm

2. 土器類

이번 조사에서 채집된 토기들은 전부 과편의 상태로 채집되었다. 따라서 기형을 복원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여기에서는 완류와 뚜껑류를 제외하고는 토기를 부위별로 나누어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1) 완류

도면 13-①(사진 105-①)은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회갈색인 완편으로 바탕흙에는 작은

석영알갱이가 일부 관찰되며 연질이다. 구연은 바깥에서 안으로 약간 경사지게 다듬었으며
관판한 편이다. 외면에는 무늬가 관찰되지 않으며 내면에는 물레질자국이 남아 있다. 내면
일부에 불에 그을린 자국이 관찰된다. 추정입지름 10cm, 두께 0.5~0.9cm

도면 13-②(사진 105-②)는 외면과 속심은 회갈색, 내면은 회백색인 완편으로 구연부편이
남아있다. 외면에 흙물이 들어 회갈색을 띤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잘 정선되어 있으며 연질
이다. 구연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단을 하나 만들며 약간의 경사를 이루고 있다. 외면에는 특
별한 무늬가 없으며 내면에는 물레질자국이 관찰된다. 추정입지름 12cm, 두께 0.8~1cm

도면 13-③(사진 105-③)은 외면, 내면, 속심이 모두 회갈색인 완편이다. 구연부편만 남아
있다. 바탕흙에는 자갈한 모래가 많이 섞여 있다. 구연은 밖으로 약간 바라졌으며 구순에는
한 줄의 얇은 홈이 돌아간다. 외면과 내면 모두에 특별한 무늬는 없다. 추정입지름 12cm,
두께 0.3~0.4cm

도면 13-④(사진 105-④)는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회백색인 완편이다. 바탕흙에는 석영
알갱이가 군데군데 박혀 있으며 내면에는 흙물이 들어 있어 회갈색을 띠고 있다. 구연은 안
쪽으로 한번의 단을 만들며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경부에서부터 바라지다가 안으로 내만하
여 0.4cm정도의 구순을 이루고 있다. 외면과 내면 모두에서 특별한 무늬는 보이지 않는다.
추정입지름 12cm, 두께 0.4cm

도면 13-⑤(사진 105-⑤)는 외면, 내면은 적갈색이고 속심은 회색인 매우 얇은 완편이다.
구연부편만 일부 남아 있다. 바탕흙에는 자갈한 모래가 약간 섞여 있다. 구연은 심하게 밖으
로 바라졌으며 구순은 뽕족하게 처리되었다. 외면과 내면 모두에서 물레질자국이 관찰된다.
추정입지름 12cm, 두께 0.2cm

2) 뚜껑류

도면 13-⑥(사진 105-⑥)은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회청색인 뚜껑편으로 바탕흙에는 전
체적으로 석영알갱이가 많이 보이고 있다. 뚜껑손잡이부분은 남아 있지 않다. 외면 중간부분
에는 0.4cm 간격의 2줄의 가로줄이 둘러져 있으며 남아 있는 부분의 아래부분에는 0.1cm
간격의 2줄의 가는 가로줄이 돌아가고 있다. 내면에는 손잡이 뒷부분을 거칠게 정면하였으며
물레질자국이 관찰된다. 추정입지름 13cm, 두께 0.6~1cm

도면 13-⑦(사진 105-⑦)은 외면은 회색에 가까우며 속심과 내면은 회백색인 뚜껑편이다.
윗부분의 손잡이는 남아 있지 않으나 손잡이가 시작되는 부분에 굵은 선이 돌아가고 있다.
2cm 아래로 점열문이 좌우 0.5cm간격으로 시문되어 있다. 내면은 점열문이 시작되는 부분
의 뒤쪽에 한번의 단을 두어 경사를 이루고 있다. 물레질자국도 관찰된다. 두께 0.6~0.8cm

도면 13-⑧(사진 105-⑧)은 토기편 전체가 회색을 띠고 있는 경질의 뚜껑편이다. 바탕흙

은 점토질로 정선되었다. 외면에는 0.4cm간격의 2줄의 가로줄이 그어져 있으며, 거기에서 1.3cm 아래에 다시 횡선과 점열문이 교대로 반복되고 있다. 두께 0.6cm

도면 13-⑨(사진 105-⑨)는 토기편 전체의 색깔이 회청색을 띠고 있는 뚜껑편이다. 외면, 속심, 내면의 군데군데에 석영알갱이가 박혀있으며 물레질자국이 잘 남아 있다. 외면에는 좌우 0.8cm의 간격의 점열문 아래에 1줄의 가로선이 둘러져 있으며 0.5cm아래에 한 번의 단을 이루어 그 사이가 띠처럼 보이고 있다. 두께 0.5cm

3) 구연부편

도면 14-①(사진 106-①)은 외면과 내면은 회청색이고 속심은 회색으로 자배기의 구연부편만 남아 있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정선되어 있다. 동체는 위로 올라올수록 배가 부른 형태이며 구연은 안에서 바깥으로 접어서 평평하게 만들었으며 구연을 만들고 남은 바탕흙을 외면과 접합시킨 자국이 선명하게 관찰된다. 외면에는 격자를 타날하고 난 뒤 정면하면서 누른 흔적이 나타나며 내면에는 물레질자국과 함께 고온으로 소성할 때 나온 석영알갱이들이 일부 관찰된다. 추정입지름 28cm, 두께 0.3~0.5cm

도면 14-③(사진 106-②)은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회청색인 병편으로 구연부가 전부 남아 있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정선되어 있다. 동체는 둥글며 경부에서 구연은 약간 바깥으로 바라진 상태로 연결되었고 구순은 다시 안쪽으로 경사를 이루면서 들어가 있다. 동체의 외면에는 그어서 생긴 가로선이 3줄 들어가 있으나 현상대로는 일정한 규칙성을 찾기 어렵다. 외면과 내면 모두에 정면한 흔적이 있는데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울퉁불퉁하다. 입지름 5cm, 두께 0.5~0.6cm

도면 14-②(사진 106-③)는 외면과 내면 모두 진한 회청색이고, 속심은 자주색이며 구연과 경부가 잘 남아 있는 대형호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되어 있으며 아주 단단한 경질이다. 배가 부른 동체에서 경부는 거의 수직으로 3cm정도 올라가며 여기에서 구연이 급하게 바깥으로 바라졌다. 구순은 동체와 거의 수직으로 만들어졌는데 두줄의 홈이 돌아간다. 구연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연결되면서 약간의 홈을 이루었다. 외면에는 동체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유사승석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경부에는 물레질자국이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자연유가 배어나와 있다. 내면에는 소성할 때 갈라진 틈으로 석영알갱이가 빠져나와 있으며 물레질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추정입지름 22cm, 두께 0.8cm

도면 14-④(사진 106-④)는 외면, 내면, 속심이 모두 적갈색인 구연부편이다. 바탕흙에는 자잘한 석영알갱이가 많이 박혀 있다. 구연은 바깥으로 바라졌으며 구순은 관판하게 눌러서 처리하였다. 외면에는 약하게 물레질자국이 관찰된다. 추정입지름 12cm, 두께 0.3cm

도면 14-⑤(사진 106-⑤)는 외면과 속심 내면이 모두 회색인 구연부편이다. 바탕흙에는 자갈한 석영알갱이들이 많이 박혀있어 정선되어 있지 않다. 구연은 경부에서부터 바라지다가 다시 안으로 내만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다시 0.4cm정도의 구순을 만들었다. 구순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경사가 심하며, 하나의 단을 이루고 있다. 외면과 내면 모두 특별한 무늬는 관찰되지 않는다. 두께 0.5cm

도면 14-⑥(사진 106-⑥)은 외면, 내면은 회갈색, 속심은 적갈색인 구연부편이다. 외면에는 흙물이 들어있다. 바탕흙은 대체로 정선되어 있으며 운모가 관찰된다. 구연은 경부에서부터 바깥으로 바라졌으며 약 0.8cm 정도의 둥근 구순을 만들었다. 외면, 내면 모두 특별한 무늬는 관찰되지 않는다. 두께 0.5cm

도면 14-⑦(사진 106-⑦)은 외면, 속심, 내면 모두 회색인 구연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되어 있으며 운모가 관찰된다. 경부에서 구연으로 연결되면서 한 줄의 돌대가 돌아가면서 구순은 밖에서 안으로 밀어서 판관하게 처리했으며 약하게 홈이 하나 돌아 간다. 구연과 내면이 연결되면서 깊은 홈이 돌아가 단을 형성하고 있다. 외면에는 과도문을 그어서 시문하였다. 두께 0.8cm

도면 14-⑧(사진 106-⑧)은 외면과 내면은 진한 회청색이고 속심은 자주색인 구연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되어 있으며 경질이다. 구연은 경부에서부터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면서 연결되다가 끝부분이 바깥쪽으로 약간 바라졌다. 구순은 둥글게 처리되었으며 구연과 연결되는 내면에 한줄의 홈이 돌아가 단을 형성하고 있다. 외면에는 전체적으로 자연유가 배어나와 있다. 추정입지름 12cm, 두께 0.6cm

도면 14-⑨(사진 106-⑨)는 외면과 내면은 진한 회청색, 속심은 자주색인 구연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되어 있으며 약간의 석영알갱이가 관찰되기도 한다. 아주 단단한 경질이다. 구연은 바깥쪽으로 바라졌으며 구순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서 판관하게 처리하였다. 외면에는 선명한 물레질자국이 관찰된다. 두께 0.8cm

도면 14-⑩(사진 106-⑩)은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회청색인 구연부편이다. 바탕흙에는 자갈한 석영알갱이들이 섞여 있다. 동체에서 바깥으로 약간 바라져서 구연이 있다. 구순에는 홈이 한 줄 돌아가 단을 이루고 있으며 구연과 연결된 내면에도 홈이 나 있다. 외면과 내면 모두 물레질자국이 관찰된다. 추정 입지름 14cm, 두께 0.7cm

도면 14-⑪(사진 106-⑪)은 외면과 내면은 진한 회청색이고 속심은 자주색인 구연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정선되어 있으며 아주 단단한 경질이다. 외면, 내면 모두 자연유가 배어나와 있다. 동체는 배가 부른 것으로 보이며 구연은 동체에서 바깥으로 둥글게 바라지면서 연결된다. 구순은 곧게 올라가고 판관하게 눌러서 마무리하였다. 구연과 내면이 만나는 부분에 한줄의 홈이 돌아가면서 단을 만들었다. 추정입지름 14cm, 두께 0.5~0.6cm

도면 14-⑫(사진 106-⑫)는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회청색인 병편으로, 구연 일부가 남아 있다. 바탕흙은 점토질이며 내면에는 소성할 때 빠져나온 굵은 석영알갱이 한 개가 관찰된다. 구연은 경부에서부터 약간 밖으로 바라져서 올라가며 구순은 둥그스름하게 눌러서 처리하였다. 외면과 내면 모두에 선명한 물레질자국이 남아 있다. 추정입지름 6cm, 두께 0.5cm

4) 경부편

도면 15-①(사진 107-①)은 외면과 내면은 회청색, 속심은 자주색인 경부편이다. 대형호편으로 보인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정선되어 있다. 경부는 동체에서 곧게 올라간다. 외면에는 0.1×0.1 cm 정도의 자갈한 격자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특히 경부에는 물레질자국이 선명하다. 내면에도 0.2×0.3 cm 정도의 격자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바탕흙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 추정목지름 22cm, 두께 0.6~0.8cm

도면 15-②(사진 107-②)는 외면과 내면은 회청색이고 속심은 자주색인 경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정선되어 있으며 경부는 곧게 올라간다. 외면에는 약 1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두 줄의 얇은 흙이 돌아가며 물레질자국도 관찰된다. 내면에도 역시 물레질자국이 남아 있는데 정면하는 과정에서 도구를 사용하여 깊게 누른 자국이 3군데에서 나타난다. 두께 0.6~0.8cm

도면 15-③(사진 107-③)은 외면, 내면은 진한 회청색, 속심은 자주색인 편병의 동체부편과 경부편이다. 일부만 남아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형을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삼각편병이나 사각편병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정선되어 있으며 군데군데 소성할 때 갈라진 틈으로 석영알갱이가 빠져나와 있다. 동체는 곧게 올라가다가 안쪽으로 둥글게 꺾어지며 다시 경부에서 곧게 구연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외면에는 얇게 가로로 선이 돌아가며 물레질자국이 관찰된다. 내면에는 물레질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두께 0.5~0.6cm

도면 15-④(사진 107-④)는 외면과 내면은 회청색이고 속심은 자주색인 경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된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동체와 연결된 경부는 급하게 밖으로 바라진 상태이다. 외면과 내면 모두에서 선명한 물레질자국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내면에는 내박자로 친 후 정면하면서 그것을 지운 흔적이 남아 있다. 추정목지름 18cm, 두께 1cm

도면 15-⑤(사진 107-⑤)는 외면, 내면은 회청색, 속심은 자주색인 경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정선되어 있다. 외면에는 가로로 3줄의 부드러운 파도무늬가 그어져 있으며 물레질자국도 관찰된다. 내면에도 물레질자국이 관찰된다. 두께 0.7~1cm

도면 15-⑥(사진 107-⑥)은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회청색으로 경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정선되어 있다. 경부는 곧은 편이며 동체부분에는 세로 직선문이 일부 시문되어 있으

나 일부만 남아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 내면에는 정면한 흔적이 남아 있는데 깔끔하게 처리되지 않아 군데군데 울퉁불퉁하다. 두께 0.8cm

도면 15-⑦(사진 107-⑦)은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회색인 경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정선되었다. 외면에는 $0.3 \times 0.3\text{cm}$ 크기의 격자문이 시문되어 있는데 일부는 정면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워진 상태이다. 내면에도 사격자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물레질자국도 일부 관찰된다. 두께 0.3~0.5cm

도면 15-⑧(사진 107-⑧)은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회갈색으로 경부만 남아 있다. 바탕흙에는 자갈한 모래가 섞여 있다. 동체는 둥글게 벌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동체에서 경부는 거의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다. 외면에는 무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정면하는 과정에서 지워져 자세히 관찰되지 않는다. 내면에는 물레질자국이 관찰된다. 두께 0.6cm

도면 15-⑨(사진 107-⑨)는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회색인 경부편이다. 바탕흙에는 모래가 많이 섞여 있다. 경부는 비교적 곧게 올라가며 남아 있는 상태로 보아 구연은 약간 바깥으로 바라졌을 것으로 보인다. 외면과 내면 모두에서 물레질자국을 관찰할 수 있다. 두께 0.8cm

도면 15-⑩(사진 107-⑩)은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적갈색으로 경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잘 정선되어 있다. 동체에서 경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구연부분으로 갈수록 바라진 형태이다. 외면에는 직선문이 세로로 시문되어 있는데 정면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워졌다. 내면에는 물레질자국이 남아 있다. 두께 0.6cm

5) 동체부편

도면 16-①(사진 108-①)은 외면, 내면, 속심이 모두 적갈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에는 자갈한 석영알갱이들이 많이 섞여 있다. 외면에는 승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이미 많이 지워져서 잘 보이지 않는다. 내면에는 별다른 특징이 없다. 두께 0.7~0.8cm

도면 16-②(사진 108-②)는 외면과 내면, 속심이 모두 적갈색인 동체부편이다. 저부와 연결되는 부분으로 보인다. 바탕흙에는 자갈한 석영알갱이들이 많이 섞여 있다. 외면, 내면 모두 특별한 무늬는 발견되지 않는다. 내면에는 물레질할 때 생긴 흠이 관찰된다. 두께 0.6~0.7cm

도면 16-③(사진 108-③)은 외면과 내면은 적갈색이고 속심은 회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에는 석영알갱이들이 많이 섞여 있다. 외면과 내면 모두에 특별한 무늬는 없다. 이미 많이 구른 상태로 자세한 사항은 알기 어렵다. 두께 0.6cm

도면 16-④(사진 108-④)는 외면과 내면, 속심이 모두 적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에는 다양한 크기의 석영알갱이들이 섞여 있다. 외면은 매끄럽게 정면하였다. 두께 0.4~0.7cm

도면 16-⑤(사진 108-⑤)는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적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정선되어 있다. 외면에는 희미하게 직선문이 남아 있다. 내면에는 물레질자국이 선명하게 관찰된다. 두께 0.5cm

도면 16-⑥(사진 108-⑥)은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회갈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정선되어 있다. 외면과 내면 모두에 정면한 흔적이 관찰되며 특별한 무늬는 보이지 않는다. 두께 0.4cm

도면 16-⑦(사진 108-⑦)은 외면, 속심, 내면 모두 적갈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에는 모래가 많이 섞여 있다. 외면과 내면 모두에 무늬는 관찰되지 않는다. 내면에는 물레질자국이 있다. 두께 0.8cm

도면 16-⑧(사진 108-⑧)은 외면, 속심은 회갈색이고 내면은 적갈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정선되어 있다. 외면에는 세로로 직선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뚜렷하지는 않다. 내면에도 내박자로 타날한 흔적과 물레질자국이 남아 있다. 두께 0.4~0.5cm

도면 16-⑨(사진 108-⑨)는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회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질이며 자갈한 석영알갱이와 운모가 관찰된다. 외면에는 약 0.4cm 간격으로 승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선명하지는 않다. 내면에는 손으로 누른 자국이 관찰되며 약하게 내박자의 흔적이 남아 있다. 두께 0.3~0.5cm

도면 16-⑩(사진 108-⑩)은 외면과 속심은 회색이고 내면은 회백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에는 자갈한 석영알갱이가 많이 박혀 있다. 외면에는 승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많이 굴러서 자세히 확인하기 어렵다. 내면에는 석영알갱이들이 많이 드러나 있다. 두께 0.5~0.8cm

도면 16-⑪(사진 108-⑪)은 외면과 내면은 모두 회흑색이고 속심은 회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질이며 석영알갱이가 섞여 있다. 외면에는 세로로 직선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많이 굴러서 지워진 상태이다. 내면에는 물레질자국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두께 0.5~0.6cm

도면 16-⑫(사진 108-⑫)는 외면은 회흑색이고 속심과 내면은 회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정선되어 있으며 운모가 관찰된다. 외면에는 승문이 시문되어 있는데 많이 지워져서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없다. 내면에는 손으로 누른 자국이 관찰된다. 두께 0.6cm

도면 16-⑬(사진 108-⑬)은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회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질이며 운모가 약간 관찰된다. 외면에는 승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이미 많이 굴러서 잘 보이지 않는다. 외면과 내면 모두에서 소성할 때 석영알갱이가 빠져나간 후 생긴 구멍들이 관찰된다. 두께 0.5cm

도면 16-⑭(사진 108-⑭)는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회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정선되어 있으며 운모가 관찰된다. 바탕흙을 접합한 흔적이 관찰된다. 외면에는 승문이 희미하게 시문되어 있다. 두께 0.7cm

도면 16-⑮(사진 108-⑮)는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회갈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된 점토질이며 외면에는 굵은 승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정연하지는 않다. 내면에는 손으로 누른 자국이 관찰된다. 두께 0.4cm

도면 17-①(사진 109-①)은 외면은 적갈색, 속심은 회색, 내면은 회흑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된 점토질이며 운모가 관찰된다. 외면에는 0.2×0.2cm 정도 크기의 격자문이 시문되어 있다. 일부 바탕흙이 떨어져 나가 많이 지워진 상태이다. 내면에는 희미한 물레질 자국이 남아 있다. 두께 1.4cm

도면 17-②(사진 109-②)는 외면은 적갈색이고 내면과 속심은 회갈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에는 아주 자갈한 석영알갱이가 약간 섞여 있다. 외면에는 두께가 얇은 교차승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선명하지 않다. 두께 0.7~1cm

도면 17-③(사진 109-③)은 외면은 회색이고 내면과 속심은 회백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질이며 정선되어 있다. 운모가 관찰된다. 외면에는 두께가 얇은 교차승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유사승석문도 약간 보인다. 내면에는 물레질자국이 남아 있다. 두께 1~1.2cm

도면 17-④(사진 109-④)는 외면, 내면, 속심이 모두 회청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질이며 자갈한 석영알갱이가 많이 박혀 있다. 바탕흙을 접합한 흔적이 관찰된다. 외면에는 약 0.5cm의 간격을 두고 승석문이 시문되어 있다. 내면은 고온으로 소성할 때 갈라진 틈으로 석영알갱이들이 많이 빠져 나와 있으며 손으로 누른 자국이 관찰된다. 두께 0.6~0.7cm

도면 17-⑤(사진 109-⑤)는 외면, 내면, 속심이 모두 회청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에 자갈한 석영알갱이들이 많이 섞여 있다. 외면에는 약 0.4cm 정도의 간격으로 승문이 시문되어 있는데 정연한 편은 아니다. 내면에는 손으로 누른 자국을 관찰할 수 있다. 외면과 내면 모두에 소성할 때 생긴 기포가 많이 보인다. 두께 0.7~0.8cm

도면 17-⑥(사진 109-⑥)은 외면과 내면 속심이 모두 회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에는 자갈한 석영알갱이들이 많이 보인다. 외면에는 승문이 시문되어 있는데 정면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워진 상태이다. 내면은 소성과정에서 바탕흙이 갈라진 부분이 있으며 손으로 누른 자국이 관찰된다. 두께 0.7cm

도면 17-⑦(사진 109-⑦)은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회청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되어 있으나 굵은 석영알갱이가 몇군데 보인다. 바탕흙을 접합한 흔적을 관찰할 수 있다. 외면에는 승문이 시문되어 있는데 정면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지워졌다. 내면에는 손으로 누른 자국이 관찰되며 소성할 때 생긴 기포가 많이 보인다. 두께 0.7cm

도면 17-⑧(사진 109-⑧)은 외면은 회갈색이고 속심과 내면은 회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되어 있으며 운모가 관찰된다. 바탕흙을 접합한 흔적을 관찰할 수 있다. 외면에는 자갈한 승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내면에는 희미하게 물레질자국이 남아 있다. 두께 0.7cm

도면 18-①(사진 110-①)은 외면, 내면은 회청색, 속심은 자주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정선되어 있으며 외면에는 $0.1 \times 0.2\text{cm}$ 정도 크기의 격자문이 시문되어 있다. 그러나 정면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지워졌다. 내면에도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는데 역시 정면하면서 많이 지워졌다. 두께 $0.8 \sim 0.9\text{cm}$

도면 18-②(사진 110-②)는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회청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에는 자갈한 석영알갱이들이 많이 섞여 있다. 외면에는 $0.1 \times 0.1\text{cm}$ 정도 크기의 자갈한 격자문이 시문되어 있는데 방향은 일정하지 않다. 정면하면서 일부는 지워졌다. 내면에는 소성할 때 빠져나온 석영알갱이들이 많이 관찰된다. 두께 1cm

도면 18-③(사진 110-③)은 외면과 내면은 모두 회청색이고 속심은 자주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되어 있는 편이며 자갈한 석영알갱이들이 일부 관찰된다. 외면은 $0.2 \times 0.3\text{cm}$ 크기의 격자가 시문되어 있는데 격자방향은 일정하지 않으며 일부는 겹쳐서 나타난다. 일부는 지워진 상태이다. 내면에는 소성할 때 빠져나온 석영알갱이가 관찰되며 빗질한 흔적이 남아 있다. 두께 $0.8 \sim 1\text{cm}$

도면 18-④(사진 110-④)는 외면과 내면은 회청색, 속심은 자주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된 점토질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정연한 편은 아니며 격자문을 타날한 후 물레질을 하여 정면한 흔적이 관찰된다. 내면에는 내박자를 방사선모양으로 타날한 후 정면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두께 $0.7 \sim 0.8\text{cm}$

도면 18-⑤(사진 110-⑤)는 외면, 내면은 회청색이고 속심은 자주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되어 있다. 외면에는 2.2cm 의 간격을 두고 두께 0.4cm 의 돌대가 돌아가며 전체적으로 세격자를 타날하였으나 정면하면서 많이 지워졌다. 내면에는 약 $0.2 \times 0.2\text{cm}$ 크기의 격자문이 여러방향으로 희미하게 타날되어 있다. 두께 0.8cm

도면 18-⑥(사진 110-⑥)은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회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에는 약간의 모래가 섞여 있다. 외면에는 $0.3 \times 0.3\text{cm}$ 크기의 격자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내면에는 특별한 무늬가 관찰되지 않는다. 내면에서는 손으로 누른 자국이 관찰된다. 두께 $0.6 \sim 0.7\text{cm}$

도면 18-⑦(사진 110-⑦)은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회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에 석영알갱이가 약간 섞여 있다. 외면에는 $0.3 \times 0.3\text{cm}$ 크기의 격자가 시문되어 있으며 일부는 지워졌다. 내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희미해서 자세히 관찰되지 않는다. 바탕흙을 접합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두께 $0.7 \sim 0.9\text{cm}$

도면 18-⑧(사진 110-⑧)은 외면과 내면은 회청색, 속심은 자주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에는 약간의 석영알갱이가 섞여 있다. 외면에는 $0.1 \times 0.1\text{cm}$ 크기의 격자가 일정한 방향없이 시문되어 있으며 정면하면서 많이 지워진 상태이다. 내면에는 $0.2 \times 0.2\text{cm}$ 크기의 격자가 일정한 방향없이 타날된 후 눌린 자국을 관찰할 수 있다. 두께 $0.5 \sim 0.6\text{cm}$

도면 18-⑨(사진 110-⑨)는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회청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에는 자갈한 석영알갱이들이 일부 섞여 있다. 외면에는 일정한 방향으로 $0.2 \times 0.3\text{cm}$ 크기의 사격자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일부에서는 물레질자국이 관찰된다. 내면에는 박자로 친 흔적이 약간 보인다. 두께 1~1.2cm

도면 18-⑩(사진 110-⑩)은 외면, 내면은 회청색, 속심은 자주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정선되어 있다. 외면에는 자갈한 격자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정면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지워지고 일부는 눌러서 희미하게 나타난다. 내면에는 $0.4 \times 0.4\text{cm}$ 크기의 격자문이 여러방향으로 타날되어 있다. 두께 0.6cm

도면 18-⑪(사진 110-⑪)은 외면, 내면이 모두 회청색이고 속심은 자주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정선되어 있다. 외면에는 $0.1 \times 0.1\text{cm}$ 크기의 격자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많이 지워진 상태이다. 내면에는 약 $0.3 \times 0.3\text{cm}$ 크기의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는데 상태는 정연하지 못하다. 두께 0.6~0.8cm

도면 18-⑫(사진 110-⑫)는 외면과 속심은 회색, 내면은 회청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되어 있는 편이다. 외면에는 매우 작은 격자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정면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워졌다. 내면에는 $0.3 \times 0.2\text{cm}$ 크기의 격자문이 여러방향으로 타날되어 있으나 선명하지 못하다. 두께 0.5cm

도면 19-①(사진 110-⑬)은 외면은 회청색, 속심과 내면은 회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되어 있다. 외면에는 세격자가 시문되어 있으나 정면하는 과정에서 거의 다 지워진 상태이다. 내면에는 약 $0.2 \times 0.3\text{cm}$ 크기의 격자가 여러방향으로 타날되어 있는데 일부분은 타날한 후 눌러서 처리하였다. 두께 0.7cm

도면 19-②(사진 110-⑭)는 외면과 내면은 회청색, 속심은 자주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석영알갱이가 일부 박혀있다. 외면에는 $0.1 \times 0.1\text{cm}$ 정도 크기의 격자문이 여러방향으로 시문되어 있으며 일부는 정면하면서 지워졌다. 내면에는 직선문이 여러방향으로 타날되어 있다. 두께 0.5~0.6cm

도면 19-③(사진 111-①)은 외면과 내면은 회청색을 띠고 있으며 속심은 자주색인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3줄의 파도문이 세로로 나란히 한 개체를 이루어 음각되어 있으며 상하 0.4cm 간격으로 다른 한줄이 돌아가고 있다. 내면에는 손으로 누른 자국이 3군데에서 보이고 있으며 물레질자국도 약간 관찰된다. 두께 0.5cm

도면 19-④(사진 111-②)는 전체적으로 회갈색을 띠고 있는 동체부편이다. 외면의 중간부에서부터 5개의 점으로 한줄을 이루는 점열문이 좌우 0.4cm 간격으로 시문되어 있다. 0.3cm 아래에는 2줄이 한쌍을 이루는 점열문이 시작되는 것이 약간 보이고 있다. 내면에는 물레질자국이 관찰된다. 두께 0.6cm

도면 19-⑤(사진 111-③)는 외면은 진한 회청색, 내면은 회청색, 속심은 자주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되어 있다. 동체에서 한번의 단을 이루다가 올라가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경부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밖으로 바라지고 있다. 외면에는 자연유가 배어 나와 있으며 덧줄이 2cm의 간격으로 부착되어 있다. 내면에는 물레질자국이 선명하다. 두께 0.5~0.8cm

도면 19-⑥(사진 111-④)은 외면은 자연유가 배어 나와 있는 진한 회청색이며 내면은 회청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되어 있으며 외면에는 세로방향의 덧줄이 1.5cm 간격으로 부착되어 있다. 내면에는 물레질자국이 관찰된다. 두께 0.4cm

도면 19-⑦(사진 111-⑤)은 외면, 내면은 회청색, 속심은 자주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에는 석영알갱이들이 많이 보인다. 외면에는 세로로 직선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내면에도 방향이 일정치 않은 직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일부는 겹쳐서 나타나기도 한다. 두께 0.5cm

도면 19-⑧(사진 111-⑥)은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회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에는 자갈한 석영알갱이가 많이 섞여있다. 외면에는 세로로 직선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이미 정면하는 과정에서 거의 다 지워진 상태이다. 내면에는 특별한 특징이 관찰되지 않는다. 두께 1cm

도면 19-⑨(사진 111-⑦)는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회갈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정선되어 있다. 외면에는 일부 희미하게 격자문이 시문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시문한 뒤 모두 지웠다. 내면에는 물레질자국이 관찰된다. 두께 0.4~0.7cm

도면 19-⑩(사진 111-⑧)은 외면, 내면, 속심이 모두 회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곱게 정선되어 있다. 외면에는 특별한 무늬는 없고 물레질자국이 관찰된다. 내면에는 0.4×0.2cm 크기의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는데 타날방향은 일정하지 않으며 타날한 후 눌러서 처리하였다. 두께 0.6cm

도면 19-⑪(사진 111-⑨)은 외면, 내면이 모두 회청색이고 속심은 자주색인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자연유가 배어나와 있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정선되어 있다. 외면에는 0.1×0.1cm 크기의 격자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가로선은 희미한 상태이다. 내면에는 0.3×0.3크기의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는데 많이 늘렸다. 일부는 지워지기도 했다. 두께 0.5~0.6cm

도면 19-⑫(사진 111-⑩)는 외면, 내면은 회청색, 속심은 자주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된 점토질이다. 외면에는 가로로 직선문이 시문되어 있는데 그어서 시문하였으며 일부는 정면하는 과정에서 지워졌다. 내면에도 내박자로 사선방향으로 타날한 후 물레질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두께 0.5~0.8cm

도면 19-⑬(사진 111-⑪)은 외면은 진한 회청색, 내면은 자주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정선되어 있다. 외면에는 자갈한 세격자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정면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워졌다. 내면에는 정면하면서 생긴 거친 물손질흔적을 관찰할 수 있다. 두께 0.8cm

6) 저부 및 기타

도면 20-①(사진 112-①)은 외면, 내면은 흑색이고 속심은 회색인 대부완편이다. 바탕흙에는 자갈한 석영알갱이가 약간 보인다. 외면과 내면 모두에서 물레질자국이 관찰된다. 대부의 높이는 약 1.3cm정도이며 끝부분은 약간 벌어져서 지면과 닿아 있다. 완부분은 둥글게 대부와 연결된다. 두께 0.8~1cm

도면 20-②(사진 112-②)는 외면과 내면은 회색이고 속심은 회갈색인 저부편이다. 바탕흙에는 자갈한 석영알갱이들이 일부 관찰된다. 외면에 격자문이 일부 시문되어 있으나 많이 지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알수 없다. 내면에는 물레질을 하면서 생긴 흠들이 있다. 저부는 평평하다. 저부에서 동체로 약간 벌어지면서 연결되며 각도는 약 70° 정도이다. 추정밀지름 16cm, 저부두께 0.5cm, 동체두께 0.6~0.9cm

도면 20-③(사진 112-③)은 외면, 내면, 속심이 모두 회청색인 저부편이다. 바탕흙에는 굵은 석영알갱이들이 많이 관찰된다. 내외면 모두에 물레질자국이 남아 있다. 저부는 평평한 편이나 울퉁불퉁하다. 저부는 약 50° 정도로 벌어지면서 올라간다. 저부두께 0.5cm, 동체두께 0.5~0.6cm

도면 20-④(사진 112-④)는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회청색인 저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정선되어 있으며 접합한 흔적이 관찰된다. 저부는 내부로 약간 들린 상태이며 저부에서 동체는 약 60° 정도로 벌어지면서 올라가고 있다. 내면에는 물레질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추정밀지름 6cm, 저부두께 0.5cm, 동체두께 0.9cm

도면 20-⑤(사진 112-⑤)는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적갈색인 저부편이다. 바탕흙에는 자갈한 석영알갱이들이 많이 관찰된다. 저부는 평평하며 동체는 약간 벌어져서 올라가는데 각도는 약 50° 정도이다. 외면, 내면 모두 특별한 무늬는 없다. 두께 0.5~0.8cm

도면 20-⑥(사진 112-⑥)은 전체적으로 회청색을 띠고 있는 기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되어 있다. 외면은 파도문이 거칠게 음각되어 있으며 저부부분이 돌출되어 띠처럼 둘러져 있다. 내면은 물레질자국이 있으며 흙을 덧대어 이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추정밀지름 18cm, 두께 0.9~1.3cm

도면 20-⑦(사진 112-⑦)은 회청색 연질의 대상파수부편이다. 속심은 회갈색을 띠고 있으며 외면은 잘 정면되어 있으나 내면은 거칠게 정면되어 있으며 여러군데에 흠이 파여 있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잘 정선되어 있다. 손잡이의 너비는 3.6cm정도이다. 두께 0.7cm

도면 20-⑧(사진 113-①)은 외면과 내면은 회청색이고 속심은 자주색인 저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정선되어 있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어 있었으나 정면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지운 상태이다. 저부와 연결된 부분에 바탕흙이 묻쳐 있다. 내면에는 내박자로 타날한 후 물레질을 하여 정면했으며 바탕흙을 접합한 부분이 2군데에서 나타난다. 저부는 평평하며

저부에서 동체는 약 60° 정도 벌어져서 올라간다. 추정밑지름 30cm, 저부두께 0.7cm, 동체 두께 0.7~1cm

도면 20-⑨(사진 113-②)는 외면과 내면은 회청색이고 속심은 자주색인 저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된 점토질이다. 외면과 내면 모두에서 물레질자국이 관찰된다. 특히 내면에는 희미하게 둥근 내박자가 남아 있다. 저부와 연결되는 부분에 손으로 눌러서 접합한 흔적이 관찰된다. 저부는 평평하며 저부에서 동체는 약 70° 로 올라간다. 추정밑지름 26cm, 저부두께 0.5cm, 동체두께 0.5~0.7cm

도면 20-⑩(사진 113-③)은 외면과 내면은 회청색이고 속심은 자주색인 저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정선되어 있다. 외면에는 정면하면서 세로로 깎은 흔적이 관찰되며 내면에는 물레질자국이 남아 있다. 저부는 평평하며 저부에서 동체는 약 75° 정도의 각도로 올라간다. 저부두께 0.5cm, 동체두께 0.5cm~0.8cm

도면 20-⑪(사진 113-④)은 외면과 내면은 회청색이고 속심은 자주색인 저부편이다. 바탕흙에 석영알갱이가 많이 섞여 있어 거칠다. 바탕흙을 접합한 흔적이 관찰된다. 외면에는 자연유가 배어나와 있다. 내면에는 물레질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저부는 평평하며 저부에서 동체로 약간 둥글게 연결되는데 연결각도는 약 60° 이다. 추정밑지름 8.6cm, 저부두께 0.6cm, 동체두께 0.5~0.8cm

도면 20-⑫(사진 113-⑤)는 외면과 내면은 회청색, 속심은 자주색인 저부편이다. 바탕흙에는 약간의 모래가 섞여 있다. 외면에는 아주 작은 격자문이 일부 시문되어 있으며 저부와 동체부를 연결하면서 깎은 흔적이 남아 있다. 내면에는 0.2×0.3cm 크기의 사격자가 타날되어 있으며 일부에는 원형으로 타날되어 있다. 저부는 평평하게 정리되지 못했으며 저부와 동체부는 벌어지면서 연결되고 있다. 추정밑지름 20cm, 저부두께 0.6cm, 동체부두께 1cm

도면 20-⑬(사진 113-⑥)은 외면, 내면은 회청색이고 속심은 자주색인 저부편이다. 바탕흙에는 굵은 석영알갱이들이 일부 보인다. 외면에는 손으로 눌러서 생긴 지문이 관찰된다. 내면에는 물레질할 때 생긴 흠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저부는 평평하며 저부와 동체부는 80° 로 벌어지면서 연결된다. 추정밑지름 12.4cm, 저부두께 0.5cm, 동체부두께 0.9~1.1cm

3. 其他

1) 자기류

도면 21-①(사진 114-①)은 백자발편이다. 전체적으로 연회색의 유약이 시유되어 있으며 굽의 형태는 'ㄷ'자형굽이다. 비교적 높은 굽을 가지고 있고 자기를 구울 때 모래 받침을 이용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모래가 굽의 안쪽에 많이 붙어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했으며 빙얼이 관찰된다. 추정굽지름 7cm, 굽높이 1.8cm, 잔존높이 3.3cm, 두께 0.8cm

도면 21-②(사진 114-②)는 백자발편이다. 전체적으로 회백색의 유약이 시유되어 있으나 자기의 외면에는 완전히 시유되지 못했다. 동체부는 굽에서 벌어지면서 연결되다가 오목하게 내만되고 있다. 굽은 'ㄷ'자형굽으로 생각되며 완형으로 남아 있다. 굽의 저부면은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하여 굴곡이 심하다. 내면에는 그릇을 구울 때 받쳤던 모래가 관찰된다. 굽지름 4.6cm, 굽높이 0.5cm, 잔존높이 3.7cm, 두께 0.7cm

도면 21-③(사진 114-③)은 백자발편이다. 연한 연록색의 유약이 시유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고르게 시유되어 있는 편이다. 전체적인 기형은 굽에서부터 동체부로 둥글게 연결된다. 굽의 형태는 대마디굽으로 생각되며 굽의 안쪽에 모래가 많이 붙어 있다. 또한 굽의 안쪽에 고온으로 소성할 때 바탕흙이 갈라져 틈이 벌어져 있다. 그릇 내면에도 그릇을 포개어 구울 때 묻었던 모래를 관찰할 수 있다. 굽지름 6cm, 굽높이 6cm, 굽높이 1.3cm, 잔존높이 5.2cm, 두께 0.4cm

도면 21-④(사진 114-④)는 백자대접편이다. 짙은 녹색의 유약이 시유되어 있으나 그릇의 외면에는 일부 시유되지 않은 곳도 있다. 그릇의 형태는 넓게 벌어진다. 굽의 형태는 'ㄷ'자형굽으로 보이며 그릇 내면의 굽부분에 단이 저 있다. 굽의 안쪽에는 모래가 많이 붙어 있다. 전체적으로 빙얼이 있다. 추정굽지름 6cm, 잔존높이 5.4cm, 두께 0.7cm

2) 石丸(사진 116-①)

石丸은 성에 적이 공격해올 때 적을 방어하기 위해 성내에서 던지는 것으로 대·중·소로 나눌 수 있다. 이번에 채집된 석환은 비교적 큰 것으로 편마암질의 돌감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둥글게 만들기 위해 일정한 방향없이 타격을 가하여 둥글게 만들었다. 무게는 약 4.8kg 정도이며 한손으로 들기에는 무거운 편이다.

3) 崇寧重寶(사진 116-②)

중국 宋代 徽宗年間(1102~1106)에 사용된 崇寧重寶로 이 기간은 고려 肅宗~睿宗대에 해당한다. 현재 지름은 3.45cm, 두께 0.2cm이며 내곽은 길이 0.7cm의 정사각형의 모습으로 외곽에 두께 0.2cm의 테두리를 돌렸다.

글자는 0.6cm 크기로 해서체의 대독으로 새겨져있고 뒷면에는 아무런 문양도 새기지 않았다.

VI. 綜合考察

城洞里山城은 京畿道 抱川郡 永中面 城洞里 山 693-10번지 일대의 해발 180m의 殘丘性 山地의 8~9부 능선상에 축조된 테뫼식의 石築山城이다. 서쪽으로는 寶藏山(해발 555m)·

種子山(해발 642m), 동쪽과 남쪽으로는 自然垓字의 역할을 하는 永平川이 동에서 서로 흐르며 抱川川과 만나 漢灘江·臨津江에 합류한다. 동벽과 남벽의 사이로 抱川-鐵原 방면의 南北交通路와 雫谷-二東 방면의 東西交通路가 交叉하며 이 통로를 방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요충지가 바로 城洞里山城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성벽의 둘레는 401.9m이며 면적은 10,775m² 정도이다. 이러한 규모로서는 대규모의 병력이 일상적으로 주둔하기에는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성으로 접근하기가 남쪽으로 抱川川과 永平川을 통하든지, 아니면 抱川-鐵原간의 육로를 통해 쉽게 다다를 수 있어 적은 병력으로도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먼저 포천지역의 관방유적 분포는 山脈과 河川의 지형적 여건에 맞추어 조성된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지역의 지세는 동·남쪽으로 廣州山脈의 높은 산지에 의해 막혀 있고 서쪽으로는 天寶山脈에 의해 제약을 받아 북쪽으로 개방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에 抱川川·永平川 등의 하천이 서쪽으로 흘러가는 지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山城은 抱川川·永平川을 따른 鐵原-抱川간의 교통로상이나 永平川·漢灘江을 따른 雫谷-二東간의 교통로상에 축조되었으며 이들 河川은 水路와 自然垓字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城洞里山城의 반경 15km내에²¹⁾ 위치한 山城들을 검토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²²⁾

(표 5) 성동리산성 주위의 관방유적 현황 (단위 : m)

| | 유적 | 위 치 | 해발 | 둘레 | 축조 방법 | 축성 재료 | 주변 하천 | 주방어 방향 | 비 고 |
|---|-------|-------------------|-------|-------|-------|-------|-------|--------|-----|
| 1 | 반월산성 | 포천군 군내면 구읍리 산5-1 | 283.5 | 1,080 | 테괴식 | 석축 | 포천천 | 북 | |
| 2 | 대전리산성 |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성재산 | 136 | 670 | 테괴식 | 석축 | 한탄강 | 북,서 | |
| 3 | 고소성 | 포천군 창수면 고소성리 산2-1 | 130 | 412 | 테괴식 | 석축 | 영평천 | 북,서 | |
| 4 | 주원리산성 | 포천군 창수면 주원리 산186 | 102 | 87 | 테괴식 | 석축 | 영평천 | 북 | |
| 5 | 성령산성 | 연천읍 동막리 성령 | 510 | 740 | 테괴식 | 석축 | 아미천 | 북,서 | |
| 6 | 보가산성 | 포천군 관인면 중리 산251-1 | 645 | 4,200 | 포곡식 | 석축 | | 서 | |
| 7 | 냉정리산성 | 포천군 관인면 냉정리산225-6 | 260 | 340 | 테괴식 | 석축 | 한탄강 | 동,남 | |
| 8 | 명성산성 |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 823 | 약 2km | 포곡식 | 석축 | | 남 | |

21) 성동리산성과 포천의 주성이라 할 수 있는 반월산성과의 거리가 약 15km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22)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포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8, 149~154쪽.

이를 통해 볼때 抱川地域의 山城은 대체로 抱川川-永平川-漢灘江의 背後에 立地하며 해발 300m 이하의 丘陵性 山地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구릉성 산지는 주변의 높은 산악지대에 비하여 상대높이가 낮은 지형이지만 조망되는 지역이 넓으며 교통로를 확보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는 주변 산성과의 유기적인 측면을 배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산성의 입지에 따라 분류해 보면 평지에 솟아 있는 잔구상에 축조한 유형과 하천에 의하여 침식된 지형에 축조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 속하는 유형은 半月山城, 大田里山城 등으로 이 산성은 비록 낮은 해발고도에 위치하지만 주변이 평야지대인 산지에 축조하였기 때문에 사방이 잘 조망되어 평상시에는 주변촌락을 통제하는 행정적 기능을, 유사시에는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입보하여 농성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주변 산성을 관장하는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자에 속하는 유형으로는 城洞里山城, 姑蘇城, 注院里山城 등이 있다. 이들은 주변의 높은 산지에서 뺏어내려온 산줄기가 하천에 의해 침식되어 절단된 부분을 방어의 중심선으로 삼아 축조하였기 때문에 규모가 작고 성벽 아래로 바로 하천과 연결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산성은 규모가 작고 주변의 평야지대와 격리되어 있어 장기간의 농성에는 불리하지만 좁은 통로를 방어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어 적은 병력으로도 많은 적군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정리하면 城洞里山城은 永平川-漢灘江을 따라 배치된 姑蘇城·注院里山城과 함께 남북·동서방향의 교통로에 입지하여 길목을 차단하는 前方位城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前方位城을 총괄하는 중심적 기능은 半月山城과 大田里山城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곽과 봉수의 배치관계에 있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점이 성내에 봉수가 위치하지 않고 성밖의 인접지역에 봉수대가 자리하고 있어 산성과 봉수대가 서로 하나의 세트관계를 이룬다는 것이다. 즉 城洞里山城과 북쪽 약 2km지점에 위치한 彌老谷烽燧, 半月山城과 북쪽 약 2km지점에 위치한 禿山烽燧 등이 그 예로서 다른 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독특한 구조를 하고 있다.

한편 城洞里山城을 궁예가 축성하였다는 구전이 전하고 있는데 궁예와 관련된 전설을 가진 성들이 鐵原·漣川·抱川地域에만 수 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을 단순히 전설로만 인식하기 보다는 이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조사에서도 궁예 전설과 부합되는 현무암 축조구간이 확인된 예는 좋은 자료로 생각된다. 抱川·鐵原·漣川地域을 중심으로 궁예와 관련된 전설이 전하는 유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궁예 관련 전설권의 관방유적 현황

| 번호 | 유적 | 위 치 | 내 용 | 출전 |
|----|-------|-------------------------|--|----|
| 1 | 성동리산성 | 포천군 영중면 성동리 산 693-10 | 후삼국시대 궁예왕이 그 부장이었던 왕건에게 쫓길 때 하루 저녁을 숙영키 위해 쌓은 성이라고 전하는데 북강(현 한탄강)에서 이 성까지 백성과 군졸들이 일렬로 서서 손에서 손으로 돌을 전달해서 쌓았다고 전한다. | a |
| 2 | 명성산성 |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 궁예가 철원에 도읍을 정하고 태봉국을 세워 통치하는 도중 그의 폭정으로 신승겸, 배현경 등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중략) 최후로 명성산에 들어와 석축을 쌓고 왕건과 대치하였다. 그러나 역부족으로 부득이 휘하 군사를 해산하였고 군졸들이 슬피 울었다 하여 성이름이 울음성으로 되었다 (후략) | b |
| 3 | 보가산성 | 포천군 관인면 중리 산251-1 | 철원에 도읍하였던 궁예가 자기 부하인 왕건에게 쫓길 때 왕건과 싸운 성터라고 전한다. | a |
| 4 | 반월산성 | 포천군 군내면 구읍리 산 5-1 | 신라 48대 경문왕의 왕자 궁예가 태봉국을 세우고 철원에 도읍을 정하여 남으로 신라, 서남으로 견훤의 후백제와 대치하여 자웅을 겨룰 때 그 부장이 축성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 a |
| 5 | 운악산성 | 포천군 화현면 화현리 산 202 | 내용미상 | c |

a. 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 1978.

b. 鐵原郡誌編纂委員會, 『鐵原郡誌』, 1992.

c.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京畿道 抱川郡 軍事遺蹟 地表調査報告書』, 1997.

이외에도 弓裔와 관련된 지명이 곳곳에 남아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현재 鐵原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궁예가 泰封國을 세우고 鐵原에 도읍한 역사적 사실과 연결시켜 볼 때 궁예가 축성하였다기 보다는 이 지역을 기반으로 궁예세력의 거점성으로 활용하기 위해 修改築을 한 후 군사를 주둔하고 방어에 사용했던 까닭에서 연유한 것으로 생각된다.

1. 遺構에 대한 檢討

우리나라의 산성은 삼국시대에 초축되어진후 후대에 修改築을 거치면서 조선시대까지 이용된 것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古代의 축조부분과 후대의 修改築된 부분이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경우는 드물게 나타나며, 후대의 修改築 역시 城壁 上部, 城門·女牆, 附帶施設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성의 基壇部나 體城의 경우는 古代에 축조된 부분이 그대로 이용된 경우가 일반적이다.

성동리산성의 축조방법은 현상태로 보아 夾築式이 아닌 片築式²³⁾으로 축조하였으며 성벽의 기초부인 암반을 L자형으로 굴착한 후 그 위로 장방형의 석재를 사용하여 수평을 맞추어가며 축조하는 바른층쌓기를 하였는데 상부와 하부의 석재가 동일한 크기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후대에 수개축이 이루어진 구간은 상부와 하부의 석재가 크기에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양식은 장방형의 커다란 석재를 성벽 하단부부터 쌓아올려 위로 갈수록 차츰 작은 석재로 쌓아올리는 고려시대 이후의 축성방법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고대의 축조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구간별 성벽조사에서 면석의 두께와 길이에 대한 비율을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7) 구간별 면석의 두께·길이 비율표

| 구 간 | 비 율 | |
|---------|----------|-------|
| | 두께:길이 비율 | |
| | 상 부 | 하 부 |
| i-1구간 | 1:2 | 1:2.8 |
| i-2구간 | 1:2.9 | 1:2.2 |
| ii구간 | 1:3.2 | 1:2.6 |
| iii-1구간 | 1:2.2 | 1:2.2 |
| iii-2구간 | 1:2.3 | 1:2.2 |
| iv구간 | 1:1.8 | 1:1.8 |
| v구간 | 1:3.1 | 1:2.5 |
| vi구간 | 1:2.6 | 1:2.7 |

iii구간은 1:2.2~2.3, iv구간은 1:1.8, vi구간은 1:2.6~2.7로 상부와 하부가 동일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상부와 하부의 면석이 동일한 크기로 나타나는 것은 초축시의 성벽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i ~ vi구간의 면석은 두께와 길이의 비율이 1:1.8~2.9의 범위안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1:2.2~2.6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다만 ii구간과 v구간의 하부에서 두께와 길이의 비율이 1:3.1~3.2의 비교적 넓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i · ii · v구간은 면석의 상부와 하부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중 ii구간은 상부 1:3.2, 하부 1:2.6, v구간은 상부 1:3.1, 하부 1:2.5로 동일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23) 石城의 경우 이러한 편축식 축조방법을 채택한 것은 당시의 전투방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즉 회곽도가 넓직하여 활동공간이 넓은 것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방어하는 방법-돌이나 통나무를 굴리는-에 기초한 것으로 보고 있다.

徐程錫, 「忠南地域 百濟山城에 관한 一研究」, 『百濟研究』22, 公州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1992.

이들 성벽은 하부의 비율이 1:2.5~2.6으로 성동리산성에서는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는 범위안에 포함되므로 이 하부를 초축시의 성벽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상부의 비율이 1:3.1~3.2로 하부에 비하여 큰 석재로 축조되어 있는 구간은 후대에 수개축의 과정을 거친 성벽이라 생각되며 이는 면석의 축조방법과 치석방법의 차이에 의해서도 쉽게 구분지을 수 있다.

i-1구간은 상부가 1:2, 하부가 1:2.8인 것으로 보아 하단부까지 후대에 개축이 이루어졌으며 i-2구간은 상부 1:2.9, 하부 1:2.2인 것으로 보아 상부만 후대에 개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면석의 두께와 길이의 비율로 구간별 성벽의 수개축상태를 살펴본 결과 성동리산성의 초축시 사용된 면석의 두께와 길이 비율은 1:2.2~2.6의 범위안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개축의 관계는 iii·iv·vi구간이 초축 성벽이며 i-2·ii·v구간은 하부는 그대로 이용하고 상부에 대한 개축이 이루어졌으며 i-1구간만이 하부부터 개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중 iii-1구간의 상단부 일부와 북동치성은 현무암 면석을 이용하여 개축된 점이 이채롭다.

뒷채움방법은 할석재를 가로넣기와 세로넣기를 교대로 하며 면석과 엇물리도록 축조하였다. 면석 역시 뒷뿌리가 긴 심석을 교대로 하여 쌓았기 때문에 면석과 뒷채움석이 툇나처럼 엇물려 그 견고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축조방법은 삼국시대에 보편적으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성동리산성에서는 후대에 현무암 면석을 사용하여 북동치성과 같이 개축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궁예전설과 부합되는 축조구간은 다른 유적에서는 확인된 적이 없고 추론으로서만 짐작할 뿐이었다.

문지는 남쪽 계곡부를 막아 축조한 남벽의 서측면에서 1개소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서측벽이 남쪽으로 약간 돌출되어 북쪽으로 들어온 동측벽과 서로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平面은 “—” 形態로 어긋문 양식을 하고 있으며 문지 안쪽에는 반원추형의 둔덕이 성벽과 연결되고 있다. 이 둔덕은 성문진입시 2차적으로 적을 차단시키며 안쪽에서 방어할 수 있는 內甕城의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구조는 경사가 급한 지역에 성문을 축조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²⁴⁾

雉城은 北東回折部에서 확인되었으며 북쪽의 철원과 동쪽의 영평천 방향에 접한 성벽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축조한 것으로 여겨진다. 현존상태는 전면의 북편과 모서리돌(隅石) 일부만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규모는 체성에서 4m정도 돌출하여 전면너비 3.2m이고 상면까지의 높이는 2.2m내외이다. 모서리돌은 두께 30cm, 길이 60cm정도이며 2~3cm가량 안물림하였다. 현재 전면에는 3~4단에 1m의 높이로 장방형쌓기 한 현무암 면석을 관찰

24)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포천 반월산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 1997, 34쪽.

할 수 있다.

이와같이 북동치성은 玄武岩을 축조재료로 사용한 점이 特徵的이다. 이러한 현무암석재는 弓裔傳説과 附合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곳에는 泰封國의 왕인 弓裔가 부하인 王建에게 쫓길 때 하루저녁을 宿營하기 위해 쌓은 城으로 北江(漢灘江)에서 이곳까지 백성과 군졸들이 일렬로 서서 손에서 손으로 돌을 전달하여 날랐다는 이야기가 傳하고 있다.

현재 건물지로 추정되는 지역은 우물지를 중심으로 상단대지에 2개소, 중단대지에 1개소 등 모두 3個所이다. 그리고 장대지는 산성내부의 동측에 위치한 해발 180m의 정상부에 해당하며 현재는 군의 지휘참호가 지하에 시설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남쪽으로 영평천 주위와 반월산성, 북쪽으로는 철원-포천을 잇는 교통로를 따라 철원·운천방면이 한눈에 조망되는 등 주변 시계가 매우 좋을 뿐만 아니라 성 내부를 통제할 수 있어 장대지로서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갖고 있다. 한편, 조선후기 永平縣地圖에는 성안에 城隍堂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정상부근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주변 지형상 성황당이 입지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장대지 아래의 동벽구간에서만 조선시대의 기와·자기편이 채집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안에서의 음료유구는 상단대지의 중간부에서 우물지 1개소가 확인되었다. 우물은 성내에서 일정기간을 농성할 경우 가장 필수적인 시설이다. 성동리산성이 비록 다수의 軍民이 장기간 농성하기에는 단점들이 많지만 이를 거점으로 삼아 주요교통로를 방어하고 주둔하기에는 충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물의 상부는 원형, 하부는 팔각형의 평면을 하고 있다. 하단부에서 60cm까지는 지름 67cm의 팔각형 석축을 수직으로 축조한 후 그 위로는 밖으로 벌어지는 나팔상의 단면형태로 지름 2.1m의 원형석축을 계단식으로 물려가며 축조하였다. 규모는 지름 2.1m, 깊이 1.7m에 10~12단을 석축하였다. 그리고 배수로의 방향이 남벽부의 수구방향과 일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성내의 유수가 남벽 수구를 통해 배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물에서 수구까지의 거리는 52.5m이다. 이러한 우물지는 반월산성에서 2개소, 보가산성·고모리산성에서 1개소씩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대부분의 우물지가 높이 1m에 6~10단의 석축으로 보고되어²⁵⁾ 그 규모면에서도 성동리산성의 우물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水口는 남벽 중간부에 설치된 남문지의 동측편에 위치하며 형태는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사다리꼴(梯形)의 모습이다. 축조방법은 성벽 하단에서 1m 높이에 넓은 판석을 깔고 그 위에 2단의 석축을 쌓으면서 아래돌보다 윗돌을 안으로 들여쌓아서 좁힌 다음 다시 판석으로

25)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포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8, 136~150쪽.

윗부분을 마무리 하였다. 크기는 높이 35cm, 상부폭 25cm, 하부폭 40cm이다. 면석의 크기는 50cm×15cm×50cm, 60cm×14cm×53cm 정도로 다른 곳보다 큰 석재를 사용하여 축조하였는데 이는 수구의 기능수행에 따른 배려로 생각된다. 이렇게 수구의 형태가 사다리꼴인 것은 신라식의 산성에서 볼 때 오각형에서 사각형의 순서로 변화해가는 과정에 속하는 초기적 축조수법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⁶⁾

2. 遺物에 대한 檢討

성동리산성에서 채집된 유물은 크게 기와류와 토기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밖에 자기류·동전·석환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각 유물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기와류는 대부분 평기와로 성내외에서 많은 양이 채집되었는데 이 가운데 평기와 78점과 '使令'명 명문기와 1점 등 79점을 선별하여 정리하였다.

평기와의 문양은 대체로 직선문(20.2%), 사선문(35.4%), 정격자문(7.5%), 사격자문(17.8%) 등이며 표면색깔은 회청색, 회백색, 적갈색이 대부분이다. 특히 회청색경질기와가 가장 많은 분포도를 가지며 적갈색연질기와도 일부 확인되는데 제작수법이나 문양 시문에 있어 회청색경질기와와 유사하다. 이러한 적갈색 연질기와를 임진강 유역의 호로고루성, 당포성 등지에서 발견되는 고구려 기와와 동일시하여 성동리산성을 고구려와 연관시키는 주장²⁷⁾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성동리산성의 적갈색연질기와는 임진강유역에서 출토되는 고구려기와와는 문양, 측면 분할, 내면상태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좀더 신중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와류의 대부분은 포천 반월산성²⁸⁾, 이천 설봉산성²⁹⁾, 평택 자미산성³⁰⁾에서 출토된 평기와류의 문양과 제작수법면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반월산성과 성동리산성은 출토유물과 지리적인 관계로 보아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입지나 규모면에서 반월산성이 主城의 역할을 하였다면 성동리산성은 반월산성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성동리산성 채집 기와들의 특징을 몇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와의 내림면에 문양을 음각했다는 것이다. 대개 내림면은 무문으로 처리하는 것이

26) 車勇杰, 「小白山脈 北麓石築山城 水口形式 試論」, 『龍巖華甲紀念 史學論叢』, 新書苑, 1989.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앞의 책, 1998, 135쪽.

27)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京畿道 抱川郡 軍事遺蹟 地表調査報告書』, 1997, 34~36쪽.

28) 강남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앞의 책, 1995.

29)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이천 설봉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1998.

30) 京畿道博物館, 『平澤 關防遺蹟(Ⅰ) 精密地表調査報告書』, 1999.

일반적인데 성동리산성 채집 기와들의 경우 2점에 불과하긴 하지만 내림면에 사선문을 음각하였다. 이러한 기와들은 반월산성·이천 설봉산성에서 출토되는 기와의 수법과 일치하는데 이들 유적을 제외하곤 아직까지 보고된 예가 없다.

둘째, 내림면 조성방법의 차이가 나타난다. 내림면을 기와 두께 그대로 만들어 조성한 것과 등면에 흙을 덧대 턱을 지게 만든 기와가 채집되었다. 이 중 후자의 경우는 반월산성에서도 출토되었는데 보고자는 이를 막새기와의 초기양식으로 추정하였다.³¹⁾

셋째, 기와의 측면처리에 있어 그 수법이 매우 다양하고 정교함을 들 수 있다. 와도흔이 확인된 평기와를 보면 측면 전체를 와도로 1회에 긁고 분할한 것, 측면을 와도로 분할하고 등·내면에서 다시 정면한 것, 와도의 방향을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넣은 후 측면두께의 1/2~1/5정도를 그어 기와를 분할한 수법이 확인되었다.

비록 이번조사가 지표조사에 불과하긴 하지만 이러한 특징들과 주변 유적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평기와의 중심년대는 7세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명문기와는 1점이 채집되었는데 회흑색 경질 수키와편이다. 등면의 마멸이 심하고 '使'가 2/3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使令'으로 판독할 수 있다. 현재 잔존상태로는 장방형의 방곽 안에 '使令'이 좌서로 양각된 것으로 보이나 잔존부가 너무 작아 완전한 형태를 추정할 수는 없다. 등면의 균열과 바탕흙이 고르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고려 이후의 기와로 추정할 수 있다. 이로 보아 고려 이후에도 성동리산성이 일정정도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토기류는 모두 파편의 형태로 수습되었다. 토기의 기종은 대부분이 파편의 형태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완, 호, 응, 대부완, 뚜껑, 편병, 병, 손잡이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토기는 바탕흙이 정성된 점토질이나 일부는 석영알갱이나 모래가 섞여 있어 거친 느낌을 준다. 뚜껑편은 총 4점이 채집되었는데 그중 3점에 점열문이 시문되어 있다. 또한 덧줄이 선명하게 붙어 있는 덧줄무늬병편이 2점, 편병편이 1점 채집되었다. 이 편병은 근처 반월산성에서 발굴된 것과 거의 같은 형태의 것으로 보인다.³²⁾ 저부편은 모두 평저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저부에서 동체부로 연결되는 각도는 대체로 50~80° 사이이다.

이번에 채집된 토기는 총 92점이며 이중 동체부편이 48점으로 52.2%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삼국시대의 타날문토기편은 격자문·승문·승석문·교차승문·파상문 등이 시문되어 있으며 연질과 경질의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중 격자문이 시문된 대용편, 횡침선이 돌아가는 승석문 등은 성동리 주거유적에서 출토되는 유물과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

31) 강남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포천 반월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1995.

32)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포천 반월산성 3차 발굴조사 보고서』, 1998, 162쪽.

어 양 유적의 관련성을 연결지을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판단된다. 이렇게 삼국시대의 타날문 토기편이 적은량이지만 채집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적의 상한은 좀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회청색경질토기로서 외면과 내면 모두에 격자문을 타날하고 이것을 다시 정면 하면서 일부가 지워진 것도 많이 수습되었다. 격자문은 외면의 것보다 내면의 것이 더 굵으며 물레의 흔적이 대부분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편병, 덧줄무늬병, 점열문이 시문되어 있는 뚜껑편 등이 같이 공반되고 있다. 이러한 토기들은 대부분 통일신라에서 고려 초기에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³³⁾

자기류는 모두 4점이 채집되었는데 이중 3점이 발편이다. 자기는 모두 소성상태, 시유상태 등이 그리 좋지 못하다. 굽의 안쪽과 그릇 안면에 모두 그릇을 구울 때 모래를 받쳤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 깔끔하지 않다. 빙열도 많이 관찰된다.

33)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망이산성 발굴 보고서(1)』, 1996, 506쪽.

VII. 保存整備를 위한 提言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성동리 산 693-10번지 일대에 위치한 성동리산성은 포천지역의 관방문화 및 역사지리적 위치를 대변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고대사의 공백을 메워줄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유적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동리산성의 보존정비를 위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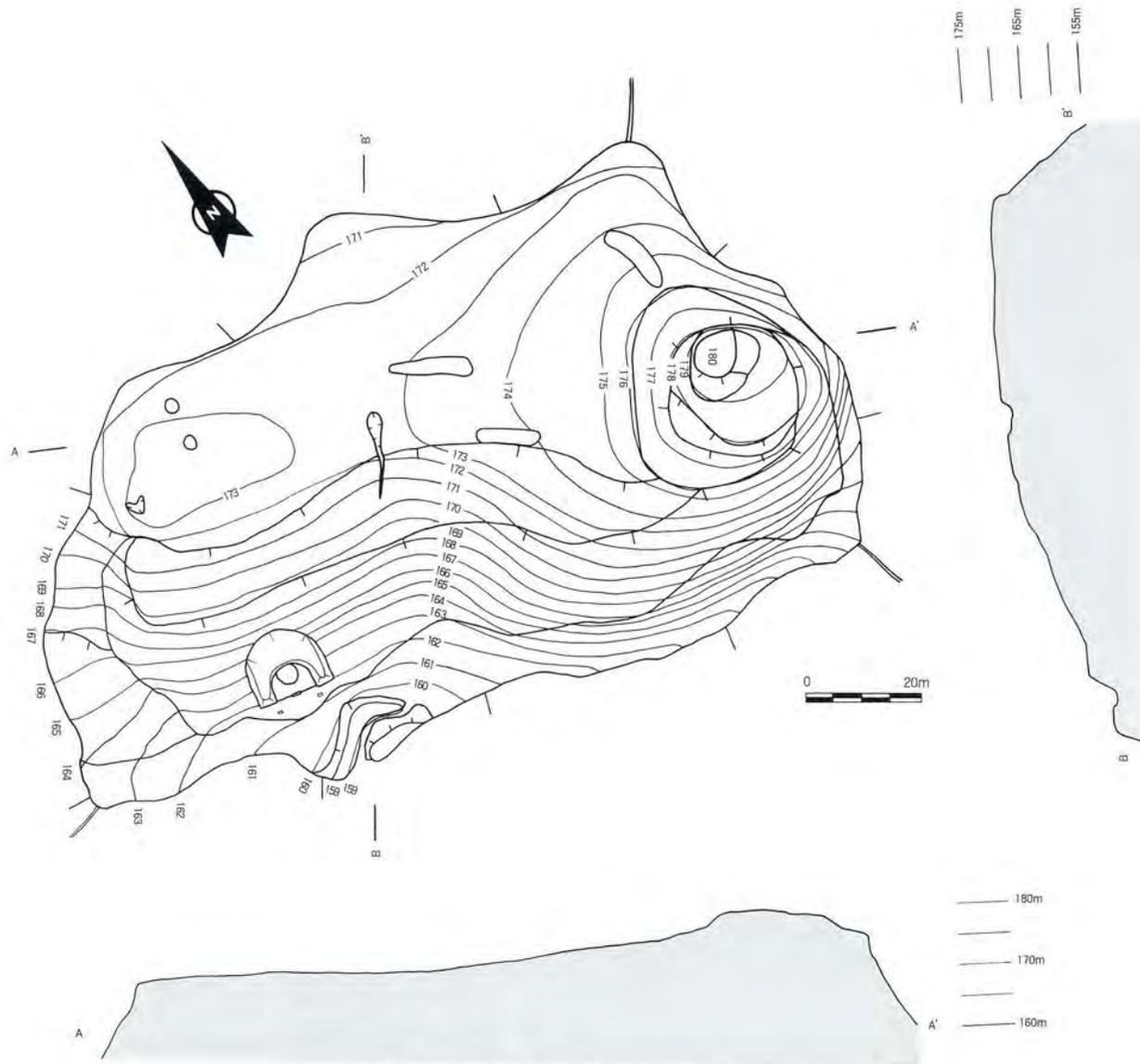
첫째, 무엇보다도 더이상의 인위적인 파괴는 중지되어야 한다. 성 내부에 설치된 군사용의 교통호, 참호, 지휘초소, 출입시설 등으로 성벽과 내부가 심하게 파괴되었고, 각 회절부에는 성벽의 면석을 이용해 새로 석축을 쌓은 까닭에 성벽의 잔존구간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군사시설물에 의한 훼손을 막기 위해 군당국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산성의 역사를 알려주는 문화재안내판이 성내 서측에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주변에서 전해지는 구전의 내용을 적어 놓아 유적현상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역사적 사실에 맞게 정정되어야 하며 새로이 조성된 출입시설의 입구와 잣골마우로 오르는 초입에도 안내판을 설치하여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알려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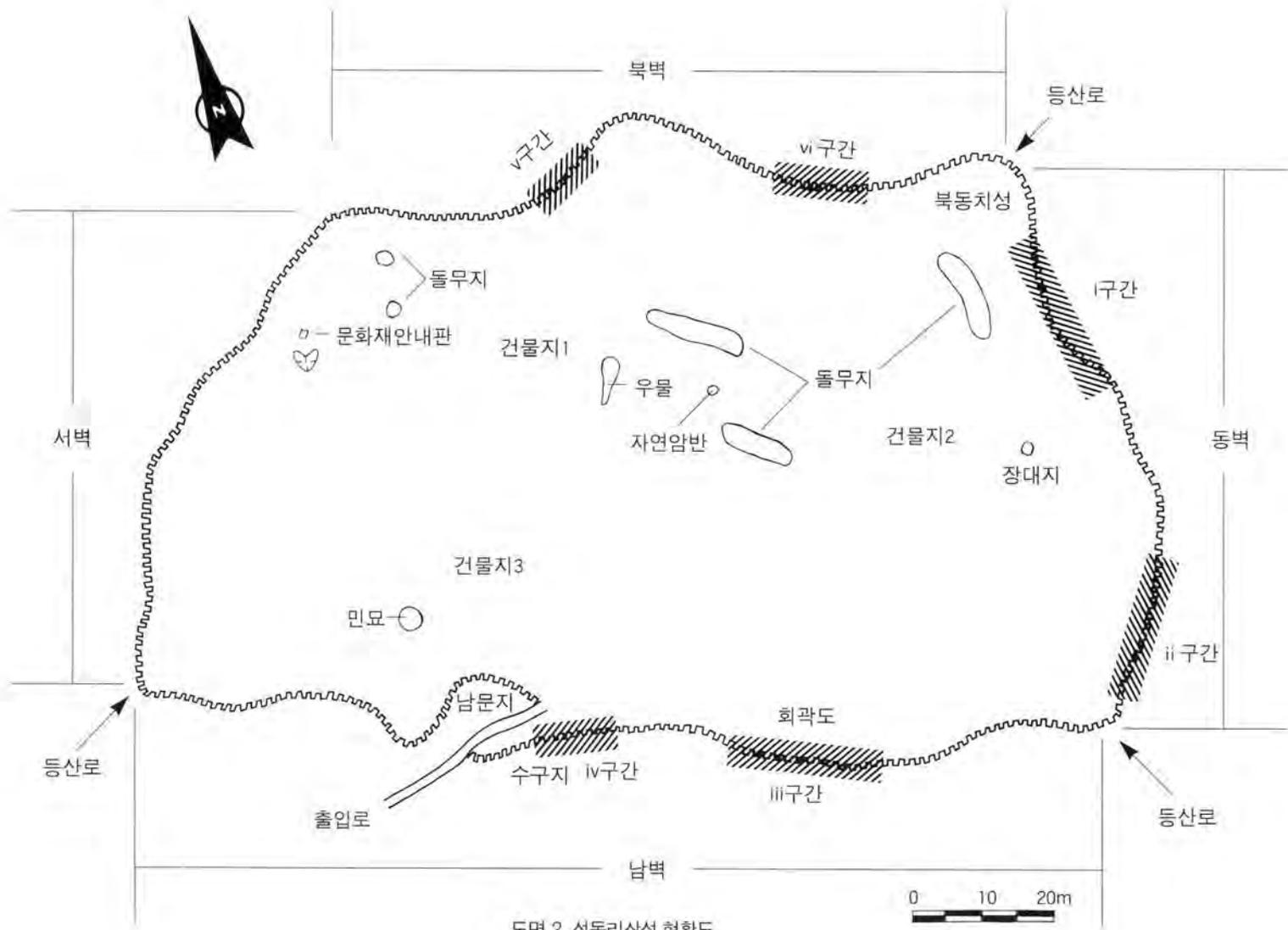
또한 명칭에 있어서도 성동리산성을 태봉산성이라 부르는 것은 궁예와 관련된 泰封國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 설과 翼宗의 胎封에서 기원한다는 설이 있으나 이번 조사결과 현재 胎封의 위치 비정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만큼, 弓裔의 泰封國과 관련한 泰封山城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각종 안내문안의 정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현재 성벽의 붕괴위험이 높은 동벽과 남벽 계곡부에 대해 더 이상의 붕괴가 진행되지 않도록 성벽 주위의 초목을 제거하고 성벽상면으로 통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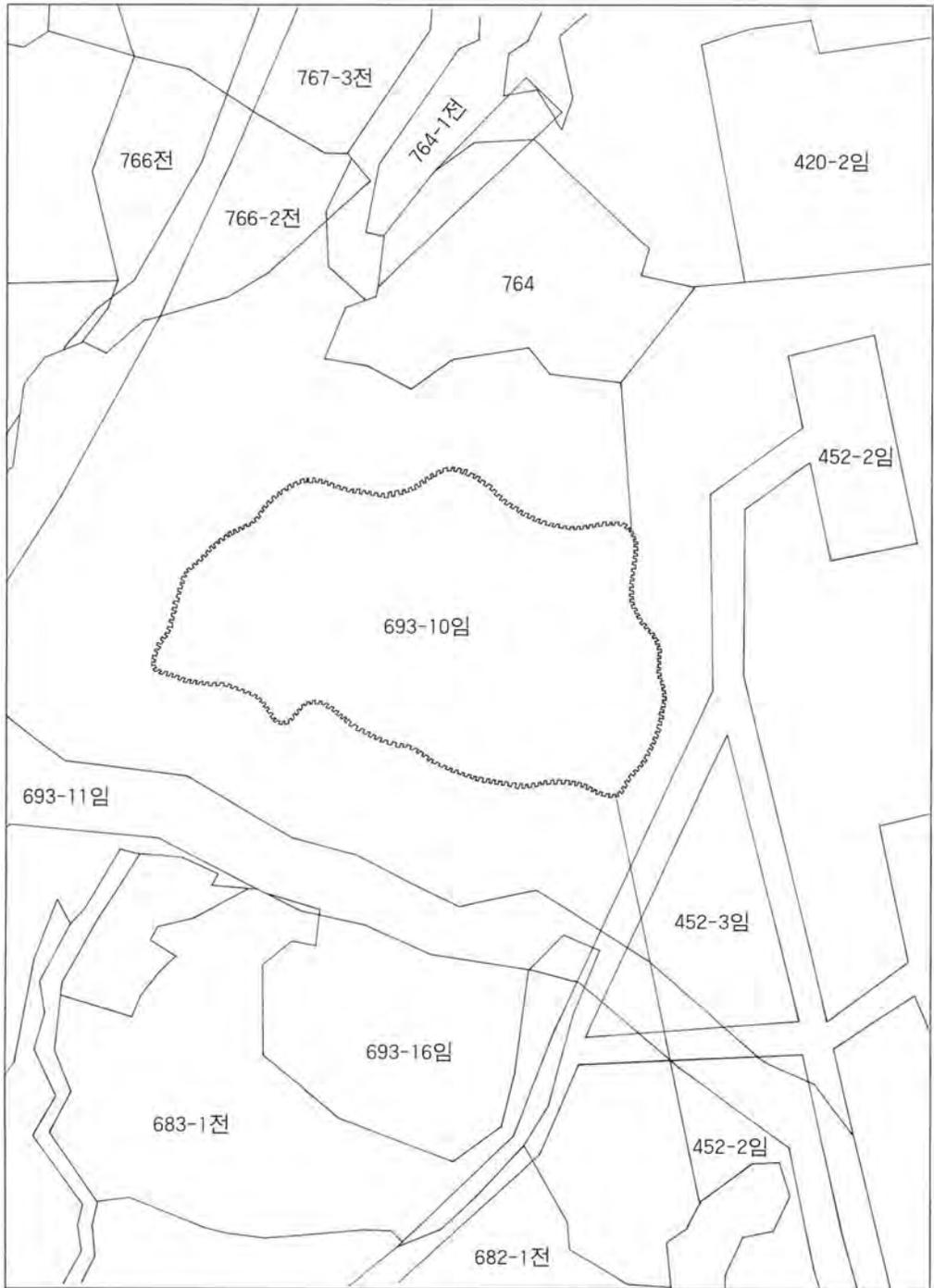
넷째, 이번 조사를 통해 성동리산성이 포천지역에서 갖는 전략적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포천일대의 역사적 성격을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 성동리산성을 비롯한 주변의 유적에 관한 정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성동리산성이 주변환경에 따라 인위적인 훼손행위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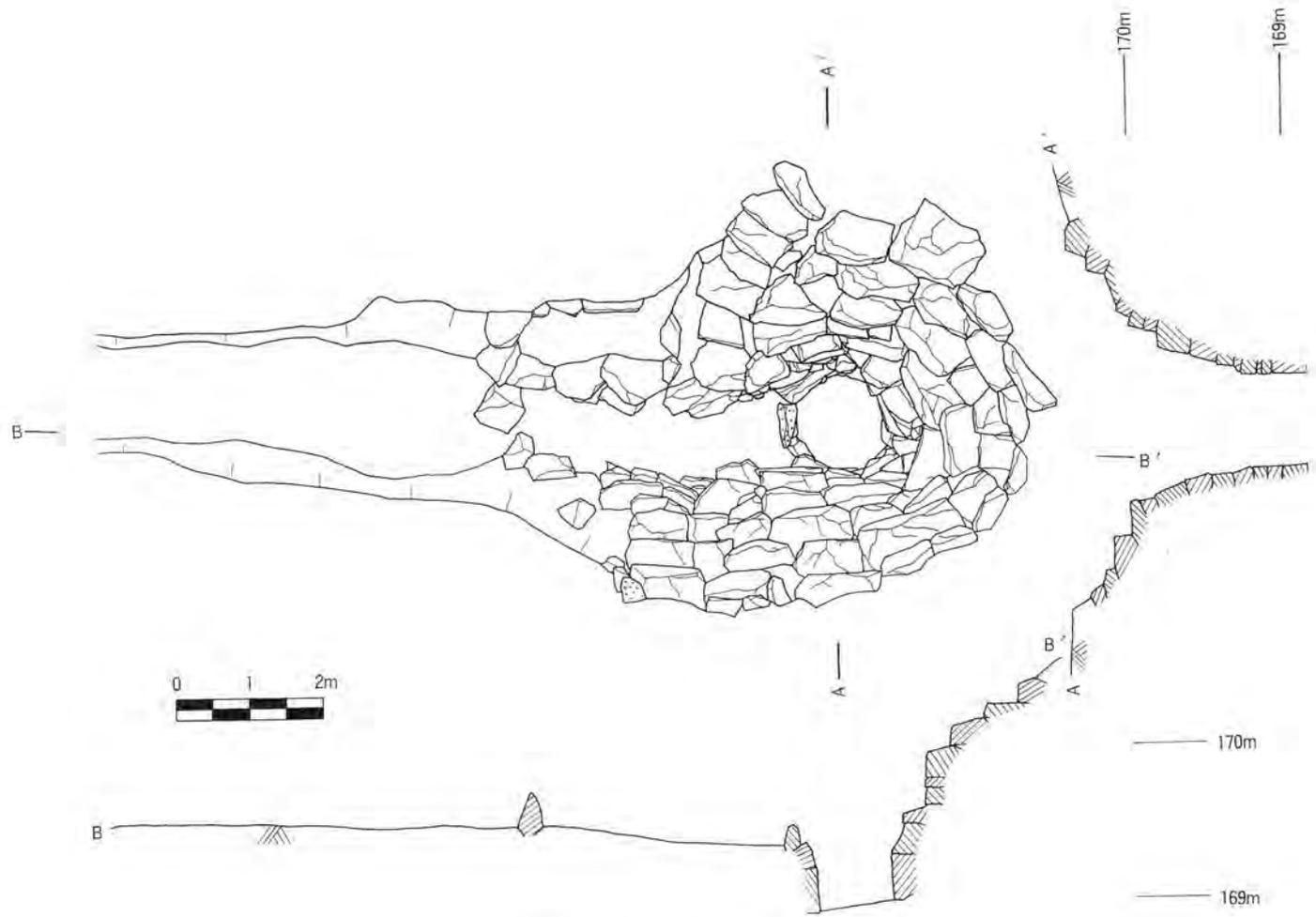
도면 1. 성동리산성 평면 및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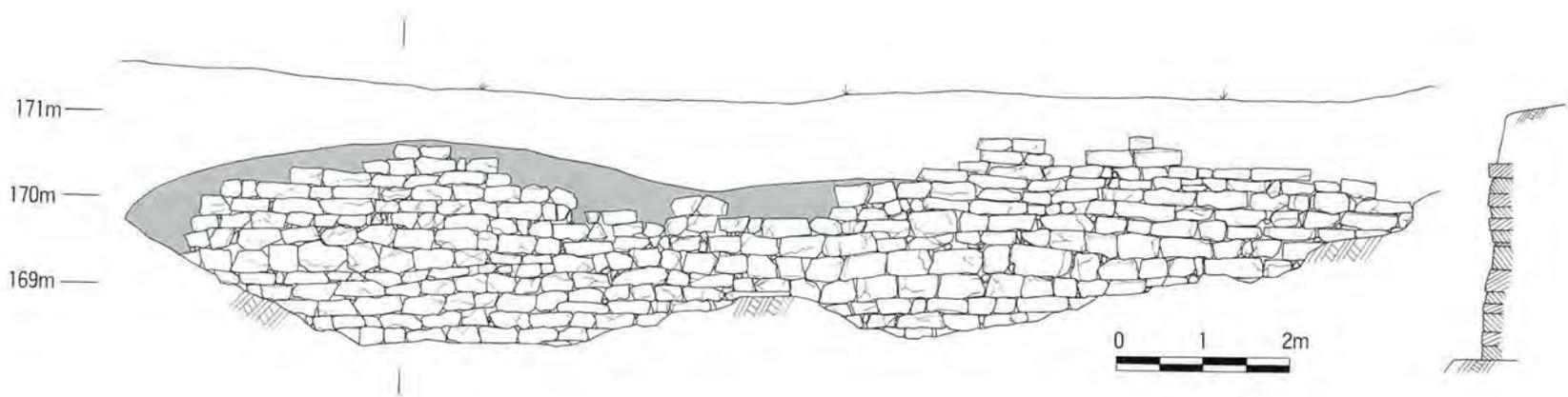
도면 2. 성동리산성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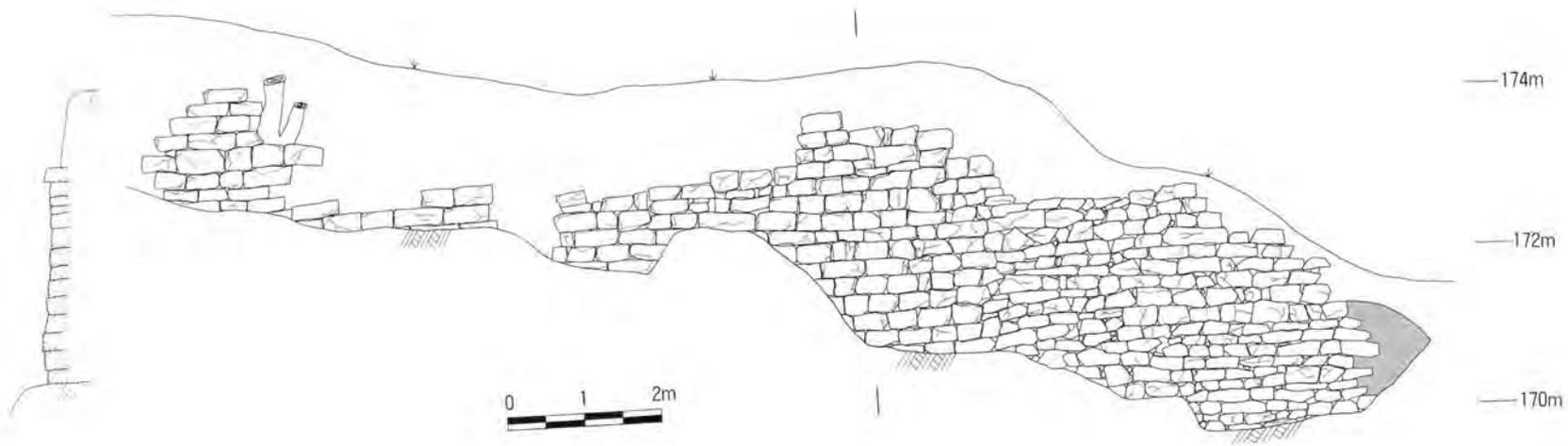
도면 3. 성동리산성 지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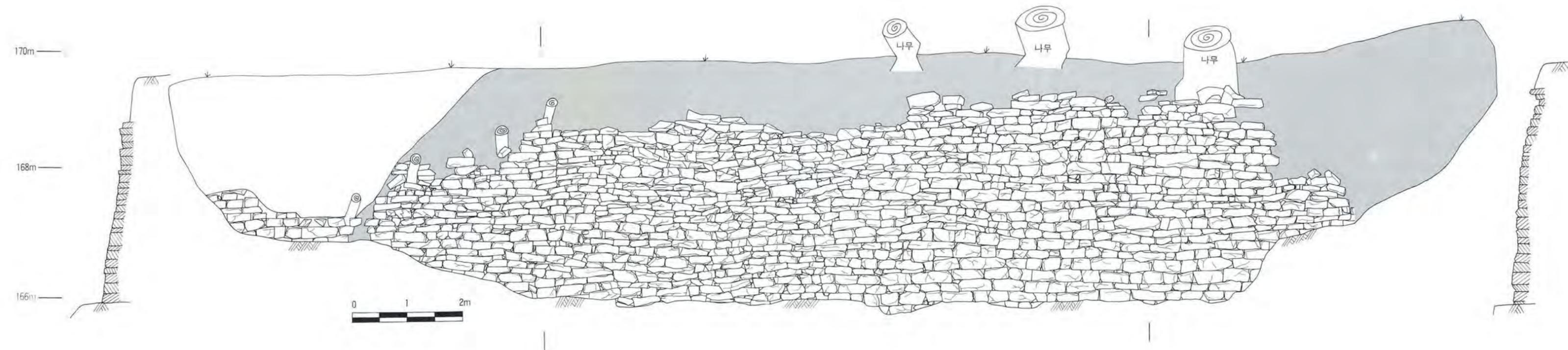
도면 4. 우물지 평면 및 단면도



도면 5. 동벽 입면 및 단면도 - i-i구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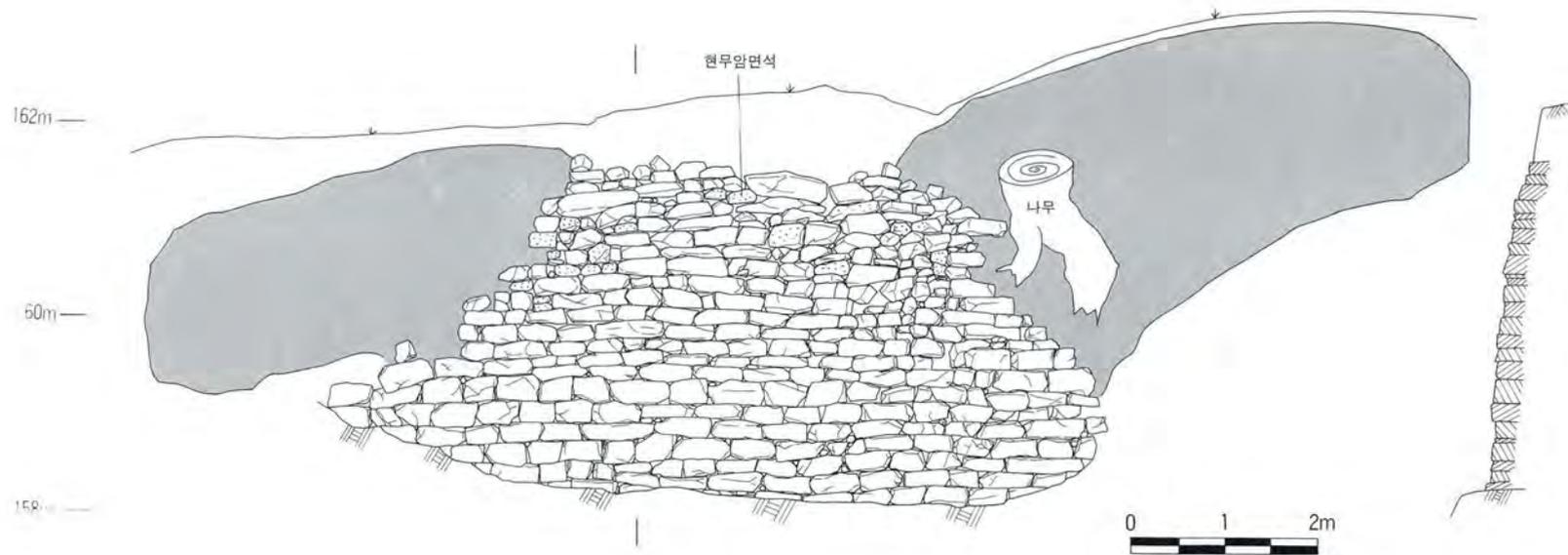


도면 6. 동벽 입면 및 단면도 - 1-2구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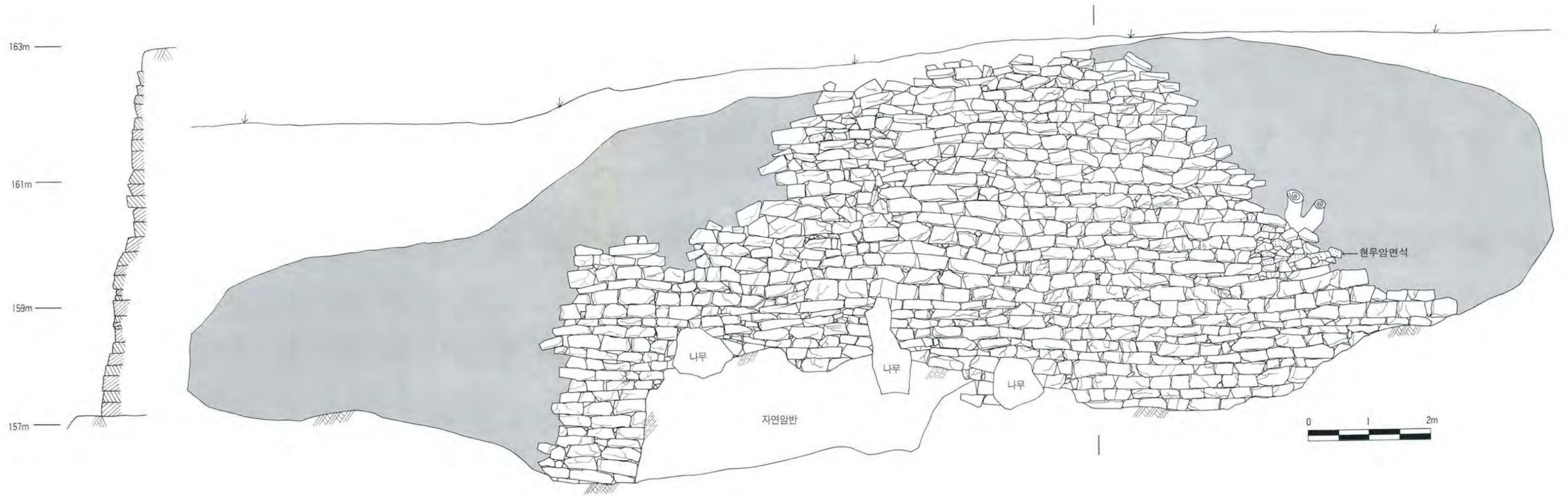
도면 7. 동벽 입면 및 단면도 -ii 구간-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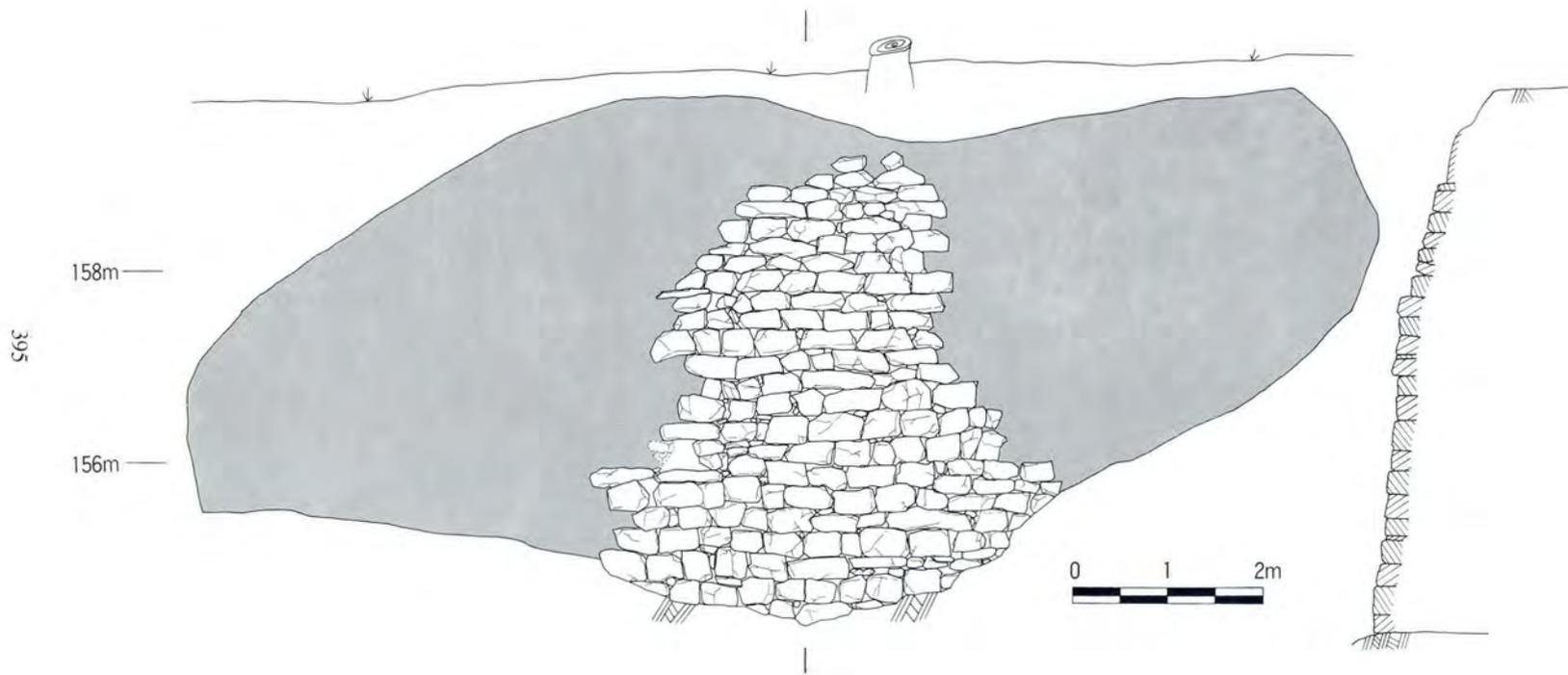
도면 8. 남벽 입면 및 단면도 -iii-1구간-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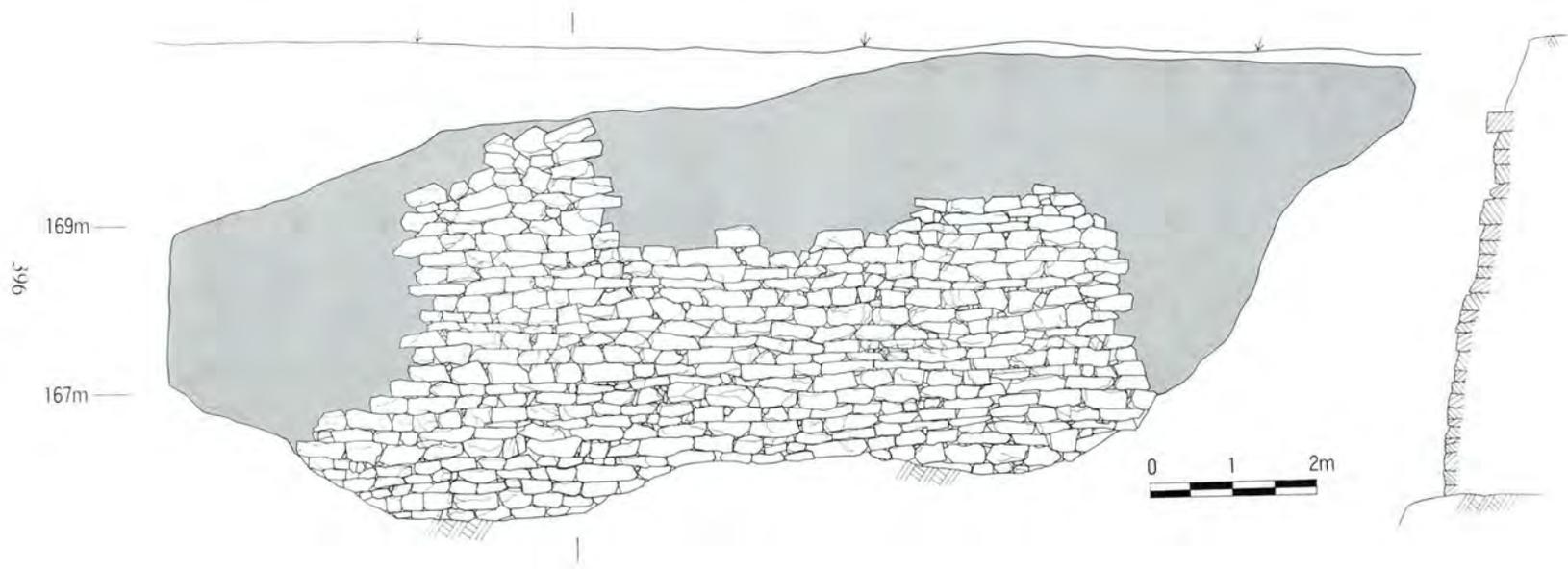


도면 9. 남벽 입면 및 단면도 -iii-2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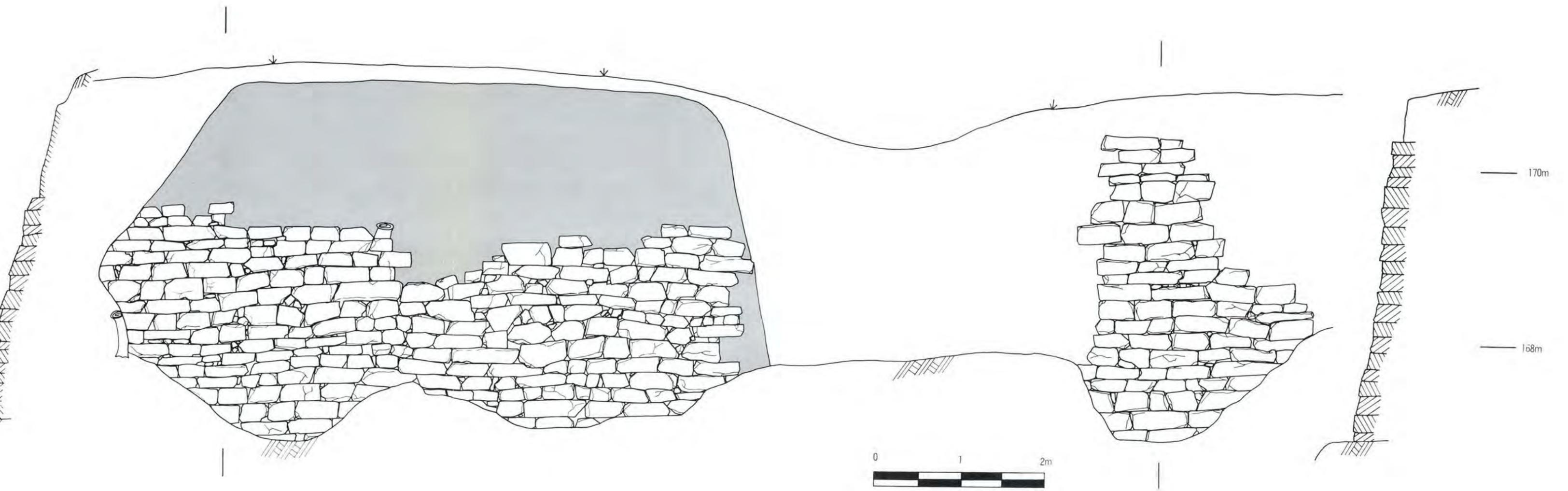
여 백



도면 10. 남벽 입면 및 단면도 -iv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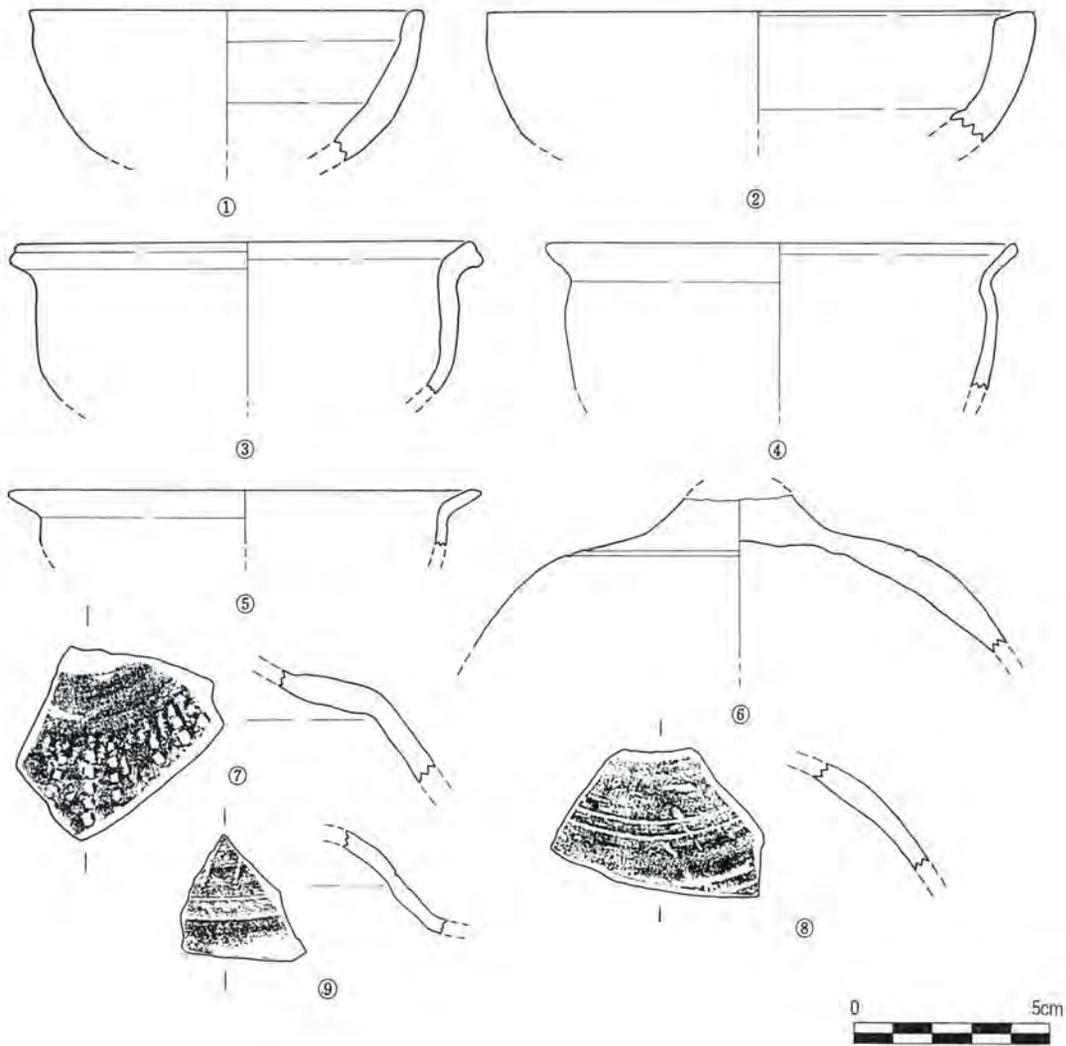


도면 11. 북벽 입면 및 단면도 - (구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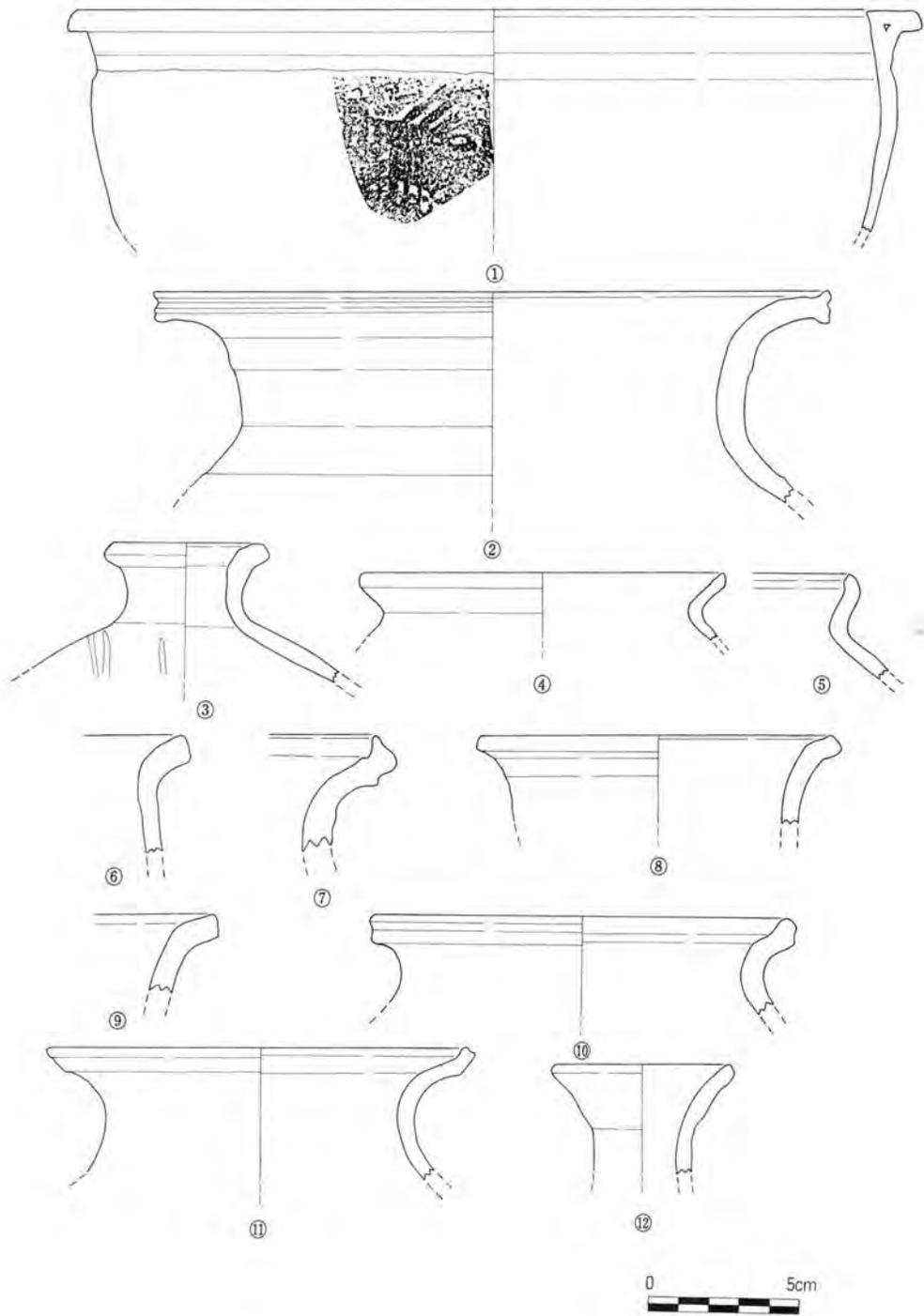


도면 12. 북벽 입면 및 단면도 -vi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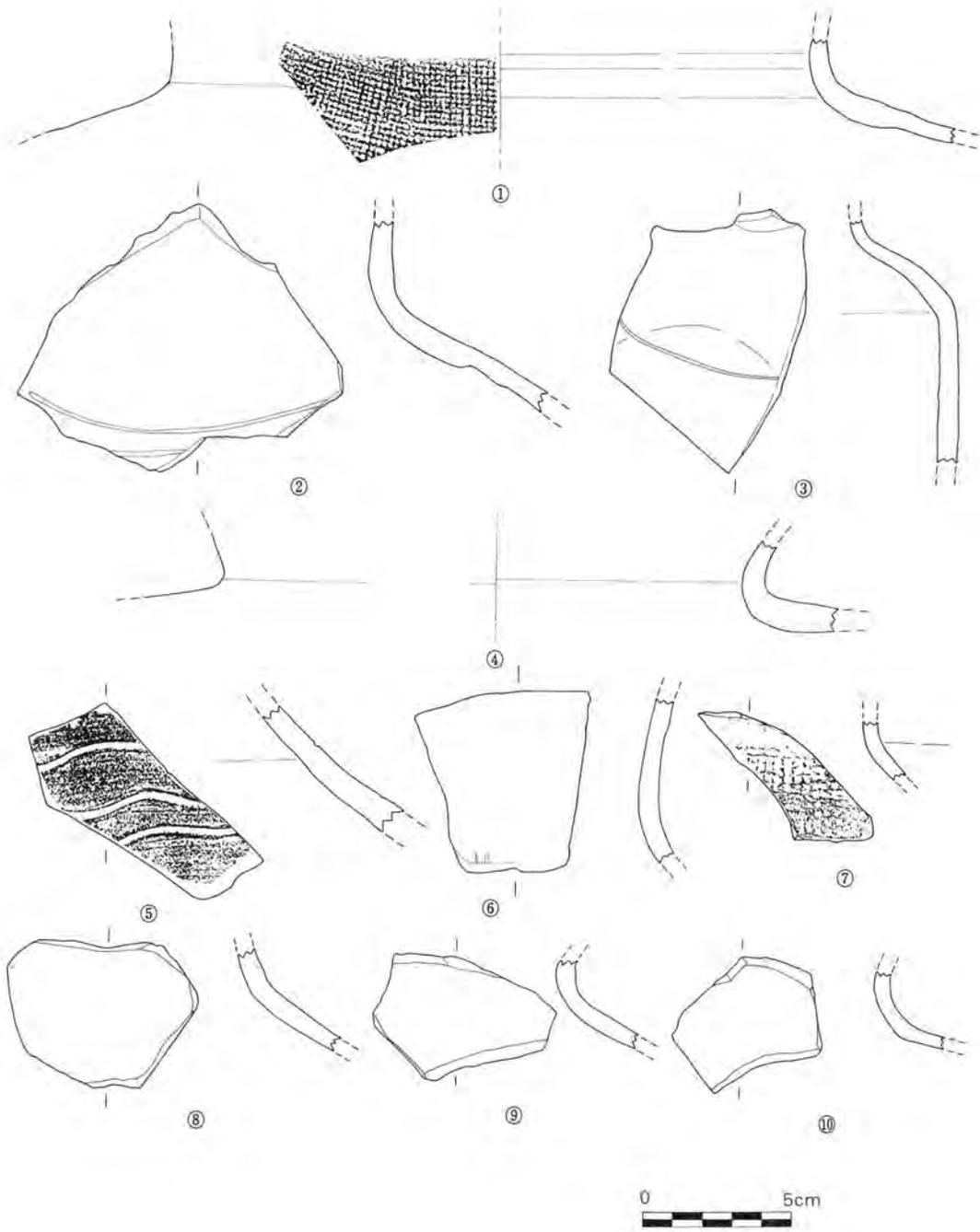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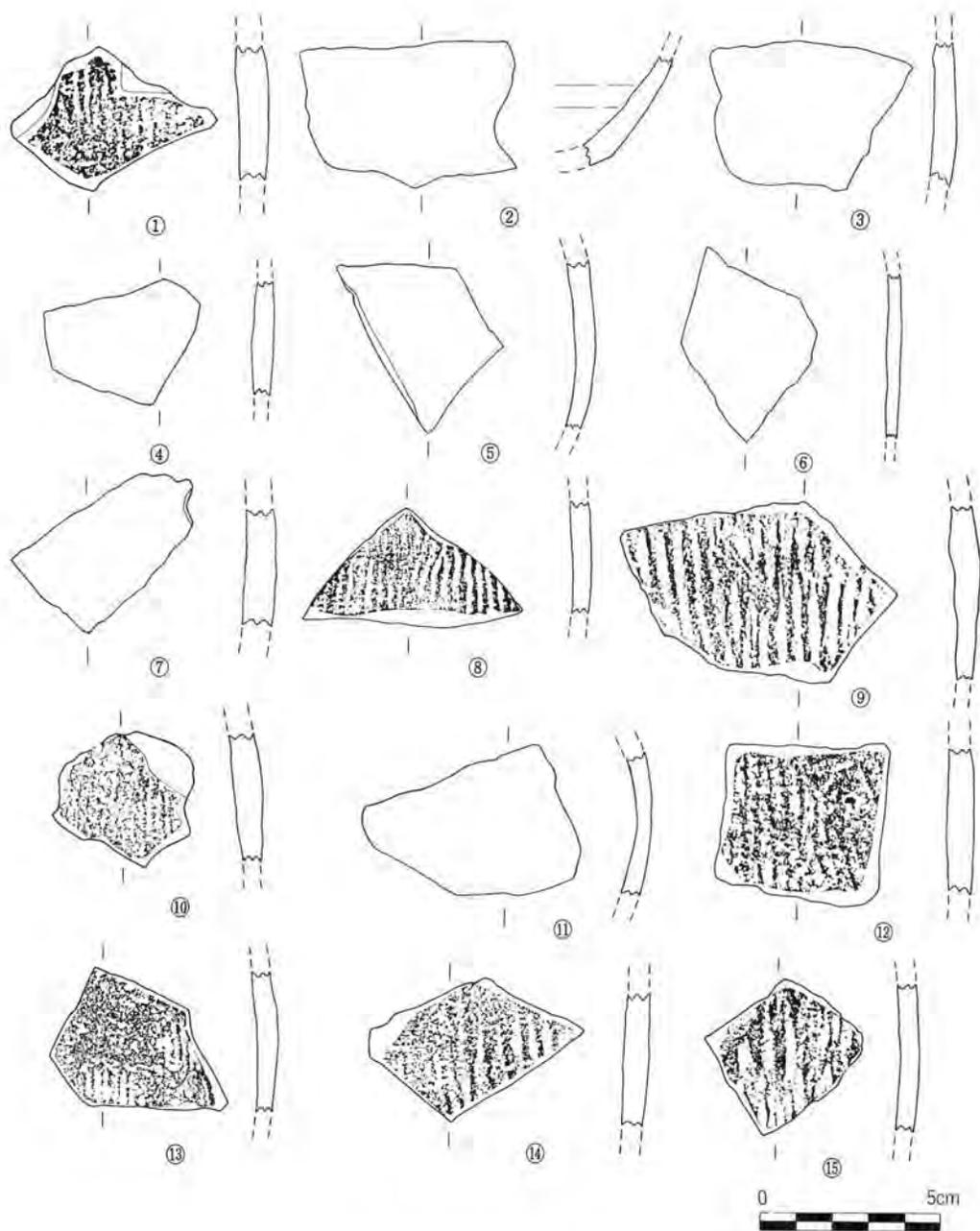
도면 13. 지표채집 토기류 1 (①~⑨·완 구연부편, 뚜껑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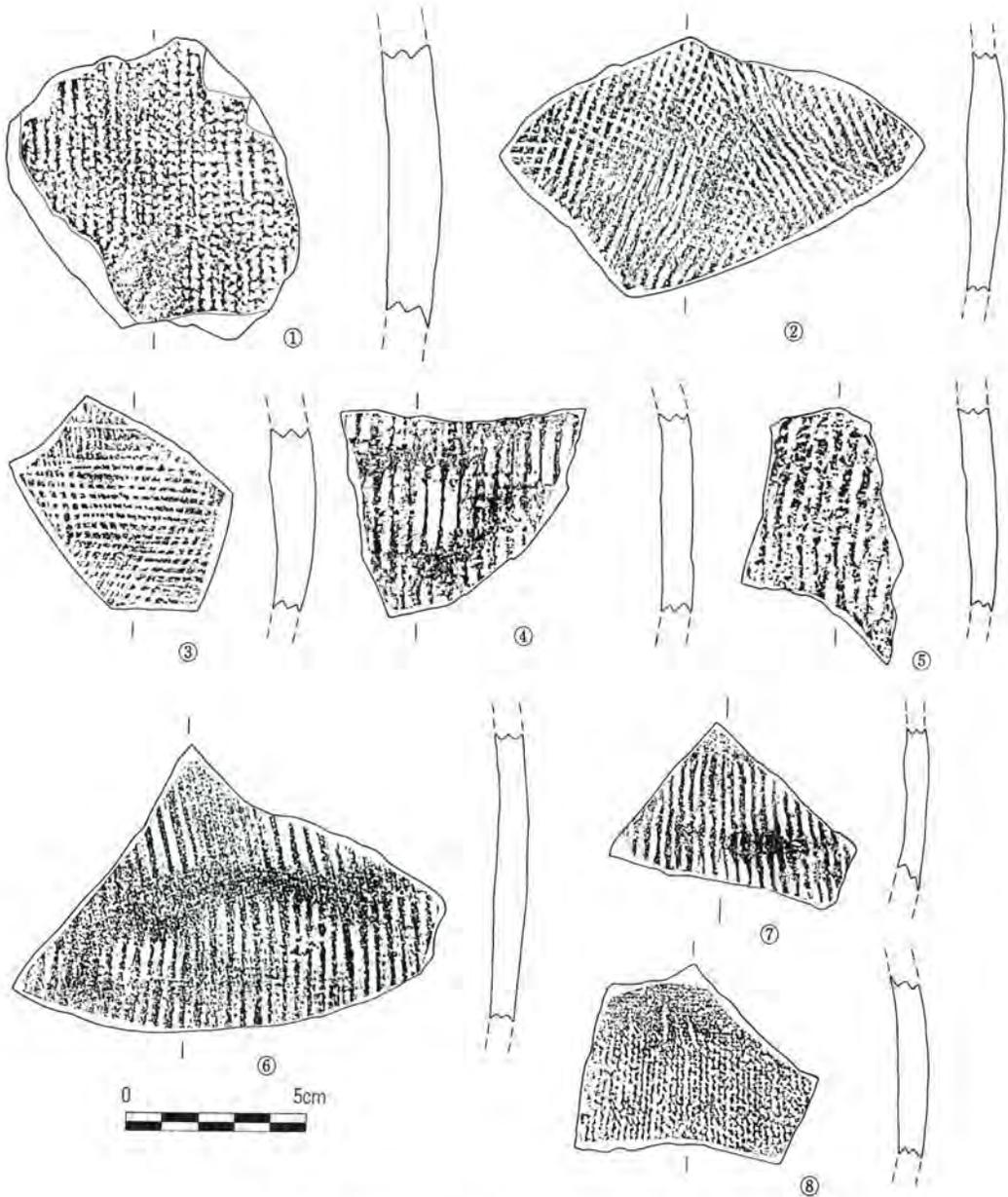
도면 14. 지표채집 토기류 2 (①~⑫·구연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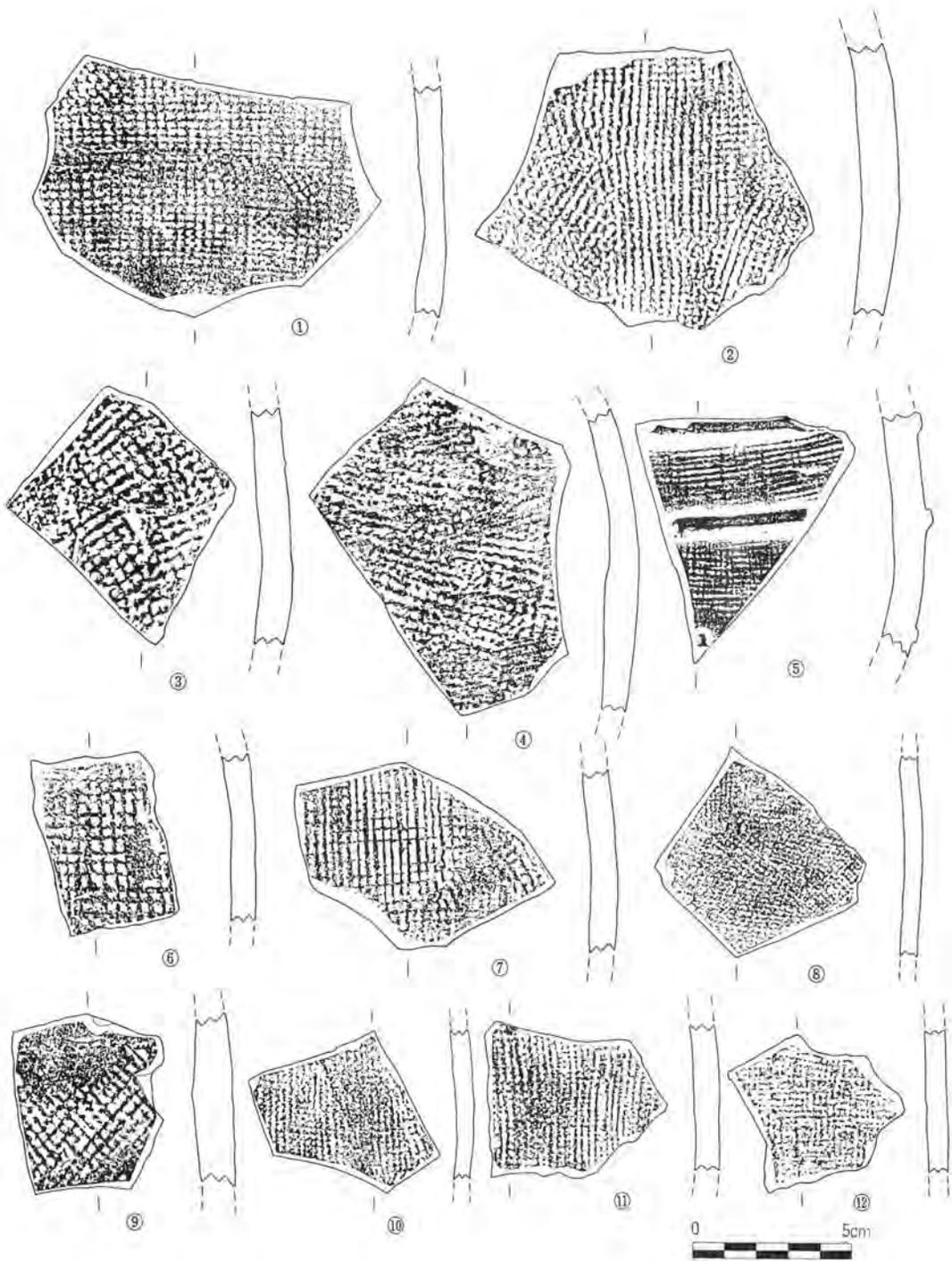
도면 15. 지표채집 토기류 3 (①-⑩·경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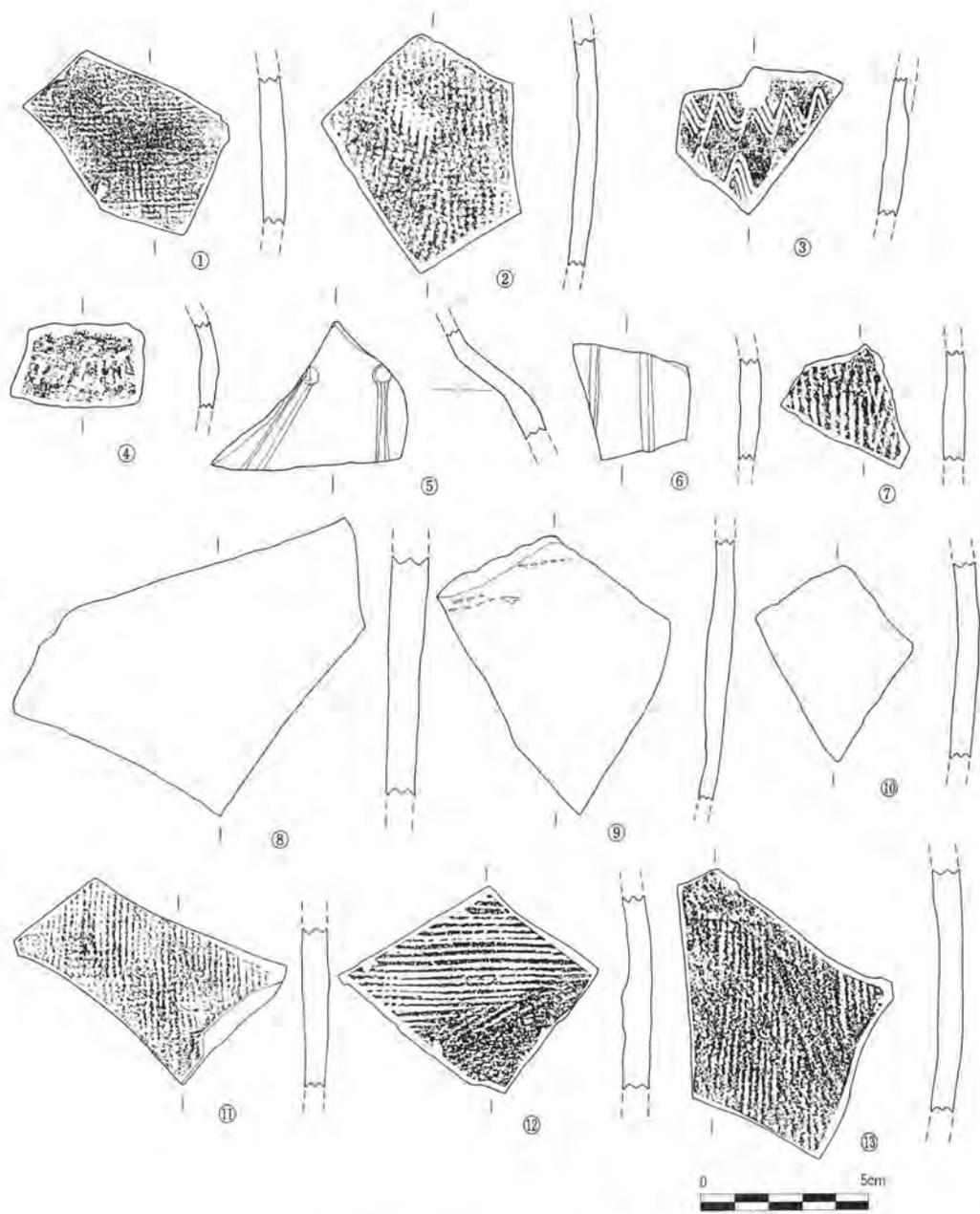
도면 16. 지표채집 토기류 4 (①~⑮ · 동체부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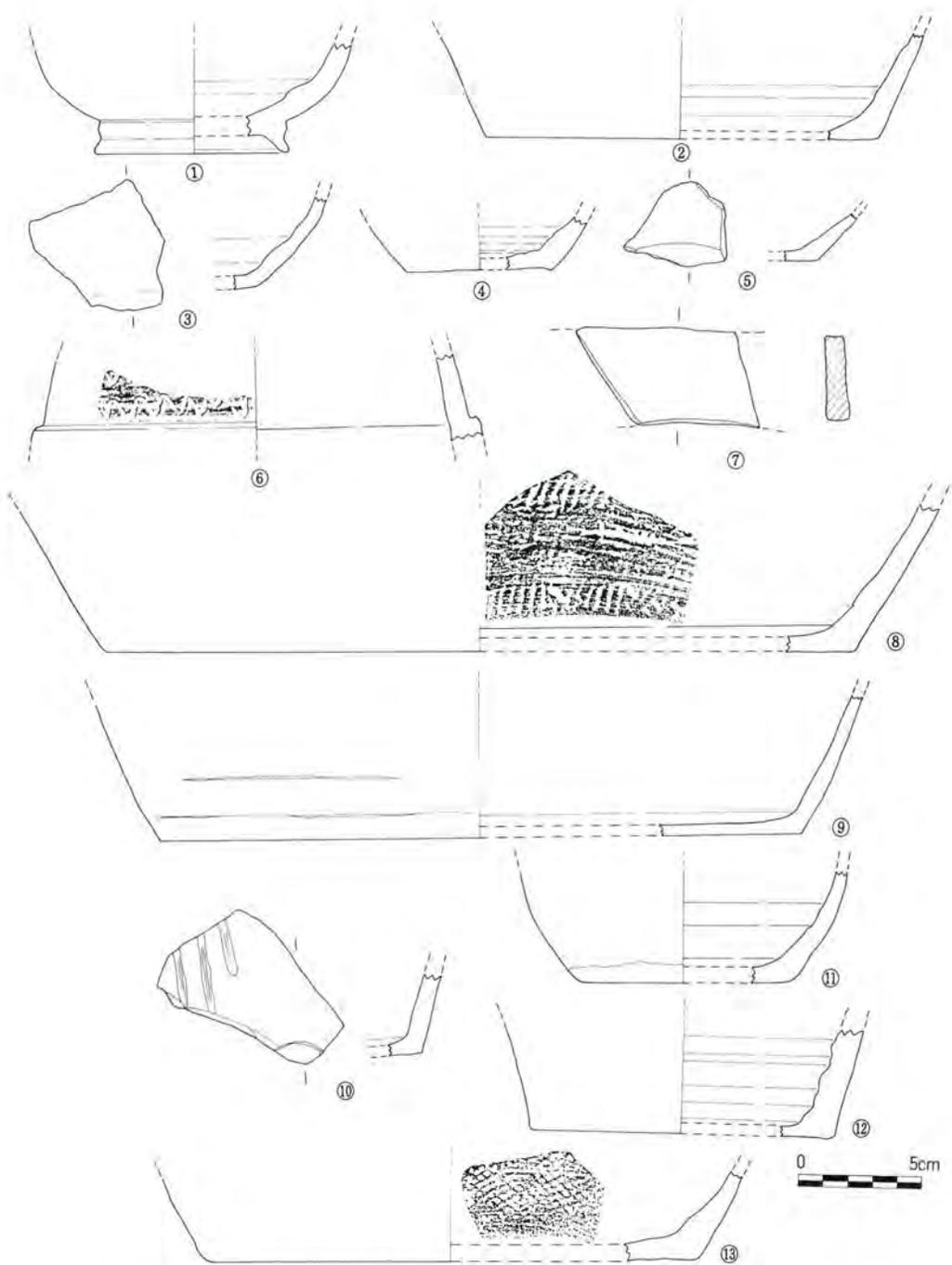
도면 17. 지표채집 토기류 5 (①~⑧·동체부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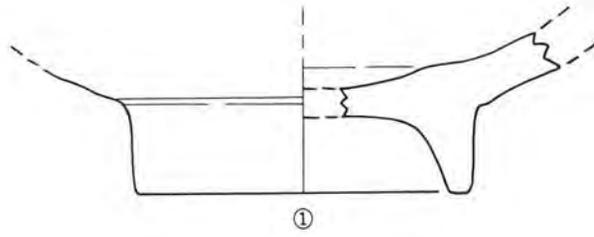
도면 18. 지표채집 토기류 6 / 1~12 · 동체부편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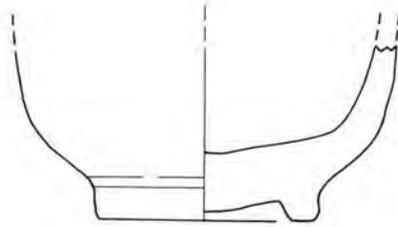
도면 19. 지표채집 토기류 7 (동체부편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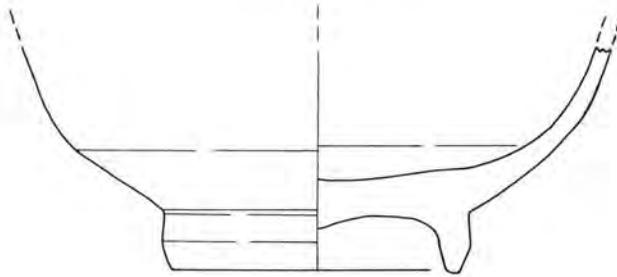
도면 20. 지표채집 토기류 8 (①~⑤·저부편, ⑥ 기대편, ⑦ 대상파수부편, ⑧~⑬ 저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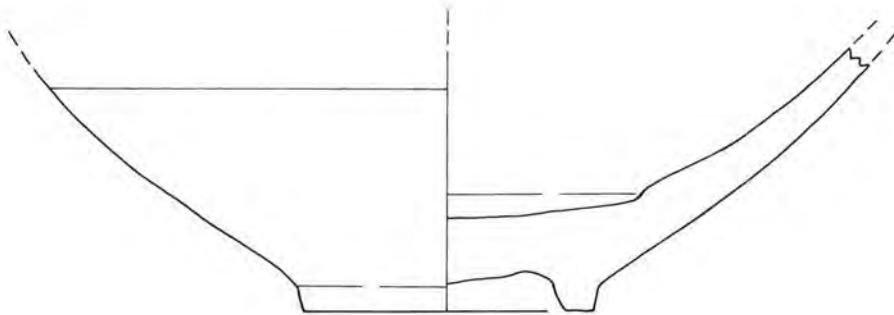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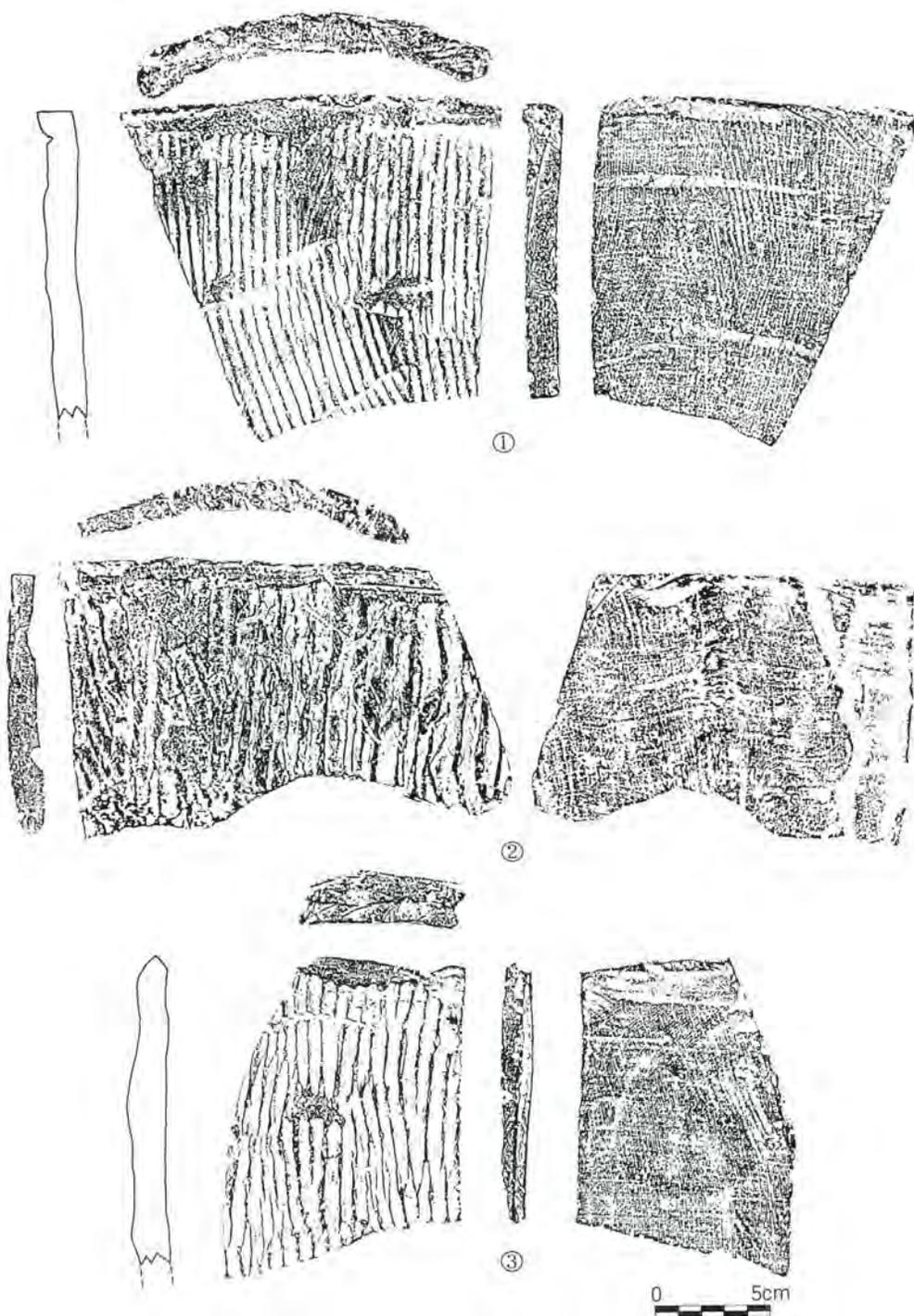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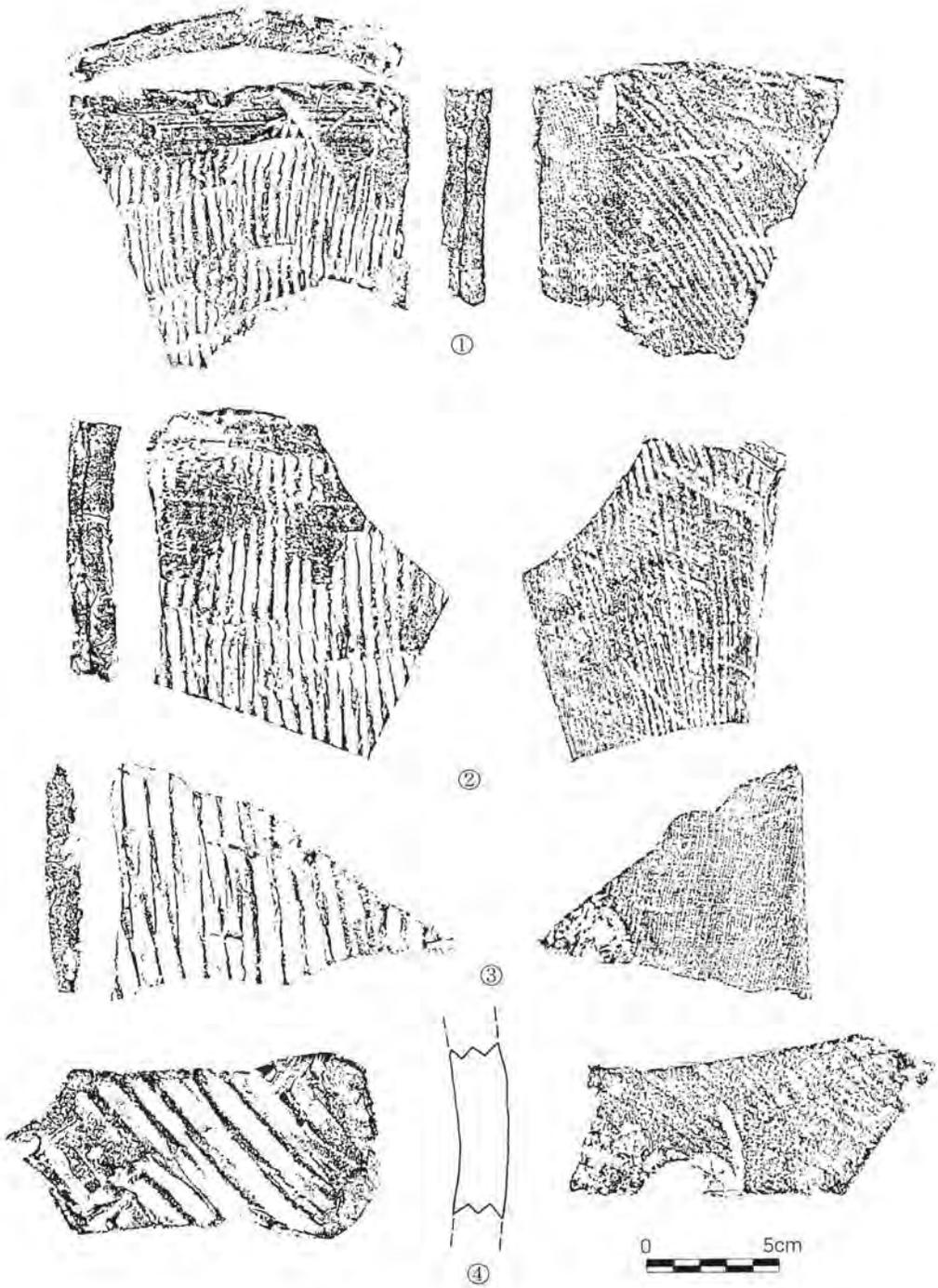


도면 21. 지표채집 자기류 (①~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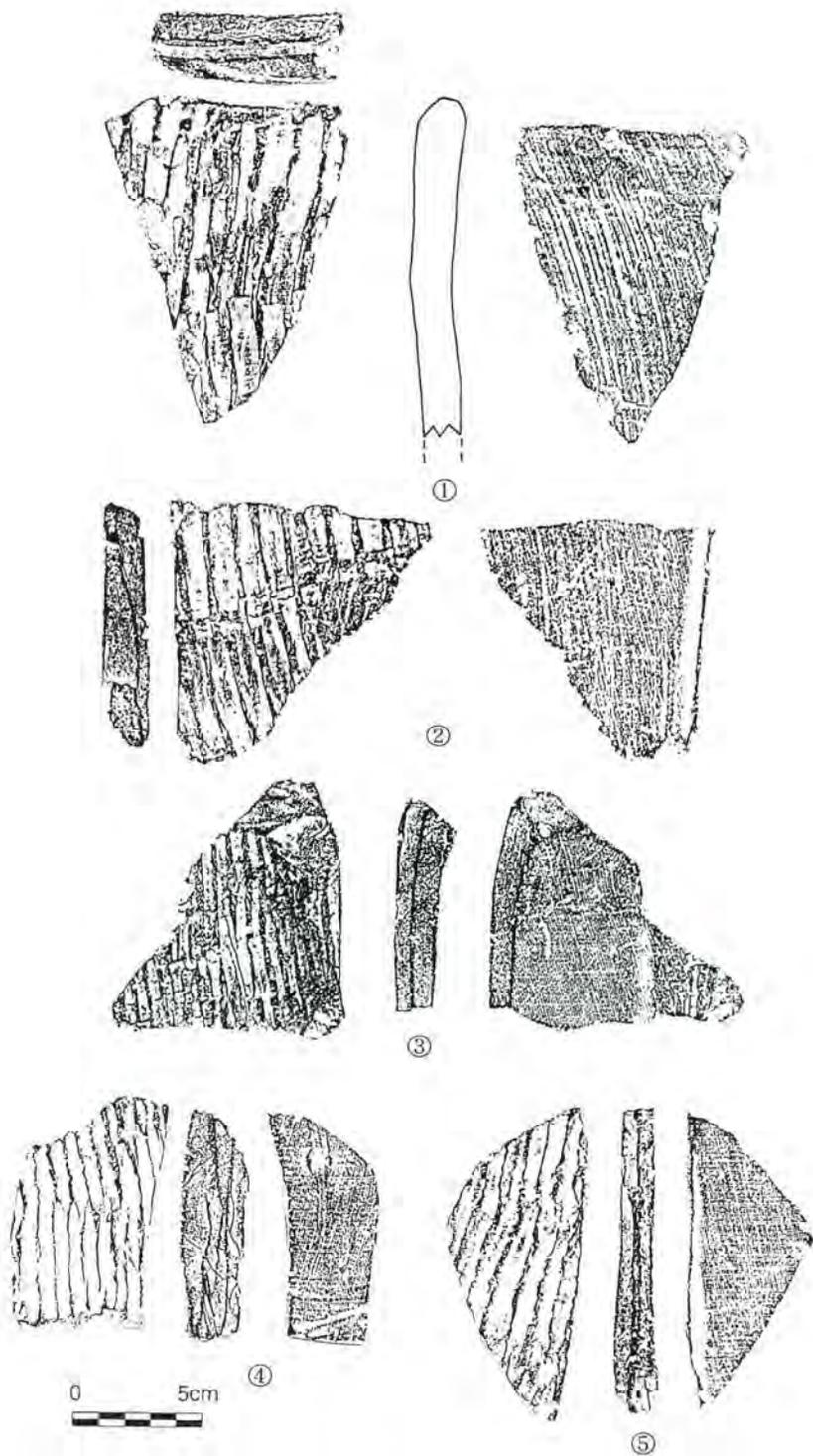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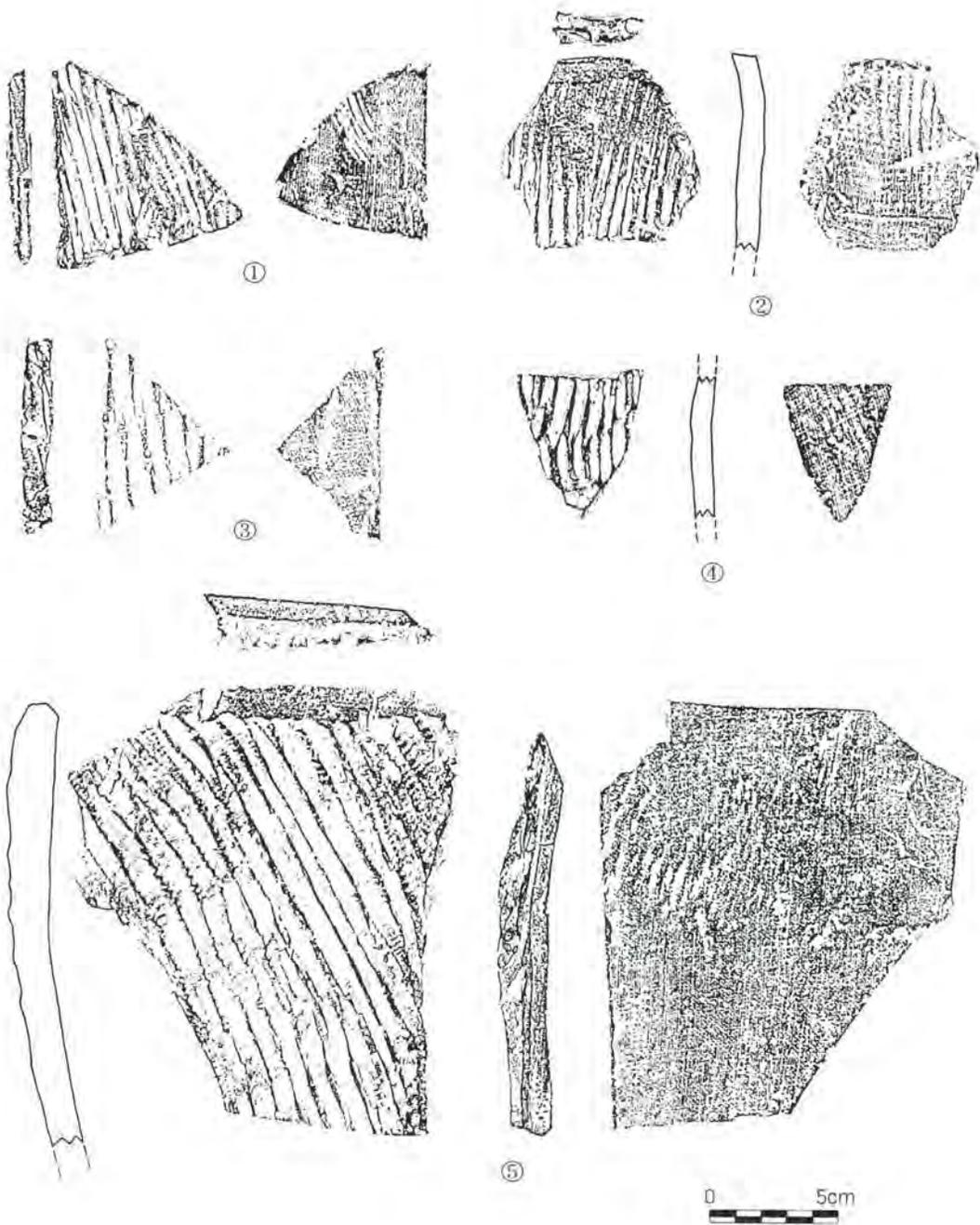
탑본 1. 지표채집 기와류 1 (①-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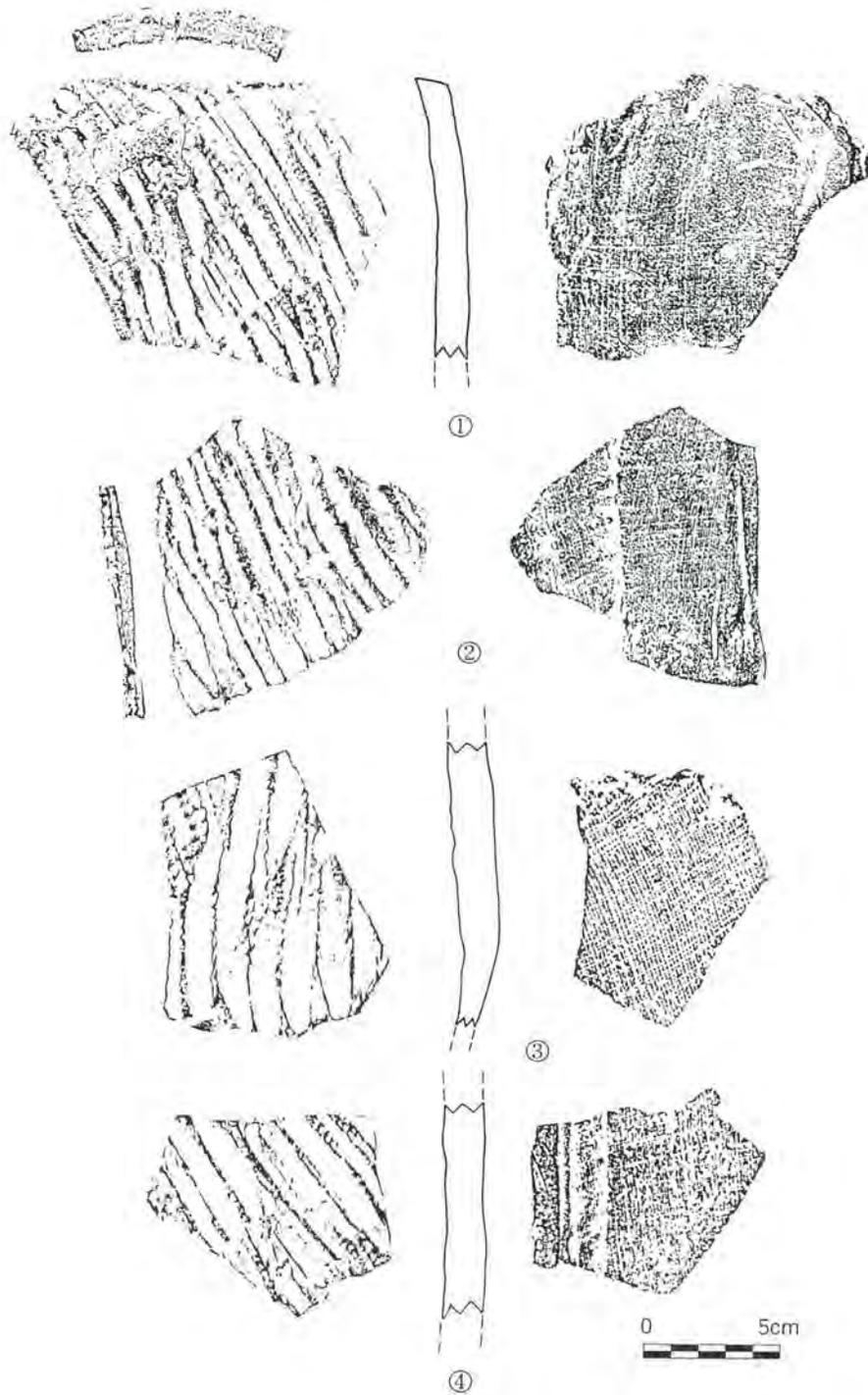
탈본 2. 지표체집 기와류 2 (①~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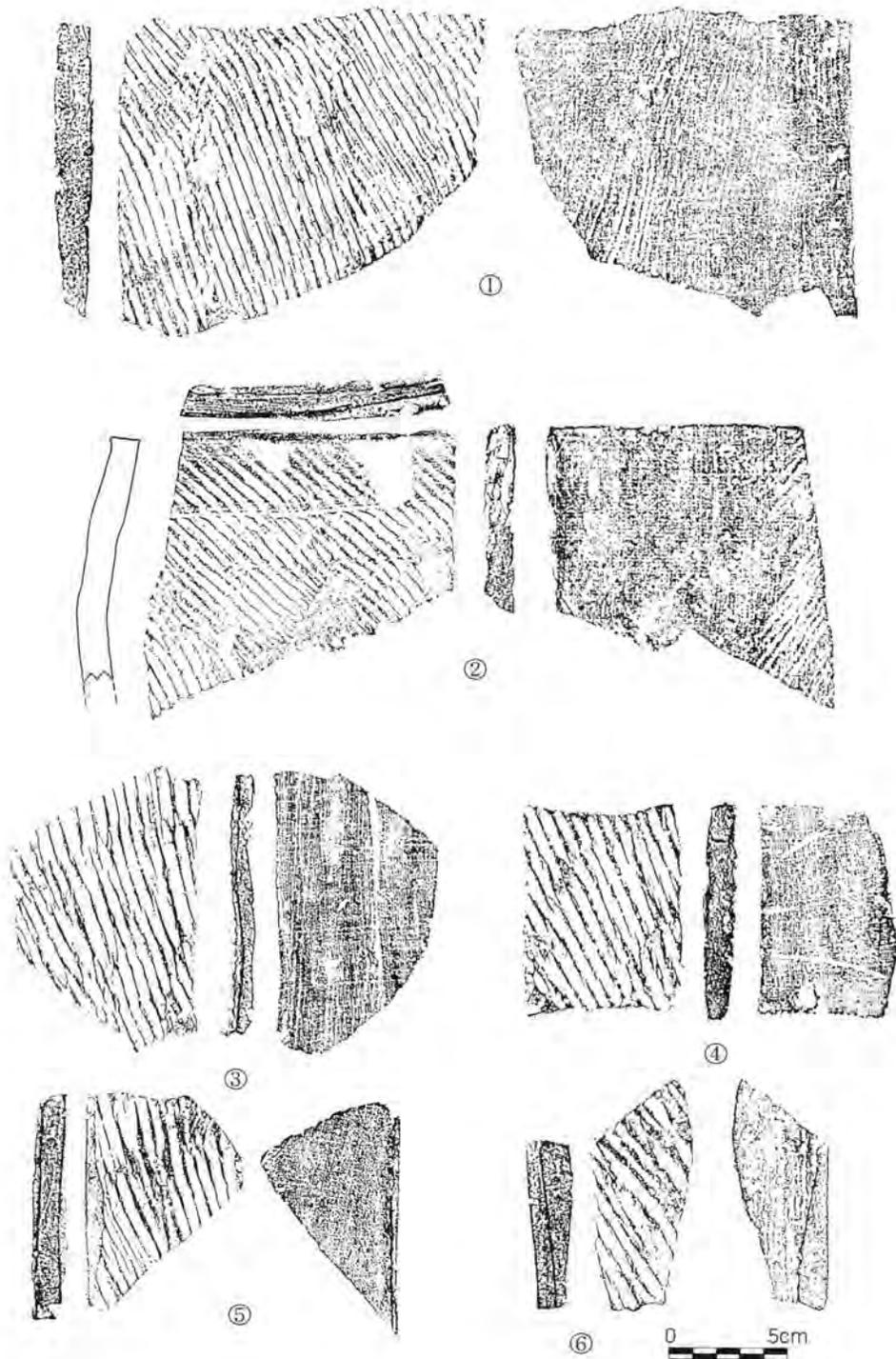
탑본 3. 지표채집 기와류 3 (①~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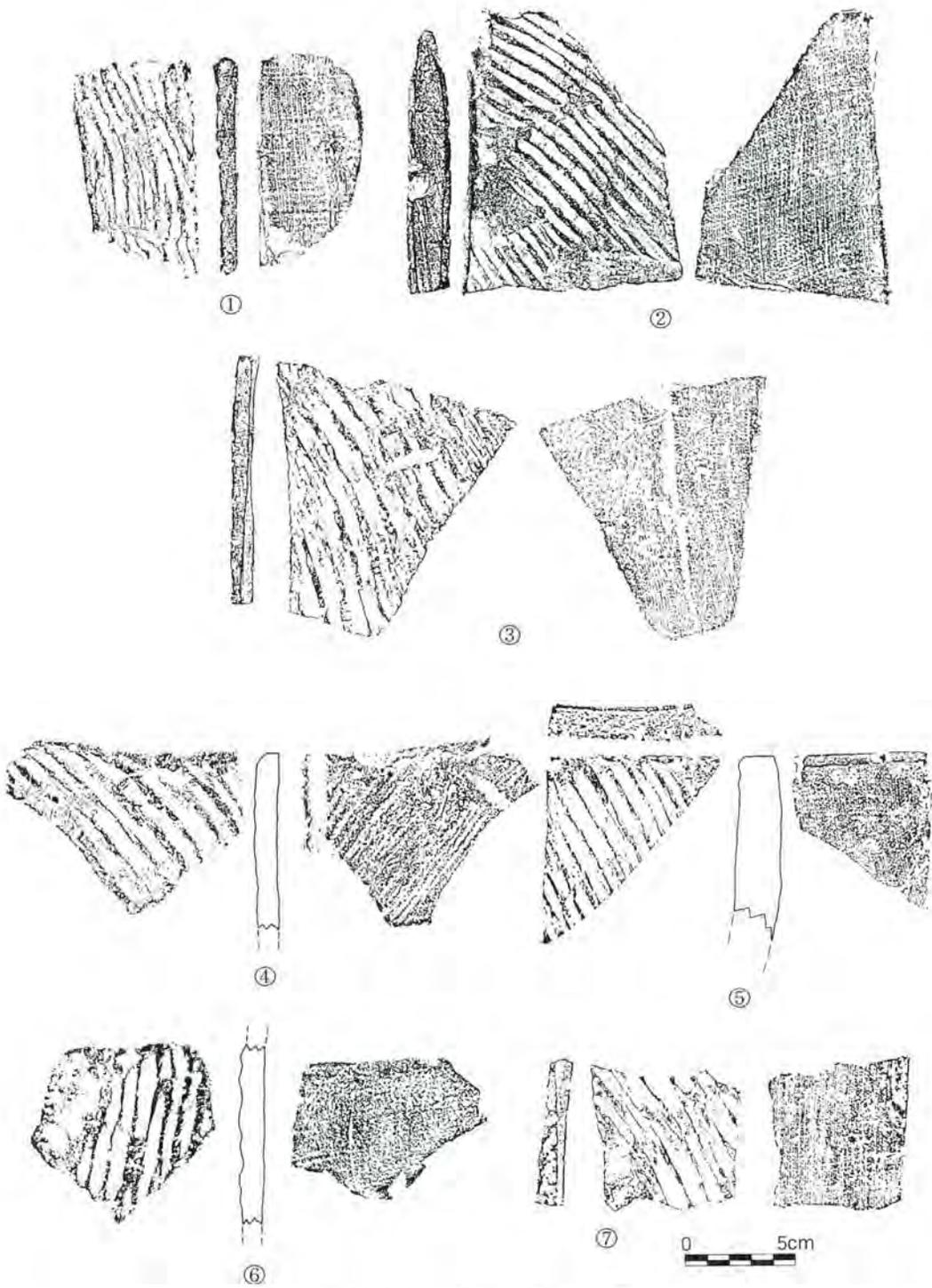
탑본 4. 지표채집 기와류 4 (①~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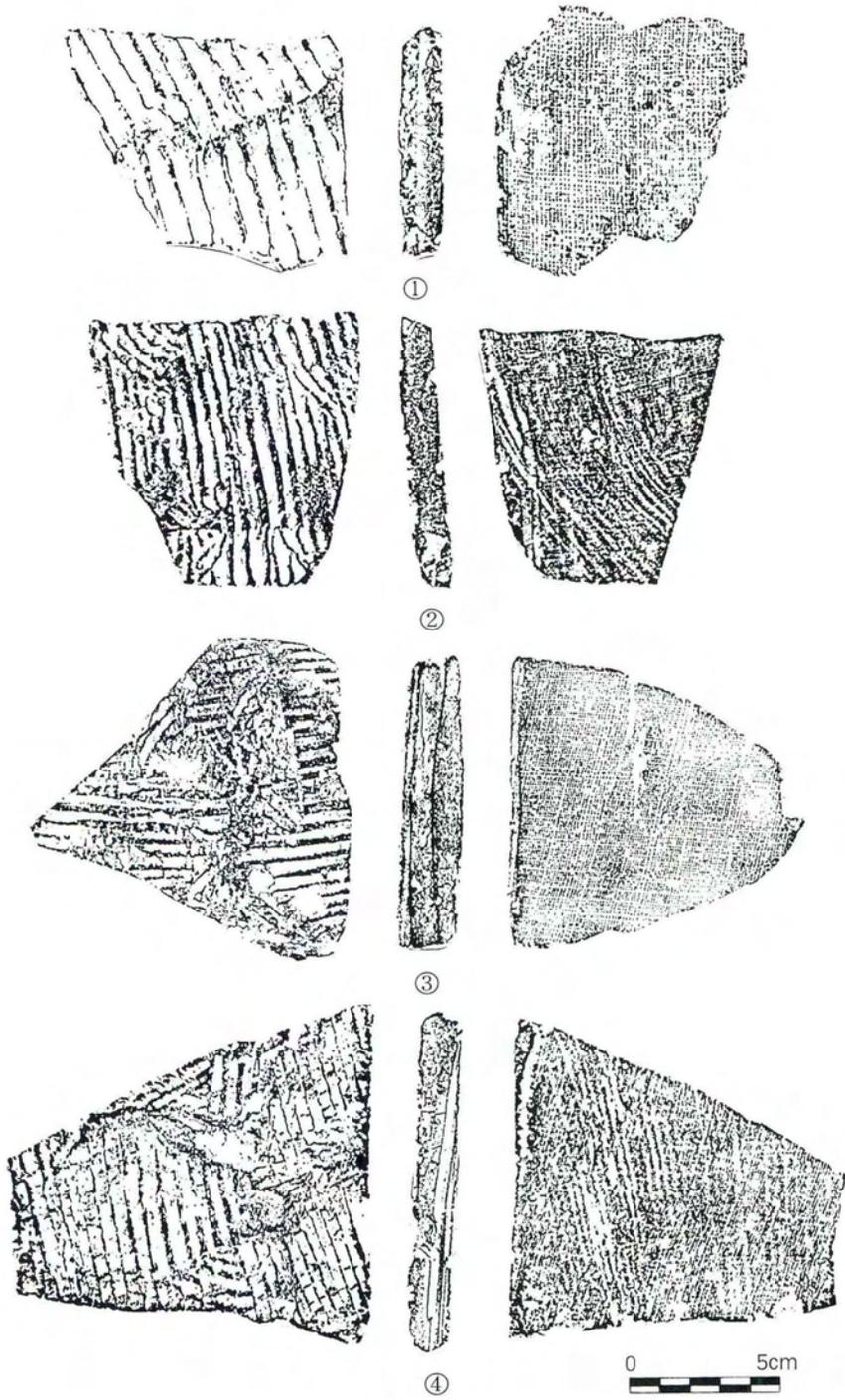
탑본 5. 지표채집 기와류 5 (①~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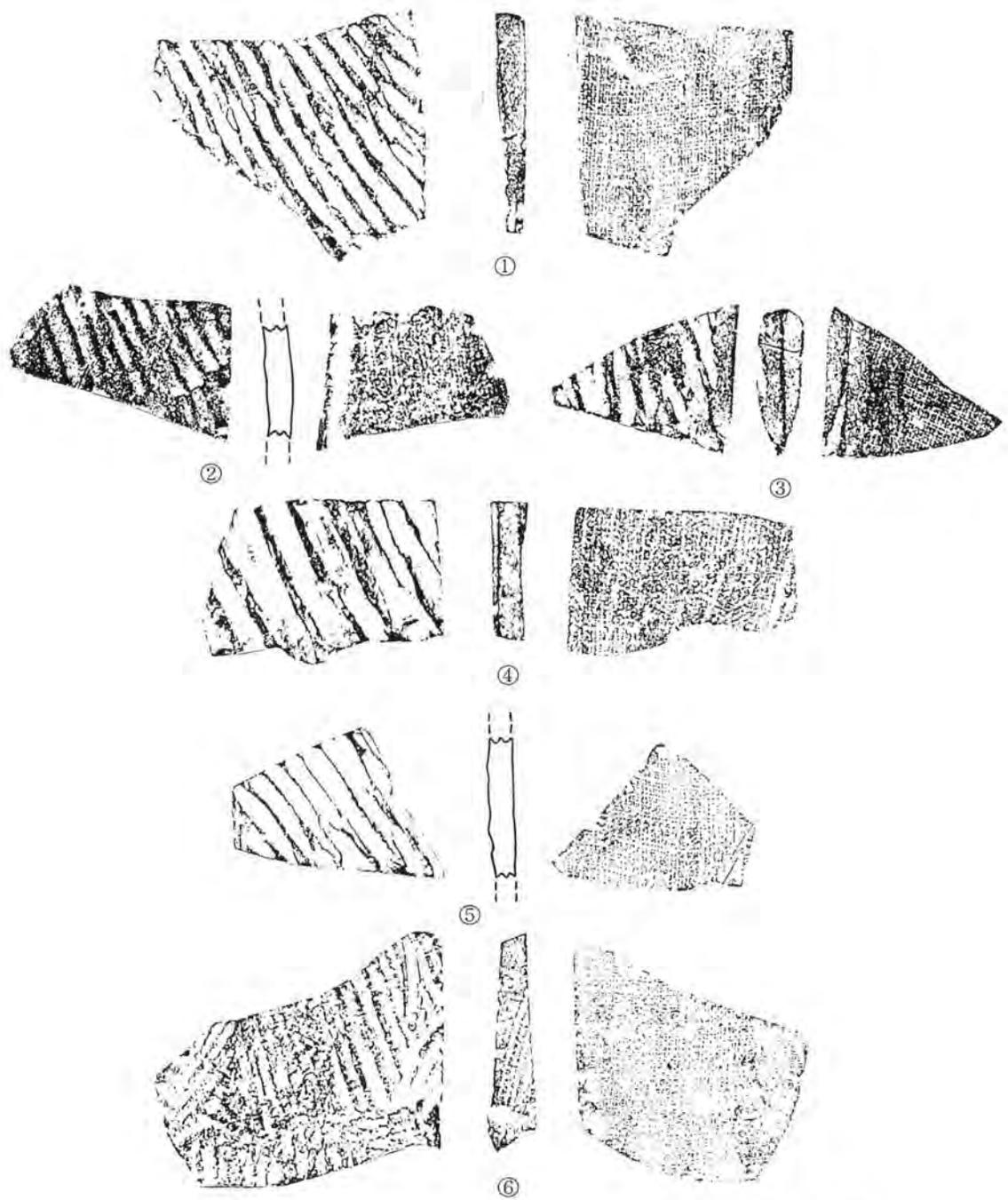
답본 6. 지표채집 기와류 6 (①~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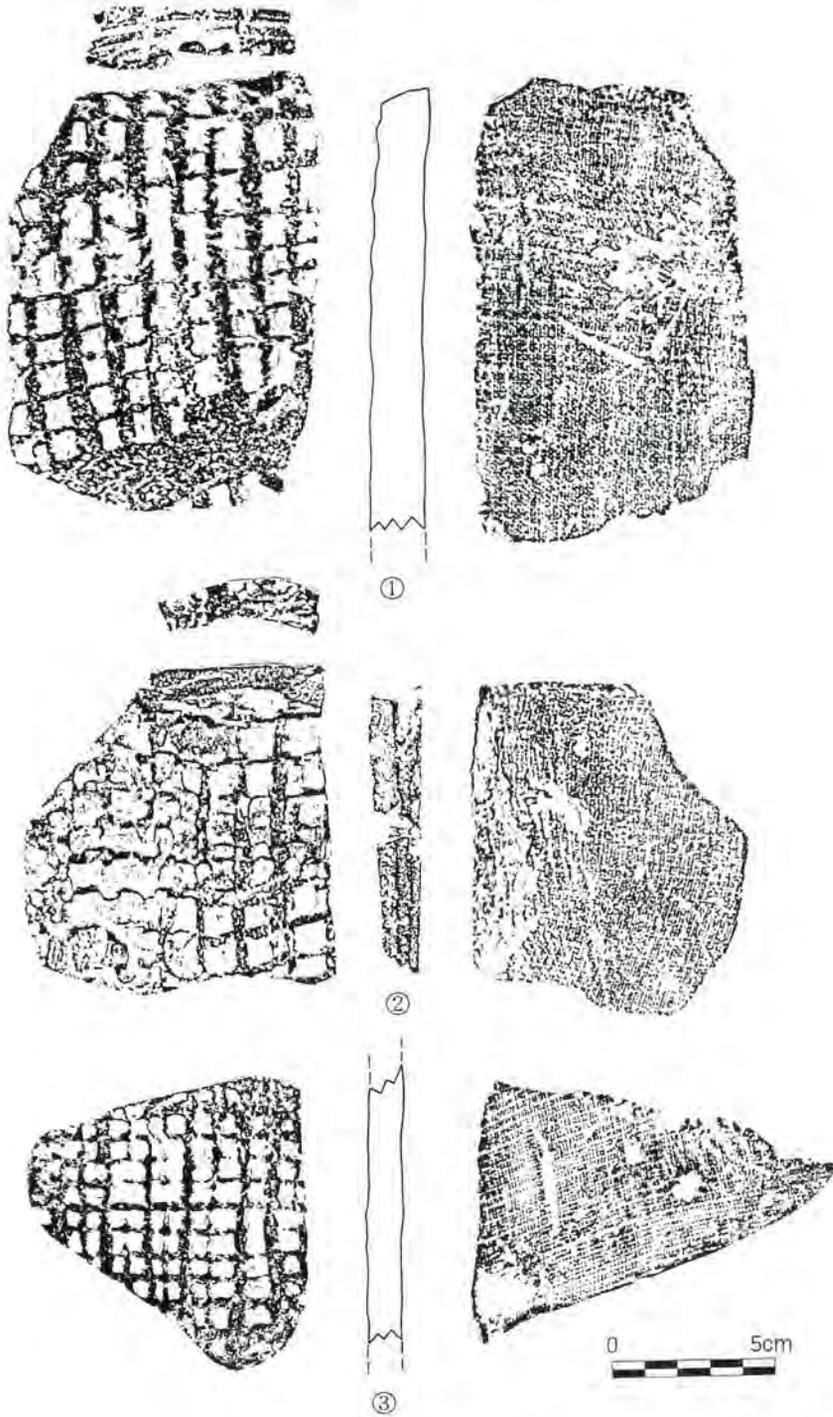
탑본 7, 지표채집 기외류 7 (①~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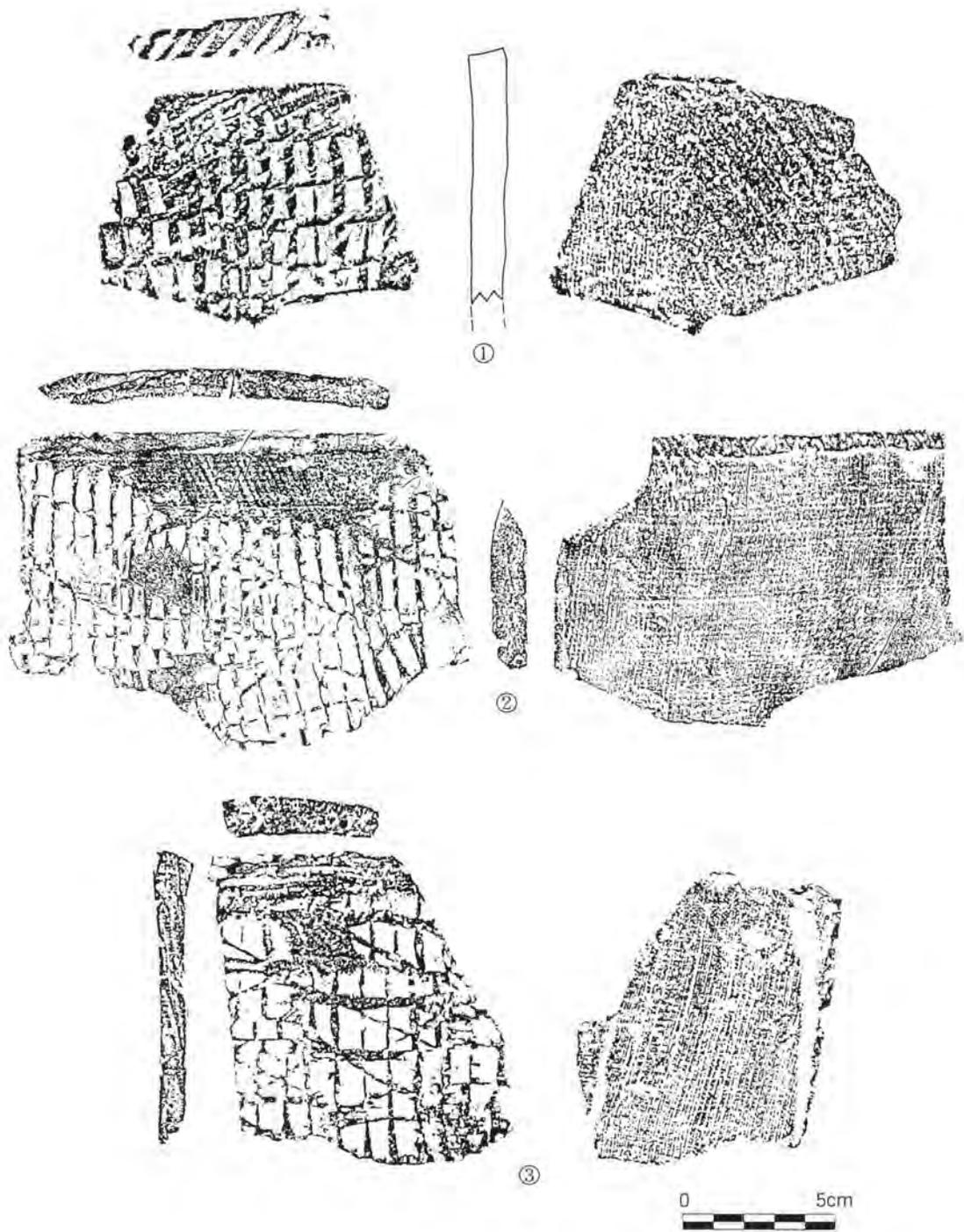
탑본 8. 지표채집 기와류 8 (①~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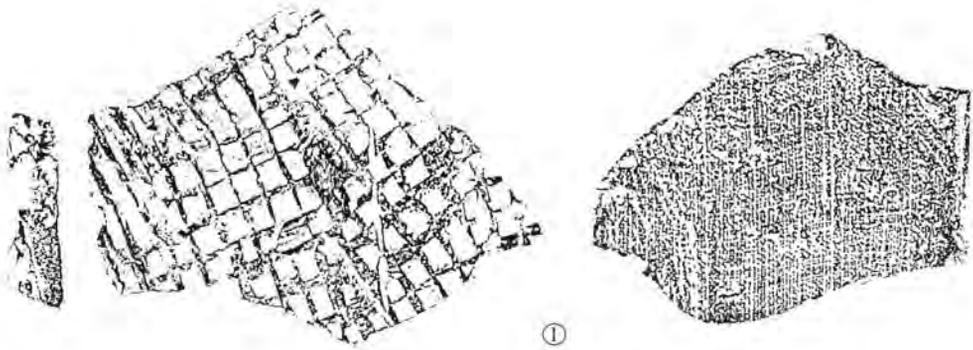
탑본 9. 지표채집 기와류 9 (①-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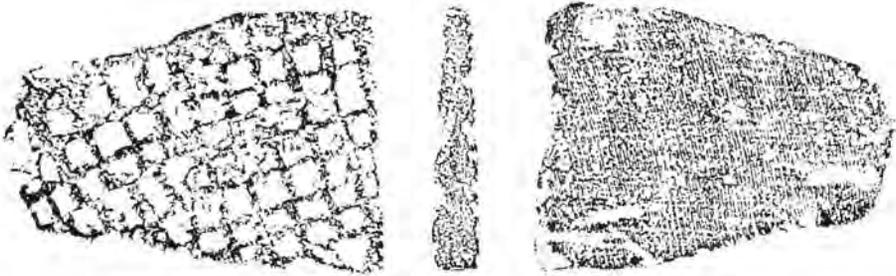
탑본 10. 지표채집 기와류 10 (①-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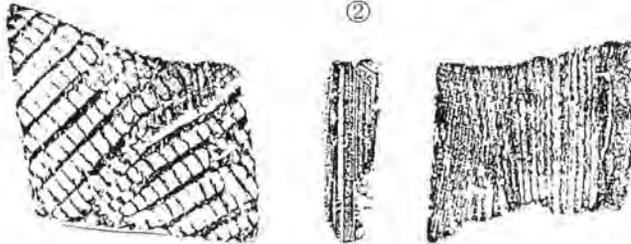
탑본 11. 지표채집 기와류 11 (①-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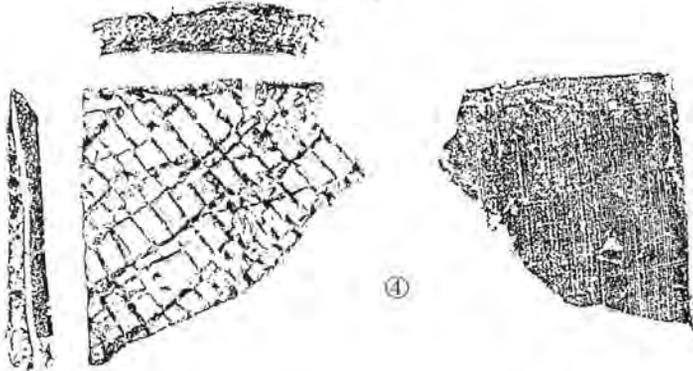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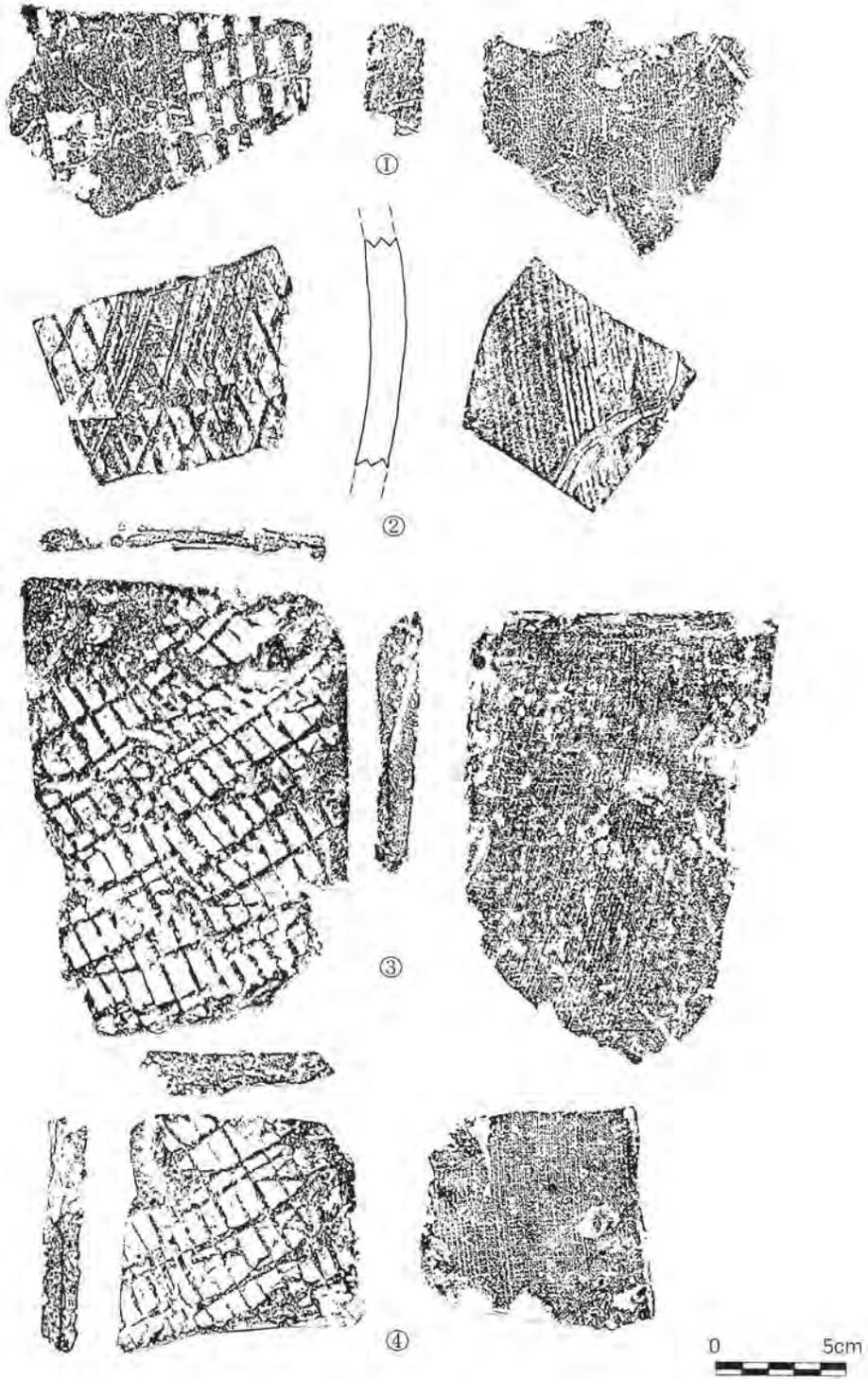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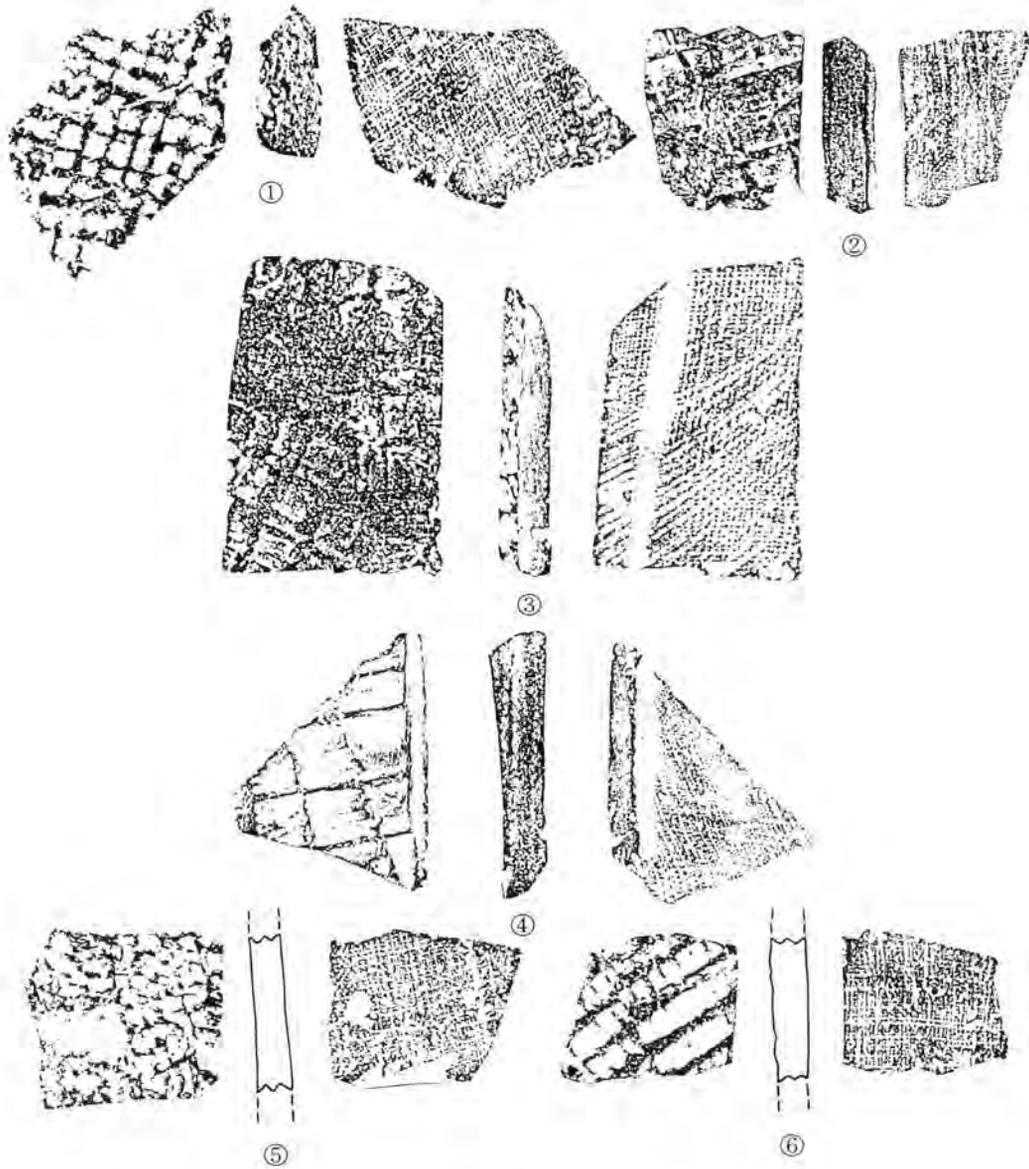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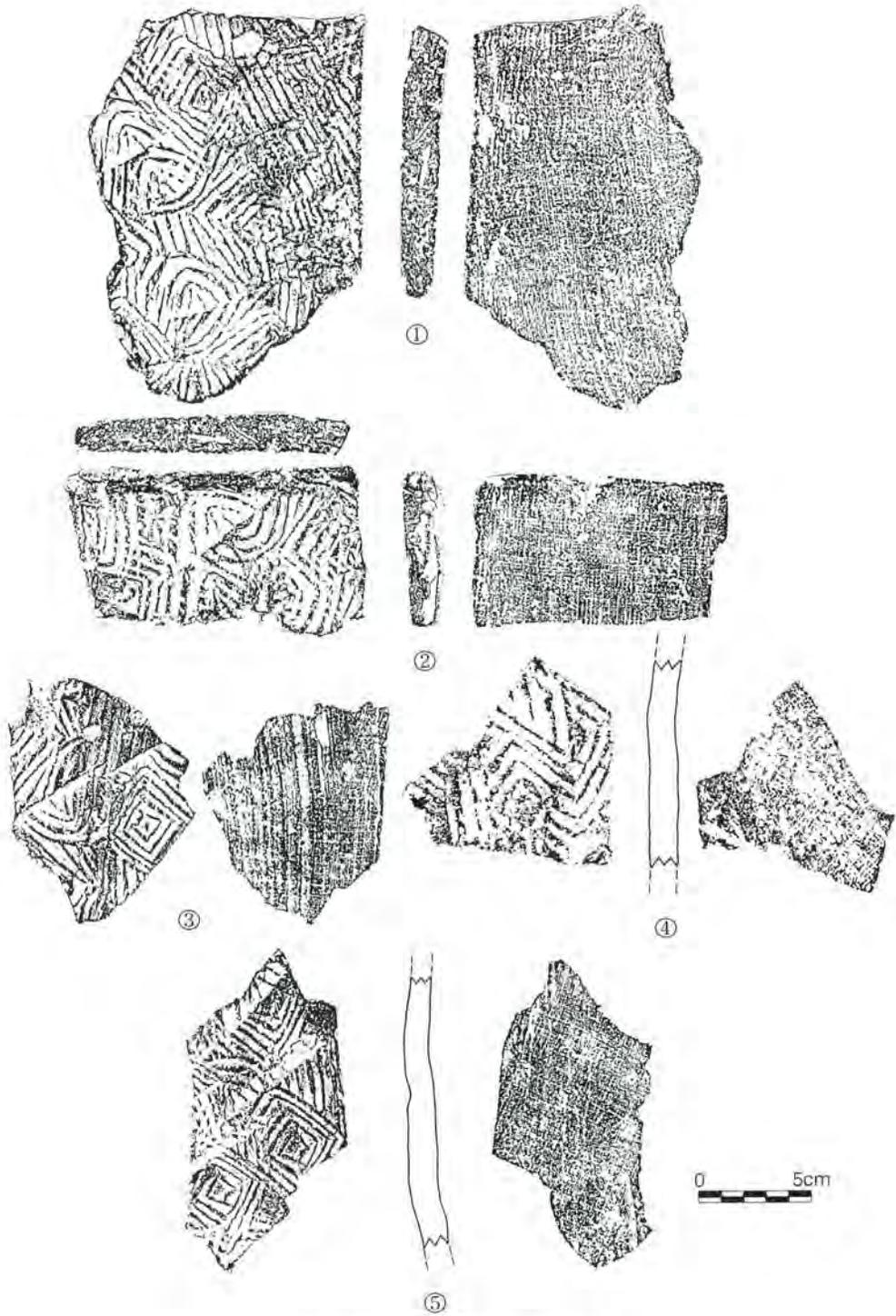
탑본 12. 지표채집 기와류 12 (①-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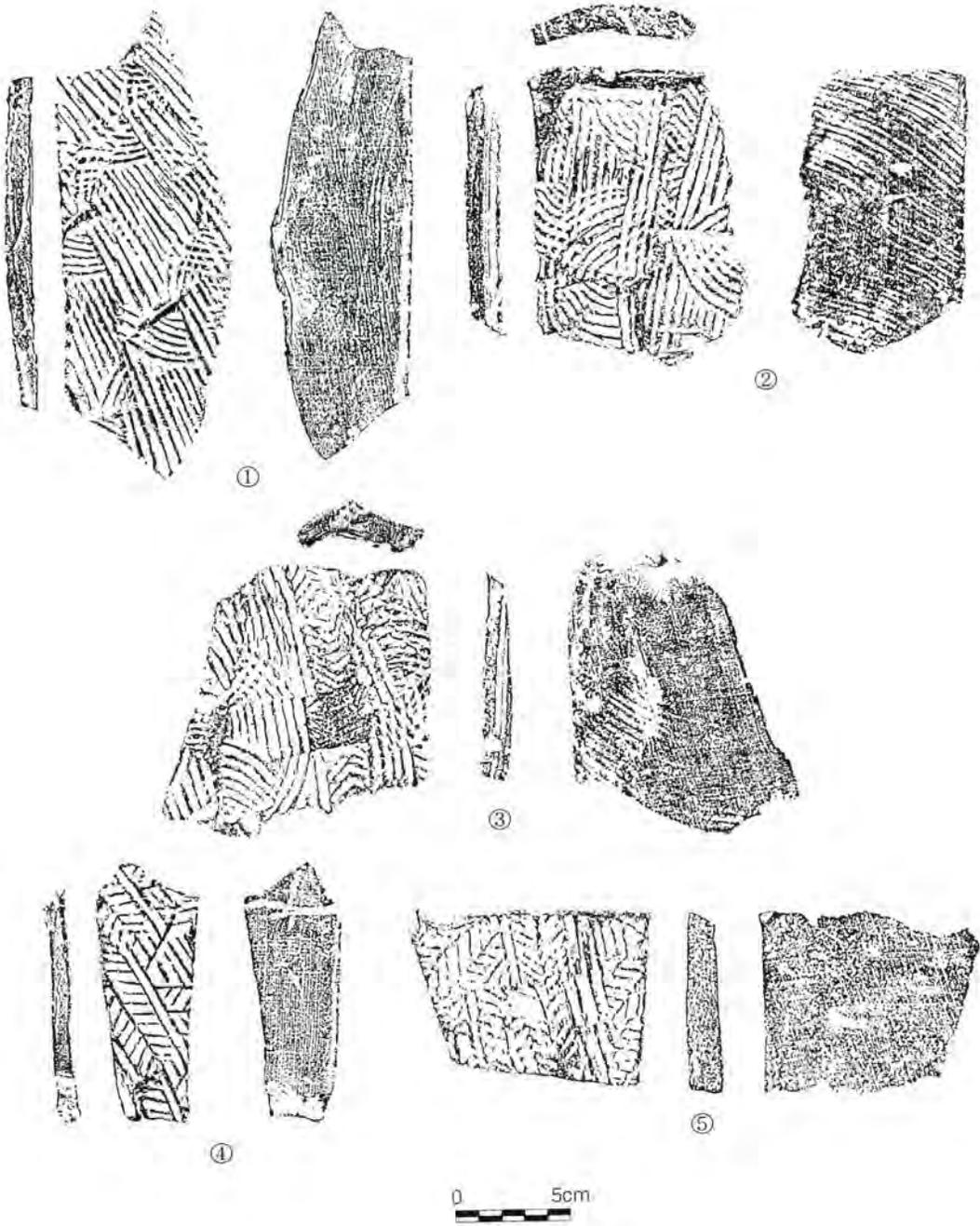
답본 13. 지표채집 기와류 13 (①~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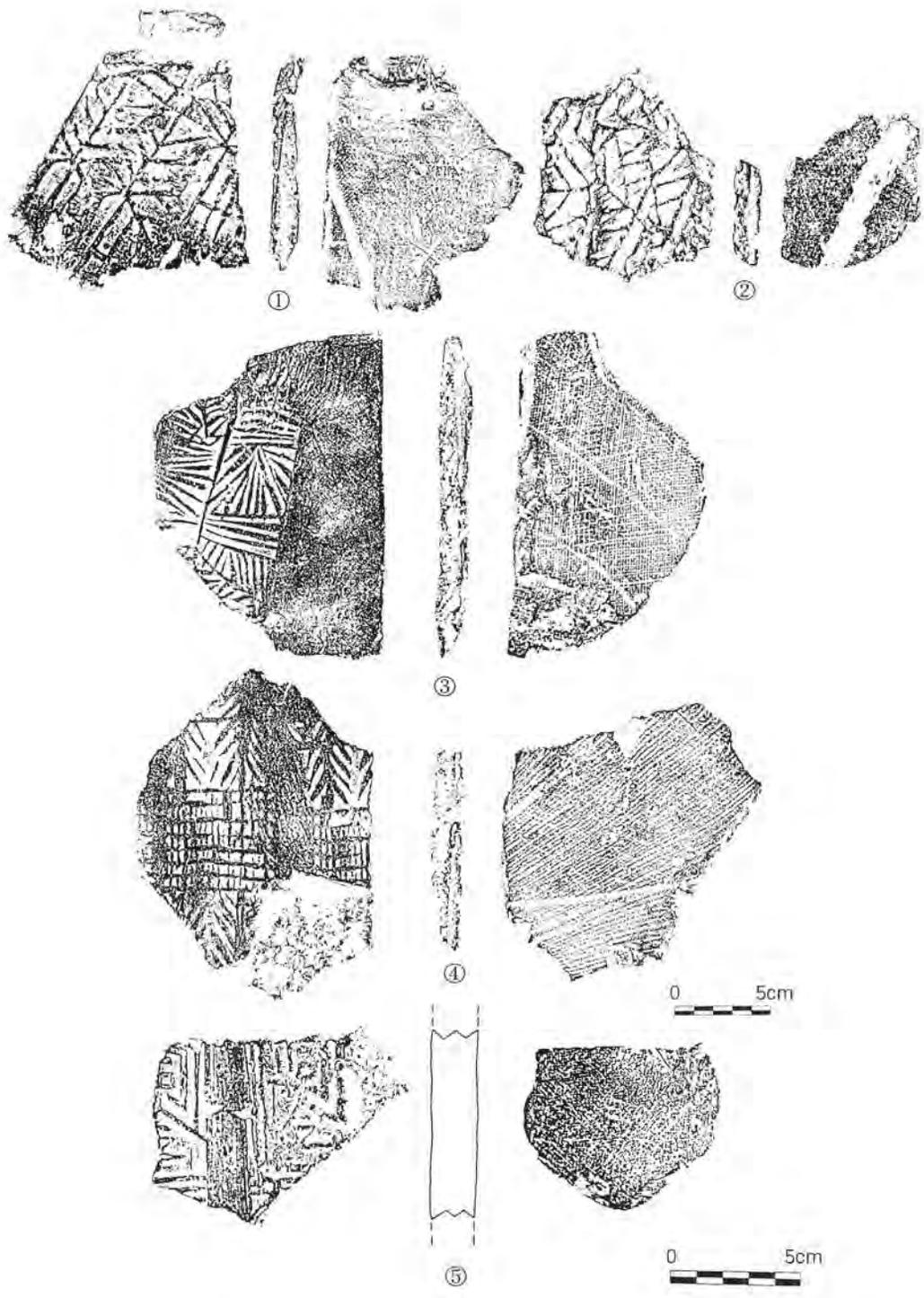
답본 14. 지표채집 기와류 14 (①~⑥)



탑본 15, 지표채집 기와류 15 (①~⑤)



탑본 16. 지표채집 기와류 16 (①~⑤)



탑본 17. 지표채집 기와류 17 (①~⑤)

여 백



사진 1. 성동리산성 전경(남에서)



사진 2. 성동리산성 전경(북에서)



사진 3. 성동리산성에서 바라본 남쪽전경



사진 4. 성동리산성에서 바라본 북쪽전경



사진 5. 성동리산성에서 바라본 동쪽전경



사진 6. 성동리산성에서 바라본 서쪽전경



사진 7. 동벽 내부상태 - i 구간- (남에서)



사진 8. 동벽 내부상태 - i 구간- (북에서)



사진 9. 동벽 외부 석축상태 - 1 구간- (남에서)



사진 10. 동벽 외부 석축상태 - 1 구간- (북에서)



사진 11. 동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1



사진 12. 동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2



사진 13. 장대지 전경(남에서)



사진 14. 장대지 상면상태(동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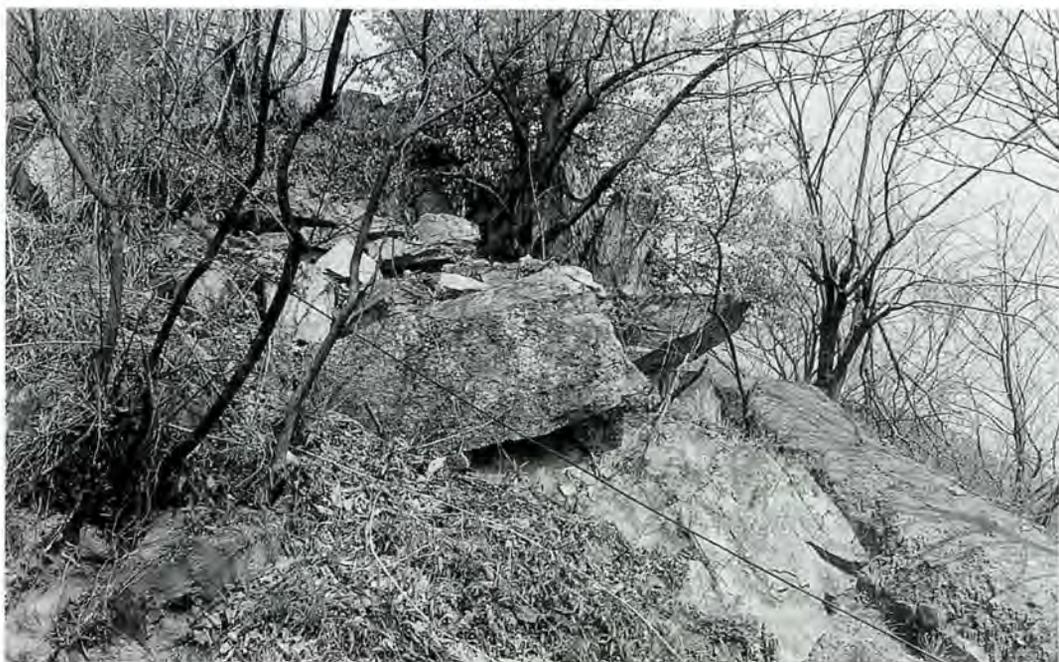


사진 15. 동벽 내부상태 - Ⅱ 구간 -



사진 16. 동벽 내부상태 - Ⅱ 구간 - (남에서)



사진 17. 동벽 외부 석축상태 - Ⅱ 구간- (남에서)



사진 18. 동벽 외부 석축상태 - Ⅱ 구간- (북에서)



사진 19. 동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1



사진 20. 동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2



사진 21. 동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3



사진 22. 동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4



사진 23. 동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5



사진 24. 동벽 외부 석축 뒷채움석 노출상태



사진 25. 남벽 내부상태 -III구간- (동에서)



사진 26. 남벽 내부상태 -III구간- (서에서)



사진 27. 남벽 외부 석축상태 -iii-1구간- (동에서)



사진 28. 남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사진 29. 남벽 외부 석축상태 -iii-2구간- (동에서)



사진 30. 남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1



사진 31. 남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2



사진 32. 남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3



사진 33. 남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4



사진 34. 남벽 외부 석축의 풍화된 면석 이탈상태



사진 35. 남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5



사진 36. 남벽에 사용된 현무암 면석



사진 37. 남벽 외부 석축상태 1 -iv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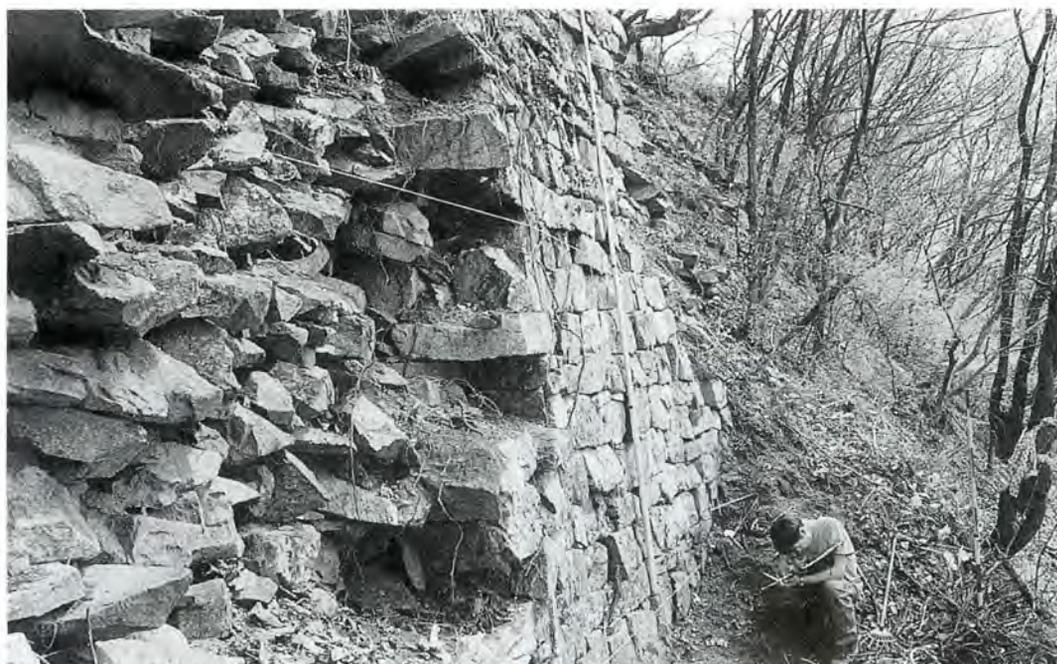


사진 38. 남벽 외부 석축상태 2 -iv 구간-



사진 39. 남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1



사진 40. 남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2



사진 41. 남벽 외부 석축의 면석과 뒷채움석 상태



사진 42. 수구지 전경



사진 43. 남문지 전경(동에서)



사진 44. 남문지 전경(서에서)



사진 45. 서벽 내부상태(북에서)



사진 46. 서벽 뒷채움석 노출상태



사진 47. 북벽 내부상태 -v 구간- (서에서)



사진 48. 북벽 내부상태 -vi 구간- (동에서)



사진 49. 북벽 외부 조사전상태 -v 구간-



사진 50. 북벽 외부 석축상태 1 -v 구간 - (서에서)



사진 51. 북벽 외부 석축상태 2 -v 구간- (동에서)



사진 52. 북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1



사진 53. 북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2



사진 54. 북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3



사진 55. 북벽 외부 석축상태 1 -vi 구간-



사진 56. 북벽 외부 석축상태 2 -vi 구간-



사진 57. 북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1



사진 58. 북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2



사진 59. 북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3



사진 60. 북벽 외부 석축 세부상태 4



사진 61. 북동치성 전경



사진 62. 북동치성 상면상태



사진 63. 북동치성 세부상태



사진 64. 북동치성 모서리돌 상태



사진 65. 건물지1 전경



사진 66. 건물지2 전경



사진 67. 건물지3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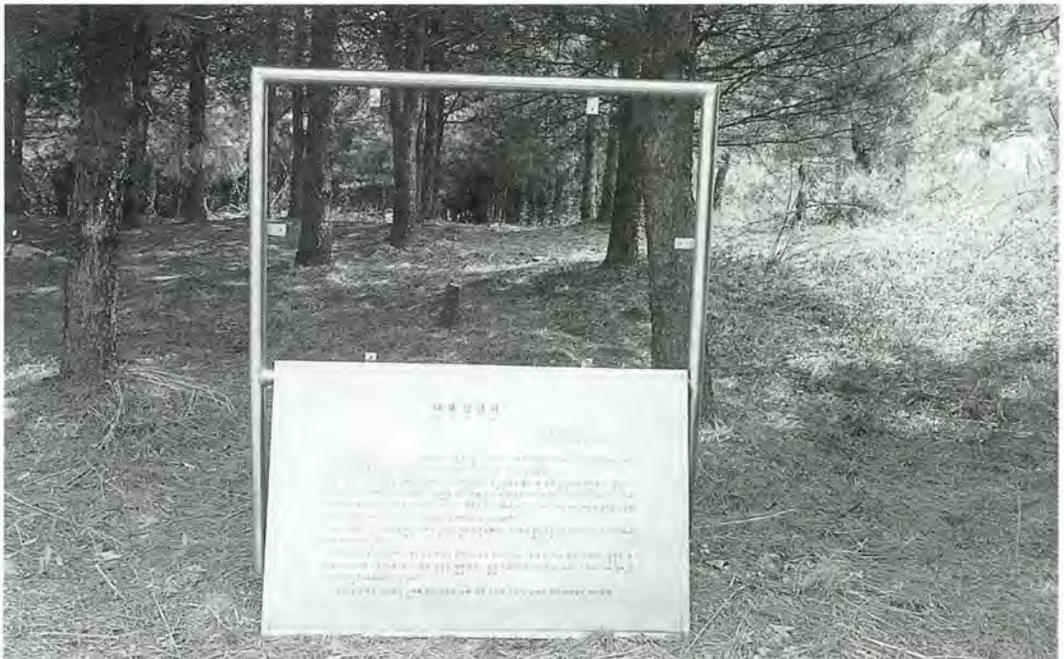


사진 68. 건물지3 내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



사진 69. 우물지 전경(동에서)



사진 70. 우물지 전경(북에서)



사진 71. 우물지 전경(남에서)



사진 72. 우물지 세부상태 1



사진 73. 우물지 세부상태 2



사진 74. 우물지 세부상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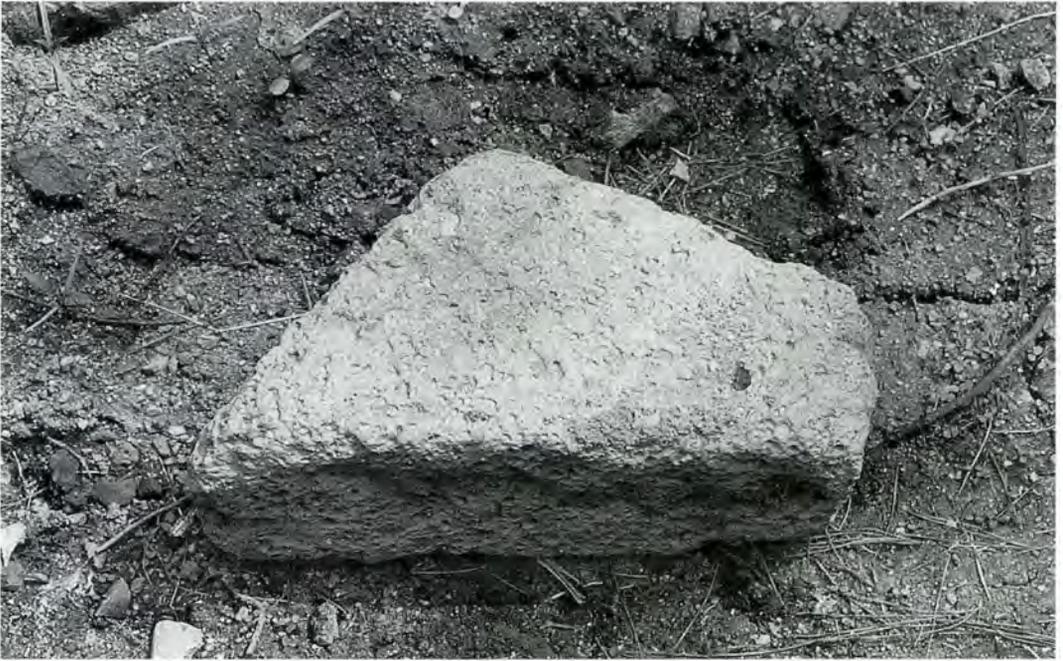


사진 75. 성내에 흩어져 있는 현무암 면석 1



사진 76. 성내에 흩어져 있는 현무암 면석 2



사진 77. 성내에 흩어져 있는 현무암 면석 3



사진 78. 성 내부 채집 투석용 석환



사진 79. i 구간 채집 崇寧重寶 노출상태



사진 80. i 구간 채집 토기 구연부편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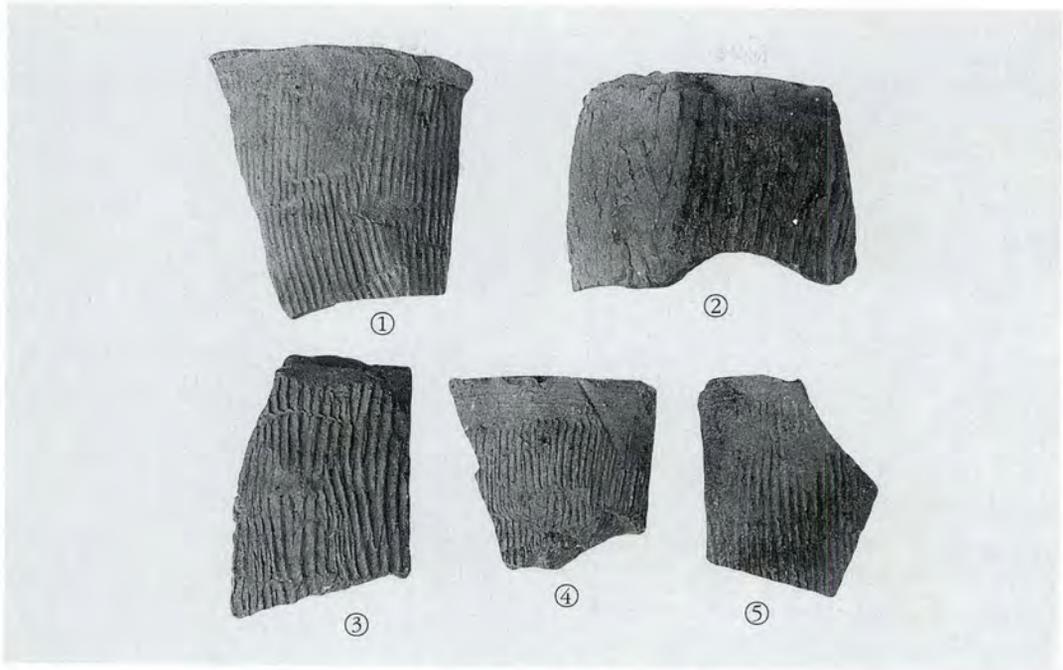


사진 81. 지표채집 기와류 1 (①~⑤ · 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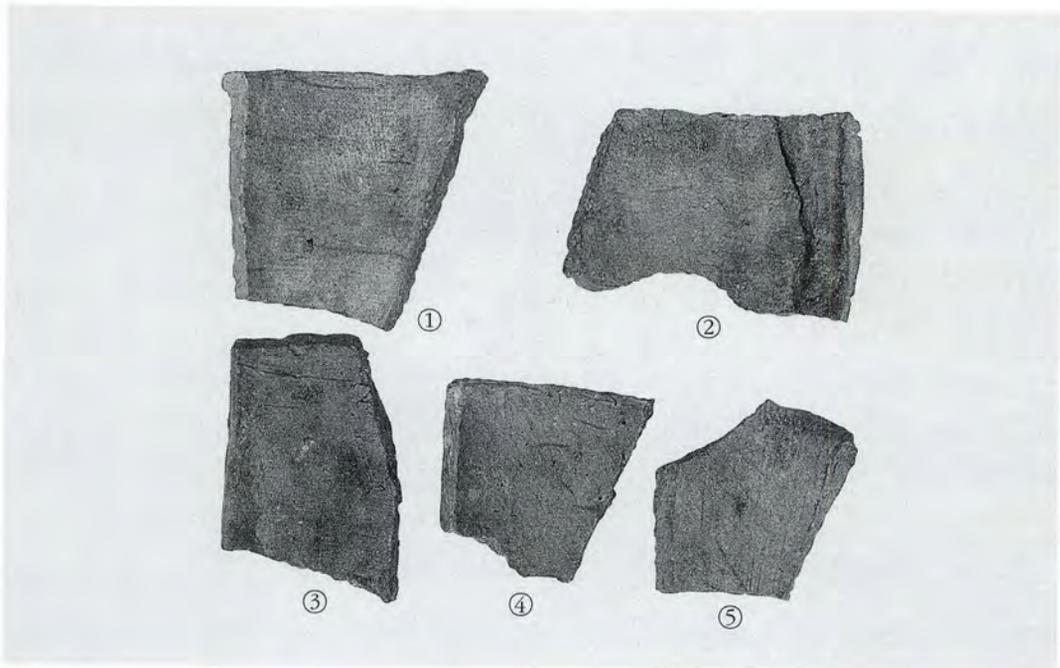


사진 82. 지표채집 기와류 1 (①~⑤ · 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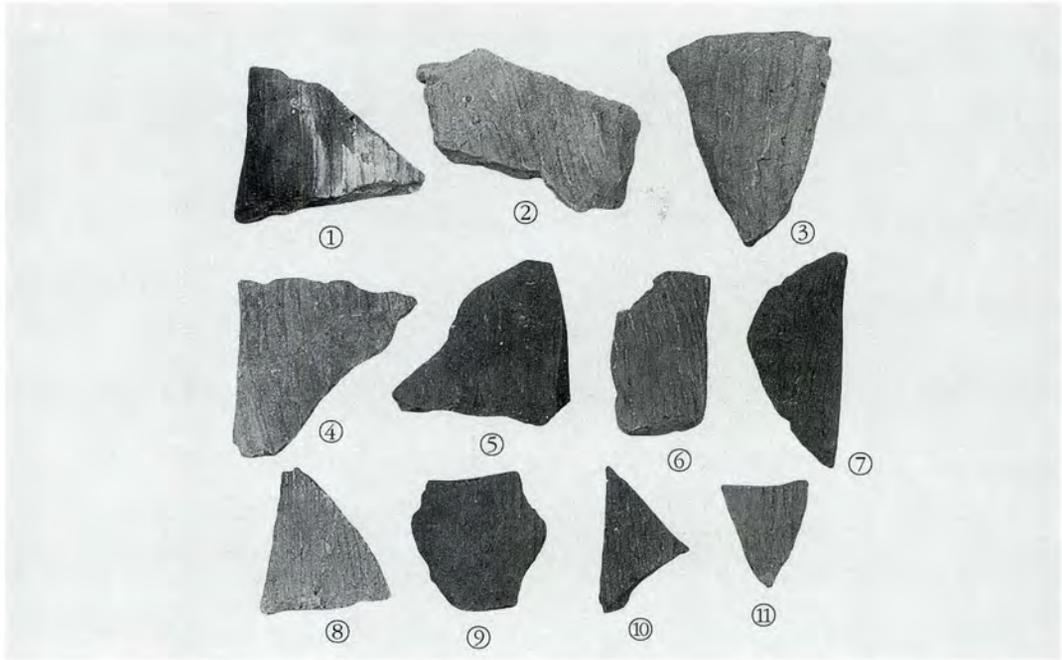


사진 83. 지표채집 기와류 2 (①~⑪ · 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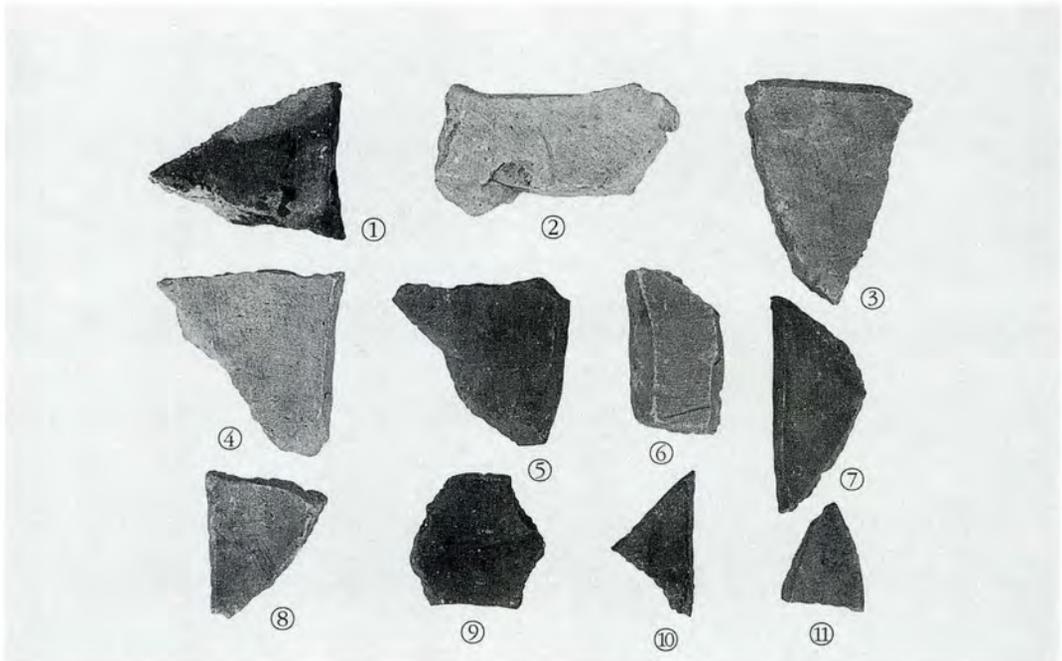


사진 84. 지표채집 기와류 2 (①~⑪ · 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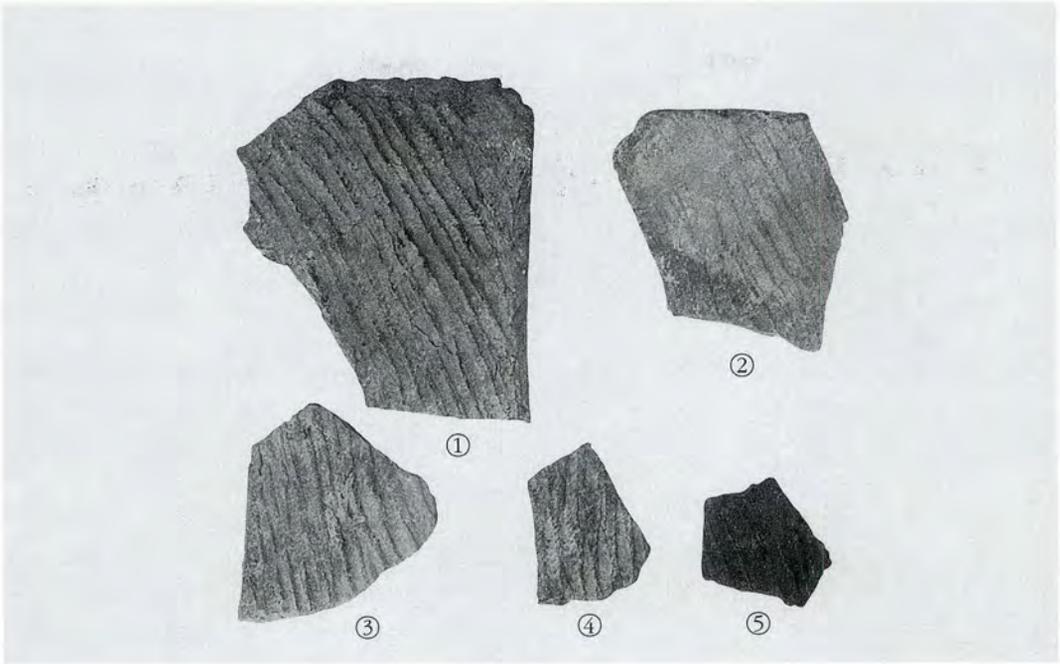


사진 85. 지표채집 기와류 3 (①~⑤ · 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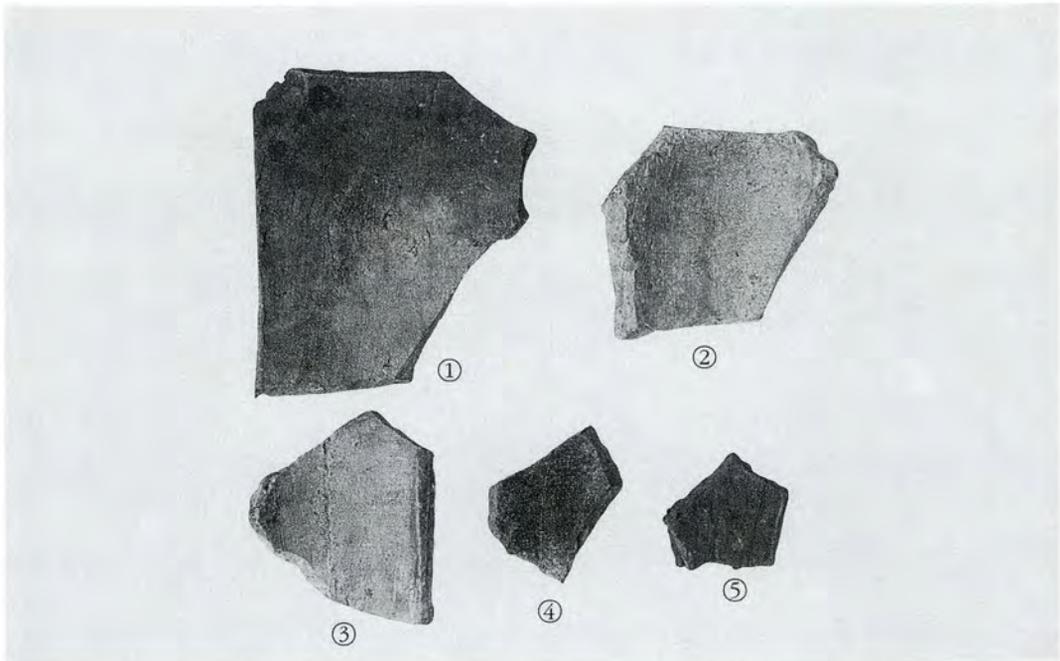


사진 86. 지표채집 기와류 3 (①~⑤ · 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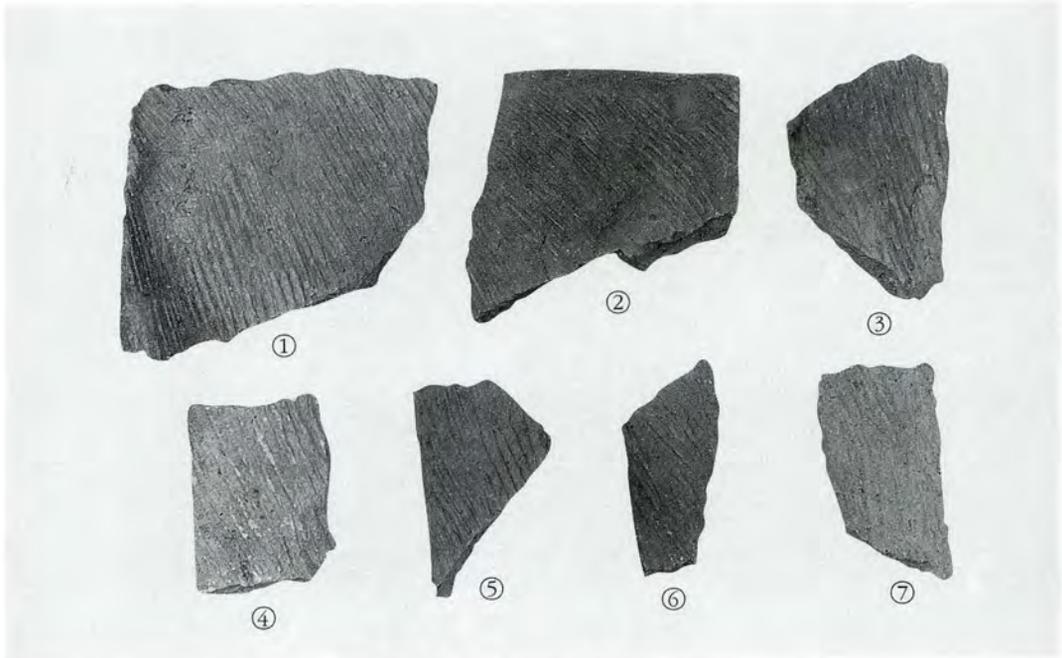


사진 87. 지표채집 기와류 4 (①~⑦ · 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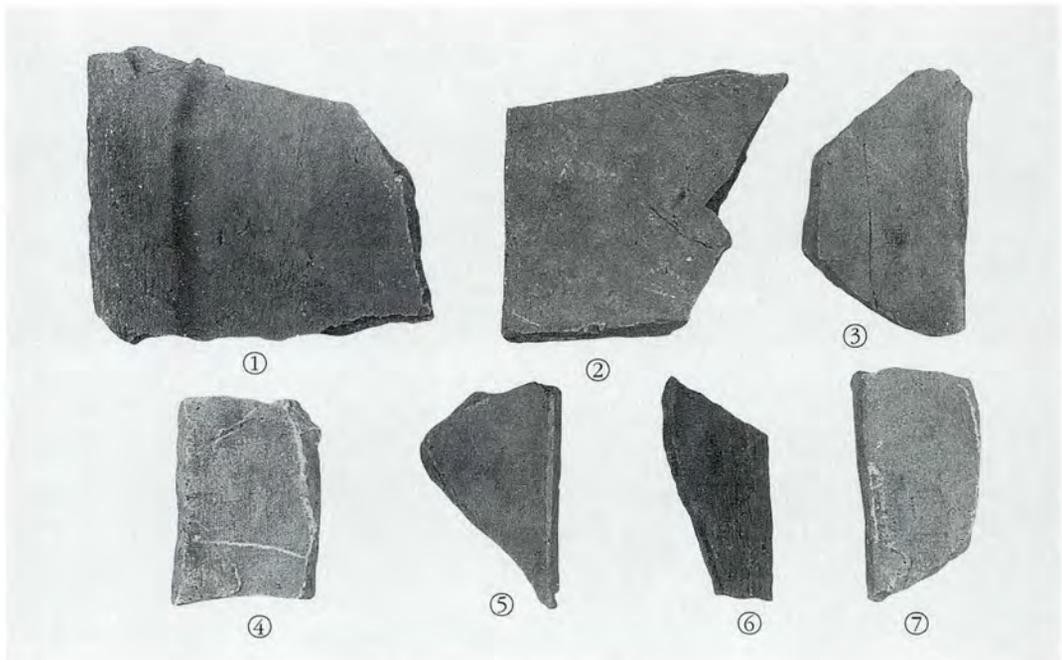


사진 88. 지표채집 기와류 4 (①~⑦ · 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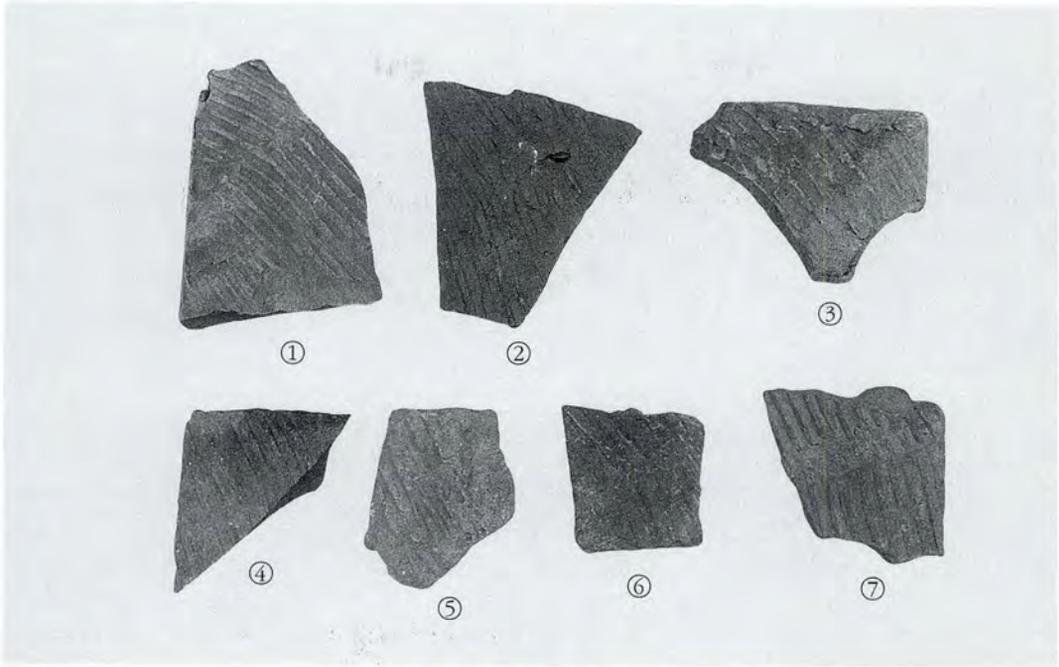


사진 89. 지표채집 기와류 5 (①~⑦ · 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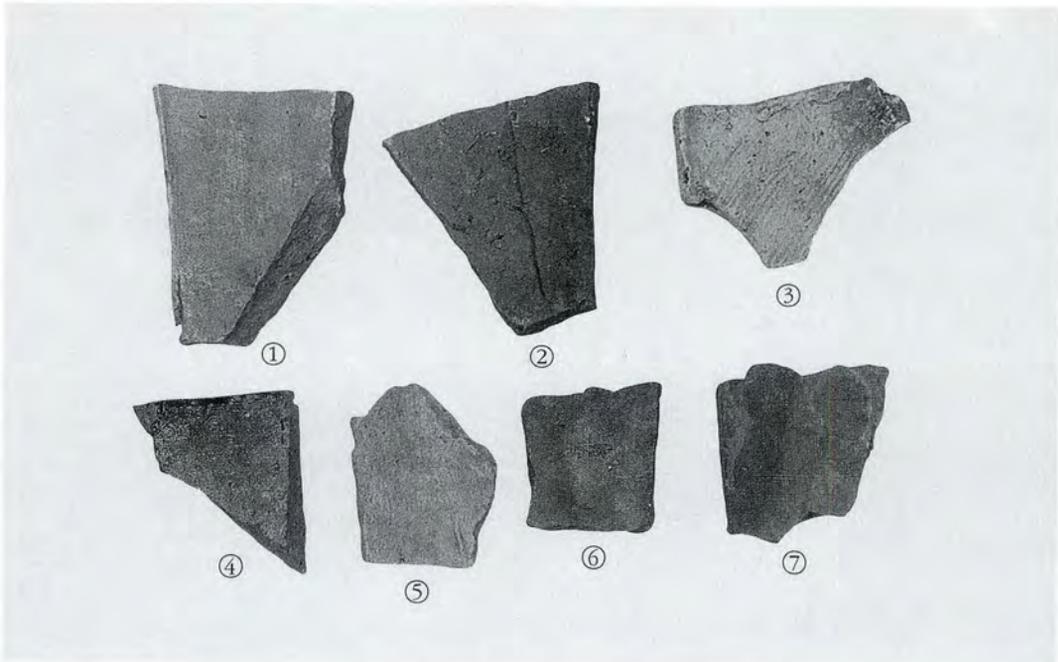


사진 90. 지표채집 기와류 5 (①~⑦ · 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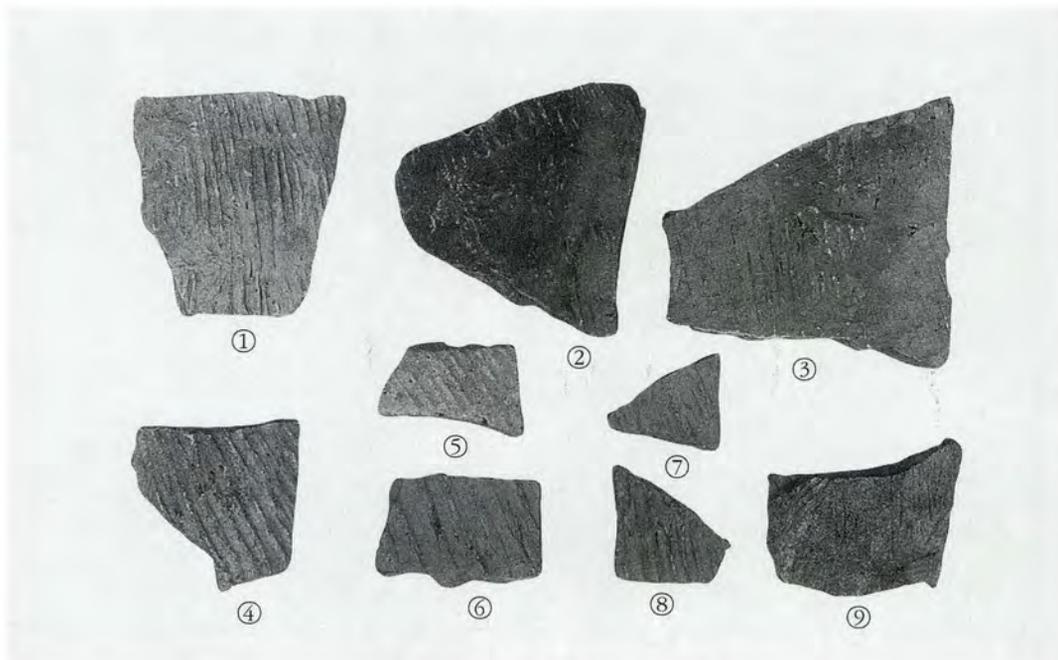


사진 91. 지표채집 기와류 6 (①~⑨ · 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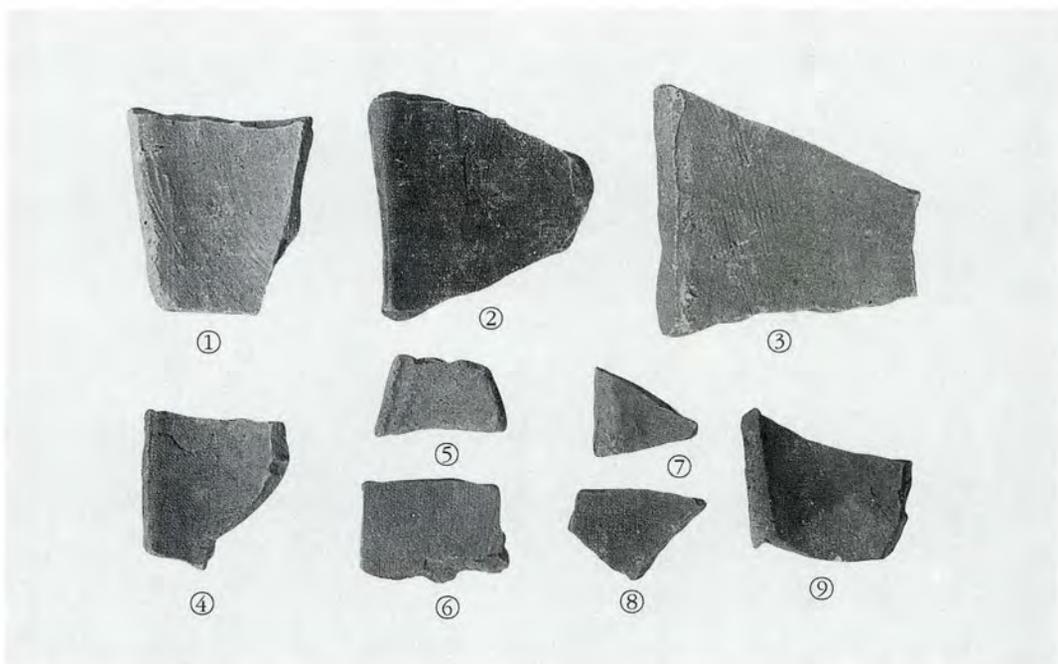


사진 92. 지표채집 기와류 6 (①~⑨ · 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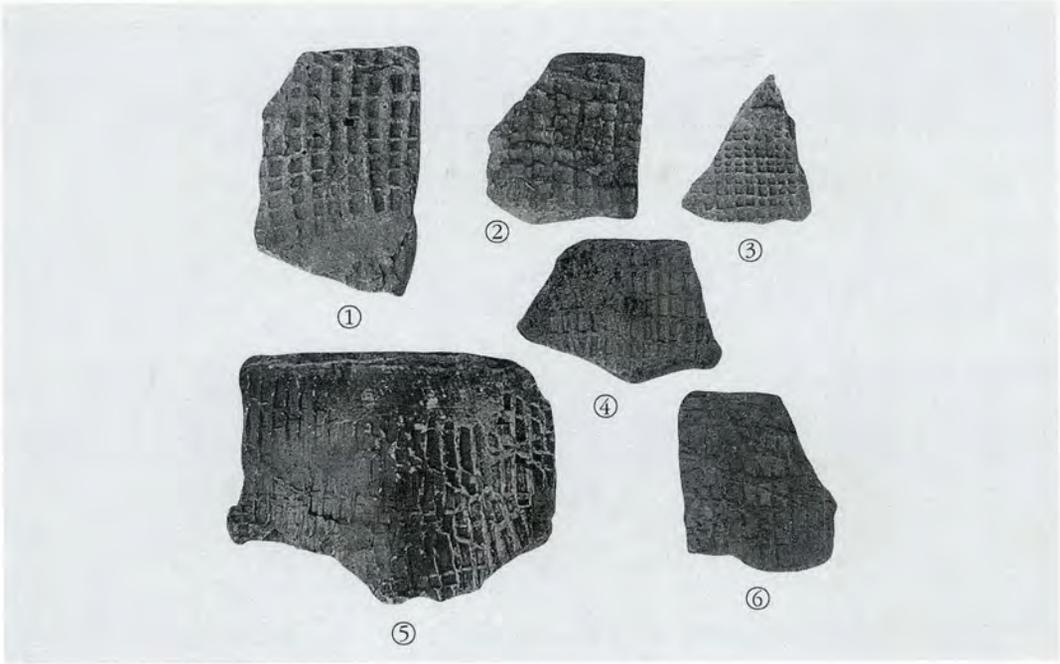


사진 93. 지표채집 기와류 7 (①~⑥ · 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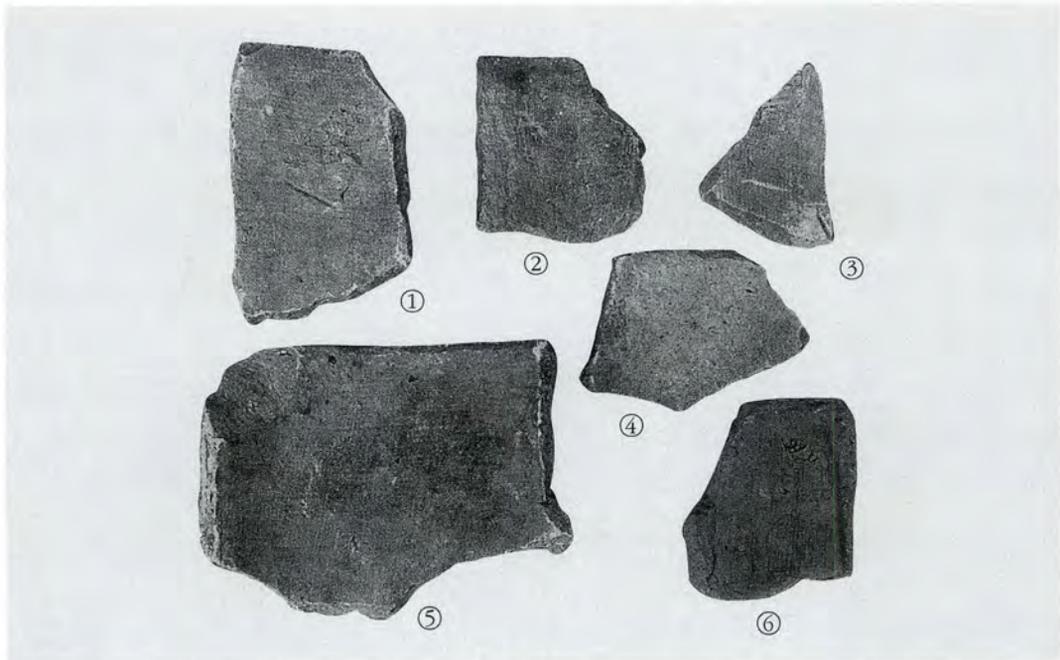


사진 94. 지표채집 기와류 7 (①~⑥ · 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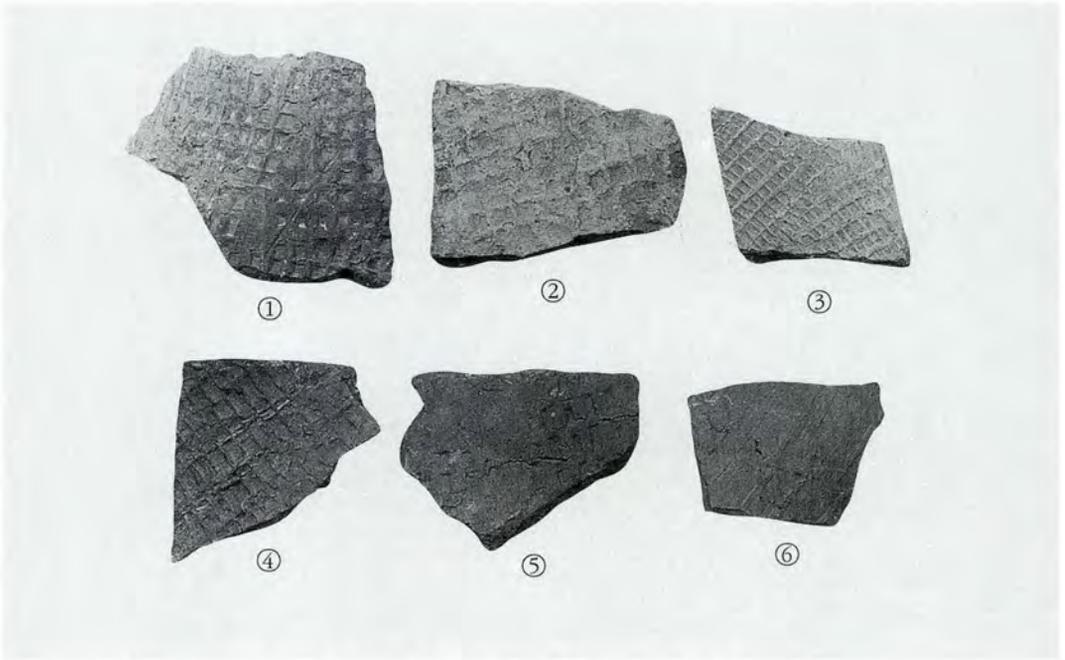


사진 95. 지표채집 기와류 8 (①~⑥ · 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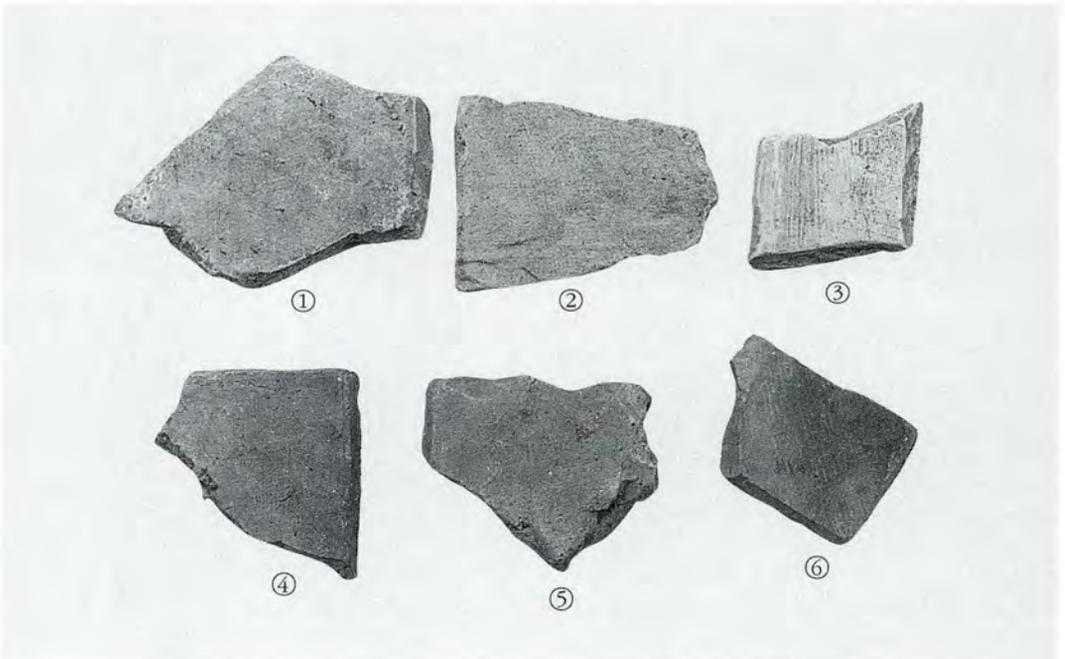


사진 96. 지표채집 기와류 8 (①~⑥ · 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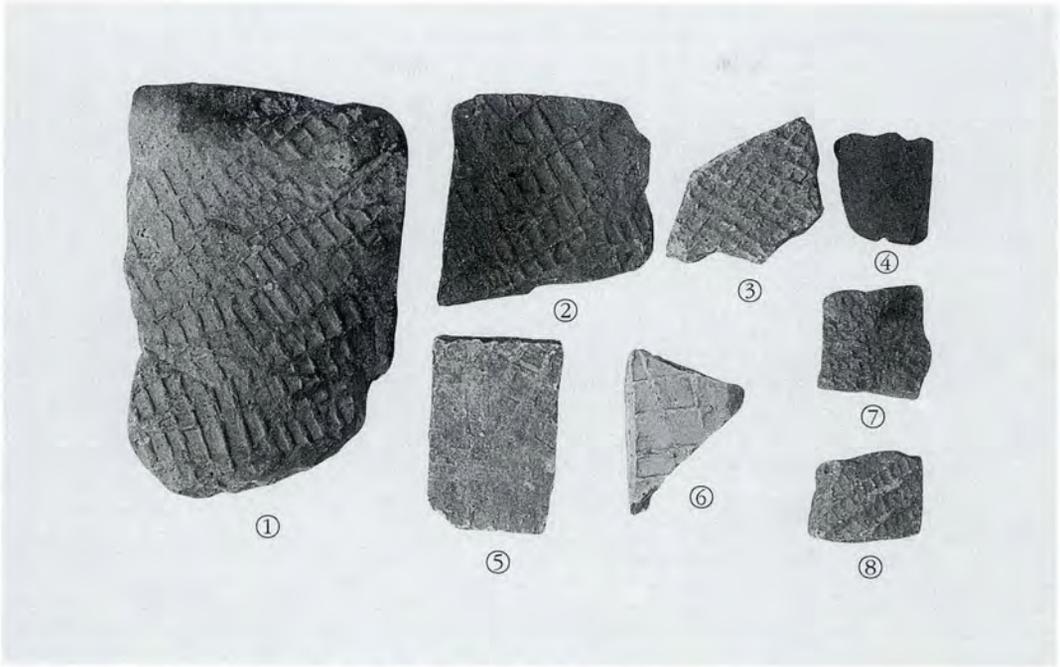


사진 97. 지표채집 기와류 9 (①~⑧ · 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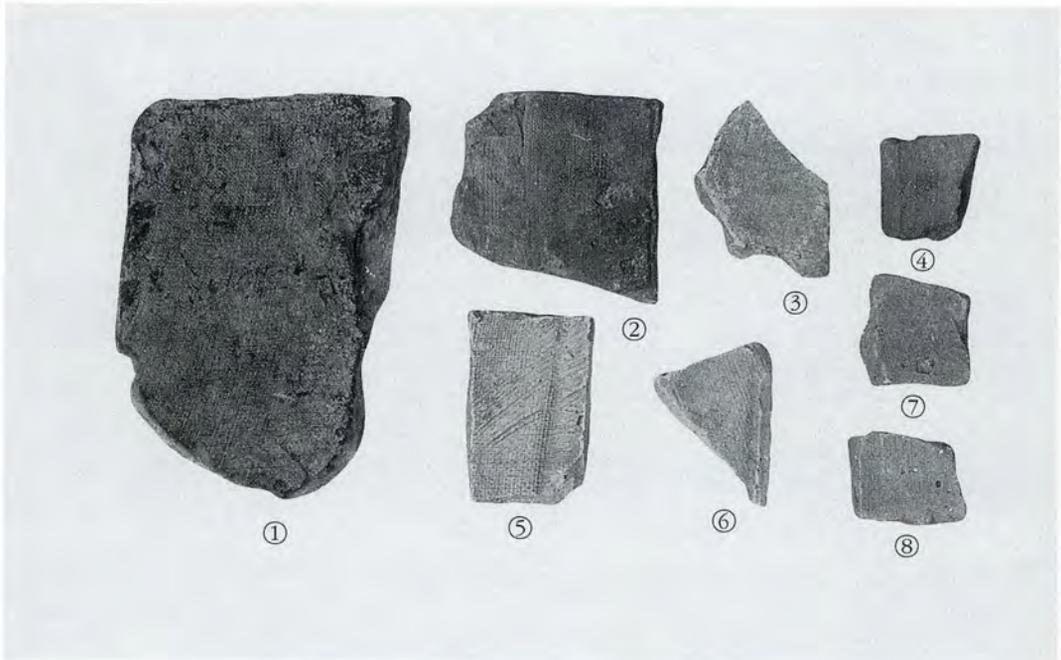


사진 98. 지표채집 기와류 9 (①~⑧ · 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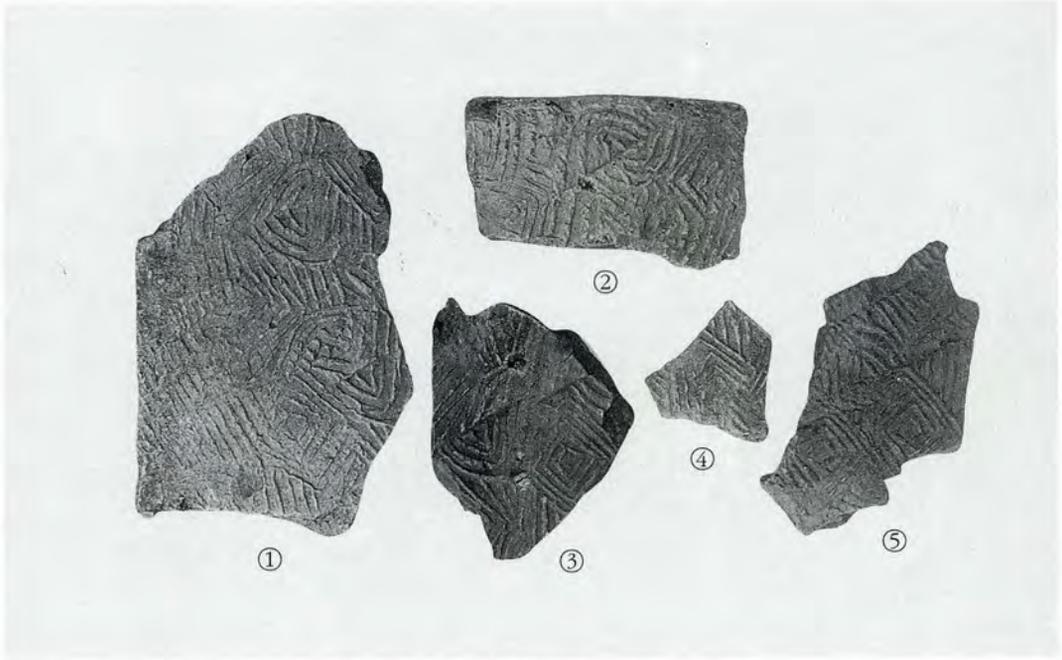


사진 99. 지표채집 기와류 10 (①~⑤ · 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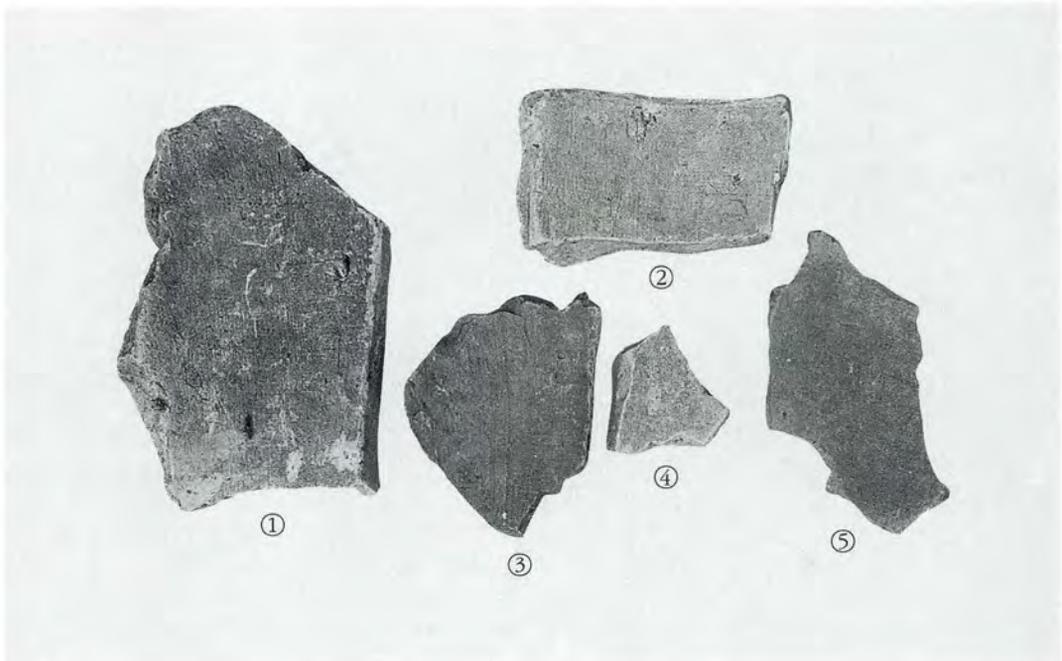


사진 100. 지표채집 기와류 10 (①~⑤ · 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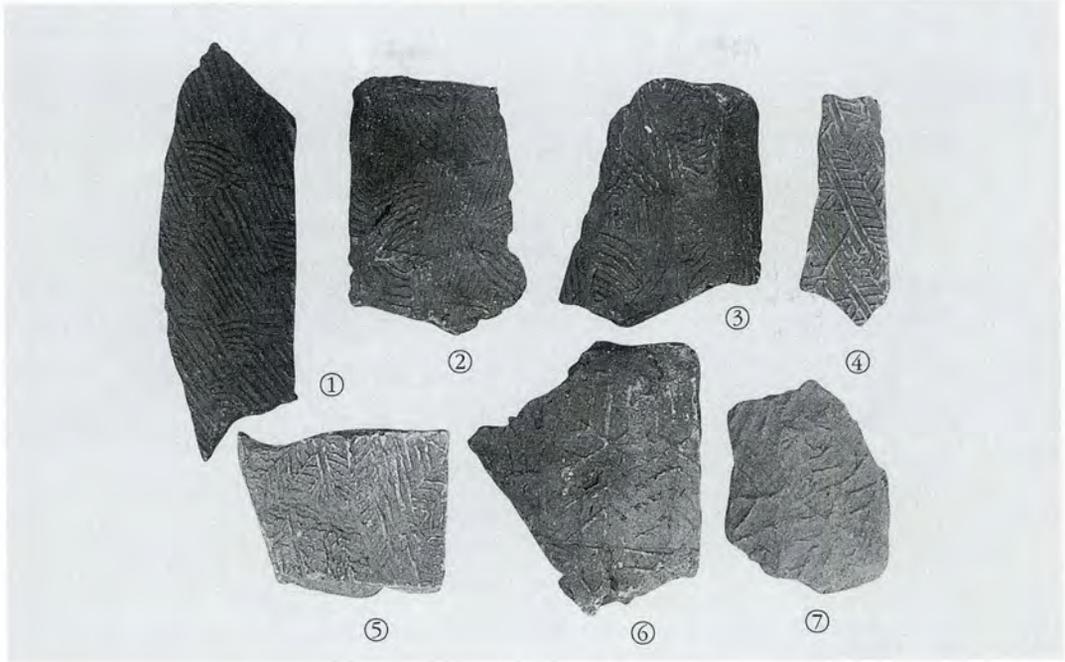


사진 101. 지표채집 기와류 11 (①~⑦ · 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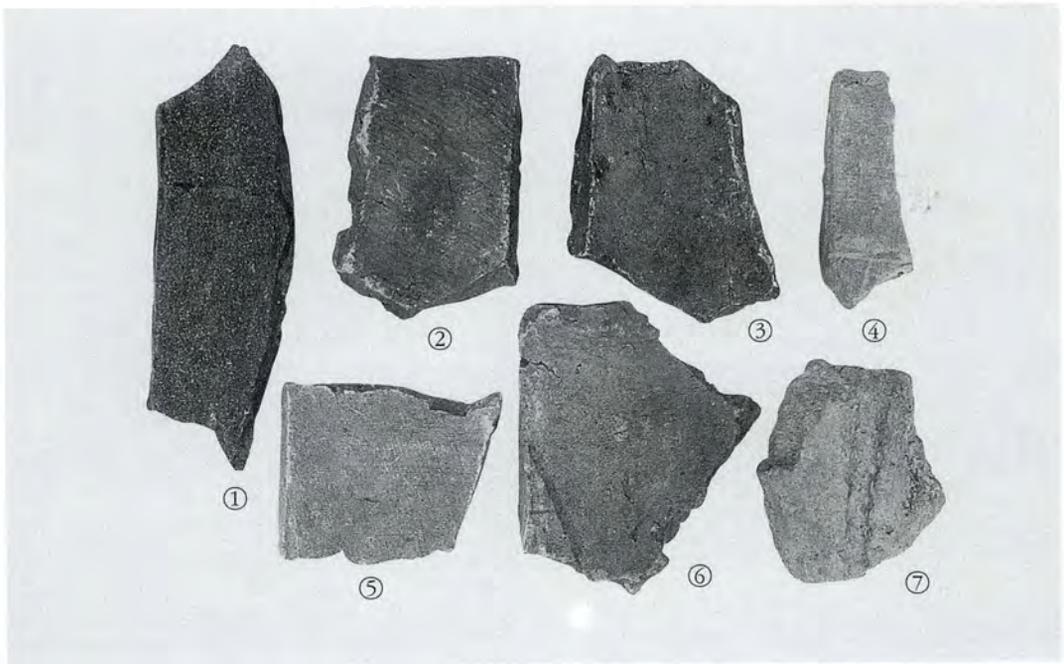


사진 102. 지표채집 기와류 11 (①~⑦ · 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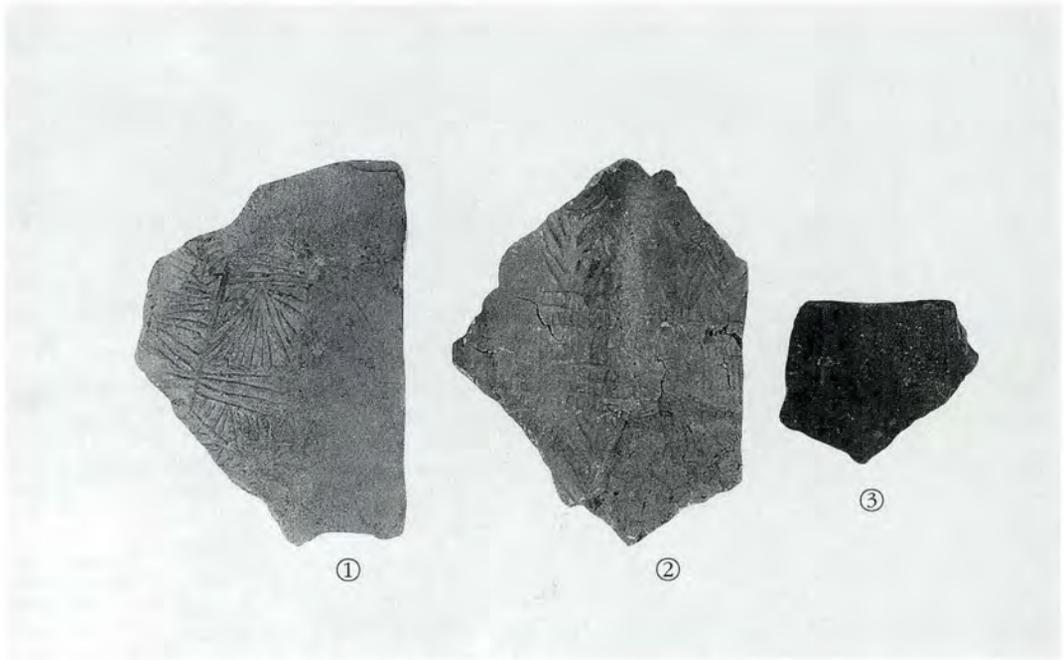


사진 103. 지표채집 기와류 12 (①~③ · 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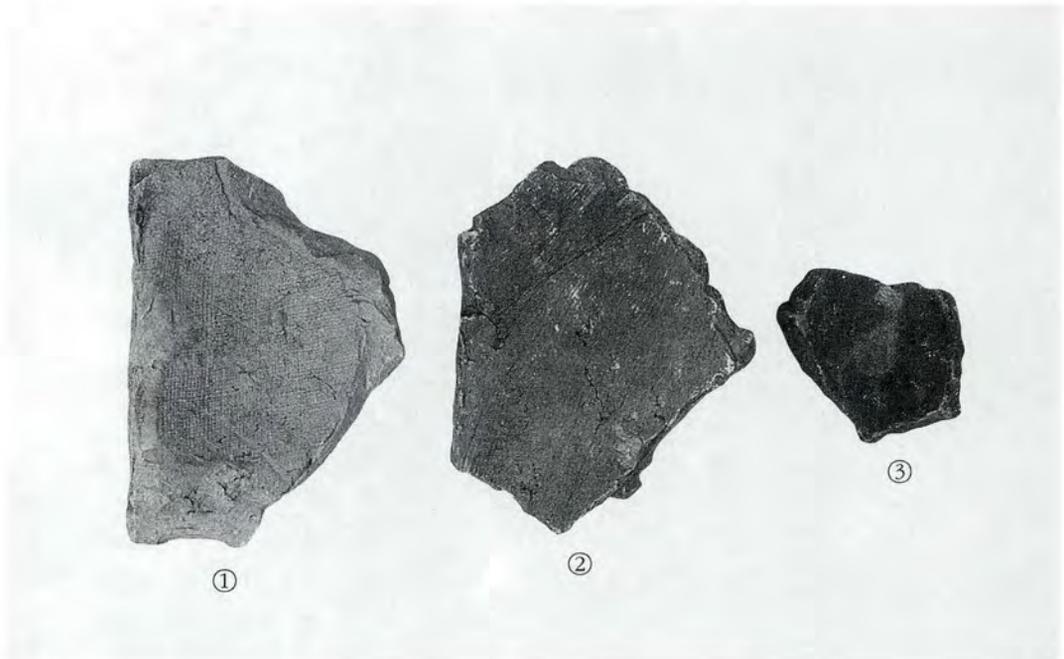


사진 104. 지표채집 기와류 12 (①~③ · 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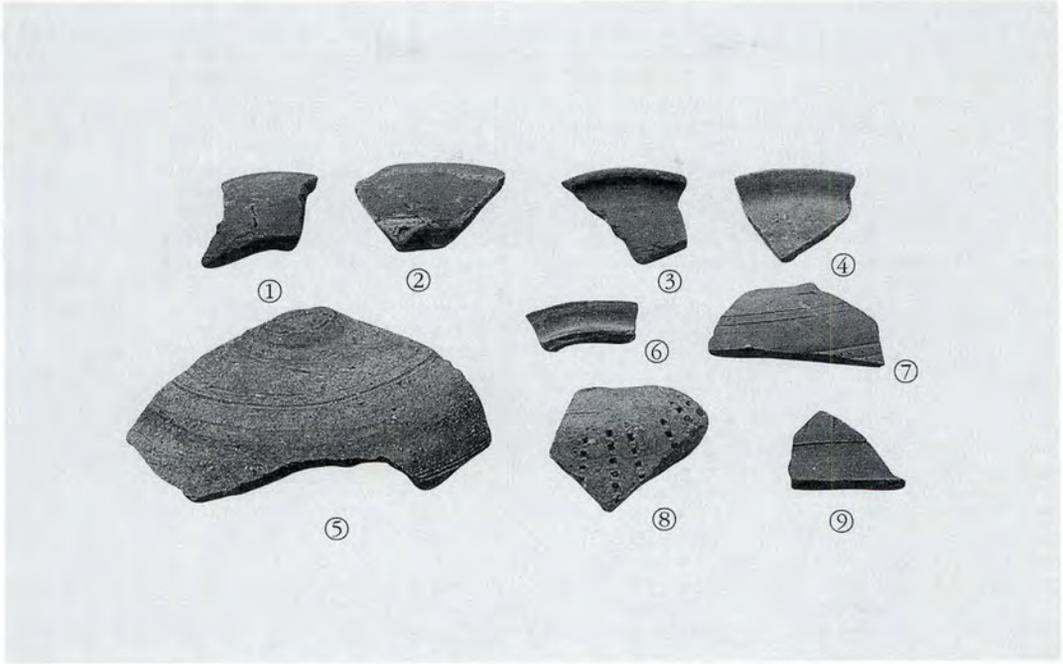


사진 105. 지표채집 토기류 1 (①~⑨ · 완 구연부편, 뚜껑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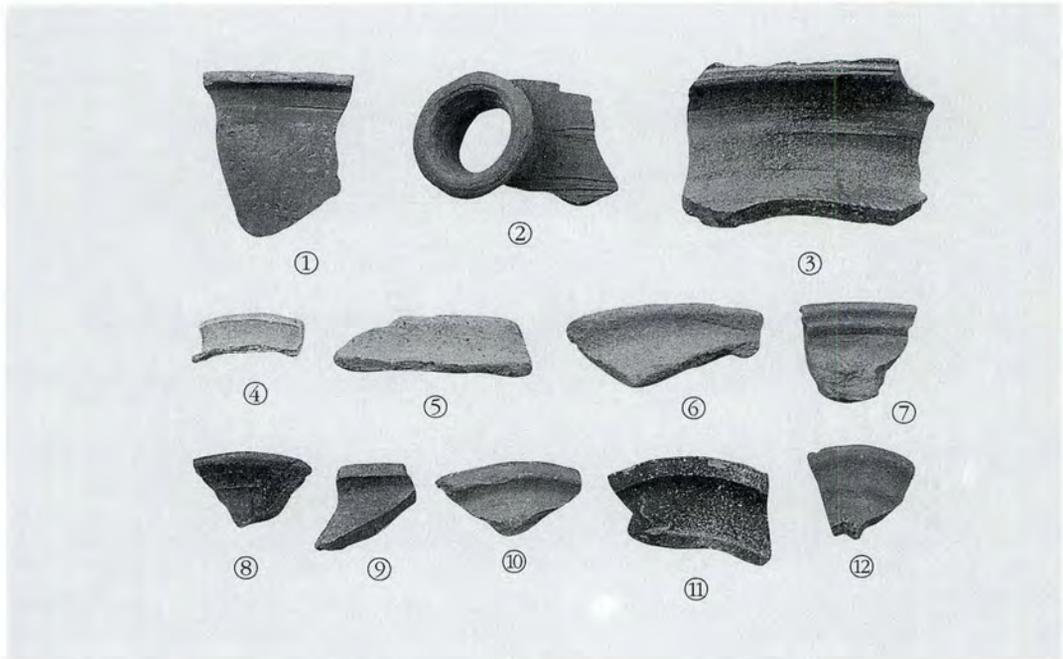


사진 106. 지표채집 토기류 2 (①~⑫ · 구연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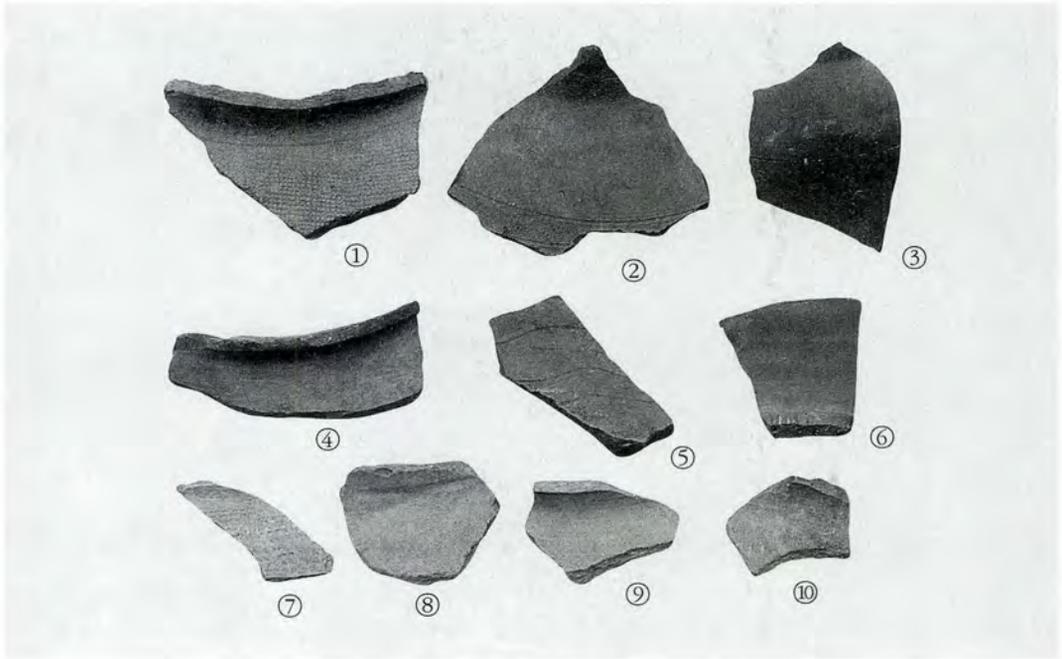


사진 107. 지표채집 토기류 3 (①~⑩ · 경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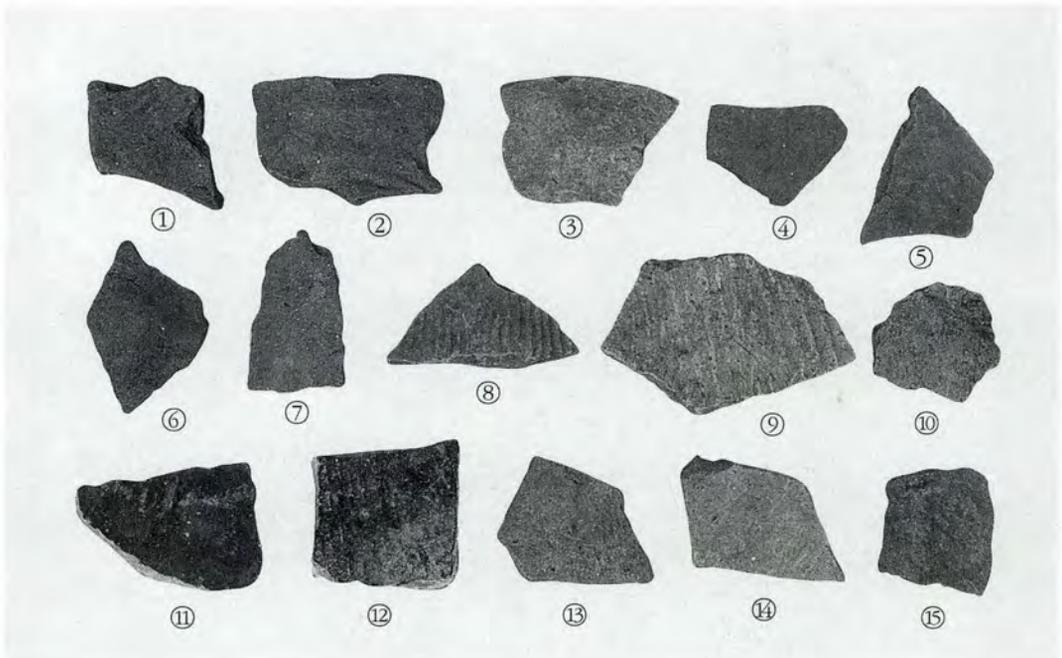


사진 108. 지표채집 토기류 4 (①~⑮ · 동체부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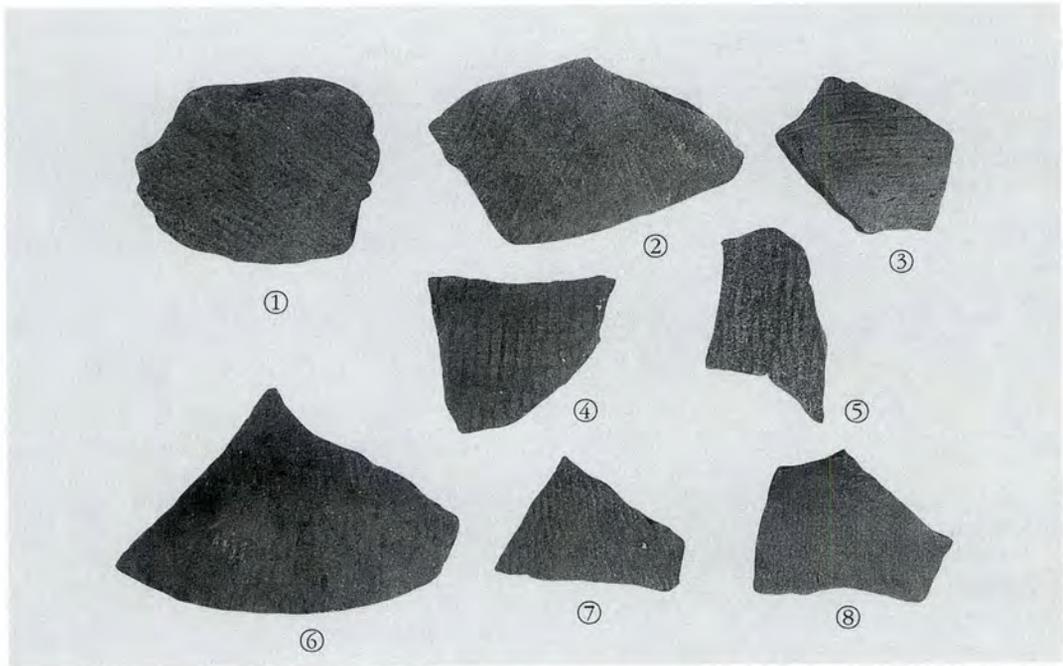


사진 109. 지표채집 토기류 5 (①~⑧ · 동체부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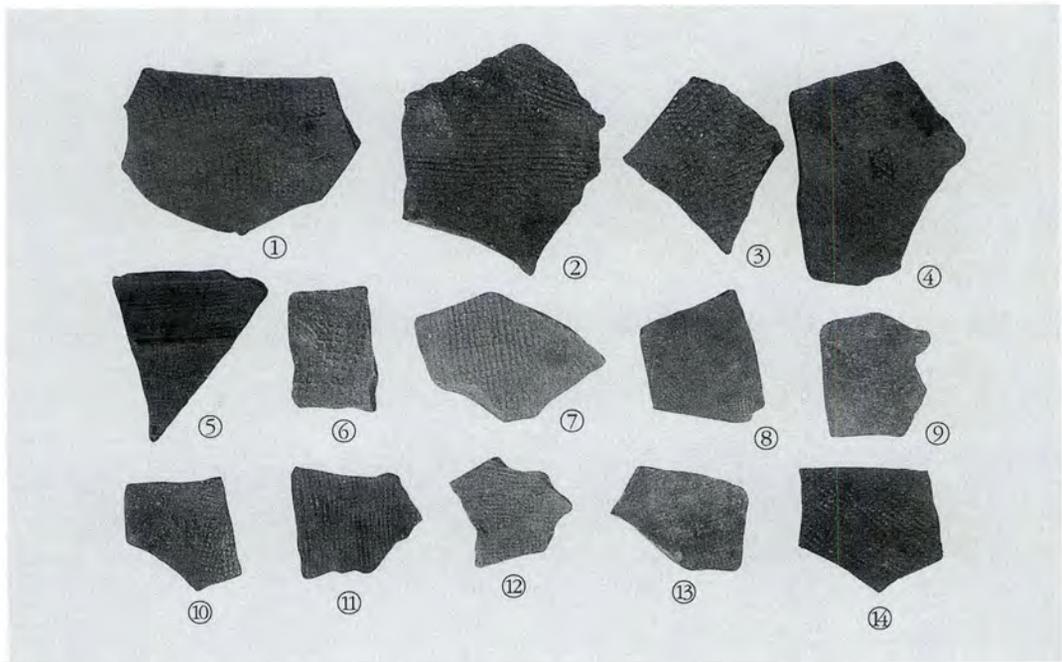


사진 110. 지표채집 토기류 6 (①~⑭ · 동체부편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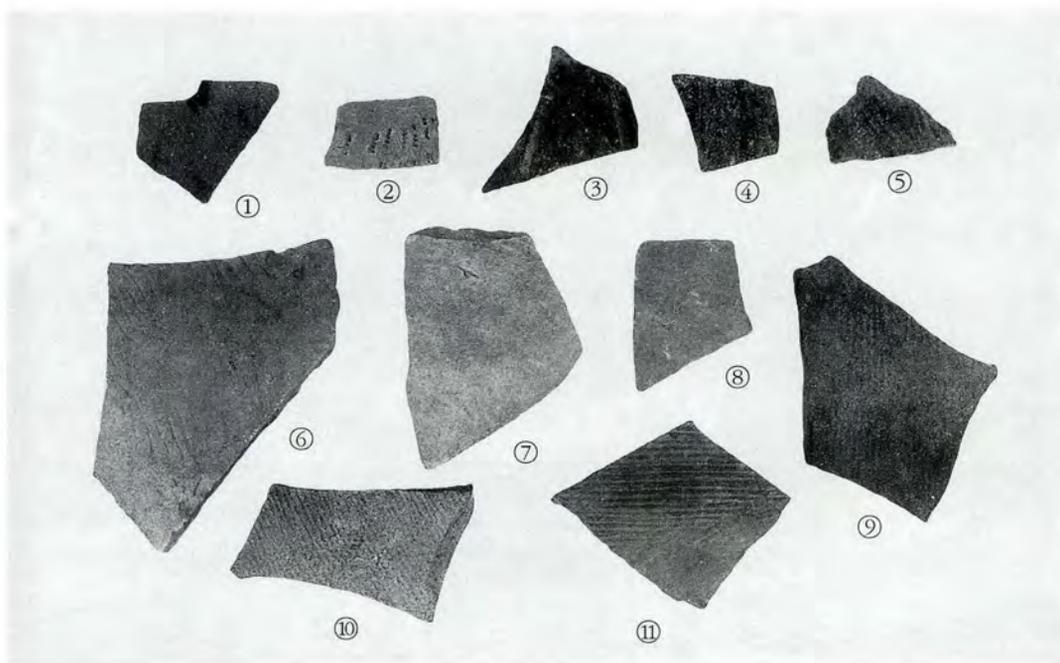


사진 111. 지표채집 토기류 7 (①~⑪ · 동체부편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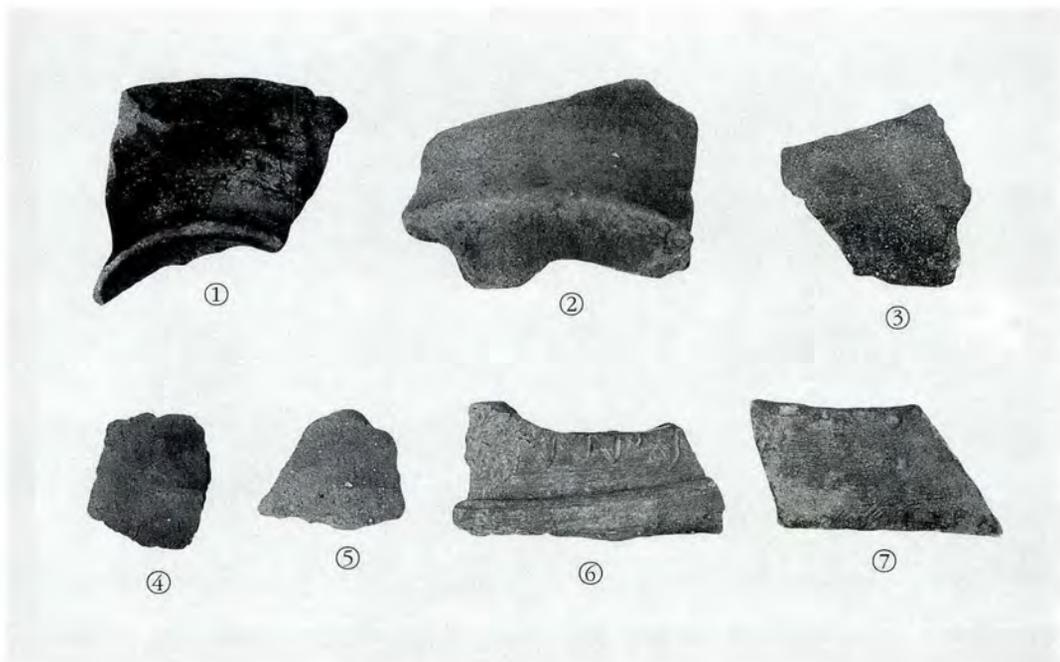


사진 112. 지표채집 토기류 8 (①~⑤ · 저부편, ⑥ 기대편, ⑦ 대상파수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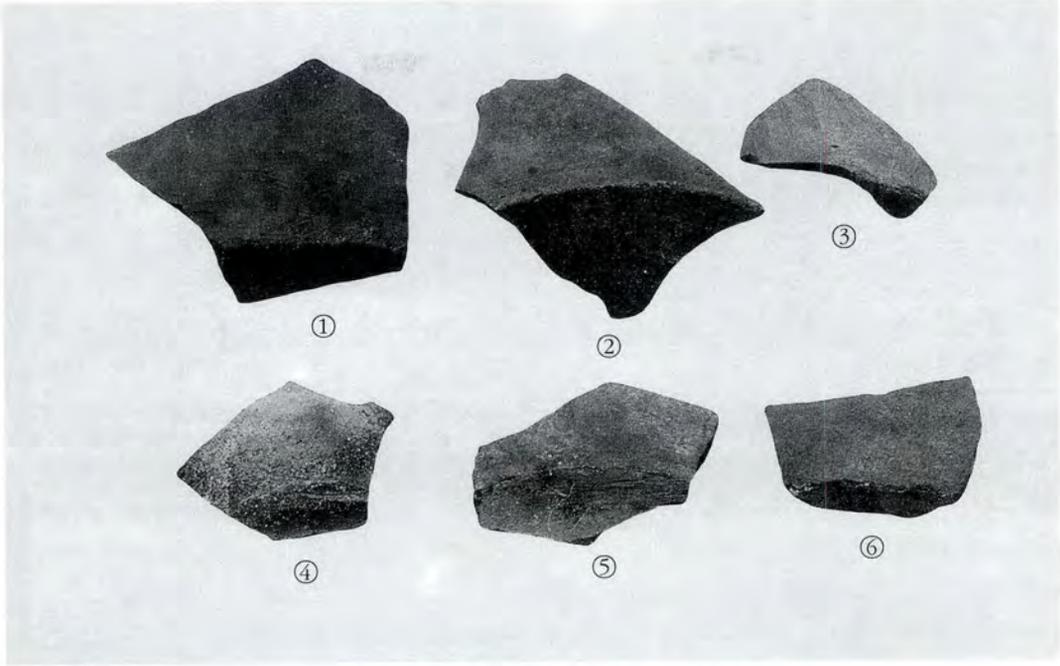


사진 113. 지표채집 토기류 9 (①~⑥ · 저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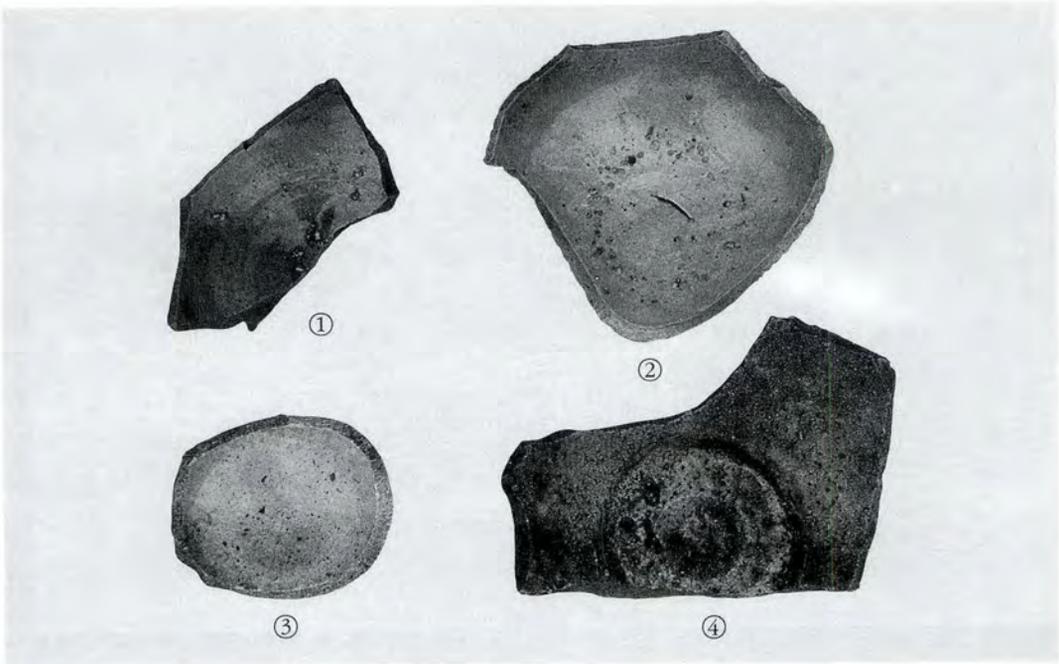


사진 114. 지표채집 자기류 (①~④ · 안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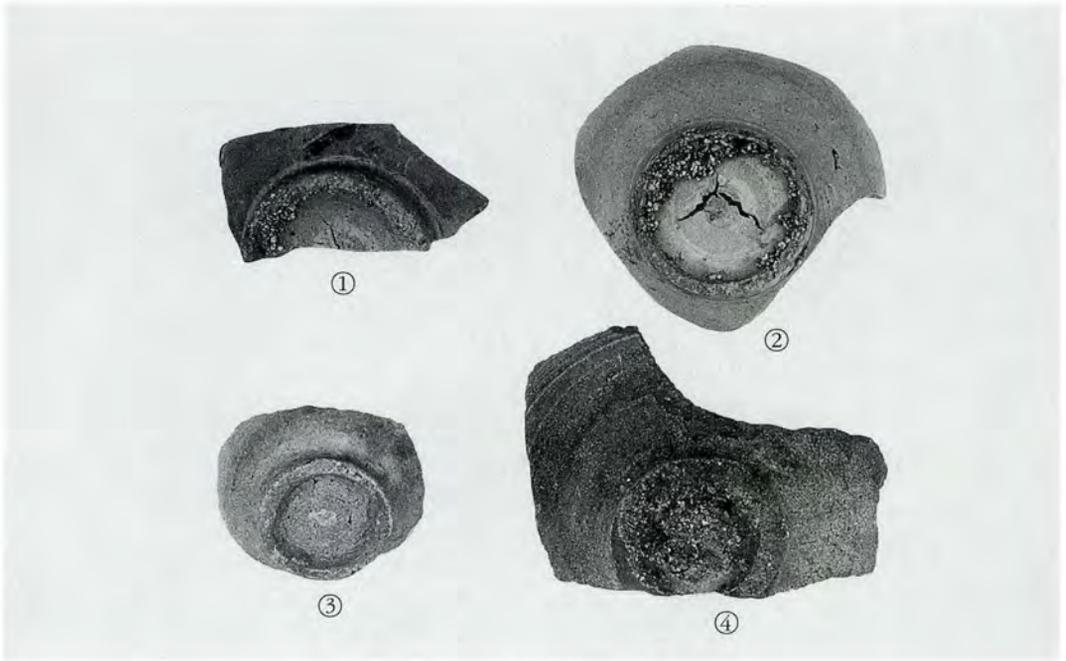


사진 115. 지표채집 자기류 (①~④ · 바닥)



사진 116. 지표채집 투석용 석환, 崇寧重寶

京畿道博物館 遺蹟調査報告 第2冊

抱川 永平川 流域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

宋 滿 榮

1999

京畿道博物館

일 력 두 기

1. 보고문은 경기도박물관이 학술조사의 일환으로 1998년 5월에 실시한 포천 영평천 유역에 대한 지표조사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
 2. 도면은 유적 위치도 1/15,000, 유물 1/3 축소를 원칙으로 하였다.
 3. 유적 위치도에서 유적의 범위를 Tone 처리하였으나, 실제 유적의 범위는 향후 시굴 조사 및 발굴조사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4. 지표조사 후 유물의 정리 및 제도, 트레이싱 작업은 송호(추계예술대학 동양화과 졸), 김휘선(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대학원)이 담당하였으며, 유적 및 유물 사진의 현상과 인화는 이상봉(동국전문대학 문화재관리과 졸)이 전담하였다.
 5. 도면, 사진의 편집 및 원고 작성은 송만영이 담당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이인숙(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교정·교열하였다.
-

目 次

| | |
|------------------------------|-----|
| I. 머리말 | 489 |
| II. 영평천 지역의 신발견 문화유적 | 490 |
| 1. 주원리 유물산포지 | 490 |
| 2. 오가리 원삼국시대 유물산포지 | 492 |
| 3. 주원리 조선시대 백자가마터 | 494 |
| 4. 성동리 삼국시대 유물산포지 | 496 |
| 5. 노곡리 청동기시대 주거지 | 501 |
| 6. 연곡리 만가대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 503 |
| III. 맺음말 | 506 |

圖 面 目 次

| | |
|--|-----|
| 도면 1. 주원리 유물산포지(A) 및 백자가마터(B) 위치도 | 491 |
| 도면 2. 주원리 유물산포지(①~⑬)와 오가리유적(⑭~⑳) 채집 유물 | 492 |
| 도면 3. 오가리유적 위치도 | 493 |
| 도면 4. 주원리 백자가마터 채집 유물(①~⑫) | 495 |
| 도면 5. 성동리유적 채집 유물(①~⑯) | 497 |
| 도면 6. 성동리유적 채집 유물(①~㉔) | 499 |
| 도면 7. 성동리유적 채집 유물(①~⑩) | 500 |
| 도면 8. 노곡리유적(A) 및 연곡리 만가대유적(B) 위치도 | 502 |
| 도면 9. 노곡리유적(①~⑫)과 연곡리 만가대유적(⑬~㉑) 채집 유물 | 504 |

寫眞目次

| | |
|--|-----|
| 사진 1. 주원리 유물산포지 전경(①:북동에서, ②:동에서) | 509 |
| 사진 2. 주원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①~⑬) | 510 |
| 사진 3. 오가리유적 전경(①:원경, ②:근경) | 511 |
| 사진 4. 오가리유적 채집 유물(①~⑬) | 512 |
| 사진 5. 주원리 백자가마터 전경(①:원경, ②:근경) | 513 |
| 사진 6. 주원리 백자가마터 채집 유물(①~⑫) | 514 |
| 사진 7. 성동리유적 전경(①:근경, ②:유적 파괴지역) | 515 |
| 사진 8. 성동리유적 노출 주거지(①)와 토기(②) | 516 |
| 사진 9. 성동리유적 주거지 출토 유물(①~⑩) | 517 |
| 사진 10. 성동리유적 주거지 출토 유물(①~④)과 주변 채집 유물(⑤~⑫) | 518 |
| 사진 11. 성동리유적 채집 유물(①~⑫) | 519 |
| 사진 12. 성동리유적 채집 유물(①~⑫) | 520 |
| 사진 13. 성동리유적 채집 유물(①~④) | 521 |
| 사진 14. 노곡리 청동기시대 주거지 전경(①:근경, ②:주거지 흔적) | 522 |
| 사진 15. 노곡리 주거지 채집 유물(①~⑫) | 523 |
| 사진 16. 연곡리 만가대유적 전경(①:근경, ②:유적 파괴지역) | 524 |
| 사진 17. 연곡리 만가대유적 채집 유물(①~⑨) | 525 |

表目次

| | |
|-----------------------------------|-----|
| 표 1. 포천 성동리 A호 주거지 출토 백제토기편 | 498 |
| 표 2. 포천 성동리 B호 주거지 출토 백제토기편 | 498 |
| 표 3. 포천 성동리유적 지표채집 동체부편 | 501 |

I. 머리말

경기 북부지역을 북에서 남으로 또는 동에서 서로 가로지르는 임진강 및 한탄강 일대에는 선사 및 역사시대의 많은 문화유적들이 집중분포하고 있어 오래 전부터 이들 대하천 유역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다. 반면, 이들 대하천에 유입되는 소지류의 문화유적에 대한 조사 및 이를 토대로 한 연구성과는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연구를 위한 기초조사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한탄강의 소지류인 영평천 유역만을 예로 들더라도 최근까지 몇 개소의 구석기유적이 소개되고(이선복 1988; 1989) 영송리유적에서 원삼국시대의 마을유적이 발굴되었을 뿐(김병모 외 1995), 이렇다 할 조사성과는 없다. 그런데 최근 포천군 전역의 문화유적에 대한 지표조사가 이루어지고, 이 내용이 보고서(단국대학교 사학과·포천군 1998)로 간행되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 소개한 문화유적만으로 포천 지역의 문화양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행정구역이 아닌 환경 중심의 소지역별, 또는 주제별로 지표조사 계획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점차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른 대하천의 소지류와 마찬가지로 이번 영평천 유역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우리의 선사 및 역사 문화를 밝혀줄 매우 중요한 유적들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발견된 대부분의 유적들이 알게 모르게 파괴되거나 현상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이어서, 앞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되어 갈 것이라는 예측이 상식선을 넘지 않는다면, 조만간 우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흔적조차 인멸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기도박물관에서는 본격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최소한의 유적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장기적인 연구 및 보존계획을 수립하고자 본 조사를 계획하게 되었다.

이번 영평천 유역의 문화유적에 대한 지표조사는 적은 인원으로 단기간에 걸쳐 실시되었기 때문에 주로 영평천 유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유적 발견에 주력하였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찾은 유적들은 대부분이 영평천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충적대지상에 생활근거를 둔 선사, 역사시대의 마을유적이다. 조사는 1998년 5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15일간 실시하였으며, 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사 단 장 : 장경호(경기도박물관장)

책임조사원 : 이인숙(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조 사 원 : 송만영(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조사보조원 : 송 호(추계예술대학 동양화과 졸)

이승배(현 건국대박물관 조교)

II. 永平川 流域의 新發見 文化遺蹟

이번 영평천 유역에 대한 지표조사 과정에서 마을유적으로는 청동기시대 유적 3개소, 원삼국시대 유적 1개소, 삼국시대 유적 1개소와 더불어 조선시대 가마터 1개소를 새로 확인하였다).

1. 주원리 유물산포지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도면 1, 사진 1)

전곡읍에서 37번 국도를 따라 포천 영중면 쪽으로 7.5km 가량 이동하면, 雲南橋에 도달하는데, 유적은 바로 운남교 동쪽의 긴 충적 대지상에 위치한다. 유물이 산포하고 있는 지역은 영평천 남쪽에 해당되며, 하천의 맞은 편은 해발 300~500m의 험준한 고지가 형성되어 있다. 유적에는 현재 “만수원”이라는 묘목원이 들어서 있으며, 하천변에는 대전차 방어벽이 축조되어 있다. 유물은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출토되었지만, 대부분 작은 편이고 수량도 많지 않다. 유물의 분포 범위는 길이 900m, 너비 125m 가량이다. 채집된 유물 가운데에는 무문토기편, 회청색 경질토기편 등이 있어 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의 생활유적이라 판단된다.

2) 유물

도면 2-①(사진 2-①)은 회황색 연질의 구연부편으로 구연 끝은 경미하게 외반되었다. 토기 내외면에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3cm

도면 2-②(사진 2-②)는 흑색 연질의 뚜껑편으로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뚜껑의 깊이는 얇은 편이며, 구연단은 다소 둥글게 처리되었다. 외면에는 희미한 3조의 횡침선이 돌아가며, 내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1.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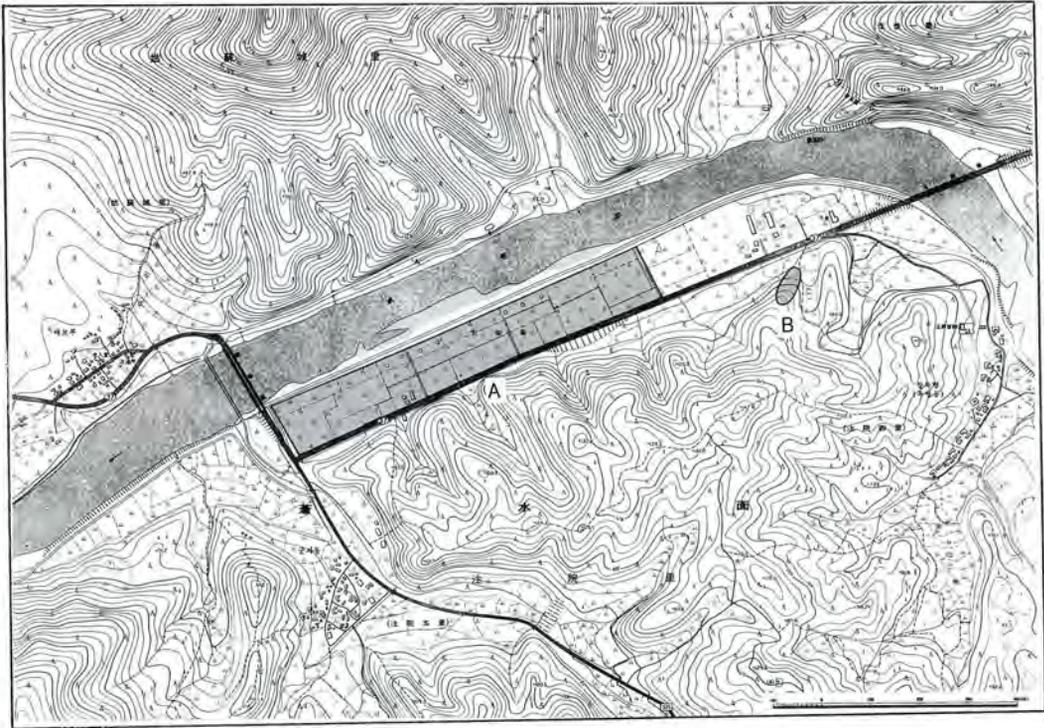
도면 2-③~⑥(사진 2-③~⑥)은 무문토기 동체부편이다. 굵은 석립이 섞인 점토로 만들었으며, 색조는 황갈색 내지 암갈색을 띤다.

도면 2-⑦~⑨는 무문의 삼국시대 토기편이다. 이 가운데 도면 2-⑦(사진 2-⑦)은 회색 경질토기편으로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으며, 내면에는 지두흔이 관찰된다.

도면 2-⑧(사진 2-⑧)은 기벽이 두터운 회색 경질토기편으로 경도가 무척 높은 편이다.

도면 2-⑨(사진 2-⑨)는 회청색 경질토기편으로 속심은 자색을 띤다. 내면에는 횡으로 물

1) 유적의 위치 및 포천 지역의 고고학적 환경은 『抱川 城東里 마을遺蹟』 II장 遺蹟의 位置 및 環境과 圖面 1 참조



도면 1. 주원리 유물산포지(A) 및 백자가마터(B) 위치도(1/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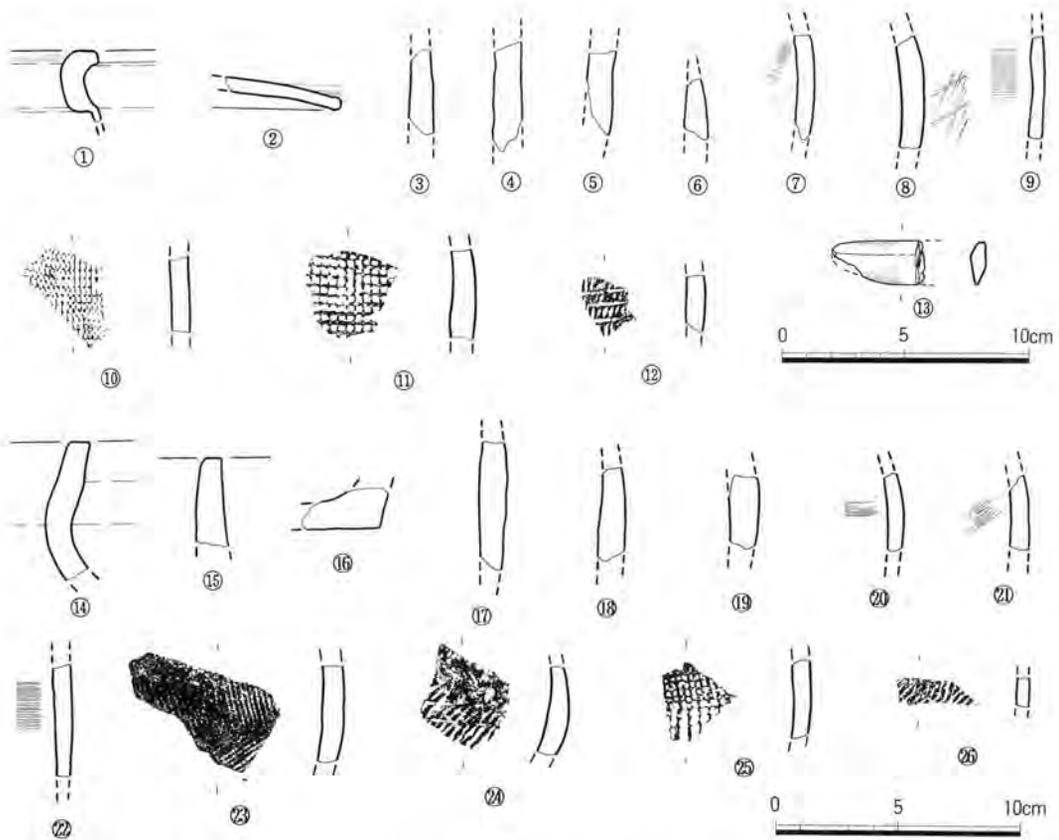
손질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도면 2-⑩~⑫는 타날문토기편으로 이 가운데 도면 2-⑩(사진 2-⑩)은 격자문이 교차 타날된 회색 경질토기편이다. 내면에는 황으로 물손질한 흔적이 남아 있다.

도면 2-⑪(사진 2-⑪)은 격자문이 타날된 회색 경질토기편으로 내면에 희미한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도면 2-⑫(사진 2-⑫)는 승문을 타날한 후 간격이 좁은 횡선을 여러 줄 돌린 회색 경질토기편이다. 내면의 색조는 흑색을 띤다.

도면 2-⑬(사진 2-⑬)은 미완성 석기편으로 한쪽 면에는 찰절기법으로 석재를 잘라낸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어떤 석기를 만들려고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길이: 3.7cm, 너비: 1.8cm, 두께: 0.6cm



도면 2. 주원리 유물산포지(①~⑬)와 오가리유적(⑭~⑳) 채집 유물(1/3)

2. 오가리 원삼국시대 유물산포지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도면 3, 사진 3)

주원리 가마터에서 37번 국도를 따라 동쪽으로 1.5km 가량 이동하면 관인면으로 향하는 도로와 만나게 되고, 이 삼거리로 부터 남쪽으로 약 500m 떨어진 영평천변에 본 유적이 위치한다. 행정구역상 포천군 창수면 오가리 774-1, 776-3번지 일대이다. 유적은 영평천의 충적대지상에 입지하고 있어 흑갈색의 비옥한 사질토가 펼쳐져 있다. 현재에는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유물의 분포 범위는 길이 200m, 너비 75m 가량이다. 채집된 유물 중에는 대다수가 중도식무문토기편이나 회색 및 회청색의 타날문토기편들이 보이고 있어 인접한 영송리유적과 동일 시기의 마을유적으로 판단된다.



도면 3. 오가리유적 위치도(1/15,000)

2) 유물

도면 2-⑭(사진 4-①)는 중도식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목부분에서 경미하게 외반된 구연은 직선적으로 벌어지며, 구연단은 다소 직선적으로 처리되었다. 굵은 석립이 섞인 점토로 만들었으며, 황갈색의 색조를 띤다. 토기 외면에는 탄소가 흡착되어 있으며, 내면에는 유기물질이 흡착되어 있다. 잔존고: 5.8cm

도면 2-⑮(사진 4-②)는 황갈색 연질의 중도식무문토기 구연부편으로 굵은 석립이 다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 내면에는 불규칙적인 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잔존고: 3.7cm

도면 2-⑯(사진 4-③)은 작은 석립이 다량 섞인 점토로 만든 저부편이다. 색조는 갈색을 띤다. 잔존고: 1.7cm

도면 2-⑰~⑳(사진 4-④~⑧)은 중도식무문토기의 동체부편으로 도면 2-⑳를 제외하고는 모두 굵은 석립이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색조는 황갈색 내지 암갈색을 띤다.

도면 2-㉓(사진 4-⑨)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으로 작은 석립이 섞인 점토로 만들

었다. 내면에는 황으로 물슨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도면 2-㉓~㉕은 타날문토기편이다. 이 가운데 도면 2-㉓(사진 4-⑩)은 승문이 교차 타날된 회색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작은 석립이 소량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도면 2-㉔(사진 4-⑪)는 승문을 타날한 후 황선을 돌린 회색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도면 2-㉕(사진 4-⑫)는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비교적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색조는 흑갈색을 띠는 연질 소성이다.

도면 2-㉖(사진 4-⑬)은 승문이 교차 타날되어 있으며, 색조는 회색을 띤다.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으며, 연질 소성이다.

3. 주원리 조선시대 백자가마터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도면 1, 사진 5)

가마터는 행정구역상 포천군 창수면 주원4리 산 215-1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주원리 원삼국시대 유물산포지로 부터는 남동쪽 250m 지점에 해당된다. 가마터는 북동쪽으로 뺀 해발 142m의 낮은 능선 끝자락에 입지하고 있으며, 가마터 앞쪽으로는 영평천이 남서 방향으로 곡류한다. 가마터가 위치하고 있는 능선부는 비교적 급한 경사면을 이루는데, 현재 이곳은 군부대의 참호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가마터의 상당 부분이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 지역에서 많은 양의 백자편과 함께 도침, 가마벽편 등이 채집되었는데, 도편의 분포 범위는 대략 길이 40m, 너비 20m 가량이다. 특히 초벌구이의 도편이 주로 능선의 상단부에서 채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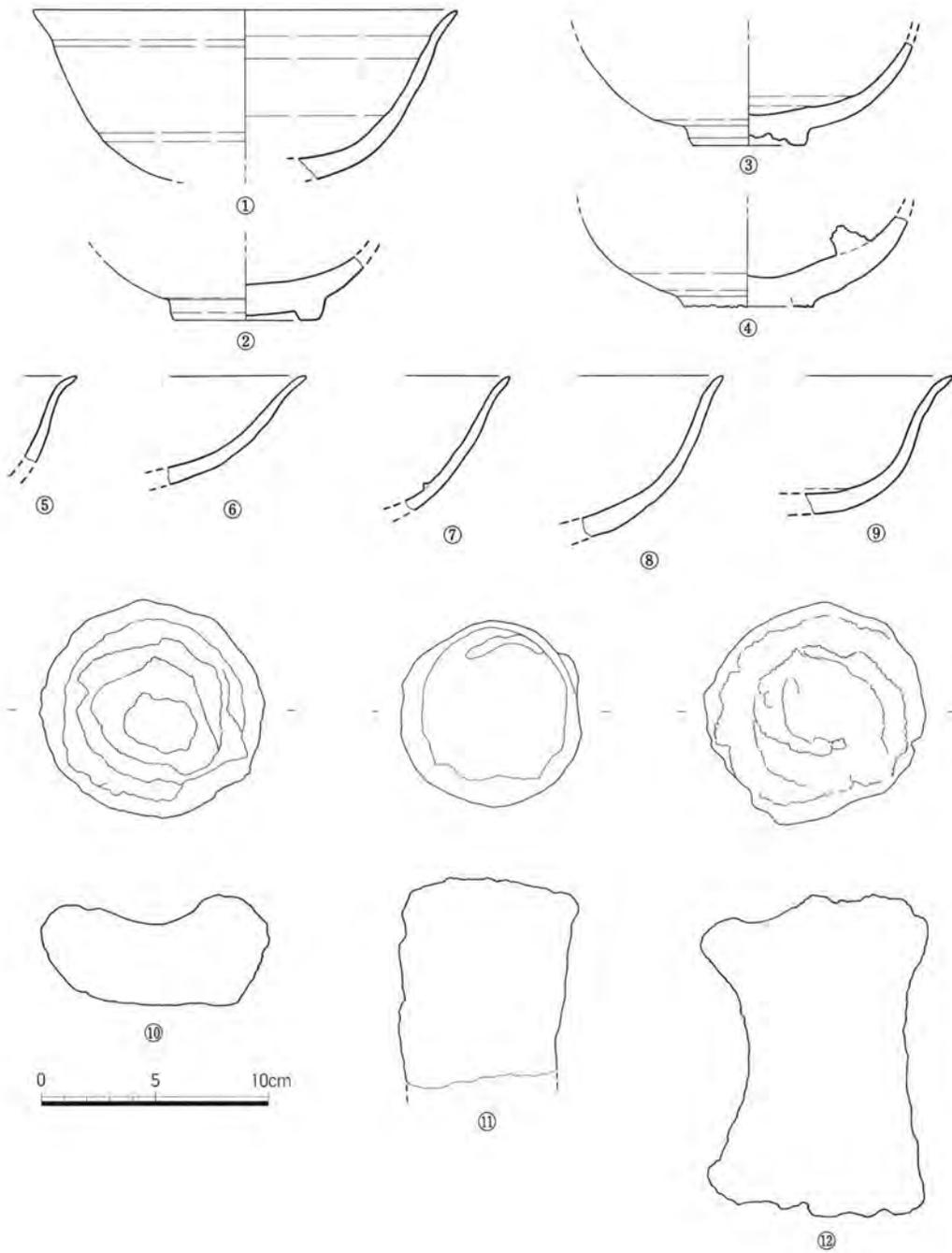
2) 유물

도면 4-①(사진 6-④)은 백자대접의 구연, 동체부편으로 구연 상단이 약간 벌어진다. 회색 도토로 빚은 다음, 전면에 청록색 유약을 시유하였다. 외면에는 부분적으로 유약이 흘러내리고 빙열이 관찰된다. 복원 구경: 18.9cm, 잔존고: 2.8cm

도면 4-②~④는 백자대접의 저부편이다. 이 가운데 도면 4-②(사진 6-①)는 가마의 상단부에서 채집된 미완성 상태의 초벌구이편이다. 정선된 도토로 빚었으며, 황갈색의 색조를 띤다. 굽의 높이는 낮고 접지면이 넓은 편이다. 잔존고: 2.8cm, 저경: 6.5cm

도면 4-③(사진 6-②)은 회색 도토로 만들었으며, 청록색의 유약을 시유한 저부편이다. 표면에는 조밀한 빙열이 관찰되며, 잡티가 묻어 있다. 굽의 높이는 낮은 편이며, 굽 안부분에는 굵은 洗沙가 묻어 있다. 잔존고: 4.5cm, 저경: 5cm

도면 4-④(사진 6-③)는 회색의 도토에 청록색의 유약을 띠는 저부편으로, 내면에는 번조



도면 4. 주원리 백자가마터 채집 유물(1/3)

시에 떨어진 가마벽편이 그대로 붙어 있다. 외면에는 잡티가 많이 묻어 있으며, 굽에도 굵은 洗沙가 가득 차 있다. 잔존고: 4cm, 저경: 5.8cm

도면 4-⑤~⑨(사진 6-⑤~⑨)는 백자대접의 구연부편으로 모두 회색 도토를 사용하여 만들었으며, 청록색의 유약을 시유하였다. 구연부는 상단부에서 약간 벌어지며, 구연단은 다소 날카롭게 처리되었다.

도면 4-⑩~⑫는 도침으로 이 가운데 도면 4-⑩(사진 6-⑩)만이 원반형 도침이고 나머지는 원통형이다. 상방의 접지면에는 굵은 洗沙가 두텁게 붙어 있다.

도면 4-⑩(사진 6-⑩): 직경 10cm, 높이 5cm

도면 4-⑪(사진 6-⑪): 직경 7.5cm, 높이 9cm

도면 4-⑫(사진 6-⑫): 직경 10cm, 높이 14.5cm

4. 성동리 삼국시대 유물산포지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사진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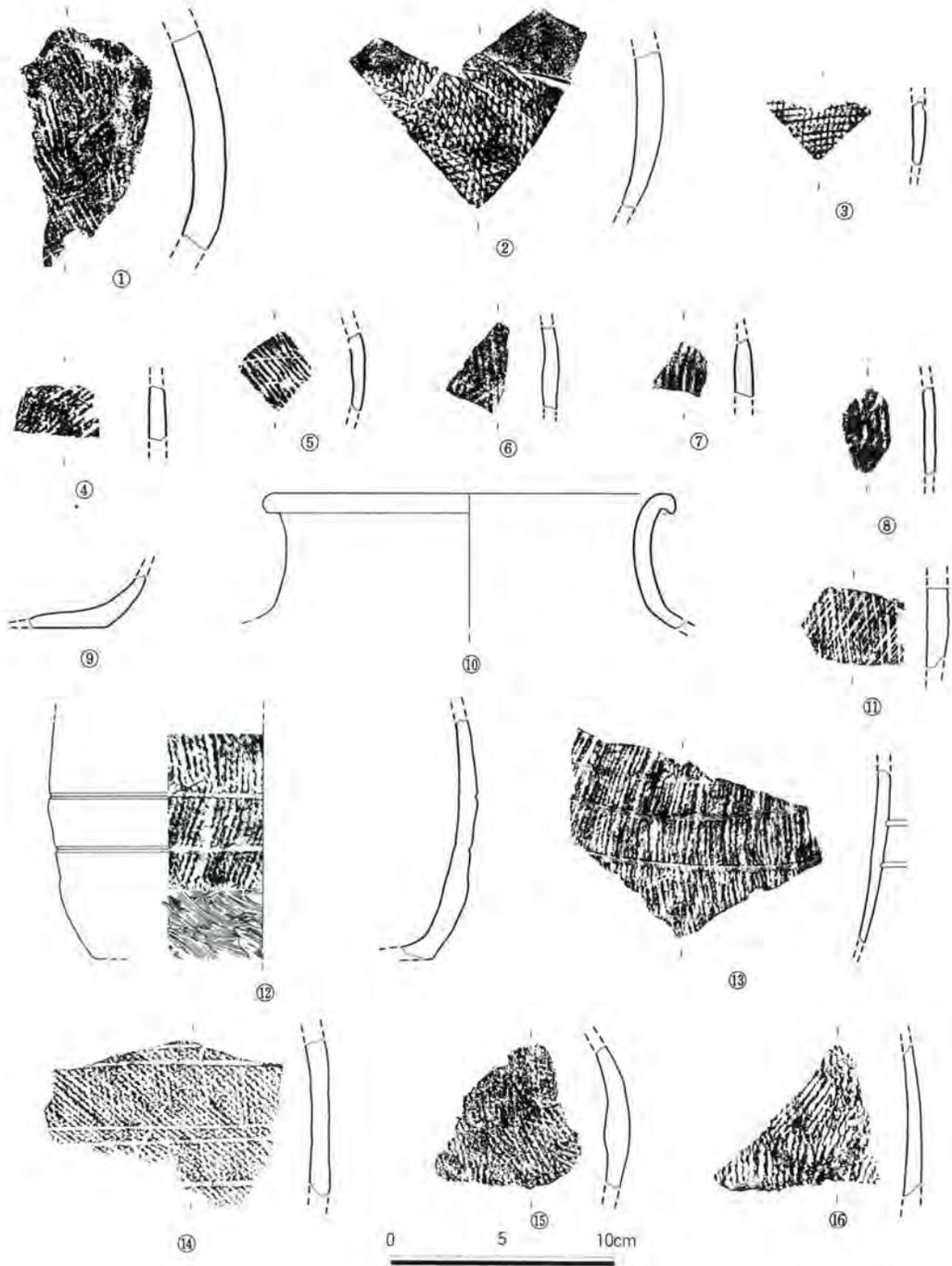
유적은 행정구역상 포천군 영중면 성동 5리에 위치한다. 포천읍에서 43번 국도를 타고 북쪽으로 14km 가량 이동하면 좌측의 전국 방향의 37번 국도와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동면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0.8km 직진하면 도로 우측에 유적으로 들어가는 비포장도로가 나온다. 이 비포장도로는 영평천을 가로지르는 白橋와 연결되는데 유적은 바로 白橋 건너 50m 지점에 위치한다. 영평천이 곡류하며 형성된 활주사면의 충적대지상에 형성된 유적으로 부식성이 많은 사질토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이 지역은 오래 전부터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논이고 하천과 인접된 일부분만이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유물의 분포범위는 길이 600m, 너비 260m 가량으로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있는데, 특히 상류 지역에서는 주로 신라토기가 채집된 반면, 하류 지역에서는 백제토기가 채집되고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하천 상류쪽으로 마을이 이동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영평천 일대는 건축용도의 양질의 모래가 많아 오래 전부터 토사 채취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었는데, 성동리유적 역시 최근 토사 채취로 인하여 유적의 일부가 잘려져 나갔다(사진 7-②). 토사 채취로 인하여 노출된 단애면 상에서 여러 기의 유구가 관찰되었는데, 육안으로도 주거지 7기, 소형유구 2기 등이 5~10m 간격으로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유구의 밀집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2) 유물

유물은 지표상에서 채집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단애면 상에 걸린 유구 내부에서 일괄로 채



도면 5. 성동리유적 채집 유물(1/3)

집된 유물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반된 토기 단위로 설명하기로 한다.

도면 5-⑩(사진 9-①)은 토사가 채취된 단애면 상에서 수습되었는데 주거지로 추정되는 유구 내부의 출토유물이다(사진 8-②). 회백색 연질의 구연부편으로 원저단경호로 추정된다. 구연부는 완만하게 외반하며, 끝에서 밖으로 말았다. 미세한 사립이 많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으며, 내면에는 황으로 물손질한 흔적이 남아 있다. 백제토기로 추정된다. 복원 구경: 18.5cm, 잔존고: 6.3cm

(표 1)에서 소개된 토기편들은 주거지로 추정되는 유구의 일괄 출토 토기편이다. 주거지는 내부퇴적층에서 관찰된 목탄편이나 출토 토기편으로 볼 때, 화재로 폐기된 백제주거지로 판단되며, 편의상 A호 주거지로 칭한다.

(표 1) 포천 성동리 A호 주거지 출토 백제토기편

| 도면 | 사진 | 색조 | 경도 | 태도 | 특 징 |
|-----|-----|-----|----|--------|------------------------------|
| 5-⑪ | 9-③ | 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교차승문 |
| 5-⑫ | 9-② | 회황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심발형토기, 승문+황선, 저부에 깎기흔 |
| 5-⑬ | 9-④ | 적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황선, 내면은 황색, 내면에 불규칙적인 물손질 |
| 5-⑮ | 9-⑤ | 회흑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교차승문, 내면은 회색 |
| 5-⑯ | 9-⑥ | 회황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교차승문, 내면은 회흑색 |
| 7-① | 9-⑦ | 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 내면에 불규칙적인 물손질 |
| 7-② | 9-⑧ | 회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 외면은 암갈색 색조에 탄소 흡착 |
| 7-④ | 9-⑨ | 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교차승문 |
| 7-⑤ | 9-⑩ | 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황선 |

(표 2) 포천 성동리 B호 주거지 출토 백제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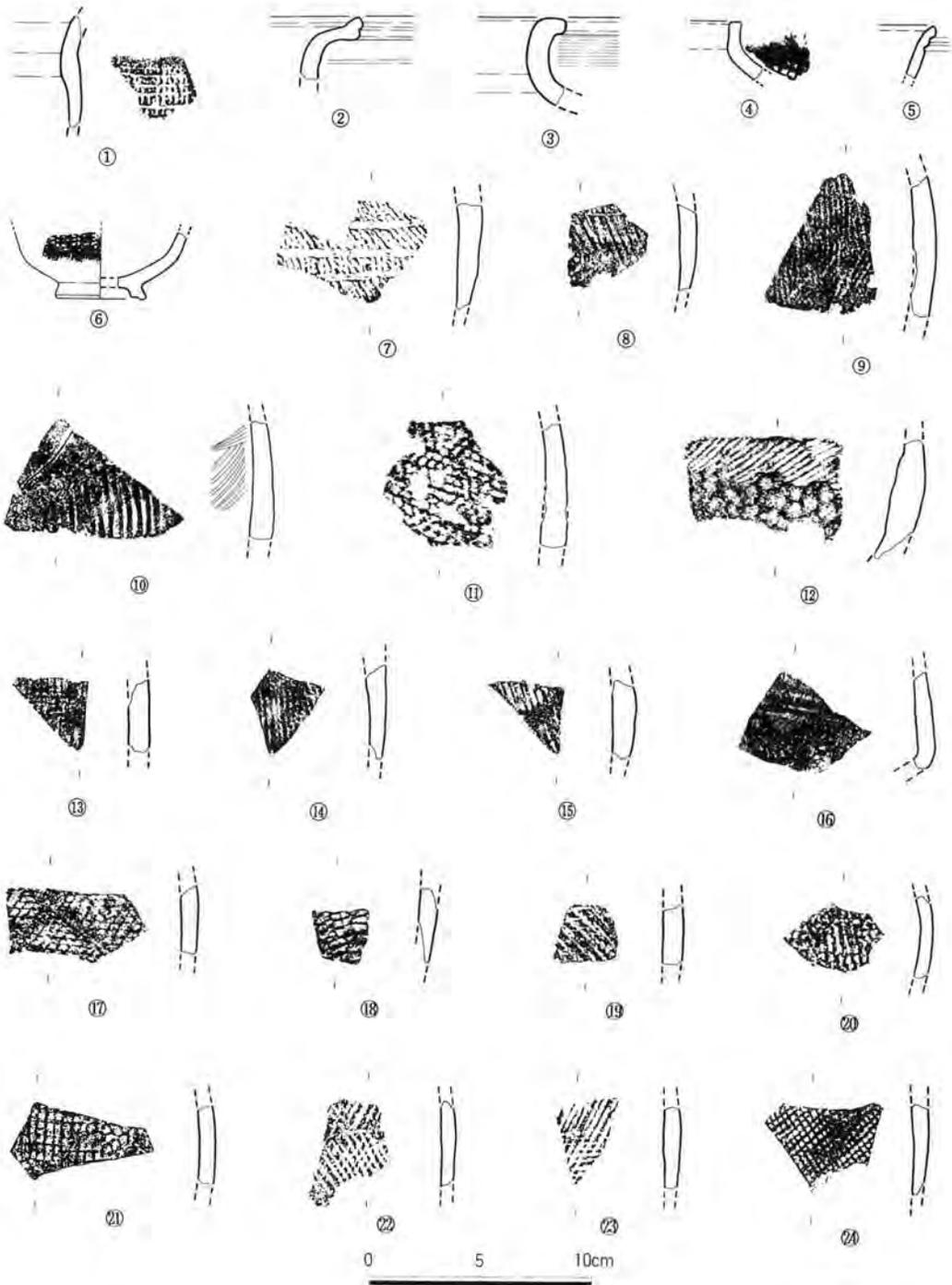
| 도면 | 사진 | 색조 | 경도 | 태도 | 특 징 |
|-----|------|-----|----|--------|---------------------------|
| 7-③ | 10-① | 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 내면에 유기물질 흡착 |
| 7-⑥ | 10-② | 흑색 | 경질 | 점토 | 교차격자문 |
| 7-⑦ | 10-③ | 회백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승문 |
| 7-⑨ | 10-④ | 흑색 | 경질 | 점토 | 도면 7-⑥과 동일 개체로 추정. 외면에 마연 |

(표 2)의 토기편은 A호 주거지로 부터 약 5m 가량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백제주거지의 출토 토기편이다. 편의상 B호 주거지로 칭한다.

기타 유적 주변에서 채집된 토기편들이다.

도면 6-②(사진 10-⑤)는 신라토기의 구연부편이며, 회흑색 경질이다. 구연부는 수평상 외반되며, 구연단은 요철이 있다. 잔존고: 2.9cm

도면 6-③(사진 10-⑥)은 암회색의 경질토기이며, 소성은 석기질에 가깝다. 구연 끝은 짧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다소 둥글게 처리되었다. 잔존고: 4cm



도면 6. 성동리유적 채집 유물(1/3)

도면 6-④(사진 10-⑦)는 동체부에 격자문이 타날된 구연부편이며, 색조는 흑회색을 띠는 연질 소성이다. 작은 석립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 내면에는 황으로 물손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백제토기로 추정된다. 잔존고: 2.7cm

도면 6-⑤(사진 10-⑧)는 신라토기인 甬의 구연부편이다. 회백색 연질 소성이며, 구연부 아래에 2조의 황선이 돌아간다. 잔존고: 2.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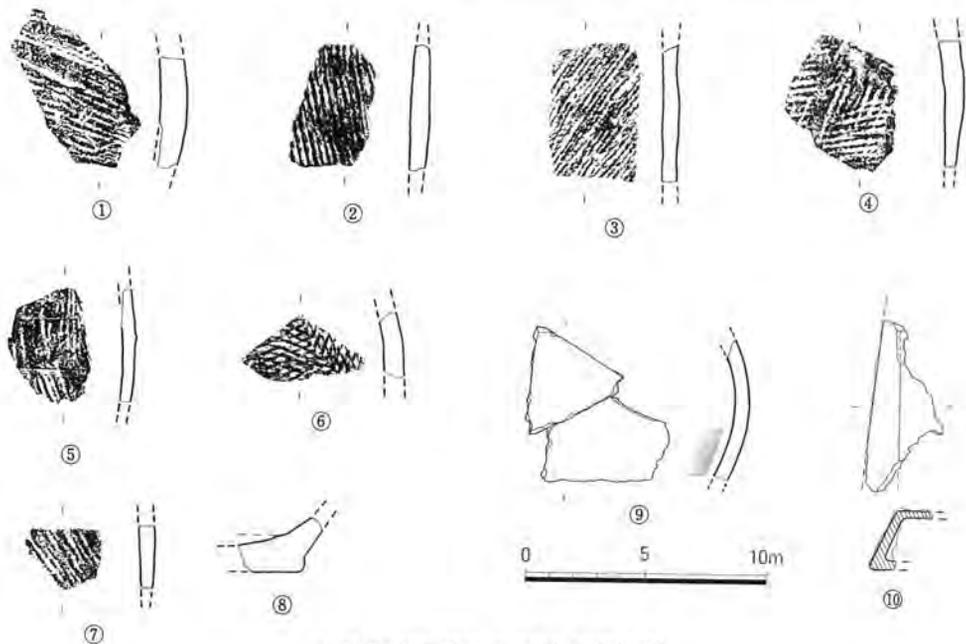
이 외에 동체부편 28점이 채집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도면 5-⑨(사진 13-①)는 회색 연질토기의 저부편으로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토기의 내외면은 검게 그을렸다. 잔존고: 2.3cm

도면 6-⑥(사진 13-②)은 회흑색 경질토기의 저부편이다.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으며, 표면에는 부분적으로 자연유가 관찰된다. 동체부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복원 저경: 4.1cm, 잔존고: 3cm

도면 7-⑧(사진 13-③)은 암갈색 연질의 저부편으로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백제토기로 추정된다. 잔존고: 2.4cm

도면 7-⑩(사진 13-④)은 주조철부편으로 좌측면 일부만 남은 것이다. 부식이 심한 편이며, 주조철부의 횡단면은 梯形이다. 잔존 길이: 7.5cm, 잔존 너비: 3cm, 두께: 2.5cm



도면 7. 성동리유적 채집 유물(1/3)

(표 3) 포천 성동리유적 지표채집 동체부편

| 도면 | 사진 | 색조 | 경도 | 태도 | 특징 |
|-----|------|-----|----|--------|--------------------------|
| 5-① | 10-⑨ | 황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백제토기, 교차승문 |
| 5-② | 10-⑩ | 흑회색 | 경질 | 점토 | 백제토기, 교차격자문, 내면 흑색 |
| 5-③ | 10-⑪ | 회색 | 연질 | 정선된 점토 | 백제토기, 격자문 |
| 5-④ | 10-⑫ | 황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백제토기, 승문 |
| 5-⑤ | 11-① | 흑회색 | 연질 | 점토 | 백제토기, 승문+횡선 |
| 5-⑥ | 11-② | 회청색 | 경질 | 점토 | 신라토기, 얇은 승문 |
| 5-⑦ | 11-③ | 회청색 | 경질 | 점토 | 신라토기, 얇은 승문, 속심은 자색 |
| 5-⑧ | 11-④ | 암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백제토기, 승문, 내면은 황색 |
| 5-⑭ | 11-⑤ | 황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백제토기, 승문+횡선, 내면에 유기물질 흡착 |
| 6-① | 11-⑥ | 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백제토기, 승문+횡선 |
| 6-⑦ | 11-⑦ | 흑회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백제토기, 승문+횡선 |
| 6-⑧ | 11-⑧ | 회색 | 경질 | 점토 | 신라토기, 얇은 교차승문+횡선 |
| 6-⑨ | 11-⑨ | 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백제토기, 교차승문 |
| 6-⑩ | 11-⑩ | 회색 | 경질 | 점토 | 신라토기, 얇은 승문, 내면에 내박자흔 |
| 6-⑪ | 11-⑪ | 황백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백제토기, 격자문 |
| 6-⑫ | 11-⑫ | 황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백제토기, 승문+격자문 |
| 6-⑬ | 12-① | 회청색 | 경질 | 점토 | 신라토기, 얇은 승문 |
| 6-⑭ | 12-② | 회백색 | 경질 | 점토 | 신라토기, 얇은 승문, 속심은 자색 |
| 6-⑮ | 12-③ | 회색 | 경질 | 점토 | 신라토기, 얇은 승문 |
| 6-⑯ | 12-④ | 회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신라토기, 얇은 승문, 내면은 황색 |
| 6-⑰ | 12-⑤ | 회흑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백제토기, 격자문, 내면은 흑색 |
| 6-⑱ | 12-⑥ | 명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백제토기, 격자문, 속심과 내면은 흑색 |
| 6-⑲ | 12-⑦ | 적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백제토기, 승문 |
| 6-⑳ | 12-⑧ | 회색 | 연질 | 점토 | 신라토기, 격자문, 내면은 갈색 |
| 6-㉑ | 12-⑨ | 적갈색 | 연질 | 점토 | 백제토기, 격자문, 외면에 탄소흡착흔 |
| 6-㉒ | 12-⑩ | 회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백제토기, 교차승문 |
| 6-㉓ | 12-⑪ | 황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백제토기, 교차승문, 속심은 흑색 |
| 6-㉔ | 12-⑫ | 회색 | 연질 | 점토 | 백제토기, 격자문 |

5. 노곡리 청동기시대 주거지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도면 8, 사진 14)

행정구역상 포천군 이동면 노곡리 1432-1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성동리 유적에서 이동유리지 방향의 지방도로를 따라 9km 가량 이동하면 노곡교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남동방향으로 750m 떨어진 영평천변에 본 유적이 위치한다. 주거지는 영평천이 곡류하면서 형성된 자연제방의 모래언덕에 형성되어 있는데, 최근 이 부분을 삭토하여 밭으로 경작하면서 주거지가 노출되었다. 주거지는 흑갈색점토사질층에 형성되어 있으나, 경작으로 인하여 대부분 파괴되고 소토화된 점토덩어리와 함께 목탄편이 지표상에 드러나 있어, 화재주거지의 흔적만을



도면 8. 노곡리유적(A) 및 연곡리 만가대유적(B) 위치도(1/15,000)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유물은 목탄 분포 범위 내에서 무문토기 동체부편과 함께 반월형석도편을 채집하였으며, 주변 지역에서 공렬토기 구연부편을 비롯한 무문토기편과 함께 석부 1점, 가공의 흔적이 있는 석재 1점을 채집하였다. 유물의 분포범위는 길이 80m, 너비 20m 가량이나, 주변의 논이나, 인삼밭에서도 소량의 무문토기편이 채집되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넓은 범위에 걸쳐 청동기시대의 취락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유물

도면 9-①(사진 15-①)은 孔列土器 구연부편이다.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으며, 구멍은 안에서 밖으로 완전 투공하였다. 작은 석립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황갈색의 색

조를 떠다. 잔존고: 3.7cm, 구멍 직경: 0.5cm

도면 9-②(사진 15-②)는 황갈색 연질의 무문토기 구연부편으로 굽은 석립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은 약간 벌어지며, 구연단은 직선적으로 처리하였다. 잔존고: 2.9cm

도면 9-③~⑨(사진 15-③~⑨)는 무문토기 동체부편으로 모두가 굽은 석립이 다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토기의 내외면에는 목리굽기흔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도면 9-⑩(사진 15-⑩)은 半月形石刀片으로 구멍은 양쪽에서 투공하였다. 刃部는 單刃이지만, 반대쪽도 약간 마연하여 날을 세웠다. 잔존길이: 6cm, 잔존너비: 4.5cm, 두께: 0.65cm

도면 9-⑪(사진 15-⑪)은 주저지 주변에서 채집된 타제석부로 주로 측면부를 여러 차례 잔다듬질하여 제작하였다. 刃部를 두텁게 처리한 것으로 보아, 타격력을 염두에 둔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석기의 횡단면은 블록렌즈형이다. 길이: 13.5cm, 너비 8.5cm, 두께: 2.6cm

도면 9-⑫(사진 15-⑫)는 석기 제작에 사용된 몸돌로서 표면에는 여러 차례 타격한 흔적이 남아 있다. 길이: 11.5cm, 너비: 8.5cm, 두께: 5.8cm

6. 연곡리 만가대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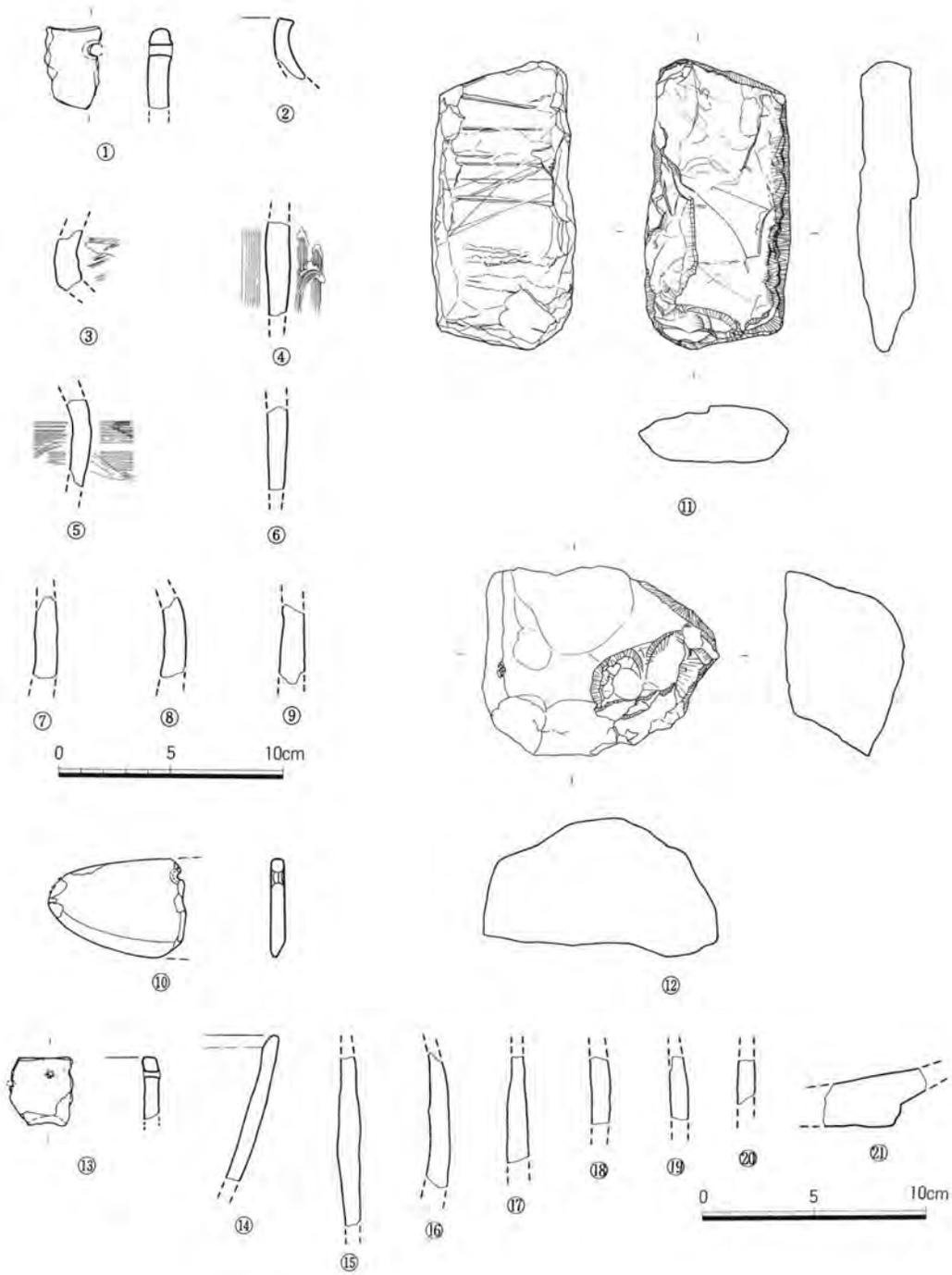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도면 8, 사진 16)

노곡리 유적에서 이동유원지 방향으로 지방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도로 우측에 비교적 높은 봉우리가 우뚝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봉우리를 매바위라고 부르는데, 유적은 이 봉우리의 남쪽 4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행정구역상 포천군 이동면 연곡리 957, 957-1번지 일대에 해당된다. 일명 “만가대”라고 불리는 마을 앞에는 영평천에 인접하여 경작지가 펼쳐져 있는데, 최근 토사채취가 이루어지면서 토기편이 노출되었다. 전체 유적 가운데 약 1/3 가량이 토사채취로 삭토되었는데,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중 일부의 토사는 노곡주유소 인접 경작지에 성토되었다고 한다. 확인결과, 노곡주유소 인접 경작지에서 만가대에서 채집된 무문토기와 유사한 토기편들을 수습할 수 있었다.

유물의 분포범위는 길이 100m, 너비 75m 가량으로 출토유물은 공렬토기 구연부편과 소량의 무문토기 동체부편들이다.

2) 유물

도면 9-⑬(사진 17-①)은 孔列土器 구연부편으로 작은 석립이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구멍은 안에서 밖으로 뚫었으며, 내외면에는 희미한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3cm, 구멍 직경: 0.2cm



도면 9. 노곡리유적(①~⑫)과 연곡리 만가대유적(⑬~⑳) 채집 유물(1/3)

도면 9-⑭(사진 17-③)는 심발형토기로 추정되는 구연부편으로 구연단은 등글게 처리하였다. 미세한 사립이 다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황갈색의 색조를 띤다. 토기 외면에는 일부 탄소가 흡착된 흔적이 남아 있다. 잔존고: 6.7cm

도면 9-⑮~⑲(사진 17-④~⑧)는 무문토기 동체편이다. 암갈색 내지 황갈색의 색조를 띠며, 작은 석립 내지 사립이 소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이 가운데 도면 9-⑰를 제외한 토기편들은 모두 내면에 목리긋기로 정면하였으며, 도면 9-⑰(사진 17-⑥)의 토기편 내면에는 유기물질이 탄화된 흔적이 남아 있다.

도면 9-⑳(사진 17-⑨)은 회황색의 연질토기로서 외면에 1조의 횡선이 돌아간다.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으며, 내면에는 횡으로 물손질하였다. 삼국시대 토기편으로 추정된다.

도면 9-㉑(사진 17-②)은 무문토기 저부편으로 굵은 석립이 소량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색조는 황갈색을 띠며, 저부와 동체부를 접합할 때, 남겨진 지두흔이 관찰된다.

Ⅲ. 맺음말

포천 영평천 유역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유적 3개소, 원삼국시대 유적 1개소, 삼국시대 유적 1개소, 조선시대 백자가마터 1개소 등 모두 6개소의 유적을 새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짧은 조사 기간으로 인하여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군부대 시설 및 사유지에는 조사 지역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향후 체계적인 계획 하에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많은 유적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조사에서 새로 찾은 유적의 성격은 대부분이 마을유적이다. 이들 유적들은 영평천의 하상운동으로 형성된 충적대지에 분포하고 있는데, 청동기시대 이래로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삶의 주 터전으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포천 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은 지금까지 지식묘만 알려져 있을 뿐이었는데, 최근 반월산성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반월형석도와 흙자귀가 출토되었으며, 관인면 중리에서도 반월형석도와 함께 무문토기가 채집되었다. 그리고 이번 지표조사에서도 청동기시대의 유물산포지 3개소가 새로이 조사되었는데 공렬토기·반월형석도로 볼 때,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의 무문토기문화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오가리유적에서는 중도식무문토기편과 함께 타날문토기편들이 채집되었다. 출토 유물만 가지고 편년적 위치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조사된 영송리유적과 함께 경기북부지역의 원삼국 문화를 조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기도박물관에서 조사한 파주 주월리유적에서도 중도식무문토기가 출토됨에 따라 중도식무문토기 문화의 북한계선은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된다.

성동리유적과 주원리유적에서는 삼국시대 토기편들이 채집되었다. 특히 성동리유적은 한성백제시대의 토기편과 함께 신라토기편들이 채집되어 중부지방에 있어서 삼국시대 문화의 변천과정을 밝힐 수 있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경기북부지방에서 신라의 마을유적이 처음으로 발견됨으로써 삼국전쟁기 신라의 지방 경영의 단면을 파악하는 데 있어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성동리유적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유적들이 골재 채취 및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기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대한 조사도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이미 유적의 존재가 밝혀진 문화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박물관에서는 경기북부지역의 문화유적에 대한 장기적인 조사 계획을 추진해 나갈과 동시에 이들 유적에 대한 보호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문헌

- 이선복 1988, 「신발견 구석기유적 소개」 『고고인류학론총』, 손보기박사 정년기념논문총
이선복 1989, 『동북아시아의 구석기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김병모 외 1995, 『영송리 선사유적』, 한양대학교박물관
단국대학교 사학과·포천군 1998, 『포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여 백



①



②

사진 1. 주원리 유물산포지 전경(①:북동에서, ②:동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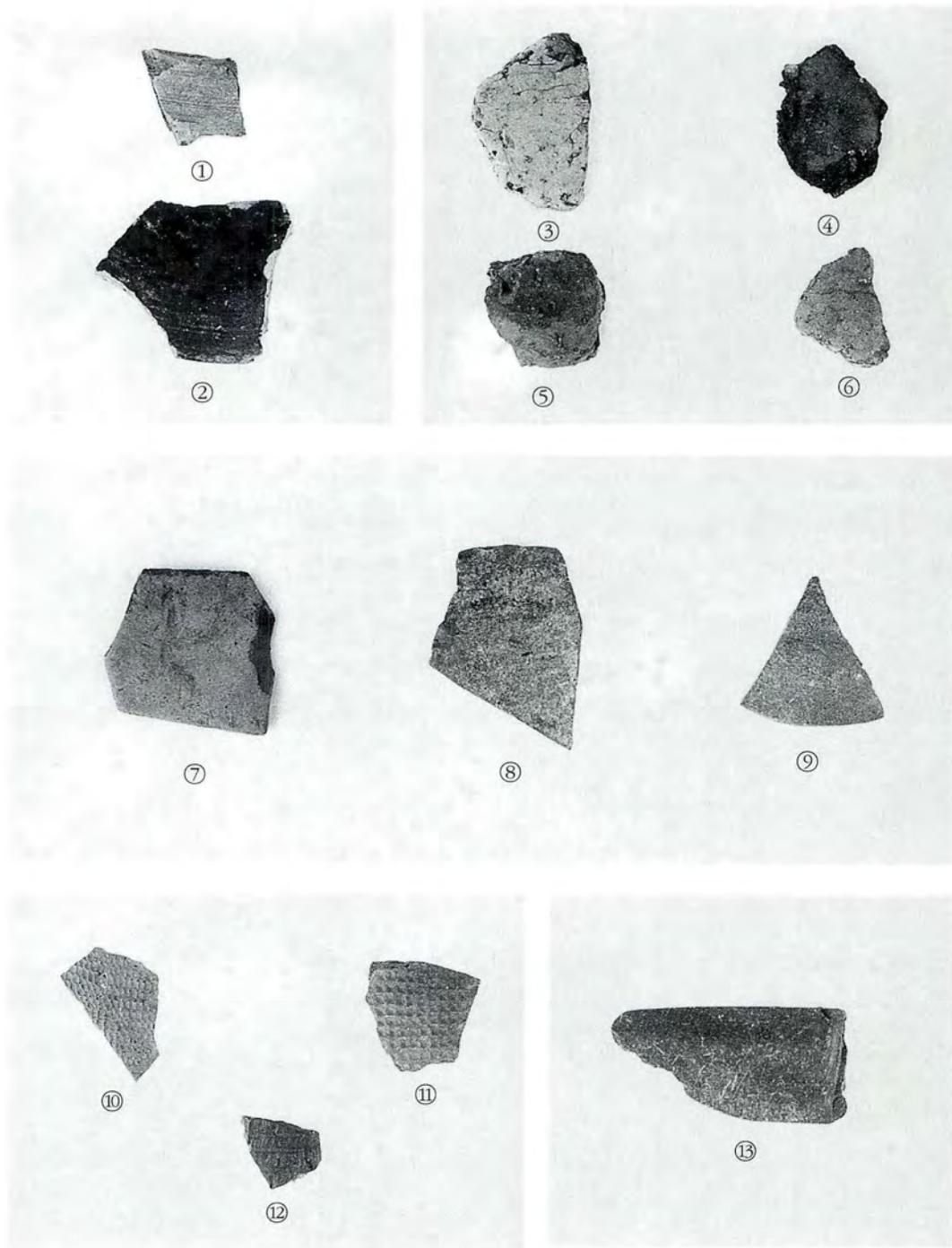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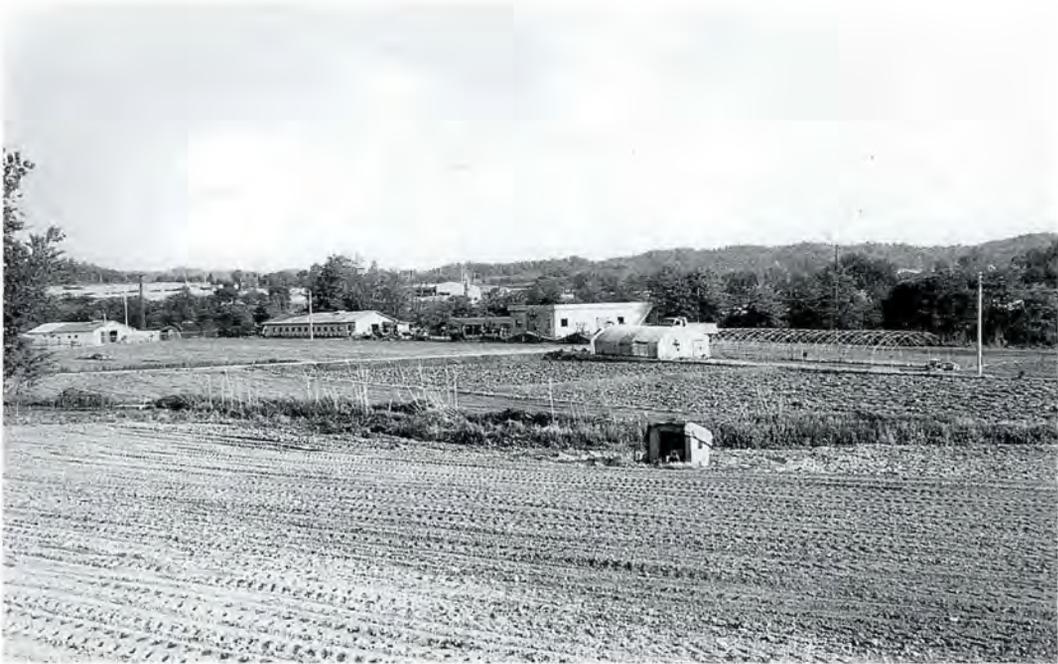


사진 2. 주원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①~⑬)



①



②

사진 3. 오가리유적 전경(①:원경, ②: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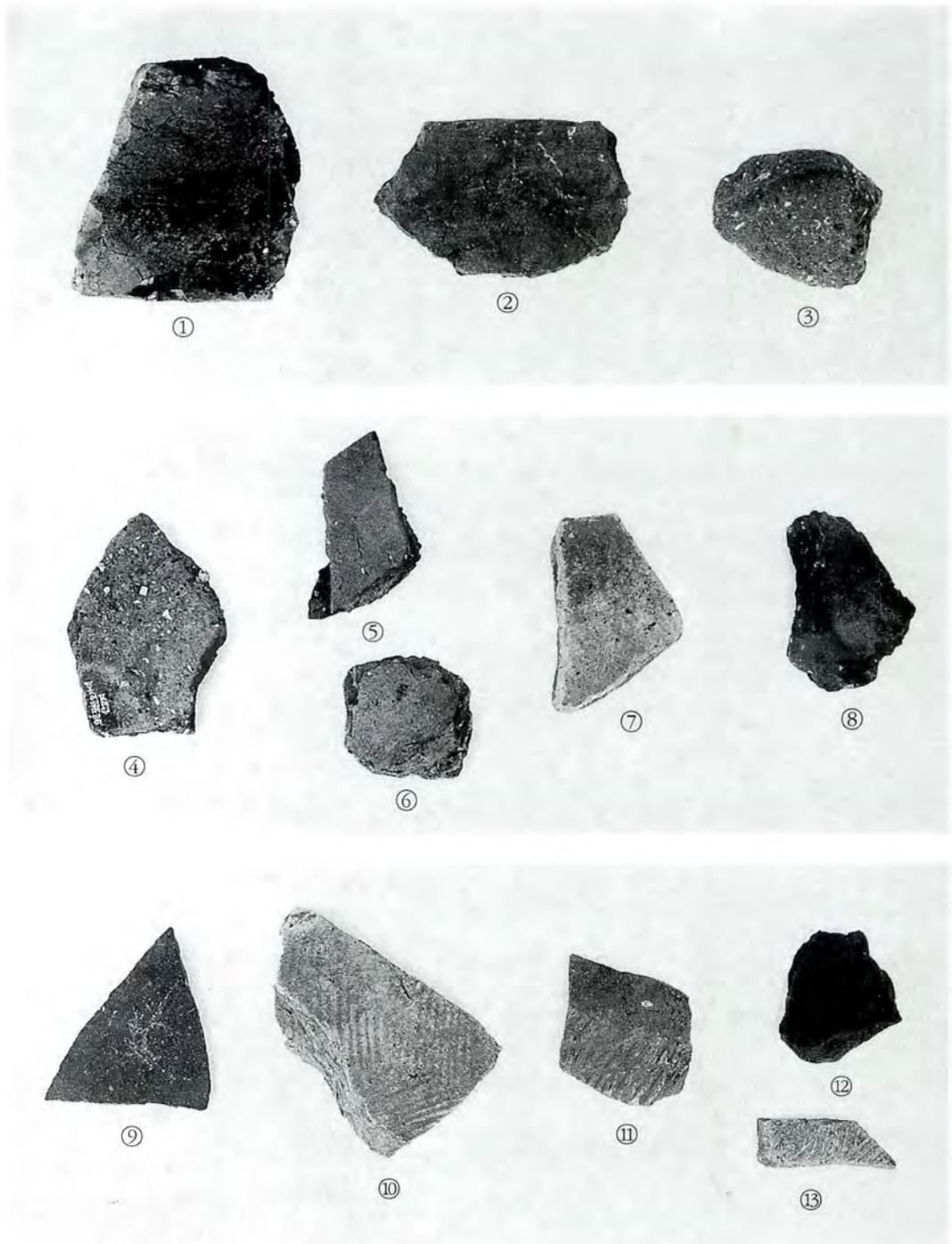


사진 4. 오가리유적 채집 유물(①~⑬)



①



②

사진 5. 주원리 백자가마터 전경(①:원경, ②: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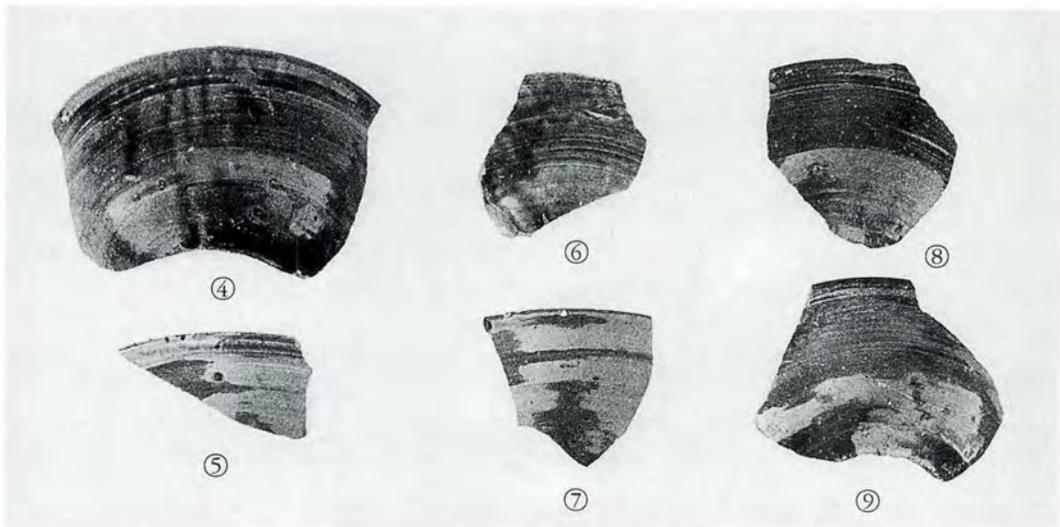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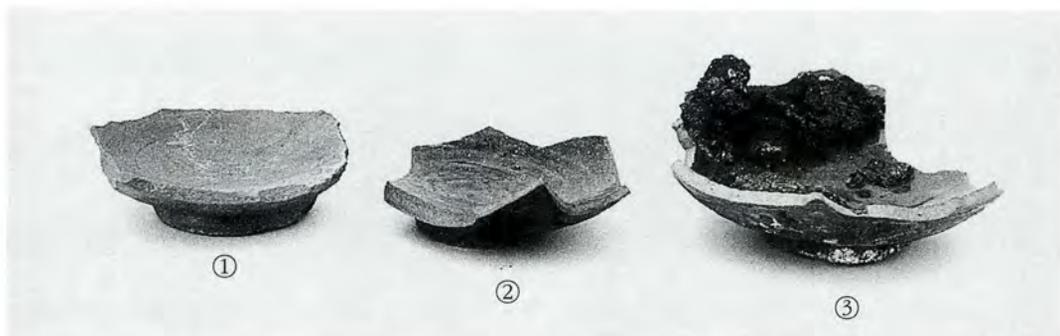


사진 6. 주원리 백자가마터 채집 유물(①~⑫)



①



②

사진 7. 성동리유적 전경(①:근경, ②:유적 파괴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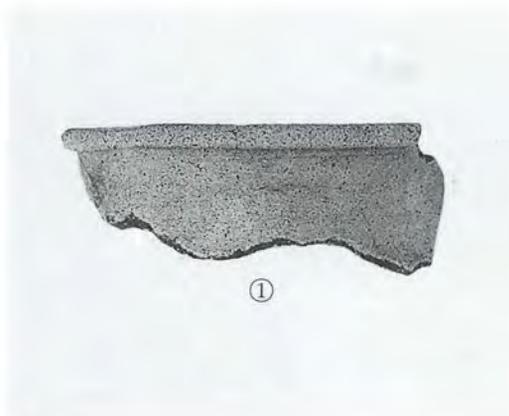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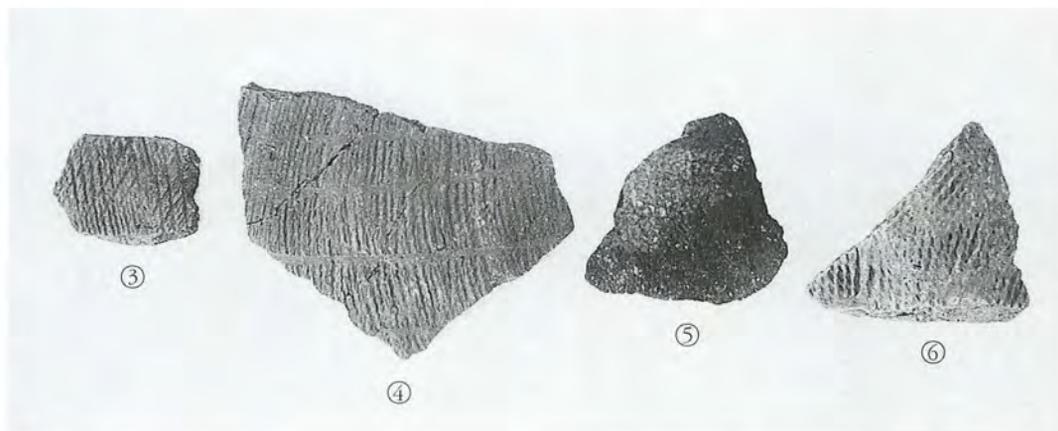
사진 8. 성동리유적 노출 주거지(①)와 토기(②)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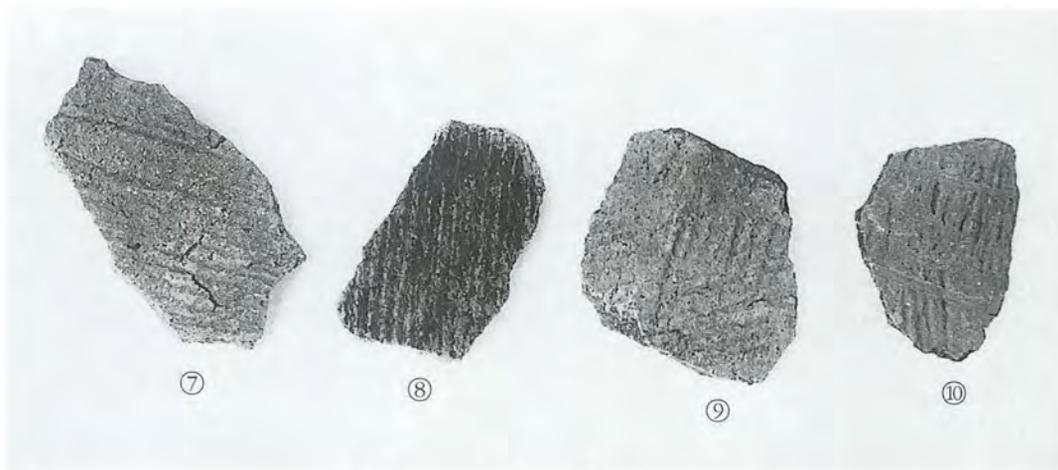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사진 9. 성동리유적 주거지 출토 유물(①~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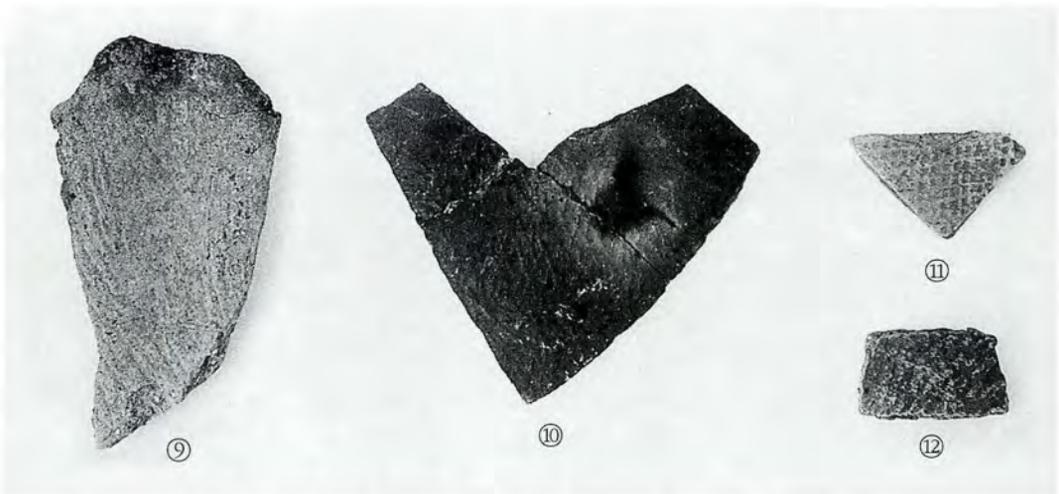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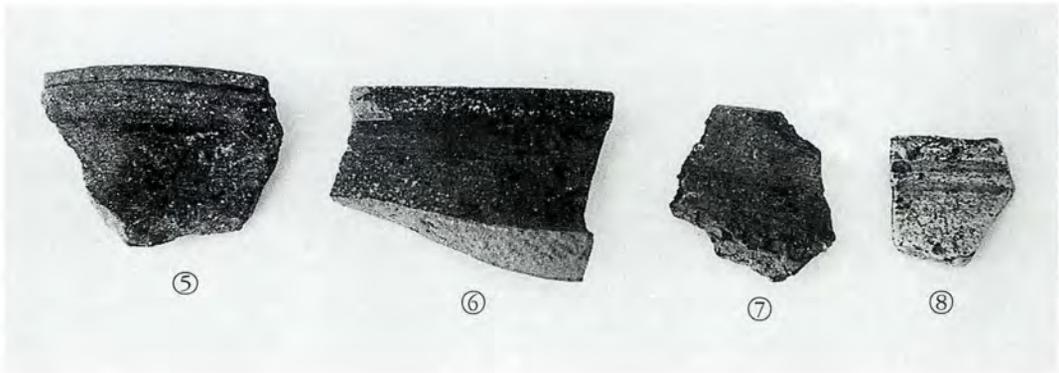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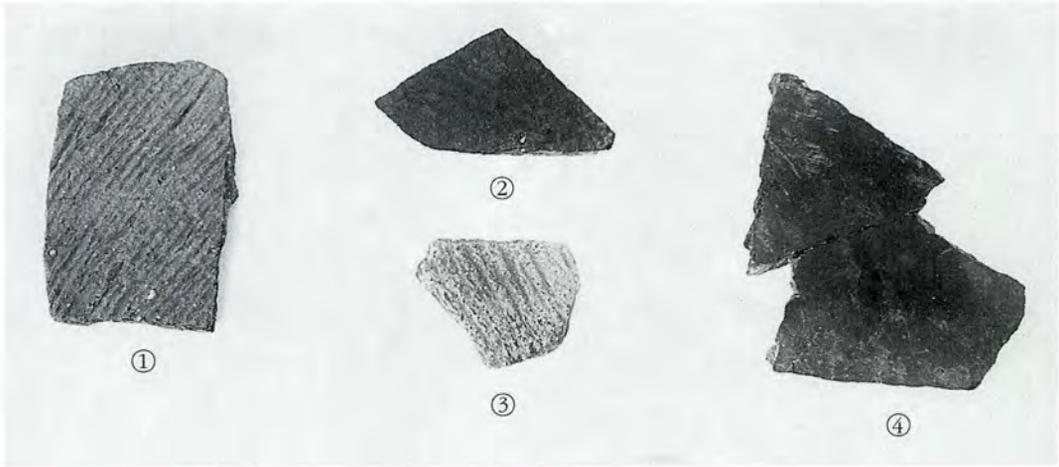


사진 10. 성동리유적 주거지 출토 유물(①~④)과 주변 채집 유물(⑤~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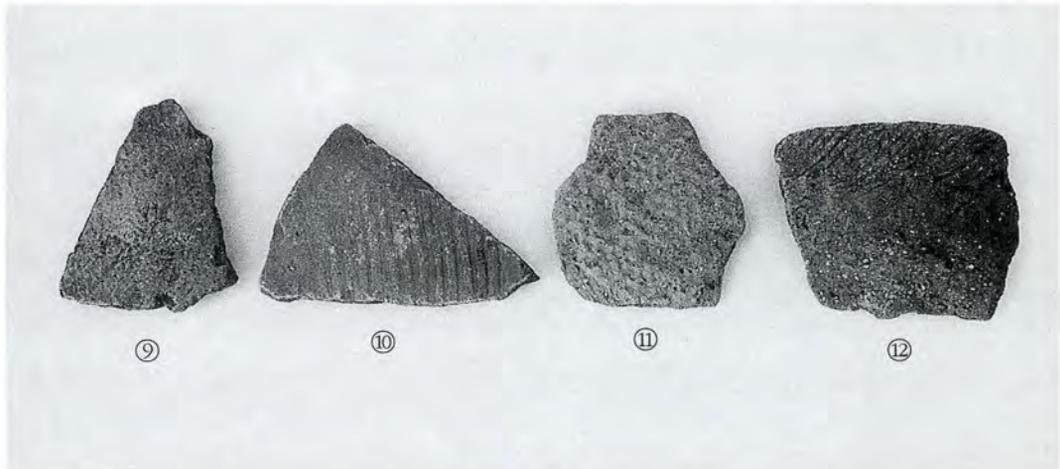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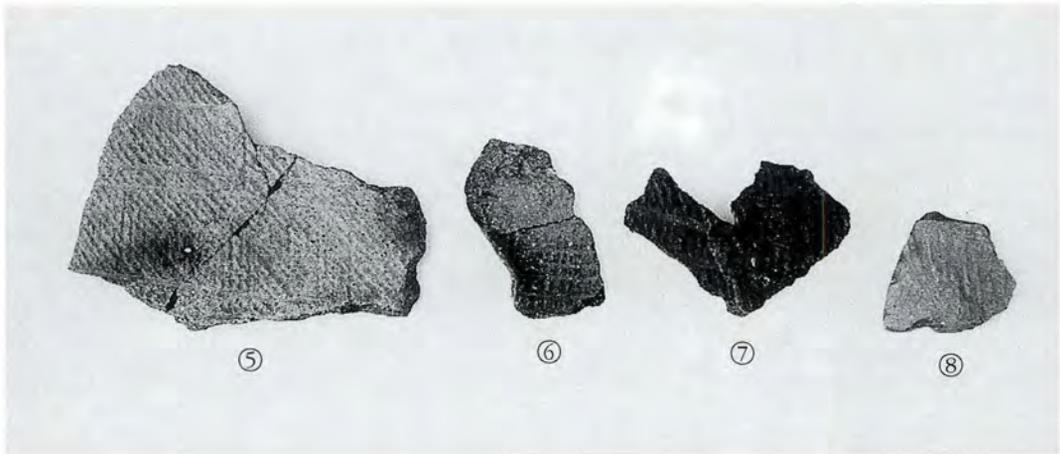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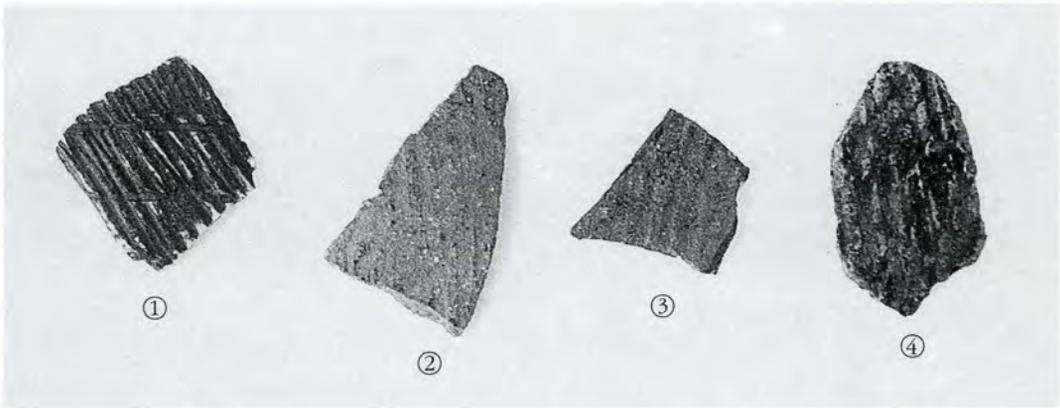


사진 11. 성동리유적 채집 유물(①~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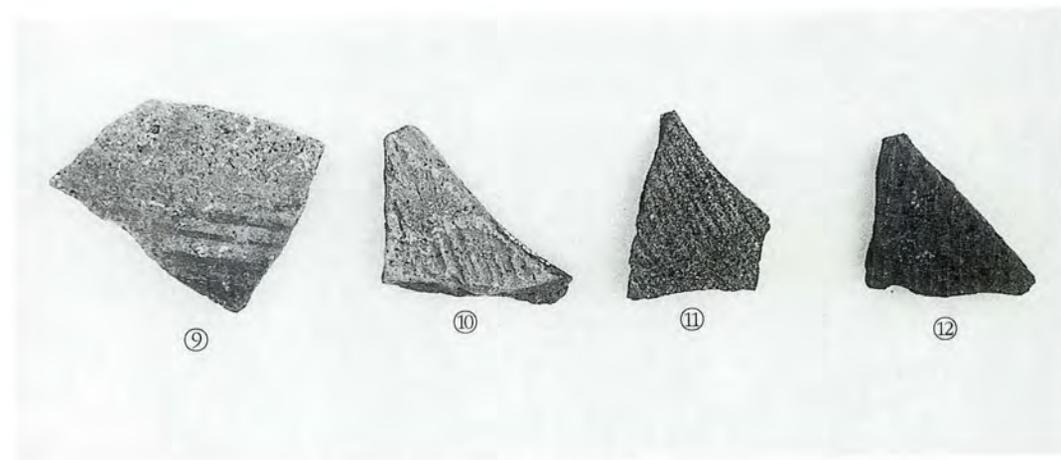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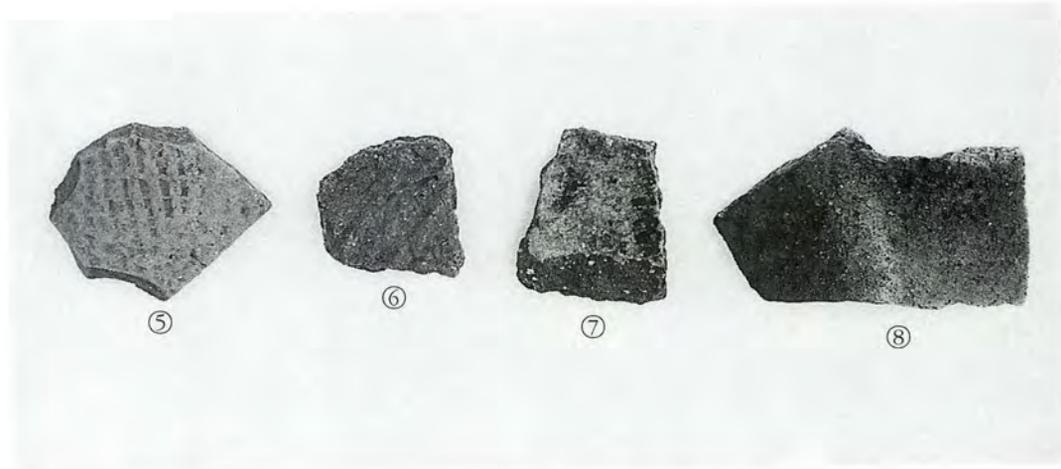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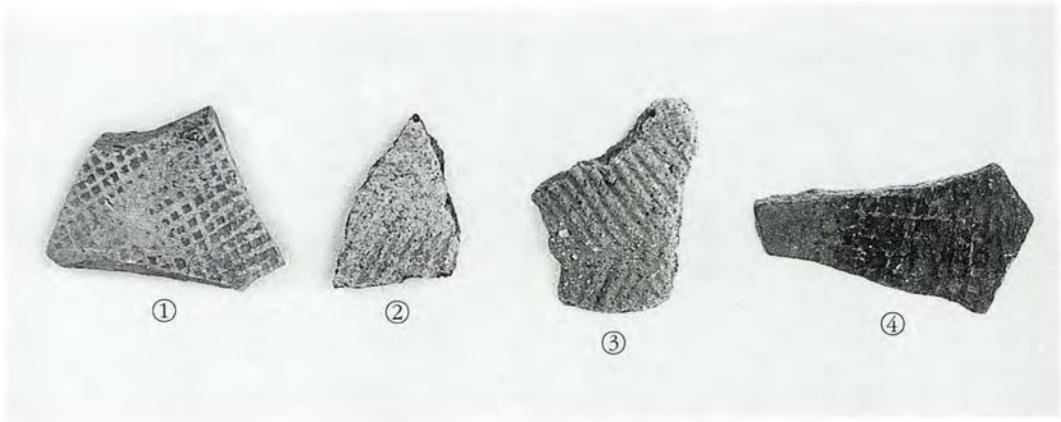


사진 12. 성동리유적 채집 유물(①~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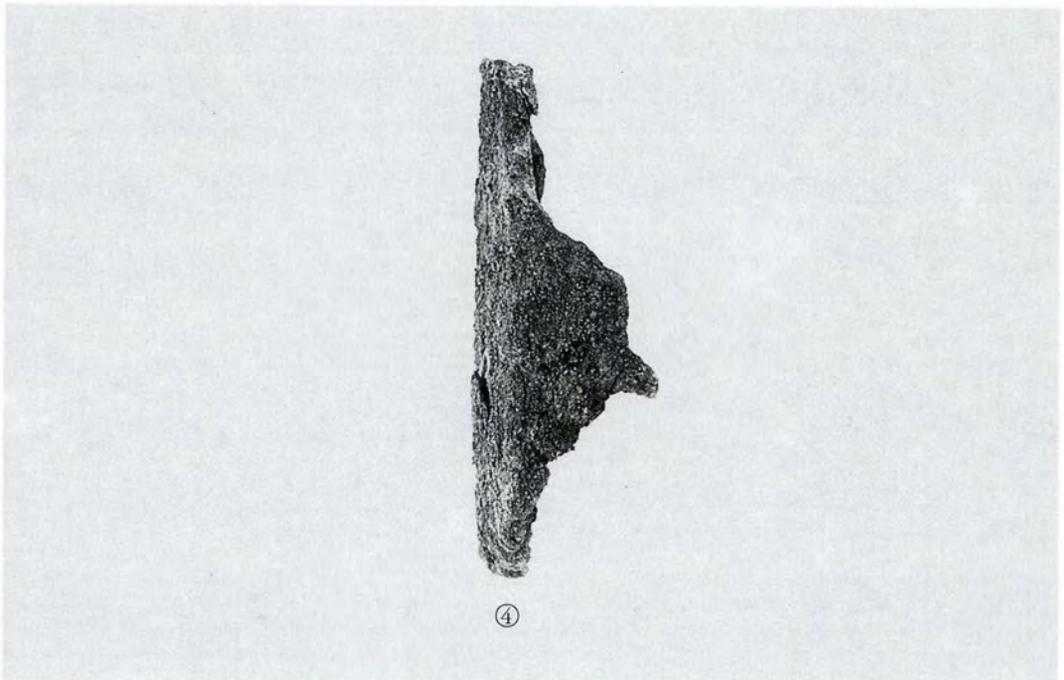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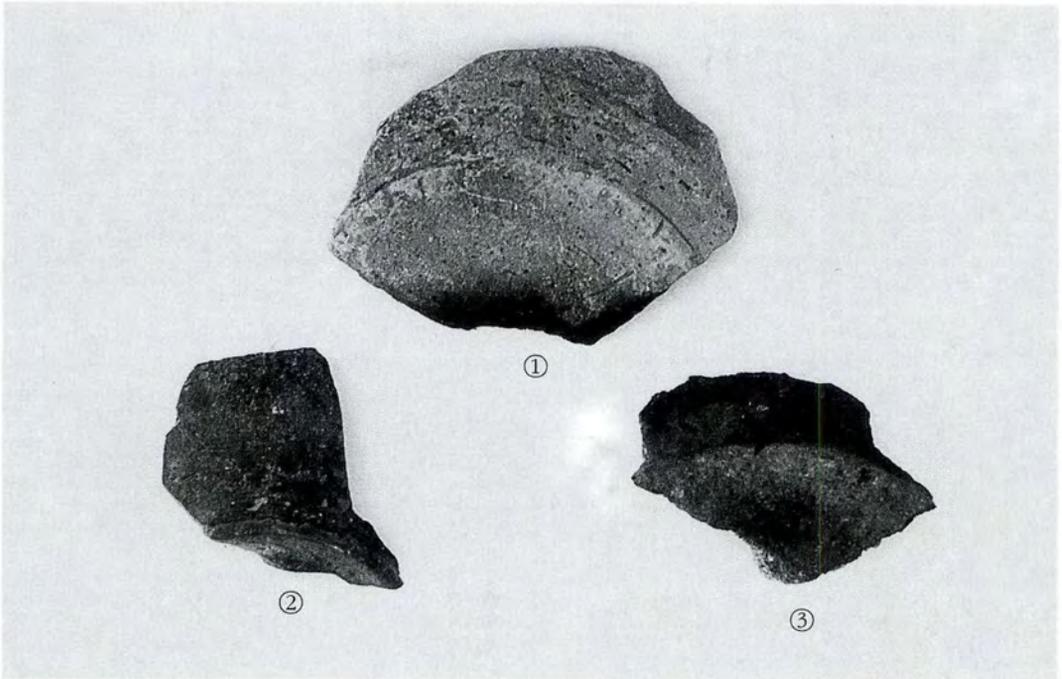


사진 13. 성동리유적 채집 유물(①~④)



①



②

사진 14. 노곡리 청동기시대 주거지 전경(①:근경, ②:주거지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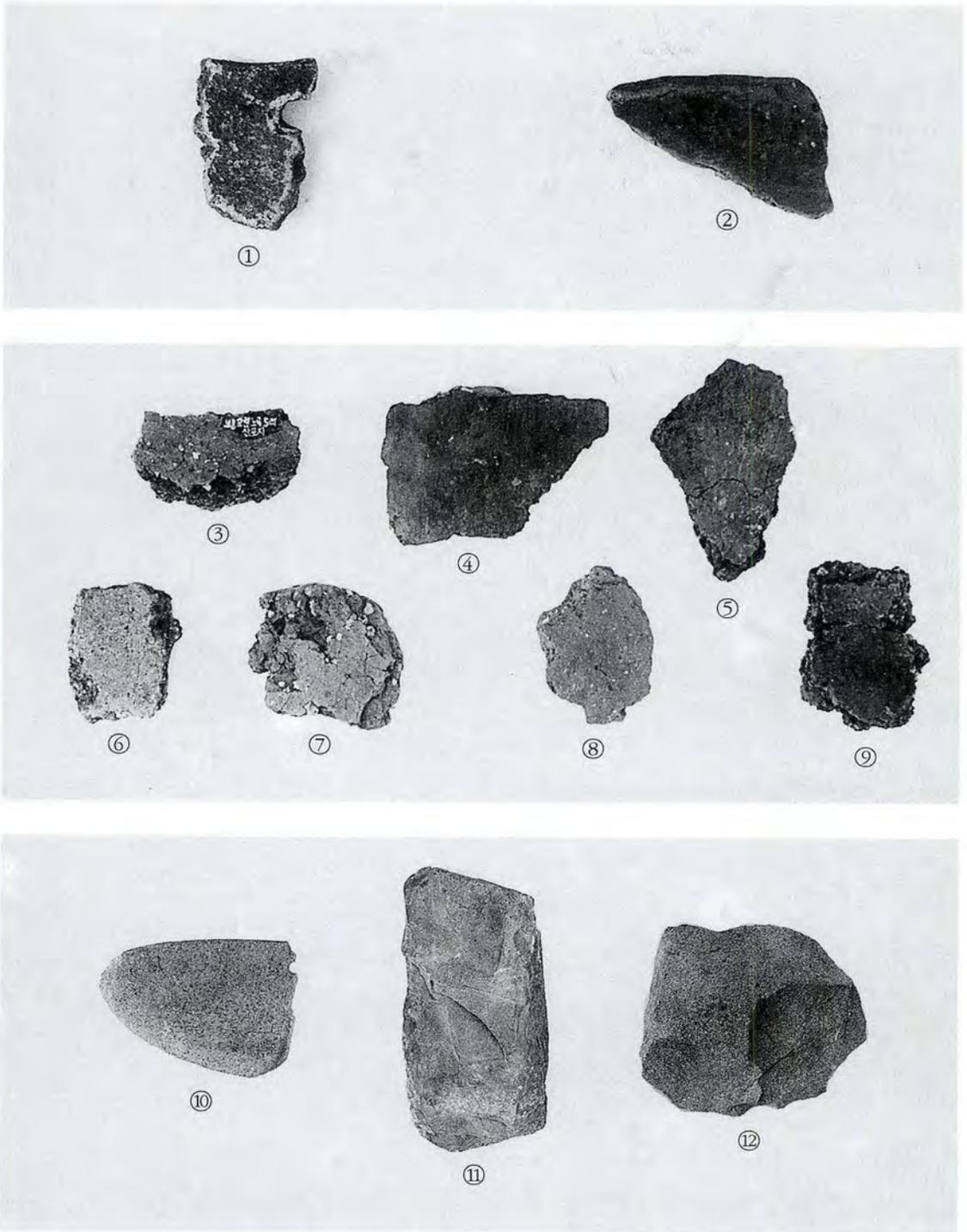


사진 15. 노곡리 주거지 채집 유물(①~⑫)



①



②

사진 16. 연곡리 만가대유적 전경(①:근경, ②:유적 파괴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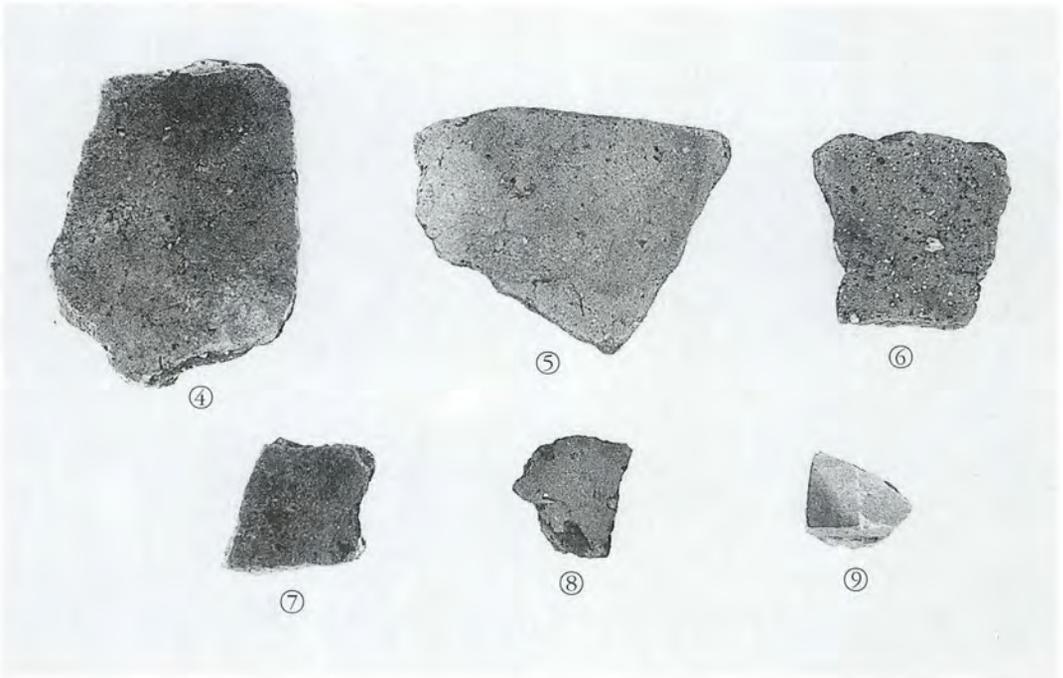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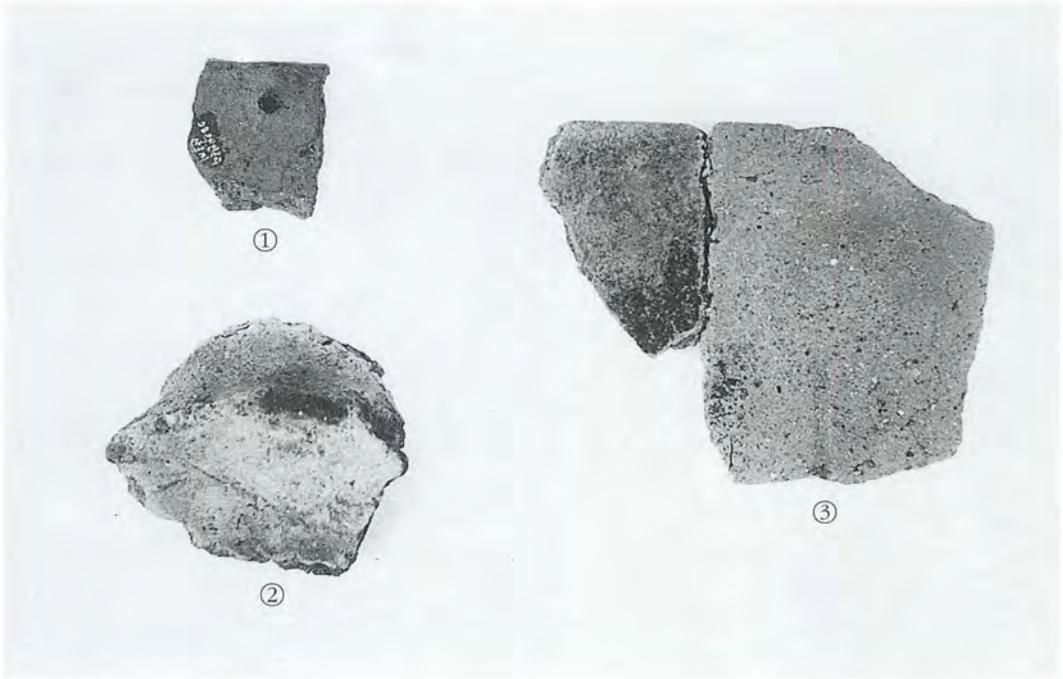


사진 17. 연곡리 만가대유적 채집 유물(①~⑨)

京畿道博物館 遺蹟調查報告 第 2 冊

抱川 城洞里 마을 遺蹟

인 쇄 일 : 1999년 12월 10일

발 행 일 : 1999년 12월 20일

펴 낸 곳 : 京 畿 道 博 物 館

☎ 4499-9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85

京 畿 道 博 物 館

☎ (0331) 285-2011~4

E · mail : Kgmuse@musenet.co.kr

편 집 : 도서출판 학연문화사 ☎ 02)865-5072

인 쇄 : 화흥문화사 ☎ 0331) 222-0003~4

The Excavation Report on the
Sungdong-ri Settlement Sites in Pochun County

1999

KYONGGI PROVINCIAL MUSEUM